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수요분석과 대응 전략 수립 연구

저 자 최용환, 김민주, 곽창규

연구진 책임연구원_최용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원_김민주(동양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공동연구원_곽창규(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연구보조원_박상민(세종대학교)
한희수(서울교육정책연구소 전문위원)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성남시 청소년서비스의 현황을 분석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청소년서비스에 대한 문헌을 분석함. 그리고 ① 작년의 코로나 확산기를 포함한 최근 수년간 성남시 청소년의 정책환경 분석, ②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청소년사업 수요의 규모 분석, ③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성남 청소년서비스의 조직, 사업, 경영, 혁신에 대한 진단, 그리고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전략과 과제 도출'을 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본 연구는 문헌연구, 2차 자료 및 성남청소년재단이 수행한 과거 연구의 원자료 기술통계 분석, 전문가들에 대한 AHP(분석적 계층화 방법), IPA(중요도-실행도) 매트릭스 분석, 서면을 통한 심층 의견 분석, 성남시 청소년들에 대한 서면을 통한 심층 의견 분석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함.
-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포스트코로나 및 사회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5~6월에 관련 문헌 연구를 실시함. 그리고 6월에는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관련 행정역량을 알아보기 위하여 '통계청 행정통계' 및 '2020년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수행한 '2020년 성남시 청소년 행복실태조사'의 원자료'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함. 또한 9월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전략과제와 개선전략'의 방향에 접근하기 위하여 성남시 재단 소속 전문가 8인을 무작

위로 추천받아 서면을 통한 심층의견 분석을 실시함. 나아가 같은 9월에는 ‘세부 추진전략 도출 및 포스트코로나 변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분석’을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전문가패널단 103인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성남시 재단소속 전문가 105인을 유의표집하였으며, 재단 소속 이외의 지역청소년전문가 20인도 역시 유의표집 하였음. 그리고 이들에 대하여 AHP(분석적 계층화 방법), IPA(중요도-실행도) 매트릭스 분석, 서면을 통한 심층의견 분석 등의 연구방법을 적용함. 마지막으로 성남시 청소년 33인을 대상으로 서면을 통한 청소년의견 심층분석을 실시함.

표 1. 본 연구의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대상	연구방법	기간
포스트코로나 및 사회변화	관련문헌	문헌연구	5-6월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관련 행정역량	- 통계청 행정통계 - 2020년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수행한 ‘2020년 성남시 청소년 행복실태조사’의 원자료	- 자료에 대한 기술통계	6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전략과제와 개선전략	- 성남시 재단 소속 전문가 8인 (무작위)	- 서면을 통한 심층의견 분석	9월
세부 추진전략, 포스트코로나 변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 분석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전문가패널단 103인 (무작위) - 성남시 재단소속 전문가 105인 (유의표집) - 재단 소속 이외의 지역청소년 전문가 20인	- AHP(분석적 계층화 방법) - IPA(중요도-실행도) 매트릭스 분석 - 서면을 통한 심층의견 분석	9월
청소년의견 분석	- 성남시 청소년 33인	- 서면을 통한 심층의견 분석	10월

3. 성남시청소년재단의 사업영역별 청소년서비스 분석

- 먼저 여성가족부의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과 성남시청소년재단의 ‘제3차 중장기 발전계획(2019~2023)’, 그리고 정책대상자에 따른 6개년 사업 분류를 분석함.
- 여성가족부의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성남시의 청소년 서비스 비중의 경우 사업 수와 예산에서 ‘영역2: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가 가장 높음. 한편 다른 영역의 경우 ‘영역1: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의 예산의 비중은 최근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의 12개 중점과제로 보면 ‘청소년체험활동 활성화(2-2)’가 사업 수와 예산에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사업 수에서는 최근 ‘청소년 주도 시민 핵심역량 강화(1-1)’가 꾸준히 증가함.
- ‘적극적인 청소년 권리 보장(2-1)’의 사업 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함. 예산에서는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3-2)’이 꾸준히 증가함. 성남시청소년재단의 ‘제3차 중장기 발전계획(2019~2023)’에 따른 3대 전략 목표를 기준으로 사업 수를 분석하면 1대 전략목표에 해당하는 ‘1. 건강하고 창의적인 시민 청소년’이 가장 많음. 한편, 2대 전략목표인 ‘2.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 플랫폼’은 최근 증가함. 사업예산으로 보면 2016년 이후 2대 전략목표인 ‘2.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 플랫폼’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순으로는 1대 전략목표에 해당하는 ‘1. 건강하고 창의적인 시민 청소년’, ‘3. 청소년과 함께하는 재단’으로 확인됨.
- ‘제3차 중장기 발전계획(2019~2023)’의 세부 실행과제 수준에서 ‘청소년 인권침해 대응체계 구축(2-1-1)’과 ‘청소년 중심의 디지털 플랫폼 조성(2-2-2)’에 관한 사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부분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정책대상자에 따른 관련 사업

현황 분석으로 사업 수와 예산의 추이를 확인하였음. 정책대상자별 사업 수 현황과 예산에서 모두 '9-18세'에 해당하는 청소년 사업의 경우 대략 20%를 상회하며 가장 많음. 또한 '13-18세' 청소년 관련 사업 비중도 2020년을 제외하고 계속 증가함.

- '19-24세'와 '9-24세'를 모두 포함하는 관련 청소년 사업 비중은 상당히 낮음. '13-24세' 청소년 비중도 감소하고 있어 후기청소년과 관련한 사업 및 중기 청소년과 후기청소년의 역량을 함께 확대할 수 있는 성남형 청소년 서비스 정책의 방향성을 제고할 수 있음. 또한, 청소년 사업 수 현황에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시민을 모두 포함하는 '모든 시민'과 지역의 여러 정책대상자들을 혼합하는 '지역공동체' 관련 사업 역시 각각 15%,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청소년서비스 사업이 지역 공동체를 도모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파악함.
- '모든 시민'의 경우 예산에서도 연도별 차이는 있지만 대략 2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꾸준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청소년지도사와 관련한 사업 수는 대략 5%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었으나 예산의 경우 비중이 크지 않아 청소년 서비스 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지도 종사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도 필요함.

4.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종합 진단

-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종합 진단은 행정 통계에 기초한 행정역량과 청소년정책 환경변화, 그리고 전달체계와 거버넌스의 주요 내용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우선, 행정통계에 기초한 행정역량은 인구, 경제, 재정, 사회 각 영역별 주요 지표의 증감 형태를 통해 확인함.
- 인구의 경우 감소 추이(인구수, 출산율, 청소년 인구비율 감소)가 주요 특징임.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제활동인구·고용률·청년고용률 감소와 실업률·

지역내총생산의 증가가 나타남. 재정의 경우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모두 감소함. 사회 영역의 주요 항목들은(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예산, 보육시설, 의료기관종사자 의사 수, 요양기관, 문화기반시설)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음. <그림 1>은 이에 대해 나타낸 것임.



그림 1. 성남시 청소년서비스의 주요 행정역량(행정통계 기초)

- 이러한 행정역량과 함께 청소년정책의 환경 변화에 대한 진단 역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검토되어야 함.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발생은 정책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임.
- 물론 인구와 기술 영역에서는 기존의 변화가 계속되는 경향을 보임. 인구감소와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기술 변화 등이 그에 해당함. 하지만 사회 영역에서는 기존의 불평등, 갈등 문제, 삶의 질 강조 등의 모습이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심리적 또는 정서적 건강 문제 증대, 경제활동 위축, 그리고 소득불평등 악화 등이

단적인 사례들임. 교육영역에서도 코로나19는 수업방식과 시스템의 변화, 학력 저하 문제와 청소년정책 대응 역량이 강조되는 형태로 영향을 미쳤음. <그림 2>는 주요 정책 환경별 코로나19 이후의 영향을 간략히 나타내고 있음.



그림 2. 코로나19에 따른 청소년 정책환경 변화

-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전달체계와 거버넌스 역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현황 진단 대상이 됨. 우선 전달체계는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보호복지시설, 교육시설·도서관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음. 각 시설별로 세부 기관(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학교밖 배움터, 청소년 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 의해 구체적인 전달체계를 형성함. 이와 함께 청소년서비스 거버넌스는 성남청소년균형동반 협의체, 성남시 청소년 행복회의, 지역사회 민관 협의체 및 기타 의견 수렴 활동을 통해 구성됨.

- 이러한 전달체계와 거버넌스는 청소년서비스 수, 청소년 1인당 사업 수, 청소년서비스 예산, 청소년 1인당 사업예산 집행과 관련되어 운영됨. 각 운영요소들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청소년서비스 수와 청소년서비스 예산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감소함. <그림 3>은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전달체계와 거버넌스 전반을 나타냄.



그림 3.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전달체계와 거버넌스

-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성남형 청소년서비스는 이러한 행정역량, 청소년정책 환경변화, 그리고 전달체계와 거버넌스 현황 진단을 기초로 하여 방향성이 설정되어야 함. 물론 여기에는 보다 구체적인 방향 제시를 위해 전략 도출 예비조사나 관련자 대상의 의견 등이 반영됨. 그리하여 추가 분석이 진행되지만, 그에 앞서 현황 중심의 이러한 종합 진단이 필수적임. 특히 지역 특성 및 내재적 역량 기반의 전략적 방향 모색과 시의적절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청소년서비스를 위해서는 더욱 필요함.

5.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남형 청소년서비스의 방향 전환 프레임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전략과제와 개선전략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남시 청소년전문가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8인에게 전략수립 예비조사를 실시함. 본 예비조사는 9월 중순부터 열흘간 포스트코로나 시대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전략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예비조사 결과, 공간과 사업의 개방성, 공간공유, 멤버십 서비스, 정보접근성 강화로 진입장벽 해소가 필요하며 메타버스 플랫폼 등 온라인 플랫폼 활용모색, 청소년활동 역량계량지수 도입으로 성장맵 구축, 청소년이 참여하는 성과관리 제도, 청소년 중심의 ESG경영 가치 창조, 청년이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청년 구성전담부서 등 지속성을 가진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남.
- 이를 종합하면 재단과 재단 내 청소년시설 조직변화 등에 관련한 조직 관련 의견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리고 아동 관련 돌봄 강화, 관련 사업 예산 증액, 가족활동사업, 아동권리증진 등 아동 관련 사업, 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 자립준비청년 등 지역 연계한 청년 인큐베이팅 업무와 공간 지원 등 청년 관련 사업, 그리고 균형동반협의체 등 코로나 시기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사업 발굴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청소년시설의 신규 사업의 발굴을 의미하는 사업관련 전략으로 정리할 수 있음.
- 비대면 청소년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온택트 기반 구축 등 비대면 및 청소년 트렌드에 맞는 공간혁신은 공통적으로 기존의 사업이나 자원을 바탕으로 한 생산적인 변화, 비대면 청소년서비스 강화, 학습지원사업 등의 혁신 관련 전략으로 종합할 수 있음. 또한 온라인 및 디지털 기반 역량 및 자기관리 역량, 지역사회 청년안전망, 청년 사각지대 해소 협력, 민간과 협업, 민간 프로그램 지원예산 확대 등으로 언급된 의견은 재단을 넘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효율화 전략,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등 경영 관련 전략으로 묶어볼 수 있음.

- 지금까지 본 예비조사 결과를 보면 포스트코로나 시대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전략의 영역은 크게 4가지 영역임. 구체적으로 재단과 재단 내 청소년시설 조직변화 등을 의미하는 ‘(A)조직변화’, 청소년시설의 신규 사업의 발굴 등을 뜻하는 ‘(B)사업변화’, 기존의 사업이나 자원을 바탕으로 한 생산적 변화, 비대면 청소년서비스 강화, 학습지원사업 등을 설명하는 ‘(C)혁신변화’, 그리고 재단을 넘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효율화 전략, 지역사회와 연계 강화 등을 의미하는 ‘(D)경영변화’임. 그리고 예비조사 결과를 통해 그 세부 과제를 각 5개 내외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2.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포스트코로나 시대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전략영역과 세부 전략과제

전략영역	세부 전략과제
(A)조직변화	A-1)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재단 조직변화
	A-2) 재단 내의 청소년사업의 성과관리 기능강화
	A-3) 성남형 청소년 성장 데이터 구축 및 재단의 총괄관리
	A-4) 비대면 청소년서비스 플랫폼 구축
	A-5) 청년정책 전담부서 기능강화
(B)사업변화	B-1) 아동(9~12세)관련 사업 예산증액
	B-2) 청년(19세 이상)관련 사업 예산증액
	B-3) 지역의 산업시설과 연계한 청년일자리 정보지원사업
	B-4) 신기술(4차산업, 인공지능)대응 관련 사업발굴
	B-5) 지역사회 청소년서비스 자원과의 연계사업 발굴
(C)혁신변화	C-1) 청소년 사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강화
	C-2) 비대면 청소년 사업확대
	C-3) 학교의 비대면 수업확대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
	C-4)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성남형 플랫폼 개발
	C-5) 비대면 사업강화에 따른 기존의 청소년공간 혁신
(D)경영변화	D-1) 청소년생태계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화 마련(조례 제개정)
	D-2) 포스트코로나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D-3) 청소년사업에 대만 민/재단 협업 강화
	D-4) 청년사업에 대한 민/재단 협업 강화
	D-5) 청소년과 청년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사업 확대

- 이와 같은 예비조사 결과는 앞서 살펴본 성남형 청소년서비스의 수요분석과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청소년서비스의 방향성을 제시함. 기본적인 방향성을 나타내는 프레임은 <그림 4>와 같음. 즉, 성남시의 내부변화와 외부변화를 통해 조직변화, 사업변화, 혁신변화, 경영변화로 이어지는 구조임.
- 여기서 성남시의 내부 변화는 코로나19 이후 성남시 청소년 삶의 변화 지수와 성남시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도에 기초하여 진단 할 수 있고, 외부 변화는 인구, 기술, 사회, 교육 분야별로 진단할 수 있음. 그 결과는 예비조사에서 살펴본 네 가지 전략영역으로 연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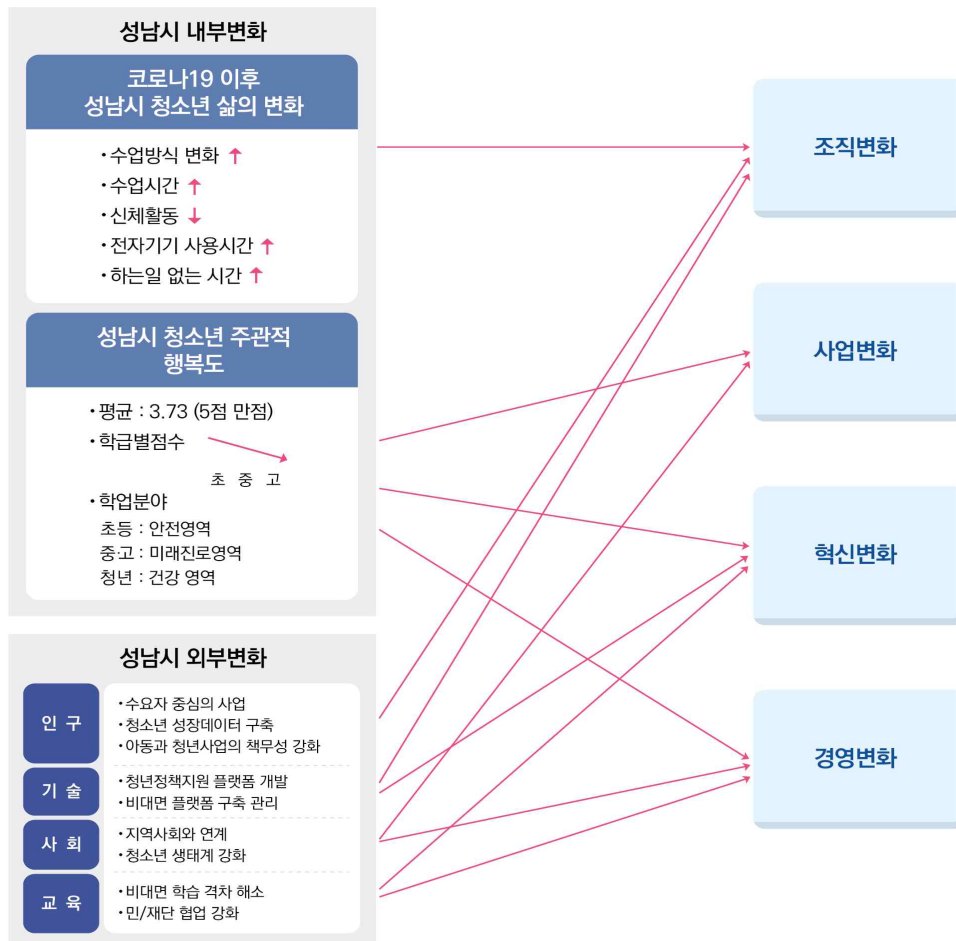


그림 4. 성남형 청소년서비스의 기본 방향 프레임

- 이러한 기본 프레임은 앞서 살펴본 행정역량, 청소년정책 환경변화, 그리고 전달체계와 거버넌스 현황 진단과 함께 구체적인 포스트코로나 이후의 청소년서비스 방향성을 제시함. 조직변화(수요자 중심의 사업, 성과관리, 청소년 성장데이터 관리, 비대면 플랫폼 구축, 청년정책 확대), 사업변화(아동과 청년 사업으로 책무성 확대, 지역사회와 사업 연계, 신기술 대응), 혁신변화(비대면 학습격차 해소, 사회적 가치 강화, 비대면 사업 확대, 청년정책 지원), 경영변화(청소년생태계 강화 제도화, 지도사 역량 강화, 민/재단 협업 강화, 수요자 중심의 리빙랩 사업) 각각의 구체적인 전략 과제 및 사업도출이 그에 해당함. 이들은 전환에 가까운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5>는 이에 대한 것으로 성남형 청소년서비스의 방향 전환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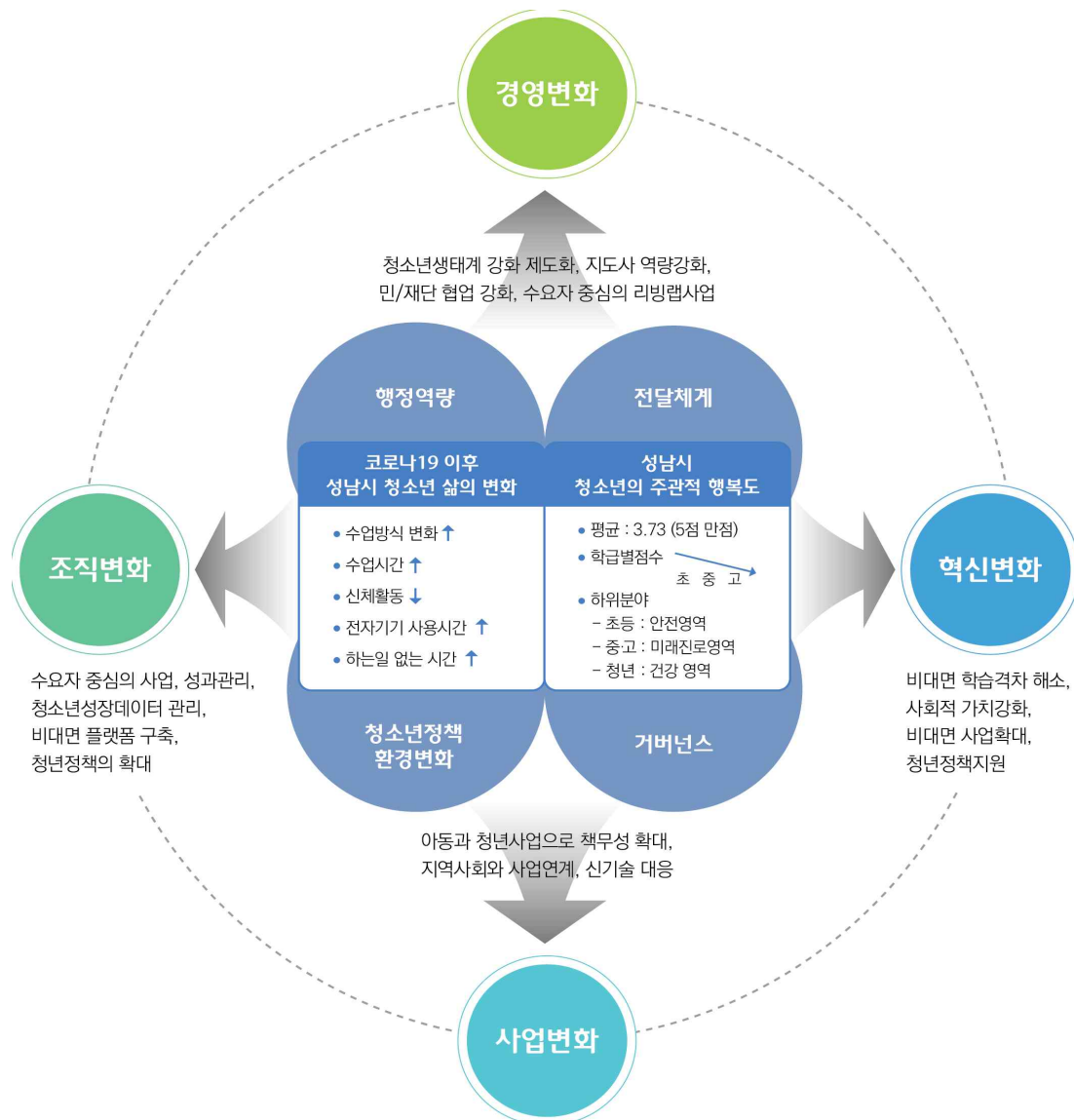


그림 5. 성남형 청소년서비스의 방향 전환 프레임

6.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전략 도출을 위한 주요 사항별 중요도(AHP분석)

- 청소년 전문가들이 청소년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정책대상자에 대한 중요도를 판단한 결과에 따르면, 그 가중치는 ‘청년’, ‘청소년’, ‘아동’ 순으로 나타남. 가장 높은 가중치로 계산된 청년은 42.2%이고, 청소년은 31.8%, 아동은 26%임.

- 따라서 청소년 전문가들이 청소년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정책대상자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은 청년이며, 이는 가장 낮은 아동보다 16.2% 포인트 높은 수준임. <그림 6>은 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임.
- 청소년 전문가별로 중요성에 대한 가중치 차이를 보면, 대체로 청년이 가장 높은 중요도 보인다는 점에서는 전체적인 중요도 양상과도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예컨대 분당구 청소년시설 청소년 전문가들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이는 정책대상자로 청소년을 들고 있음. 이와 함께 아동을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중요도를 지닌 정책대상자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사례(수정구 청소년 시설, 재단 외 청소년 전문가)도 존재함. 하지만 전반적인 가중치 순위인 청년, 청소년, 아동 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음.

그림 6. 청소년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정책대상자 중요도 분석 결과

- 청소년 전문가들이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추진체계의 중요성에 대해 판단한 결과에 따르면, 그 가중치는 ‘지역사회 청소년 거버넌스’,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시설’, ‘교육청’, ‘성남시청’ 순으로 나타났음. 가장 높은 가중치로 계산된 지역사회 청소년 거버넌스는 32.9%이고,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시설은 29.6%, 교육청은 18.9%, 성남시청은 18.6%임. 따라서 청소년 전문가들이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추진체계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역사회 청소년 거버넌스이며, 이는 가장 낮은 성남시청보다 14.3% 포인트 높은 수준임. <그림 7>은 그에 대한 결과임.
- 청소년 전문가별로 중요성에 대한 가중치 차이를 보면, 대체로 지역사회 청소년 거버넌스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인다는 점에서는 전체적인 중요도 양상과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는 존재함을 알 수 있음. 예컨대 분당구 청소년시설 청소년 전문가들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이는 추진체계로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시설을 들고 있음. 이와 함께 성남시청을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중요도를 지닌 추진체계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사례(수정구 청소년 시설, 재단 외 청소년 전문가)도 존재함. 하지만 전반적인 가중치 순위인 지역사회 청소년 거버넌스,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시설, 교육청, 성남시청 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음.

그림 7. 미래사회 변화 대응 추진체계의 중요성 분석 결과

- 청소년 전문가들이 성남시 청소년서비스의 개선 방향에 대한 중요도를 판단한 결과에 따르면, 그 가중치는 ‘경영변화’, ‘혁신변화’, ‘사업변화’, ‘조직변화’ 순으로 나타났음. 가장 높은 가중치로 계산된 경영변화는 34.2%이고, 혁신변화는 26%, 사업변화는 20.2%, 조직변화는 19.6%임. 따라서 청소년 전문가들이 성남시 청소년서비스의 개선 방향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영변화이며, 이는 가장 낮은 조직변화보다 14.6% 포인트 높은 수준임. <그림 8>은 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임.
- 청소년 전문가별로 중요성에 대한 가중치 차이를 보면, 모두 경영변화를 가장 높은 중요도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중요도 양상과도 비슷함. 다만 다소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예컨대 조직변화를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중요도를 지닌 개선 방향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사례(수정구 청소년 시설, 중원구 청소년 시설, 재단 외 청소년 전문가)가 그에 해당함. 하지만 이 역시 전반적인 가중치 순위인 경영변화, 혁신변화, 사업변화, 조직변화 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음.

그림 8. 성남시 청소년서비스의 개선 방향 중요도 분석 결과

7. 미래 사회변화 대응, 성남시 제3차 중장기 발전계획,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지역사회 거버넌스에 대한 중요도-성과(IPA)분석

1) 성남시 청소년전문가(재단소속) 대상 IPA 분석 결과

- 인구변화, 기술변화, 사회변화, 교육변화, 경제변화, 청소년 정책 변화에 대한 성남시 청소년전문가(재단소속) 대상 IPA분석결과는 <그림 9>와 같으며 이를 보면, 유지강화 영역에는 총 3개의 대응 과제가 포함됨. ‘기술변화’, ‘사회변화’, ‘교육변화’가 그에 해당함. 이에 대한 대응 과제들은 중요성이 높으면서 동시에 성과도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향후에도 계속 유지강화될 필요가 있음.
- 중점 개선 영역에는 총 1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인구변화’가 그에 해당됨. 이 대응 과제는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낮은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향후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대상임. 전략적 관점에서도 이 과제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특히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전략과 개선 과제 도출과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과제인 점진 개선 영역에는 총 1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경제변화’가 그에 해당됨. 중요도도 낮고 성과도 낮은 경우로서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 과제인 지속 유지 영역에도 총 1개의 과제가 포함되며, ‘청소년 정책 변화’가 그에 해당됨. 이 과제는 중요도는 낮으나 성과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류되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그림 9. 사회변화 대응에 대한 IPA 결과(성남시)

- <그림 10>은 성남시 제3차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성남시 청소년전문가(재단 소속) 대상 IPA분석결과임. 각 영역별 해당 과제를 보면, 유지강화 영역에는 총 3개의 과제가 포함됨. ‘대상 현안별 맞춤 서비스 제공’, ‘적극적인 청소년 권리 보장’, ‘지역사회 청소년 플랫폼 기능 강화’가 그에 해당됨. 성남시 제3차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이에 대한 과제들은 중요성이 높으면서 동시에 성과도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 유지강화 될 필요가 있음.
- 중점 개선 영역에는 총 1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청소년 지원 거버넌스 형성’이 그에 해당됨. 이 과제는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낮은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임. 전략적 관점에서도 이 과제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전략과 개선과제 도출과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과제임.
- 점진 개선 영역에는 총 2개의 과제가 포함되며 ‘청소년 주도 시민 핵심 역량 강화’, ‘청소년 거버넌스 형성’이 그에 해당됨. 중요도도 낮고 성과도 낮은

경우로서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 과제임. 지속 유지 영역에는 총 1개의 과제가 포함되며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이 그에 해당됨. 이 과제는 중요도는 낮으나 성과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류되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그림 10. 성남시 제3차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IPA 결과(성남시)

- 다음은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에 대한 성남시 청소년전문가(재단소속) 대상 IPA분석결과임. 여기에는 다시 수련관, 문화의 집, 보호복지시설로 나누어서 분석함. 우선 수련관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보면 <그림 11>과 같음.
- 구체적으로 각 영역별 해당 과제를 보면, 유지강화 영역에는 총 4개의 과제가 포함되며 ‘인력의 전문성’,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 ‘예산의 규모’, ‘예산편성 시 시설의 특성 반영’이 그에 해당됨. 이에 대한 과제들은 중요성이 높으면서 동시에 성과도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향후에도 계속 유지강화될 필요가 있음. 점진 개선 영역에는 총 2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인력 규모’,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이 그에 해당됨. 중요도도 낮고 성과도 낮은 경우로서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 과제임. 지속 유지

영역에는 총 1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프로그램의 규모’가 그에 해당됨. 이 과제는 중요도는 낮으나 성과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류되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한편, 중점 개선 영역에 해당하는 과제는 없음.



그림 11.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에 대한 IPA 결과: 수련관(성남시)

- <그림 12>는 문화의 집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구체적으로 각 영역별 해당 과제를 보면, 유지강화 영역에는 총 2개의 과제가 포함됨.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 ‘예산편성 시 시설의 특성반영’이 그에 해당됨. 이에 대한 과제들은 중요성이 높으면서 동시에 성과도 높은 상태임. 따라서 향후에도 계속 유지강화 될 필요가 있음. 중점 개선 영역에도 총 2개의 과제가 포함됨. ‘인력의 전문성’,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이 그에 해당함. 이 과제는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낮은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임. 점진 개선 영역에는 총 1개의 과제가 포함됨. ‘인력규모’가 그에 해당됨. 중요도도 낮고 성과도 낮은 경우로서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 과제임. 지속 유지 영역에는 총 2개의 과제가 포함

되며, ‘프로그램의 규모’와 ‘예산의 규모’가 그에 해당함. 이 과제는 중요도는 낮으나 성과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류되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그림 12.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에 대한 IPA 결과: 문화의 집(성남시)

- <그림 13>은 보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구체적으로 각 영역별 해당 과제를 보면, 유지강화 영역에는 총 3개의 과제가 포함되며 ‘인력의 전문성’,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 ‘예산편성 시 시설의 특성반영’이 그에 해당됨. 이에 대한 과제들은 중요성이 높으면서 동시에 성과도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향후에도 계속 유지강화 될 필요가 있음. 중점 개선 영역에는 총 1개의 과제가 포함되며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이 그에 해당됨. 이 과제는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낮은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임.
- 점진 개선 영역에도 총 1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인력 규모’가 그에 해당됨. 중요도도 낮고 성과도 낮은 경우로서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 과제임. 지속 유지 영역에는 총 2개의 과제가 포함. ‘프로그램의

규모'와 '예산의 규모'가 그에 해당됨. 이 과제는 중요도는 낮으나 성과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류되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그림 13.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에 대한 IPA 결과: 보호복지(성남시)

- <그림 14>는 지역사회 거버넌스에 대한 IPA분석임. 구체적으로 각 영역별 해당 과제를 보면, 유지강화 영역에는 총 2개의 과제가 포함되며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의 다양성', '지역 연계 협업 사업의 활성화 정도'가 그에 해당 됨. 이에 대한 과제들은 중요성이 높으면서 동시에 성과도 높은 상태이며, 향후에도 계속 유지강화 될 필요가 있음.
- 중점 개선 영역에도 총 2개의 과제가 포함되며, '새로운 지역사회 네트워크 발굴 노력도', '지역 연계 협업 사업 종류의 다양성'이 그에 해당됨. 이 과제는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낮은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임. 점진 개선 영역에는 총 1개의 과제가 포함 되며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 결과의 정책수용성'이 그에 해당됨. 중요도도 낮고 성과도 낮은 경우로서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 과제인 지속 유지 영역에는 총 3개의 과제가 포함됨.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규모',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의 적극성’, ‘지역 연계 협업 사업의 발굴 노력도’가 그에 해당됨. 이 과제들은 중요도는 낮으나 성과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류되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그림 14. 지역사회 거버넌스에 대한 IPA 결과(성남시)

2) 성남시 지역 청소년전문가(재단 외) 대상 IPA 분석 결과

- 재단소속 전문가에 이어 성남시 지역 청소년전문가를 대상으로 인구변화, 기술변화, 사회변화, 교육변화, 경제변화, 청소년 정책 변화에 대한 성남시 청소년전문가(재단 외) 대상 IPA분석결과는 <그림 15>와 같음. 우선 사회변화 대응에 각 영역별 해당 과제를 보면, 우선 유지강화 영역에는 총 1개의 대응 과제가 포함되며 ‘사회변화’가 그에 해당됨. 이에 대한 대응 과제는 중요성이 높으면서 동시에 성과도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유지강화 될 필요가 있음.

- 중점 개선 영역에도 총 1개의 과제가 포함되며 ‘교육변화’가 그에 해당됨. 이 대응 과제는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낮은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향후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대상임. 특히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전략과 개선과제 도출과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과제인 점진 개선 영역에는 총 2개의 과제가 포함됨. ‘경제변화’, ‘청소년정책 변화’가 그에 해당함. 중요도도 낮고 성과도 낮은 경우로서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 과제인 지속 유지 영역에도 총 2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인구변화’, ‘기술변화’가 그에 해당됨. 이 과제는 중요도는 낮으나 성과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류되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그림 15. 사회변화 대응에 대한 IPA 결과(지역)

- <그림 16>은 성남시 제3차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결과임. 각 영역별 해당 과제를 보면, 유지강화 영역에는 총 2개의 과제가 포함되며, ‘대상 현안별 맞춤 서비스 제공’, ‘적극적인 청소년 권리 보장’이 그에 해당함. 이 과제들은

중요성이 높으면서 동시에 성과도 높은 상태임.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 유지강화 될 필요가 있음. 중점 개선 영역에는 총 2개의 과제가 포함되며, ‘지역사회 청소년 플랫폼 기능 강화’, ‘청소년 지원 거버넌스 형성’이 그에 해당함. 이 과제는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낮은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임.

- 점진 개선 영역에는 총 1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청소년 주도 시민 핵심 역량 강화’가 그에 해당함. 중요도도 낮고 성과도 낮은 경우로서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 과제임. 지속 유지 영역에는 총 2개의 과제가 포함됨. ‘청소년과 함께하는 재단 경영’,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이 그에 해당함. 이 과제는 중요도는 낮으나 성과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류되어 향후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그림 16. 성남시 제3차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IPA 결과(지역)

-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에 대한 중요도-성과 분석은 성남시 청소년전문가 대상의 조사와 마찬가지로 수련관, 문화의 집, 보호복지시설로 나누어서 분석함. 우선 성남시 지역 청소년전문가들이 인식하는 수련관의 IPA분석 결과

는 <그림 17>과 같으며, 유지강화 영역에는 총 3개의 과제가 포함됨. ‘인력의 전문성’,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이 그에 해당됨. 이에 대한 과제들은 중요성이 높으면서 동시에 성과도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유지강화 될 필요가 있음.

- 중점 개선 영역에는 총 1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편성 시 시설의 특성반영’이 그에 해당됨. 이 과제는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낮은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임. 점진 개선 영역에는 총 3개의 과제가 포함됨. ‘인력 규모’, ‘프로그램의 규모’, ‘예산의 규모’가 그에 해당됨. 중요도도 낮고 성과도 낮은 경우이며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 과제임. 한편, 지속 유지 영역에 해당하는 과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7.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에 대한 IPA 결과: 수련관(지역)

- 문화의 집의 결과는 <그림 18>과 같음. 각 영역별 해당 과제를 보면, 유지강화 영역에는 총 2개의 과제가 포함되며 ‘인력의 전문성’,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이 그에 해당함. 이에 대한 과제들은 중요성이 높으면서 동시에 성과도

높은 상태임. 따라서 향후에도 계속 유지강화 될 필요가 있음.

- 중점 개선 영역에도 총 2개의 과제가 포함됨. ‘예산편성 시 시설의 특성 반영’,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이 그에 해당함. 이 과제는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낮은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임. 점진 개선 영역에는 총 1개의 과제가 포함되며, ‘예산의 규모’가 그에 해당함. 중요도도 낮고 성과도 낮은 경우로서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 과제임.
- 지속 유지 영역에는 총 2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프로그램의 규모’와 ‘인력 규모’가 그에 해당함. 이 과제는 중요도는 낮으나 성과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류되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그림 18.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에 대한 IPA 결과: 문화의 집(지역)

- 보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그림 19>와 같음. 각 영역별 해당 과제를 보면, 유지강화 영역에는 총 2개의 과제가 포함되며, ‘인력의 전문성’,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이 그에 해당함. 이에 대한 과제들은 중요성이 높으면서 동시에 성과도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향후에도 계속 유지강

화 될 필요가 있음. 중점 개선 영역에는 총 2개의 과제가 포함되며, ‘예산편성 시 시설의 특성 반영’,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이 그에 해당함. 이 과제들은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낮은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임. 점진 개선 영역에도 총 2개의 과제가 포함되며, ‘인력 규모’, ‘예산의 규모’가 그에 해당함. 중요도도 낮고 성과도 낮은 경우로서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 과제들임. 지속 유지 영역에는 총 1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프로그램의 규모’가 그에 해당함. 이 과제는 중요도는 낮으나 성과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류되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그림 19.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에 대한 IPA 결과: 보호복지(지역)

- <그림 20>은 지역사회 거버넌스에 대한 분석 결과임. 각 영역별 해당 과제를 보면, 유지강화 영역에는 총 3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의 다양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의 적극성’, ‘지역 연계 협업 사업의 활성화 정도’가 그에 해당함. 이에 대한 과제들은 중요성이 높으면서 동시에 성과도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향후에도 계속 유지강화 될 필요가

있음.

- 중점 개선 영역에도 총 2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 결과의 정책수용성’, ‘새로운 지역사회 네트워크 발굴 노력도’가 그에 해당함. 이 과제들은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낮은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임.
- 점진 개선 영역에는 총 1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지역 연계 협업 사업의 활성화 정도’가 그에 해당함. 중요도도 낮고 성과도 낮은 경우이며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 과제임.
- 지속 유지 영역에는 총 2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규모’, ‘지역 연계 협업 사업의 발굴 노력도’가 그에 해당함. 이 과제들은 중요도는 낮으나 성과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류되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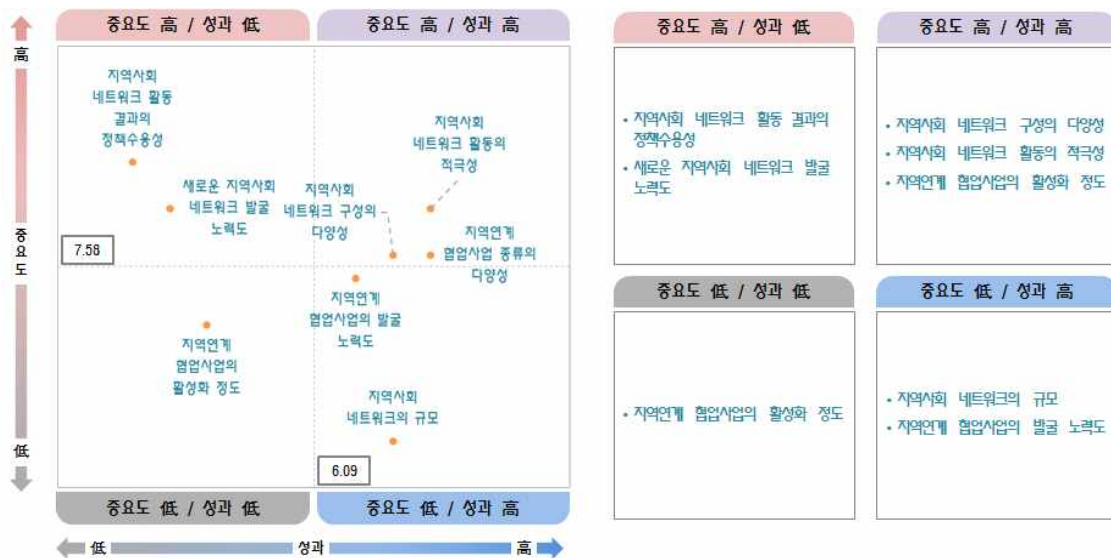


그림 20. 지역사회 거버넌스에 대한 IPA 결과(지역)

8.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전략도출을 위한 지역구별 시사점

1) 수정구

- 재단 소속의 청소년전문가 대상의 IPA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구변화’는 중점개선 영역에 해당하는 과제임. 이는 주로 인구감소 경향에 대응하는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말해줌. 수정구의 경우 다소의 인구증가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과 결국 이 지역 역시 향후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함. 실제로 재단 외 지역 청소년전문가 대상의 IPA 결과에서 중점개선 영역으로 제시된 ‘예산편성 시 시설의 특성반영’과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은 지역별 추진체계 구축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전략의 중요성이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 비록 단기간의 추세라고 해도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과 법제도 등의 뒷받침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2) 중원구

- 중원구는 청소년 인구 감소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재단 소속의 청소년전문가들이 IPA 결과에서 중점개선 영역 과제로 제시한 ‘인구변화’를 인구감소 폭에 집중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즉, 성남시 제3차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제시하는 ‘청소년 지원 거버넌스 형성’,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의 경우 ‘인력의 전문화’와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함. 또한, 지역사회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지역사회 네트워크 발굴 노력도’와 ‘지역연계 협업 사업 종류의 다양성’ 등을 인구감소 폭과 함께 고민하며 추진할 필요가 있음. 재단 외 지역 청소년전문가들이 지역사회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 결과의 정책수용성’과 ‘새로운 지역사회 네트워크 발굴 노력도’ 등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3) 분당구

- 분당구는 다른 구와 비교할 때 청소년인구 비율이 높고 그 감소 폭도 적은 편임. 따라서 재단 소속의 청소년전문가 대상의 IPA 결과에서 중점개선 영역으로 제시된 과제들도 여기에 부합하는 형태로 개선되어야 함.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청소년인구 수와 낮은 감소 폭을 고려하고, 지역별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구성에서도 '인력의 전문성'과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도 그에 부합하게 개선되어야 함. 지역사회 거버넌스에서 중점개선 과제로 제시된 '새로운 지역사회 네트워크 발굴 노력도'와 '지역연계 협업 사업 종류의 다양성'도 마찬가지임. 재단 외 지역 청소년 전문가들이 성남시 제3차 중장기 발전계획 중 '지역사회 청소년 플랫폼 기능 강화'와 '청소년 지원 거버넌스 형성'을 중점개선 영역으로 강조하고 있는 점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청소년인구에 따라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특히 분당구의 경우 다른 구와 비교하여 자살률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과제들을 심도 있게 고찰하여 사회안전망 구축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9.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운영 모델과 핵심사업을 통한 개선전략 제언

1)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세부전략에 대한 전문가 의견(성남시 재단 및 재단 외) 심층분석

- 포스트코로나와 같은 환경적 변화를 겪고 있는 청소년시설에서 추진하여야 할 신규사업은 아동, 청소년, 청년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음. 아동을 대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 중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4차산업(VR, 메타버스)에 대한 체험 공간을 운영하여 환경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었음. 또한, 코로나로 인해 교우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을 고려해 신체활동과 학습을 연계한 활동이나 야외활동이 다수 제시되었음. 이 외에도 돌봄사업, 미디어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이 제시됨.

- 청소년은 주로 진로와 관련된 응답이 다수 차지하고 있는데 진로상담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기술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됨. 한편, 비대면 활동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함. 이 외에도 청소년들의 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 서비스 강화(고민 및 진로상담, 학업 스트레스 관리, 자아존중감 증진), 자기주도학습 코칭 등이 제시되었으며, 지역사회와 공동체 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봉사, 환경보호활동 등을 발굴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소수 존재함.
- 향후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추진이 필요한 청년 대상 사업은 주로 취·창업 지원사업이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한편, 청년들이 공동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프로젝트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젝트 등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며, 자립 촉진 지원사업 등이 제시되었음. 이 외에도 진로, 심리 상담서비스와 생애설계서비스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음.
- 성남시 전문가의 응답 중 주목할만한 점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측면을 다소 강조하고 있음. 예를 들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필요한 신규 사업으로 지역사회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주제는 기후변화, 환경보호 활동 등이며, 아동이나 청년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확대, SDGs에 대한 개념을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3. 성남시 전문가 심층분석 주요 분석결과(신규사업 발굴)

아동	청소년	청년
- 4차산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간 운영) - 돌봄사업 - 사회성 및 인성 증진 사업 - 신체 및 야외활동	- 진로체험 및 설계 -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프로그램 - 비대면 활동 사업 및 플랫폼 구축 상담 서비스 - 자기주도 학습 코칭 프로그램 - 지역사회 및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 취창업역량 강화 및 지원 - 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 - 자립 역량 강화사업 - 생애 설계 상담 서비스

-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시설의 조직, 혁신, 경영 측면에서의 변화가 수반될 필요가 있음. 우선 청소년 시설의 조직 측면에서의 변화에 대해서 성남시 전문가들은 주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조직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또한, 비대면 사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하에, 선제적으로 수요파악을 통해 신규 사업을 개발하고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시됨. 소수의 응답자들은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성과관리시스템의 체계화, 조직문화의 유연화,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등과 같은 인적자원관리 등을 제안하였음.
- 혁신변화의 측면에서는 시설의 공간 재구조화와 관련된 의견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구체적으로 시설 내 공간의 전산화를 통해 이용공간을 설정하여 공간 이용자들의 접근 제고성 및 편의성을 높이고, 개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청소년 활동 및 학습 공간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주로 존재하고 있음. 특히, 공간에 있어서는 온라인 활동이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되며, 온라인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플랫폼 구축 등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 경영변화에 있어서는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여 연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플랫폼을 구축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주로 제시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성남 지역 내 IT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온라인 프로그램, 특화사업의 운영 등이 제시되었음. 또한,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복서비스를 최소화하며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 플랫폼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였음.

- 시설별 경쟁을 추구하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특화된 사업을 주력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타났음.

표 4. 성남시 전문가 심층분석 주요 분석결과

조직변화	혁신변화	경영변화
- 조직구조개편 - 수요변화 예측에 따른 사업 개편 - 비대면사업 다변화 및 질적 제고 - 성과관리 체계화 - 인적자원관리	- 시설(공간)의 전산화 및 개방 - 활동 공간 및 학습공간의 인프라 확대 - 온라인활동체계 구축 예산 확보 - 플랫폼 구축 공간 마련	- 지역 내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 연계 강화 - 시설 특성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 - 플랫폼 구축

- 재단 외 청소년 전문가에게 대상별 신규 사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유사한 응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아동의 경우 직업체험을 통해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고, 코로나로 인해 대면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남.
- 4차산업과 관련한 교육(AI)에 대한 의견도 나타났음. 청소년 대상의 사업은 진로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직업유형 검사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진로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타났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음.

- 청년 대상 사업의 경우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제시되었으며, 실질적으로 개인의 사회 독립과 자립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외에도 자기 주도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심리 및 정서 안정 지원 사업 등이 제시되었음.

표 5. 재단 외 전문가 심층분석 주요 분석결과(신규사업 발굴)

아동	청소년	청년
- 직업 체험 프로그램 - 사회성 및 인성 증진 사업 - 4차산업 교육 프로그램	- 진로체험 및 설계 -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 프로그램 - 지역사회 및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 취창업역량 강화 및 지원 - 자립역량 강화 사업 - 심리 및 정서안정 지원

- 청소년시설의 조직, 혁신, 경영 측면에서 이루어야 할 변화에 대한 응답과 관련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우선 조직변화와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사업 수요를 선제적으로 기획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어 성남시 전문가와 유사한 의견을 보이고 있음. 또한, 지도자 역량 강화와 더불어 인적 자원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 관련 단체와 종사자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구축하고, 재단-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음.
- 혁신변화와 관련해서는 방과 후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설 내 공간 확대와 더불어 온라인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공급자 중심의 사업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서비스 수요조사를 위한 전담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민관협력체계 구축과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음. 또한, 시설 내 공간을 확대하는 방안 외에도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이 제시되었음. 정신적 질환을 겪는 청소년을 위한 치료형 쉼터와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또한 복지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경영변화와 관련해서는 동영상에 익숙한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멀티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거나, 청소년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또한, 시설과 재단의 협조체계 강화,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 강화 등이 제시되었음.

표 6. 재단 외 전문가 심층분석 주요 분석결과

조직변화	혁신변화	경영변화
- 수요자 의견 수렴에 따른 사업 기획 - 지도자 역량 강화 및 인적 자원관리 - 관련 단체 및 종사자 네트워크 형성 - 재단과 시설간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 시설 내 공간 확대 - 방과후 활동 온라인 교육 인프라 구축 - 청소년 서비스 수요조사 전담 조직 설치 - 민관협력체계구축 - 지역 내 유휴공간 활용 (공간나눔) - 치료형 쉼터(조현병, 양극성 장애 등) 및 청소년 일자리 창출	- 멀티미디어 플랫폼 구축 및 활용 - 통합 플랫폼 구축 - 시설 특성화(시범사업) - 시설-재단의 협조 강화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 강화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다함께돌봄센터)

2)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세부전략에 대한 전문가 의견(전국) 심층분석

- 미래사회에 필요한 청소년시설의 신규 사업은 아동, 청소년, 청년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함. 아동대상의 사업은 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교육활동, 돌봄사업 확대, 사회성 및 인성 증진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간헐적으로 상담서비스와 야외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타남.

- 청소년대상 사업의 경우 미래사회 진로체험과 설계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4차 산업환경 관련 프로그램과 더불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시민교육이나 참여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응답이 있었음. 또한 비대면으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도 소수 응답함.
- 청년대상의 경우 직업을 보다 생생히 체험하거나, 사회생활을 경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교육활동이 응답이 높게 나타남. 한편,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거나, 지역사회와 연계하거나, 부모로부터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남.

표 7. 전국 전문가 심층분석 주요 분석결과(신규사업 발굴)

아동	청소년	청년
- 돌봄활동 - 4차 산업혁명 관련 프로그램 - 사회성 및 인성 증진 사업 - 상담 서비스 - 심리지원 및 진로 - 신체 및 야외활동	- 진로체험 및 설계 -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프로그램 -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 민주시민교육, 정치 참여 등 온라인 활동 프로그램	- 직업활동 및 사회 체험 -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 프로그램 - 사회적 가치 관심 제고 - 자립 역량 강화사업 - 공간지원

- 혁신변화에 대해서는 비대면 프로그램 확대의 필요성, 비대면 프로그램 플랫폼의 다양화,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효과 제고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 더불어 지도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도 제시됨. 이 외에도 원격돌봄지원센터, 긴급돌봄, 종일학교 등을 운영하고, 취약계층이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거나 시설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로 나타남.
- 경영활동 측면에서 필요한 변화는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제공, 조직 및 인력 구조 개편, 통합 관리센터를 구축하여 시설 간 중복 기능 해소에 대한 부분이 제시됨. 또한, 경영평가 및 환류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업 또는 기관 간의 시스템 연계, DB구축의 필요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예산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예산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회 및 공동체에 기반한 프로그램 운영(인턴십),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사회와의 실질적인 연대 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지역 연계 프로그램이 발굴될 필요가 있다는 응답들도 다수 존재하였음.
-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들은 청소년서비스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남. 시설의 공간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특화시설을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최근의 환경변화에 따른 디지털 격차, 온라인 범죄 및 비행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이 외에도 온라인 프로그램의 확대와 더불어 전담 인력의 확보 및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있으며, 지역 내 학교 및 대학 등의 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 진로교육의 내실을 강화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 이 외에도 청소년지도자의 행정업무 경감을 통해 활동의 효과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 우수사례에 대한 공유를 활성화하여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음.

표 8. 전국 전문가 심층분석 주요 분석결과

혁신변화	경영변화
- 비대면 프로그램 확대 및 플랫폼 구축 - 비대면 프로그램의 질 제고 - 지도자 역량 강화 - 돌봄 서비스 확대 -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 내 공간 마련	- 수요자 중심의 조직 및 인력구조 개편 - 성과관리 강화 - DB구축 관련 예산 확대 - 지역 연계 강화를 통한 프로그램 기획 - 취약계층 지원 - 법제도 정비

3) 전문가 의견 심층분석결과 종합

- 전국, 성남시, 재단 외 전문가와 같이 세 가지 그룹으로 구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함.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미래사회에 도래할 환경변화를 고려한 결과로써 성남시 조직변화, 사업변화, 혁신변화, 경영변화 등의 4개 전략 및 20대 세부전략에 이를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전문가 심층분석 결과와 성남시 20대 세부전략 간 연계성을 분석하였음.
- 전반적으로 전국그룹의 경우 대부분의 전략에 해당하는 의견들이 상세하게 답변되었으며, 성남시 전문가, 재단 외 전문가 순으로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국 그룹의 응답자가 타 그룹에 비해 수가 많은 것도 있으나 보다 거시적인 관점을 갖고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응답한 경향이 있기 때문임. 한편, 성남시 전문가들의 의견은 지역의 상황을 보다 상세하게 알고 있다는 점에서, 제시되는 의견이 보다 구체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전략별로 살펴보면 조직변화와 관련해서는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조직이 변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국, 성남시, 재단 외 전문가 모두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주로 청소년들이 바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참여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의견 수렴 또는 수요조사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온라인 서비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직 구조상의 변화도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통합 관리를 위한 센터 및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존재함.
- 사업의 성과관리와 관련해서는 사업평가나 경영평가를 통한 평가 결과 환류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성과관리시스템의 체계화 등이 제시됨. 청소년 서비스와 관련된 DB구축은 전국그룹에서 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사업별 또는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과 더불어 재단 외 전문가 그룹은 청소년 서비스에 대한 개별적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수요자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 코로나 이후 온라인 교육, 활동 등이 증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전망임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세 그룹에서 모두 제시됨. 전국 전문가그룹에서는 원격돌봄지원센터나 온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등으로 구체화한 실행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성남시 전문가와 재단 외 전문가는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개괄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변화의 세부전략을 살펴보면, 아동, 청년 등에 대한 예산 증액과 관련된 의견은 대상별로 구체화하여 제시되지는 않았음. 다만, 전국그룹에서는 특정 대상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확대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성남시 전문가들 또한 온라인 활동을 위한 예산이 증대될 필요성을 제기할 뿐 아동 또는 청년으로 대상을 명확히 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의 산업시설과 연계한 청년일자리 정보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 내 자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성남시 전문가들의 의견만이 등장하였는데, 판교 IT기업과의 연계프로그램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제시된 의견은 정보지원사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역 내 산업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성격이 보다 강하게 나타남. 신기술 대응 관련 사업발굴과 관련해서는 전국 및 성남시 전문가 그룹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할 것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고, 향후 변동될 직업에 대한 소개, 체험 등의 프로그램 또한 성남시 전문가 그룹에서 제시함.
- 지역사회 청소년서비스 자원과의 연계사업 발굴과 관련해서는 재단 외 전문가 그룹은 지역 내 다양한 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전국그룹은 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학교

교육과의 연계)과 은퇴전문가 활용, 지역사회 연계 인턴십을 학교 진학 전(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입학 전)에 도입하여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 혁신변화와 관련해서는 청소년 사업의 사회적 가치 강화에 의견이 다수 제시된 측면이 나타남. 구체적으로는 돌봄 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확대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발굴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타남.
- 비대면 서비스 확대 부문에서는 선제적 사업발굴 필요성과 더불어 양적 측면 외 질적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 필요성을 전국 전문가와 성남시 전문가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함. 유사한 측면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인해 대두된 학습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 내 인프라를 구축하고, 온라인교육의 학습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음.
- 비대면 사업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청소년시설의 공간을 리모델링하거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전문가 그룹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남. 특히, 지역 내 유휴공간이나 기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산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이 외에도 방과 후 활동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방역 지침에 준수할 수 있는 소규모 활동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규모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시설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의견들도 존재함.
- 경영변화와 관련해서 법·제도적 정비는 전국 전문가 그룹에서만 의견을 제시함. 전반적으로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에 대한 의견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범죄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디지털 디바이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 등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한 의견들이 나타남.

- 따라서 청소년지도자의 역량 강화의 필요성은 모든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전략과 전문가 의견 간 연계성이 높게 나타남. 이는 청소년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역량 강화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근거한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온라인 서비스와 관련된 역량 강화, 동기유발을 위한 인적 자원관리 등이 제시됨.
- 민/재단 협업 강화와 관련해서는 청소년 사업에 초점을 맞춘 의견들이 제시되었는데 추진체계의 네트워크 강화,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유관 기관별 네트워크 강화 등이 제시됨. 서술된 의견에는 민간과의 협업보다는 청소년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관계자 간 네트워크 강화로 표현된 의견들이 주로 제시되어 민/재단 협업 강화를 정확하게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지역 내 기업 또는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자는 의견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기도 하였으며,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 재단 등이 참여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전반적으로 민간과 재단 간 협업을 강화를 내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관련해서는 전국 및 성남시 전문가 그룹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특히, 성남시 전문가 그룹은 주로 지역사회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환경, SDG's 교육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함. 종합하면, 성남시 20대 세부 전략과 전문가 의견은 주로 연계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몇몇 전략은 연계성이 약하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청년정책 전담부서 설치 및 기능강화,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지역형 플랫폼 개발, 청년사업에 대한 민/재단 협업 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이는 청년 사업에 대한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표 9. 성남시 20대 세부전략과 심층분석 결과 연계

	전략	전국	성남	재단 외 전문가
조직 변화	A-1)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조직의 변화	프로그램의 차별화 강화 및 전문가 채용 프로그램 질 제고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구조 개편 통합 관리센터 구축	인구구성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기획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수요 대응이 가능한 조직 구조 개편	수요자 의견 수렴에 따른 사업 기획 청소년 서비스 수요조사 전담 조직 설치
	A-2) 지역 청소년사업의 성과관리 기능강화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 평가 시행 실행과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성과관리 강화	성과관리시스템 체계화	-
	A-3) 지역형 청소년 성장 데이터 구축 및 총괄관리	기관 간 연계시스템 구축 사업별 DB구축	-	청소년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A-4) 비대면 청소년서비스 플랫폼 구축	원격돌봄지원센터 운영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온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비대면 활동 사업발굴 및 플랫폼 구축	멀티미디어 플랫폼 구축
	A-5) 시 혹은 재단에 청년정책 전담부서 설치 및 기능강화	-	-	-
사업 변화	B-1) 아동(9~12세)관련 사업 예산증액	예산 확대 필요 (아동, 청소년, 청년)	(온라인 활동을 위한 예산 증액)	-
	B-2) 청년(19세 이상)관련 사업 예산증액	예산 확대 필요 (아동, 청소년, 청년)	(온라인 활동을 위한 예산 증액)	-
	B-3) 지역의 산업시설과 연계한 청년일자리 정보지원사업	-	판교 IT 기업과의 연계	-
	B-4) 신기술(4차산업, 인공지능)대응 관련 사업발굴	4차 산업혁명(AI, 코딩) 관련 교육프로그램	4차산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간 운영) 진로체험 및 설계	-

전략		전국	성남	재단 외 전문가
혁신 변화	B-5) 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 자원과의 연계사업 발굴	지역사회 은퇴 전문가 활용 지역 내 대학 또는 학교 연계 지역사회 연계 인턴십	-	지역 내 유휴공간 활용 (공간나눔)
	C-1) 청소년 사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강화	돌봄사업 확대 취약계층 지원 확대 위기청소년 지원강화 (쉼터확대) 지역의 유관기관들과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저소득층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돌봄사업 확대 지역사회 및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치료형 쉼터 (조현병, 양극성 장애 등) 청소년 일자리 창출
	C-2) 비대면 청소년 사업확대	비대면 활동 사업 개발 비대면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	비대면 사업의 선제적 개발 및 공유 비대면 활동 사업의 질적 개선	-
	C-3) 학교의 비대면 수업확대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	비대면 학습 환경구축 비대면 학습 방법 및 컨텐츠 개발(플립러닝과 PBL 학습 효과 제고)	비대면 학습 환경구축	-
	C-4)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지역형 플랫폼 개발	-	-	-
	C-5) 비대면 사업강화에 따른 기존의 청소년공간 혁신	비대면 학습 인프라 확대 (공간 지원) 청소년 자율활동 공간화 소규모 특화시설 운영	청소년활동공간 및 학습 공간 인프라 확대 시설(공간)의 전산화 및 개방	시설 내 온라인 교육 인프라 구축 공간 공유활성화 방과 후 활동공간 확대
경영 변화	D-1) 청소년생태계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화 마련 (조례 제개정)	디지털 디바이드 축소 온라인 범죄, 비행 예방 법제도 강화	-	-

전략	전국	성남	재단 외 전문가
D-2) 포스트코로나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담당자(교수) 및 교 육지도자 훈련 강화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전담인력 확보 및 역량 강화	비대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확보 및 역량 강화	지도자 역량 강화 및 인적 자원관리
D-3) 청소년사업에 대한 민/재단 협업 강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간 네트워크 강화 민간의 진로교육 참여 활성화 지역별, 권역별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유대 강화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연대 강화 성남시 소재 기업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특성화	관련 단체 및 종사자 네 트워크 구축 및 강화 재단과 시설간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D-4) 청년사업에 대한 민/재단 협업 강화	-	-	-
D-5) 지역사회문제를 해결 하는 리빙랩 사업확대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확대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확대 지역사회 내 문제 해결 프로젝트 수행	-

10.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20대 세부전략에 대한 IPA분석

- 성남시 청소년전문가(재단소속), 성남시 지역 청소년전문가(재단 외 소속), 전국 청소년전문가를 대상으로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20대 세부전략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고, 그에 기초한 IPA 분석을 진행하였음. 이는 곧 미래의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대응 전략에 대한 중요도-성과 분석에 해당함.
- 성남시 청소년전문(재단소속) 대상으로 분석결과는 <그림 21>과 같음. 각 영역별 해당 과제를 보면, 유지강화 영역에는 총 6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A1 수요자 중심의 재단 조직변화’, ‘A2 청소년사업의 성과 관리 기능 강화’, ‘A4 비대면 청소년서비스 플랫폼 구축’, ‘B5 지역사회 청소년서비스 자원과의 연계 사업 발굴’, ‘C1 청소년사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강화’, ‘D3 청소년사업에 대한 민/재단 협업 강화’가 그에 해당됨. 이에 대한 과제들은 중요성이 높으면서 동시에 성과도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향후에도 계속 유지강화 될 필요가 있음.
- 중점 개선 영역에는 총 5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C3 비대면수업확대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 ‘C5 비대면 사업강화에 따른 기존의 청소년공간 혁신’, ‘D1 청소년생태계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화 마련’, ‘D2 포스트코로나 청소년 지도자 역량 강화’, ‘D5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 사업 확대’가 그에 해당함. 이 과제는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낮은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임.
- 점진 개선 영역에는 총 5개의 과제가 포함됨. ‘A3 청소년 성장 데이터 구축’, ‘A5 청년정책 전담부서 설치’, ‘B1 아동관련 사업 예산 증액’, ‘B3 지역의 산업시설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확대’, ‘D4 청년사업에 대한 민/재단 협업 강화’가 그에 해당함. 중요도도 낮고 성과도 낮은 경우로서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 과제임.

- 지속 유지 영역에는 총 4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B2 청년 관련 사업 예산 증액’, ‘B4 신기술대응 관련 사업발굴’, ‘C2 비대면 청소년 사업확대’, ‘C4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성남형 플랫폼 개발’이 그에 해당함. 이 과제들은 중요도는 낮으나 성과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류되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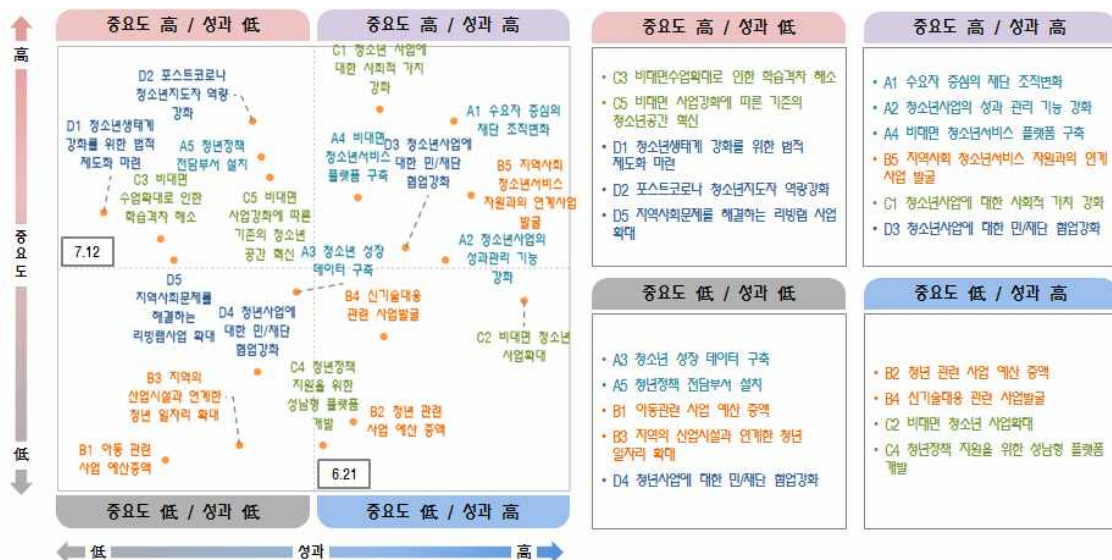


그림 21. 성남시 청소년전문가(재단소속) 대상 IPA 결과

- <그림 22>는 성남시 지역 청소년전문가(재단 외 소속)를 대상으로한 IPA분석 결과임. 구체적으로 각 영역별 해당 과제를 보면, 유지강화 영역에는 총 6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A2 청소년사업의 성과 관리 기능 강화’, ‘A4 비대면 청소년서비스 플랫폼 구축’, ‘C1 청소년사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강화’, ‘C3 비대면수업확대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 ‘D2 포스트코로나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D4 청년사업에 대한 민/재단 협업 강화’가 그에 해당됨. 이에 대한 과제들은 중요성이 높으면서 동시에 성과도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향후에도 계속 유지강화 될 필요가 있음.
- 중점 개선 영역에도 총 5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A1 수요자 중심의

재단 조직변화’, ‘B5 지역사회 청소년 자원과의 연계사업 발굴’, ‘C5 비대면 사업강화에 따른 기존의 청소년공간 혁신’, ‘D1 청소년생태계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화 마련’, ‘D3 청소년사업에 대한 민/재단 협업 강화’가 그에 해당함. 이 과제들은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낮은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점진 개선 영역에는 총 5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B1 아동 관련 사업 예산 증액’, ‘B2 청년 관련 사업 예산 증액’, ‘B3 지역의 산업시설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확대’, ‘B4 신기술대응 관련 사업발굴’, ‘D5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 사업 확대’가 그에 해당함. 중요도도 낮고 성과도 낮은 경우로서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 과제들임.
- 지속 유지 영역에는 총 4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A3 청소년 성장 데이터 구축’, ‘A5 청년정책 전담부서 설치’, ‘C2 비대면 청소년 사업 확대’, ‘C4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성남형 플랫폼 개발’이 그에 해당함. 이 과제들은 중요도는 낮으나 성과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류되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그림 22. 성남시 지역 청소년전문가(재단 외 소속) IPA 결과

- 전국 청소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IPA분석은 <그림 23>과 같음. 구체적으로 각 영역별 해당 과제를 보면, 유지강화 영역에는 총 6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A1 수요자 중심의 재단 조직변화’, ‘A4 비대면 청소년 서비스 플랫폼 구축’, ‘A5 청년정책 전담부서 설치’, ‘B2 청년 관련 사업 예산 증액’, ‘B5 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 자원과의 연계사업 발굴’, ‘C1 청소년사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강화’가 그에 해당됨. 이에 대한 과제들은 중요성이 높으면서 동시에 성과도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향후에도 계속 유지강화 될 필요가 있음.
- 중점 개선 영역에는 총 4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A3 청소년 성장 데이터 구축’, ‘C3 비대면 수업 확대에 의한 학습격차 해소’, ‘D1 청소년생태계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화 마련’, ‘D2 포스트코로나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가 그에 해당함. 이 과제들은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낮은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임.
- 점진 개선 영역에도 총 6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B1 아동 관련 사업 예산 증액’, ‘C4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성남형 플랫폼 개발’, ‘C5 비대면 사업강화에 따른 기존의 청소년 공간 혁신’, ‘D3 청소년사업에 대한 민/재단 협업 강화’, ‘D4 청년사업에 대한 민/재단 협업 강화’, ‘D5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사업 확대’가 그에 해당함. 중요도도 낮고 성과도 낮은 경우로서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 과제들임.
- 지속 유지 영역에는 총 4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A2 청소년사업의 성과 관리 기능 강화’, ‘B3 지역산업시설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확대’, ‘B4 신기술 대응 관련 사업발굴’, ‘C2 비대면 청소년 사업확대’가 그에 해당함. 이 과제들은 중요도는 낮으나 성과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류되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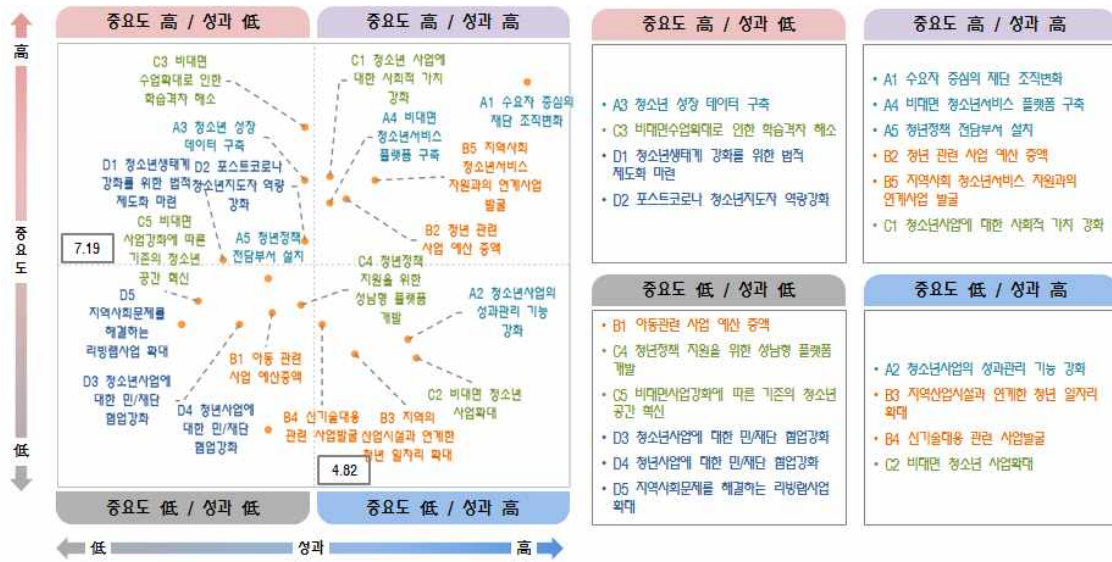


그림 23. 전국 청소년전문가 대상 IPA 결과

- 이와 같이 세 분야의 청소년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중점 개선 영역에 해당하는 과제는 ‘D1 청소년생태계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화 마련’임. 이는 해당 과제가 시급히 실천되어야 함을 의미함. 그리고 둘 이상의 전문가들에서 공통적으로 중점 개선 영역에 해당하는 과제로 나타난 것은 ‘C3 비대면수업확대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 ‘C5 비대면 사업강화에 따른 기존의 청소년공간 혁신’, ‘D2 포스트코로나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임. 이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과제임. 물론 이 이외의 과제들도 기본적으로 IPA 각 영역에서 의미하는 바에 부합되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

11. 미래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략

1) 운영모델을 통한 개선 전략

- 미래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략은 운영모델 구축에서 시작됨. 운영모델은 사업추진 및 성과 도출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전략 모색의 핵심이기도 함. <그림 24>는 미래 성남형 청소년서비스의 운영모델을 나타낸 것임.
-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청소년서비스의 축이 되어 주요 주체들과 생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운영모델의 핵심임. 주요 주체로는 성남시, 교육기관, 지역사회 기반의 기업 및 사업, 지역사회 거버넌스가 해당되는데, 이들은 각각의 역할과 기능에 기초하여 미래 청소년서비스의 개선 전략에 연계되어 있음. 성남시는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행정역량 측면과 연계되어 있고, 교육기관은 청소년 성장 데이터 구축과 비대면 플랫폼 구축을 통해 협력관계를 형성함. 지역사회 기반 기업과 사업은 청년정책 협업을 통해 연계되며, 지역사회 거버넌스는 성과관리 측면에서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
- 이러한 운영모델은 성남시청소년재단을 중심으로 관련 주체별 역할 및 기능, 그리고 그들과의 연계를 통해 유용한 전략 도출을 이끌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사업을 통해 전략 실행을 구현하기도 함. 따라서 미래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운영 모델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청소년서비스 방향을 위한 전환적이고 총체적인 모델이자 사업 실행을 위한 기반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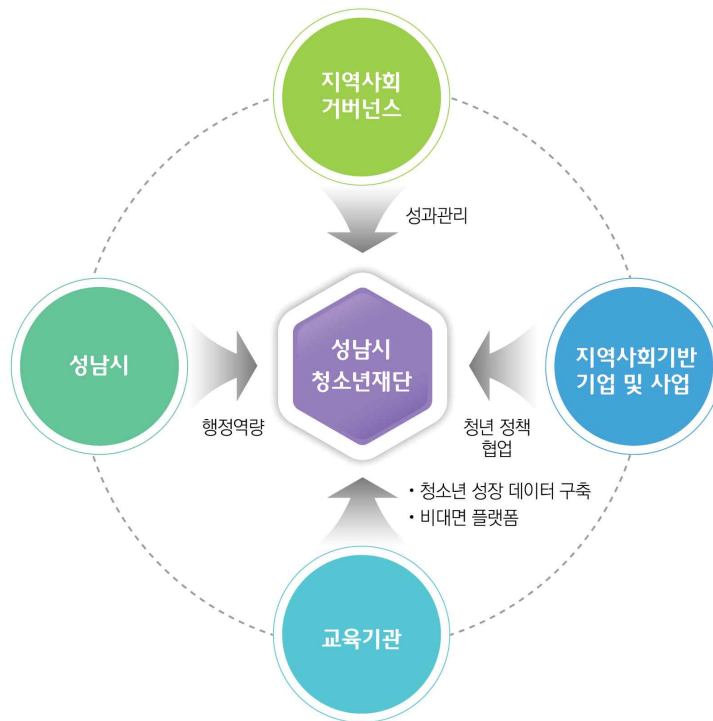


그림 24. 미래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운영모델

2) 핵심사업을 통한 개선 전략

- 미래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운영모델은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게 함. 그 중에서도 핵심 사업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수동적 대응이 아닌 적극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략적 대응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함. 특히 가치지향적 시대 진단을 통해 도출된 핵심 사업은 단순히 코로나 19로 인한 전략 대응 차원을 넘어 불확실성이 높은 현대사회와 미래사회를 선제적으로 대응 및 적응하는데 유익한 길잡이가 됨. <그림 25>는 핵심 사업을 통한 개선전략 모델을 나타낸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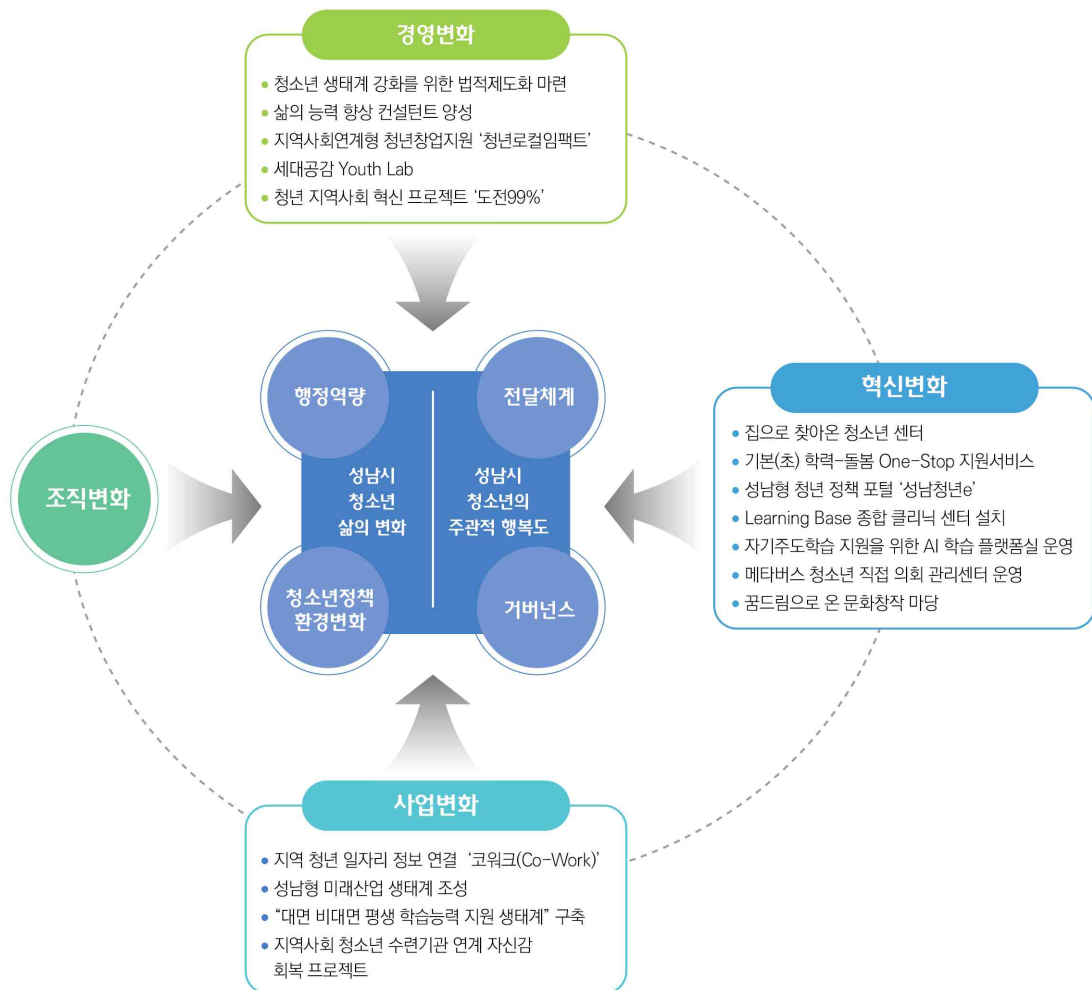


그림 25. 핵심 사업을 통한 개선 전략 모델

- 이 모델에 따르면, 특히 사업변화, 혁신변화, 경영변화 각각의 핵심 사업(총 16개 사업)은 청소년서비스 제공에서 주요 영역 및 분야의 질적 제고에 영향을 미침. 핵심사업의 수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질적 비중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님.
- 비록 IPA분석에 따라 조직변화에서는 핵심사업이 도출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직변화와 관련된 일반사업의 중요성이 낮다는 의미는 아님. 핵심사업은 우선적으로 추진될 사업을 선별한 것으로, 그 외 사업들도 모두 중요성의 강도가 결코 낮지 않음. 따라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는 각 변화 대상 영역별 일반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되 전략적으로 핵심사업에 상대적인 역점을 두는 형태로 실천력 있게 추진되어야 함.

3) 주요 핵심사업

- 핵심사업은 크게 세 분야에서 도출됨. 우선, 사업변화에 해당하는 핵심사업은 총 4개임. 지역 청년 일자리 정보 연결 ‘코워크(Co-Work)’, 성남형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 대면 비대면 평생 학습능력 지원 생태계 구축, 지역사회 청소년 수련기관 연계 자신감 회복 프로젝트가 해당함. 각각은 전략과제와 연계되며 그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목적, 사업내용,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구체적으로 (B) 사업변화 영역의 전략과제 B-3. 지역의 산업시설과 연계한 청년일자리 정보지원사업 ‘지역 청년 일자리 정보 연결’, ‘코워크(Co-Work)’와 ‘성남형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 (B) 사업변화 영역의 전략과제 B-5. 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 자원과의 연계사업 발굴 ‘대면 비대면 평생 학습 능력 지원 생태계’ 구축과 지역사회 청소년 수련기관 연계 자신감 회복프로젝트가 제안 될 수 있음.
- (C) 혁신변화 영역의 핵심사업은 7개 사업임. 전략과제 C-2. 비대면 청소년 사업 확대로 ‘집으로 찾아온 청소년센터’, 전략과제 C-3. 학교의 비대면 수업 확대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초) 학력-돌봄 One-Stop 지원서비스’와 ‘Learning Base 종합 클리닉 센터 설치’, 전략과제 C-4.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성남형 플랫폼 개발의 ‘성남형 청년 정책 포털 ‘성남청년e’’, 전략과제 C-5. 비대면 사업강화에 따른 기존의 청소년 공간 혁신인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위한 AI 학습 플랫폼실 운영’과 ‘메타버스 청소년 직접 의회 관리센터 운영’ 그리고 ‘꿈드림으로 온 문화창작 마당’이 제안 가능함.
- (D) 경영변화 영역의 핵심사업은 5개임. 구체적으로 전략과제 D-1. 청소년생태계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화 마련을 위한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과 전략과제 D-2. 포스트코로나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에 해당하는 '삶의 능력 향상 컨설턴트 양성', 전략과제 D-4. 청년사업에 대한 민/재단 협업 강화인 '지역 사회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청년 로컬 임팩트'가 운영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전략과제 D-5. 청소년과 청년이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사업 확대인 '세대 공감 Youth Lab'과 '청년 지역사회 혁신 프로젝트 '도전99%''가 추진될 필요가 있음.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수요분석과 대응 전략 수립 연구

연구보고 21-R5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3

II. 성남시의 청소년서비스와 행정역량

1.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현황과 개념 7
2. 행정통계를 통해서 본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환경 10
3.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행정역량에 대한 시사점 114

III. 포스트코로나와 청소년서비스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포스트코로나의 개념 121
2. 코로나19 이전의 청소년정책 환경변화 122
3. 코로나19 이후의 청소년 정책 환경변화 136
4.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 성남형 청소년서비스의 방향 144

Ⅳ. 포스트코로나와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현황분석

- 1.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현황분석 149
- 2.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분석 154
- 3.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거버넌스 현황 분석 162

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남형 청소년서비스의 수요분석

- 1. 사업영역별 청소년서비스 분석 169
- 2.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삶의 변화와 청소년서비스
수요분석 223
- 3.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남형 청소년서비스의 미래
변화방향 302
- 4.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종합 진단 329

Ⅵ.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전략과 개선

과제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분석

- 1.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전략도출을 위한 예비조사 335
- 2. 성남시 청소년전문가(재단소속) 의견분석 345
- 3. 성남시 지역 청소년전문가(재단 외) 의견분석 366
- 4. 전국 청소년전문가 의견분석 386
- 5.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전략도출을 위한 성남전문가 및
전국전문가 AHP, IPA분석 407

Ⅶ.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운영모델과

핵심사업을 통한 개선전략 제언

- 1.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세부전략에 대한 전문가 의견
심층분석 439
- 2.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20대 세부전략에 대한 IPA분석 461
- 3. 미래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략 467
- 4. 본 연구의 한계점 498

참고문헌 501

부록 509

설문1. 청소년전문가 설문지(성남시) 511

설문2. 청소년전문가 설문지(전국) 526

설문3. 성남시청소년 개방형 서면 면접지 537

설문4. 성남형 전략과제 도출을 위한 예비조사 539

표 목차

표 II-1. 성남시 제3차 중장기 발전계획(2019~2023)	9
표 II-2. 고령인구비율(2016~2020)	11
표 II-3. 남녀성비(2015~2019)	13
표 II-4. 인구천 명당 외국인 수(2015~2019)	15
표 II-5. 인구증가율(2015~2019)	17
표 II-6. 주민등록인구(2015~2019)	19
표 II-7. 추계인구(2021~2035)	21
표 II-8. 합계출산율(2015~2019)	23
표 II-9. 청소년 인구(9세~24세) 비율(2015~2019)	25
표 II-10. 청소년 인구(9세~12세) 비율(2015~2019)	27
표 II-11. 청소년 인구(13세~18세) 비율(2015~2019)	29
표 II-12. 청소년 인구(19세~24세) 비율(2015~2019)	31
표 II-13. 1인 가구 비율(2015~2019)	33
표 II-14.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수(2016~2020)	35
표 II-15. 혼인 건수(2016~2020)	37
표 II-16. 다문화 가구수(2015~2019)	39
표 II-17. 비만유병률(2018~2019)	41
표 II-18. 스트레스 인지율(2015~2019)	43
표 II-19. 음주율(2015~2019)	45
표 II-20.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2016~2020)	47
표 II-21. 흡연율(2015~2019)	49
표 II-22. 교원 1인당 학생 수(2016~2020)	51
표 II-23.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2016~2020)	53
표 II-24. 유치원 수(2016~2020)	55
표 II-25. 초등학교 수(2016~2020)	57
표 II-26. 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2016~2020)	59
표 II-27.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2016~2020)	61

표 II-28.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2016~2020)	63
표 II-29.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2016~2020)	65
표 II-30. 경제활동인구(2016~2020)	67
표 II-31. 경제참가율(2016~2020)	68
표 II-32. 고용률(2016~2020)	70
표 II-33. 실업률(2016~2020)	72
표 II-34. 청년고용률(2016~2020)	73
표 II-35. 취업자 수(2016~2020)	75
표 II-36. 타 지역 통근 취업자(2016~2020)	76
표 II-37. 노후주택비율(2015~2019)	78
표 II-38. 도시지역 면적(2015~2019)	80
표 II-39. 빈집비율(2015~2019)	81
표 II-40. 1인당 자동차 등록 대 수(2016~2020)	83
표 II-41. 주택매매가격지수(2016~2020)	85
표 II-42. 지가변동률(2016~2020)	86
표 II-43.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2015~2019)	88
표 II-44. 인구 1인당 GRDP(2015~2017)	90
표 II-45. 가구 수(2015~2019)	92
표 II-46. 인구 천 명당 사업체 수(2017~2019)	94
표 II-47. 인구 천 명당 서비스업 사업체 수(2017~2019)	96
표 II-48. 재정자립도(2017~2021)	98
표 II-49. 재정자주도(2017~2021)	99
표 II-50. 인구 천 명당 제조 사업체 수(2017~2019)	101
표 II-51. 지역 안전등급현황(2015~2019)	103
표 II-52. 건강보험적용인구현황(2015~2019)	104
표 II-53. 등록 장애인 수(2019~2020)	106
표 II-54. 인구 십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2014~2018)	108
표 II-55. 요양기관 수(2016~2020)	109
표 II-56.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중(2015~2019)	111
표 II-57.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2015~2019)	113
표 IV-1. 성남시 자치구별 청소년서비스 수 추세(2015~2020)	150
표 IV-2. 성남시 자치구별 청소년서비스 예산 추세(2015~2020)	151
표 IV-3. 청소년 인구 수 변화(2015~2019)	152
표 IV-4. 성남시 자치구별 천 명당 청소년 1인당 사업 수 추세 (2015~2019)	153

표 IV-5. 성남시 자치구별 1인당 예산 추세(2015~2019)	154
표 IV-6. 성남시청소년재단 시설	155
표 IV-7. 권역별 성남시 청소년수련시설	156
표 IV-8. 권역별 시설 당 평균 청소년 서비스 인구	156
표 IV-9. 경기도 내 시설당 평균 청소년서비스 인구 비교	157
표 IV-10. 성남시와 서울시 자치구의 시설당 청소년서비스 인구 비교	158
표 IV-11. 성남시 학교 밖 배움터	159
표 IV-12. 성남시 청소년쉼터	159
표 IV-13. 성남시 지역아동센터(일부)	160
표 IV-14. 성남시 교육시설	161
표 IV-15. 성남시 도서관	161
표 IV-16. 성남청소년균형동반협의체 구성	163
표 IV-17. 성남청소년균형동반협의체는 중장기 목표	164
표 IV-18. 성남시청소년의회 성과	165
표 V-1. 성남시 청소년 사업 6개년 현황	170
표 V-2.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정책목표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	173
표 V-3.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영역1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	177
표 V-4.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영역2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	181
표 V-5.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영역3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	184
표 V-6.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영역4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	187
표 V-7.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목표에 따른 성남시 사업 분석	190
표 V-8.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1-1)에 따른 성남시 사업 분석	194
표 V-9.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1-2)에 따른 성남시 사업 분석	197
표 V-10.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2-1)에 따른 성남시 사업 분석	200

표 V-11.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2-2)에 따른 성남시 사업 분석	203
표 V-12.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2-3)에 따른 성남시 사업 분석	206
표 V-13.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3-1)에 따른 성남시 사업 분석	209
표 V-14.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3-2)에 따른 성남시 사업 분석	212
표 V-15. 정책대상자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 수	216
표 V-16. 정책대상자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예산	219
표 V-17. 조사 대상 전체 성별	223
표 V-18. 조사 대상 전체 평균 연령	223
표 V-19. 조사 대상 전체 거주 지역	224
표 V-20. 조사 대상 전체 학교 성적	224
표 V-21. 조사 대상 전체 가정 경제 사정	225
표 V-22. 조사 대상 전체 평일 방과 후 보호자 여부	225
표 V-23. 조사 대상 전체 주관적 행복도	226
표 V-24. 학교 급별 성별	227
표 V-25. 학교 급별 평균 연령	228
표 V-26. 학교 급별 거주 지역	228
표 V-27. 학교 급별 학교 성적	229
표 V-28. 학교 급별 가정 경제사정	230
표 V-29. 학교 급별 평일 방과 후 보호자 여부	231
표 V-30. 초등학생의 주관적 행복도	232
표 V-31. 중학생의 주관적 행복도	233
표 V-32. 고등학생의 주관적 행복도	235
표 V-33. 청년의 주관적 행복도	237
표 V-34. 4개 구별 성별	238
표 V-35. 4개 구별 평균 연령	239
표 V-36. 4개 구별 학교 성적	240
표 V-37. 4개 구별 가정 경제사정	241
표 V-38. 4개 구별 평일 방과 후 보호자 여부	241
표 V-39. 수정구 주관적 행복도	242
표 V-40. 중원구 주관적 행복도	244
표 V-41. 분당구 주관적 행복도	246

표 V-42. 성남 외 주관적 행복도	247
표 V-43. 원도심과 신도심의 성별	249
표 V-44. 원도심과 신도심의 평균 연령	250
표 V-45. 원도심과 신도심의 학교급	250
표 V-46. 원도심과 신도심의 학교 성적	251
표 V-47. 원도심과 신도심의 가정 경제사정	252
표 V-48. 원도심과 신도심의 평일 방과 후 보호자 여부	252
표 V-49. 원도심 주관적 행복도	253
표 V-50. 신도심의 주관적 행복도	255
표 V-51. 조사 대상 전체 원격수업, 과제수행 중 문제 해결 도움 요청 대상	257
표 V-52. 학교 급별 원격수업, 과제수행 중 문제 해결 도움 요청 대상	258
표 V-53. 4개 구별 원격수업, 과제수행 중 문제 해결 도움 요청 대상	259
표 V-54. 원도심과 신도심의 원격수업, 과제수행 중 문제 해결 도움 요청 대상	259
표 V-55. 조사 대상 전체 사교육 시간 증가	260
표 V-56. 학교 급별 사교육 시간 증가	260
표 V-57. 4개 구별 사교육 시간 증가	261
표 V-58. 원도심과 신도심의 사교육 시간 증가	262
표 V-59. 조사 대상 전체 코로나19 종료 후 학교 수업 방식	262
표 V-60. 학교 급별 코로나19 종료 후 학교 수업 방식	263
표 V-61. 4개 구별 코로나19 종료 후 학교 수업 방식	264
표 V-62. 원도심과 신도심의 코로나19 종료 후 학교 수업 방식	264
표 V-63. 조사 대상 전체 코로나19 이후 놀이, 여가활동 장소	265
표 V-64. 학교 급별 코로나19 이후 놀이, 여가활동 장소	266
표 V-65. 4개 구별 코로나19 이후 놀이, 여가활동 장소	267
표 V-66. 원도심과 신도심별 코로나19 이후 놀이, 여가활동 장소	268
표 V-67. 조사 대상 전체 코로나19 이후 수면시간 증가	270
표 V-68. 학교 급별 코로나19 이후 수면시간 증가	270
표 V-69. 4개 구별 코로나19 이후 수면시간 증가	271
표 V-70. 원도심, 신도심별 코로나19 이후 수면시간 증가	272
표 V-71. 조사 대상 전체 코로나19 이후 정상적인 식사 감소	272
표 V-72. 학교 급별 코로나19 이후 정상적인 식사 감소	273

표 V-73. 4개 구별 코로나19 이후 정상적인 식사 감소	274
표 V-74. 원도심, 신도심별 코로나19 이후 정상적인 식사 감소	274
표 V-75. 조사 대상 전체 코로나19 이후 신체활동 감소	275
표 V-76. 코로나19 이후 신체활동 감소	276
표 V-77. 4개 구별 코로나19 이후 신체활동 감소	276
표 V-78. 원도심, 신도심별 코로나19 이후 신체활동 감소	277
표 V-79. 조사 대상 전체 코로나19 이후 전자기기 사용 시간 증가	278
표 V-80. 학교 급별 코로나19 이후 전자기기 사용 시간 증가	278
표 V-81. 4개 구별 코로나19 이후 전자기기 사용 시간 증가	279
표 V-82. 원도심과 신도심의 코로나19 이후 전자기기 사용 시간 증가	280
표 V-83. 조사 대상 전체 코로나19 이후 하는 일 없이 있는 시간 증가	281
표 V-84. 학교 급별 코로나19 이후 하는 일 없이 있는 시간 증가	281
표 V-85. 4개 구별 코로나19 이후 하는 일 없이 있는 시간 증가	282
표 V-86. 원도심, 신도심의 코로나19 이후 하는 일 없이 있는 시간 증가	283
표 V-87. 코로나19 생활 변화 인식에 따른 주관적 행복도	284
표 V-88. 조사 대상자 전체 비대면 청소년 활동 경험	285
표 V-89. 학교 급별 비대면 청소년 활동 경험	286
표 V-90. 4개 구별 비대면 청소년 활동 경험	286
표 V-91. 원도심, 신도심별 비대면 청소년 활동 경험	287
표 V-92. 조사 대상 전체 커뮤니케이션 소통 활동	287
표 V-93. 학교 급별 커뮤니케이션 소통 활동	288
표 V-94. 4개 구별 커뮤니케이션 소통 활동	289
표 V-95. 원도심과 신도심의 커뮤니케이션 소통 활동	290
표 V-96. 조사 대상 전체 자료 및 정보 획득 활동	290
표 V-97. 학교 급별 자료 및 정보 획득 활동	291
표 V-98. 4개 구별 자료 및 정보 획득 활동	292
표 V-99. 원도심, 신도심별 정보 획득 활동	292
표 V-100. 조사 대상 전체 여가 활동	293
표 V-101. 학교 급별 여가 활동	294
표 V-102. 4개 구별 여가 활동	294
표 V-103. 원도심, 신도심별 여가 활동	295
표 V-104. 조사 대상 전체 교육·학습 활동	296

표 V-105. 학교 급별 교육·학습 활동	296
표 V-106. 4개 구별 교육·학습 활동	297
표 V-107. 원도심, 신도심별 교육·학습 활동	298
표 V-108. 조사 대상 전체 크리에이터 활동	298
표 V-109. 학교 급별 크리에이터 활동	299
표 V-110. 4개 구별 크리에이터 활동	300
표 V-111. 원도심, 신도심별 크리에이터 활동	300
표 V-112. 성남시 청소년 인구변화	303
표 V-113. 성남시 청소년 인구 변화 추계	304
표 VI-1.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포스트코로나 시대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전략영역과 세부 전략과제	342
표 VI-2. 조사 대상의 성별	345
표 VI-3. 조사 대상의 연령	345
표 VI-4. 조사 대상의 학력	346
표 VI-5. 조사 대상의 재직 기관 유형 및 소재지	346
표 VI-6. 조사 대상의 업무 경력	347
표 VI-7. 성남시 청소년전문가(재단소속)가 인식하는 사회 변화요인의 중요도	349
표 VI-8. 성남시 청소년전문가(재단소속)가 인식하는 사회 변화요인의 적절한 대응 수준	350
표 VI-9. 성남시 청소년전문가(재단소속)가 인식하는 성남시 제3차 중장기계획 전략과제의 중요도	352
표 VI-10. 성남시 청소년전문가(재단소속)가 인식하는 성남시 제3차 중장기계획 전략과제의 대응 수준	353
표 VI-11.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수련관의 중요도 ...	355
표 VI-12.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문화의 집의 중요도	356
표 VI-13.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보호복지시설의 중요도	357
표 VI-14.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수련관의 성과 ·	359
표 VI-15.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문화의 집의 성과	360
표 VI-16.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보호복지시설의 성과	361

표 VI-17. 청소년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중요도	363
표 VI-18. 청소년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성과 정도	364
표 VI-19. 조사 대상의 성별	366
표 VI-20. 조사 대상의 연령	366
표 VI-21. 조사 대상의 학력	367
표 VI-22. 조사 대상의 재직 기관 유형 및 소재지	367
표 VI-23. 조사 대상의 소속 기관	368
표 VI-24. 조사 대상의 업무 경력	368
표 VI-25. 성남시 청소년전문가(재단 외)가 인식하는 사회 변화요인의 중요도	370
표 VI-26. 성남시 청소년전문가(재단 외)가 인식하는 사회 변화요인의 적절한 대응 수준	371
표 VI-27. 성남시 청소년전문가(재단 외)가 인식하는 성남시 제3차 중장기계획 전략과제의 중요도	372
표 VI-28. 성남시 청소년전문가(재단 외)가 인식하는 성남시 제3차 중장기계획 전략과제의 대응 수준	374
표 VI-29.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수련관의 중요도 ·	375
표 VI-30.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문화의 집의 중요도	376
표 VI-31.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보호복지시설의 중요도	378
표 VI-32.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수련관의 성과 ·	379
표 VI-33.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문화의 집의 성과	380
표 VI-34.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보호복지시설의 성과	381
표 VI-35. 청소년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중요도	383
표 VI-36. 청소년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성과 정도	384
표 VI-37. 조사 대상의 성별	386
표 VI-38. 조사 대상의 연령	386
표 VI-39. 조사 대상의 학력	387
표 VI-40. 조사 대상의 재직 기관 유형	387
표 VI-41. 조사 대상의 재직 기관 지역	388
표 VI-42. 조사 대상의 업무 경력	389
표 VI-43. 전국 청소년전문가가 인식하는 사회 변화요인의 중요도 ·	391

표 VI-44. 전국 청소년전문가가 인식하는 사회 변화요인의 적절한 대응 수준	392
표 VI-45. 전국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수련관의 중요도 ..	394
표 VI-46. 전국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문화의 집의 중요도	395
표 VI-47. 전국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보호복지시설의 중요도	397
표 VI-48. 전국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수련관의 성과	398
표 VI-49. 전국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문화의 집의 성과 ..	400
표 VI-50. 전국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보호복지시설의 성과	401
표 VI-51. 전국 청소년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중요도	403
표 VI-52. 전국 청소년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성과 정도 ..	404
표 VI-53. AHP 주요 설문 항목	407
표 VI-54. IPA 주요 설문 항목	413
표 VII-1.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청소년 의견 응답자 분포	439
표 VII-2. 코로나 이후 가정생활의 긍정적 변화	440
표 VII-3. 코로나 이후 학교 생활의 긍정적 변화	441
표 VII-4. 코로나 이후 학교 생활의 긍정적 변화	442
표 VII-5. 코로나 이후 가정 생활의 부정적 변화	442
표 VII-6. 코로나 이후 학교 생활의 부정적 변화	443
표 VII-7. 코로나 이후 기타 생활의 부정적 변화	443
표 VII-8.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444
표 VII-9.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청소년 보호복지 프로그램 ..	445
표 VII-10. 성남시 전문가 심층분석 주요 분석결과(신규사업 발굴) ..	447
표 VII-11. 성남시 전문가 심층분석 주요 분석결과	448
표 VII-12. 재단 외 전문가 심층분석 주요 분석결과(신규사업 발굴) ..	449
표 VII-13. 재단 외 전문가 심층분석 주요 분석결과	450
표 VII-14. 전국 전문가 심층분석 주요 분석결과(신규사업 발굴)	451
표 VII-15. 전국 전문가 심층분석 주요 분석결과	453
표 VII-16. 성남시 20대 세부전략과 심층분석 결과 연계	457

그림 목차

그림 II-1.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8
그림 III-1. 불평등 키워드로 수집된 논문의 연도별 현황	130
그림 III-2. 상위 1% 소득집중도의 국제비교	131
그림 V-1. 성남시 청소년 사업 수 6개년 현황	170
그림 V-2. 성남시 청소년 사업 예산 6개년 현황	170
그림 V-3.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영역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 수	174
그림 V-4.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영역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예산	174
그림 V-5.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영역1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 수	178
그림 V-6.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영역1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예산	178
그림 V-7.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영역2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 수	182
그림 V-8.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영역2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예산	182
그림 V-9.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영역3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	185
그림 V-10.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영역3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	185
그림 V-11.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영역4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 수	188
그림 V-12.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영역4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예산	188
그림 V-13.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목표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 수	191

그림 V-14.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목표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예산	191
그림 V-15.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1-1)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 수	195
그림 V-16.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1-1)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예산	195
그림 V-17.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1-2)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 수	198
그림 V-18.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1-2)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예산	198
그림 V-19.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2-1)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 수	201
그림 V-20.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2-1)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예산	201
그림 V-21.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2-2)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 수	204
그림 V-22.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2-2)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예산	204
그림 V-23.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2-3)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 수	207
그림 V-24.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2-3)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예산	207
그림 V-25.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3-1)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 수	210
그림 V-26.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3-1)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예산	210
그림 V-27.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3-2)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 수	213
그림 V-28.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3-2)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예산	213
그림 V-29. 정책대상자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 수	217
그림 V-30. 정책대상자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예산	220
그림 V-31. 미국 노동시장의 과업 투입량 변화	309
그림 V-32. 미국 노동시장의 고용비중 변화	311
그림 V-33.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숙련 가격 변화	313

그림 V-34.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변화 동인	316
그림 V-35. 미래 일자리에 필요한 3대 핵심역량	318
그림 V-36. 미국 O*NET에서 2010-2019년 새롭게 등장한 직업(일부 직종 캡처)	319
그림 V-37. 미국 직업정보에서 2010년과 2019년 직업의 평균 스킬 수준 변화	320
그림 V-38. The OECD Learning Compass 2030	323
그림 V-39. 교육부의 미래교육 전환 정책 방향	325
그림 V-40. 시기별 미래교육 연구보고서의 키워드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326
그림 V-41. 성남시 청소년서비스의 주요 행정역량(행정통계 기초) ..	329
그림 V-42. 코로나19에 따른 청소년 정책환경 변화	330
그림 V-43.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전달체계와 거버넌스	331
그림 VI-1. 성남형 청소년서비스의 기본 방향 프레임	343
그림 VI-2. 성남형 청소년서비스의 방향 전환 프레임	344
그림 VI-3. 성남시 청소년전문가(재단소속)가 인식하는 성남시 청소년의 삶과 질	348
그림 VI-4. 성남시 청소년전문가(재단 외)가 인식하는 성남시 청소년의 삶과 질	369
그림 VI-5. 전국 청소년전문가가 인식하는 전국 청소년의 삶의 질 ·	390
그림 VI-6. 청소년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정책대상자 중요도 분석 결과	409
그림 VI-7. 미래사회 변화 대응 추진체계의 중요성 분석 결과	410
그림 VI-8. 성남시 청소년서비스의 개선 방향 중요도 분석 결과	411
그림 VI-9. IPA 매트릭스	412
그림 VI-10. 사회변화 대응에 대한 IPA 결과(성남시)	415
그림 VI-11. 성남시 제3차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IPA 결과(성남시)	416
그림 VI-12.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에 대한 IPA 결과: 수련관(성남시)	417
그림 VI-13.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에 대한 IPA 결과: 문화의 집(성남시)	418
그림 VI-14.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에 대한 IPA 결과: 보호복지(성남시)	419
그림 VI-15. 지역사회 거버넌스에 대한 IPA 결과(성남시)	421

그림 VI-16. 사회변화 대응에 대한 IPA 결과(지역)	422
그림 VI-17. 성남시 제3차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IPA 결과(지역)	423
그림 VI-18.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에 대한 IPA 결과: 수련관(지역)	424
그림 VI-19.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에 대한 IPA 결과: 문화의 집(지역)	426
그림 VI-20.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에 대한 IPA 결과: 보호복지(지역)	427
그림 VI-21. 지역사회 거버넌스에 대한 IPA 결과(지역)	428
그림 VI-22. 사회변화 대응에 대한 IPA 결과(전국)	429
그림 VI-23.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에 대한 IPA 결과: 수련관(전국) ·	431
그림 VI-24.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에 대한 IPA 결과: 문화의 집(전국)	432
그림 VI-25.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에 대한 IPA 결과: 보호복지(전국)	433
그림 IV-26. 지역사회 거버넌스에 대한 IPA 결과(전국)	434
그림 VII-1. 성남시 청소년전문가(재단소속) 대상 IPA 결과	462
그림 VII-2. 성남시 지역 청소년전문가(재단 외 소속) IPA 결과	464
그림 VII-3. 전국 청소년전문가 대상 IPA 결과	465
그림 VII-4. 미래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운영모델	468
그림 VII-5. 핵심 사업을 통한 개선 전략 모델	469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 2.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접촉의 빈도가 늘고 있다. 이는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사업 분야에도 마찬가지로이다. 특히 대면사업과 활동이 주요 근간인 청소년시설의 경우 이 같은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 방식의 변화 사업수요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성남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성남시의 청소년서비스가 어떻게 변화하고 미래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성남시 청소년서비스의 현황을 분석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청소년서비스에 대한 문헌을 분석한다. 그리고 ① 작년의 코로나 확산기를 포함한 최근 수년간 성남시 청소년의 정책환경 분석, ②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청소년사업수요의 규모 분석, ③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성남 청소년서비스의 조직, 사업, 경영, 혁신에 대한 진단, 그리고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전략과 과제 도출’을 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전략과 과제 도출’이므로 연구의 범위는 성남시 전역을 포함한 청소년시설과 청소년

년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코로나19의 종식 혹은 코로나19의 안정기 시(포스트코로나)의 상황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성남시 청소년 서비스 전략 수립을 그 범위로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4가지의 방향을 갖고 있다.

첫째, 성남시 청소년 서비스의 수요분석을 통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청소년시설의 변화는 대면서비스의 감소로 인한 청소년서비스의 수요변화이다. 따라서 성남시 청소년을 둘러싼 변화의 이론적 배경과 성남시의 특징을 객관적 근거로 조망하고 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의 요구가 반영된 성남형 청소년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분석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적으로는 포스트코로나로 인한 변화가 공통적인 반면 지역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이에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성남형 청소년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성남시의 지역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즉, 성남시 청소년서비스의 주요전달체계인 성남시청소년재단과 그 이외의 청소년 거버넌스들이 수행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성남시 청소년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이다.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전략이 도출이 되면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처방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조직적 대응, 사업적 대응, 혁신적 대응, 경영적 대응 등 다차원적인 대안으로 구체화되고 이는 결국 마스터플랜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넷째, 재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미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제를 도출한다. 무엇보다 성남시의 청소년사업과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는 성남시청소년재단 및 청소년시설이다. 이에 본 과업은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하는 성남형 전략과 마스터플랜을 제공하지만 이와 함께 성남의 역할과 책무를 제고할 수 있는 전략과 제도 같이 발굴하고자 한다.



II. 성남시의 청소년 서비스와 행정역량

- 1.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현황과 개념
- 2. 행정통계를 통해서 본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환경

1.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현황과 개념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은 크게 4대 영역과 12개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그림 II-1]). ①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을 위해 중점과제로 ‘청소년 참여확대’,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조성’, ‘청소년민주시민 성장 지원’을 선정하였으며, ②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활동 및 성장 지원 체계 혁신’, ‘청소년체험활동 활성화’,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체계 강화’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였다. 또한 ③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대상별 맞춤형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④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혁신을 위해 ‘청소년 정책 총괄·조정 강화’, ‘지역 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지도사 역량 제고’를 선정하였다.



그림 II-1.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청소년 정책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제3차 중장기 발전계획 (2019~2023)’을 발표함으로써 건강하고 창의적인 시민으로의 성장을 위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주요 경영전략을 도모하고 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은 3대 전략목표로 ① 건강하고 창의적인 시민 청소년, ②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 플랫폼, ③ 청소년과 함께하는 재단을 제시하였다. ① 건강하고 창의적인 시민 청소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과제로 ‘청소년 주도 시민 핵심역량 강화’와 ‘대상·현안별 맞춤 서비스 제공’을 수립하였으며, ②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 플랫폼을 위한 ‘적극적인 청소년 권리 보장’, ‘지역사회 청소년 플랫폼 기능 강화’, ‘청소년 지원 거버넌스 형성’을 수립하였다. 마지막으로 ③ 청소년과 함께하는 재단을 도모하기 위한 ‘청소년과 함께하는 재단 경영’,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을 구축하였다.

표 II-1. 성남시 제3차 중장기 발전계획(2019~2023)

전략목표	전략과제	세부 실행과제
1. 건강하고 창의적인 시민 청소년	1-1. 청소년 주도 시민 핵심역량 강화	1-1-1.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시민 핵심역량 강화
		1-1-2. 자발적 청소년 조직 구성·운영 지원체계 구축
		1-1-3.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국제사업 전문화·다각화
	1-2. 대상·현안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1-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1-2-2. 후기청소년(청년) 역량 강화 지원
		1-2-3. 유형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2.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 플랫폼	2-1. 적극적인 청소년 권리 보장	2-1-1. 청소년 인권침해 대응체계 구축
		2-1-2. 지역사회 청소년 영향력 강화
		2-1-3. 생활 속 청소년 권리 증진
	2-2. 지역사회 청소년 플랫폼 기능 강화	2-2-1.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확대
		2-2-2. 청소년 중심의 디지털 플랫폼 조
	2-3. 청소년 지원 거버넌스 형성	2-3-1. 성남형 청소년 안전망 구축
		2-3-2. 청소년 미래 학습지원 체계 내실화
		2-3-3. 브랜드 가치 극대화를 통한 위상 제고
		2-3-4. 지역사회 자생적 청소년 서비스 운영 지원 강화
3. 청소년과 함께하는 재단	3-1. 청소년과 함께하는 재단 경영	3-1-1. 재단 운영에 청소년 참여 보장
		3-1-2. 청소년 중심의 사업·업무체계 혁신
		3-1-3. 민주적이고 청렴한 조직 내 협업구조 확립
	3-2.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	3-2-1. 중·장기적 관점의 업무체계 구축
		3-2-2. 혁신적·성취지향적 조직경영 모델 구축
		3-2-3. 사회적 가치와 상생을 지향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

출처: 성남시청소년재단(2018). 제3차 중장기 발전계획(2019~2023)

위의 여성가족부의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과 성남시청소년재단의 ‘제3차 중장기 발전계획(2019~2023)’을 바탕으로 본 분석에선 성남시의 청소년서비스를 분석하기 위해 9세부터 24세까지 초기, 중기, 후기 청소년을 모두 포함하여 초기, 중기, 후기 각 시기별 청소년의 서비스 현황 파악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차후 전략을 위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시설 등 정책 대상자에 관한 분석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성남시의 행정구역으로 수정구와 중원구, 분당구를 포함하였으며 성남시의 청소년서비스 전달체계를 파악하기 위한 청소년서비스 공급망 시스템을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재단 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과 청소년 보호복지시설, 교육시설 및 도서관시설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2. 행정통계를 통해서 본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환경

본 연구는 성남시의 인구학적 행정통계, 가족학적 행정통계, 건강학적 행정통계, 교육학적 행정통계, 고용과 노동학적 행정통계, 주거와 교통관련 행정통계, 문화와 여가, 성장과 안정, 안전, 사회통합적 행정통계로 총 10개 영역의 전반적인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행정통계를 분석하였다. 행정통계는 모두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본 분석에서는 최대 최근 5개년의 자료와 증감률¹⁾, 5개년의 평균, 그리고 평균값을 바탕으로 한 순위를 포함한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또한 각 세부 통계 상단 정의의 경우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의 데이터를 설명하는 주석을 참고하여 서술하였다.

1) 증감률 수식은 다음과 같으며 $\{(B\text{최근연도}-A\text{기준연도})/A\text{기준연도}\} \times 100$ 통계에 따라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증감(B-A)으로 표시한 표도 있다.

1) 성남시의 인구학적 행정통계

(1) 고령인구비율

고령인구비율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서 인구의 노령화 정도를 나타낸다. 고령인구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장래에 생산 연령에 유입되는 인구에 비하여 부양해야 할 노년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도 전체의 고령인구비율은 2020년 13.2%로 2016년 10.8%에 비해 22% 증가하였다. 성남시는 2016년 11.3%, 2020년 14.2%로 25.7%가 감소하여 경기도 증감률보다 조금 상회함을 알 수 있다. 또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평균의 경우 경기도의 고령화 비율은 11.96%로 성남시 12.66%로 마찬가지로 평균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5개년 평균을 바탕으로 고령화 비율이 연천군(24%), 가평군(23.7%), 양평군(23%)이 가장 높았으며, 시흥시(8.5%), 화성시(8.5%), 오산시(8.54%), 안산시(9.56%)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 고령인구비율(2016~2020)

(단위: %)

행정 구역별	2016 (A)	2017	2018	2019	2020 (B)	증감률	2016~2020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10.8	11.4	11.9	12.5	13.2	▲22.2%	11.96	
수원시	8.7	9.3	9.8	10.4	11.1	▲27.6%	9.86	27
성남시	11.3	11.9	12.6	13.3	14.2	▲25.7%	12.66	14
의정부시	12.6	13.2	13.7	14.4	15.2	▲20.6%	13.82	9
안양시	10.3	11.0	11.7	12.6	13.7	▲33%	11.86	22
부천시	10.1	10.9	11.6	12.5	13.7	▲35.6%	11.76	24
광명시	10.8	11.5	12.2	13.1	14.0	▲29.6%	12.32	15
평택시	11.3	11.6	11.8	12.1	12.4	▲9.7%	11.84	23

행정 구역별	2016 (A)	2017	2018	2019	2020 (B)	증감률	2016~2020 평균	순위
동두천시	16.5	17.5	18.4	19.4	20.6	▲24.8%	18.48	5
안산시	8.3	8.9	9.5	10.2	10.9	▲31.3%	9.56	28
고양시	11.0	11.5	12.1	12.7	13.5	▲22.7%	12.16	17
과천시	12.1	13.0	13.4	13.9	14.2	▲17.4%	13.32	10
구리시	10.6	11.2	11.7	12.6	13.7	▲29.2%	11.96	19
남양주시	11.5	12.3	12.7	13.3	14.1	▲22.6%	12.78	13
오산시	7.7	8.1	8.4	8.9	9.6	▲24.7%	8.54	29
시흥시	7.9	8.2	8.4	8.7	9.3	▲17.7%	8.5	30
군포시	10.0	10.8	11.5	12.2	13.3	▲33%	11.56	26
의왕시	10.8	11.7	12.4	12.9	13.6	▲25.9%	12.28	16
하남시	11.0	11.5	11.9	12.3	12.8	▲16.4%	11.9	21
용인시	11.0	11.6	12.1	12.6	13.3	▲20.9%	12.12	18
파주시	12.1	12.5	12.8	13.4	13.9	▲14.9%	12.94	12
이천시	12.1	12.6	13.1	13.5	14.3	▲18.2%	13.12	11
안성시	14.5	15.4	16.0	16.8	17.6	▲21.4%	16.06	7
김포시	11.1	11.4	11.5	12.0	12.3	▲10.8%	11.66	25
화성시	8.3	8.4	8.4	8.5	8.9	▲7.2%	8.5	30
광주시	10.7	11.3	11.8	12.4	13.4	▲25.2%	11.92	20
양주시	13.0	13.7	14.3	15.0	15.7	▲20.8%	14.34	8
포천시	15.7	16.6	17.5	18.6	19.9	▲26.8%	17.66	6
여주시	17.7	18.8	19.7	20.8	21.9	▲23.7%	19.78	4
연천군	22.1	22.9	23.8	25.1	26.4	▲19.5%	24.06	1
가평군	21.7	22.7	23.5	24.7	26.2	▲20.7%	23.76	2
양평군	21.2	22.2	23.2	24.3	25.7	▲21.2%	23.32	3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 남녀성비

남녀성비는 여자 백 명당 남자 수로 성비가 100을 초과하면 남자인구가 여자인구보다 많은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성비가 100 미만이면 여자인구가 남자 인구보다 많은 것을 의미한다. 경기도 전체의 남녀성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해서 101.2%로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의 경우 2015~2019년 5개년 평균값이 98.3%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남시 지역으로 보면 수정구와 중원구의 5개년 평균은 각각 103.1%, 102.6%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추세이나 분당구는 94.2%로 여성이 더 많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 시군 가운데 5개년 평균을 기준으로 남녀성비가 포천시(110.9%), 시흥시(110.1%), 연천군(110%)으로 가장 높았으며, 과천시(95.4%), 고양시(96.5%), 의정부시(97.4%)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3. 남녀성비(2015~2019)

(단위: %)

행정 구역별		2015 (A)	2016	2017	2018	2019 (B)	증감률	2015~2019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101.2	101.2	101.2	101.2	101.2	-	101.2	
수원시		101.4	101.4	101.5	101.5	101.4	-	101.4	17
성남시	전체	98.8	98.4	98.1	98.1	98.0	▽0.8%	98.3	27
	(수정구)	(104.2)	(103.4)	(102.9)	(102.6)	(102.2)	(▽1.9%)	(103.1)	-
	(중원구)	(102.7)	(102.7)	(102.5)	(102.6)	(102.6)	(▽0.1%)	(102.6)	-
	(분당구)	(94.7)	(94.3)	(94)	(94)	(94.1)	(▽0.7%)	(94.2)	-
의정부시		97.7	97.5	97.5	97.2	97.1	▽0.6%	97.4	29
안양시		99.0	98.8	98.6	98.2	98.0	▽1.0%	98.5	26
부천시		99.9	99.7	99.5	99.2	98.8	▽1.1%	99.4	21
광명시		98.5	98.2	98.2	98.0	97.7	▽0.8%	98.1	28
평택시		103.9	104.3	105.0	105.4	106.0	▲2.0%	104.9	9
동두천시		99.2	99.3	99.2	99.5	99.7	▲0.5%	99.4	22

행정 구역별	2015 (A)	2016	2017	2018	2019 (B)	증감률	2015~2019 평균	순위
안산시	105.1	105.0	105.3	105.3	105.2	▲0.1%	105.2	8
고양시	96.8	96.6	96.4	96.3	96.2	▽0.6%	96.5	30
과천시	94.5	94.7	95.4	95.6	96.6	▲2.2%	95.4	31
구리시	99.4	99.0	98.7	98.6	98.7	▽0.7%	98.9	23
남양주시	99.8	99.8	99.7	99.5	99.3	▽0.5%	99.6	20
오산시	105.1	105.4	105.6	106.0	106.8	▲1.6%	105.8	5
시흥시	110.4	110.4	110.1	109.8	109.7	▽0.6%	110.1	2
군포시	98.9	98.9	98.7	98.7	98.5	▽0.4%	98.7	24
의왕시	99.8	99.8	99.6	99.7	99.4	▽0.4%	99.7	19
하남시	103.1	101.8	101.1	101.0	101.1	▽1.9%	101.6	15
용인시	98.7	98.7	98.8	98.7	98.6	▽0.1%	98.7	25
파주시	103.1	103.0	103.1	103.0	103.1	-	103.1	12
이천시	103.2	103.6	104.3	105.3	106.4	▲3.1%	104.6	11
안성시	104.1	104.3	104.9	105.2	105.7	▲1.5%	104.8	10
김포시	101.0	101.0	100.8	100.8	100.9	▽0.1%	100.9	18
화성시	106.7	106.8	107.1	107.4	107.5	▲0.7%	107.1	4
광주시	105.7	105.6	105.4	105.0	104.9	▽0.8%	105.3	6
양주시	103.0	102.9	103.0	102.8	103.0	-	102.9	13
포천시	110.4	110.6	110.8	111.1	111.5	▲1.0%	110.9	1
여주시	102.4	102.4	102.3	102.6	103.2	▲0.8%	102.6	14
연천군	109.7	110.4	109.9	109.9	110.1	▲0.4%	110.0	3
가평군	105.1	105.0	105.1	105.4	105.5	▲0.4%	105.2	7
양평군	102.1	102.2	101.5	101.2	100.7	▽1.4%	101.5	16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3) 인구 천 명당 외국인수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는 내국인 천명 대비 외국인 수를 나타내며 외국인 수는 등록외국인 기준으로 외국인의 변동추이를 파악하여 외국인 관련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도 전체 인구 천 명당 외국인수는 2019년 31.29명으로 2015년 29.52명 대비 1.77% 감소하였다. 성남시의 2015~2019년 평균 경기도 인구 천 명당 외국인수는 18.36명으로 경기도 전체 5개년 평균 30.22명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지역으로 살펴보면 수정구는 5개년 평균 인구 천 명당 외국인수가 47.5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원구가 14.99명, 분당구가 6.34명으로 가장 적었다. 한편, 경기도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천 명당 외국인수가 가장 많은 곳은 포천시(83.04명), 안산시(82.18명), 시흥시(76.72명)로 나타났으며 과천시(3.49명), 구리시(7.29명), 의왕시(7.84명)가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4.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2015~2019)

(단위: 명)

행정 구역별		2015 (A)	2016	2017	2018	2019 (B)	증감률	2015~2019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29.52	29.40	29.64	31.24	31.29	▽1.77%	30.22	
수원시		31.53	31.14	31.47	34.17	33.95	▽2.42%	32.46	12
성남시	전체	18.77	18.04	17.50	18.79	18.69	▲0.08%	18.36	19
	(수정구)	(50.13)	(46.17)	(44.31)	(49.12)	(48.22)	(▽3.8%)	(47.59)	-
	(중원구)	(15.67)	(15.15)	(14.15)	(14.96)	(15.03)	(▽4.07%)	(14.99)	-
	(분당구)	(6.61)	(6.4)	(6.36)	(6.2)	(6.14)	(▽7.14%)	(6.34)	-
의정부시		8.80	8.77	9.32	10.10	10.86	▽2.06%	9.57	27
안양시		12.82	12.12	11.80	12.84	13.09	▽0.27%	12.54	24
부천시		23.77	23.97	25.10	28.84	30.95	▽7.18%	26.53	15
광명시		16.64	17.44	17.56	19.19	18.77	▽2.13%	17.92	20
평택시		40.48	42.34	44.32	46.46	46.99	▽6.51%	44.12	7

행정 구역별	2015 (A)	2016	2017	2018	2019 (B)	증감률	2015~2019 평균	순위
동두천시	31.40	31.81	32.91	34.71	36.69	▽5.29%	33.51	11
안산시	79.84	79.00	79.29	86.00	86.75	▽6.91%	82.18	2
고양시	11.96	11.82	11.76	12.13	11.73	▲0.23%	11.88	25
과천시	3.97	3.68	3.67	3.15	2.97	▲1%	3.49	31
구리시	7.68	7.17	7.08	7.00	7.48	▲0.2%	7.29	30
남양주시	9.46	9.88	10.22	10.47	10.65	▽1.19%	10.14	26
오산시	39.07	38.55	39.49	42.94	42.83	▽3.76%	40.58	8
시흥시	79.13	77.69	76.33	77.20	73.25	▲5.88%	76.72	3
군포시	24.34	23.77	24.12	25.13	25.41	▽1.07%	24.56	16
의왕시	8.78	7.87	7.64	7.48	7.39	▲1.39%	7.84	29
하남시	10.50	8.72	9.23	9.22	8.36	▲2.14%	9.21	28
용인시	17.06	17.04	16.86	17.77	17.91	▽0.85%	17.33	21
파주시	22.99	23.77	24.38	24.95	25.49	▽2.5%	24.32	17
이천시	29.90	30.77	32.27	34.45	34.82	▽4.92%	32.45	13
안성시	51.34	53.86	58.30	61.96	64.35	▽13.01%	57.97	4
김포시	47.95	49.07	46.77	46.91	46.51	▲1.44%	47.45	6
화성시	56.01	54.12	52.84	51.90	49.73	▲6.28%	52.92	5
광주시	36.72	36.96	35.91	35.84	34.85	▲1.87%	36.06	9
양주시	35.35	35.51	33.57	33.64	33.57	▲1.78%	34.33	10
포천시	78.60	81.09	81.18	84.94	89.39	▽10.79%	83.04	1
여주시	27.15	27.47	31.36	31.82	32.19	▽5.04%	30	14
연천군	19.51	21.33	21.48	21.80	23.16	▽3.65%	21.46	18
가평군	17.37	17.12	16.56	16.18	16.77	▲0.6%	16.8	22
양평군	13.56	13.59	13.84	13.57	12.83	▲0.73%	13.48	23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4) 인구증가율

인구증가율은 국가와 지역의 변화 지표로 가장 핵심 사항 중의 하나로, 자연증가율과 사회적증가율의 합으로 전년대비 인구변화율 및 특정시점에서 비교되는 시점까지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인구증가율의 경우 자체식이 이미 전년도 대비 증가율로 나타내기 때문에 다른 통계와 달리 증감(B-A)으로 나타냈다. 경기도 전체 2019년 인구증가율은 1.25%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평균의 경우 1.44%로 나타났다. 성남시의 경우 2019년 인구증가율은 -1.23%로 2015년 -0.26%에 비해 0.97%p 더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지역으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평균으로 수정구는 1.04%, 중원구는 -2.67%, 분당구는 -0.46%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 전체 시군으로 인구증가율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평균으로 가장 높은 곳은 하남시(12.97%), 화성시(8.38%), 김포시(5.18%)로 나타났으며 과천시(-3.56%), 광명시(-1.84%), 안산시(-1.47%)로 확인되었다.

표 II-5. 인구증가율(2015~2019)

(단위: %, %p)

행정 구역별		2015 (A)	2016	2017	2018	2019 (B)	증감 (B-A)	2015~2019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1.43	1.54	1.26	1.74	1.25	▽0.18	1.44	
수원시		1.06	0.76	0.75	0.14	-0.58	▽1.64	0.43	18
성남시	전체	-0.26	0.25	-0.78	-1.24	-1.23	▽0.97	-0.65	25
	(수정구)	(-1.44)	(5.66)	(1.58)	(-0.73)	(0.15)	(▲1.59)	(1.04)	-
	(중원구)	(-0.74)	(-4.89)	(-3.27)	(-2.3)	(-2.15)	(▽1.41)	(-2.67)	-
	(분당구)	(0.54)	(0.37)	(-0.72)	(-0.99)	(-1.48)	(▽2.02)	(-0.46)	-
의정부시		0.69	1.04	0.77	1.31	1.16	▲0.47	0.99	16
안양시		-0.47	-0.13	-1.65	-1.76	-1.67	▽1.20	-1.14	28
부천시		-0.64	0.30	-0.01	-0.41	-1.43	▽0.79	-0.44	22

행정 구역별	2015 (A)	2016	2017	2018	2019 (B)	증감 (B-A)	2015~2019 평균	순위
광명시	-0.88	-1.52	-1.96	-1.63	-3.19	▽2.31	-1.84	30
평택시	2.67	2.42	2.47	3.14	3.56	▲0.89	2.85	6
동두천시	0.52	0.35	-1.12	-0.70	-1.33	▽1.85	-0.46	23
안산시	-1.05	-1.23	-1.73	-1.96	-1.36	▽0.31	-1.47	29
고양시	2.14	1.17	0.22	0.25	2.08	▽0.06	1.17	14
과천시	-1.74	-7.52	-9.80	1.02	0.23	▲1.97	-3.56	31
구리시	-0.02	3.72	3.23	1.75	-2.06	▽2.04	1.32	13
남양주시	2.72	1.37	0.51	2.51	2.95	▲0.23	2.01	9
오산시	-0.42	0.83	2.38	3.45	2.86	▲3.28	1.82	12
시흥시	1.21	1.03	4.03	7.00	5.18	▲3.97	3.69	5
군포시	-0.16	-0.97	-1.26	-1.43	-0.36	▽0.20	-0.84	27
의왕시	-0.48	-0.71	-0.66	-1.19	4.68	▲5.16	0.33	20
하남시	11.83	26.40	10.19	9.43	7	▽4.83	12.97	1
용인시	1.59	1.57	1.29	3.18	2.38	▲0.79	2.00	10
파주시	2.98	1.84	1.70	3.25	0.54	▽2.44	2.06	8
이천시	0.11	2.73	1.47	0.71	0.8	▲0.69	1.16	15
안성시	-0.79	1.74	0.36	0.78	0.13	▲0.92	0.44	17
김포시	3.06	3.95	7.65	7.94	3.28	▲0.22	5.18	3
화성시	10.02	7.25	7.70	9.69	7.25	▽2.77	8.38	2
광주시	4.64	4.87	5.45	5.15	2.34	▽2.30	4.49	4
양주시	1.40	0.18	3.03	2.27	2.47	▲1.07	1.87	11
포천시	-0.32	-0.05	-1.18	-1.13	-1.12	▽0.80	-0.76	26
여주시	0.67	0.51	0.76	-0.37	-0.36	▽1.03	0.24	21
연천군	1.00	0.58	-1.02	-1.73	-1.68	▽2.68	-0.57	24
가평군	1.28	0.68	0.79	-0.12	-0.74	▽2.02	0.38	19
양평군	2.82	2.82	3.38	0.83	0.6	▽2.22	2.09	7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5) 주민등록인구

주민등록인구는 전국 지자체별 주민등록(거주자)이 되어있는 자의 인구로 선거, 교육, 조세, 복지, 교통, 지역개발 등 각 분야에 적시성 있는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국가행정 및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다만, 주민등록에 의한 집계로 외국인은 제외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기도 전체 주민등록인구 수는 2019년 13,239,666명으로 2015년 12,522,606명 대비 5.7% 증가하였다. 성남 시의 경우 2019년 주민등록인구 수는 942,724명으로 2015년 971,424명 대비 대략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지역으로 보면 2015년 대비 2019년 수정구는 234,678명으로 7% 증가, 중원구는 220,041명으로 12% 감소, 분당구는 488,005명으로 3% 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9년 기준 주민등록인구 수가 높은 경기도의 시군으로는 수원시가 1,194,465명, 고양시가 1,066,351명, 용인시가 1,059,609명, 성남시가 942,724명으로 나타났다.

표 II-6. 주민등록인구(2015~2019)

(단위: 만명)

행정 구역별	2015 (A)	2016	2017	2018	2019 (B)	증감률	2015~2019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1252.3	1271.7	1287.4	1307.7	1324.0	▲5.7%	1288.6	
수원시	118.5	119.4	120.3	120.1	119.4	▲0.8%	119.5	1
성남시	전체	97.1	97.5	96.8	95.4	▽3.0%	96.2	4
	(수정구)	(22)	(23.3)	(23.7)	(23.4)	▲7%	(23.2)	-
	(중원구)	(25)	(23.8)	(23)	(22.5)	▽12%	(23.3)	-
	(분당구)	(50.2)	(50.4)	(50)	(49.5)	▽3%	(49.8)	-
의정부시	43.4	43.8	44.2	44.7	45.2	▲4.1%	44.3	11
안양시	59.8	59.7	58.8	57.7	56.7	▽5.1%	58.5	9
부천시	84.9	85.1	85.0	84.4	83.0	▽2.2%	84.5	5

행정 구역별	2015 (A)	2016	2017	2018	2019 (B)	증감률	2015~2019 평균	순위
광명시	34.5	33.9	33.3	32.7	31.7	▽8.2%	33.2	16
평택시	46.1	47.1	48.2	49.6	51.3	▲11.4%	48.4	10
동두천시	9.8	9.8	9.7	9.6	9.5	▽3.3%	9.7	28
안산시	69.8	69.0	67.8	66.0	65.1	▽6.7%	67.5	7
고양시	102.8	104.0	104.2	104.4	106.6	▲3.8%	104.4	2
과천시	6.9	6.4	5.8	5.8	5.8	▽15.5%	6.1	30
구리시	18.7	19.4	20.0	20.4	19.9	▲6.7%	19.7	22
남양주시	65.3	66.2	66.5	68.2	70.2	▲7.4%	67.3	8
오산시	20.7	20.9	21.3	22.0	22.6	▲9.5%	21.5	19
시흥시	39.8	40.3	42.0	44.9	47.4	▲18.9%	42.9	13
군포시	28.8	28.5	28.1	27.7	27.6	▽4.1%	28.1	17
의왕시	15.8	15.7	15.6	15.4	16.1	▲2.2%	15.7	24
하남시	16.7	21.1	23.2	25.4	27.2	▲63.4%	22.7	18
용인시	97.6	99.1	100.4	103.5	106.0	▲8.6%	101.3	3
파주시	42.3	43.1	43.8	45.2	45.4	▲7.3%	44.0	12
이천시	20.5	21.0	21.3	21.4	21.6	▲5.3%	21.2	21
안성시	18.0	18.3	18.3	18.4	18.3	▲1.8%	18.3	23
김포시	35.0	36.3	39.2	42.3	43.7	▲24.9%	39.3	14
화성시	59.7	64.1	69.1	75.9	81.5	▲36.7%	70.1	6
광주시	31.3	32.8	34.6	36.4	37.3	▲19.2%	34.5	15
양주시	20.5	20.6	21.2	21.7	22.2	▲8.3%	21.2	20
포천시	15.5	15.5	15.3	15.1	14.8	▽4.4%	15.2	25
여주시	11.1	11.2	11.2	11.2	11.1	-	11.1	27
연천군	4.6	4.6	4.5	4.5	4.4	▽4.2%	4.5	31
가평군	6.2	6.2	6.3	6.3	6.2	▲0.7%	6.3	29
양평군	10.8	11.1	11.5	11.6	11.7	▲7.9%	11.4	26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6) 추계인구

추계인구는 5개년씩 3개년의 평균을 나타낸 것으로 2021~2015년 간의 평균과 2026~2030년 간의 평균, 그리고 2031~2035년 간의 3년도를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 전체 추계인구의 경우 2021~2015년 간 13,772,509명, 2026~2030년 간 14,172,073명, 2031~2035년 간 14,400,882명으로 추산되며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성남시의 경우 2021~2015년 간 911,330명, 2026~2030년 간 914,235명, 2031~2035년 간 911,404명으로 제시되고 있다. 2021년~2035년 동안 경기도 전체 시군 가운데 수원시가 1,266,189명으로 가장 많은 추계인구로 나타났으며, 용인시가 1,143,246명, 화성시가 1,076,869명, 고양시 1,069,936명, 성남시 912,323명으로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표 II-7. 추계인구(2021~2035)

(단위: 만 명)

행정 구역별	2021~2025 (A)	2026~2030	2031~2035 (B)	증감률	2021~2035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1377.3	1417.2	1440.1	▲4.6%	1411.5	
수원시	123.9	127.0	129.0	▲4.2%	126.6	1
성남시	91.1	91.4	91.1	▲0.01%	91.2	5
의정부시	45.6	46.3	46.6	▲2.2%	46.2	14
안양시	54.4	53.1	51.9	▽4.7%	53.1	12
부천시	81.6	80.7	79.7	▽2.3%	80.7	6
광명시	30.4	29.4	28.5	▽6.4%	29.4	17
평택시	55.1	57.9	59.7	▲8.3%	57.6	9
동두천시	9.4	9.5	9.6	▲1.9%	9.5	28
안산시	67.9	64.9	62.5	▽7.8%	65.1	8
고양시	104.4	107.3	109.3	▲4.7%	107.0	4
과천시	5.1	4.7	4.4	▽14.3%	4.7	30
구리시	20.1	20.8	21.1	▲5.1%	20.7	23
남양주시	71.3	74.4	76.4	▲7.1%	74.0	7

행정 구역별	2021~2025 (A)	2026~2030	2031~2035 (B)	증감률	2021~2035 평균	순위
오산시	23.9	24.9	25.6	▲7.2%	24.8	19
시흥시	54.2	55.3	55.5	▲2.3%	55.0	10
군포시	26.8	26.3	25.9	▽3.2%	26.3	18
의왕시	15.7	15.4	15.0	▽4.5%	15.4	25
하남시	32.0	36.6	39.4	▲23.3%	36.0	16
용인시	111.7	114.7	116.6	▲4.4%	114.3	2
파주시	48.2	50.7	52.4	▲8.7%	50.5	13
이천시	22.7	23.2	23.6	▲4.1%	23.2	21
안성시	20.5	20.7	21.1	▲2.9%	20.8	22
김포시	49.8	53.7	56.0	▲12.6%	53.2	11
화성시	98.1	109.1	115.8	▲18.1%	107.7	3
광주시	40.7	44.1	46.3	▲13.7%	43.7	15
양주시	23.8	24.4	24.8	▲4.3%	24.3	20
포천시	15.4	15.3	15.3	▽0.5%	15.4	24
여주시	11.3	11.6	12.0	▲6.4%	11.6	27
연천군	4.2	4.3	4.4	▲3.1%	4.3	31
가평군	6.2	6.5	6.7	▲8.7%	6.4	29
양평군	12.0	13.0	13.8	▲15.1%	12.9	26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7)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한 나라의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국제적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경기도 전체는 2015년 1.27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9년 0.94명으로 2015년 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의 경우도 2015년 1.15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9년 0.85명으로 2015년 대비 26.5%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남시 지역으로 수정구와 중원구, 분당구 모두 2015년 대비 2019년 감소하였으며 분당구가 대략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 전체 시군으로 볼 때 2015년부터 2019년 평균으로 연천군이 1.6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성시가 1.4명, 평택시가 1.26명으로 합계출산율이 높았다.

표 II-8. 합계출산율(2015~2019)

(단위: 명)

행정 구역별		2015 (A)	2016	2017	2018	2019 (B)	증감률	2015~2019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1.272	1.194	1.069	1.002	0.943	▽25.9%	1.096	
수원시		1.292	1.190	1.044	0.985	0.890	▽31.1%	1.081	18
성남시	전체	1.159	1.110	1.005	0.910	0.852	▽26.5%	1.008	26
	(수정구)	(1.116)	(1.140)	(1.016)	(0.955)	(0.882)	▽21.0%	(1.022)	-
	(중원구)	(1.096)	(1.069)	(1.008)	(0.857)	(0.838)	▽23.5%	(0.974)	-
	(분당구)	(1.208)	(1.114)	(0.998)	(0.911)	(0.841)	▽30.4%	(1.015)	-
의정부시		1.104	1.049	0.947	0.905	0.847	▽23.3%	0.971	28
안양시		1.177	1.112	0.985	1.006	0.980	▽16.7%	1.052	22
부천시		1.072	1.019	0.977	0.896	0.807	▽24.7%	0.955	30
광명시		1.235	1.126	0.978	0.925	0.840	▽32.0%	1.021	23
평택시		1.469	1.366	1.254	1.144	1.102	▽25.0%	1.267	3
동두천시		1.292	1.261	1.078	0.879	0.854	▽33.9%	1.073	20
안산시		1.219	1.106	0.983	0.879	0.887	▽27.2%	1.015	24
고양시		1.161	1.071	0.960	0.846	0.802	▽30.9%	0.968	29

행정 구역별	2015 (A)	2016	2017	2018	2019 (B)	증감률	2015~2019 평균	순위
과천시	1.099	0.982	0.855	0.796	0.780	▽29.0%	0.903	31
구리시	1.159	1.034	0.979	0.955	0.872	▽24.8%	1.000	27
남양주시	1.255	1.190	1.043	0.988	0.908	▽27.6%	1.077	19
오산시	1.458	1.375	1.210	1.130	1.040	▽28.7%	1.243	4
시흥시	1.306	1.202	1.083	1.140	1.081	▽17.2%	1.163	14
군포시	1.422	1.339	1.105	1.058	1.046	▽26.4%	1.194	9
의왕시	1.209	1.130	0.912	0.885	0.924	▽23.6%	1.012	25
하남시	1.076	1.152	1.095	1.020	0.975	▽9.4%	1.064	21
용인시	1.316	1.205	1.039	0.981	0.936	▽28.9%	1.096	17
파주시	1.443	1.375	1.199	1.112	1.050	▽27.2%	1.236	5
이천시	1.470	1.360	1.234	1.106	0.991	▽32.6%	1.233	6
안성시	1.335	1.285	1.178	1.026	1.002	▽24.9%	1.166	13
김포시	1.461	1.296	1.175	1.094	1.016	▽30.5%	1.209	8
화성시	1.555	1.555	1.391	1.309	1.199	▽22.9%	1.402	2
광주시	1.450	1.323	1.187	1.127	1.043	▽28.1%	1.226	7
양주시	1.318	1.279	1.188	1.090	1.030	▽21.9%	1.181	12
포천시	1.354	1.258	1.152	1.056	0.889	▽34.3%	1.142	15
여주시	1.336	1.303	1.073	1.118	1.083	▽18.9%	1.183	11
연천군	1.729	1.863	1.590	1.613	1.413	▽18.3%	1.642	1
가평군	1.270	1.283	1.307	1.093	0.971	▽23.5%	1.185	10
양평군	1.180	1.220	1.163	0.994	1.024	▽13.2%	1.117	16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8) 청소년 인구(9세~24세) 비율

전체 인구 가운데 청소년 인구(9세~24세) 비율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2015년 19.8%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9년 17.7%로 2015년 대비 2019년 1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또한 2015년 18.96%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9년 17.02%로 2015년 대비 2019년 대략 10.2% 감소하였다. 성남시 지역으로 볼 때도 2015년에서 2019년으로 갈수록 수정구와 중원구, 분당구 모든 지역에서 청소년 인구(9세~24세)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원구에서 2015년 대비 2019년 13.8%로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경기도 전체 시군의 경우 2015년~2019년 5개년 평균으로 안산시(20.83%), 과천시(20.24%), 시흥시(20.21%), 용인시(19.91%), 수원시(19.75%)에서 청소년 인구(9세~24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9. 청소년 인구(9세~24세) 비율(2015~2019)

(단위: %)

행정 구역별	2015 (A)	2016	2017	2018	2019 (B)	증감률	2015~2019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19.80	19.32	18.77	18.18	17.70	▽10.6%	18.76		
수원시	20.93	20.35	19.69	19.12	18.68	▽10.8%	19.75	5	
성남 시	전체	18.96	18.49	17.98	17.49	17.02	▽10.2%	17.99	20
	(수정구)	(16.58)	(16.43)	(15.91)	(15.35)	(14.89)	(▽10.1%)	(15.83)	-
	(중원구)	(17.68)	(17.05)	(16.51)	(15.87)	(15.25)	(▽13.8%)	(16.47)	-
	(분당구)	(20.64)	(20.13)	(19.65)	(19.24)	(18.85)	(▽8.7%)	(19.70)	-
의정부시	19.88	19.32	18.71	18.00	17.44	▽12.3%	18.67	14	
안양시	20.17	19.50	18.86	18.17	17.59	▽12.8%	18.86	10	
부천시	19.42	18.72	17.93	17.22	16.58	▽14.6%	17.97	21	
광명시	19.09	18.82	18.51	18.09	17.72	▽7.2%	18.45	18	
평택시	19.71	19.28	18.81	18.29	17.76	▽9.9%	18.77	11	
동두천시	18.07	17.72	17.29	16.87	16.44	▽9.0%	17.28	24	

행정 구역별	2015 (A)	2016	2017	2018	2019 (B)	증감률	2015~2019 평균	순위
안산시	22.23	21.64	20.88	20.09	19.30	▽13.2%	20.83	1
고양시	20.92	20.20	19.51	18.80	18.04	▽13.8%	19.49	6
과천시	21.44	20.78	20.53	19.69	18.74	▽12.6%	20.24	2
구리시	20.56	19.70	18.92	18.02	17.31	▽15.8%	18.90	9
남양주시	19.64	19.40	19.11	18.73	18.36	▽6.6%	19.05	7
오산시	19.37	19.31	19.10	18.79	18.46	▽4.7%	19.01	8
시흥시	21.80	21.21	20.33	19.25	18.45	▽15.3%	20.21	3
군포시	19.64	19.22	18.75	18.21	17.68	▽10.0%	18.70	13
의왕시	19.60	18.97	18.52	18.03	17.20	▽12.3%	18.46	17
하남시	17.02	16.32	15.85	15.40	15.12	▽11.2%	15.94	28
용인시	20.36	20.39	20.06	19.54	19.18	▽5.8%	19.91	4
파주시	18.97	18.71	18.34	17.83	17.64	▽7.0%	18.30	19
이천시	19.67	19.35	18.76	18.20	17.73	▽9.9%	18.74	12
안성시	18.31	18.01	17.74	17.29	16.90	▽7.7%	17.65	22
김포시	18.24	17.91	17.31	16.81	16.72	▽8.3%	17.40	23
화성시	19.06	18.87	18.65	18.27	18.13	▽4.9%	18.60	16
광주시	17.51	17.08	16.52	16.00	15.60	▽10.9%	16.54	26
양주시	19.43	19.23	18.68	18.18	17.82	▽8.3%	18.67	15
포천시	18.50	17.84	17.13	16.44	15.74	▽14.9%	17.13	25
여주시	17.56	17.16	16.40	15.85	15.39	▽12.4%	16.47	27
연천군	16.50	15.84	14.94	14.33	14.03	▽15.0%	15.13	29
가평군	15.44	14.84	14.40	13.84	13.50	▽12.6%	14.41	31
양평군	15.36	14.87	14.45	14.04	13.70	▽10.8%	14.48	30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9) 청소년 인구(9세~12세) 비율

다음은 전체 인구 가운데 청소년 인구(9세~12세)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청소년(9세~12세)은 초기 청소년에 해당한다. 경기도의 청소년 인구(9세~12세) 비율은 2015년 4.01%에서 미세하게 감소하다 2019년 4.02%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또한 2015년 3.56%에서 2019년 3.6%로 비슷하게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지역으로 살펴보면 수정구의 경우 2015년 대비 2019년 2.5% 증가, 중원구는 3.9% 감소, 분당구는 2.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2015~2019년 간 경기도 전체 시군으로 볼 때 높은 수준의 청소년 인구(9세~12세) 비율로는 화성시(5.21%), 용인시(4.78%), 오산시(4.76%), 김포시(4.51%)로 나타났다.

표 II-10. 청소년 인구(9세~12세) 비율(2015~2019)

(단위: %)

행정 구역별	2015 (A)	2016	2017	2018	2019 (B)	증감률	2015~2019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4.01	3.99	3.97	3.99	4.02	▲0.2%	4.00	
수원시	3.94	3.90	3.86	3.88	3.92	▽0.7%	3.90	13
성남시	전체	3.56	3.54	3.51	3.55	▲0.9%	3.55	23
	(수정구)	(2.78)	(2.80)	(2.79)	(2.85)	(▲2.5%)	(2.80)	-
	(중원구)	(3.01)	(2.99)	(2.95)	(2.89)	(▽3.9%)	(2.95)	-
	(분당구)	(4.18)	(4.15)	(4.12)	(4.19)	(▲2.2%)	(4.18)	-
의정부시	3.68	3.61	3.58	3.55	3.58	▽2.8%	3.60	22
안양시	3.62	3.53	3.52	3.49	3.49	▽3.6%	3.53	24
부천시	3.38	3.34	3.32	3.34	3.32	▽1.9%	3.34	27
광명시	3.99	4.02	4.00	3.95	3.89	▽2.4%	3.97	12
평택시	4.06	4.06	4.06	4.12	4.14	▲1.9%	4.09	10
동두천시	3.74	3.69	3.64	3.68	3.68	▽1.6%	3.69	19
안산시	3.81	3.77	3.67	3.58	3.54	▽7.0%	3.67	20

행정 구역별	2015 (A)	2016	2017	2018	2019 (B)	증감률	2015~2019 평균	순위
고양시	3.96	3.85	3.78	3.75	3.74	▽5.6%	3.82	16
과천시	4.11	4.02	4.02	3.96	3.83	▽6.9%	3.99	11
구리시	3.84	3.72	3.64	3.60	3.55	▽7.7%	3.67	21
남양주시	4.40	4.44	4.44	4.53	4.56	▲3.6%	4.48	5
오산시	4.66	4.72	4.81	4.82	4.78	▲2.6%	4.76	3
시흥시	4.25	4.20	4.16	4.17	4.19	▽1.4%	4.19	8
군포시	3.92	3.86	3.82	3.77	3.76	▽4.1%	3.83	15
의왕시	3.54	3.50	3.51	3.57	3.46	▽2.3%	3.52	25
하남시	3.48	3.63	3.72	3.88	4.07	▲16.9%	3.76	17
용인시	4.79	4.81	4.80	4.77	4.73	▽1.4%	4.78	2
파주시	4.31	4.36	4.35	4.39	4.49	▲4.3%	4.38	6
이천시	4.13	4.19	4.16	4.07	4.10	▽0.8%	4.13	9
안성시	3.84	3.88	3.91	3.93	3.93	▲2.3%	3.90	14
김포시	4.37	4.40	4.47	4.56	4.73	▲8.1%	4.51	4
화성시	5.15	5.19	5.18	5.22	5.30	▲3.0%	5.21	1
광주시	3.77	3.74	3.66	3.63	3.68	▽2.4%	3.69	18
양주시	4.35	4.40	4.27	4.25	4.20	▽3.6%	4.29	7
포천시	3.43	3.28	3.22	3.19	3.10	▽9.5%	3.24	29
여주시	3.47	3.48	3.36	3.32	3.32	▽4.4%	3.39	26
연천군	2.77	2.76	2.76	2.69	2.74	▽1.0%	2.74	31
가평군	2.94	2.89	2.83	2.78	2.78	▽5.3%	2.84	30
양평군	3.25	3.30	3.26	3.33	3.32	▲2.3%	3.29	28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10) 청소년 인구(13세~18세) 비율

다음은 전체 인구 가운데 청소년 인구(13세~18세) 비율로 중기 청소년에 해당한다. 경기도의 청소년 인구(13세~18세) 비율은 2015년 7.44%에서 감소하며 2019년 5.96%로 2015년 대비 2019년 1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또한 2015년 7.09% 대비 2019년 6.06%로 감소하며 20.7%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 성남시 지역으로 볼 때, 모든 지역에서 2015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중원구가 2015년 대비 2019년 23%로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전체 시군으로 볼 때, 2015년부터 2019년 간 높은 수준의 청소년 인구(13세~18세) 비율을 보이는 시군으로는 과천시(7.53%), 용인시(7.36%), 안산시(7.34%), 시흥시(7.23%)로 나타났다.

표 II-11. 청소년 인구(13세~18세) 비율(2015~2019)

(단위: %)

행정 구역별		2015 (A)	2016	2017	2018	2019 (B)	증감률	2015~2019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7.44	7.07	6.73	6.34	5.96	▽19.9%	6.71	
수원시		7.63	7.22	6.82	6.44	6.06	▽20.7%	6.83	10
성남시	전체	7.09	6.72	6.43	6.10	5.74	▽19.1%	6.42	20
	(수정구)	(5.69)	(5.38)	(5.05)	(4.74)	(4.45)	(▽21.7%)	(5.06)	-
	(중원구)	(6.21)	(5.86)	(5.60)	(5.18)	(4.78)	(▽23.0%)	(5.52)	-
	(분당구)	(8.14)	(7.75)	(7.48)	(7.16)	(6.78)	(▽16.7%)	(7.46)	-
의정부시		7.45	7.01	6.65	6.18	5.75	▽22.8%	6.61	18
안양시		7.43	7.03	6.66	6.26	5.88	▽20.9%	6.65	16
부천시		6.92	6.47	6.05	5.65	5.30	▽23.5%	6.08	25
광명시		7.18	6.94	6.77	6.48	6.22	▽13.4%	6.72	14
평택시		7.59	7.18	6.80	6.39	5.97	▽21.3%	6.79	12
동두천시		6.85	6.57	6.31	5.87	5.52	▽19.4%	6.22	23
안산시		8.35	7.82	7.39	6.86	6.27	▽24.8%	7.34	3

행정 구역별	2015 (A)	2016	2017	2018	2019 (B)	증감률	2015~2019 평균	순위
고양시	7.87	7.45	7.06	6.61	6.06	▽23.0%	7.01	5
과천시	8.20	7.91	7.76	7.16	6.60	▽19.5%	7.53	1
구리시	7.67	7.11	6.66	6.11	5.66	▽26.3%	6.64	17
남양주시	7.50	7.22	7.02	6.70	6.39	▽14.8%	6.96	7
오산시	7.28	7.03	6.89	6.56	6.25	▽14.2%	6.80	11
시흥시	8.33	7.84	7.27	6.63	6.08	▽27.1%	7.23	4
군포시	7.28	7.08	6.79	6.44	6.02	▽17.3%	6.72	13
의왕시	7.20	6.76	6.42	6.04	5.46	▽24.2%	6.37	21
하남시	6.22	5.55	5.31	5.04	4.77	▽23.3%	5.38	28
용인시	7.94	7.70	7.44	7.07	6.67	▽16.0%	7.36	2
파주시	7.22	7.01	6.76	6.41	6.17	▽14.5%	6.72	15
이천시	7.65	7.26	6.90	6.52	6.09	▽20.4%	6.89	8
안성시	7.09	6.72	6.43	6.09	5.78	▽18.5%	6.42	19
김포시	6.88	6.64	6.26	5.90	5.74	▽16.5%	6.28	22
화성시	7.42	7.14	6.89	6.55	6.32	▽14.9%	6.86	9
광주시	6.49	6.15	5.82	5.46	5.18	▽20.2%	5.82	27
양주시	7.55	7.35	7.04	6.65	6.35	▽16.0%	6.99	6
포천시	7.02	6.67	6.19	5.73	5.28	▽24.8%	6.18	24
여주시	6.82	6.39	5.99	5.68	5.31	▽22.2%	6.04	26
연천군	5.79	5.39	5.15	4.96	4.53	▽21.6%	5.16	31
가평군	5.87	5.51	5.22	4.90	4.58	▽22.0%	5.21	30
양평군	5.73	5.44	5.22	5.01	4.90	▽14.5%	5.26	29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11) 청소년 인구(19세~24세) 비율

다음은 전체 인구 가운데 청소년 인구(19세~24세) 비율로 후기청소년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도 전체 후기청소년 비율은 2015년부터 2019년 간 평균 8.05%로 2015년 대비 2019년 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의 2015년부터 2019년 간 평균은 8.02로 경기도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마찬가지로 성남시 또한 2015년 8.31% 대비 2019년 7.69%로 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지역으로 살펴보면 수정구와 중원구, 분당구 모두에서 2015년 이후로 감소하는 추세로 확인되었다. 경기도 전체 후기청소년 비율이 높은 시군으로는 안산시(9.82%), 수원시(9.02%), 시흥시(8.78%), 과천시(8.72%)로 나타났다.

표 II-12. 청소년 인구(19세~24세) 비율(2015~2019)

(단위: %)

행정 구역별		2015 (A)	2016	2017	2018	2019 (B)	증감률	2015~2019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8.34	8.27	8.07	7.86	7.73	▽7.4%	8.05	
수원시		9.35	9.23	9.01	8.80	8.70	▽7.0%	9.02	2
성남 시	전체	8.31	8.23	8.04	7.84	7.69	▽7.4%	8.02	12
	(수정구)	(8.11)	(8.26)	(8.07)	(7.81)	(7.59)	(▽6.4%)	(7.97)	-
	(중원구)	(8.47)	(8.20)	(7.96)	(7.77)	(7.58)	(▽10.5%)	(8.00)	-
	(분당구)	(8.32)	(8.22)	(8.05)	(7.89)	(7.79)	(▽6.3%)	(8.05)	-
의정부시		8.75	8.70	8.48	8.28	8.11	▽7.3%	8.46	10
안양시		9.11	8.93	8.67	8.41	8.22	▽9.8%	8.67	5
부천시		9.12	8.91	8.56	8.23	7.96	▽12.7%	8.56	9
광명시		7.92	7.86	7.73	7.65	7.61	▽4.0%	7.75	15
평택시		8.06	8.04	7.95	7.78	7.65	▽5.1%	7.89	13
동두천시		7.48	7.46	7.33	7.32	7.24	▽3.1%	7.37	21
안산시		10.07	10.05	9.82	9.65	9.48	▽5.9%	9.82	1
고양시		9.09	8.91	8.68	8.44	8.24	▽9.4%	8.67	6

행정 구역별	2015 (A)	2016	2017	2018	2019 (B)	증감률	2015~2019 평균	순위
과천시	9.12	8.84	8.75	8.57	8.31	▽8.9%	8.72	4
구리시	9.04	8.87	8.61	8.32	8.11	▽10.4%	8.59	7
남양주시	7.75	7.74	7.65	7.50	7.41	▽4.4%	7.61	18
오산시	7.43	7.56	7.41	7.41	7.43	▲0.1%	7.45	19
시흥시	9.21	9.17	8.91	8.45	8.18	▽11.2%	8.78	3
군포시	8.44	8.29	8.14	8.00	7.89	▽6.4%	8.15	11
의왕시	8.86	8.71	8.60	8.43	8.28	▽6.5%	8.57	8
하남시	7.32	7.13	6.81	6.47	6.28	▽14.2%	6.80	27
용인시	7.63	7.88	7.82	7.70	7.78	▲2.1%	7.76	14
파주시	7.44	7.34	7.22	7.03	6.98	▽6.2%	7.20	24
이천시	7.89	7.89	7.70	7.60	7.54	▽4.4%	7.73	16
안성시	7.37	7.41	7.40	7.27	7.18	▽2.6%	7.33	22
김포시	6.99	6.88	6.59	6.35	6.25	▽10.6%	6.61	28
화성시	6.49	6.55	6.58	6.51	6.50	▲0.2%	6.53	29
광주시	7.25	7.19	7.04	6.90	6.74	▽7.0%	7.02	26
양주시	7.52	7.47	7.36	7.28	7.28	▽3.2%	7.38	20
포천시	8.05	7.89	7.72	7.52	7.35	▽8.7%	7.71	17
여주시	7.28	7.29	7.04	6.85	6.77	▽7.0%	7.05	25
연천군	7.95	7.69	7.04	6.68	6.75	▽15.0%	7.22	23
가평군	6.63	6.45	6.35	6.17	6.14	▽7.4%	6.35	30
양평군	6.38	6.13	5.96	5.70	5.48	▽14.2%	5.93	31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 성남시의 가족학적 행정통계

(1) 1인가구 비율

일반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로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사회·경제·문화 등에 걸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경기도의 1인가구 비율은 2015년 23.4%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9년 26.3%로 2015년 대비 2019년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2015년 27.1%에서 증가하여 2019년 29.9%로 2015년 대비 10.3%가 증가하였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평균으로 경기도 전체 시군 가운데 높은 1인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연천군(32.9%), 가평군(32.4%), 안성시(30.06%)로 나타났으며 성남시의 경우 28.14%로 중상위권으로 나타났다.

표 II-13. 1인 가구 비율(2015~2019)

(단위: %)

행정 구역별	2015 (A)	2016	2017	2018	2019 (B)	증감률	2015~2019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23.4	23.8	24.4	25.2	26.3	▲12.4%	24.62	
수원시	26.7	27.4	28.1	28.8	30.0	▲12.4%	28.2	10
성남시	27.1	27.3	27.8	28.6	29.9	▲10.3%	28.14	11
의정부시	23.5	23.7	24.4	25.1	26.3	▲11.9%	24.6	16
안양시	20.4	20.5	20.8	21.6	22.9	▲12.3%	21.24	24
부천시	23.3	23.5	24.2	24.8	25.7	▲10.3%	24.3	17
광명시	19.3	19.5	20.9	22.1	23.2	▲20.2%	21	26
평택시	26.7	27.6	28.6	29.8	31.0	▲16.1%	28.74	8
동두천시	26.9	27.3	28.3	29.2	30.0	▲11.5%	28.34	9
안산시	28.1	28.0	28.7	29.3	30.2	▲7.5%	28.86	6
고양시	21.3	21.6	22.2	22.9	24.1	▲13.1%	22.42	21

행정 구역별	2015 (A)	2016	2017	2018	2019 (B)	증감률	2015~2019 평균	순위
과천시	19.2	19.4	18.5	18.2	18.4	▽4.2%	18.74	30
구리시	21.4	21.7	21.9	22.2	23.4	▲9.3%	22.12	23
남양주시	17.3	17.7	18.6	19.1	20.0	▲15.6%	18.54	31
오산시	27.6	28.1	28.4	29.3	30.6	▲10.9%	28.8	7
시흥시	26.2	26.2	26.5	26.8	27.8	▲6.1%	26.7	13
군포시	19.4	19.9	20.7	21.8	23.7	▲22.2%	21.1	25
의왕시	19.0	19.6	20.1	20.6	21.2	▲11.6%	20.1	29
하남시	21.6	22.1	22.3	23.9	26.8	▲24.1%	23.34	18
용인시	19.3	19.8	20.4	21.2	22.1	▲14.5%	20.56	28
파주시	21.7	22.2	22.5	23.8	25.2	▲16.1%	23.08	19
이천시	23.8	24.5	25.1	26.4	27.6	▲16.0%	25.48	14
안성시	28.4	29.3	30.0	30.7	31.9	▲12.3%	30.06	3
김포시	19.7	20.5	20.7	21.5	22.6	▲14.7%	21	26
화성시	23.3	24.0	25.1	26.0	27.0	▲15.9%	25.08	15
광주시	21.4	21.5	22.0	22.6	23.4	▲9.3%	22.18	22
양주시	20.8	21.2	22.3	23.6	24.4	▲17.3%	22.46	20
포천시	27.8	28.7	29.3	30.6	30.9	▲11.2%	29.46	5
여주시	25.9	26.6	27.6	28.4	29.0	▲12.0%	27.5	12
연천군	31.6	33.2	32.9	33.9	32.9	▲4.1%	32.9	1
가평군	30.8	31.8	32.3	33.3	33.8	▲9.7%	32.4	2
양평군	28.4	29.5	30.3	30.8	30.8	▲8.5%	29.96	4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수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는 유아(0~5세) 천 명당 어린이집의 수를 나타낸 것으로 보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보육시설로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어린이집을 모두 합산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기도의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는 2016년 16.6개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0년 17.5개로 2016년 대비 2020년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의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는 2016년 14.7개에서 증가하여 2020년 15.9개로 대략 8.2% 증가하였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군의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는 동두천시(26.5개), 안성시(22.5개), 양주시(22.3개), 의정부시(22.1개)로 나타났다.

표 II-14.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수(2016~2020)

(단위: 개)

행정 구역별	2016 (A)	2017	2018	2019	2020 (B)	증감률	2016~2020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16.6	16.7	17.2	17.4	17.5	▲5.4%	17.1	
수원시	16.9	17.1	18.2	18.4	18.8	▲11.2%	17.9	13
성남시	14.7	14.8	15.5	15.6	15.9	▲8.2%	15.3	26
의정부시	22.6	21.7	22.4	22.0	21.7	▽4.0%	22.1	4
안양시	17.3	17.8	18.4	18.6	19.7	▲13.9%	18.4	10
부천시	14.4	14.7	16.0	16.7	18.0	▲25.0%	16.0	23
광명시	18.1	19.1	20.1	19.8	20.1	▲11.0%	19.5	6
평택시	14.9	15.3	15.4	15.7	15.5	▲4.0%	15.4	25
동두천시	25.2	26.4	27.2	27.0	26.6	▲5.6%	26.5	1
안산시	18.4	18.5	19.2	19.5	19.4	▲5.4%	19.0	8
고양시	17.3	17.0	17.5	16.7	16.4	▽5.2%	17.0	20
과천시	18.3	19.8	19.9	19.1	16.4	▽10.4%	18.7	9
구리시	16.8	16.5	16.7	17.3	18.7	▲11.3%	17.2	19

행정 구역별	2016 (A)	2017	2018	2019	2020 (B)	증감률	2016~2020 평균	순위
남양주시	17.0	17.6	18.1	18.4	18.6	▲9.4%	18.0	11
오산시	15.8	16.7	17.8	19.0	20.0	▲26.6%	17.9	13
시흥시	18.2	18.2	17.5	17.6	17.9	▽1.6%	17.9	13
군포시	16.4	18.0	20.2	20.6	20.3	▲23.8%	19.1	7
의왕시	17.1	17.4	19.1	18.4	17.7	▲3.5%	18.0	11
하남시	13.7	13.4	13.6	14.1	14.5	▲5.8%	13.9	30
용인시	16.4	16.6	16.6	16.3	16.4	-	16.5	21
파주시	17.7	17.9	17.7	17.7	17.3	▽2.3%	17.7	16
이천시	13.3	14.0	14.9	15.0	15.7	▲18.0%	14.6	29
안성시	21.7	22.4	22.4	22.8	22.9	▲5.5%	22.5	2
김포시	14.9	14.3	15.0	15.3	14.6	▽2.0%	14.9	27
화성시	14.3	14.4	14.4	15.1	15.2	▲6.3%	14.7	28
광주시	15.8	15.4	15.7	16.2	16.7	▲5.7%	16.0	23
양주시	22.8	22.2	22.8	22.2	21.1	▽7.5%	22.3	3
포천시	19.4	19.7	19.9	20.7	20.6	▲6.2%	20.1	5
여주시	14.4	15.4	16.4	17.0	18.8	▲30.6%	16.4	22
연천군	16.4	16.3	17.9	18.5	18.6	▲13.4%	17.6	17
가평군	16.0	16.6	17.2	18.5	18.8	▲17.5%	17.5	18
양평군	13.0	13.5	13.0	12.8	14.2	▲9.2%	13.3	31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3) 혼인건수

혼인건수는 지난 1년간 신고된 총 혼인건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 요인 중 하나인 혼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인구, 주택, 보건, 사회복지, 교육, 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경기도 전체 혼인건수는 2016년 70,052건으로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20년 57,814건으로 2016년 대비 2020년 17.5% 감소하였다. 성남시의 혼인건수는 2016년 6,050건에서 점차 감소하여 2020년 4,269건으로 2016년 대비 2020년 2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지역으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혼인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2020년 기준 혼인건수로 분당구가 2,017건, 수정구 1,213건, 중원구 1,039건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경기도 전체 시군으로 혼인건수가 높은 지역으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평균 수원시가 6,669건으로 가장 많고, 성남시가 5,032건, 화성시가 4,576건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5. 혼인 건수(2016~2020)

(단위: 건)

행정 구역별		2016 (A)	2017	2018	2019	2020 (B)	증감률	2016~2020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70,052	66,429	66,877	62,356	57,814	▽17.5%	64,706	
수원시		7,765	7,112	6,902	6,026	5,539	▽28.7%	6,669	1
성남시	전체	6,050	5,162	5,228	4,453	4,269	▽29.4%	5,032	2
	(수정구)	(1,531)	(1,314)	(1,408)	(1,223)	(1,213)	(▽20.8%)	(1,338)	-
	(중원구)	(1,394)	(1,129)	(1,217)	(1,088)	(1,039)	(▽25.5%)	(1,173)	-
	(분당구)	(3,125)	(2,719)	(2,603)	(2,142)	(2,017)	(▽35.5%)	(2,521)	-
의정부시		2,149	2,019	2,025	1,876	1,800	▽16.2%	1,974	14
안양시		3,308	3,158	2,935	2,693	2,337	▽29.4%	2,886	9
부천시		4,769	4,459	4,434	3,646	3,225	▽32.4%	4,107	6

행정 구역별	2016 (A)	2017	2018	2019	2020 (B)	증감률	2016~2020 평균	순위
광명시	1,897	1,722	1,674	1,489	1,230	▽35.2%	1,602	16
평택시	2,901	2,887	2,886	3,016	2,863	▽1.3%	2,911	8
동두천시	501	423	433	361	327	▽34.7%	409	28
안산시	3,944	3,517	3,589	3,332	2,918	▽26.0%	3,460	7
고양시	4,932	4,730	4,317	4,440	4,188	▽15.1%	4,521	5
과천시	266	207	232	240	311	▲16.9%	251	29
구리시	874	948	923	793	730	▽16.5%	854	23
남양주시	3,037	2,675	2,759	2,630	2,362	▽22.2%	2,693	10
오산시	1,373	1,294	1,332	1,223	1,160	▽15.5%	1,276	18
시흥시	2,195	2,303	2,582	2,596	2,534	▲15.4%	2,442	11
군포시	1,772	1,639	1,428	1,294	1,167	▽34.1%	1,460	17
의왕시	756	621	613	628	677	▽10.4%	659	25
하남시	1,124	1,193	1,357	1,309	1,357	▲20.7%	1,268	19
용인시	4,680	4,528	4,581	4,670	4,232	▽9.6%	4,538	4
파주시	2,329	2,310	2,324	2,127	1,866	▽19.9%	2,191	12
이천시	1,108	1,079	1,059	1,059	995	▽10.2%	1,060	20
안성시	998	907	921	871	773	▽22.5%	894	22
김포시	1,720	1,908	2,076	1,934	2,031	▲18.1%	1,934	15
화성시	4,247	4,363	4,933	4,788	4,547	▲7.1%	4,576	3
광주시	2,162	2,173	2,210	1,931	1,736	▽19.7%	2,042	13
양주시	971	910	994	958	896	▽7.7%	946	21
포천시	755	727	715	641	569	▽24.6%	681	24
여주시	525	476	484	466	425	▽19.0%	475	26
연천군	230	248	269	214	206	▽10.4%	233	31
가평군	269	269	244	272	202	▽24.9%	251	29
양평군	445	462	418	380	342	▽23.1%	409	27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4) 다문화 가구 수

다문화 가구는 귀화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귀화자 포함) 배우자와 결혼한 결혼이민자 가구를 나타낸다. 경기도 다문화 가구 수는 2015년 84,295가구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9년 105,779가구로 2015년 대비 2019년 25.5%가 증가하였다. 성남시의 다문화 가구 수는 2015년 5,299가구에 서 점차 증가하여 2019년 5,866가구로 대략 10.7% 증가하였다. 성남시 지역으로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간 5년 동안의 다문화 가구 수 평균은 수정구가 2,547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중원구가 1,635가구, 분당구가 1,45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전체 시군의 5년간 평균 다문화 가구 수가 높은 지역으로는 안산시가 10,848가구로 가장 높았으며, 수원시가 8,763가구, 부천시가 7,804가구, 시흥시가 6,663가구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6. 다문화 가구수(2015~2019)

(단위: 가구)

행정 구역별		2015 (A)	2016	2017	2018	2019 (B)	증감률	2015~2019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84,295	91,716	92,834	99,008	105,779	▲25.5%	94,726	
수원시		7,761	8,712	8,761	9,098	9,482	▲22.2%	8,763	2
성남시	전체	5,299	5,864	5,523	5,609	5,866	▲10.7%	5,632	5
	(수정구)	(2,300)	(2,683)	(2,536)	(2,551)	(2,665)	(▲15.9%)	(2,547)	-
	(중원구)	(1,641)	(1,734)	(1,552)	(1,591)	(1,656)	(▲0.9%)	(1,635)	-
	(분당구)	(1,358)	(1,447)	(1,435)	(1,467)	(1,545)	(▲13.8%)	(1,450)	-
의정부시		2,221	2,299	2,177	2,289	2,433	▲9.5%	2,284	17
안양시		2,679	2,863	2,793	2,817	2,885	▲7.7%	2,807	13
부천시		6,521	7,300	7,680	8,463	9,057	▲38.9%	7,804	3
광명시		2,114	2,266	2,335	2,389	2,402	▲13.6%	2,301	16
평택시		4,001	4,498	4,594	5,073	5,539	▲38.4%	4,741	8
동두천시		919	934	937	958	1,002	▲9.0%	950	24

행정 구역별	2015 (A)	2016	2017	2018	2019 (B)	증감률	2015~2019 평균	순위
안산시	10,050	11,129	10,792	10,984	11,284	▲12.3%	10,848	1
고양시	4,548	4,805	4,772	4,981	5,360	▲17.9%	4,893	7
과천시	175	156	137	149	157	▽10.3%	155	31
구리시	770	796	833	910	926	▲20.3%	847	25
남양주시	2,868	2,950	2,964	3,169	3,491	▲21.7%	3,088	10
오산시	2,107	2,362	2,476	2,725	2,939	▲39.5%	2,522	15
시흥시	5,487	6,280	6,494	7,180	7,873	▲43.5%	6,663	4
군포시	1,863	2,023	2,032	2,148	2,290	▲22.9%	2,071	18
의왕시	546	545	535	551	633	▲15.9%	562	29
하남시	757	866	980	1,100	1,265	▲67.1%	994	23
용인시	3,964	4,143	4,252	4,615	5,018	▲26.6%	4,398	9
파주시	2,716	2,753	2,748	2,960	3,172	▲16.8%	2,870	12
이천시	1,232	1,296	1,342	1,430	1,509	▲22.5%	1,362	22
안성시	1,445	1,548	1,612	1,710	1,840	▲27.3%	1,631	19
김포시	2,585	2,743	2,957	3,306	3,630	▲40.4%	3,044	11
화성시	4,137	4,856	5,118	5,832	6,661	▲61.0%	5,321	6
광주시	2,216	2,426	2,527	2,822	3,010	▲35.8%	2,600	14
양주시	1,515	1,531	1,555	1,669	1,786	▲17.9%	1,611	21
포천시	1,556	1,520	1,591	1,658	1,748	▲12.3%	1,615	20
여주시	690	699	726	758	810	▲17.4%	737	26
연천군	300	290	293	303	316	▲5.3%	300	30
가평군	623	636	660	678	692	▲11.1%	658	27
양평군	630	627	638	674	703	▲11.6%	654	28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3) 성남시의 건강학적 행정통계

(1) 비만유병률

비만유병률은 체질량지수(kg/m²)가 25이상인 사람의 분율(%)을 나타낸다. 경기도의 비만유병률은 2018년 33.1%에서 2019년 33.6%로 대략 1.5% 미세하게 증가하였다. 성남시의 비만유병률은 2018년 27.4%에서 2019년 29.1%로 6.2%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전체 비만유병률이 높은 지역의 경우 2018~2019년의 평균을 기준으로 평택시가 39%로 가장 높았으며, 안성시가 37%, 파주시가 36.8%로 높았으며 성남시의 경우 28.3%로 비만유병률 수준은 거의 최하위로 가장 낮았다. 성남시 지역으로 보면 2018~2019년의 평균으로 수정구가 33%, 중원구 30.9%, 분당구 24.1%로 나타났다.

표 II-17. 비만유병률(2018~2019)

(단위: %)

행정 구역별		2018 (A)	2019 (B)	증감률	2018~2019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33.1	33.6	▲1.5%	33.4	
수원시		34.0	33.3	▽2.1%	33.7	20
성남시	전체	27.4	29.1	▲6.2%	28.3	30
	(수정구)	(29.5)	(36.4)	(▲23.4%)	(33.0)	－
	(중원구)	(31.8)	(30.0)	(▽5.7%)	(30.9)	－
	(분당구)	(23.1)	(25.1)	(▲8.7%)	(24.1)	－
의정부시		34.2	36.4	▲6.4%	35.3	11
안양시		34.2	32.3	▽5.6%	33.3	21
부천시		32.0	33.5	▲4.7%	32.8	23
광명시		25.9	33.0	▲27.4%	29.5	28
평택시		37.9	40.0	▲5.5%	39.0	1
동두천시		35.1	35.7	▲1.7%	35.4	9

행정 구역별	2018 (A)	2019 (B)	증감률	2018~2019 평균	순위
안산시	35.0	34.8	▽0.6%	34.9	14
고양시	31.9	32.0	▲0.3%	32.0	26
과천시	25.3	24.4	▽3.6%	24.9	31
구리시	31.9	32.6	▲2.2%	32.3	24
남양주시	32.2	35.7	▲10.9%	34.0	18
오산시	36.3	35.3	▽2.8%	35.8	6
시흥시	35.1	33.2	▽5.4%	34.2	17
군포시	32.0	34.4	▲7.5%	33.2	22
의왕시	36.0	34.3	▽4.7%	35.2	12
하남시	32.9	31.5	▽4.3%	32.2	25
용인시	31.5	30.7	▽2.5%	31.1	27
파주시	38.0	35.5	▽6.6%	36.8	3
이천시	33.6	34.2	▲1.8%	33.9	19
안성시	34.8	39.1	▲12.4%	37.0	2
김포시	33.7	37.1	▲10.1%	35.4	9
화성시	32.8	36.0	▲9.8%	34.4	15
광주시	30.5	28.3	▽7.2%	29.4	29
양주시	34.3	38.2	▲11.4%	36.3	5
포천시	36.5	34.7	▽4.9%	35.6	8
여주시	37.4	32.7	▽12.6%	35.1	13
연천군	34.3	38.9	▲13.4%	36.6	4
가평군	32.5	36.0	▲10.8%	34.3	16
양평군	35.0	36.3	▲3.7%	35.7	7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 스트레스 인지율

스트레스 인지율은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의 비율로 정신건강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파악할 수 있다. 경기도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은 비율은 2015년 31.2%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9년 27.7%으로 2015년 대비 2019년 11.2%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의 경우 경기도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은 비율은 2015년 31.1%에서 2019년 26.5%로 대략 14.8%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경기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9년간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은 비율의 평균이 높은 지역은 파주시(31.8%), 안산시(31.1%), 부천시(31%)로 나타났으며 성남시는 30.2%로 중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8. 스트레스 인지율(2015~2019)

(단위: %)

행정 구역별	2015 (A)	2016	2017	2018	2019 (B)	증감률	2015~2019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31.2	30.3	30.1	28.4	27.7	▽11.2%	29.6	
수원시	30.9	28.4	30.5	27.7	29.1	▽5.8%	29.4	15
성남시	31.1	31.2	32.5	29.4	26.5	▽14.8%	30.2	9
의정부시	32.6	30.6	30.1	27.8	28.9	▽11.3%	30.0	11
안양시	30.1	29.1	29.1	27.2	27.7	▽8.0%	28.7	19
부천시	32.0	31.5	27.9	30.3	33.0	▲3.1%	31.0	3
광명시	32.5	30.9	34.8	30.5	26.2	▽19.4%	31.0	3
평택시	30.3	30.4	30.8	28.9	27.5	▽9.2%	29.6	14
동두천시	31.8	35.7	26.9	27.0	19.0	▽40.3%	28.1	24
안산시	29.5	32.9	32.1	30.8	30.1	▲2.0%	31.1	2
고양시	33.7	29.1	30.3	30.5	31.1	▽7.7%	31.0	3
과천시	30.1	27.9	28.0	29.0	27.9	▽7.3%	28.6	21
구리시	26.9	30.5	25.5	26.5	24.8	▽7.8%	26.9	29

행정 구역별	2015 (A)	2016	2017	2018	2019 (B)	증감률	2015~2019 평균	순위
남양주시	30.5	27.6	29.5	31.2	27.0	▽11.5%	29.2	17
오산시	31.8	28.4	32.4	31.0	25.2	▽20.8%	29.8	12
시흥시	30.1	33.2	31.6	23.6	31.7	▲5.3%	30.1	10
군포시	24.8	30.6	29.2	32.6	25.9	▲4.4%	28.7	19
의왕시	31.7	27.2	28.4	30.4	25.9	▽18.3%	28.8	18
하남시	32.8	26.8	26.9	29.1	22.8	▽30.5%	27.7	26
용인시	30.2	28.9	29.7	26.5	25.6	▽15.2%	28.2	23
파주시	37.4	35.5	28.4	31.6	25.8	▽31.0%	31.8	1
이천시	30.7	29.3	30.3	28.5	33.2	▲8.1%	30.4	8
안성시	33.1	32.0	30.2	27.9	30.6	▽7.6%	30.8	6
김포시	32.0	29.9	28.1	29.5	26.6	▽16.9%	29.3	16
화성시	25.0	30.7	31.9	26.4	24.6	▽1.6%	27.8	25
광주시	31.4	36.0	28.8	19.5	22.0	▽29.9%	27.6	27
양주시	34.8	29.5	25.7	18.4	28.9	▽17.0%	27.5	28
포천시	37.3	28.4	28.2	31.1	24.0	▽35.7%	29.8	12
여주시	35.8	29.5	31.8	32.4	24.0	▽33.0%	30.7	7
연천군	37.8	27.1	19.7	17.2	17.6	▽53.4%	23.9	31
가평군	32.5	28.1	20.5	25.5	24.4	▽24.9%	26.2	30
양평군	34.8	26.7	27.9	29.6	23.2	▽33.3%	28.5	22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3) 음주율

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로 주민 음주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경기도 전체의 음주율은 2015년 62.8%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2019년 61%로 감소하였다. 성남시의 경우 2015년 63.7%에서 2017년 66.5%로 조금 높아지다 2019년 61.7%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9년 평균 음주율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는 의왕시가 65%로 가장 높았으며, 수원시가 64.3%, 성남시와 의정부시가 64.1%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9. 음주율(2015~2019)

(단위: %)

행정 구역별	2015 (A)	2016	2017	2018	2019 (B)	증감률	2015~2019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62.8	62.5	63.0	61.9	61.0	▽2.9%	62.3	
수원시	65.8	64.3	63.4	65.0	62.9	▽4.4%	64.3	2
성남시	63.7	62.3	66.5	65.9	61.7	▽3.1%	64.1	3
의정부시	61.9	65.6	66.1	61.2	65.6	▲6.0%	64.1	3
안양시	64.3	63.5	65.4	63.6	62.8	▽2.3%	64.0	6
부천시	63.0	60.7	61.9	57.9	62.4	▽1.0%	61.2	16
광명시	63.6	64.1	64.0	58.3	60.2	▽5.3%	62.1	15
평택시	63.9	62.4	59.3	61.3	58.7	▽8.1%	61.2	16
동두천시	61.8	62.5	58.5	61.1	56.0	▽9.4%	60.0	21
안산시	62.8	60.2	64.9	61.1	62.1	▽1.1%	62.3	12
고양시	62.5	63.3	64.7	63.1	61.2	▽2.1%	63.0	9
과천시	61.4	61.9	58.0	57.1	57.8	▽5.9%	59.3	24
구리시	56.7	64.4	62.0	61.0	61.0	▲7.6%	61.1	19
남양주시	61.7	61.6	61.0	56.0	55.8	▽9.6%	59.3	24
오산시	62.0	61.2	65.7	62.8	60.7	▽2.1%	62.5	11

행정 구역별	2015 (A)	2016	2017	2018	2019 (B)	증감률	2015~2019 평균	순위
시흥시	64.8	62.7	63.2	58.6	61.3	▽5.4%	62.2	13
군포시	66.9	63.1	63.1	63.6	59.2	▽11.5%	63.2	8
의왕시	63.8	64.5	65.5	66.6	64.6	▲1.3%	65.0	1
하남시	63.7	65.7	60.6	64.2	59.6	▽6.4%	62.8	10
용인시	63.3	63.3	67.0	64.3	62.3	▽1.6%	64.1	3
파주시	59.1	59.5	60.8	60.9	54.7	▽7.4%	59.0	26
이천시	57.0	57.2	56.3	55.7	59.9	▲5.1%	57.3	29
안성시	57.5	62.2	64.6	64.4	62.1	▲8.0%	62.2	13
김포시	66.0	60.5	55.0	57.1	62.4	▽5.5%	60.2	20
화성시	59.2	63.9	59.1	62.9	60.5	▲2.2%	61.2	16
광주시	59.1	62.8	62.4	67.6	66.5	▲12.5%	63.7	7
양주시	60.1	57.2	58.9	52.3	52.4	▽12.8%	56.2	31
포천시	60.1	63.8	59.1	55.8	55.5	▽7.7%	58.9	27
여주시	59.9	55.0	59.7	63.2	54.0	▽9.8%	58.4	28
연천군	62.3	50.3	57.8	59.0	56.2	▽9.8%	57.2	30
가평군	55.5	63.4	58.1	62.0	57.9	▲4.3%	59.4	23
양평군	59.2	61.3	61.1	55.8	61.9	▲4.6%	59.9	22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4)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수로 단위 인구 당 의사 수가 많을수록 의료복지의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경기도의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2016년 2.2명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여 2020년에 2.4명으로 미세하게 증가하였다. 성남시의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2016년 3.9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0년 4.5명으로 2016년 대비 2020년 대략 15.4%가 증가하였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의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평균이 높은 경기도 시군으로는 성남시가 4.3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구리시가 3.5명, 수원시와 안양시, 고양시가 3명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0.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2016~2020)

(단위: 명)

행정 구역별	2016 (A)	2017	2018	2019	2020 (B)	증감률	2016~2020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2.2	2.3	2.3	2.4	2.4	▲9.1%	2.4	
수원시	2.8	2.9	3.0	3.1	3.2	▲14.3%	3.0	3
성남시	3.9	4.1	4.2	4.4	4.5	▲15.4%	4.3	1
의정부시	2.5	2.6	2.7	2.7	2.8	▲12.0%	2.7	7
안양시	2.7	2.8	3.0	3.1	3.2	▲18.5%	3.0	3
부천시	2.7	2.8	2.9	3.0	3.0	▲11.1%	2.9	6
광명시	2.0	2.1	2.1	2.3	2.4	▲20.0%	2.2	9
평택시	1.7	1.8	1.8	1.9	1.9	▲11.8%	1.9	12
동두천시	1.9	2.0	2.0	2.0	2.0	▲5.3%	2.0	11
안산시	2.3	2.4	2.5	2.7	2.6	▲13.0%	2.5	8
고양시	2.8	2.9	3.0	2.9	3.1	▲10.7%	3.0	3
과천시	1.3	1.5	1.5	1.6	1.4	▲7.7%	1.5	25
구리시	3.3	3.5	3.5	3.5	3.7	▲12.1%	3.5	2

행정 구역별	2016 (A)	2017	2018	2019	2020 (B)	증감률	2016~2020 평균	순위
남양주시	1.3	1.4	1.4	1.5	1.6	▲23.1%	1.5	25
오산시	1.7	1.9	1.9	1.9	1.9	▲11.8%	1.9	12
시흥시	1.4	1.5	1.5	1.6	1.6	▲14.3%	1.6	23
군포시	2.0	2.1	2.1	2.3	2.3	▲15.0%	2.2	9
의왕시	1.3	1.4	1.4	1.3	1.4	▲7.7%	1.4	29
하남시	1.2	1.3	1.4	1.5	1.6	▲33.3%	1.4	30
용인시	1.5	1.6	1.7	1.7	1.9	▲26.7%	1.7	18
파주시	1.3	1.4	1.4	1.5	1.6	▲23.1%	1.5	25
이천시	1.7	1.8	1.8	1.9	1.9	▲11.8%	1.9	12
안성시	1.5	1.6	1.7	1.7	1.7	▲13.3%	1.7	18
김포시	1.7	1.8	1.8	1.9	1.9	▲11.8%	1.9	12
화성시	1.6	1.7	1.7	1.7	1.8	▲12.5%	1.7	22
광주시	1.1	1.1	1.2	1.3	1.2	▲9.1%	1.2	31
양주시	1.3	1.3	1.5	1.6	1.7	▲30.8%	1.5	25
포천시	1.5	1.6	1.7	1.8	1.8	▲20.0%	1.7	18
여주시	1.7	1.8	1.9	2.0	2.1	▲23.5%	1.9	17
연천군	1.5	1.6	1.5	1.5	1.6	▲6.7%	1.6	23
가평군	2.1	1.8	1.8	1.8	1.7	▽19.0%	1.9	12
양평군	1.6	1.6	1.6	1.7	1.7	▲6.2%	1.7	18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5) 흡연율

흡연율은 평생 5갑(100개비) 이상 흡연한 사람으로서 현재 흡연하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다. 경기도 전체의 흡연율은 2015년 22%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여 2019년 19.9%로 나타났다. 성남시의 흡연율의 경우 2015년 22.1%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9년 18.4로 2015년 대비 16.7%가 감소하였다. 경기도 전체 시군으로 2015년부터 2019년간 5년 평균으로 흡연율이 높은 지역으로는 동두천시가 26.8%로 가장 높았으며, 포천시 25%, 연천군 24.5%로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표 II-21. 흡연율(2015~2019)

(단위: %)

행정 구역별	2015 (A)	2016	2017	2018	2019 (B)	증감률	2015~2019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22.0	22.1	21.0	20.9	19.9	▽9.5%	21.2	
수원시	20.3	21.8	20.0	20.8	19.8	▽2.5%	20.6	21
성남시	22.1	20.8	19.6	19.2	18.4	▽16.7%	20.1	22
의정부시	23.1	26.5	21.6	20.2	22.9	▽0.9%	22.9	10
안양시	21.0	21.3	17.4	19.5	17.3	▽17.6%	19.3	26
부천시	21.3	19.7	21.6	21.5	19.9	▽6.6%	20.8	19
광명시	22.0	19.0	20.7	18.9	15.4	▽30.0%	19.2	27
평택시	23.3	24.5	25.2	22.9	20.5	▽12.0%	23.3	8
동두천시	27.8	27.2	26.3	23.7	28.8	▲3.6%	26.8	1
안산시	23.6	25.3	24.9	24.3	24.4	▲3.4%	24.5	3
고양시	22.4	21.3	20.5	19.5	19.7	▽12.1%	20.7	20
과천시	11.6	15.7	14.4	16.1	11.8	▲1.7%	14.0	31
구리시	19.7	20.6	18.4	18.7	17.7	▽10.2%	19.1	28
남양주시	23.8	24.4	19.1	22.7	20.1	▽15.5%	22.1	15
오산시	24.5	23.6	22.4	23.0	21.1	▽13.9%	23.0	9
시흥시	25.8	24.3	24.0	20.8	23.5	▽8.9%	23.7	7
군포시	20.3	20.6	18.3	20.6	20.1	▽1.0%	20.0	23

행정 구역별	2015 (A)	2016	2017	2018	2019 (B)	증감률	2015~2019 평균	순위
의왕시	19.2	21.1	19.8	19.8	17.0	▽11.5%	19.4	25
하남시	19.5	21.0	17.3	18.4	16.8	▽13.8%	18.6	29
용인시	19.0	19.3	19.9	18.3	15.5	▽18.4%	18.4	30
파주시	22.7	22.8	22.1	24.9	20.6	▽9.3%	22.7	11
이천시	23.1	27.1	23.2	22.9	24.8	▲7.4%	24.3	5
안성시	22.2	21.9	23.5	23.9	20.4	▽8.1%	22.4	14
김포시	21.4	21.5	20.6	19.7	16.8	▽21.5%	20.0	23
화성시	22.3	22.7	20.8	19.6	20.7	▽7.2%	21.3	18
광주시	24.0	23.4	21.4	25.2	25.1	▲4.6%	23.9	6
양주시	23.1	23.2	21.0	23.5	22.3	▽3.5%	22.7	11
포천시	26.9	24.0	25.4	26.5	21.8	▽19.0%	25.0	2
여주시	21.9	19.1	25.7	22.5	19.8	▽9.6%	21.8	16
연천군	24.6	22.5	21.6	27.5	26.1	▲6.1%	24.5	3
가평군	25.2	23.4	23.4	20.0	20.7	▽17.9%	22.6	13
양평군	19.9	27.1	21.5	19.1	19.2	▽3.5%	21.4	17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4) 성남시의 교육학적 행정통계

(1) 교원 1인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명의 교원이 담당하는 학생의 수로써 교육여건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 교원1인당 학생 수가 적을수록 교사와 학생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원1인당 학생 수 수치가 낮을수록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학생 수로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학생생수의 합을 취합하며 교원 수로는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교원 수의 합을 의미하고 있다. 경기도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16년 17.47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2020년 15.81명으로 2016년 대비 2020년 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의 교원1인당 학생 수 또한 2016년 17.69명 대비 2020년 16.07명으로 9.2% 가량 감소하여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평균으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높은 경기도 시군으로는 안성시(21.88명), 오산시(19.31명), 화성시(18.62명), 안양시(18.62명)로 나타났다.

표 II-22. 교원 1인당 학생 수(2016~2020)

(단위: 명)

행정 구역별	2016 (A)	2017	2018	2019	2020 (B)	증감률	2016~2020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17.47	16.96	16.57	16.15	15.81	▽9.5%	16.6	
수원시	16.82	16.46	16.06	15.61	15.23	▽9.5%	16.04	18
성남시	17.69	16.93	16.58	16.43	16.07	▽9.2%	16.74	11
의정부시	17.11	16.74	16.45	16.11	15.68	▽8.4%	16.42	13
안양시	19.27	18.95	18.86	18.16	17.84	▽7.4%	18.62	3

행정 구역별	2016 (A)	2017	2018	2019	2020 (B)	증감률	2016~2020 평균	순위
부천시	17.22	16.75	16.59	16.27	15.92	▽7.5%	16.55	12
광명시	14.80	14.27	13.83	13.25	13.03	▽12.0%	13.84	27
평택시	16.76	16.33	16.12	15.56	15.21	▽9.2%	16	19
동두천시	15.61	15.05	14.53	13.53	13.38	▽14.3%	14.42	24
안산시	17.99	17.43	16.97	16.71	16.30	▽9.4%	17.08	9
고양시	15.84	15.28	14.74	14.17	13.95	▽11.9%	14.8	22
과천시	14.57	13.66	13.14	12.62	12.57	▽13.7%	13.32	28
구리시	15.34	14.75	14.28	13.58	13.46	▽12.3%	14.29	25
남양주시	16.93	16.52	16.20	15.63	15.23	▽10.0%	16.11	16
오산시	19.99	19.86	19.17	18.87	18.65	▽6.7%	19.31	2
시흥시	18.47	17.76	17.13	16.93	16.56	▽10.3%	17.37	7
군포시	15.84	15.17	14.47	14.04	13.58	▽14.3%	14.62	23
의왕시	17.14	16.65	16.38	15.37	14.96	▽12.7%	16.1	17
하남시	14.05	14.32	14.25	14.17	14.19	▲1.0%	14.2	26
용인시	19.02	18.56	18.16	17.63	17.40	▽8.5%	18.16	6
파주시	15.93	15.45	14.96	14.61	14.30	▽10.2%	15.05	21
이천시	16.61	15.99	15.90	15.53	15.21	▽8.4%	15.85	20
안성시	23.90	23.02	21.60	20.78	20.06	▽16.1%	21.88	1
김포시	16.32	16.15	16.45	16.13	15.79	▽3.2%	16.17	14
화성시	19.73	19.03	18.46	18.16	17.72	▽10.2%	18.62	3
광주시	18.55	18.07	17.24	17.01	15.97	▽13.9%	17.37	7
양주시	18.79	18.54	18.13	18.11	18.11	▽3.6%	18.34	5
포천시	18.14	17.20	16.74	16.24	15.88	▽12.5%	16.84	10
여주시	17.73	16.61	16.17	15.30	14.87	▽16.1%	16.14	15
연천군	10.03	9.44	9.19	8.34	7.82	▽22.0%	8.97	31
가평군	11.32	10.94	10.56	10.13	9.79	▽13.5%	10.55	30
양평군	12.74	12.25	11.76	11.25	10.69	▽16.1%	11.74	29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는 주민등록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교육의 규모와 여건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경기도의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는 2016년 1.5개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2020년 1.6개로 나타났다. 성남시의 경우 2016년 1.8개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0년 2.1개로 2016년 대비 16.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전체 시군 가운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의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 평균으로 살펴볼 때, 성남시가 2개로 가장 많았으며, 고양시가 1.9개, 안양시가 1.9개로 높은 수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II-23.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2016~2020)

(단위: 개)

행정 구역별	2016 (A)	2017	2018	2019	2020 (B)	증감률	2016~2020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1.5	1.6	1.6	1.6	1.6	▲6.7%	1.6	
수원시	1.7	1.7	1.7	1.7	1.7	-	1.7	9
성남시	1.8	2.0	2.0	2.1	2.1	▲16.7%	2.0	1
의정부시	1.5	1.6	1.6	1.6	1.6	▲6.7%	1.6	11
안양시	1.9	1.9	1.9	1.9	1.9	-	1.9	2
부천시	1.5	1.5	1.5	1.5	1.5	-	1.5	14
광명시	1.6	1.7	1.7	1.7	1.8	▲12.5%	1.7	9
평택시	1.4	1.4	1.4	1.4	1.4	-	1.4	17
동두천시	1.0	1.0	1.0	1.0	1.0	-	1.0	27
안산시	1.5	1.5	1.5	1.5	1.5	-	1.5	14
고양시	1.9	1.9	1.9	1.9	1.9	-	1.9	2
과천시	1.2	1.3	1.3	1.4	1.2	-	1.3	18
구리시	1.7	1.7	1.8	1.9	1.9	▲11.8%	1.8	4
남양주시	1.3	1.4	1.3	1.4	1.5	▲15.4%	1.4	16
오산시	1.2	1.2	1.2	1.3	1.3	▲8.3%	1.3	18

행정 구역별	2016 (A)	2017	2018	2019	2020 (B)	증감률	2016~2020 평균	순위
시흥시	1.5	1.5	1.5	1.5	1.6	▲6.7%	1.6	11
군포시	1.5	1.6	1.6	1.6	1.6	▲6.7%	1.6	11
의왕시	1.2	1.2	1.2	1.1	1.1	▽8.3%	1.2	22
하남시	0.8	1.0	1.1	1.2	1.3	▲62.5%	1.1	24
용인시	1.7	1.8	1.8	1.8	1.8	▲5.9%	1.8	4
파주시	1.1	1.2	1.3	1.3	1.4	▲27.3%	1.3	18
이천시	1.7	1.7	1.8	1.8	1.8	▲5.9%	1.8	4
안성시	1.2	1.2	1.2	1.3	1.2	-	1.3	18
김포시	1.5	1.6	1.6	1.7	1.7	▲13.3%	1.7	8
화성시	1.7	1.7	1.7	1.7	1.8	▲5.9%	1.8	4
광주시	1.1	1.1	1.1	1.1	1.1	-	1.1	24
양주시	1.1	1.1	1.1	1.2	1.2	▲9.1%	1.2	22
포천시	1.0	0.9	0.9	0.9	0.9	▽10.0%	1.0	27
여주시	1.0	1.0	1.1	1.0	1.1	▲10.0%	1.1	24
연천군	0.9	0.9	0.9	0.8	0.8	▽11.1%	0.9	30
가평군	1.0	1.0	1.0	0.9	0.8	▽20.0%	1.0	27
양평군	0.7	0.7	0.8	0.8	0.8	▲14.3%	0.8	31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3) 유치원 수

유치원 수는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의 수로써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유아의 교육 기회를 측정할 수 있는 간접지표로 보육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경기도의 유치원 수는 2016년 2,234개로 2018년에 2,275로 증가하다 다시 감소하여 2020년 2,206개로 나타났다. 성남시의 유치원 수는 2016년 131개에서 2019년 127개로 감소하여 2020년 123개로 확인되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값을 통해 본 경기도 전체 시군의 유치원수가 높은 지역으로는 수원시가 193.8개로 가장 많았으며, 고양시가 172개, 용인시 169개, 화성시 157개, 성남시 129개로 많았다.

표 II-24. 유치원 수(2016~2020)

(단위: 개)

행정 구역별	2016 (A)	2017	2018	2019	2020 (B)	증감률	2016~2020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2,234	2,258	2,275	2,237	2,206	▽1.3%	2,242	
수원시	196	197	195	192	189	▽3.6%	193.8	1
성남시	131	131	133	127	123	▽6.1%	129	5
의정부시	67	66	64	62	63	▽6.0%	64.4	14
안양시	87	83	82	79	77	▽11.5%	81.6	12
부천시	124	126	126	124	125	▲0.8%	125	6
광명시	51	51	50	48	44	▽13.7%	48.8	19
평택시	107	108	110	108	107	-	108	8
동두천시	19	19	19	19	18	▽5.3%	18.8	28
안산시	100	98	98	94	90	▽10.0%	96	10
고양시	174	175	175	171	168	▽3.4%	172.6	2
과천시	8	8	7	7	7	▽12.5%	7.4	31
구리시	33	34	32	30	30	▽9.1%	31.8	25
남양주시	109	110	110	110	108	▽0.9%	109.4	7
오산시	50	50	50	50	48	▽4.0%	49.6	17

행정 구역별	2016 (A)	2017	2018	2019	2020 (B)	증감률	2016~2020 평균	순위
시흥시	63	67	72	74	75	▲19.0%	70.2	13
군포시	49	49	49	49	49	-	49	18
의왕시	24	24	24	24	22	▽8.3%	23.6	27
하남시	28	32	33	34	35	▲25.0%	32.4	24
용인시	170	171	173	169	165	▽2.9%	169.6	3
파주시	99	99	99	98	95	▽4.0%	98	9
이천시	53	54	53	51	48	▽9.4%	51.8	15
안성시	51	51	51	51	51	-	51	16
김포시	84	91	93	90	92	▲9.5%	90	11
화성시	139	148	165	167	169	▲21.6%	157.6	4
광주시	38	39	41	42	42	▲10.5%	40.4	21
양주시	47	48	49	48	47	-	47.8	20
포천시	41	39	35	33	33	▽19.5%	36.2	22
여주시	35	34	34	34	34	▽2.9%	34.2	23
연천군	14	13	13	13	13	▽7.1%	13.2	30
가평군	16	16	15	14	14	▽12.5%	15	29
양평군	27	27	25	25	25	▽7.4%	25.8	26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4) 초등학교 수

초등학교 수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교육 재정의 배분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등의 산정을 위한 기준 자료로도 활용되며, 국립, 공립, 사립을 합한 수치로(신설학교, 기존학교, 휴교가 포함되어 있으며, 폐교 및 분교는 제외) 명시하고 있다. 경기도의 초등학교 수는 2016년 1,227개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0년 1,298개로 나타났다. 성남시의 초등학교 수는 2016년 71개에서 2020년 72개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의 초등학교 수 평균 기준 경기도 전체 시군 가운데 용인시가 101개로 가장 많았으며, 수원시가 97개, 화성시가 87개, 고양시가 84개, 성남시가 71개로 많았다.

표 II-25. 초등학교 수(2016~2020)

(단위: 개)

행정 구역별	2016 (A)	2017	2018	2019	2020 (B)	증감률	2016~2020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1,227	1,241	1,261	1,277	1,298	▲5.8%	1,260.8	
수원시	97	97	97	99	99	▲2.1%	97.8	2
성남시	71	72	72	72	72	▲1.4%	71.8	5
의정부시	33	33	33	33	34	▲3.0%	33.2	15
안양시	41	41	41	41	41	-	41.0	13
부천시	62	64	64	64	64	▲3.2%	63.6	6
광명시	24	24	25	25	25	▲4.2%	24.6	21
평택시	54	54	56	58	61	▲13.0%	56.6	9
동두천시	11	11	11	11	11	-	11.0	30
안산시	54	54	54	54	55	▲1.9%	54.2	10
고양시	83	83	83	84	87	▲4.8%	84.0	4
과천시	4	4	4	4	4	-	4.0	31
구리시	15	16	16	16	16	▲6.7%	15.8	26
남양주시	60	60	61	64	65	▲8.3%	62.0	7
오산시	22	22	23	23	25	▲13.6%	23.0	22

행정 구역별	2016 (A)	2017	2018	2019	2020 (B)	증감률	2016~2020 평균	순위
시흥시	38	40	44	46	46	▲21.1%	42.8	11
군포시	26	26	26	26	27	▲3.8%	26.2	20
의왕시	13	13	13	14	14	▲7.7%	13.4	27
하남시	17	20	20	20	21	▲23.5%	19.6	25
용인시	100	100	102	103	103	▲3.0%	101.6	1
파주시	57	57	57	57	58	▲1.8%	57.2	8
이천시	31	31	31	31	31	-	31.0	17
안성시	34	34	35	35	35	▲2.9%	34.6	14
김포시	41	42	42	43	44	▲7.3%	42.4	12
화성시	80	83	89	92	95	▲18.8%	87.8	3
광주시	25	26	27	27	29	▲16.0%	26.8	19
양주시	32	32	33	33	34	▲6.3%	32.8	16
포천시	31	31	31	31	31	-	31.0	17
여주시	23	23	23	23	23	-	23.0	22
연천군	13	13	13	13	13	-	13.0	28
가평군	13	13	13	13	13	-	13.0	28
양평군	22	22	22	22	22	-	22.0	24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5) 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

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는 1개의 학급당 학생의 수를 의미하며 학급당 학생 수 수치가 낮을수록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경기도의 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는 2016년 19.26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2020년 15.96로 2016년 대비 17.1% 감소하였다. 성남시의 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는 2016년 20.77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2020년 15.6명으로 상대적 교육여건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경기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2016~2020년 간 평균을 기준으로 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가 높은 지역은 구리시가 19.7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원시가 19.29명, 하남시가 19.13명, 군포시가 18.77명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6. 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2016~2020)

(단위: 명)

행정 구역별	2016 (A)	2017	2018	2019	2020 (B)	증감률	2016~2020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19.26	18.2	17.07	16.1	15.96	▽17.1%	17.32	
수원시	20.87	20.12	19.52	17.94	18.01	▽13.7%	19.29	2
성남시	20.77	19.64	17.22	15.95	15.6	▽24.9%	17.84	10
의정부시	17.38	16.56	16.36	16.06	15.22	▽12.4%	16.32	20
안양시	19.35	19.1	17.64	16.97	17.25	▽10.9%	18.06	6
부천시	19.7	18.67	17.38	16.39	15.74	▽20.1%	17.58	13
광명시	22.73	20.16	17.41	15.68	15.28	▽32.8%	18.25	5
평택시	16.13	15.48	14.8	14.8	15.08	▽6.5%	15.26	21
동두천시	15.88	14.07	12.22	10.72	9.89	▽37.7%	12.56	28
안산시	19.2	18.13	16.71	15.59	15.56	▽19.0%	17.04	19
고양시	20.48	19.1	16.95	15.37	15.17	▽25.9%	17.41	16
과천시	19.83	14.23	12.61	11.29	15.52	▽21.7%	14.70	22
구리시	22.32	20.26	19.79	18.72	17.86	▽20.0%	19.79	1
남양주시	19.76	18.8	17.89	16.63	15.96	▽19.2%	17.81	11
오산시	20.34	19.46	17.93	16.54	15.81	▽22.3%	18.02	7

행정 구역별	2016 (A)	2017	2018	2019	2020 (B)	증감률	2016~2020 평균	순위
시흥시	19.6	17.85	17.97	17.82	16.8	▽14.3%	18.01	8
군포시	22.8	20.94	18.53	16.23	15.36	▽32.6%	18.77	4
의왕시	21.32	18.39	16.14	15.47	16.23	▽23.9%	17.51	15
하남시	20.93	19.26	18.94	18.59	17.92	▽14.4%	19.13	3
용인시	19.57	18.62	17.61	16.1	16.44	▽16.0%	17.67	12
파주시	18.43	17.65	17.1	16.21	16.86	▽8.5%	17.25	18
이천시	16.18	14.56	14.2	13.39	14.56	▽10.0%	14.58	23
안성시	15.63	14.83	13.41	13.52	14.27	▽8.7%	14.33	25
김포시	17.96	16.87	17.3	17.69	17.18	▽4.3%	17.40	17
화성시	19.48	18.57	16.79	16.52	16.35	▽16.1%	17.54	14
광주시	21.41	19.81	17.93	15	15.09	▽29.5%	17.85	9
양주시	14.19	13.87	13.21	12.81	13.03	▽8.2%	13.42	27
포천시	13.07	12.23	11.19	9.57	9.64	▽26.2%	11.14	30
여주시	15.95	15.05	13.53	12.4	11.94	▽25.1%	13.77	26
연천군	13.97	14.86	15.41	14.69	13.55	▽3.0%	14.50	24
가평군	12.14	10.69	10.39	9.33	8.83	▽27.3%	10.28	31
양평군	13.13	12.52	12.61	11.2	9.8	▽25.4%	11.85	29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6)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다음은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로 경기도 전체 시군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경기도의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16년 25.01명에서 점차 줄어들어 2020년 24.34명으로 2016년 대비 2.7% 감소하였다. 성남시의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16년 25.61명에서 미세하게 감소하여 2020년 25.16로 2016년 대비 1.8% 감소했다. 경기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2016~2020년 간 평균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높은 지역으로는 광주시(26.97명), 수원시(25.89명), 하남시(25.87명), 용인시(25.83명)로 나타났으며 성남시의 2016~2020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은 25.47명으로 중상위권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II-27.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2016~2020)

(단위: 명)

행정 구역별	2016 (A)	2017	2018	2019	2020 (B)	증감률	2016~2020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25.01	24.99	24.98	24.71	24.34	▽2.7%	24.81	
수원시	26.15	26.02	26.24	25.79	25.25	▽3.4%	25.89	2
성남시	25.61	25.7	25.45	25.42	25.16	▽1.8%	25.47	10
의정부시	25.34	25.22	25.51	25.23	24.66	▽2.7%	25.19	14
안양시	25.71	25.57	25.7	25.28	24.76	▽3.7%	25.40	11
부천시	25.22	24.94	24.98	24.73	24.25	▽3.8%	24.82	17
광명시	26.82	26.16	25.69	25.03	24.5	▽8.7%	25.64	5
평택시	23.71	24.14	24.15	23.77	23.44	▽1.1%	23.84	22
동두천시	23.42	23.67	23.22	22.59	22.58	▽3.6%	23.10	23
안산시	25.21	24.97	24.98	24.63	24.02	▽4.7%	24.76	18
고양시	25.49	25.44	25.51	25.05	24.9	▽2.3%	25.28	13
과천시	25.99	25.41	25.22	25.46	25.5	▽1.9%	25.52	9
구리시	25.39	25.4	24.82	24.43	24.28	▽4.4%	24.86	16

행정 구역별	2016 (A)	2017	2018	2019	2020 (B)	증감률	2016~2020 평균	순위
남양주시	25.7	25.69	25.94	25.25	25.08	▽2.4%	25.53	8
오산시	26.03	26.2	25.34	25.22	25.05	▽3.8%	25.57	6
시흥시	24.59	24.72	24.65	24.58	24.75	▲0.7%	24.66	19
군포시	25.97	25.52	25.09	24.64	23.86	▽8.1%	25.02	15
의왕시	24.78	24.31	24.17	23.19	22.94	▽7.4%	23.88	20
하남시	25.63	25.96	25.67	25.9	26.18	▲2.1%	25.87	3
용인시	26.11	26.23	26.01	25.6	25.18	▽3.6%	25.83	4
파주시	24.17	24.19	23.99	23.74	23.17	▽4.1%	23.85	21
이천시	22.83	23.03	23.07	23.13	22.88	▲0.2%	22.99	24
안성시	20.55	20.64	20.57	20.37	19.77	▽3.8%	20.38	26
김포시	24.96	25.32	25.8	26.18	25.57	▲2.4%	25.57	7
화성시	25.2	25.18	25.65	25.45	25.32	▲0.5%	25.36	12
광주시	27.71	27.43	26.76	27.18	25.79	▽6.9%	26.97	1
양주시	23.09	23.47	22.92	22.78	22.27	▽3.6%	22.91	25
포천시	19.48	19.35	19.25	18.74	17.59	▽9.7%	18.88	28
여주시	18.36	18.62	18.8	18.53	18.41	▲0.3%	18.54	29
연천군	14.43	14.65	14.61	13.91	13.73	▽4.9%	14.27	31
가평군	17.32	17.21	16.58	16.35	15.9	▽8.2%	16.67	30
양평군	19.8	19.53	19.75	19.52	18.98	▽4.1%	19.52	27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7)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

경기도의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016년 29.67명에서 약간 감소하며 2020년 28.66명으로 3.4% 줄어들었다. 성남시의 경기도의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 또한 2016년 29.35명에서 감소하는 추세로 2020년 28.67명으로 2.3% 줄어듦을 알 수 있다. 경기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2016~2020년 간 평균을 기준으로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높은 지역으로는 오산시(31.7명), 화성시(30.99명), 용인시(30.41명), 광주시(30.37명)로 나타났다. 성남시의 2016~2020년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은 28.85명으로 중위권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II-28.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2016~2020)

(단위: 명)

행정 구역별	2016 (A)	2017	2018	2019	2020 (B)	증감률	2016~2020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29.67	29.09	28.98	28.68	28.66	▽3.4%	29.02	
수원시	30.16	29.83	29.98	29.7	29.71	▽1.5%	29.88	7
성남시	29.35	28.9	28.79	28.56	28.67	▽2.3%	28.85	14
의정부시	29	28.57	28.82	28.53	27.86	▽3.9%	28.56	17
안양시	30.26	29.06	28.75	27.93	28.15	▽7.0%	28.83	15
부천시	29.84	28.57	27.93	27.76	27.96	▽6.3%	28.41	20
광명시	28.82	28.78	28.77	28.2	27.68	▽4.0%	28.45	19
평택시	29.74	28.78	28.48	28.61	28.67	▽3.6%	28.86	13
동두천시	27.69	27.34	27.1	25.52	25.42	▽8.2%	26.61	26
안산시	29.16	28.21	27.83	27.82	27.3	▽6.4%	28.06	21
고양시	30.81	30.25	29.28	28.43	28.47	▽7.6%	29.45	9
과천시	31.84	29.82	30.24	28.64	29.41	▽7.6%	29.99	5
구리시	31.1	30.2	30.2	28.82	28.47	▽8.5%	29.76	8
남양주시	30.38	29.19	29.45	28.98	29.1	▽4.2%	29.42	10
오산시	32.28	31.7	31.42	31.44	31.68	▽1.9%	31.70	1
시흥시	29.11	28.93	28.21	28.38	27.68	▽4.9%	28.46	18

행정 구역별	2016 (A)	2017	2018	2019	2020 (B)	증감률	2016~2020 평균	순위
군포시	29.79	28.87	28.68	28.51	27.76	▽6.8%	28.72	16
의왕시	28.48	27.77	27.06	27.23	26.15	▽8.2%	27.34	23
하남시	27.16	28.1	28.62	28.09	28.21	▲3.9%	28.04	22
용인시	30.57	30.36	30.68	30.16	30.28	▽0.9%	30.41	3
파주시	29.54	29.07	29.68	29.48	29.33	▽0.7%	29.42	10
이천시	27.45	27.08	27.29	26.62	26.49	▽3.5%	26.99	25
안성시	27.44	27.01	27.09	26.9	26.81	▽2.3%	27.05	24
김포시	28.83	29.76	30.14	30.29	30.62	▲6.2%	29.93	6
화성시	30.72	30.37	30.74	31.3	31.83	▲3.6%	30.99	2
광주시	31.92	31.1	30.27	29.54	29.02	▽9.1%	30.37	4
양주시	30.71	29.82	29.28	28.05	27.84	▽9.3%	29.14	12
포천시	25.59	24.23	22.9	22.45	22.36	▽12.6%	23.51	29
여주시	24.92	23.54	23.56	23.41	23.02	▽7.6%	23.69	28
연천군	23.27	21.4	21.63	19.35	18.69	▽19.7%	20.87	31
가평군	23.79	23.59	23.4	23	23.72	▽0.3%	23.50	30
양평군	25.1	23.98	23.39	23.53	23.15	▽7.8%	23.83	27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8)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경기도의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016년 30.08명에서 계속해서 감소하여 2020년 24.69명으로 2016년 대비 17.9% 줄어들었다. 성남시의 경기도의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또한 2016년 28.64명에서 감소하는 추세로 2020년 23.95명으로 2016년 대비 16.4% 감소하였다. 경기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2016~2020년 간 평균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높은 지역으로는 화성시(31.32명), 용인시(30.37명), 양주시(30.19명), 오산시(29.44명)로 나타났다. 성남시의 2016~2020년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은 26.23명으로 중하위권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II-29.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2016~2020)

(단위: 명)

행정 구역별	2016 (A)	2017	2018	2019	2020 (B)	증감률	2016~2020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30.08	28.87	26.97	25.42	24.69	▽17.9%	27.21	
수원시	30.48	29.06	27.34	25.64	24.64	▽19.2%	27.43	12
성남시	28.64	27.74	26.14	24.69	23.95	▽16.4%	26.23	18
의정부시	29.1	27.54	25.84	24.26	23.18	▽20.3%	25.98	21
안양시	29.97	28.32	26.32	24.86	24.08	▽19.7%	26.71	14
부천시	26	25.66	24.64	23.64	22.76	▽12.5%	24.54	26
광명시	28.02	27.14	25.84	24.27	23.71	▽15.4%	25.80	22
평택시	31.61	30.09	28.2	26.31	25.74	▽18.6%	28.39	6
동두천시	28.46	27.15	25.21	23.74	23.21	▽18.4%	25.55	23
안산시	30.5	29.17	26.63	24.09	22.87	▽25.0%	26.65	16
고양시	31.29	29.49	27.11	25.04	24.19	▽22.7%	27.42	13
과천시	25.79	24.51	23.04	21.84	21.29	▽17.4%	23.29	28
구리시	32.4	29.69	27.51	25.56	24.94	▽23.0%	28.02	9
남양주시	31.27	30.37	27.96	26.47	25.53	▽18.4%	28.32	7
오산시	32.36	31	29.06	27.62	27.16	▽16.1%	29.44	4
시흥시	32	30.55	28.18	26.61	25.72	▽19.6%	28.61	5
군포시	29.89	28.08	25.93	23.98	22.74	▽23.9%	26.12	19
의왕시	28.11	27.28	25.7	23.37	22.44	▽20.2%	25.38	24
하남시	23.82	23.01	22.05	21.9	23.09	▽3.1%	22.77	30
용인시	33.52	32.03	29.96	28.33	28.02	▽16.4%	30.37	2
파주시	28.93	27.95	26.1	25.12	24.92	▽13.9%	26.60	17
이천시	29.66	28.67	26.51	24.92	23.64	▽20.3%	26.68	15
안성시	30.66	30.17	28.26	26.63	25.49	▽16.9%	28.24	8
김포시	28.77	28.12	27.26	26.68	26.72	▽7.1%	27.51	11
화성시	34.33	33.26	30.64	29.41	28.97	▽15.6%	31.32	1
광주시	31.55	30.85	27.3	25.54	24.65	▽21.9%	27.98	10
양주시	32.74	31.46	29.86	28.8	28.11	▽14.1%	30.19	3
포천시	26.93	25.1	22.93	21.94	20.91	▽22.4%	23.56	27
여주시	29.05	27.54	26.03	24.31	23.29	▽19.8%	26.04	20
연천군	24.96	24.26	22.45	19.09	16.94	▽32.1%	21.54	31
가평군	24.83	24.35	23.22	22.11	20.57	▽17.2%	23.02	29
양평군	27.65	26.91	24.6	22.87	22.16	▽19.9%	24.84	25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5) 성남시의 고용과 노동학적 행정통계

고용과 노동부문의 데이터의 경우 상반기 하반기 평균으로 1년 단위로 측정하였다. 또한 경기도 전체 값의 경우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지역별고용조사)의 합이나 평균으로 통합하였으며 이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시·도 수준(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값과 상이함을 밝힌다.²⁾

(1)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생산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뜻하며 취업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취합된다. 경제활동인구는 지역의 잠재노동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경기도의 경제활동인구 수는 경기도 시군의 합으로 2016년 641만 3천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0년에는 695만 1천명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의 경제활동인구는 2016년 50만 5천명에서 조금씩 감소하여 2020년 48만 5천명으로 감소했다. 경기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값을 기준으로 높은 경제활동인구를 보이는 지역으로는 수원시가 63만 2천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양시가 50만 6천명, 성남시가 49만 4천명, 용인시가 49만 2천명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시군구 수준의 조사는 지역별고용조사에서 이루어지고, 시·도 수준의 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합되기 때문에 값이 상이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표의 일관성을 위해 시군구 수준(지역별고용조사)의 값을 더한 값을 경기도 값으로 제시하였다.

표 II-30. 경제활동인구(2016~2020)

(단위: 만명)

행정 구역별	2016 (A)	2017	2018	2019	2020 (B)	증감률	2016~2020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641.3	652.8	675.7	700.3	695.1	▲8.4%	673.1	
수원시	61.1	61.6	64.5	65.3	63.3	▲3.6%	63.2	1
성남시	50.5	48.8	49.3	49.4	48.5	▽4.1%	49.4	3
의정부시	20.7	21.0	21.6	22.5	22.1	▲6.9%	21.6	13
안양시	30.2	30.6	30.2	30.0	28.2	▽6.6%	29.9	9
부천시	43.8	44.0	45.2	45.9	44.4	▲1.4%	44.7	5
광명시	16.8	16.8	16.8	16.7	15.8	▽6.1%	16.6	16
평택시	23.8	24.9	25.8	27.7	28.0	▲18.0%	26.1	10
동두천시	4.4	4.8	4.8	4.7	4.5	▲1.1%	4.7	28
안산시	39.8	39.7	39.1	39.6	37.7	▽5.4%	39.2	7
고양시	49.3	49.1	50.4	51.8	52.4	▲6.3%	50.6	2
과천시	2.9	2.6	2.4	2.5	2.6	▽11.8%	2.7	30
구리시	9.4	9.6	10.1	10.2	10.0	▲7.1%	9.9	23
남양주시	30.9	30.7	30.8	32.4	32.7	▲5.7%	31.5	8
오산시	10.8	11.4	12.0	12.4	12.8	▲18.3%	11.9	20
시흥시	22.7	23.0	25.2	28.1	28.6	▲26.2%	25.6	11
군포시	14.5	14.4	14.3	14.6	14.1	▽2.8%	14.4	17
의왕시	7.8	7.8	7.9	8.1	8.2	▲5.6%	8.0	25
하남시	9.2	11.4	12.5	13.8	14.9	▲62.5%	12.4	18
용인시	46.2	47.2	49.1	51.8	51.5	▲11.5%	49.2	4
파주시	21.3	21.2	22.6	23.1	23.0	▲7.7%	22.3	12
이천시	11.8	12.1	12.3	12.6	12.6	▲6.9%	12.3	19
안성시	10.6	11.0	11.3	11.6	11.6	▲9.3%	11.3	21
김포시	18.4	19.3	20.6	22.8	23.1	▲25.6%	20.9	14
화성시	32.6	36.1	40.7	45.2	47.1	▲44.4%	40.4	6
광주시	16.6	18.0	19.7	20.1	20.5	▲23.8%	19.0	15
양주시	10.1	10.3	10.5	11.2	11.0	▲8.7%	10.6	22
포천시	8.4	8.6	9.1	8.9	8.5	▲1.0%	8.8	24

행정 구역별	2016 (A)	2017	2018	2019	2020 (B)	증감률	2016~2020 평균	순위
여주시	5.8	5.8	5.9	5.9	6.0	▲3.7%	5.9	26
연천군	2.2	2.3	2.3	2.3	2.3	▲3.7%	2.3	31
가평군	3.3	3.2	3.1	3.2	3.2	▽1.8%	3.2	29
양평군	5.4	5.5	5.8	6.0	5.9	▲9.8%	5.8	27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은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경제활동의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활용된다. 경기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경기도 시군의 평균으로 2016년 60.7%에서 2019년 62.2%까지 증가하다 2020년 60.7%로 감소하였다. 성남시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6년 61.9%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0년 60.7%로 감소하였다. 경기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평균값을 기준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지역으로는 이천시(66.7%), 화성시(66.2%), 안성시(65.6%), 오산시(64.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1. 경제참가율(2016~2020)

(단위: %)

행정 구역별	2016 (A)	2017	2018	2019	2020 (B)	증감률	2016~2020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60.7	60.9	61.7	62.2	60.7	▽0.1%	61.3	
수원시	60.6	60.3	62.5	62.9	60.9	▲0.6%	61.5	14
성남시	61.9	60.2	61.3	61.8	60.7	▽1.9%	61.2	17
의정부시	57.6	57.8	58.5	59.3	57.2	▽0.6%	58.1	27
안양시	60.9	61.5	61.7	61.8	59.6	▽2.1%	61.1	18
부천시	60.5	60.3	61.8	62.9	61.4	▲1.5%	61.4	16
광명시	59.9	60.4	61.0	61.7	60.1	▲0.3%	60.6	20

행정 구역별	2016 (A)	2017	2018	2019	2020 (B)	증감률	2016~2020 평균	순위
평택시	61.3	62.2	62.4	64.1	62.1	▲1.2%	62.4	9
동두천시	53.3	57.7	57.7	56.7	53.9	▲1.1%	55.9	30
안산시	62.7	62.8	63.1	63.7	60.8	▽3.0%	62.6	8
고양시	58.9	57.8	59.0	59.4	58.5	▽0.6%	58.7	26
과천시	55.0	56.3	54.6	54.8	54.3	▽1.3%	55.0	31
구리시	60.8	59.9	61.0	60.9	60.2	▽1.1%	60.6	20
남양주시	58.9	57.6	56.6	57.5	56.3	▽4.4%	57.4	29
오산시	62.4	64.4	65.4	65.2	64.5	▲3.3%	64.4	4
시흥시	63.0	62.3	64.1	66.8	65.0	▲3.1%	64.3	5
군포시	60.8	60.4	60.9	61.8	59.2	▽2.6%	60.6	20
의왕시	59.3	59.9	61.0	60.4	58.9	▽0.7%	59.9	24
하남시	60.2	62.4	62.5	62.8	63.0	▲4.6%	62.2	12
용인시	57.8	57.6	58.5	59.2	57.1	▽1.2%	58.1	27
파주시	62.1	60.5	62.3	61.9	60.5	▽2.6%	61.5	14
이천시	66.9	66.8	66.8	67.3	65.9	▽1.5%	66.7	1
안성시	63.7	65.1	66.4	66.9	65.9	▲3.5%	65.6	3
김포시	62.7	61.5	61.0	63.1	60.7	▽3.2%	61.8	13
화성시	63.8	65.4	67.2	68.1	66.6	▲4.5%	66.2	2
광주시	62.0	63.6	65.1	63.6	62.9	▲1.4%	63.5	6
양주시	59.6	59.2	58.7	60.1	56.8	▽4.7%	58.9	25
포천시	60.7	62.5	66.1	64.7	61.8	▲1.8%	63.2	7
여주시	61.3	60.5	60.7	60.5	61.8	▲0.8%	61.0	19
연천군	59.5	61.8	63.1	64.0	63.5	▲6.7%	62.4	9
가평군	64.6	61.9	60.7	62.1	61.9	▽4.2%	62.3	11
양평군	60.1	59.1	60.4	62.0	59.7	▽0.7%	60.3	23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3) 고용률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취업하고 있는지를 가장 간명하게 나타내는 지표로서 노동 시장의 현황을 핵심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경기도의 고용률은 경기도 시군의 평균으로 2016년 58.8%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2020년 58.4%로 나타났다. 성남시의 고용률은 2016년 59.9%에서 미세하게 감소하다 2020년 58%로 2016년에 비해 2%p 감소하였다. 경기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의 고용률 평균으로는 이천시가 64.9%로 가장 높았으며, 화성시(64.2%), 안성시(63.9%), 오산시(61.8%)로 높은 수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II-32. 고용률(2016~2020)

(단위: %, %p)

행정 구역별	2016 (A)	2017	2018	2019	2020 (B)	증감 (B-A)	2016~2020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58.8	58.8	59.4	59.9	58.4	▽0.4	59.1	
수원시	58.1	58.0	59.8	60.3	58.6	▲0.5	59.0	17
성남시	59.9	58.2	58.4	58.9	58.0	▽2.0	58.7	18
의정부시	55.2	54.9	55.8	56.6	54.7	▽0.5	55.5	28
안양시	58.2	59.0	58.4	58.8	56.9	▽1.3	58.3	20
부천시	57.6	57.8	59.0	60.2	58.5	▲0.9	58.6	19
광명시	57.4	57.9	58.4	58.6	57.3	▽0.1	57.9	23
평택시	59.7	60.4	60.4	61.8	59.9	▲0.2	60.4	10
동두천시	51.4	54.8	54.9	53.8	51.3	▽0.1	53.3	30
안산시	60.1	59.8	60.1	60.5	57.5	▽2.6	59.6	14
고양시	57.0	55.6	56.8	57.3	56.5	▽0.5	56.7	25
과천시	53.0	54.0	52.1	53.1	52.4	▽0.7	52.9	31
구리시	58.5	57.7	58.9	58.4	57.1	▽1.5	58.1	21
남양주시	56.8	55.4	54.3	55.1	53.5	▽3.3	55.1	29
오산시	61.1	61.9	62.8	62.3	61.0	▽0.1	61.8	4

행정 구역별	2016 (A)	2017	2018	2019	2020 (B)	증감 (B-A)	2016~2020 평균	순위
시흥시	60.7	59.8	61.4	63.7	61.3	▲0.6	61.4	6
군포시	58.2	58.0	58.1	59.4	56.5	▽1.7	58.0	22
의왕시	56.5	57.6	58.5	57.7	56.4	▽0.1	57.4	24
하남시	58.5	60.4	60.4	61.0	61.5	▲3.0	60.4	10
용인시	55.6	55.6	56.2	56.7	54.9	▽0.6	55.8	27
파주시	60.2	58.7	60.5	60.5	58.6	▽1.7	59.7	13
이천시	65.1	64.5	65.4	65.6	64.1	▽1.0	64.9	1
안성시	62.6	63.5	64.8	64.8	63.8	▲1.3	63.9	3
김포시	60.4	59.6	58.6	60.6	58.2	▽2.2	59.5	15
화성시	62.6	63.6	64.5	66.0	64.1	▲1.6	64.2	2
광주시	60.2	60.8	63.0	60.9	60.2	-	61.1	8
양주시	57.6	57.0	56.2	57.5	54.2	▽3.4	56.5	26
포천시	59.4	60.1	64.1	63.0	59.6	▲0.2	61.3	7
여주시	60.4	59.6	59.4	59.5	60.6	▲0.3	59.9	12
연천군	58.8	60.5	61.2	62.4	62.3	▲3.5	61.1	8
가평군	63.7	60.9	60.0	61.5	61.5	▽2.2	61.5	5
양평군	58.5	58.1	59.4	61.1	58.7	▲0.2	59.2	16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4) 실업률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국민의 경제활동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경기도의 실업률은 경기도 전체 시군의 평균으로 2016년 3.19%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0년 3.84%로 0.65%p 증가하였다. 성남시의 실업률은 2016년 3.35%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0년 4.55%로 1.2%p 증가하였다. 경기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는 지역은 안산시(4.9%), 동두천시(4.7%), 안양시(4.7%), 시흥시(4.5%), 의정부시(4.5%), 부천시(4.5%), 광명시(4.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3. 실업률(2016~2020)

(단위: %, %p)

행정 구역별	2016 (A)	2017	2018	2019	2020 (B)	증감 (B-A)	2016~2020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3.19	3.48	3.71	3.66	3.84	▲0.65	3.6	
수원시	4.15	3.75	4.40	4.05	3.85	▽0.30	4.1	11
성남시	3.35	3.35	4.75	4.75	4.55	▲1.20	4.2	10
의정부시	4.00	5.05	4.60	4.50	4.30	▲0.30	4.5	4
안양시	4.40	3.95	5.40	4.95	4.60	▲0.20	4.7	2
부천시	4.70	4.05	4.60	4.35	4.65	-	4.5	4
광명시	4.15	4.15	4.25	4.90	4.60	▲0.45	4.5	4
평택시	2.65	2.75	3.25	3.55	3.60	▲0.95	3.2	21
동두천시	3.50	5.05	4.80	5.20	4.85	▲1.35	4.7	2
안산시	4.10	4.80	4.65	5.05	5.45	▲1.35	4.9	1
고양시	3.20	3.85	3.75	3.55	3.35	▲0.15	3.6	20
과천시	3.55	4.05	4.60	3.05	3.40	▽0.15	3.8	18
구리시	3.75	3.70	3.40	4.15	5.05	▲1.30	4.1	11
남양주시	3.55	3.85	3.95	4.20	4.90	▲1.35	4.1	11
오산시	2.15	3.80	3.95	4.55	5.50	▲3.35	4.0	15
시흥시	3.60	3.80	4.35	4.70	5.60	▲2.00	4.5	4
군포시	4.20	4.10	4.60	3.95	4.65	▲0.45	4.3	8
의왕시	4.65	3.80	4.10	4.50	4.10	▽0.55	4.3	8
하남시	2.80	3.15	3.30	2.85	2.30	▽0.50	2.9	24
용인시	3.90	3.50	3.90	4.05	3.90	-	3.9	16
파주시	2.95	3.00	2.95	2.35	3.10	▲0.15	2.9	24
이천시	2.70	3.45	2.15	2.65	2.75	▲0.05	2.8	26
안성시	1.70	2.45	2.55	3.00	3.15	▲1.45	2.6	27
김포시	3.75	3.10	3.95	3.95	4.20	▲0.45	3.8	18
화성시	1.90	2.75	3.95	3.10	3.80	▲1.90	3.1	22
광주시	3.00	4.45	3.25	4.15	4.25	▲1.25	3.9	16
양주시	3.50	3.65	4.30	4.35	4.65	▲1.15	4.1	11
포천시	2.25	3.80	3.00	2.55	3.50	▲1.25	3.1	22
여주시	1.45	1.60	2.25	1.75	1.90	▲0.45	1.8	30
연천군	1.05	2.05	3.00	2.50	2.00	▲0.95	2.2	28
가평군	1.45	1.50	1.25	0.95	0.75	▽0.70	1.2	31
양평군	2.70	1.65	1.75	1.45	1.70	▽1.00	1.9	29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7) 청년고용률

청년고용률은 15~29세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서 청년세대의 경제 활동 동향 분석을 파악할 수 있다. 경기도의 청년고용률은 경기도 전체 시군의 평균으로 2016년 39.5%에서 2019년 41.8%까지 증가하였다가 2020년 39.8%로 조금 감소하였다. 성남시의 청년고용률은 2016년 43.3%에서 2019년 44.8%까지 증가하였다가 2020년 42.8%로 조금 하락하였다. 경기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높은 청년고용률을 나타내는 지역으로는 이천시(46.2%), 광주시(45.2%), 화성시(43.7%), 오산시(43.7%)로 나타났다.

표 II-34. 청년고용률(2016~2020)

(단위: %, %p)

행정 구역별	2016 (A)	2017	2018	2019	2020 (B)	증감 (B-A)	2016~2020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39.5	39.5	40.4	41.8	39.8	▲0.4	40.2	
수원시	40.1	41.1	42.9	45.1	42.4	▲2.3	42.3	11
성남시	43.3	41.3	41.4	44.8	42.8	▽0.5	42.7	10
의정부시	37.3	36.7	39.7	44.3	38.3	▲1.0	39.3	4
안양시	42.2	41.4	41.9	44.9	41.3	▽0.9	42.4	2
부천시	39.9	43.3	45.2	45.3	42.5	▲2.7	43.3	4
광명시	35.9	38.0	38.6	39.7	36.8	▲1.0	37.8	4
평택시	40.6	42.3	43.0	45.0	42.4	▲1.8	42.7	21
동두천시	38.6	40.8	35.2	37.4	39.1	▲0.5	38.2	2
안산시	41.2	40.9	41.6	43.3	37.7	▽3.5	41.0	1
고양시	38.5	39.7	42.4	40.7	39.4	▲0.9	40.2	20
과천시	26.3	29.3	30.2	30.6	27.7	▲1.4	28.8	18
구리시	39.4	38.5	41.5	40.3	41.3	▲1.9	40.2	11
남양주시	36.9	34.7	34.2	37.4	36.0	▽0.8	35.8	11
오산시	41.7	44.1	44.3	46.7	41.9	▲0.1	43.7	15

행정 구역별	2016 (A)	2017	2018	2019	2020 (B)	증감 (B-A)	2016~2020 평균	순위
시흥시	39.6	39.2	41.1	46.1	44.0	▲4.4	42.0	4
군포시	41.6	40.8	40.7	43.3	40.1	▽1.6	41.3	8
의왕시	36.3	36.1	39.3	38.0	36.8	▲0.5	37.3	8
하남시	38.5	43.2	44.8	44.0	46.1	▲7.6	43.4	24
용인시	37.7	36.2	36.2	37.9	35.2	▽2.5	36.7	16
파주시	43.6	40.5	41.7	43.1	37.9	▽5.7	41.4	24
이천시	47.1	45.0	45.6	47.6	45.7	▽1.5	46.2	26
안성시	40.8	41.8	47.0	44.5	43.2	▲2.5	43.5	27
김포시	40.3	42.1	39.1	42.3	40.7	▲0.4	40.9	18
화성시	41.9	43.4	43.7	47.1	42.4	▲0.5	43.7	22
광주시	43.1	44.8	45.2	47.2	45.8	▲2.7	45.2	16
양주시	41.1	37.6	34.6	37.9	35.1	▽6.1	37.3	11
포천시	39.1	38.4	48.6	47.6	42.4	▲3.3	43.2	22
여주시	41.2	40.1	43.2	41.7	45.2	▲4.1	42.3	30
연천군	39.6	39.7	39.2	41.1	45.9	▲6.4	41.1	28
가평군	37.6	31.5	27.7	25.4	28.0	▽9.6	30.0	31
양평군	33.1	31.7	34.6	35.4	31.4	▽1.7	33.3	29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8) 취업자 수

취업자 수는 경제활동가능인구 중 취업자의 수로 취업자 수의 증감은 고용상황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경기도의 취업자 수는 경기도 전체 시군의 합으로 2016년 618만 7천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0년 663만 3천명으로 2016년 대비 7.7% 증가하였다. 성남시의 취업자 수는 2016년 48만 8천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2020년 46만 2천명으로 2016년 대비 5.3% 감소하였다. 경기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의 취업자 수 평균으로 높은 지역은 수원시(60만 6천명), 고양시(48만 8천명), 용인시(47만 2천명), 성남시(47만 2천명), 부천시(42만 6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5. 취업자 수(2016~2020)

(단위: 천명)

행정 구역별	2016 (A)	2017	2018	2019	2020 (B)	증감률	2016~2020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6,187.3	6,288.4	6,483.8	6,723.7	6,663.6	▲7.7%	6,469.4	
수원시	585.7	593.3	616.2	626.8	608.7	▲3.9%	606.2	1
성남시	488.6	472.1	469.3	470.9	462.5	▽5.3%	472.7	4
의정부시	198.7	199.8	206.2	215.0	211.8	▲6.6%	206.3	13
안양시	289.0	294.1	285.3	284.8	269.5	▽6.7%	284.6	9
부천시	417.8	421.9	431.6	439.2	423.8	▲1.4%	426.9	5
광명시	161.4	160.9	160.6	159.2	150.8	▽6.5%	158.6	16
평택시	231.2	242.5	250.1	266.7	270.2	▲16.9%	252.2	10
동두천시	42.6	45.6	45.6	44.6	42.5	▽0.1%	44.2	28
안산시	382.1	377.6	372.7	375.7	356.5	▽6.7%	372.9	7
고양시	477.3	472.0	484.7	499.5	506.5	▲6.1%	488.0	2
과천시	28.1	24.9	23.2	24.2	24.8	▽11.7%	25.1	30
구리시	90.0	92.7	97.5	97.5	95.0	▲5.6%	94.6	23
남양주시	298.1	295.0	295.7	310.4	310.6	▲4.2%	302.0	8
오산시	105.6	109.6	115.3	118.7	120.8	▲14.3%	114.0	20
시흥시	218.5	221.3	241.3	267.4	270.0	▲23.5%	243.7	11
군포시	138.8	137.8	136.8	140.0	134.3	▽3.2%	137.6	17
의왕시	74.0	74.9	75.6	77.0	78.6	▲6.2%	76.0	25
하남시	89.1	110.6	120.5	134.5	145.5	▲63.3%	120.1	18
용인시	444.3	455.4	472.0	496.9	495.3	▲11.5%	472.8	3
파주시	206.9	205.8	219.2	226.0	222.5	▲7.5%	216.1	12
이천시	114.5	116.7	120.0	122.6	122.3	▲6.8%	119.3	19
안성시	104.2	107.3	110.4	112.4	112.3	▲7.8%	109.3	21
김포시	177.4	186.7	197.6	219.0	221.6	▲24.9%	200.5	14
화성시	320.2	351.1	390.7	437.6	453.5	▲41.7%	390.7	6
광주시	160.6	172.4	190.1	192.3	196.3	▲22.2%	182.4	15
양주시	97.4	98.9	100.4	107.1	104.5	▲7.3%	101.7	22
포천시	82.3	83.1	88.5	86.7	82.1	▽0.2%	84.5	24
여주시	57.3	57.2	57.3	57.6	59.1	▲3.2%	57.7	26
연천군	21.6	22.2	22.1	22.4	22.2	▲2.8%	22.1	31
가평군	32.2	31.1	30.9	31.9	31.9	▽1.1%	31.6	29
양평군	52.4	54.4	57.0	59.6	58.2	▲11.0%	56.3	27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9) 타 지역 통근 취업자

타 지역 통근 취업자는 거주지 외 타 지역 통근 취업자의 취합을 나타낸다. 경기도의 타 지역 통근 취업자는 경기도 전체 시군의 평균으로 2016년 263만 7천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0년 293만 1천명으로 2016년 대비 11.1% 증가하였다. 성남시의 타 지역 통근 취업자는 2016년 21만 2천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0년 22만 2천명으로 2016년 대비 4.8% 증가하였다. 경기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의 타 지역 통근 취업자 평균으로 높은 지역은 수원시(26만 1천명), 용인시(25만 7천명), 고양시(23만 4천명), 성남시(21만 6천명), 부천시(20만 9천명)로 나타났다.

표 II-36. 타 지역 통근 취업자(2016~2020)

(단위: 천명)

행정 구역별	2016 (A)	2017	2018	2019	2020 (B)	증감률	2016~2020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2,637.2	2,710.0	2,848.2	2,935.8	2,931.2	▲11.1%	2,812.5	
수원시	250.1	260.9	266.7	268.3	263.4	▲5.3%	261.9	1
성남시	212.7	200.9	218.1	226.1	222.9	▲4.8%	216.2	4
의정부시	107.6	108.4	107.5	112.6	112.6	▲4.6%	109.7	10
안양시	162.7	164.0	157.5	155.0	150.8	▽7.3%	158.0	6
부천시	202.1	197.5	218.0	218.7	210.8	▲4.3%	209.4	5
광명시	100.5	98.8	102.3	100.4	95.6	▽4.9%	99.5	12
평택시	49.8	49.8	51.6	57.1	59.7	▲19.8%	53.6	21
동두천시	17.2	19.5	20.3	20.2	19.8	▲15.2%	19.4	25
안산시	116.1	118.6	123.8	131.1	128.7	▲10.8%	123.7	9
고양시	219.4	228.3	234.9	241.7	247.2	▲12.7%	234.3	3
과천시	21.7	19.5	17.9	18.7	19.6	▽9.7%	19.5	24
구리시	54.0	58.8	63.1	61.7	59.6	▲10.3%	59.5	19
남양주시	140.4	140.9	145.7	151.4	142.5	▲1.5%	144.2	7
오산시	64.8	67.6	72.5	71.9	74.1	▲14.4%	70.2	16

행정 구역별	2016 (A)	2017	2018	2019	2020 (B)	증감률	2016~2020 평균	순위
시흥시	83.9	89.6	100.9	111.2	117.3	▲39.8%	100.6	11
군포시	90.1	91.8	90.5	87.4	85.9	▽4.7%	89.1	13
의왕시	54.1	57.0	56.5	58.7	59.4	▲9.8%	57.2	20
하남시	46.7	55.3	61.3	69.7	76.8	▲64.3%	62.0	18
용인시	229.7	243.4	262.8	273.5	275.4	▲19.9%	257.0	2
파주시	62.3	59.2	66.3	64.1	69.5	▲11.6%	64.3	17
이천시	13.7	15.1	16.6	19.3	20.2	▲48.0%	17.0	26
안성시	18.8	21.3	23.8	21.4	21.5	▲14.1%	21.4	23
김포시	71.4	76.0	81.2	92.0	91.7	▲28.4%	82.5	14
화성시	114.1	121.3	128.7	142.0	149.8	▲31.2%	131.2	8
광주시	63.3	68.0	78.2	80.6	76.3	▲20.5%	73.3	15
양주시	37.5	43.5	45.4	46.4	44.2	▲17.7%	43.4	22
포천시	9.5	10.2	11.0	10.0	11.0	▲16.4%	10.4	27
여주시	7.0	8.5	8.4	8.7	9.2	▲32.4%	8.4	29
연천군	3.4	3.6	3.8	3.1	3.3	▽4.4%	3.5	31
가평군	4.3	4.0	3.5	3.8	3.7	▽14.1%	3.9	30
양평군	9.0	9.6	10.1	9.8	9.8	▲8.3%	9.7	28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6) 성남시의 주거와 교통 행정통계

(1) 노후주택비율

노후주택비율은 전체 주택 수 가운데 30년 이상 된 주택 수의 비율을 나타낸다. 경기도의 노후주택비율은 2015년 7.3%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9년 9%로 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의 노후주택비율은 2015년 3.9%에서 차츰 증가하여 2019년 7.8%로 대략 3.9%p 증가하였다. 성남시 지역으로 보면 수정구는 2015년 대비 2019년 4.6%p 증가, 중원구는 10.7%p 증가하였으나 분당구의 경우 0.1%로 거의 빈집비율이 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전체 시군

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9년 동안 5년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노후주택비율이 높은 지역은 과천시(49.5%), 연천군(26.4%), 여주시(20.6%), 양평군(18.2%)으로 나타났다.

표 II-37. 노후주택비율(2015~2019)

(단위: %, %p)

행정 구역별		2015 (A)	2016	2017	2018	2019 (B)	증감 (B-A)	2015~2019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7.3	8.1	8.2	8.5	9.0	▲1.7	8.3	-
수원시		7.5	8.0	8.9	10.1	12.0	▲4.5	9.3	16
성 남 시	전체	3.9	5.7	6.3	7.1	7.8	▲3.9	6.2	20
	(수정구)	(12.4)	(17.4)	(13.6)	(15.6)	(17.0)	▲4.6	15.2	-
	(중원구)	(5.7)	(8.2)	(13.5)	(15.1)	(16.4)	▲10.7	11.8	-
	(분당구)	(0.1)	(0.1)	(0.1)	(0.1)	(0.1)	-	0.1	-
의정부시		6.7	7.3	7.3	7.5	7.6	▲0.9	7.3	18
안양시		12.2	13.2	13.9	15.8	17.5	▲5.3	14.6	10
부천시		11.0	12.9	14.0	15.7	18.0	▲7.0	14.4	11
광명시		9.8	14.3	13.9	14.2	20.9	▲11.1	14.7	9
평택시		11.2	11.1	10.7	10.4	10.4	▽0.8	10.8	13
동두천시		14.7	15.8	15.9	15.8	16.0	▲1.3	15.7	7
안산시		4.5	5.5	6.6	6.3	7.4	▲2.9	6.1	21
고양시		3.5	4.2	4.3	4.6	5.0	▲1.5	4.4	27
과천시		60.3	57.3	44.8	42.7	42.4	▽17.9	49.5	1
구리시		7.0	7.8	7.6	8.1	9.6	▲2.6	8.1	17
남양주시		4.2	5.6	5.7	5.7	5.4	▲1.2	5.4	24
오산시		4.9	5.1	6.1	6.0	6.0	▲1.1	5.7	22
시흥시		1.5	3.8	4.2	4.6	4.5	▲3.0	3.8	29
군포시		2.0	3.3	4.1	5.5	6.7	▲4.7	4.4	27
의왕시		4.7	9.5	9.6	11.5	11.8	▲7.1	9.5	15
하남시		6.9	5.5	5.2	4.8	4.7	▽2.2	5.5	23
용인시		2.5	2.6	2.6	2.5	2.5	-	2.6	31

행정 구역별	2015 (A)	2016	2017	2018	2019 (B)	증감 (B-A)	2015~2019 평균	순위
파주시	9.9	10.2	10.2	9.4	9.6	▽0.3	9.9	14
이천시	13.7	14.4	14.9	15.0	15.7	▲2.0	14.8	8
안성시	14.6	14.0	14.6	14.3	13.7	▽0.9	14.3	12
김포시	4.4	4.8	4.5	4.2	4.1	▽0.3	4.4	26
화성시	5.7	5.4	4.8	4.3	3.8	▽1.9	4.8	25
광주시	3.9	3.8	3.5	3.2	3.2	▽0.7	3.6	30
양주시	6.5	7.1	6.6	6.2	6.2	▽0.3	6.6	19
포천시	16.2	16.3	16.5	16.3	16.6	▲0.4	16.4	6
여주시	20.2	20.8	20.6	20.6	20.6	▲0.4	20.6	3
연천군	25.5	26.0	26.7	27.0	26.7	▲1.2	26.4	2
가평군	16.8	16.8	16.9	16.7	16.4	▽0.4	16.8	5
양평군	20.9	18.8	17.9	17.2	16.2	▽4.7	18.2	4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 도시지역면적

도시지역면적은 용도구역기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면적으로 도시행정, 도시정책, 도시연구, 도시개발, 도시계획분야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경기도의 도시지역 면적은 2015년 3,357km²에서 차츰 증가하여 2019년 3,377km²으로 대략 19.82km² 증가하였다. 성남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거의 141km²으로 유지되었다. 경기도 전체 시군 가운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도시지역 면적 평균값으로 넓은 지역으로는 용인시가 388km², 화성시 317km², 남양주시 241km², 고양시 192km²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38. 도시지역 면적(2015~2019)

(단위: km²)

행정 구역별	2015 (A)	2016	2017	2018	2019 (B)	증감 (B-A)	2015~2019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3,357.5	3,367.5	3,371.1	3,376.0	3,377.3	▲19.82	3,369.87	
수원시	121.1	121.1	121.1	121.1	121.2	▲0.04	121.15	12
성남시	141.8	141.8	141.8	141.8	141.8	-	141.83	10
의정부시	81.6	81.6	81.6	81.6	81.6	-	81.61	17
안양시	58.5	58.5	58.5	58.5	58.5	▲0.02	58.48	19
부천시	53.5	53.5	53.5	53.5	53.5	-	53.45	21
광명시	38.5	38.5	38.5	38.5	38.5	-	38.51	25
평택시	141.6	150.8	151.9	152.2	151.1	▲9.45	149.53	9
동두천시	33.3	33.3	33.3	33.3	33.6	▲0.27	33.36	28
안산시	149.6	149.6	149.7	151.5	151.5	▲1.83	150.38	7
고양시	191.9	191.9	191.9	193.4	194.1	▲2.28	192.62	4
과천시	35.9	35.9	35.9	35.9	35.9	-	35.86	27
구리시	33.3	33.3	33.3	33.3	33.3	-	33.3	29
남양주시	241.8	241.8	241.8	241.8	242.4	▲0.63	241.92	3
오산시	42.8	42.8	42.8	42.8	42.8	-	42.76	23
시흥시	134.0	134.0	135.1	135.1	135.1	▲1.08	134.63	11
군포시	36.4	36.4	36.4	36.5	36.5	▲0.10	36.41	26
의왕시	54.0	54.0	54.0	54.0	54.0	-	54	20
하남시	93.0	93.0	93.0	93.0	93.0	-	93.05	14
용인시	388.3	388.3	388.3	388.3	388.3	▲0.02	388.29	1
파주시	80.2	80.2	80.2	80.9	81.3	▲1.12	80.58	18
이천시	82.3	82.3	82.3	82.3	82.2	▽0.06	82.27	15
안성시	155.9	155.9	155.9	155.9	156.2	▲0.31	155.98	6
김포시	101.9	101.9	101.9	101.9	101.9	-	101.94	13
화성시	316.6	317.2	317.2	317.6	317.8	▲1.21	317.27	2
광주시	172.3	172.3	172.3	172.3	172.3	-	172.26	5
양주시	150.1	150.4	150.5	150.5	150.5	▲0.36	150.37	8
포천시	38.6	38.6	39.0	39.0	39.0	▲0.40	38.86	24
여주시	25.9	25.9	26.1	26.1	26.1	▲0.16	26.03	31
연천군	29.8	29.8	30.4	30.4	30.4	▲0.60	30.21	30
가평군	81.9	81.9	81.9	81.9	81.9	-	81.89	16
양평군	51.2	51.2	51.2	51.2	51.2	-	51.2	22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3) 빈집비율

빈집비율은 전체 주택 수 가운데 빈집 수를 나타낸다. 경기도의 경우 2015년 3.9%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9년 6.4%로 대략 2.5%p 증가하였다. 성남시는 2015년 2.6%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9년 2.4%로 0.2%p 감소하였다. 성남시 지역으로 살펴보면 수정구는 2015년 5.3%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9년 3.4%로 1.9%p 감소하였고, 중원구는 2015년 2.6%에서 2019년 1.9%로 0.7%p 감소하였다. 반면 분당구의 경우 2015년 1.6%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9년 2.1%로 대략 0.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의 빈집비율 평균이 높은 지역으로는 평택시(14%)와 가평군(14%), 양평군(10.4%), 여주시(9.3%)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II-39. 빈집비율(2015~2019)

(단위: %, %p)

행정 구역별	2015 (A)	2016	2017	2018	2019 (B)	증감 (B-A)	2015~2019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3.9	4.4	4.9	6.0	6.4	▲2.5	5.2	
수원시	2.6	2.9	3.7	4.9	4.6	▲2.0	3.8	22
성남시	전체	2.6	2.7	3.6	2.7	▽0.2	2.8	28
	(수정구)	(5.3)	(5.3)	(4.6)	(5.0)	(▽1.9)	(4.8)	-
	(중원구)	(2.6)	(2.5)	(6.5)	(2.4)	(▽0.7)	(3.2)	-
	(분당구)	(1.6)	(1.8)	(1.9)	(1.9)	(▲0.5)	(1.9)	-
의정부시	2.9	4.0	5.7	4.9	5.2	▲2.3	4.6	17
안양시	1.9	2.9	4.0	3.4	3.6	▲1.7	3.2	25
부천시	3.2	4.2	3.9	4.3	4.7	▲1.5	4.1	19
광명시	1.5	1.7	2.0	2.8	3.9	▲2.4	2.4	29
평택시	11.0	11.5	13.1	16.0	18.2	▲7.2	14.0	1
동두천시	8.1	7.7	7.9	9.0	10.5	▲2.4	8.7	5
안산시	5.0	6.1	5.6	6.6	6.8	▲1.8	6.1	12

행정 구역별	2015 (A)	2016	2017	2018	2019 (B)	증감 (B-A)	2015~2019 평균	순위
고양시	2.3	3.0	2.9	3.9	4.4	▲2.1	3.3	24
과천시	1.1	3.0	0.2	1.6	0.6	▽0.5	1.3	31
구리시	0.5	1.7	2.1	2.4	2.2	▲1.7	1.8	30
남양주시	3.9	2.9	3.1	4.5	5.2	▲1.3	4.0	20
오산시	4.0	4.8	5.2	7.8	9.0	▲5.0	6.2	11
시흥시	2.8	3.9	4.9	6.2	7.4	▲4.6	5.1	15
군포시	1.8	2.3	2.7	3.4	4.6	▲2.8	3.0	26
의왕시	2.5	2.9	2.3	2.7	4.5	▲2.0	3.0	26
하남시	11.6	5.5	2.9	5.0	3.0	▽8.6	5.6	13
용인시	3.1	3.9	4.3	5.2	5.1	▲2.0	4.4	18
파주시	3.5	3.8	3.8	6.6	6.3	▲2.8	4.8	16
이천시	5.9	7.4	8.4	7.8	9.4	▲3.5	7.8	7
안성시	5.4	6.6	6.7	11.3	12.9	▲7.5	8.6	6
김포시	2.0	3.3	3.6	5.3	4.1	▲2.1	3.7	23
화성시	7.8	6.0	6.9	8.6	9.7	▲1.9	7.8	7
광주시	4.5	6.2	8.3	9.1	8.1	▲3.6	7.3	9
양주시	2.7	3.6	6.7	7.1	6.7	▲4.0	5.4	14
포천시	4.4	5.9	5.8	7.5	8.4	▲4.0	6.4	10
여주시	7.3	7.9	10.1	10.6	10.6	▲3.3	9.3	4
연천군	4.0	5.7	2.8	2.7	4.0	-	3.9	21
가평군	13.0	12.9	13.2	14.6	16.1	▲3.1	14.0	1
양평군	9.1	10.5	9.8	10.7	11.9	▲2.8	10.4	3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4) 1인당 자동차 등록 대 수

1인당 자동차 등록 대 수는 통계시점에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고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대수를 나타낸 것으로 자동차는 비교적 고가품으로 대표적인 내구재이기 때문에 경기상황에 민감하므로 자동차 등록 대 수의 추이는 경기상황을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경기도의 1인당 자동차 등록 대 수는 2016년 0.4대

에서 2020년 0.4대로 유지되었다. 성남시의 1인당 자동차 등록 대 수는 2016년 0.3대에서 2017년 0.4대로 증가하였으며 그 뒤로 유지하였다. 경기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평균이 높은 지역으로는 연천군이 0.64대로 가장 높았으며, 포천시와 여주시가 0.6대, 안성시가 0.54대, 이천시가 0.5대로 확인되었다.

표 II-40. 1인당 자동차 등록 대 수(2016~2020)

(단위: 대)

행정 구역별	2016 (A)	2017	2018	2019	2020 (B)	증감 (B-A)	2016~2020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0.4	0.4	0.4	0.4	0.4	-	0.40	
수원시	0.4	0.4	0.4	0.4	0.4	-	0.4	17
성남시	0.3	0.4	0.4	0.4	0.4	▲0.1	0.38	26
의정부시	0.3	0.3	0.3	0.4	0.4	▲0.1	0.34	30
안양시	0.4	0.4	0.4	0.4	0.4	-	0.4	17
부천시	0.3	0.4	0.4	0.4	0.4	▲0.1	0.38	26
광명시	0.3	0.3	0.3	0.3	0.4	▲0.1	0.32	31
평택시	0.5	0.5	0.5	0.5	0.5	-	0.5	5
동두천시	0.4	0.4	0.4	0.4	0.4	-	0.4	17
안산시	0.4	0.4	0.5	0.5	0.5	▲0.1	0.46	14
고양시	0.4	0.4	0.4	0.4	0.4	-	0.4	17
과천시	0.4	0.4	0.4	0.4	0.4	-	0.4	17
구리시	0.3	0.3	0.4	0.4	0.4	▲0.1	0.36	29
남양주시	0.4	0.4	0.4	0.4	0.4	-	0.4	17
오산시	0.4	0.4	0.5	0.5	0.5	▲0.1	0.46	14
시흥시	0.5	0.5	0.5	0.5	0.5	-	0.5	5
군포시	0.3	0.4	0.4	0.4	0.4	▲0.1	0.38	26
의왕시	0.4	0.4	0.4	0.4	0.4	-	0.4	17
하남시	0.4	0.4	0.4	0.4	0.4	-	0.4	17
용인시	0.4	0.4	0.4	0.4	0.4	-	0.4	17
파주시	0.4	0.5	0.5	0.5	0.5	▲0.1	0.48	12

행정 구역별	2016 (A)	2017	2018	2019	2020 (B)	증감 (B-A)	2016~2020 평균	순위
이천시	0.5	0.5	0.5	0.5	0.5	-	0.5	5
안성시	0.5	0.5	0.5	0.6	0.6	▲0.1	0.54	4
김포시	0.4	0.5	0.5	0.5	0.5	▲0.1	0.48	12
화성시	0.5	0.5	0.5	0.5	0.5	-	0.5	5
광주시	0.5	0.5	0.5	0.5	0.5	-	0.5	5
양주시	0.4	0.4	0.5	0.5	0.5	▲0.1	0.46	14
포천시	0.6	0.6	0.6	0.6	0.6	-	0.6	2
여주시	0.6	0.6	0.6	0.6	0.6	-	0.6	2
연천군	0.6	0.6	0.6	0.7	0.7	▲0.1	0.64	1
가평군	0.5	0.5	0.5	0.5	0.5	-	0.5	5
양평군	0.5	0.5	0.5	0.5	0.5	-	0.5	5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5)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주택매매가격을 조사시점의 가격비를 이용하여 기준시점이 100인 수치로 환산한 값으로 주택시장의 동향파악, 주택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본 분석에서는 월별 데이터를 연도별 평균화하여 제시하였다.³⁾ 경기도의 주택매매가격지수는 2016년 97.9에서 차츰 증가하여 2020년 106.8로 2016년 대비 9.1% 증가하였다. 성남시의 주택매매가격지수는 2016년 95.4%에서 계속해서 증가하여 2020년 113.7%로 2016년 대비 19.2% 증가하였다. 경기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주택매매가격지수 평균이 높은 지역은 과천시(107.39%), 구리시(107%), 광명시(105.63%), 하남시(105.08%), 용인시(104.17%), 성남시(104.11%)로 나타났다.

3) 다만 본 분석에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은 데이터 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

표 II-41. 주택매매가격지수(2016~2020)

(단위: 지수)

행정 구역별	2016 (A)	2017	2018	2019	2020 (B)	증감률	2016~2020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97.9	99.1	100.9	101.2	106.8	▲9.1%	101.19	
수원시	98.3	99.4	101.0	102.3	115.3	▲17.3%	103.25	7
성남시	95.4	97.6	106.1	107.8	113.7	▲19.2%	104.11	6
의정부시	97.4	99.0	100.4	100.8	102.9	▲5.7%	100.09	15
안양시	97.3	98.6	102.6	103.8	112.4	▲15.6%	102.94	8
부천시	97.7	98.8	101.5	103.6	109.3	▲11.9%	102.18	10
광명시	95.5	98.5	104.1	108.7	121.4	▲27.1%	105.63	3
평택시	99.2	99.7	97.8	93.3	93.0	▽6.2%	96.61	28
동두천시	98.0	99.3	99.8	98.8	97.7	▽0.3%	98.74	25
안산시	99.1	99.6	98.5	95.9	101.0	▲1.9%	98.83	22
고양시	96.7	98.9	99.7	99.2	102.4	▲5.8%	99.38	18
과천시	97.7	99.4	107.1	112.2	120.6	▲23.5%	107.39	1
구리시	97.8	99.1	103.2	109.8	125.1	▲27.9%	107	2
남양주시	98.1	99.4	99.9	100.1	105.0	▲7.0%	100.51	13
오산시	99.5	100.0	97.3	94.4	98.4	▽1.2%	97.91	26
시흥시	97.9	98.9	99.6	97.9	102.5	▲4.7%	99.38	18
군포시	98.2	99.3	100.0	98.4	108.0	▲10.0%	100.79	12
의왕시	97.6	99.0	102.4	102.5	110.8	▲13.5%	102.46	9
하남시	98.2	99.0	104.6	106.3	117.3	▲19.5%	105.08	4
용인시	99.8	100.0	102.0	104.4	114.6	▲14.8%	104.17	5
파주시	97.7	98.9	100.1	98.5	98.8	▲1.2%	98.79	23
이천시	98.7	99.9	100.3	99.1	98.6	▽0.1%	99.32	20
안성시	100.1	100.1	98.1	95.2	94.2	▽5.9%	97.53	27
김포시	97.0	98.4	100.8	101.3	104.3	▲7.5%	100.36	14
화성시	98.3	99.7	100.5	100.6	108.4	▲10.3%	101.49	11
광주시	98.7	99.7	99.7	99.5	100.7	▲2.0%	99.65	17
양주시	97.7	99.3	100.1	98.7	99.0	▲1.3%	98.97	21
포천시	98.1	99.2	99.6	98.8	98.1	▲0.0%	98.77	24
여주시	98.5	99.6	100.9	100.7	100.4	▲2.0%	100.03	16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6) 지가변동률

지가변동률은 기준시점 대비 해당시점의 지가지수의 상승분을 나타낸다. 본 분석에서는 월별 지가변동률을 연도별 평균화하여 제시하였다. 경기도의 지가변동률은 2016년 0.184%에서 계속해서 상승하여 2020년 0.326%로 증가하였다. 성남시 또한 2016년 0.206%에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2020년 0.365%로 나타났다. 성남시 지역으로 살펴보면 수정구의 경우 2016년 0.22%에서 2020년 0.5%로 상승하였고, 중원구는 2016년 0.19%에서 증가하여 2020년 0.45%, 분당구는 2016년 0.2%에서 증가하여 2020년 0.29%로 나타났다. 경기도 전체 시군 가운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지가변동률 평균값이 높은 지역은 평택시(0.428%), 하남시(0.42%), 과천시(0.38%), 광명시(0.359%), 남양주시(0.354%)로 나타났다.

표 II-42. 지가변동률(2016~2020)

(단위: %)

행정 구역별	2016 (A)	2017	2018	2019	2020 (B)	증감 (B-A)	2016~2020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0.184	0.283	0.361	0.351	0.326	▲0.14	0.301		
수원시	0.152	0.252	0.287	0.325	0.334	▲0.18	0.270	19	
성남시	전체	0.206	0.278	0.459	0.410	0.365	▲0.16	0.344	6
	(수정구)	(0.222)	(0.382)	(0.522)	(0.490)	(0.505)	▲0.28	(0.424)	-
	(중원구)	(0.198)	(0.230)	(0.360)	(0.400)	(0.450)	▲0.25	(0.328)	-
	(분당구)	(0.201)	(0.249)	(0.458)	(0.382)	(0.291)	▲0.09	(0.317)	-
의정부시	0.152	0.201	0.263	0.267	0.337	▲0.19	0.244	23	
안양시	0.218	0.273	0.347	0.358	0.323	▲0.10	0.304	11	
부천시	0.108	0.278	0.294	0.358	0.337	▲0.23	0.275	17	
광명시	0.187	0.292	0.404	0.443	0.464	▲0.28	0.359	4	
평택시	0.345	0.608	0.463	0.410	0.312	▽0.03	0.428	1	
동두천시	0.105	0.137	0.196	0.217	0.192	▲0.09	0.170	31	

행정 구역별	2016 (A)	2017	2018	2019	2020 (B)	증감 (B-A)	2016~2020 평균	순위
안산시	0.191	0.253	0.220	0.303	0.301	▲0.11	0.254	21
고양시	0.186	0.297	0.425	0.341	0.307	▲0.12	0.312	9
과천시	0.158	0.269	0.454	0.512	0.504	▲0.35	0.380	3
구리시	0.195	0.268	0.466	0.340	0.363	▲0.17	0.327	8
남양주시	0.261	0.325	0.308	0.442	0.433	▲0.17	0.354	5
오산시	0.148	0.223	0.237	0.258	0.272	▲0.12	0.228	26
시흥시	0.192	0.275	0.284	0.325	0.320	▲0.13	0.280	15
군포시	0.208	0.275	0.263	0.306	0.307	▲0.10	0.272	18
의왕시	0.261	0.341	0.339	0.342	0.355	▲0.09	0.328	7
하남시	0.260	0.318	0.428	0.558	0.532	▲0.27	0.420	2
용인시	0.153	0.185	0.289	0.428	0.333	▲0.18	0.278	16
파주시	0.097	0.231	0.763	0.235	0.205	▲0.11	0.307	10
이천시	0.197	0.227	0.258	0.301	0.305	▲0.11	0.258	20
안성시	0.186	0.267	0.238	0.252	0.235	▲0.05	0.236	25
김포시	0.118	0.277	0.419	0.340	0.259	▲0.14	0.283	14
화성시	0.196	0.335	0.327	0.317	0.300	▲0.10	0.295	12
광주시	0.180	0.277	0.355	0.321	0.337	▲0.16	0.295	12
양주시	0.141	0.167	0.256	0.263	0.307	▲0.17	0.227	27
포천시	0.133	0.179	0.230	0.246	0.288	▲0.16	0.216	29
여주시	0.185	0.265	0.286	0.243	0.231	▲0.05	0.243	24
연천군	0.092	0.124	0.499	0.222	0.151	▲0.06	0.218	28
가평군	0.117	0.190	0.240	0.235	0.213	▲0.10	0.199	30
양평군	0.150	0.294	0.280	0.259	0.277	▲0.13	0.252	22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7) 성남시의 문화와 여가 행정통계

(1)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는 문화기반시설수를 인구단위(십만 명)로 환산한 것으로 이용자들의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고 국민들의 문화기본권을 신장하며, 문화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문화기반시설로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을 포함한다. 경기도의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는 2015년 3.9개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9년 4.3개로 2015년 대비 10.3% 증가하였다. 성남시는 2015년 2.2개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9년 2.7개로 2015년 대비 2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평균이 높은 지역으로는 여주시(20.3개), 과천시(19개), 가평군(17개), 양평군(16.6개)로 나타났다.

표 II-43.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2015~2019)

(단위: 개)

행정 구역별	2015 (A)	2016	2017	2018	2019 (B)	증감률	2015~2019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3.9	4.0	4.1	4.1	4.3	▲10.3%	4.1	
수원시	2.8	2.9	3.1	3.2	3.6	▲28.6%	3.2	21
성남시	2.2	2.3	2.3	2.4	2.7	▲22.7%	2.4	30
의정부시	1.4	1.4	1.4	1.8	2.0	▲42.9%	1.6	31
안양시	2.3	2.5	2.7	2.8	2.8	▲21.7%	2.7	29
부천시	2.9	2.7	3.1	3.2	3.7	▲27.6%	3.2	21
광명시	2.3	2.9	3.0	3.1	3.2	▲39.1%	2.9	26
평택시	2.6	2.5	2.7	3.0	3.1	▲19.2%	2.8	27
동두천시	4.1	5.1	6.2	6.2	7.4	▲80.5%	5.8	11
안산시	3.4	3.8	4.0	4.2	4.3	▲26.5%	4.0	16

행정 구역별	2015 (A)	2016	2017	2018	2019 (B)	증감률	2015~2019 평균	순위
고양시	3.0	3.4	3.4	3.3	3.3	▲10.0%	3.3	20
과천시	17.4	18.8	20.9	18.9	18.9	▲8.6%	19.0	2
구리시	3.2	3.1	3.0	2.9	3.0	▽6.3%	3.1	23
남양주시	3.8	3.9	4.1	4.1	3.8	-	4.0	16
오산시	5.3	5.3	5.6	5.0	5.3	-	5.3	12
시흥시	3.8	3.5	3.3	2.9	3.2	▽15.8%	3.4	19
군포시	2.8	2.8	2.8	2.9	3.3	▲17.9%	3.0	24
의왕시	5.1	5.1	5.1	5.2	5.0	▽2.0%	5.1	13
하남시	3.0	2.8	2.6	2.8	2.6	▽13.3%	2.8	27
용인시	3.8	4.0	4.2	4.1	4.2	▲10.5%	4.1	15
파주시	7.8	7.4	8.2	8.4	8.8	▲12.8%	8.2	7
이천시	6.3	5.7	5.6	6.1	5.6	▽11.1%	5.9	10
안성시	6.1	6.0	6.0	6.0	6.0	▽1.6%	6.1	9
김포시	2.9	3.0	2.8	2.8	3.4	▲17.2%	3.0	24
화성시	3.7	3.4	3.5	3.2	3.4	▽8.1%	3.5	18
광주시	4.5	4.6	4.3	4.1	4.0	▽11.1%	4.3	14
양주시	5.8	6.3	6.1	6.0	6.7	▲15.5%	6.2	8
포천시	8.4	8.4	9.2	9.3	9.4	▲11.9%	9.0	6
여주시	19.8	18.8	20.5	20.6	21.6	▲9.1%	20.3	1
연천군	10.9	10.9	11.0	11.2	13.7	▲25.7%	11.6	5
가평군	21.0	16.0	15.9	15.9	16.0	▽23.8%	17.0	3
양평군	17.5	17.1	16.5	16.4	15.4	▽12.0%	16.6	4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8) 성남시의 성장과 안정 행정통계

(1) 1인당 GRDP

1인당 GRDP(각 연도 당 당해 년 가격)는 경기도 시군 지역의 GRDP를 주민등록 수로 나눈 것으로 지역의 경제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경기도의 1인당 GRDP는 2015년 3천만 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7년 3천 5백만 원으로 2015년 대비 2017년 15% 증가하였다. 성남시의 경우 2015년 3천 8백만 원 가량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7년 4천 2백만 원 수준으로 2015년 대비 대략 9.2%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전체 2015년~2017년 간 평균 1인당 GRDP가 높은 지역으로는 화성시가 8천 6백만 원 가량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천시가 7천 4백만 원, 과천시가 7천 3백만 원, 평택시가 5천 7백만 원, 안성시 4천 5백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의 경우 2015년~2017년 간 평균 1인당 GRDP는 4천만 원 가량으로 상위권으로 파악되었다.

표 II-44. 인구 1인당 GRDP(2015~2017)

(단위: 백만 원)

행정 구역별	2015 (A)	2016	2017 (B)	증감률	2015~2017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30.50	32.04	35.07	▲15.0%	32.54	
수원시	26.14	26.63	28.23	▲8.0%	27.00	17
성남시	38.80	40.59	42.36	▲9.2%	40.58	8
의정부시	12.81	14.18	15.69	▲22.5%	14.23	30
안양시	25.97	27.19	29.39	▲13.2%	27.52	16
부천시	18.65	19.40	19.94	▲6.9%	19.33	25
광명시	20.33	21.70	22.75	▲11.9%	21.59	23
평택시	53.28	56.29	64.11	▲20.3%	57.89	4
동두천시	19.09	19.42	19.43	▲1.8%	19.31	26
안산시	33.97	35.33	38.95	▲14.6%	36.08	10

행정 구역별	2015 (A)	2016	2017 (B)	증감률	2015~2017 평균	순위
고양시	16.63	17.84	19.31	▲16.2%	17.93	27
과천시	63.51	74.21	81.73	▲28.7%	73.15	3
구리시	16.22	16.80	17.45	▲7.6%	16.83	28
남양주시	12.86	14.09	15.26	▲18.7%	14.07	31
오산시	21.64	23.42	25.33	▲17.1%	23.46	22
시흥시	34.94	37.06	37.99	▲8.7%	36.66	9
군포시	21.18	23.47	25.81	▲21.9%	23.49	21
의왕시	19.32	19.00	22.39	▲15.9%	20.24	24
하남시	28.96	24.53	24.10	▽16.8%	25.86	19
용인시	29.38	31.07	33.29	▲13.3%	31.25	12
파주시	42.47	44.07	47.89	▲12.8%	44.81	6
이천시	70.36	69.08	84.84	▲20.6%	74.76	2
안성시	43.14	44.34	48.65	▲12.8%	45.38	5
김포시	29.40	31.42	31.30	▲6.5%	30.71	13
화성시	79.70	82.59	98.52	▲23.6%	86.94	1
광주시	25.09	27.35	27.16	▲8.3%	26.53	18
양주시	27.04	29.08	29.51	▲9.1%	28.54	14
포천시	39.72	41.63	43.49	▲9.5%	41.62	7
여주시	30.51	32.25	31.77	▲4.1%	31.51	11
연천군	28.72	28.01	28.87	▲0.5%	28.53	15
가평군	24.10	25.65	26.97	▲11.9%	25.57	20
양평군	14.82	15.97	15.97	▲7.7%	15.59	29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 가구 수

가구 수는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의 수를 의미한다. 경기도의 가구 수는 2015년 4,537,581개 가구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9년 5,097,857개 가구로 2015년 대비 약 12.3%가 증가하였다. 성남시의 가구 수는 2015년 365,646개 가구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9년 371,437개 가구로 2015년 대비 대략 1.6% 증가하였다. 성남시 지역으로 살펴보면 수정구는 2015년 96,380개 가구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9년 105,491개 가구로 많아졌으며, 중원구는 2015년 96,362개 가구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9년 90,746개 가구로 줄어들었다. 분당구의 가구수는 2015년 172,904개 가구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9년 175,200개 가구로 나타났다. 경기도 전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평균 가구 수가 높은 지역으로는 수원시가 463,360개 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고양시가 371,513개 가구, 성남시가 368,957개 가구, 용인시가 351,195개 가구로 확인되었다.

표 II-45. 가구 수(2015~2019)

(단위: 만가구)

행정 구역별	2015 (A)	2016	2017	2018	2019 (B)	증감률	2015~2019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453.8	464.7	477.4	493.4	509.8	▲12.3%	479.9	-
수원시	44.5	45.5	46.5	47.2	47.9	▲7.7%	46.4	1
성남시	전체	36.6	36.9	36.9	37.1	▲1.6%	36.9	3
	(수정구)	(9.6)	(10.1)	(10.3)	(10.5)	▲9.5%	(10.2)	-
	(중원구)	(9.6)	(9.4)	(9.1)	(9.1)	▽5.8%	(9.3)	-
	(분당구)	(17.3)	(17.4)	(17.6)	(17.5)	▲1.3%	(17.5)	-
의정부시	15.6	15.9	16.2	16.6	17.2	▲10.3%	16.4	12
안양시	20.9	21.0	21.0	20.9	21.0	▲0.3%	21.0	9
부천시	31.0	31.4	31.8	32.4	32.5	▲4.7%	31.9	5
광명시	12.1	12.0	12.0	12.1	11.9	▽1.4%	12.1	16
평택시	17.1	17.9	18.8	19.8	20.8	▲21.6%	18.9	10

행정 구역별	2015 (A)	2016	2017	2018	2019 (B)	증감률	2015~2019 평균	순위
동두천시	3.7	3.8	3.8	3.8	3.8	▲3.1%	3.8	28
안산시	28.4	28.3	28.3	28.1	28.3	▽0.3%	28.3	6
고양시	35.7	36.3	37.0	37.6	39.1	▲9.4%	37.2	2
과천시	2.3	2.1	1.9	1.9	1.9	▽16.3%	2.1	30
구리시	6.5	6.7	7.0	7.3	7.3	▲12.4%	7.0	23
남양주시	21.7	22.3	22.7	23.5	24.6	▲13.5%	23.0	8
오산시	8.1	8.2	8.4	8.9	9.3	▲15.5%	8.6	18
시흥시	15.9	16.1	17.0	18.4	19.9	▲24.8%	17.5	11
군포시	10.2	10.2	10.2	10.3	10.5	▲3.0%	10.3	17
의왕시	5.4	5.4	5.4	5.4	5.8	▲6.7%	5.5	25
하남시	5.6	7.2	8.1	9.1	10.2	▲81.1%	8.1	19
용인시	33.1	33.7	34.6	36.3	37.9	▲14.6%	35.2	4
파주시	14.6	15.0	15.4	16.3	16.8	▲15.2%	15.6	13
이천시	7.4	7.6	7.9	8.1	8.3	▲12.6%	7.9	20
안성시	7.2	7.4	7.6	7.7	7.9	▲10.3%	7.6	22
김포시	12.3	12.9	14.0	15.4	16.3	▲31.9%	14.3	14
화성시	21.2	23.2	25.5	28.4	31.3	▲47.5%	26.0	7
광주시	11.2	11.7	12.5	13.5	14.1	▲26.4%	12.7	15
양주시	7.3	7.3	7.7	8.0	8.4	▲15.6%	7.8	21
포천시	6.0	6.1	6.1	6.2	6.2	▲3.5%	6.2	24
여주시	4.1	4.2	4.3	4.3	4.4	▲7.3%	4.3	27
연천군	1.8	1.8	1.8	1.8	1.8	▲1.1%	1.9	31
가평군	2.3	2.4	2.5	2.5	2.5	▲8.8%	2.5	29
양평군	4.0	4.2	4.4	4.6	4.7	▲15.8%	4.4	26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3) 인구 천 명당 사업체 수

인구 천 명당 사업체 수는 하나의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에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체를 주민등록인구 단위인구(천 명) 당 사업체의 수로 환산한 것으로 지역별 경제환경 및 규모를 비교하고 파악할 수 있다. 경기도의 인구 천 명당 사업체

수는 2017년 68.2개에서 증가하여 2019년 70.6개로 2017년 기준 3.5% 증가하였다. 성남시의 인구 천 명당 사업체 수는 2017년 66.3개에서 2019년 70.4개로 대략 6.2% 증가하였다. 경기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2017~2019년 간 인구 천 명당 사업체 수 평균이 높은 지역으로는 포천시(122.7개), 가평군(107.5개), 시흥시(93개), 연천군(83.4개)으로 나타났다.

표 II-46. 인구 천 명당 사업체 수(2017~2019)

(단위: 개)

행정 구역별	2017 (A)	2018	2019 (B)	증감률	2017~2019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68.2	69.5	70.6	▲3.5%	69.5	
수원시	59.8	61.1	62.0	▲3.7%	61.0	24
성남시	66.3	68.6	70.4	▲6.2%	68.5	18
의정부시	59.6	60.5	59.0	▽1.0%	59.7	26
안양시	76.2	77.7	80.0	▲5.0%	78.0	10
부천시	70.7	71.6	73.7	▲4.2%	72.0	16
광명시	57.4	58.1	58.7	▲2.3%	58.1	28
평택시	72.1	72.9	73.2	▲1.5%	72.8	14
동두천시	65.8	68.3	70.3	▲6.8%	68.2	19
안산시	78.8	82.1	83.3	▲5.7%	81.4	8
고양시	63.9	66.3	65.4	▲2.3%	65.2	21
과천시	63.1	63.2	63.4	▲0.5%	63.3	23
구리시	71.0	72.0	74.4	▲4.8%	72.5	15
남양주시	55.5	55.8	55.9	▲0.7%	55.8	30
오산시	57.9	59.3	58.2	▲0.5%	58.5	27
시흥시	94.9	92.4	91.5	▽3.6%	93.0	3
군포시	61.5	64.0	65.2	▲6.0%	63.6	22
의왕시	55.2	58.2	57.1	▲3.4%	56.9	29
하남시	59.6	60.2	60.9	▲2.2%	60.3	25
용인시	49.4	50.9	52.7	▲6.7%	51.0	31
파주시	65.2	67.2	71.3	▲9.4%	67.9	20

행정 구역별	2017 (A)	2018	2019 (B)	증감률	2017~2019 평균	순위
이천시	76.2	78.2	77.8	▲2.1%	77.4	11
안성시	79.0	81.6	86.6	▲9.6%	82.4	6
김포시	73.4	74.2	78.4	▲6.8%	75.4	13
화성시	84.2	82.4	81.9	▽2.7%	82.9	5
광주시	76.9	75.4	75.7	▽1.6%	76.0	12
양주시	79.9	80.9	83.7	▲4.8%	81.5	7
포천시	117.7	122.3	128.0	▲8.8%	122.7	1
여주시	77.5	81.4	83.6	▲7.9%	80.9	9
연천군	80.5	82.0	87.6	▲8.8%	83.4	4
가평군	102.9	108.4	111.1	▲8.0%	107.5	2
양평군	68.2	69.6	71.5	▲4.8%	69.8	17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4) 인구 천 명당 서비스업사업체 수

서비스업사업체 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수를 주민등록인구수로 천 명당으로 환산한 것으로 지역별 서비스업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할 수 있다. 경기도의 인구 천 명당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2017년 46.36개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9년 48.19개로 2017년 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의 인구 천 명당 서비스업사업체 수는 2017년 50.88개에서 2019년 53.86개로 대략 5.9% 증가하였다. 경기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2017~2019년 3년간 인구 천 명당 서비스업사업체 수가 높은 지역으로는 가평군(87.46개), 포천시(65.86개), 연천군(57.67개), 안양시(56.89개), 여주시(55.5개), 구리시(54.36개)로 나타났다.

표 II-47. 인구 천 명당 서비스업 사업체 수(2017~2019)

(단위: 개수)

행정 구역별	2017 (A)	2018	2019 (B)	증감률	2017~2019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46.36	47.24	48.19	▲3.9%	47.26	
수원시	45.53	46.46	47.25	▲3.8%	46.41	19
성남시	50.88	52.71	53.86	▲5.9%	52.48	10
의정부시	45.80	45.88	45.50	▽0.7%	45.73	21
안양시	55.46	57.01	58.18	▲4.9%	56.89	4
부천시	46.12	47.32	49.08	▲6.4%	47.51	18
광명시	40.72	41.28	41.71	▲2.4%	41.24	27
평택시	51.91	52.71	52.43	▲1.0%	52.35	11
동두천시	47.95	49.47	50.78	▲5.9%	49.40	15
안산시	50.32	52.19	53.25	▲5.8%	51.92	13
고양시	47.41	48.75	48.32	▲1.9%	48.16	16
과천시	50.52	50.72	51.38	▲1.7%	50.87	14
구리시	53.16	54.18	55.72	▲4.8%	54.36	6
남양주시	37.03	37.63	39.10	▲5.6%	37.92	29
오산시	41.56	41.97	41.08	▽1.1%	41.54	26
시흥시	52.60	51.97	52.37	▽0.4%	52.31	12
군포시	40.00	41.25	41.65	▲4.1%	40.97	28
의왕시	36.15	37.40	36.44	▲0.8%	36.66	31
하남시	43.28	43.81	45.55	▲5.3%	44.22	22
용인시	36.44	37.44	38.78	▲6.4%	37.55	30
파주시	42.20	43.25	45.87	▲8.7%	43.77	23
이천시	52.15	53.25	53.70	▲3.0%	53.03	8
안성시	50.76	52.42	54.69	▲7.8%	52.63	9
김포시	41.11	42.45	45.90	▲11.6%	43.15	25
화성시	46.37	45.45	46.31	▽0.1%	46.04	20
광주시	43.56	43.01	43.83	▲0.6%	43.47	24
양주시	46.34	47.27	50.13	▲8.2%	47.91	17
포천시	63.16	65.84	68.57	▲8.6%	65.86	2

행정 구역별	2017 (A)	2018	2019 (B)	증감률	2017~2019 평균	순위
여주시	53.69	55.86	56.94	▲6.1%	55.50	5
연천군	56.15	57.02	59.85	▲6.6%	57.67	3
가평군	83.72	88.32	90.33	▲7.9%	87.46	1
양평군	52.26	53.03	54.37	▲4.1%	53.22	7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5)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의 세입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조성을 위한 재정지원으로서 지방재정의 발전적 운영 등에 활용된다. 본 분석에서 재정자립도는 2015년부터 세입개편후로 적용하였으며,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2017년 61.3%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1년 57.3%로 감소하였다.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2017년 58.7%에서 2021년 58.5%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전체 시군 가운데 2017~2021년까지 가운데 59%로 최상위 수준으로 확인된다. 그 밖에 높은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내는 지역으로는 화성시(63.6%), 용인시(53.1%), 수원시(48%)로 나타났다.

표 II-48. 재정자립도(2017~2021)

(단위: %)

행정 구역별	2017 (A)	2018	2019	2020	2021 (B)	증감률	2017~2021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61.3	61.9	60.5	58.6	57.3	▽6.5%	60.0	
수원시	51.9	49.3	48.1	45.9	44.8	▽13.7%	48.0	4
성남시	58.7	59.2	58.1	60.5	58.5	▽0.3%	59.0	2
의정부시	30.6	28.3	26.6	25.0	22.9	▽25.2%	26.7	25
안양시	45.2	40.7	39.4	37.8	37.4	▽17.3%	40.1	10
부천시	38.6	37.1	34.4	30.9	32.5	▽15.8%	34.7	17
광명시	40.0	35.7	35.0	34.0	33.6	▽16.0%	35.7	16
평택시	42.1	45.6	45.9	41.5	41.1	▽2.4%	43.3	8
동두천시	13.5	14.2	12.7	14.4	14.4	▲6.7%	13.9	31
안산시	44.6	39.5	40.2	37.8	36.9	▽17.3%	39.8	11
고양시	46.1	42.1	38.7	33.8	34.7	▽24.7%	39.1	12
과천시	43.4	39.5	43.1	40.8	28.7	▽33.9%	39.1	12
구리시	34.8	34.5	31.4	31.1	33.9	▽2.6%	33.2	20
남양주시	35.4	32.0	32.8	30.1	29.6	▽16.4%	32.0	21
오산시	37.7	33.1	29.6	30.4	28.3	▽24.9%	31.9	22
시흥시	54.6	43.7	43.4	43.1	40.2	▽26.4%	45.0	7
군포시	37.5	36.3	34.1	32.0	32.4	▽13.6%	34.5	18
의왕시	41.5	40.5	37.3	36.2	32.5	▽21.7%	37.6	15
하남시	45.6	44.1	43.5	45.7	47.3	▲3.7%	45.3	6
용인시	58.1	55.5	53.0	50.2	48.7	▽16.2%	53.1	3
파주시	38.3	34.9	31.5	33.5	32.1	▽16.2%	34.1	19
이천시	43.8	51.4	55.6	43.9	38.5	▽12.1%	46.7	5
안성시	34.2	32.0	32.5	27.6	28.4	▽17.0%	31.0	23
김포시	44.8	40.4	37.7	35.4	34.0	▽24.1%	38.5	14
화성시	64.3	60.1	68.9	66.3	58.4	▽9.2%	63.6	1
광주시	51.6	43.6	41.0	39.9	39.6	▽23.3%	43.2	9
양주시	33.2	33.0	28.7	26.8	25.5	▽23.2%	29.5	24
포천시	31.8	27.3	26.8	22.1	24.2	▽23.9%	26.5	26
여주시	31.1	28.9	23.7	23.9	23.1	▽25.7%	26.2	27
연천군	20.1	17.9	16.4	18.3	18.6	▽7.5%	18.3	30
가평군	18.8	19.7	18.3	18.0	18.5	▽1.6%	18.7	29
양평군	22.4	20.0	17.7	18.3	17.7	▽21.0%	19.3	28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6)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자치단체가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등을 지표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자치단체의 재원 활용능력을 나타낸다. 앞서 재정자립도와 같이 세입개편후로 적용하였다. 경기도의 재정자주도는 2017년 69.6%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2021년 67.2%로 조금 하락하였다. 성남시의 재정자주도는 2017년 71.8%에서 감소하여 2021년 67.9%로 2017년 대비 5.4% 가량 감소하였다. 경기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2017~2021년 5년 간 높은 재정자주도를 지닌 지역으로는 화성시(72.9%), 성남시(69.3%), 포천시(67.4%), 과천시(66.9%)로 나타났다.

표 II-49. 재정자주도(2017~2021)

(단위: %)

행정 구역별	2017 (A)	2018	2019	2020	2021 (B)	증감률	2017~2021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69.6	70.8	69.4	69.3	67.2	▽3.4%	69.3	
수원시	62.8	59.5	56.2	56.1	54.9	▽12.6%	57.9	23
성남시	71.8	71.6	66.0	68.9	67.9	▽5.4%	69.3	2
의정부시	55.0	55.9	54.3	54.4	49.2	▽10.5%	53.8	29
안양시	65.0	62.0	60.3	58.6	56.7	▽12.8%	60.6	18
부천시	60.3	59.2	56.5	52.0	53.9	▽10.6%	56.4	26
광명시	63.3	58.8	57.9	59.3	58.4	▽7.7%	59.6	20
평택시	61.3	64.4	64.1	59.8	58.4	▽4.7%	61.6	15
동두천시	49.1	51.1	49.5	56.9	57.3	▲16.7%	52.8	31
안산시	54.4	53.1	53.1	53.0	53.7	▽1.3%	53.5	30
고양시	58.0	57.6	56.4	59.3	56.5	▽2.6%	57.6	24
과천시	72.4	76.4	71.2	69.4	44.8	▽38.1%	66.9	4

행정 구역별	2017 (A)	2018	2019	2020	2021 (B)	증감률	2017~2021 평균	순위
구리시	65.3	62.8	59.2	60.3	59.5	▽8.9%	61.5	17
남양주시	58.6	58.4	58.8	59.5	56.7	▽3.2%	58.4	22
오산시	57.8	55.6	55.5	55.0	52.5	▽9.2%	55.3	27
시흥시	71.0	63.1	61.9	60.4	57.3	▽19.3%	62.8	12
군포시	61.5	59.3	57.4	58.7	58.7	▽4.6%	59.2	21
의왕시	64.9	62.1	59.5	63.1	58.2	▽10.3%	61.6	15
하남시	64.9	57.0	53.5	61.1	61.7	▽4.9%	59.7	19
용인시	70.1	66.4	62.3	60.2	59.4	▽15.3%	63.7	11
파주시	60.0	54.2	50.1	54.9	56.2	▽6.3%	55.1	28
이천시	64.9	70.8	72.2	64.3	57.4	▽11.6%	66.0	6
안성시	65.5	65.3	65.0	66.9	64.3	▽1.8%	65.4	8
김포시	59.9	58.0	56.4	58.3	55.1	▽8.0%	57.6	24
화성시	74.3	73.3	74.7	74.8	67.4	▽9.3%	72.9	1
광주시	66.9	61.9	59.3	64.1	61.6	▽7.9%	62.8	12
양주시	66.1	65.2	63.3	59.5	56.7	▽14.2%	62.2	14
포천시	70.1	65.5	64.1	68.8	68.1	▽2.9%	67.4	3
여주시	65.5	63.7	64.5	66.2	67.6	▲3.2%	65.5	7
연천군	67.7	65.1	65.1	67.6	66.6	▽1.6%	66.5	5
가평군	61.0	64.4	64.7	68.9	66.5	▲9.0%	65.1	10
양평군	65.8	66.1	63.3	67.3	64.4	▽2.1%	65.4	9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7) 인구 천 명당 제조업사업체 수

인구 천 명당 제조업사업체 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수를 주민등록인구수의 인구 천 명당으로 환산한 것으로 지역별 제조업 사업체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다. 경기도의 인구 천 명당 제조업사업체 수는 2017년 10.12개에서 살짝 감소하여 2019년 10.07로 나타났다. 성남시의 인구 천 명당 제조업사업체 수는 2017년 4.39개에서 살짝 증가하여 2019년 4.42로 나타났다. 경기도 전체 시군 가운데 2017~2019년 동안 높은 인구 천 명당 제조업사업체

수를 지나는 지역으로는 포천시(39.92개), 시흥시(27.13개), 화성시(25.16개), 김포시(22.14)로 나타났다.

표 II-50. 인구 천 명당 제조 사업체 수(2017~2019)

(단위: 개수)

행정 구역별	2017 (A)	2018	2019 (B)	증감률	2017~2019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10.12	10.15	10.07	▽0.5%	10.11	
수원시	3.24	3.24	3.23	▽0.4%	3.24	29
성남시	4.39	4.36	4.42	▲0.6%	4.39	24
의정부시	3.06	3.00	2.86	▽6.5%	2.97	30
안양시	6.81	6.74	6.84	▲0.4%	6.80	18
부천시	12.53	12.45	12.32	▽1.7%	12.43	10
광명시	5.39	5.37	5.31	▽1.5%	5.36	21
평택시	7.63	7.70	7.50	▽1.7%	7.61	16
동두천시	5.23	5.26	5.32	▲1.6%	5.27	23
안산시	13.67	14.27	13.99	▲2.3%	13.98	8
고양시	5.52	5.61	5.52	▲0.1%	5.55	20
과천시	1.49	1.36	1.30	▽12.8%	1.39	31
구리시	4.19	4.02	3.95	▽5.7%	4.05	26
남양주시	8.51	8.36	8.08	▽5.0%	8.32	15
오산시	4.04	4.22	3.88	▽3.9%	4.05	27
시흥시	28.90	27.18	25.31	▽12.4%	27.13	2
군포시	10.95	11.29	11.01	▲0.6%	11.08	11
의왕시	6.97	7.24	6.79	▽2.5%	7.00	17
하남시	6.18	5.78	5.75	▽6.9%	5.90	19
용인시	4.05	4.18	4.23	▲4.5%	4.15	25
파주시	12.69	12.86	13.38	▲5.5%	12.98	9
이천시	8.86	9.09	9.06	▲2.3%	9.00	13
안성시	13.86	14.58	15.30	▲10.4%	14.58	7
김포시	22.36	21.96	22.11	▽1.1%	22.14	4
화성시	26.37	25.13	23.97	▽9.1%	25.16	3

행정 구역별	2017 (A)	2018	2019 (B)	증감률	2017~2019 평균	순위
광주시	19.04	18.11	17.29	▽9.2%	18.15	6
양주시	19.92	19.71	19.43	▽2.5%	19.69	5
포천시	38.56	39.69	41.51	▲7.6%	39.92	1
여주시	9.89	10.18	10.40	▲5.2%	10.15	12
연천군	8.28	8.54	8.99	▲8.6%	8.60	14
가평군	5.18	5.40	5.35	▲3.4%	5.31	22
양평군	3.52	3.43	3.70	▲5.1%	3.55	28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8) 성남시의 안전 행정통계

(1) 지역안전등급현황

지역안전등급현황은 재난, 사고, 질병관리 등의 분야별로 지역의 안전등급으로 지역안전지수를 분야별로 상대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본 분석에서는 2019년 이전까지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자연재해,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7가지 등급의 평균을 구했으며, 2019년엔 제공하고 있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6가지 등급의 평균을 제시하였다. 다만, 지역안전도는 0에 가까울수록 안전한 지역으로 순위가 높을수록 0에 가까워 안전한 도시임을 의미한다. 경기도의 지역 안전등급현황은 2015년 1.6등급에서 2018년 1.9등급으로 낮아지다 2019년 1.5등급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의 지역 안전등급현황은 2015년 2.3등급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2019년 2.3등급으로 중상위권으로 확인된다. 2015년부터 2019년 동안 전체 경기도 시군을 대상으로 높은 지역 안전등급현황을 보이는 지역으로는 의왕시(1.6등급), 군포시(1.8등급), 고양시(1.9등급), 수원시(1.9등급)으로 나타났다.

표 II-51. 지역 안전등급현황(2015~2019)

(단위: 점)

행정 구역별	2015 (A)	2016	2017	2018	2019 (B)	증감 (B-A)	2015~2019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1.6	1.4	1.6	1.9	1.5	▽0.1	1.6	
수원시	2.0	1.9	1.7	2.0	1.8	▽0.2	1.9	4
성남시	2.3	2.1	2.1	2.4	2.3	▲0.0	2.3	12
의정부시	3.0	2.7	2.6	2.4	3.2	▲0.2	2.8	20
안양시	2.0	2.3	1.9	1.9	1.8	▽0.2	2.0	6
부천시	2.1	1.9	2.1	2.6	2.0	▽0.1	2.2	9
광명시	2.1	2.0	1.9	2.0	1.8	▽0.3	2.0	6
평택시	3.0	3.1	2.9	3.4	3.2	▲0.2	3.2	25
동두천시	3.4	3.4	3.0	3.1	3.7	▲0.2	3.4	26
안산시	2.6	2.9	2.7	2.4	2.5	▽0.1	2.7	17
고양시	1.9	1.6	1.7	2.1	2.0	▲0.1	1.9	4
과천시	2.6	2.3	1.9	2.4	2.0	▽0.6	2.3	12
구리시	2.6	2.4	2.4	2.4	2.2	▽0.4	2.5	16
남양주시	2.4	2.1	2.1	2.3	2.2	▽0.3	2.3	12
오산시	2.3	2.4	2.3	1.9	2.0	▽0.3	2.2	9
시흥시	2.7	2.9	2.7	2.6	2.3	▽0.4	2.7	17
군포시	1.7	1.6	1.6	1.7	2.0	▲0.3	1.8	2
의왕시	2.0	1.6	1.4	1.3	1.5	▽0.5	1.6	1
하남시	2.3	2.3	2.1	2.1	1.8	▽0.5	2.2	9
용인시	1.6	1.9	1.7	2.1	1.5	▽0.1	1.8	2
파주시	2.4	2.6	2.9	2.7	2.7	▲0.2	2.7	17
이천시	2.9	3.0	3.0	2.9	3.2	▲0.3	3.0	23
안성시	3.0	3.4	3.4	3.7	3.3	▲0.3	3.4	26
김포시	2.1	2.1	2.0	2.0	2.2	▲0.0	2.1	8
화성시	2.3	2.6	2.6	2.6	1.8	▽0.5	2.4	15
광주시	2.9	2.7	2.9	2.7	2.5	▽0.4	2.8	20
양주시	3.0	3.1	3.1	2.9	3.2	▲0.2	3.1	24
포천시	4.3	4.3	4.3	4.4	4.2	▽0.1	4.3	31
여주시	3.4	3.4	3.7	3.6	3.7	▲0.2	3.6	29
연천군	3.6	3.0	3.1	3.4	3.7	▲0.1	3.4	26
가평군	3.4	3.4	3.4	4.1	3.7	▲0.2	3.7	30
양평군	2.7	3.0	2.7	2.9	3.2	▲0.5	2.9	22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9) 성남시의 사회통합적 행정통계

(1) 건강보험적용인구현황

건강보험적용인구 현황은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의 건강보험 적용인구를 나타낸다. 경기도의 건강보험적용인구는 2015년 12,504,543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9년 13,413,979명으로 2015년 기준 대략 7.3% 증가하였다. 성남시의 건강보험적용인구는 2015년 957,908명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2019년 947,723명으로 2015년 대략 1.8% 감소하였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의 높은 건강보험적용인구를 지니는 지역으로는 수원시가 12,938,519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고양시가 12,938,518명, 용인시가 1,018,018명, 성남시가 954,690명으로 나타났다.

표 II-52. 건강보험적용인구현황(2015~2019)

(단위: 만명)

행정 구역별	2015 (A)	2016	2017	2018	2019 (B)	증감률	2015~2019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1,250.5	1,272.5	1,290.7	1,314.1	1,341.4	▲7.3%	1,293.9	
수원시	118.4	119.6	120.8	120.9	121.2	▲2.4%	120.2	1
성남시	95.8	96.6	96.1	94.8	94.1	▽1.8%	95.5	4
의정부시	42.0	42.5	42.8	43.4	43.9	▲4.6%	43.0	13
안양시	59.2	59.3	58.4	57.4	56.7	▽4.2%	58.3	9
부천시	84.3	84.7	84.8	84.4	83.7	▽0.7%	84.4	5
광명시	34.1	33.6	33.1	32.5	31.7	▽7.0%	33.0	16
평택시	45.9	47.0	48.2	49.9	52.3	▲14.0%	48.7	10
동두천시	9.4	9.4	9.3	9.2	9.1	▽2.8%	9.3	28
안산시	71.1	70.6	69.3	68.2	69.4	▽2.4%	69.8	7
고양시	101.6	102.8	103.2	103.4	106.0	▲4.3%	103.5	2
과천시	6.8	6.3	5.7	5.8	5.8	▽14.9%	6.1	29

행정 구역별	2015 (A)	2016	2017	2018	2019 (B)	증감률	2015~2019 평균	순위
구리시	18.2	18.9	19.6	19.9	19.5	▲7.1%	19.3	22
남양주시	64.5	65.4	65.8	67.4	69.6	▲7.9%	66.6	8
오산시	20.7	21.0	21.6	22.4	23.3	▲12.5%	21.9	19
시흥시	41.0	41.7	43.6	46.8	50.4	▲22.9%	44.8	11
군포시	28.7	28.5	28.2	27.7	27.8	▽2.9%	28.2	17
의왕시	15.7	15.6	15.6	15.3	16.1	▲2.4%	15.7	24
하남시	16.5	20.9	23.1	25.3	27.2	▲65.1%	22.7	18
용인시	97.9	99.4	100.9	104.0	106.8	▲9.2%	101.9	3
파주시	42.1	42.9	43.7	45.1	45.6	▲8.3%	43.9	12
이천시	20.4	21.0	21.3	21.5	21.9	▲7.0%	21.3	20
안성시	18.2	18.5	18.6	18.8	19.2	▲5.2%	18.7	23
김포시	35.9	37.3	39.8	43.6	45.3	▲26.3%	40.4	14
화성시	62.4	67.2	72.5	79.4	86.1	▲38.0%	73.6	6
광주시	31.6	33.3	35.2	37.0	38.1	▲20.5%	35.1	15
양주시	20.6	20.6	21.3	21.7	22.3	▲8.2%	21.3	20
포천시	15.9	15.9	15.7	15.5	15.4	▽2.6%	15.7	24
여주시	10.9	10.9	11.0	11.0	11.0	▲1.2%	11.0	27
연천군	4.3	4.4	4.3	4.3	4.2	▽3.2%	4.4	31
가평군	5.8	5.9	6.0	6.0	6.0	▲3.0%	6.0	30
양평군	10.5	10.8	11.2	11.3	11.5	▲9.0%	11.1	26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 등록 장애인 수

경기도의 등록 장애인 수는 2019년 559,878명, 2019년 569,726명으로 확인된다. 성남시의 등록 장애인 수는 2019년 36,051명, 2020년 36,135명으로 수정구의 등록 장애인 수는 2019년 10,995명에서 2020년 11,191명으로 1.8% 증가하였고, 중원구의 등록 장애인 수는 2019년 11,124명에서 2020년 11,047명으로 0.7% 감소하였다. 분당구의 등록 장애인 수는 2019년 13,932명에서 2020년 13,897명으로 0.3% 감소하였다. 경기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2019년과 2020

년 간 등록 장애인 수가 높은 지역으로는 수원시(42,980명), 고양시(41,418명), 부천시(37,315명), 성남시(36,093명)로 나타났다.

표 II-53. 등록 장애인 수(2019~2020)

(단위: 명)

행정 구역별		2019 (A)	2020 (B)	증감률	2019~2020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559,878	569,726	▲1.7%	564,802	
수원시		42,894	43,065	▲0.4%	42,980	1
성남시	전체	36,051	36,135	▲0.2%	36,093	4
	(수정구)	10,995	11,191	▲1.8%	11,093	-
	(중원구)	11,124	11,047	▽0.7%	11,086	-
	(분당구)	13,932	13,897	▽0.3%	13,915	-
의정부시		21,257	21,941	▲3.1%	21,599	10
안양시		21,398	21,107	▽1.4%	21,253	11
부천시		37,251	37,378	▲0.3%	37,315	3
광명시		13,627	12,928	▽5.4%	13,278	16
평택시		24,161	24,881	▲2.9%	24,521	9
동두천시		6,226	6,318	▲1.5%	6,272	28
안산시		32,611	32,918	▲0.9%	32,765	6
고양시		40,957	41,878	▲2.2%	41,418	2
과천시		1,879	1,962	▲4.2%	1,921	31
구리시		8,764	8,750	▽0.2%	8,757	24
남양주시		31,287	31,904	▲1.9%	31,596	7
오산시		8,689	8,849	▲1.8%	8,769	23
시흥시		19,905	20,924	▲4.9%	20,415	13
군포시		11,446	11,654	▲1.8%	11,550	18
의왕시		6,493	6,561	▲1.0%	6,527	27
하남시		10,560	11,111	▲5.0%	10,836	20
용인시		35,668	36,491	▲2.3%	36,080	5
파주시		20,614	21,156	▲2.6%	20,885	12
이천시		10,468	10,689	▲2.1%	10,579	21

행정 구역별	2019 (A)	2020 (B)	증감률	2019~2020 평균	순위
안성시	10,879	11,116	▲2.1%	10,998	19
김포시	17,101	17,931	▲4.6%	17,516	14
화성시	27,939	29,202	▲4.3%	28,571	8
광주시	15,989	16,542	▲3.3%	16,266	15
양주시	11,890	12,244	▲2.9%	12,067	17
포천시	10,136	10,219	▲0.8%	10,178	22
여주시	7,267	7,330	▲0.9%	7,299	26
연천군	3,428	3,438	▲0.3%	3,433	30
가평군	5,311	5,226	▽1.6%	5,269	29
양평군	7,732	7,878	▲1.9%	7,805	25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3) 인구 십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인구 십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는 단위 인구(10만 명)로 환산한 사회복지시설의 수로 사회복지 시설로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부랑인시설을 포함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경기도의 인구 십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는 2014년 14.2개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8년 16.8개로 2014년 대비 18.3% 증가하였다. 성남시의 인구 십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는 2014년 6.2개에서 증가하여 2018년 8.6개로 2014년 대비 3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2018년 5년 동안의 높은 수준의 인구 십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를 지니는 지역으로는 포천시(51.8개), 양평군(41.7개), 연천군(37.9개), 동두천시(37개), 가평군(36.9개)으로 확인된다.

표 II-54. 인구 십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2014~2018)

(단위: 개)

행정 구역별	2014 (A)	2015	2016	2017	2018 (B)	증감률	2014~2018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14.2	14.7	16.6	16.9	16.8	▲18.3%	15.9	
수원시	6.9	7.3	8.8	9.1	9.1	▲31.9%	8.3	26
성남시	6.2	6.5	8.7	8.6	8.6	▲38.7%	7.8	28
의정부시	18.6	19.8	23.0	24.2	24.2	▲30.1%	22.0	10
안양시	5.3	6.9	8.7	9.2	9.5	▲79.2%	8.0	27
부천시	13.8	14.8	17.6	17.4	16.4	▲18.8%	16.0	15
광명시	4.6	4.6	5.9	6.3	5.8	▲26.1%	5.5	30
평택시	8.5	8.3	10.2	10.4	10.3	▲21.2%	9.6	25
동두천시	32.8	32.7	38.7	40.2	40.5	▲23.5%	37.0	4
안산시	16.8	16.9	21.5	22.4	22.0	▲31.0%	20.0	13
고양시	15.0	15.7	18.2	18.5	19.0	▲26.7%	17.3	14
과천시	4.3	4.4	4.7	5.2	5.2	▲20.9%	4.8	31
구리시	8.6	8.6	10.8	12.0	12.3	▲43.0%	10.5	24
남양주시	17.3	17.9	20.2	22.2	23.0	▲32.9%	20.2	11
오산시	5.3	5.8	7.7	7.5	7.3	▲37.7%	6.8	29
시흥시	18.2	18.3	21.6	21.7	20.5	▲12.6%	20.1	12
군포시	12.5	13.9	16.1	16.7	16.6	▲32.8%	15.2	16
의왕시	9.5	10.1	13.4	14.1	13.6	▲43.2%	12.2	22
하남시	16.1	15.6	14.7	13.3	11.8	▽26.7%	14.3	18
용인시	9.6	9.3	12.7	13.2	12.9	▲34.4%	11.6	23
파주시	18.0	19.4	23.7	25.1	24.6	▲36.7%	22.2	9
이천시	13.7	11.7	16.6	16.4	16.3	▲19.0%	15.0	17
안성시	25.3	27.7	36.1	36.1	36.5	▲44.3%	32.4	7
김포시	10.6	11.4	14.3	13.8	12.8	▲20.8%	12.6	21
화성시	14.6	12.6	14.8	14.0	13.0	▽11.0%	13.8	19
광주시	11.0	10.9	15.0	14.2	13.5	▲22.7%	13.0	20
양주시	19.8	22.4	31.1	34.4	37.8	▲90.9%	29.1	8
포천시	43.6	43.8	56.9	57.5	57.1	▲31.0%	51.8	1
여주시	30.8	32.4	36.8	36.6	35.0	▲13.6%	34.4	6
연천군	37.5	30.6	41.4	41.8	38.1	▲1.6%	37.9	3
가평군	29.4	32.3	41.6	39.7	41.3	▲40.5%	36.9	5
양평군	34.2	31.4	46.7	46.0	50.0	▲46.2%	41.7	2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4) 요양기관 수

요양기관 수는 분기별 요양기관수를 1년 단위 평균으로 계산하여 제시하였다. 경기도의 요양기관 수는 2016년 18,532개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0년 20,949개로 2016년 대비 13% 가량 증가하였다. 성남시의 요양기관 수는 2016년 1,940개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0년 2,146개로 2016년 대비 10.6% 증가하였으며 경기도 전체 시군 가운데 2016~2020년 동안 평균 2,045개로 가장 많은 요양기관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으로 보면 수정구의 요양기관 수는 2020년 기준 532개, 중원구 426개, 분당구 1,189개로 분당구가 가장 많았다. 경기도 전체 시군으로 보면 성남시 다음으로 수원시가 2016~2020년 평균 2,017개로 많았으며, 고양시가 1,579개, 부천시가 1,419개로 나타났다.

표 II-55. 요양기관 수(2016~2020)

(단위: 개)

행정 구역별		2016 (A)	2017	2018	2019	2020 (B)	증감률	2016~2020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18,532	19,132	19,652	20,289	20,949	▲13.0%	19,711	
수원시		1,908	1,984	2,023	2,059	2,110	▲10.6%	2,017	2
성남시	전체	1,940	2,004	2,049	2,084	2,146	▲10.6%	2,045	1
	(수정구)	(411)	(464)	(489)	(502)	(532)	▲29.4%	(479)	-
	(중원구)	(430)	(424)	(420)	(416)	(426)	▽1.1%	(423)	-
	(분당구)	(1,098)	(1,117)	(1,140)	(1,166)	(1,189)	▲8.2%	(1,142)	-
의정부시		669	700	721	727	748	▲11.7%	713	11
안양시		1,052	1,071	1,078	1,095	1,105	▲5.0%	1,080	6
부천시		1,397	1,402	1,417	1,433	1,446	▲3.5%	1,419	4
광명시		517	513	516	524	535	▲3.4%	521	15
평택시		684	695	708	746	792	▲15.7%	725	10
동두천시		137	140	139	140	139	▲1.3%	139	28
안산시		974	990	1,001	1,013	1,036	▲6.3%	1,003	7

행정 구역별	2016 (A)	2017	2018	2019	2020 (B)	증감률	2016~2020 평균	순위
고양시	1,530	1,552	1,563	1,597	1,655	▲8.2%	1,579	3
과천시	90	91	89	91	94	▲4.7%	91	30
구리시	365	393	407	418	423	▲15.9%	401	17
남양주시	801	830	850	894	934	▲16.5%	862	9
오산시	274	284	298	313	315	▲15.3%	297	21
시흥시	494	524	560	601	645	▲30.6%	565	12
군포시	403	414	414	424	428	▲6.2%	416	16
의왕시	193	194	196	190	193	▽0.3%	193	25
하남시	240	283	330	375	404	▲68.3%	326	19
용인시	1,276	1,313	1,362	1,412	1,474	▲15.5%	1,367	5
파주시	517	540	558	573	584	▲12.9%	554	14
이천시	309	316	324	332	342	▲10.8%	325	20
안성시	259	258	264	271	277	▲6.9%	266	22
김포시	488	524	553	589	633	▲29.6%	557	13
화성시	781	830	885	982	1,051	▲34.5%	906	8
광주시	327	347	370	398	409	▲25.0%	370	18
양주시	205	212	230	250	269	▲31.4%	233	23
포천시	200	202	203	208	210	▲5.1%	204	24
여주시	175	182	187	190	192	▲9.7%	185	26
연천군	72	71	70	70	70	▽1.7%	71	31
가평군	103	106	110	115	114	▲11.5%	109	29
양평군	166	173	178	179	181	▲8.7%	175	27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5)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중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중은 사회복지분야(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와 보건분야(보건의료, 식품의약품안전)의 예산액이 전체예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부재정에서 복지와 관련된 지출의 비중이 높을수록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의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중은 2015년 34%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9년 37.2%로 2015년 대비 9.4%로 증가하였다. 성남시의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중은 2015년 40.7%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9년 42.3%로 나타났다. 경기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2015~2019년 5년 동안 평균을 기준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예산비중을 지니는 지역으로는 부천시(44.8%), 고양시(42.4%), 의정부시(42.2%), 남양주시(42%)로 나타났다.

표 II-56.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중(2015~2019)

(단위: %)

행정 구역별	2015 (A)	2016	2017	2018	2019 (B)	증감률	2015~2019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34.0	33.9	33.3	34.9	37.2	▲9.4%	34.7	
수원시	37.2	37.4	36.7	38.1	41.1	▲10.5%	38.1	9
성남시	40.7	41.9	40.6	39.4	42.3	▲3.9%	41.0	5
의정부시	33.4	46.3	44.3	45.1	41.8	▲25.1%	42.2	3
안양시	40.3	37.5	37.4	39.2	42.1	▲4.5%	39.3	8
부천시	42.2	41.5	44.7	46.9	48.4	▲14.7%	44.8	1
광명시	40.9	41.3	39.8	40.2	42.4	▲3.7%	41.0	5
평택시	29.4	30.8	27.2	30.2	31.5	▲7.1%	29.9	22
동두천시	34.9	30.8	28.7	32.0	31.9	▽8.6%	31.7	20
안산시	43.0	30.8	26.4	36.5	39.3	▽8.6%	35.2	15
고양시	44.0	43.5	41.1	41.7	41.4	▽5.9%	42.4	2
과천시	21.8	21.2	19.1	20.4	24.9	▲14.2%	21.5	30
구리시	32.9	33.7	34.0	37.4	37.1	▲12.8%	35.1	16
남양주시	44.3	42.0	40.5	39.6	43.6	▽1.6%	42.0	4
오산시	39.2	34.4	31.2	35.4	43.5	▲11.0%	36.8	10
시흥시	32.8	37.7	36.2	36.1	40.6	▲23.8%	36.7	11
군포시	41.1	38.6	37.3	41.1	43.1	▲4.9%	40.3	7
의왕시	34.5	35.1	34.6	37.1	40.1	▲16.2%	36.3	13
하남시	32.7	32.9	33.2	40.3	42.7	▲30.6%	36.4	12
용인시	29.6	29.9	30.8	30.8	35.5	▲19.9%	31.4	21

행정 구역별	2015 (A)	2016	2017	2018	2019 (B)	증감률	2015~2019 평균	순위
파주시	35.9	36.7	36.4	36.5	33.6	▽6.4%	35.9	14
이천시	27.2	24.1	25.1	24.3	21.6	▽20.6%	24.5	27
안성시	31.9	32.7	26.7	26.2	26.4	▽17.2%	28.8	23
김포시	35.0	33.2	34.6	34.1	36.0	▲2.9%	34.6	17
화성시	24.8	26.4	30.5	29.4	32.8	▲32.3%	28.8	23
광주시	38.5	33.5	30.6	29.8	34.0	▽11.7%	33.3	18
양주시	31.2	30.7	30.4	33.7	35.1	▲12.5%	32.3	19
포천시	26.4	25.6	21.8	22.0	20.7	▽21.6%	23.3	29
여주시	25.8	26.9	22.2	23.7	23.9	▽7.4%	24.5	27
연천군	17.4	18.3	18.4	17.8	15.3	▽12.1%	17.5	31
가평군	26.5	27.0	24.9	25.6	28.0	▲5.7%	26.4	26
양평군	26.3	27.1	26.8	28.6	29.8	▲13.3%	27.8	25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6)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은 인구 십만 명당 자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수로 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사회통합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이다. 경기도의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은 2015년 25.3명에서 2017년 22.9명으로 줄어들다가 2019년 25.4명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의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은 2015년 26.9명에서 점차 줄어들어 2019년 23.8명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지역으로 보면 수정구는 2015년 45.4명에서 계속 감소하여 2019년 30.8명으로 줄어들고, 중원구는 2015년 31.9명에서 감소하여 2019년 30.6명으로 나타났다. 분당구의 경우 2015년 16.3명에서 살짝 증가하여 2019년 17.4명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이 낮은 지역으로는 광명시(19.5명), 군포시(20명), 용인시(20.4명), 고양시(21명)로 나타났다.

표 II-57.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2015~2019)

(단위: 명)

행정 구역별		2015 (A)	2016	2017	2018	2019 (B)	증감률	2015~2019 평균	순위
경기도 전체		25.3	23.0	22.9	24.2	25.4	▲0.4%	24.2	
수원시		23.8	22.8	20.8	22.2	25.2	▲5.9%	23.0	19
성남시	전체	26.9	22.5	23.8	25.7	23.8	▽11.5%	24.6	15
	(수정구)	(45.4)	(29.2)	(29.9)	(33.2)	(30.8)	(▽32.2%)	(33.7)	-
	(중원구)	(31.9)	(31.6)	(28.2)	(30.7)	(30.6)	(▽4.1%)	(30.6)	-
	(분당구)	(16.3)	(15.0)	(18.9)	(19.9)	(17.4)	(▲6.7%)	(17.5)	-
의정부시		26.3	28.8	29.3	31.0	28.2	▲7.2%	28.8	10
안양시		22.2	22.5	20.6	21.5	22.8	▲2.7%	22.0	21
부천시		27.0	23.5	21.2	23.2	27.0	-	24.4	16
광명시		22.7	18.6	16.2	16.5	23.5	▲3.5%	19.5	30
평택시		29.4	24.2	30.9	31.7	28.5	▽3.1%	29.0	9
동두천시		37.6	35.4	33.5	37.0	35.3	▽6.1%	35.8	3
안산시		29.3	29.2	26.7	25.7	31.0	▲5.8%	28.4	11
고양시		23.2	20.5	19.1	21.8	20.2	▽12.9%	21.0	27
과천시		21.8	18.3	28.5	21.1	24.4	▲11.9%	22.9	20
구리시		19.5	19.7	18.5	20.5	27.1	▲39.0%	21.1	25
남양주시		23.1	19.4	20.2	23.3	24.0	▲3.9%	22.0	21
오산시		26.6	18.4	28.6	23.2	24.3	▽8.6%	24.3	17
시흥시		28.8	24.4	26.7	27.4	27.3	▽5.2%	27.0	12
군포시		19.2	16.2	22.4	21.7	20.4	▲6.3%	20.0	29
의왕시		17.2	20.5	18.1	16.9	22.4	▲30.2%	19.1	31
하남시		25.6	23.0	17.3	17.4	21.8	▽14.8%	21.1	25
용인시		19.4	20.7	18.5	20.3	22.9	▲18.0%	20.4	28
파주시		26.3	25.3	23.5	22.7	20.0	▽24.0%	23.6	18
이천시		27.5	23.3	25.7	25.9	25.3	▽8.0%	25.6	14
안성시		33.9	26.1	28.7	30.8	29.7	▽12.4%	29.9	7
김포시		24.2	19.2	16.8	24.7	23.4	▽3.3%	21.7	24
화성시		21.7	23.7	19.8	20.8	24.0	▲10.6%	22.0	21
광주시		33.9	21.1	23.3	26.7	28.7	▽15.3%	26.8	13
양주시		25.2	30.0	26.6	29.6	34.9	▲38.5%	29.3	8
포천시		44.8	32.0	45.3	46.6	43.9	▽2.0%	42.6	1
여주시		30.9	29.9	34.2	30.6	29.9	▽3.2%	31.1	4
연천군		42.2	37.6	44.3	42.7	45.8	▲8.5%	42.6	1
가평군		26.3	27.6	33.9	33.8	32.3	▲22.8%	30.8	6
양평군		27.4	23.9	33.0	32.3	38.1	▲39.1%	31.0	5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3.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행정역량에 대한 시사점

1) 인구측면

주민등록인구와 추계인구, 합계출산율, 그리고 청소년 인구(9세~12세) 비율을 통해 성남시 인구측면을 종합하자면 다음과 같다. 성남시의 주민등록인구 수는 2015년 971,424명에 비해 2019년 942,724명으로 3% 가량 감소하였다. 5개년 씩 3개년의 평균을 나타낸 것으로 2021~2015년 간의 평균과 2026~2030년 간의 평균, 그리고 2031~2035년 간의 3년도의 추계인구로는 2021~2015년 간 911,330명, 2026~2030년 간 914,235명, 2031~2035년 간 911,404명으로 제시되고 있다. 인구 수의 감소는 전반적으로 예측되는 결과이나 성남시의 경우 경기도 전체 4~5위로 인구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성남시의 합계출산율로는 2015년 1.15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9년 0.85명으로 2015년 대비 26.5% 감소하여 2015~2019 평균으로는 성남시가 경기도 전체 시군 가운데 26위로 낮은 편에 속한다. 청소년 인구(9~24세) 비율에서는 2015년 18.96%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9년 17.02%로 2015년 대비 2019년 대략 10.2% 감소하였으며 2015~2019년 청소년 인구(9~24세) 비율은 17.99%로 경기도 전체 시군에서 20위를 차지했다. 종합하자면 성남시의 주민등록인구와 추계인구는 높은 수준이지만 합계출산율과 청소년 인구 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경제적 측면

고용률, 청년고용률, 1인당 GRDP, 인구 천 명당 사업체 수, 주택매매가격지수를 통해 살펴본 성남시 경제적 측면을 종합하자면 다음과 같다. 성남시의 고용률은 2016년 59.9%에서 미세하게 감소하다 2020년 58%로 2016년에 비해 2%p 감소

하였으며 2016~2020년 평균으로 58.7%로 나타났다. 두 번째, 청년고용률의 경우 2016년 43.3%에서 2019년 44.8%까지 증가하였다가 2020년 42.8%로 조금 하락하였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성남시의 청년고용률은 42.7%로 파악된다. 세 번째, 1인당 GRDP의 경우 2015년 3천 8백만 원 가량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7년 약 4천 2백만 원으로 2015년 대비 대략 9.2% 증가하였다. 2015년~2017년 간 평균 1인당 GRDP로 성남시는 4천만 원 수준으로 확인된다. 네 번째, 성남시의 인구 천 명당 사업체 수는 2017년 66.3개에서 2019년 70.4개로 대략 6.2% 증가하였다. 2017~2019년 간 인구 천 명당 사업체 수 평균으로 성남시는 68.5개로 나타났다. 마지막 성남시의 주택매매가격 지수는 2016년 95.4%에서 계속해서 증가하여 2020년 113.7%로 2016년 대비 19.2% 증가하였다. 2016~2020년 성남시의 주택매매가격 지수 평균은 104.11으로 파악된다. 경기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성남시의 5년 간 고용률, 청년고용률, 1인당 GRDP, 인구 천 명당 사업체 수, 주택매매가격지수 평균을 종합하자면,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인구 천 명당 사업체 수는 중하위권, 1인당 GRDP는 중상위권,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상위권으로 고용률, 청년고용률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된다.

3) 재정적 측면

성남시의 재정적 측면으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재정자립도는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2017년 58.7%에서 2021년 58.5%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전체 시군 가운데 2017~2021년 평균 59%로 최상위 수준으로 확인된다. 성남시의 재정자주도는 2017년 71.8%에서 감소하여 2021년 67.9%로 2017년 대비 5.4% 가량 감소하였으나 2017~2021년 재정자주도 평균값은

69.3%로 경기도 전체 시군 가운데 최상위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성남시의 재정운영이 자립능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4) 사회적 측면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수, 인구십만명당 자살률, 지역안전등급현황을 통해 본 성남시의 주요 사회적 측면을 다음과 같다. 성남시의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는 2016년 1.8개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0년 2.1개로 2016년 대비 16.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의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 평균으로 살펴볼 때, 성남시가 2개로 전체 경기도 시군 가운데 가장 많았다. 한편, 성남시의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은 2015년 26.9명에서 점차 줄어들어 2019년 23.8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9년간 평균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은 24.6명으로 경기도 전체 시군 가운데 중위권으로 파악된다. 성남시의 지역 안전등급현황은 2015년 2.3등급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 2019년 2.3등급으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2015년부터 2019년 동안 성남시의 평균 안전등급현황은 2.3위로 중상위권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자면 성남시의 높은 사설학원 수는 그만큼 사교육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을 통해 성남시의 사회 통합적 측면이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시급하지 않다고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 지역 안전등급현황을 통해 성남시의 전반적 안전수준이 보장된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5) 지역(구)별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인구·경제·재정·사회적 측면의 시사점은 성남시 전체는 물론이고 지역(구)에도 공통적인 의미를 갖는다. 다만, 지역별 세부 현황 차이에 따라 시사점의 정도(degree)는 다소 다를 수 있다.

(1) 수정구

수정구는 최근 5년간 인구 변화에서 다른 구와 구별되는 차이를 보인다. 인구 증가의 경향을 보이고 있고, 9세~12세 청소년 인구비율도 증가했다. 이는 성남시 전체 인구감소 경향과는 다소 다른 모습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증가 패턴을 보이는 추세라기보다는 다소 불규칙적 증가에 가깝고, 증가의 폭이 크지는 않다. 그래서 멀지 않은 시점에 성남시는 물론이고 국가 전체적인 인구감소 경향과 비슷한 추이를 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역(구) 상황에 맞춰 인구감소뿐 아니라 인구증가 현상을 고려한 전략 수립도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중원구

중원구는 다른 구와는 달리 청소년 인구 감소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다. 연령대(9세~12세, 13세~18세, 19세~24세)별 감소 비율도 가장 높다. 특히 9세~12세 청소년 인구 비율의 경우 다른 구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원구는 유일하게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성남시의 전반적인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전략 수립시 중원구와 같이 지역별 감소 편차의 특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분당구

분당구는 성남시의 다른 구와 비교할 때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곳으로 연령대별 청소년 인구의 비율도 가장 높다. 전체 인구와 연령대별 청소년 인구의 감소폭도 적으며, 9세~12세 청소년 인구비율은 다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다른 구와 달리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따라서 성남시 전략수립 과정에서 분당구의 이러한 인구변화 경향과 사회안전망 관련 특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 ——— III. 포스트코로나와 청소년서비스에 대한 이론적 배경

- 1. 포스트코로나의 개념
- 2. 코로나19 이전의 청소년정책 환경변화
- 3. 코로나19 이후의 청소년정책 환경변화
- 4.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 성남형 청소년
서비스의 방향

1. 포스트코로나의 개념

포스트코로나는 기본적으로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 감염증 발병 이후의 세계와 사회의 양상이나 흐름이 그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더불어,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 새로운 사회의 양상에 적응할 필요가 있음을 예상하게 하는 사회적 용어이다. 지금 여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시대인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해 논한다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 학업적 측면 등 거의 모든 측면들에 대한 변화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예측과 이 전반에 대해 논한다는 것이고, 현재 이러한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Ding & Kalashnyk, 2020).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겪어내야 했던 오랜 기간의 사회적 격리로 인해 떨어진 사회적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고,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새로운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원격 비대면 교육이 전통적인 대면 방식의 교실 수업을 대체함에 따라 효과적인 교수법과 교육 환경에 대한 이해와 고민이 뒤따르고 있다(Ding & Kalashnyk, 2020). 더하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포스트코로나를 넘어 위드(with) 코로나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뉴 노멀(New Normal)이라는 새로운 표준에 대한 적응 필요성이 위드 코로나로 확장되어 코로나와 공존해서 살아가는 상황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문효근, 2021).

2. 코로나19 이전의 청소년정책 환경변화

청소년정책의 환경변화는 크게 네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구변화 측면, 기술변화 측면, 사회변화 측면, 교육변화 측면이 그에 해당한다. 이 네 가지 측면은 특히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 정책형성부터 집행 및 평가에 이르는 전(全) 과정에서 크고 작은 영향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의 청소년정책 환경변화에 대해서도 이 네 가지 측면에 기초해서 살펴볼 수 있다. 다만, 인구변화 측면과 기술변화 측면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후 현재까지 기간을 고려할 때 추가 변화를 야기할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코로나19 이후에 이 두 측면에 대한 변화에 관한 논의는 별도로 하지 않는다. 그에 반해, 코로나19 발생은 사회변화 측면과 교육변화 측면에 곧바로 반영되어 일정한 변화를 보였고, 특히 사회변화의 한 측면일 수 있는 경제 분야에 많은 변화를 야기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전의 청소년정책 환경변화에 대해서는 인구변화 측면, 기술변화 측면, 사회변화 측면, 교육변화 측면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고,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사회변화 측면, 교육변화 측면, 경제변화, 그리고 청소년정책의 변화 측면에 초점을 두고 논의한다.

1) 인구변화 측면

인구감소는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2014~2017년 간 조사에 따르면, OECD에 속한 6,460개의 TL3⁴⁾ 권역 가운데 11%(691개 지역)에서 인구 감소가 확인되었다(OECD, 2019a). 특히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폴란드, 헝가리, 일본 등 10개국에서는 5분의 1 이상의

4) OECD는 국가의 행정조직을 두 개의 지역 수준으로 분류한다. TL3(Territorial Level 3)는 소규모 권역으로 인구밀도의 특정 임계치를 초과하는 지역 인구 비율에 기초해 도시(predominantly urban, PU), 중간(intermediate, IN), 농촌(predominantly rural, PR)으로 분류한다(OECD, 2019a:13).

지역에서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었고, 출산율이 인구대체출산율(2.1명)에 한참 미치지 못하여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OECD, 2019a). 이에 따라 OECD(2019a)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014~2050년 동안 OECD 국가에 속한 1,363개의 TL3 권역 가운데 대략 56.8% 지역에서 인구 감소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한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정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한국의 인구는 2031년 52,958천 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한 뒤 2049년에 49,792천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김영철 외, 2018 재인용). 이미 한국의 경우 노인인구비율은 2000년에 7.2%가 되어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합계출산율은 2001년에 1.3명이 되어 초저출산사회로 진입하였다(보건복지부, 2015:13, 전대옥 2017:66 재인용).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인구감소, 저출산, 다문화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인구변화에 대한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다.

최슬기(2015)는 인구현상도 사회현상의 하나로 바라봄으로써 인구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논의를 인구학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먼저 출생과 사망 등의 인구요인을 통한 인구변화를 예측하고 있는데, 출생과 관련하여 2013년의 합계출산율(1.2)이 향후 100년 동안 지속될 경우 한국의 인구 수가 1,400만 명 감소할 것이라 분석하였다. 그리고 기대수명의 경우 스웨덴과 일본, 미국 등과 같은 나라에서 증가하는 속도가 줄어들지 않지만(Wilmoth and Horiuchi 1999; Futoshi 2011; 최슬기, 2015 재인용), 사망위험이 큰 고령층의 인구비중이 점점 높아짐으로써 조사망률⁵⁾은 증가할 것이라 분석하였다.

인구변화에서 중요한 현상인 인구감소 및 인구절벽⁶⁾은 노동인구의 감소뿐만

5) “조사망률은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그 해의 전체 인구수 대비 그 해 사망한 사람의 수로 측정된다”(최슬기, 2015:20).

6) H. Dent는 『인구절벽(The Demographic Cliff)』이라는 저서를 통해 한국의 경우 2018년 이후 인구절벽이 도래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와 소비의 감소 등 심각한 디플레이션을 대비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전대옥, 2017 재인용).

아니라 낙후지역의 소멸과 같은 지역의 지속가능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영철 외, 2018; 전대욱, 2017; OECD, 2019a). 전대욱(2017)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적절한 정책 방향과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유사한 사례인 일본의 정책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전대욱(2017)은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도시권, 지방거점도시권, 농산어촌 특수상황지역의 정책추진방안⁷⁾을 제시함과 동시에 마을공동체 자치와 지역의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한 지역의 성장이 아닌 번영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분석한 김영철 외(2018)은 정부가 수도권에서 겪고 있는 인구현상을 지역에서 나타나는 인구구조 변화에 보편화하여 인식하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이는 인구정책과 관련한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지적이다. 김영철 외(2018)는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한국 전체의 고령인구 증가속도보다 더 빠른 추세를 밝히며, 특히 교육 및 직업의 기회를 찾아 떠나는 청년인구의 유출⁸⁾을 인구이동의 지역적 특성으로 주목하였다. 그 외에도 수도권 의 인구이동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 김창환(2015)은 통계청의 2000년 인구주택총

7)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전략(안)

	대도시권	지방거점도시권(인근 농산어촌 포함)	거점이격 농산어촌특수상황지역
현황 및 문제점	청년층 초저출산율 고령화 지속	대도시로 청년인구 유출, 농산어촌 인구유입 한계	인구유출, 지역소멸 지역재생인력 부족
일본의대응 방안	규제개혁, 지역상생 인재교류, 위미노믹스(전국) 등	로컬 아베노믹스Compact + Network 연계집락생활권 촉진 등	“작은 거점” 마을 조성공공서비스 축소 대응주민자치운영 조직화 등
지역공동체 중심정책추진 전략방향	“청년공동체 육성”주거 교육 공동체 중심, 지방과 상생 협력 추진(청년 지역파견 등)	“매력적인 지역만들기”지역청년 중심의 문화 창조 경제공동체, 퇴직공무원 등 J턴 촉진	“생활거점마을 조성”생활서비스 다문화 관련 주민공동체 활성화 촉진, 주민 출향민 애향심 제고
구체적 추진방향	공동체자산화, 협동조합주택, 온오프교육교육공동체 육성, 시니어 공동체(복지 고독사 방지) 등	청년의 영리 비영리 창업 확대, 주민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문화예술 공동체모임 육성, 시니어활동 촉진 등	공공서비스 위탁형 주민자치조직 및 마을 기업 육성, 빈집 폐교 등 유휴자원뱅크 설치, 귀농귀촌 및 도시와의 연계 확대 등

출처: 전대욱(2017:79). <표 5>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전략(안) 재인용.

8) 대구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의 순유출자의 절반 이상이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 인구구조 변화에서 청년인구 유출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철 외, 2018).

조사 자료를 통해 1990년대 이후 수도권의 인구이동을 분석하였다. 1990년 이전의 경우 수도권 전체와 경남지역의 인구증가가 나타났다면, 그 이후에는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었다. 특징적인 점으로는 상대적인 확률로 볼 때 서울에서 경기도로 유출되는 인구는 화이트 칼라 비중이 높은 반면, 경기도나 타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은 전문 및 고위직의 고학력층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인구이동에서 계층적 차이가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리고 인구소멸 및 인구이동과 관련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한 연구도 있다. SWOT 분석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저성장 환경에서 공공기관의 잠재적 전략과제를 검토한 신완선 외(2017)는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강소형)으로 나누고 유형별 전략과제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공기업 유형에서는 신산업 육성(저성장), 일자리 창출 산업 지원(저출산), 청년 전문경력 관리 체계 운영(저출산), 여성 인력 활용 강화(저출산) 순으로 우선순위가 도출되었고, 준정부기관의 기금관리형과 준정부기관의 위탁집행형의 경우 각각 일자리 창출 산업 지원(저출산)과 기술·가치 중시 산업 활성화(저출산)가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과 관련한 과제가 공공기관 역할의 중요성에서도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 문제에서 앞서 Lesthaeghe(2014)은 2차 인구변천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볼 때, 이민을 통해 인구 규모를 안정시킬 수 있으나, 동시에 다문화 사회의 성장을 수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문화시대에서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을 분석한 김혜숙 외(2011)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국인 대학생 이상의 성인 1,000명과 중고등학교 청소년 800명의 개별 인터뷰를 통해 이주민 집단에 대한 감정 및 태도를 분석하였다. 이주민 집단에 대한 편견 및 태도는 집단에 따라 상이하였는데, 다문화가정 자녀와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인 성인보다 청소년의 경우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사회적 거리감, 고정관념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시기의 특징에 따라 내집단 편애가 두드러질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는 다문화사회에서 다양성 존중과 개방적 정체성 등을 포용할 수 있는 전향적인 교육 정책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김혜숙 외, 2011).

2) 기술변화 측면

저성장으로의 전환에 따라 모든 연령층에서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문혜진, 2013). 외환위기 이후(1998~2008) 청년층의 노동생애에 대한 변화를 분석한 문혜진(2013)은 코호트 비교를 통해 청년층의 노동경력을 분석하였다. 한국노동패널을 통해 90년대 코호트와 2000년대 코호트로 나누어 노동시장의 진입을 비교하였는데, 분석결과 2000년대 코호트에서 90년대 코호트보다 비정규직이 대략 12%p 증가하였으며 대기업 종사자의 비중은 14.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첫 일자리 이행기간은 3개월 더 길었다. 고용형태 군집별로 포함될 확률을 비교하였을 때 2000년대 코호트가 1990년대 코호트보다 비정규직형과 미취업형, 그리고 실직형에 포함될 확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외환위기 이후 청년의 고용불안정이 더 커진 것이 확인되었다. 이후 OECD 37개국을 대상으로 지난 10년(2009~2019) 간 청년(15~29세) 실업률의 증감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OECD 평균 증가율은 -4.4%p에 비해 한국은 +0.9%p로 그리스(+10.1%p), 이탈리아(+4%p)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 실업률의 지속적인 적신호를 밝히기도 하였다(한국경제연구원, 2020).

이러한 저성장과 고용감소 상황에서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래 일자리 변화 예측으로 Frey & Osborne(2017)은 미국의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향후 10~20년 내에 자동화 될 가능성이 높은 직종을 예측한 결과 33%는 저위험직종으로 분류되지만 절반에

가까운 47%의 직종이 고위험 직종으로 분류되었다. 고위험군으로 운송 및 물류 직업 종사자와 생산 직업 종사자, 사무실 내 행정 지원 인력 등의 직종을 지목함으로써 저기술 및 저임금 직종에 전산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대해 Arntz et al.(2016)은 Frey & Osborne(2017)의 분석이 직종의 업무에 따른 분류가 이뤄지지 않아 측정이 과도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같은 직종이더라도 하는 업무에 따라 자동화될 가능성이 다름을 염두에 두고 새롭게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독일과 호주가 12%로 고위험군 직종이 가장 높았으며, 미국과 OECD 국가 평균은 대략 9%, 한국과 에스토니아가 6%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Arntz et al., 2016).

특히 단순한 전산화와 자동화를 넘어 이제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등과 같이 사물들 간의 자동 및 기능적으로 제어 가능한 과학기술을 포함하는 4차 산업혁명이 교육 분야에서 변화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조한국, 2017). 그 중에서도 학교현장에서의 직업진로체험 및 진로교육에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정철영 외, 2015; 강현주 외, 2021; 재인용). 강현주 외(2021)는 사회변화에 맞춰 직업진로체험 프로그램 구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산업군별 유망 직업선정과 유망 직업에 관한 청소년들의 직업체험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수도권 지역의 중·고등학생 400명을 통해 35개의 미래 유망직업 가운데 진로체험 선호도가 높은 순은 정보통신산업의 보안 및 정보보호 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소셜미디어 전문가, 사물인터넷 전문가, 콘텐츠 크리에이터, 빅데이터 전문가, 3D 프린팅 전문가, 가상 및 증강현실 전문가, 홀로그램 전문가 등이었다. 대체로 정보통신 산업 분야에서 진로체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미래사회 변화에 맞춰 교육환경 및 과학교육의 과제를 제시한 연구도 있다. 조한국(2017)은 UNESCO와 OECD 등 주요 미래비전 보고서 등의 선행연

구들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로 미래 직업 생태계의 변화와 공유 경제로의 전환, 탈도시화 및 분산화, 인간성 상실의 위기를 들고 있다.⁹⁾ 이러한 변화 속에서 조한국(2017)은 전통적 교육과정에 대한 재정의, 개방형 플랫폼을 반영한 교육 시스템의 개편, 인공지능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학습에 대한 필요성 등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와 과학교육의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정보기술은 다양한 정책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에도 활용되고 있다. 한 예로 김지연·이경상·노법래(2019)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위기청소년 지원방안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공 빅데이터로 소득수준별 청소년 사망 양상과 소셜빅데이터로 청소년 자해 분석과 시군구 데이터를 통해 지역건강성 지표 등을 파악하여 다양한 빅데이터를 통한 청소년 유해환경을 분석하였다. 또 중·고등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정보기술 활용과 사이버 공간에 관한 모니터링 강화 및 공공 데이터 개방, 그리고 고민 상담을 위한 인공지능이나 모바일 심리상담 등과 관련한 청소년 인식을 파악하는 분석을 실시하였다.

9) 4차 산업혁명과 사회변화 속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과학 교육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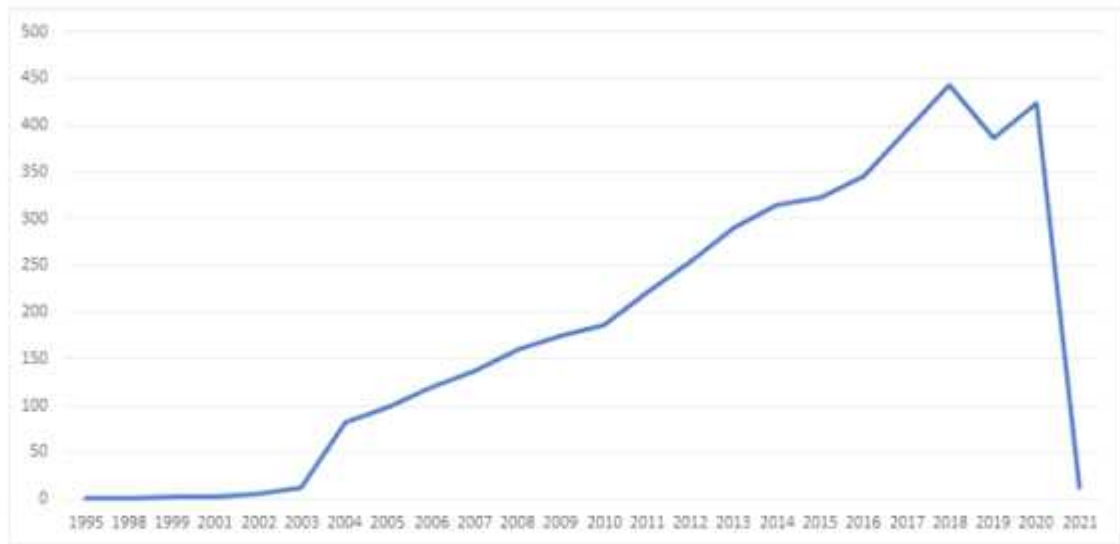
미래사회의 변화	직업 생태계의 변화	소비중심에서 공유중심으로의 전환	탈도시화 및 분산형 시스템	인간성 상실의 위기
교육환경의 변화	·핵심역량의 강조 ·교육과정 및 내용의 잦은 변화	·플랫폼 중심의 교육환경 재편	·개별화 맞춤형 교육 ·분산 인지 시스템	·인성교육 ·공동체 중심 교육
과학교육의 과제	·핵심역량의 재정의 ·혁신적 실험실습 환경 구성 ·융복합에 대한 이론적, 방법적 고찰 ·융복합교육을 위한 예 비교사 및 현장교사 전문성 향상	·양방향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 플랫폼 구축 ·교사 전문성 함양을 위한 마이크로전공 설계 ·온라인 기반 학습법 및 평가체계 개	·교육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개인에 대한 풍부한 데이터수집 및 분석 ·개념 이해 및 진단을 위한평가 도구 개발 ·분산 인지 기반 교수학습성과 분석 연구 ·VR/AR 기반 실험실습 환경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기반 문제해결 학습	·공동체 및 사물-인간 통합의 학습 이론 구축 ·공동체 중심 교사 전문성 ·과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적 태도

출처: 조한국(2017:293). <표 1> The tasks of school science education according to the changes of future society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재인용.

3) 사회변화 측면

최근 기존의 성장 중심의 사회와는 달리 양극화, 불평등, 삶의 질 강조 등으로 사회적 변화 추세가 점점 바뀌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웰빙’에 관한 논의를 확장시킨 OECD의 BLI(Better Life Index)은 11개 영역을 통해 삶의 질을 측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2020년부터 성별 및 연령 등의 수평적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과 같은 수직적 불평등 등의 지표들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OECD, 2020; 이승준 외, 2021 재인용).

이러한 국제적 추세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불평등 연구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있다. [그림 III-1]은 1995년부터 2021년까지 불평등과 관련된 연구들의 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김용환, 2021). 불평등과 관련한 논의 중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소득불평등과 관련한 경제 부문이다. 실제로 한국사회에 불평등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본 김용환(2021)은 불평등과 관련된 동시 출현 상위 단어 분석을 통해 ‘소득’이 가장 많이 출현한 단어였고, 상위 30개 단어 가운데 전반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가장 핵심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소득수준이 결국 건강이나 교육, 기회와 같은 다양한 불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김용환,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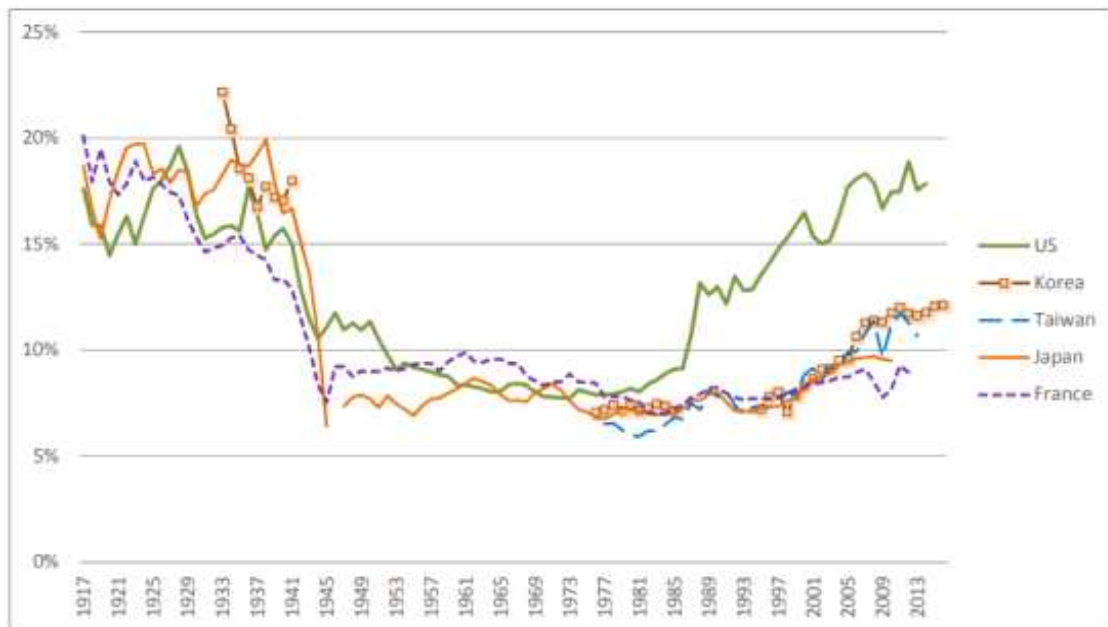


출처: 김용환(2021:270)

그림 III-1. 불평등 키워드로 수집된 논문의 연도별 현황

World Wealth and Incomes Database(WID)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득집중도를 통해 한국의 소득불평등을 살펴본 김낙년(2018)은 국가별 총소득의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하였다. [그림 III-2]를 보면 1970년 이후 2013년까지 미국의 소득집중도는 가장 높았으며, 2013년엔 대략 17%~18%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2013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전체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1976년 7.07%에서 2013년 11.63%까지 계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소득 분위 배율에 따른 소득격차는 OECD(2015)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총소득에서 하위 10%가 지니는 비율은 2.2%인데 반해 상위 10%는 21.9%로 대략 1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위 10%의 소득이 상위 10%의 소득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OECD 국가들의 평균은 대략 10배 차이로 기타 주요국의 격차로는 멕시코 30.5배, 칠레 27.2배, 미국 18.7배, 이탈리아 11.2배, 일본 10.6배, 영국 10배, 프랑스 7.4배, 독일 6.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김용환(2018:180)

그림 Ⅲ-2. 상위 1% 소득집중도의 국제비교

소득불평등 이외에도 건강불평등, 교육불평등, 복지불평등 등과 관련한 논의들도 이뤄지고 있다(김용환, 2021). 김지원 외(2021)는 한국노동패널을 통해 1998년부터 2017년까지 대략 20년 정도의 한국인들의 건강과 근로시간, 소득, 행복간의 추세와 표준편차를 통해 불평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건강인식과 임금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 가구소득 5분위 배율, 행복수준 모두 20년 동안 추세가 나아졌으며, 불평등의 경우 세계금융위기를 겪은 직후인 2009년을 제외하고 불평등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삶의 질과 불평등이 대략 20년 동안 나아졌음을 밝혔다. 나아가 탐색적 회귀분석을 통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는 불평등 확대에 기인하지만 사회복지예산의 경우 불평등 축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혀 복지정책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다.

한편, 소득불평등을 중심으로 자원과 관련한 불평등 논의의 확장과 한국 사회속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 사회갈등 또한 중요한 논의로 자리 잡고 있다. 가치관

갈등 가운데 특히 성을 둘러싼 혐오와 갈등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 박건우·이정읍(2019)은 국민 1,039명을 대상으로 여성혐오 문제인식과 관련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과 정치적 성향, 인터넷을 통한 혐오표현 노출 여부 등을 해당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여성혐오 문제인식과 심각성 인식에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혐오표현이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박준·정동재(2018)는 주요국 37개국을 중심으로 지니계수, 글로벌젠더격차지수, 세대 간 고용률 및 실업률 격차, 가치관 차이 등의 지표들을 통합하여 사회갈등에 대한 사회갈등지수 및 갈등관리역량 지수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사회갈등지수의 경우, 자원과 관련한 격차는 양호한 편(6위)이나, 이념, 젠더, 세대 등을 종합한 가치관 격차의 경우 최하위권(37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박준·정동재(2018)는 한국사회의 균열이 자원보다 가치관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갈등관리역량 지수의 경우, 정부 관료제 및 사법제도 등의 종합적인 정치행정역량은 28위,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를 측정하는 재분배 역량은 33위, 시민적 자유수준과 덕성, 참여 등을 종합한 시민사회역량은 26위 등으로 국가와 시민 부문의 종합적인 갈등관리역량은 32위로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사회가 경제적으로 빠른 성장을 이루었으나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 갈등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및 시민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갈등관리 역량의 제고 또한 병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4) 교육변화 측면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교육정책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추진되어왔다. 주요 변화에는 자유학기제도, 혁신학교, 고교학점제, 고교다양화정책 등이 해당된다. 2016년부터 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도입되어 온 자유학기제도는 중학교 1~2학

년 시기에 신체 및 정서, 인지, 사회적 차원에서 많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에 따라 청소년기 초기에 학생중심의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 활동 등으로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운영하는 정책이다(교육부, 2015). 자유학기제도는 2018년에 자유학년제로 확대되어 중학교 과정 1년 동안에는 교과 성취도를 산출하지 않고 진로탐색 및 체험학습 등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더욱 확대하여 실시되고 있다(교육부, 2020.3.25.).

교육 분야의 또 다른 변화 중 하나가 혁신학교이다. 혁신학교는 학교혁신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노력과 교육청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노력이 결합되어 생겨난 새로운 학교 형태를 의미한다(황은희 외, 2019:53). 혁신학교는 ① 성적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에서 배움의 즐거움과 나눔, 배려의 협력교육 등 공교육의 변화를 지향하며, ② 교사들에게 높은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고, ③ 학생과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학교를 뜻 한다(김용기, 2018; 유경훈, 2014; 황은희 외 2019 재인용).¹⁰⁾ 혁신학교는 2009년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장 먼저 추진하여 이후 서울, 전북, 전남, 광주 등으로 확산되었다(김용기, 2018). 혁신학교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경우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한 혁신학교의 성과 및 한계를 제시하거나 일반학교와 비교하여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및 효과성을 분석하기도 한다(김용기, 2018; 이은배 외, 2019; 황은희 외 2019). 혹은 교육혁신의 제도권 안 사례로써 혁신학교가 분석되기도 하였다(황은희 외, 2019).

10)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운영상 차이점

구분	혁신학교	일반학교
학급당인원	25명내외	35명
학년당학급	5학급내외	10학급 이상
교장권한	자율운영	일반적
교육과정	다양화, 특성화맞춤형교육	일반적
교육형태	학습자중심교육	일반적
교육내용	학습능력향상 및 인성교육	성적위주
교원업무	전문성신장, 잡무, 업무부담경감	일반적
교육청지원	4년 동안 4억여 원 지원	없음

출처: 김용기(2018:418) <표 2>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운영상 차이점 재인용.

이와 함께 교육부는 2017년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을 통해 기존의 입시중심의 경직적·획일적인 교육과 수직적 서열화 교육에서 학생성장 중심과 유연하고 개별화된 교육, 수평적 다양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고교학점제를 발표했다(교육부, 2017). 교육부(2017)가 밝힌 고교학점제도는 2025년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사회변화에 따른 것으로 학생의 학습능력과 진로선택을 기반으로 과목 및 수준을 선택하는 학점제를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다양한 과목을 선택 및 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하게 되면 졸업을 인정받게 된다(교육부, 2017).

고교학점제의 쟁점 및 과제와 관련하여 박균열·엄준용(2018)은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를 통해 구조적 차원과 기술적 차원 등에 대한 논의들을 종합하고 있다. 구조적 차원에서는 고교학점제와 대학입시 간의 연계성 보장의 중요성과 고교학점제 목표에 맞는 진로별·수준별·영역별 교과목의 개설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고교교육과정의 재정비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기술적 차원에서는 학생들의 교과목 수요조사 및 진로희망조사를 통해 진로탐색과 취업, 폭 넓은 교양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학생 요구가 반영된 교과목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윤경 외(2021)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 있는 선도학교의 진로교육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고등학교 진로교육 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교학점제를 운영 중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진로교육 현황과 요구를 분석하였다. 60개의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의 담당교사와 진로교사, 담임교사 등 300명의 교사와 1,233명의 학생, 608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일반고와 직업계고 학생 가운데 진로나 적성에 따른 교과목 선택의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교과목 선택과 관련한 안내와 정보의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인식하는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하여 진로 교육의 보완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학생유형별 맞춤 상담의 강화’를 들고 있다. 이런 결과는 2025년 전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도와 관련한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고교다양화정책 또한 기존의 고교평준화제도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이다(최용환·김강배, 2017). 최용환·김강배(2017)는 이러한 고교다양화정책이 가지는 교육성과를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교육성과는 학업성취도 외에도 학습역량과 창의력을 통한 인지역량과 자존감, 내재적 동기, 자기관리를 통한 개인역량, 그리고 대인관계, 공감을 통한 사회역량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성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고, 자공고, 혁신고, 자사고, 특목고의 5개 유형을 통해 인지역량과 개인역량, 사회역량을 비교함으로써 고교유형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고교유형에 따른 핵심역량도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코로나19 이후의 청소년 정책 환경변화

1) 사회변화 측면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사회변화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경험하고 있으며, 지금도 직접 체감하고 있을 정도로 현재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여러 선행연구들은 이에 대한 보다 분석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는 전반적인 사회변화의 모습부터 특히 청소년에게 미친 사회적 영향의 결과까지 다양한 분석결과들이 존재한다.

우선 지상훈(2020)은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에 따른 생활인구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시계열 자료를 기반으로 한 분석 결과, 사람들이 생활지역에 보다 더 많이 머무르고, 경제활동이 있는 지역을 위주로 생활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거래가 가능한 경우 소비를 위한 외출은 감소하였고,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소비 활동의 경우는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환(2020)은 경기연구원(2020)의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에서는 국민의 절반 수준인 48%가 코로나블루를 경험하고 있으며,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국민도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스트레스 수준은 과거 다른 재난과 비교했을 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규·정운·이건직(2021)는 완화된 방역기준에 따라 코로나19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변화한 기준이 경제적 상황과 코로나19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활용한 SEIR 모형을 기반으로 한국의 상황을 시나리오 별로 파악하였는데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향후 심각한 의료자원과 인력의 공급부족을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허정원·장주영(2020)은 코로나19에 따른 시민들의 이동성에 제한을 두는 방역

정책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주요 사건에 따른 변화, 그리고 외국인 혐오에 변화가 생겼는지에 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지역별로 외국인과 한국인 간 생활인구의 변화 추이가 다르게 나타났다. 지역적 특성이 내국인의 이동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신 대규모 집단감염 사건과 방역정책은 영향을 미치는 반면, 외국인 생활 인구는 방역정책과 집단감염 사건보다는 각 밀집지역의 외국인 구성 특성에 따라 인구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김봉선·이은진(2021)은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간접외상의 수준과 우울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소재 9개 고등학교의 1,9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간접외상은 사회에 대한 불신, 개인의 인지 및 정서 변화, 그리고 침습 반응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간접외상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미하였고, 이때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역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 다른 청소년 대상의 연구결과를 보면, 김용훈(2021)은 코로나19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심리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정신건강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원시 청소년 재단의 설문조사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의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들의 행복함은 감소하였고, 스트레스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업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있으며, 여가시간은 유튜브, 게임, SNS 등 미디어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위축, 강박·불안, 충동·분노조절, 자해, 자살문제로 상담을 신청하는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미·권순범(2021)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빈곤가정 아동·청소년의 개인생활, 정서와 가족생활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일상생활 변화가 이들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1~19세 아동·청소년 415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운동시간은 주로 감소하였고, 수면시간은 대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불규칙적인 수면을 취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또래관계·학업성적 불안이 증가한 경우가 많았고, 약 1/4의 아동·청소년에게 부모의 신체적 위협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학업성적 불안과 부모의 신체적 위협이 증가한 경우 행복감이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성인 없이 아동·청소년만 있는 시간이 감소한 경우 행복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영준·허만섭(2020)은 코로나19 확산 후 대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이용과 정서(무력감·외로움 체감)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 연구 결과, 대학생들의 SNS 이용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용 만족도는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유튜브 등 SNS의 장시간 이용은 무력감과 외로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육변화 측면

코로나19에 따른 교육변화는 기존 대면방식의 수업이 주는 제약과 그에 따른 수업방식의 변화부터 학습자와 교수자에게 미친 다차원적 변화까지 상당히 폭 넓게 나타나고 있다. 이 역시 현재진행 중이며, 여기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그 변화 모습과 진단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오동주·황홍섭(2020)는 코로나19가 교육 키워드 변화 양상과 그로 인한 인식, 행동, 가치 및 태도의 변화에 미친 영향, 그리고 코로나19를 전후로 교육의 새로운 기준(new normal)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키워드 변화 양상의 경우 빅데이터 분석(워드클라우드, 네트워크분석)을 적용하였고, 인식, 행동, 가치 및 태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설문 및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인식측면에서는 학습자들의 온라인 수업 만족도가 하락하고 수업 효능감이 떨어져 기존 대면 수업과 비교했을 때 비대면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에 적응하며 직업전문성에 대한 자각을 하였고, 행동 측면에서는 교육방법의 전환으로 인한 유튜브, 자체제작 콘

텐츠, 학습관리시스템 및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 및 태도 측면에서는 언택트 환경에 익숙해짐에 따라 학생들의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였고, 반면 교사는 교과협의체와 함께 온라인 개학 문제를 해결하며 공동체에 대한 관심 및 공동체 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Mahfoodh & AlAtawi(2020)는 코로나19 이후 전세계의 교육 시스템에 발생할 수 있는 변화를 eLearning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eLearning이 수업과정에 통합된다면 지속가능한 고등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일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에서는 SWOT 분석을 통해 고등교육에 eLearning을 포함시킬 경우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사회에서는 eLearning이 선택의 영역이 아닌 필요의 영역, 불가피한 선택지임을 강조하였다.

코로나19에 따른 학력격차 문제 역시 대두되었다. 그와 관련된 연구로써 서울교육정책연구소(2021)는 코로나19 전후로 교내 학력격차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소재 중학교 382개교의 1학기 학업성취 등급 비율(2018-2020)을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학업성취 분포를 기반으로 지니계수를 산출하여, 이를 동년도 내 및 시계열을 기준으로 대응 표본 t 검증을 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코로나19를 겪은 집단의 학업성취 분포가 이전보다 양극화된 것(최상위권과 최하위권의 비율 증가가 더욱 크게 나타남)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강진호·손성민·한승태(2020)는 코로나19 이후에 실시된 비대면 강의에 대한 대학교 신입생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바탕으로 그에 대한 내용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학교 신입생들이 비대면 강의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인식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비대면 강의 운영, 그리고 강의 방향감 상실과 학습 이탈, 한 방향 듣기, 강의 수강의 편리함 등의 인식이 나타났다.

이와 함께 최효선·김은희(2021)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실시에 대한

교수자의 인식이 교수자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411명의 교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를 보기 위해 Scheffe의 다중처리비교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비대면 수업의 경우 준비과정이 복잡하고, 학생들에게 학습내용이 어려우며, 학습량이 많은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에 반해 대면 수업은 교수와 학생 간, 학생 간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나 학습효과가 뛰어난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그리고 비대면 수업과 대면수업의 특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즉 두 수업방식을 동일하게 인식할수록 긍정정서가 높고 부정정서가 낮게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3) 경제변화 측면

코로나19는 바이러스 전염의 특성에 따라 접촉과 대면에서 오는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시간 경과가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선행연구들처럼 경제적 변화로 목격될 수 있는 여러 현상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우선, 강두용·민성환·박성근(2021)은 코로나19가 한국경제와 산업에 미친 영향을 경제적 충격의 크기, 기간별 진행 추이, 영향의 경로, 산업 및 주요 부문별 영향의 차이, 충격의 결정요인, 그리고 이에 따른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까지의 시계열 자료에 따른 추이와 2020년 이후의 변화를 비교한다. 분석에 따르면, 침체 및 피해부문을 억제하는 노력과 유연한 대응, 부문 간 충격의 편차가 컸기에 이에 따른 양극화를 고려한 지원정책과 대응, 방역과 경제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유기적 관계의 설정, 그리고 디지털 기술발전, 경제발전에 따른 생태학적 비용의 인식, 위기 대응에 대한 경제사회 시스템의 적응 유연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임규민·송명종·김상봉(2021)은 기존의 경제전망 모형이 생산 대비 소비의 충격

을 과소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점과 외부 요인에 의한 경제적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힘들다는 한계점을 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분석하기 위해 국민경제의 생산 측면에서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생산지수를 기반으로 사전에 설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충격을 추정하고 예측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방역활동에 따라 숙박 및 음식점, 운수 및 창고업을 비롯한 대면 서비스업에 피해가 집중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생산액, 매출액, 취업자의 감소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측하고 있다.

Furceri et al(2021)은 지난 20년 동안 주요 팬데믹(사스, H1N1, 메르스, 에볼라, 지카)과 관련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코로나19가 소득불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당 팬데믹의 자료들을 기반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코로나19가 불평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의 사례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적 변화 등을 비교 및 진단하는 연구도 있다. 이창민(2020)은 코로나19가 일본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며, 일본이 방역보다는 경제정책에 힘쓴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통상적인 경기부양책을 사용할 수 없는 특수상황이며, 충격의 전파속도가 다른 경제위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점을 언급한다. 이런 맥락에서 코로나19의 경제충격과, 이에 따른 정부정책의 불확실성, 경제를 둔화시키지 않는 최적의 감염수준을 유지하는 경제정책 고수 등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신수정(2021)은 코로나19로 인한 이탈리아의 노사정 합의를 통해 마련된 노동정책의 배경, 과정,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 사례와 비교 및 검토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종합대응정책 Cura Italia의 경우 가족 지원, 근로자 지원, 기업 지원, 보건 및 의료시스템 지원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재난지원금, 상병수당, 가족 및 육아정책, 그리고 고용안전 대책 등이 그 세부적인 항목이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2020년 7월 28일에 의결하였고, 그 내용에는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 및 노사협력, 기업 살리기 및 산업생태계 보전,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국가 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4) 청소년정책의 변화 측면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의 범위는 일상의 모든 곳에 해당될 정도로 세밀하다. 그 중 청소년 정책에 초점을 둔 변화를 중심으로 논의한 연구들을 보면, 전반적인 청소년 활동 및 정책과 관련된 전략방향이나 과제, 그리고 청소년지도자나 청소년 중 특정 계층의 청소년에 미친 영향 등을 다루고 있다.

고필재·김용진·권일남(2020)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청소년 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요인, 그리고 청소년지도자가 인식하는 청소년 활동의 과제와 방향에 대한 개념도, 그 개념도를 통해서 도출된 청소년 활동의 과제는 어떻게 구분되는가라는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다차원 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과 계층적 군집분석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지도자 교육 및 정보공유’, ‘혼합형 활동 여건 조성’, ‘홍보방법의 다양화’, ‘청소년 의견수렴 및 요구반영’, ‘청소년 활동의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다섯 가지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문성호·박지원·한지연·정한별(2021)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 정책의 혁신전략과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가 사회와 청소년의 일상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중앙정부, 청소년 현장 및 학계의 대응을 확인하여 주요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청소년 활동의 4대 혁신전략과 8대 중점과제를 도출하고 있다.¹¹⁾

이와 함께 전영욱 외(2021)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지도자들의 경험과 요구되는 역량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지도자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가, 이들이 찾은 기회는 무엇인가, 요구되는 역량은

11) 청소년활동 정책의 4대 혁신전략 및 8대 중점과제

무엇인가, 어떤 정책적 지원이 요구 되는가 등에 대한 연구 질문에 답을 찾고 있다. 이를 위해 인터뷰 대상자들을 유의표집(purposeful sampling)하여, 인터뷰 내용을 코딩하여 정리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익숙하지 않은 비대면 활동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하는 요구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 활동이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프로그램 접근성과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대면 청소년 활동 콘텐츠를 개발하는 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고, 또 새로운 환경 속에서 청소년 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침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외국사례 분석을 통한 한국 청소년정책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도 존재한다. 이정읍(2021)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해 싱가포르 정부가 어떠한 사회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학습지원, 경제 지원, 학대 예방, 돌봄 지원, 심리정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학습지원으로는 재택원격수업,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부 학생 급식 지원 확대 등이 있고, 경제 지원 서비스로는 가족 재정 지원 서비스, 코로나19 회복기금 등이 존재했다. 또 학대예방 서비스로는 아동보호 서비스,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 사전 예방 서비스의 중요성, 기관들의 공조 관계를 통한 신속 대응과 서비스 제공, 장기적·지속적 사회서비스 지원을 주요 시사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4대 혁신전략	8대 중점과제
1. 뉴노멀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청소년활동 기반 마련	1) 디지털 청소년 활동이 가능한 물적, 인적 인프라 구축
	2)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한 디지털 존(가칭) 운영
2. 미래지향적 관점에서의 청소년활동 공간 재구조화	3) 청소년활동시설 공간의 레이어드 활용
	4) 생활 SOC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활동 공간 확장
3. 보편성과 안전확보를 통한 청소년활동권 보장	5) 청소년활동 참여포인트제 도입
	6)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한 시설 관리 및 사업 운영
4. 사회변화에 민감한 청소년활동 조직 구축 및 개인의 고유역량 강화	7) 애자일 조직으로의 전환
	8) 청소년지도사 휴먼터치 역량 증진

출처: 문성호, 박지원, 한지연 & 정한별(2021:341) <그림 8> 청소년활동 정책의 4대 혁신전략 및 8대 중점과제 재인용

4.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 성남형 청소년서비스의 방향

지금까지 살펴본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청소년정책 환경변화는 기본적으로 연속적(sequent)이면서 동시에 사건에 따른 영향과 통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정책도 결국 사회 속에서 구성되고 구현된다는 점에서 정책환경의 속성 중 하나인 맥락성(contextuality)의 지속과 유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앞서 논의한 코로나19 이전 정책환경의 변화를 보면, 기존에 이미 사회의 다양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인구변화, 기술변화, 사회변화, 교육변화가 이어져오고 있었다. 인구변화 측면에서는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 현상, 기술변화 측면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기술 활용, 사회변화 측면에서는 불평등·갈등 문제와 삶의 질 강조, 교육변화 측면에서는 혁신제도 도입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교육정책 등이 청소년정책의 환경 속에서 목격되고 있던 주요 변화들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다만, 코로나19 발생이라는 사건이 하나의 변수가 되어 기존의 변화와 결합되고 통합되는 모습으로 연계되어 이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시간 요소를 고려할 때 인구변화와 기술변화는 기존의 변화와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지만, 사회변화와 교육변화에는 코로나19가 주는 영향이 특히 더 추가되었다. 즉, 코로나19는 경제변화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변화에 해당되던 경제변화가 별도로 부각되었고, 교육변화에서도 교육서비스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청소년에 대한 정책변화가 부각되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의 청소년정책의 주요 환경변화는 사회변화, 교육변화, 경제변화, 청소년정책 변화로 구분될 수 있다. 사회변화 측면에서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심리적·정신적 영향과 건강 문제 발생, 교육변화 측면에서는 학생들의 수업방식 및 시스템의 변화와 학력 격차 문제, 경제변화 측면에서는 경제활동 위축과 경제상황 악화 및 소득불평등 문제, 청소년정책 변화 측면에서는 코로나19

가 발생한 현 상황과 포스트코로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등이 정책 환경의 주요 이슈로 추가되어 통합되었다.

이와 같이 볼 때 코로나19 발생은 청소년정책 환경에 분명한 영향을 미쳤지만, 그 영향은 기존의 변화와 연계되고 통합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의 청소년정책과 유의미한 관계 속에서 코로나19의 상황 변수를 고려함으로써, 비로소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시의적절한 청소년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 IV. 포스트코로나와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현황분석

- 1.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현황분석
- 2.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분석
- 3.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거버넌스
현황 분석

1.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현황분석

성남시 자치구 구역에 따른 청소년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였다. 지역의 구분을 위해 수정구(수정청소년수련관,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중원구(중원청소년수련관,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분당구(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으로 청소년수련관 6개소와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를 종합하여 총 8개소의 청소년시설을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만 본 분석에서는 자치구 구역에 포함되는 청소년시설만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은 제외되었다.

1) 성남시 자치구별 청소년서비스 관련 사업 수

2015년부터 2020년 간 성남시 자치구별 청소년서비스 수는 2015년 305개에서 2019년 324개까지 증가하였다가 2020년 213개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¹²⁾. 지역으로 살펴보면 2015년 사업 수는 수정구 65개(21%), 중원구 90개(30%), 분당구 150개(49%)로 분당구가 가장 많았다. 2016년 사업 수는 수정구 57개(19%), 중원구 86개(28%), 분당구 160개(53%)로 나타났다. 2017년 사업

12) 추후 성남시 6개년 분석에서 밝히겠지만 세출기준 0원 이상의 사업운영비가 진행된 해당사업을 분석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수는 수정구 74개(24%), 중원구 75개(24%), 분당구 159개(52%)로 수정구의 사업 수가 2016년보다 증가하였다. 2018년 사업 수는 수정구 72개(23%), 중원구 78개(25%), 분당구 167개(53%)로 2017년과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2019년의 경우 수정구 79개(24%), 중원구 88개(27%), 분당구 157개(48%)로 분당구의 사업 수가 2018년보다 조금 감소하였다. 마지막 2020년의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사업 수는 성남시 41개(19%), 중원구 45개(21%), 분당구 127개(60%)로 나타났다.

표 IV-1. 성남시 자치구별 청소년서비스 수 추세(2015~2020)

(단위: 개, %)

지역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성남시	305	303	308	317	324	213
	(100%)	(100%)	(100%)	(100%)	(100%)	(100%)
수정구	65	57	74	72	79	41
	(21%)	(19%)	(24%)	(23%)	(24%)	(19%)
중원구	90	86	75	78	88	45
	(30%)	(28%)	(24%)	(25%)	(27%)	(21%)
분당구	150	160	159	167	157	127
	(49%)	(53%)	(52%)	(53%)	(48%)	(60%)

출처: 성남시 청소년재단 내부 자료 재정리

2) 성남시 자치구별 청소년서비스 관련 사업 예산

다음은 성남시 자치구별 2015~2020년간 청소년서비스 예산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성남시 전체 예산 추이는 2015년 86억 7천 3백만 원에서 2018년 92억 9백만 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20년 66억 6천 9백만 원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 예산 추세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수정구가 대략 20% 초반으로 가장 작고, 중원구가 30% 초반, 그리고 분당구가 대략 50%로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2. 성남시 자치구별 청소년서비스 예산 추세(2015~2020)

(단위: 천원,%)

지역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성남시	8,673,849	8,863,173	8,804,071	9,209,575	8,972,828	6,669,603
	(100%)	(100%)	(100%)	(100%)	(100%)	(100%)
수정구	1,816,260	1,799,887	1,916,047	1,969,507	1,959,457	1,349,709
	(21%)	(20%)	(22%)	(21%)	(22%)	(20%)
중원구	2,739,658	2,617,518	2,625,756	2,783,335	2,727,103	1,986,090
	(32%)	(30%)	(30%)	(30%)	(30%)	(30%)
분당구	4,117,931	4,445,767	4,262,267	4,456,734	4,286,268	3,333,805
	(47%)	(50%)	(48%)	(48%)	(48%)	(50%)

출처: 성남시청소년재단 내부 자료 재정리

3) 성남시 자치구별 청소년 인구 수

다음은 성남시 전체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지역에 따라 2015~2019년 간 연령에 따른 청소년 인구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성남시의 9~24세 전체 청소년 수의 경우 2019년 160,487명으로 2015년 184,179명 이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9~24세 전체 청소년의 경우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모두 감소하는 추세이나 2015년 대비 2019년 증감률로 중원구가 24% 감소, 분당구가 11%감소, 수정구가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12세의 경우 성남시 전체 2019년 청소년 수는 33,903명으로 2015년 34,609명에 비해 대략 2%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9~12세 청소년의 경우 중원구는 2015년 대비 2019년 15.5%로 감소하였고 분당구의 경우 미약하게 0.6% 감소하였으나 수정구는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18세 청소년 수의 경우 성남시 전체 2019년 54,077명으로 2015년 68,859명에 비해 21.5% 감소하였으며 중원구에서 2015년 대비 2019년 대략 32%로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19~24세 청소년 수는 성남시 2019년 기준 72,507명으로 2015년 80,711명 보다 10.2% 감소하였으며 2015년 대비 2019년 수정구의 경우 19~24세 청소년 인구수가 거의 변하지 않았으나, 중원구는 21% 감소, 분당구는 8.9% 감소하였다.

표 IV-3. 청소년 인구 수 변화(2015~2019)

(단위: 명, %)

연령별	지역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증감률 ¹³⁾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9~24세	성남시	184,179	100%	180,238	100%	173,988	100%	166,901	100%	160,487	100%	▽12.9%
	수정구	36,392	20%	38,267	21%	37,688	22%	35,929	22%	34,955	22%	▽3.9%
	중원구	44,209	24%	40,570	23%	38,031	22%	35,691	21%	33,557	21%	▽24.1%
	분당구	103,578	56%	101,401	56%	98,269	56%	95,281	57%	91,975	57%	▽11.2%
9~12세	성남시	34,609	100%	34,544	100%	33,995	100%	33,858	100%	33,903	100%	▽2.0%
	수정구	6,108	18%	6,527	19%	6,599	19%	6,533	19%	6,690	20%	▲9.5%
	중원구	7,522	22%	7,117	21%	6,804	20%	6,564	19%	6,359	19%	▽15.5%
	분당구	20,979	61%	20,900	61%	20,592	61%	20,761	61%	20,854	62%	▽0.6%
13~18세	성남시	68,859	100%	65,518	100%	62,245	100%	58,203	100%	54,077	100%	▽21.5%
	수정구	12,484	18%	12,517	19%	11,957	19%	11,104	19%	10,449	19%	▽16.3%
	중원구	15,517	23%	13,936	21%	12,890	21%	11,647	20%	10,519	19%	▽32.2%
	분당구	40,858	59%	39,065	60%	37,398	60%	35,452	61%	33,109	61%	▽19.0%
19~24세	성남시	80,711	100%	80,176	100%	77,748	100%	74,840	100%	72,507	100%	▽10.2%
	수정구	17,800	22%	19,223	24%	19,132	25%	18,292	24%	17,816	25%	▲0.1%
	중원구	21,170	26%	19,517	24%	18,337	24%	17,480	23%	16,679	23%	▽21.2%
	분당구	41,741	52%	41,436	52%	40,279	52%	39,068	52%	38,012	52%	▽8.9%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13) 2015년 대비 2019년

4) 성남시 자치구별 천 명당 청소년 1인당 사업 수

성남시 자치구별 총 청소년 인구 수(9~24세) 대비 천 명당 1인당 사업 수를 분석해보았다. 성남시 전체로 보았을 때 2015년 1.66개 사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2.02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자치구별 천 명당 청소년 1인당 사업 수를 살펴보았을 때, 수정구는 2015년 1.79개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9년 2.26개로 대략 0.47개가 증가하였다. 중원구는 2015년 2.04개에서 2017년 1.97개로 살짝 감소하였지만 이내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천 명당 1인당 사업 수가 2.62개로 나타났다. 마지막 분당구는 2015년 천 명당 1인당 사업 수가 1.45개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8년 1.75개, 2019년 1.71개로 나타났다.

표 IV-4. 성남시 자치구별 천 명당 청소년 1인당 사업 수 추세(2015~2019)

(단위: 개)

지역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성남시	1.66	1.68	1.77	1.90	2.02
수정구	1.79	1.49	1.96	2.00	2.26
중원구	2.04	2.12	1.97	2.19	2.62
분당구	1.45	1.58	1.62	1.75	1.71

출처: 성남시청소년재단 내부 자료 재정리

5) 성남시 자치구별 청소년 1인당 사업 예산

마지막으로 성남시 자치구별 총 청소년 인구 수(9~24세) 대비 1인당 사업예산을 분석하였다. 성남시 전체 1인당 청소년 서비스 사업예산은 2015년 47,095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2015년 대비 8,815원 증가한 55,910원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살펴보면 수정구는 2015년 49,908원으로 마찬가지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56,057로 6,148원 증가하였다. 중원구는 2015년 61,971원에서

2019년 81,268원으로 19,297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원구가 수정구나 분당구에 비해 22015년 대비 2019년 인구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분당구의 1인당 사업예산은 2015년 39,757원에서 증가하는 추세로 2019년 46,603원으로 나타났다. 분당구의 경우 2015년 대비 2019년 6,846원 증가하였다.

표 IV-5. 성남시 자치구별 1인당 예산 추세(2015~2019)

(단위: 원)

지역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성남시	47,095	49,175	50,602	55,180	55,910
수정구	49,908	47,035	50,840	54,817	56,057
중원구	61,971	64,519	69,043	77,984	81,268
분당구	39,757	43,843	43,373	46,775	46,603

출처: 성남시청소년재단 내부 자료 재정리

2.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분석

청소년서비스 전달체계는 청소년시설에 의한 구조화된 청소년서비스 공급망 시스템을 말한다. 청소년정책의 유의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전달체계 구축이며, 이는 정책추진의 인프라가 되어 정책결과(policy outcome) 달성의 토대가 된다. 성남시 역시 청소년시설에 의해 구조화된 청소년서비스 공급망 시스템을 통해 청소년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성남시의 청소년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에는 청소년재단 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 보호복지시설, 교육시설 및 도서관시설 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서비스 공급망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

1) 청소년재단 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재단 시설은 청소년서비스 공급망의 기초에 해당되며 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공간(space)이자 장소(place)의 역할을 한다. 현재 성남시의 청소년재단 시설은 [표 IV-6]과 같이 총 9개의 시설로 세분화되어 있다. 청소년수련관 6곳과 청소년문화의집 2곳,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곳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역별로 각각 수정구 2곳, 중원구 3곳, 분당구 4곳으로 분포되어 있다. 각 시설별 공간 여건 및 지역 상황에 따라 수용인원에는 차이가 있는데, 그 중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이 1,430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표 IV-6. 성남시청소년재단 시설

시설명	수탁연도	수용인원	위치
수정청소년수련관	2008년	1,080명	수정구 수정로 150
중원청소년수련관	2008년	1,342명	중원구 둔촌대로 332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2010년	502명	분당구 불정로 386번길 38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2010년	931명	분당구 성남대로 407번길 12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2010년	688명	분당구 운중로 225번길 37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2019년	1,430명	분당구 벌말로 30번길 3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08년	50명	중원구 성남대로 997번길 7, 4층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2008년	184명	수정구 산성대로 483 6층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2009년	338명	중원구 성남대로 997번길 3~5층

자료: 성남시청소년재단(2021)

하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제외하고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수련시설로 다시 분류할 때, 권역별 분포는 [표 IV-7]과 같이 수정구 2곳, 중원구 2곳, 분당구 4곳이 된다. 이는 각 구별 전체인구 대비 청소년 인구 비율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수정구의 경우 전체인구 대비 청소년 인구 비율은 14.4%(34,861명)이고 중원구도 비슷한 수준인 14.6%(31,445명)이다. 반면 분당구는 18.6%(89,470명)로 가장 높다(성남시청소년재단, 2021: 22). 따라서 상대적으로 분당구에 청소년수련시설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 종류별로

보면, 수정구와 중원구에는 각각 1개소의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으나 분당구에는 미설치되어 있다. 한편, 수정구에는 민간운영 청소년문화의집(금광청소년문화의 집) 1개소가 있다.

표 IV-7. 권역별 성남시 청소년수련시설

구 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총 합
전 체		6개소	2개소	8개소
원도심	수정구	수정청소년수련관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2개소
	중원구	중원청소년수련관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2개소
신도심	분당구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	4개소

자료: 성남시청소년재단(2021)

각 권역별로 시설 당 평균 청소년서비스 인구는 [표 IV-8]과 같다. 성남시의 경우 1개 시설 당 평균 청소년서비스 인구는 19,472명이다. 이는 전체 평균에 해당하는 것으로 권역별로는 차이가 있다. 수정구와 중원구의 경우 각각 17,430명과 15,722명으로 전체 평균인 19,472명보다는 적은 편에 속하지만, 분당구는 비록 수련시설 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1개 시설 당 평균 청소년서비스 인구는 22,367명으로 전체 평균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표 IV-8. 권역별 시설 당 평균 청소년 서비스 인구

구 분		수련시설 수 (개소)	청소년 인구 대비 권역별 서비스 인구(명)		비고
			청소년 인구	1개 시설당 평균 청소년 서비스 인구	
전 체		8	155,776	19,472	
원도심	수정구	2	34,861	17,430	
	중원구	2	31,445	15,722	
신도심	분당구	4	89,470	22,367	전체 평균 초과

자료: 성남시청소년재단(2021)

이에 대해 경기도 내 청소년 인구 10만 명 이상의 7개 시(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화성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산시)와 비교해보면, [표 IV-9]와 같이 성남시가 1개 시설당 평균 청소년 서비스 인구가 가장 적다. 물론 지역별 청소년수련시설의 개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비슷한 개소를 보이고 있는 수원시보다도 적고 또 청소년 인구가 비슷한 화성시보다도 적다.

표 IV-9. 경기도 내 시설당 평균 청소년서비스 인구 비교

구 분	수련시설 수(개소)	청소년 인구 대비 권역별 서비스 인구(명)	
		청소년 인구	1개 시설당 평균 청소년 서비스 인구
성남시	8	155,776	19,472
수원시	8	215,413	26,926
용인시	5	203,738	40,747
고양시	5	187,538	37,507
화성시	3	155,304	51,768
부천시	6	131,266	21,877
남양주시	1	128,921	128,921
안산시	6	120,785	20,130

자료: 성남시청소년재단(2021)

하지만 서울시 자치구와 비교해 보면 성남시의 청소년수련시설 당 평균 청소년 서비스 인구는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없다. 서울시 자치구 중 청소년수련시설 4개소 이상을 가지고 있는 8개 자치구(송파구, 강남구, 노원구, 은평구, 동작구, 마포구, 영등포구, 중구)에 대한 비교 결과를 보여주는 [표 IV-10]을 보면, 비록 서울시 전체와 비교하면 성남시의 평균 수치가 더 적은 편이지만 이는 전체 청소년 인구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성남시 권역별로 시설당 평균 청소년서비스 인구를 보면, 동작구, 마포구, 영등포구, 중구보다는 성남시의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가 더 많은 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0. 성남시와 서울시 자치구의 시설당 청소년서비스 인구 비교

구 분	수련시설 수(개소)	청소년 인구 대비 권역별 서비스 인구(명)	
		청소년 인구	1개 시설당 평균 청소년 서비스 인구
성남시	8	155,776	19,472
수정구	2	34,861	17,430
중원구	2	31,445	15,722
분당구	4	89,470	22,367
서울시	61	1,848,657	30,305
송파구	4	105,170	26,292
강남구	4	97,656	24,414
노원구	4	84,162	21,040
은평구	4	71,818	17,954
동작구	4	58,088	14,522
마포구	4	56,642	14,160
영등포구	5	48,631	9,726
중구	4	15,108	3,777

자료: 성남시청소년재단(2021)

2) 청소년 보호복지시설

청소년 보호복지시설은 청소년의 성장과 취약성 보완 및 보호를 위한 기본시설로써 청소년서비스 공급망 시스템의 주요 축에 해당한다. 현재 성남시 청소년 보호복지시설은 크게 학교 밖 배움터, 청소년쉼터, 지역아동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시설의 개소를 모두 합하면 총 64개소이다. 따라서 성남시는 청소년보호 복지를 위한 총 64개소(수정구 30개소, 중원구 22개소, 분당구 12개소)의 청소년 서비스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성남시의 학교 밖 배움터는 총 5개소이다. [표IV-11]에서 볼 수 있듯이 수정구에 4개소가 있고 중원구에 1개소가 있다. 반면 분당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최초 2001년에 1개소가 설립된 후 2011년 이후에 나머지가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표 IV-11. 성남시 학교 밖 배움터

시설명	설립연도	연락처	위치
디딤돌 학교	2001년	031-755-4080	수정구 탄리로 9, 3층
이음과 배움	2013년	031-754-1813	수정구 탄리로 9, 4층
해냄학교	2011년	031-755-7490	중원구 둔촌대로 151, 2층
일하는 학교	2013년	031-753-6584	수정구 수정로 238, 4층
바람개비 스쿨	2012년	031-751-4965	수정구 삼성대로 287, 3층

자료: 성남시청소년재단(2021)

성남시 청소년쉼터 역시 총 5개소이다. [표 IV-12]에서 알 수 있듯이 수정구 3개소와 중원구 2개소로 이루어져 있고, 분당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청소년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그 특성상 성별로 구분되어 운영하고 있다. 수정구에는 남성, 중원구에는 여성 쉼터로 각각 나누어져 운영되고 있고 성별로 동일한 운영주체가 담당하고 있다.

표 IV-12. 성남시 청소년쉼터

시설명	운영주체	연락처	위치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 (남자)	안나의집	031-722-6260	수정구 위례서일로 12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 (여자)	청소년이아름 다운세상	031-758-1213	중원구 마지로 29
성남시일시청소년쉼터	청소년이아름 다운세상	031-758-1388	수정구 탄리로 80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 (남자)	안나의집	031-752-9050	수정구 위례서일로 12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 (여자)	청소년이아름 다운세상	031-758-1720	중원구 원터로 106번길 4

자료: 성남시청소년재단(2021)

또 다른 청소년 보호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52조). 따라서 청소년 역시 이 시설을 통해 청소년보호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현재 성남시의 지역아동센터는 총 54개소이다. [표 IV-13]은 그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수정구에는 총 23개소, 중원구에는 19개소, 분당구에는 12개소가 위치하고 있어서 이를 통해 청소년서비스 공급망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표 IV-13. 성남시 지역아동센터(일부)

시설명	운영주체	연락처	위치
금광동푸른학교 지역아동센터	푸른학교	031-734-4483	중원구 광명로 374
놀이세상지역아동센터	개인	031-722-0409	수정구 탄리로 132번지 8
단대우리지역아동센터	고앤두	031-752-3678	수정구 논골로 17
도담분당동지역아동센터	함께여는교육연구소	031-8017-0346	분당구 장안로62번길 38
도담태평동지역아동센터	봄뜰을가꾸는사람들	031-722-1318	수정구 남문로 134
도촌지역아동센터	KYC한국청년연합 성남지부	031-722-1121	중원구 도촌남로 148
두란노지역아동센터	개인	031-746-6976	중원구 산성대로 552번길 6
레인보우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숲과 나무	031-758-9191	수정구 수정로 221번길 5-1

자료: 성남시청소년재단(2021)

3) 교육시설과 도서관

학교는 교육시설의 대표로써 제도권 내 청소년서비스 공급의 기본이자 의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표 IV-14]에서처럼 성남시에는 초등학교 72곳, 중등학교 45곳, 고등학교 36곳, 대학교 5곳, 특수학교 2곳, 기타학교 2곳이 있다. 양적 인구

따른 결과이겠지만 분당구에 초·중·고등학교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 학급 수는 총 3,823개이고, 학교당 평균 학급 수는 초등학교 25.3개, 중등학교 18.2개, 고등학교는 30.5개, 특수학교 35개, 기타 9개로 구성되어 있다(성남시청소년재단, 2021: 27).

표 IV-14. 성남시 교육시설

구분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성남시 전체	72	45	36	5	2	2
수정구	18	10	5	4	1	1
중원구	17	9	6	1	-	-
분당구	37	26	25	-	1	1

출처: 성남시청소년재단(2021)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해 설립하는 것으로 그 이용범위에 당연히 청소년도 포함된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은 청소년서비스 공급 및 전달의 주요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성남시 도서관은 총 45개이며 이 중 공공도서관은 15개, 공립작은도서관이 30개이다. 수정구는 총 16개의 도서관이 있으며 중원구는 11개, 분당구는 18개의 도서관이 있다. 권역별 인구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분당구에 도서관이 적은 편이다. [표 IV-15]는 성남시 도서관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15. 성남시 도서관

구분	공공도서관	공립작은도서관
성남시 전체	15	30
수정구	4	12
중원구	3	8
분당구	8	10

출처: 성남시청소년재단(2021)

3.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거버넌스 현황 분석

과거와 달리 오늘날 공공서비스는 거버넌스에 기초해서 공급 및 전달되고 평가도 이루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거버넌스란, “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행위자들(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시스템 및 관리 과정”(Emerson et al., 2012), “공공기관이 공식적 협력과정으로서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민간영역의 이해관계자와 상호작용하면서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Ansell and Gash, 2008) 등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관료제 단독 혹은 계층제적 공공관리가 아닌 정부와 시민사회와 시장 영역이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국(시)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로 거버넌스에 의한 것이다(김민주, 2017).

청소년서비스 역시 거버넌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남시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제도적 장치로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성남시에는 청소년의 성장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위한 거버넌스, 기타 청소년 관련 민관협의 및 의견수렴 과정 등을 구성하고 있다.

1) 청소년의 성장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성남청소년균형동반협의체

성남청소년균형동반협의체는 성남시 청소년의 성장 지원을 위해 구성된 청소년 서비스 거버넌스의 하나이다. 성남청소년균형동반협의체는 성남시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의제 발굴 및 토의와 지역자원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사실, 그동안 부처 및 지자체 교육청 사업의 유사중복과 청소년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보호 정책이 각각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서비스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청소년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단위 사업 중심으로 분절 또는 단절되어 추진되던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역 교육청의 청소년 관련 정책사업과 서비스 전문 인력 전문기관 등을 연계하여 지역의 청소년 성장 지원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 지원 거버넌스로서 성남청소년균형동반협의체인 것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성남청소년균형동반협의체는 2020년 7월에 성남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경기도성남교육청이 차별 없는 성남시 청소년 정책 수립과 의제발굴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으며 출범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자원과 연계가 필요한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구성 및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남시의 경우 [표 IV-16]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성남청소년균형동반 실무회의를 별도로 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성남시청소년국악관현악단 가현, 함께여는 청소년학교, 한솔종합사회복지관, 성남시수정지역청소년센터, 성남위례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15곳으로 구성되어 있다(성남시청소년재단, 2020).

표 IV-16. 성남청소년균형동반협의체 구성

구분	소속	구분	소속
위원장	성남시	부위원장	성남시청소년재단
위원	성남시청소년의회	위원	성남교육지원청
위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위원	안나의집
위원	성남이로운재단	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원	스마일게이트	위원	한국잡월드

출처: 성남시청소년재단(2020)

성남청소년균형동반협의체에서는 그 기능에 부합하게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공유 및 조정, 청소년 관련 지역현안을 논의·협력 등을 해오고 있다. 특히 그동안 성남청소년균형동반협의체는 청소년활동, 보호·복지, 청소년참여 등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자원맵 시스템(위드밸런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청소년서비스 거버넌스의 내실 있는 운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청소년균형동반협의체의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과와 더불어 성남청소년균형동반협의체는 중장기 목표 8개를 설정하여 보다 통합적인 협의체가 되어 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지역생태계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표 IV-17]은 성남청소년균형동반협의체의 중장기 목표 8개를 나타낸 것이다.

표 IV-17. 성남청소년균형동반협의체는 중장기 목표

구분	중장기 목표	
1	온라인 자원맵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분기별 청소년 욕구 조사 네트워크 자원(프로그램, 시설) 등 업데이트(계속)
2	실무자회의 참석 기관 25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125% ↑)	
3	실무자회의 총9회 실시(180%) 향상	
4	시범사업 협의회 회의 연2회 실시(상·하반기)	
5	지역자원 연계프로그램 480개까지 추가(107%)	
6	신규자원 발굴 3% 향상	
7	워크숍 운영(참가기관 역량 강화 및 원활한 네트워크 구축)	
8	청소년 성장 지원 예산 확보	

출처: 성남시청소년재단(2020)

2)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위한 거버넌스: 성남시청소년의회

성남시청소년의회는 성남시 청소년이 안전, 교육, 환경, 문화, 인권 등의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하고 논의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는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협치에 의한 시정정책운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제공의 거버넌스 모습을 띠고 있다.

「성남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성남시청소년의회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으로 의원을 구성한다. 이때 연령이나 거주 지역 및 성별 등을 안배하여 선정하며 의원의 임기는 1년이지만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성남시청소년의회는 성남시 청소년 대표활동 및 청소년정책 제안 및 모니터링, 청소년 정책과제 발굴 및 시정 정책 반영, 청소년 정책 및 사업·예산·입법·제안, 청소년 의견수렴 및 현안조사, 청소년 참여의 장 발굴 등의 활동을 한다(성남시청소년의회, 2021).

2015년에 제1대 성남시청소년의회가 시작된 이후 입법 및 정책 제안과 실제 반영을 통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표 IV-18]과 같이 그동안 57건의 입법 및 정책 제안을 하였고 실제 반영된 사례도 3건이 있다. 「성남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성남시장은 성남시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성남시청소년의회를 통한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위한 거버넌스 운영은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표 IV-18. 성남시청소년의회 성과

구분	입법(정책) 제안 건수	입법(정책) 반영 건수	입법(정책)반영 내용
제1대 성남시청소년의회	9	1	(성남시조례 -제3007호 성남시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제정)
제2대 성남시청소년의회	10	-	
제3대 성남시청소년의회	13	1	(성남시조례 -제3212호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
제4대 성남시청소년의회	13	1	효성고등학교 통학여건 개선 - 버스 증차 및 연차 운영,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등
제5대 성남시청소년의회	12	-	

출처: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2021) 자료 재구성

3) 기타 청소년관련 민관협의 및 의견수렴 과정

그 외 기타 청소년서비스 거버넌스와 관련된 민관협의 및 의견 반영을 위한 여러 장치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면 성남시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 시의회,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지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11조).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때도 청소년·교육 분야 제안 사업에 대한 청소년 의견 수렴 및 심의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청소년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6조).

또 성남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역의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들(교육장 및 경찰서장과 관계기관 공무원, 청소년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예술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청소년) 이 위원이 되도록 하고 있고(「성남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제2조), 성남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으로도 다양한 사람들(청소년·문화예술관련 전문가, 교수, 주민대표, 관계공무원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성남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이는 청소년 서비스 공급과 전달과정에서 관료제 단독의 시정운영이 아닌 협력기반의 거버넌스에 의해 운영되는 다양한 모습이자 노력에 해당한다.

○———— V.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남형 청소년서비스의 수요분석

- 1. 사업영역별 청소년서비스 분석
- 2.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삶의 변화와
청소년서비스 수요분석
- 3.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성남형 청소년
서비스의 미래 변화방향
- 4.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종합 진단

1. 사업영역별 청소년서비스 분석

1) 최근 6년간 성남시 청소년 사업의 추이 분석

최근 6년간 각 연도별 청소년 사업을 포함한 것으로 세출결산서를 바탕으로 세출결산액 0원 이상의 청소년 활동사업(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참여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학교연계활동), 청소년복지보호사업(방과후 지원 활동, 위기청소년 지원활동, 지역사회 연계활동, 도서관 관련활동, 청소년 상담활동), 청소년 특화사업(특화활동), 평생교육사업, 생활체육사업, 시설운영사업(시설 용역관리, 대관, 홍보활동, 시설운영활동), 국도비보조사업을 포함하였다. 다만 공모사업 및 기부금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을 분류할 수 있는 경우에만 포함하였다.¹⁴⁾

성남시 청소년 사업 관련 각 6개년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357개, 2016년 369개, 2017년 389개, 2018년 399개, 2019년 421개, 2020년 285개로 2015년 이후 점차 증가하다 2020년 감소하였다. 사업예산의 경우 2015년 106억 3천 6백만 원, 2016년 125억 8천 1백만 원, 2017년 119억 3백만 원, 2018년 122억 7천 5백만 원, 2019년 124억 9천 1백만 원, 2020년 88억 1천 5백만 원으로 100억에서 120억대를 유지하다 2020년 약 88억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14) 세출결산서에 작성된 세출결산액 0원 이상의 수행된 사업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의 전체 사업 수와 예산 비용이 다를 수 있음을 명시한다.

표 V-1. 성남시 청소년 사업 6개년 현황

(단위: 천원, 개)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사업 수	357	369	389	399	421	285
사업예산	10,636,437	12,581,085	11,903,664	12,275,320	12,491,675	8,815,433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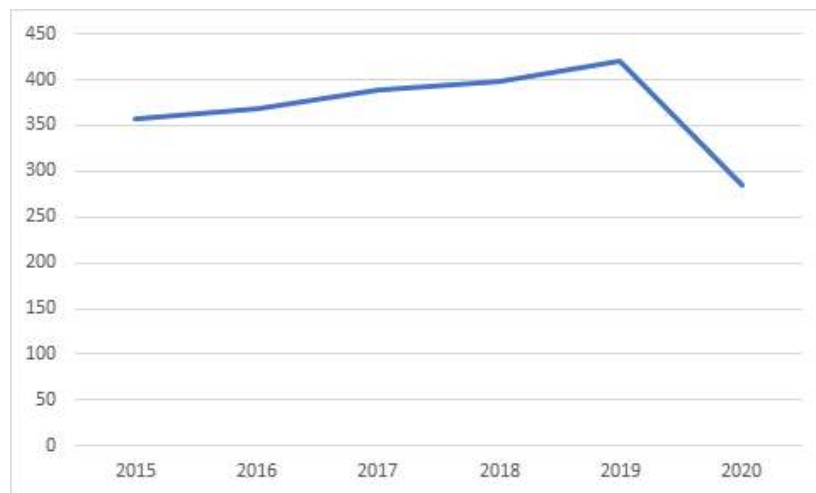


그림 V-1. 성남시 청소년 사업 수 6개년 현황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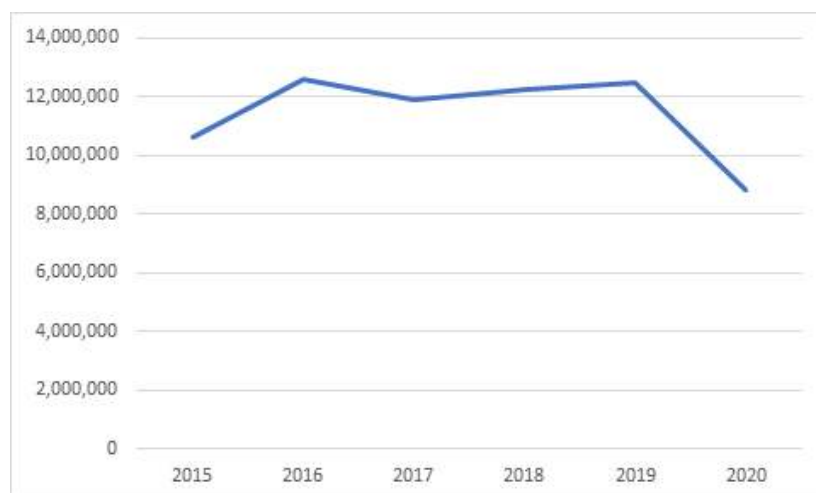


그림 V-2. 성남시 청소년 사업 예산 6개년 현황

2)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정책목표에 따른 성남시 사업 분석

(1)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

여성가족부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로 크게 4대 영역과 12개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그림 V], 참조), 4대 영역으로 ① 영역1: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② 영역2: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③ 영역3: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④ 영역4: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혁신으로 선정하였다.

‘영역1: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은 ‘청소년 참여 확대(1-1)’,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1-2)’,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1-3)’을 중점과제로 명시하고 있다. ‘영역1: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의 경우 다른 정책목표보다 뚜렷하게 2015년 후로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015년의 11.5%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0년 21.4%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영역1: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의 예산은 2016년과 2017년 7~8% 수준을 유지하다 점차 감소하여 2020년 4% 수준으로 가장 적었다.

‘영역2: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는 ‘청소년활동 및 성장 지원 체계 혁신(2-1)’, ‘청소년체험활동 활성화(2-2)’,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체계 강화(2-3)’를 중점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정책목표에 따른 성남시의 청소년 사업 수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영역2: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가 각 연도별 대략 190개~200여 개로 가장 많았다. ‘영역2: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는 2015년부터 대략 50% 수준을 상회하며 비슷한 수준으로 수행되었으나 2020년 43.9%로 사업비중이 감소하였다.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수와 비례하게 ‘영역2: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가 연도별 전체 사업예산에 대략 60%를 상회하며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영역3: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는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3-1)’, ‘대상별 맞춤형 지원(3-2)’,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3-3)’을 중점과제

로 포함한다. ‘영역3: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는 2015년에 16%의 사업비 중을 차지하다 2017년 11.8%까지 감소하고,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20년 18.6%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영역3: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는 성남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업예산을 차지하는 정책목표로 2015년 18.4% 수준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2020년 26.3%까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영역4: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혁신’은 ‘청소년 정책 총괄·조정 강화(4-1)’, ‘지역 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4-2)’, ‘청소년지도사 역량 제고(4-3)’이 중점과제에 해당한다. ‘영역4: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혁신’의 경우 연도별 편차는 있지만 대략 전체 사업 수의 15~20%를 상회하며 연도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영역4: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혁신’의 경우 2015년 전체 사업의 15%를 차지하다 점차 감소하여 2020년 9.3%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V-2.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정책목표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

(단위: 개, %, 원)

분류	영역	세부 분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사업 수	영역1	사업 수	41	50	67	77	78	61
		비중	(11.5%)	(13.6%)	(17.2%)	(19.3%)	(18.5%)	(21.4%)
	영역2	사업 수	194	204	218	214	217	125
		비중	(54.3%)	(55.3%)	(56.0%)	(53.6%)	(51.5%)	(43.9%)
	영역3	사업 수	57	47	46	49	58	53
		비중	(16.0%)	(12.7%)	(11.8%)	(12.3%)	(13.8%)	(18.6%)
	영역4	사업 수	65	68	58	59	68	46
		비중	(18.2%)	(18.4%)	(14.9%)	(14.8%)	(16.2%)	(16.1%)
	전체	사업 수	357	369	389	399	421	285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예산	영역1	예산	350,755,359	1,018,613,410	818,707,853	662,531,040	471,488,940	334,470,590
		비중	(3.3%)	(8.1%)	(6.9%)	(5.4%)	(3.8%)	(3.8%)
	영역2	예산	6,761,531,682	7,805,504,790	8,221,589,410	8,298,049,510	8,502,725,400	5,337,897,811
		비중	(63.6%)	(62.0%)	(69.1%)	(67.6%)	(68.1%)	(60.6%)
	영역3	예산	1,953,724,676	2,149,159,990	2,015,421,000	2,462,283,086	2,529,348,830	2,321,703,260
		비중	(18.4%)	(17.1%)	(16.9%)	(20.1%)	(20.2%)	(26.3%)
	영역4	예산	1,570,424,920	1,607,807,190	847,945,300	852,456,800	988,111,700	821,361,520
		비중	(15.0%)	(12.8%)	(7.1%)	(6.9%)	(7.9%)	(9.3%)
	전체	예산	10,636,436,637	12,581,085,380	11,903,663,563	12,275,320,436	12,491,674,870	8,815,433,181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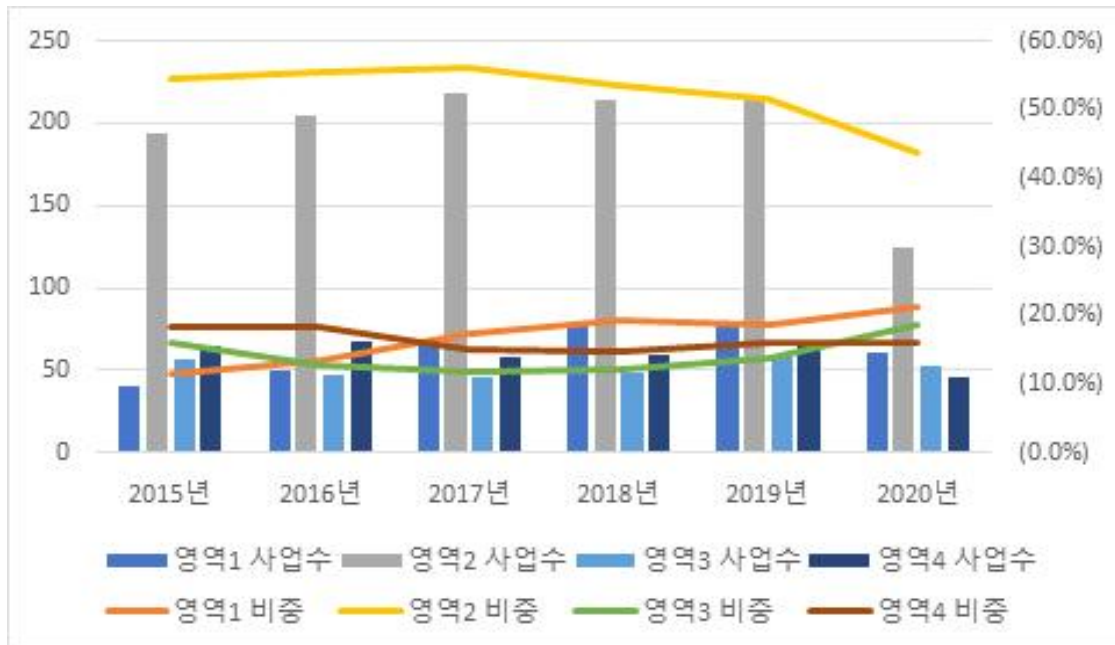


그림 V-3.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영역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 수

(단위: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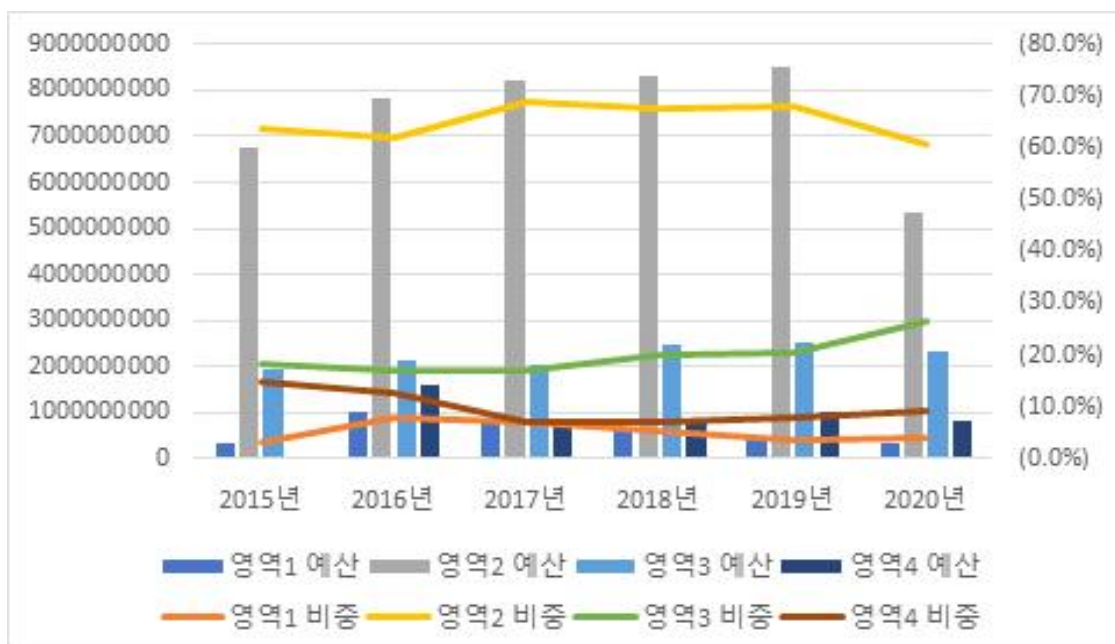


그림 V-4.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영역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예산

(2)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영역1에 따른 성남시 사업 분석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첫 번째 영역은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으로 ‘청소년 참여확대(1-1)’,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조성(1-2)’, ‘청소년민주시민 성장지원(1-3)’을 중점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 참여확대(1-1)’는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참여 확대, 학교에서의 참여 및 권익 증진, 청소년 참여 방식의 다변화를 포함한다. 이를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의회 등 설치·운영 증진과 청소년동아리·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성남시의 청소년서비스 사업으로 ‘성남시 청소년의회 운영’, ‘청소년동아리지원’, ‘자치기구 연합활동’, ‘대학생봉사단’,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이 해당된다. ‘청소년 참여확대(1-1)’ 중점과제의 사업 수의 경우 6년 동안 대략 70~80%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실행되고 있다. ‘청소년 참여확대(1-1)’ 중점과제의 사업예산으로는 2016년과 2017년 34%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20년 60.9%로 다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조성(1-2)’은 청소년 인권 및 권리 의식 제고와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예방 및 보호, 아동·청소년의 여가권 신장, 청소년 정신 건강권 보호, 청소년 신체 건강권 보장을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조성(1-2)’에 관한 성남시의 사업은 청소년노동인권보호및증진사업, 청소년문화플랫폼, 청소년문화놀이터, 학교폭력캠페인과 같이 청소년 근로 권익 인식 증진과 여가권 신장, 정신권 보호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여가 공간과 상담 또한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1-2)’의 사업 수는 많지 않지만 2016년 70,192,040원(6.9%)에서 2020년 107,883,240원(32.3%)으로 계속하여 증가하였다. 특히 성남시는 2020년에 마을·청년 공유 플랫폼 「플레이스」를 통해 청소년의 공유공간을 통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여가 공간 확충을 이루고 있다.

‘청소년민주시민 성장 지원(1-3)’은 민주시민교육 등을 통한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과 양성평등 의식 제고, 청소년 인성 함양을 위한 지원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성남시의 평화학교와 인성함양프로그램, 민주시민교육 등이 ‘청소년민주시민 성장 지원(1-3)’에 해당한다. 성남시의 ‘청소년민주시민 성장 지원(1-3)’와 관련한 청소년 사업 수는 6개년 동안 큰 변화는 없지만 예산으로는 2016년과 2017년 50%를 상회했지만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였다.

표 V-3.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영역1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

(단위: 개, %, 원)

분류	영역	세부 분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사업 수	1-1	사업 수	31	40	48	61	60	51
		비중	(75.6%)	(80.0%)	(71.6%)	(79.2%)	(76.9%)	(83.6%)
	1-2	사업 수	7	4	9	9	9	7
		비중	(17.1%)	(8.0%)	(13.4%)	(11.7%)	(11.5%)	(11.5%)
	1-3	사업 수	3	6	10	7	9	3
		비중	(7.3%)	(12.0%)	(14.9%)	(9.1%)	(11.5%)	(4.9%)
	영역1	사업 수	41	50	67	77	78	61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예산	1-1	예산	241,856,209	350,283,780	275,872,753	344,257,680	275,097,310	203,576,830
		비중	(69.0%)	(34.4%)	(33.7%)	(52.0%)	(58.3%)	(60.9%)
	1-2	예산	104,071,830	70,192,040	133,467,830	155,003,920	141,856,480	107,883,240
		비중	(29.7%)	(6.9%)	(16.3%)	(23.4%)	(30.1%)	(32.3%)
	1-3	예산	4,827,320	598,137,590	409,367,270	163,269,440	54,535,150	23,010,520
		비중	(1.4%)	(58.7%)	(50.0%)	(24.6%)	(11.6%)	(6.9%)
	영역1	예산	350,755,359	1,018,613,410	818,707,853	662,531,040	471,488,940	334,470,590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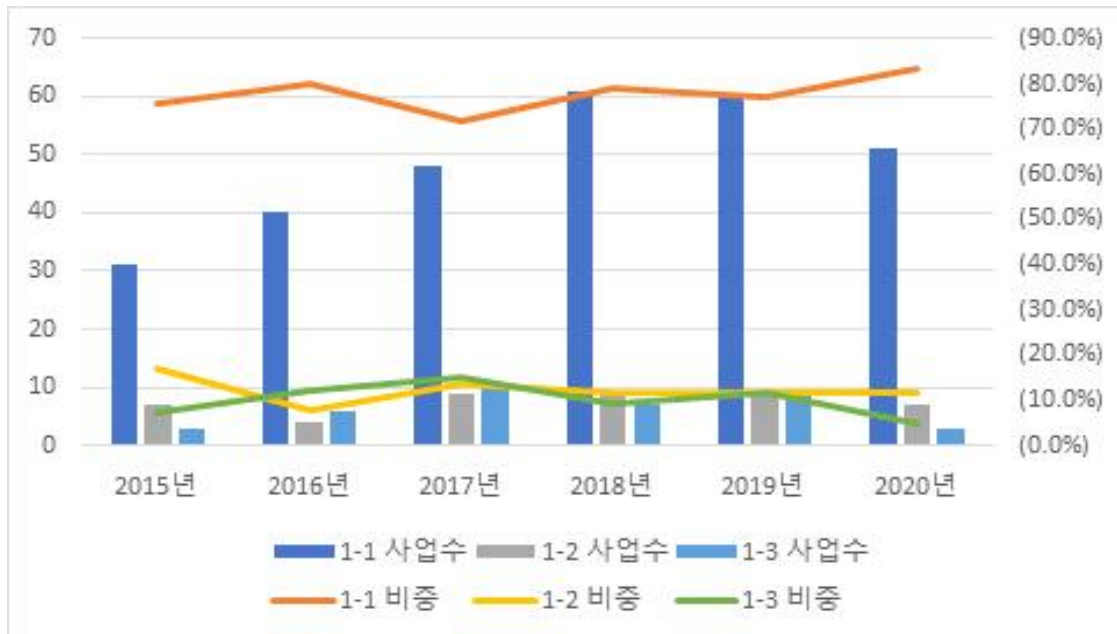


그림 V-5.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영역1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 수

(단위: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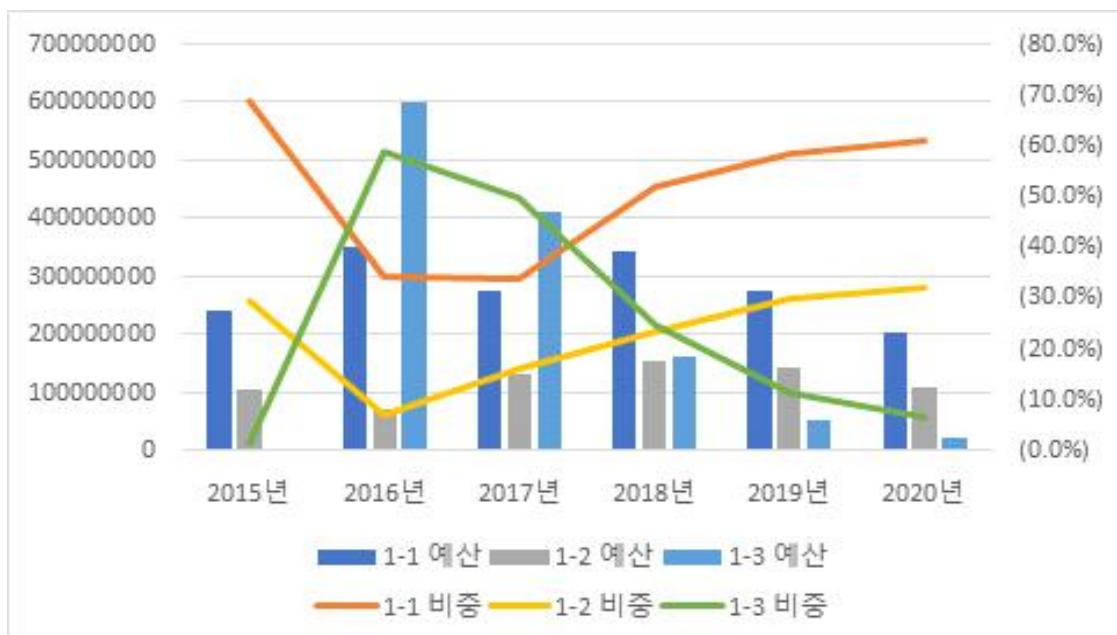


그림 V-6.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영역1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예산

(3)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영역2에 따른 성남시 사업 분석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두 번째 영역은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로’ ‘청소년활동 및 성장 지원 체계 혁신(2-1)’, ‘청소년체험활동 활성화(2-2)’,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체계 강화(2-3)’를 중점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청소년활동 및 성장 지원 체계 혁신(2-1)’은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 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 활성화, 과학기술·산업 분야 핵심인재 양성, 수요자 중심으로 청소년활동 인프라 재구조화를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활동 및 성장 지원 체계 혁신(2-1)’과 관련한 성남시 사업으로 과학기술·산업 분야 핵심인재 양성을 도모하기 위한 ‘성남형 ICT 융합교육’, ‘성남시청소년 창의과학축제’, ‘미래역량 함양 프로젝트’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 활성화 제고를 위한 ‘청소년기획봉사단’, ‘청소년문화기획단’, ‘청소년공연단’ 등을 통해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활동 및 성장 지원 체계 혁신(2-1)’의 경우 전체 사업 가운데 2016년 18.6%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2020년 16%로 감소하였으나, 사업 예산으로 보면 2015년 21.3%에서 이후 3.4%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5년 성남형교육지원사업¹⁵⁾을 ‘청소년활동 및 성장 지원 체계 혁신(2-1)’으로 포함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체험활동 활성화(2-2)’은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국제교류 활성화 및 내실화’, ‘남·북한 청소년 교류 기반 조성’, ‘청소년 체험활동 안전관리 강화’를 포함하여 청소년의 전반적인 체험활동과 관련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성남시의 관련 사업 수와 예산 또한 ‘청소년체험활동 활성화(2-2)’와 관련하여 가장 많았다. 6개년 동안 사업 수는 60% 수준이나 상회

15) 2015년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의 운영계획으로 평화학교, 성장음악 줄넘기교실, 동아리활동지원, 방과후·체능, 행복한우리반 운영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세부적으로 나누기에 한계가 있어 본 분석에서는 ‘청소년활동 및 성장 지원 체계 혁신(2-1)’에 포함하였다. 2015년 이후 세출결산서에선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명시하고 있어 예산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하였으며, 전체 예산 가운데 80%~90% 미만으로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체험활동 활성화(2-2)’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수영교실’, ‘평생교육 강좌운영’, ‘작은도서관 운영’, ‘학교 연계 체육실기 프로그램’, ‘청소년어울림마당’, ‘텔레이원정대’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 이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험활동 차량 지원’ 및 청소년시설을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사업위탁용역비’, ‘공연장유지관리비’, ‘의무실 운영’ 등이 포함되었다.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체계 강화(2-3)’는 ‘대상별 맞춤형 진로활동 내실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강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청년취업 지원 기반 강화’, ‘청년 창업 활성화’를 명시하고 있다. 성남시 또한 ‘책가방 프로젝트’,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운영’, ‘성남시 학부모 진로 아카데미’, ‘진로희망 프로젝트’, ‘청소년 진로동아리’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체계 강화(2-3)’와 관련된 사업 수의 경우 2015년 13.4%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0년 27.2%까지 증가하였다. 예산 수준은 2016년 8%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2020년 10%로 나타났다.

표 V-4.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영역2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

(단위: 개, %, 원)

분류	영역	세부분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사업 수	2-1	사업 수	54	38	36	33	31	20
		비중	(27.8%)	(18.6%)	(16.5%)	(15.4%)	(14.3%)	(16.0%)
	2-2	사업 수	114	127	137	129	134	71
		비중	(58.8%)	(62.3%)	(62.8%)	(60.3%)	(61.8%)	(56.8%)
	2-3	사업 수	26	39	45	52	52	34
		비중	(13.4%)	(19.1%)	(20.6%)	(24.3%)	(24.0%)	(27.2%)
	영역2	사업 수	194	204	218	214	217	125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예산	2-1	예산	1,441,669,070	261,885,940	245,826,930	438,537,420	265,703,260	152,404,630
		비중	(21.3%)	(3.4%)	(3.0%)	(5.3%)	(3.1%)	(2.9%)
	2-2	예산	4,848,156,715	6,892,390,080	7,195,327,710	7,112,258,690	7,555,667,390	4,635,236,660
		비중	(71.7%)	(88.3%)	(87.5%)	(85.7%)	(88.9%)	(86.8%)
	2-3	예산	471,705,897	651,228,770	780,434,770	747,253,400	681,354,750	550,256,521
		비중	(7.0%)	(8.3%)	(9.5%)	(9.0%)	(8.0%)	(10.3%)
	영역2	예산	6,761,531,682	7,805,504,790	8,221,589,410	8,298,049,510	8,502,725,400	5,337,897,811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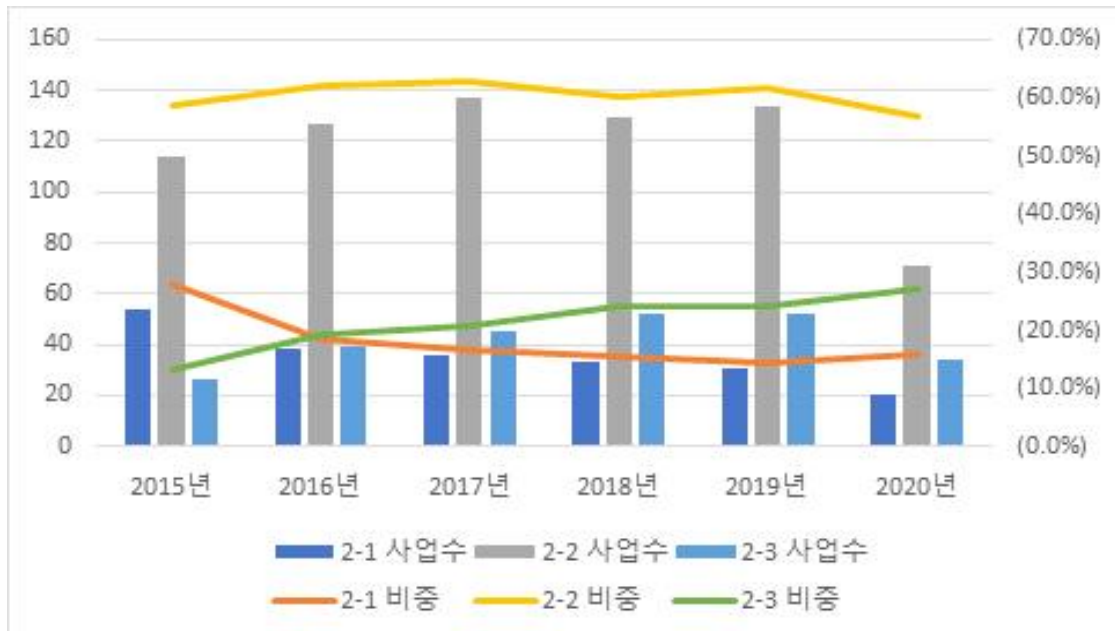


그림 V-7.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영역2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 수

(단위: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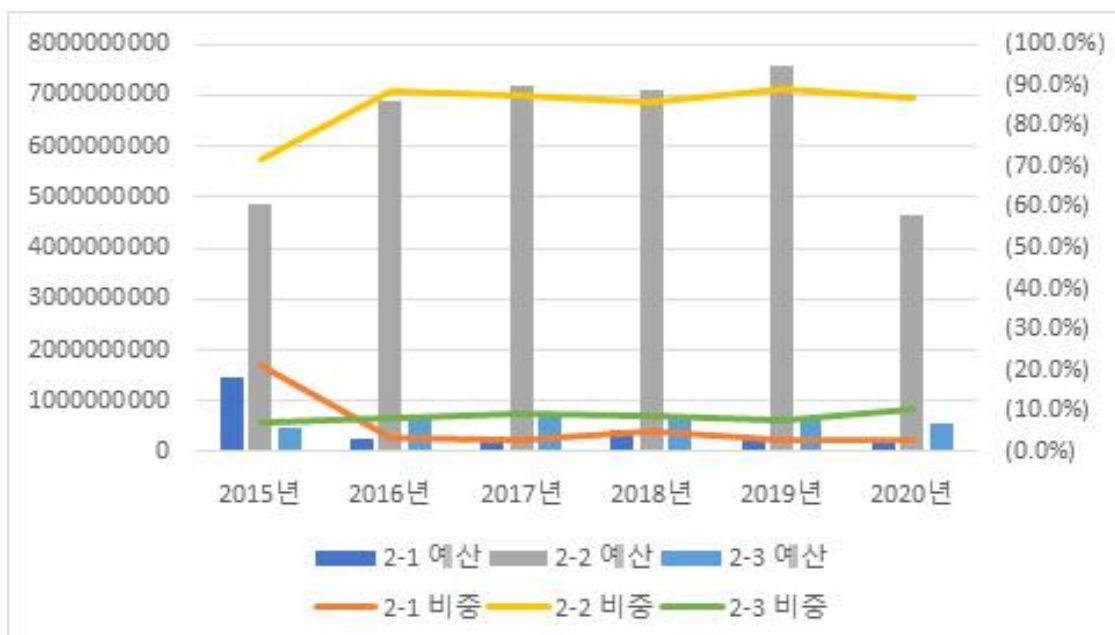


그림 V-8.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영역2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예산

(4)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영역3에 따른 성남시 사업 분석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세 번째 영역은 ‘전략3: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로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3-1)’, ‘대상별 맞춤형 지원(3-2)’,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 지원 강화(3-3)’을 중점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3-1)’은 촘촘한 청소년 복지지원체계 운영,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 확대, 청소년 폭력 예방 및 아동 안전 강화,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포함하고 있다. 성남시는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3-1)’을 위한 ‘청소년복지보호사업’, ‘상담지원프로그램’, ‘학교폭력예방상담’, ‘학교폭력예방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3-1)’과 관련한 성남시의 청소년 사업 수는 편차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체 사업 대비 38%~48%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산 수의 경우 2017년 30%에서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20년 5.8%로 나타났다.

‘대상별 맞춤형 지원(3-2)’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가출 청소년 지원 강화, 비행 청소년 재범 예방 및 회복 지원, 다문화 청소년 지원 강화, 청소년 한부모 지원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대상별 맞춤형 지원(3-2)’과 관련하여 성남시는 ‘학교밖청소년지원’, ‘장애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교밖청소년자립문화공간운영’, ‘교실 밖의 교실’, ‘다문화가정 학부모 독서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대상별 맞춤형 지원(3-2)’와 관련하여 성남시의 사업 수는 대략 50% 이상 수준으로 높았으며 예산의 경우 3-1은 감소하는 반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 지원 강화(3-3)’는 청소년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 보호,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강화를 포함한다. 성남시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사업’,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업 수나 예산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표 V-5.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영역3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

(단위: 개, %, 원)

분류	영역	세부 분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사업 수	3-1	사업 수	27	22	22	19	28	20
		비중	(47.4%)	(46.8%)	(47.8%)	(38.8%)	(48.3%)	(37.7%)
	3-2	사업 수	29	23	23	29	28	31
		비중	(50.9%)	(48.9%)	(50.0%)	(59.2%)	(48.3%)	(58.5%)
	3-3	사업 수	1	2	1	1	2	2
		비중	(1.8%)	(4.3%)	(2.2%)	(2.0%)	(3.4%)	(3.8%)
	영역3	사업 수	57	47	46	49	58	53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예산	3-1	예산	427,710,496	522,742,030	606,980,290	514,618,730	467,502,900	133,715,550
		비중	(21.9%)	(24.3%)	(30.1%)	(20.9%)	(18.5%)	(5.8%)
	3-2	예산	1,515,014,180	1,616,217,960	1,398,714,490	1,937,774,016	2,047,834,700	2,151,590,060
		비중	(77.5%)	(75.2%)	(69.4%)	(78.7%)	(81.0%)	(92.7%)
	3-3	예산	11,000,000	10,200,000	9,726,220	9,890,340	14,011,230	36,397,650
		비중	(0.6%)	(0.5%)	(0.5%)	(0.4%)	(0.6%)	(1.6%)
	영역3	예산	1,953,724,676	2,149,159,990	2,015,421,000	2,462,283,086	2,529,348,830	2,321,703,260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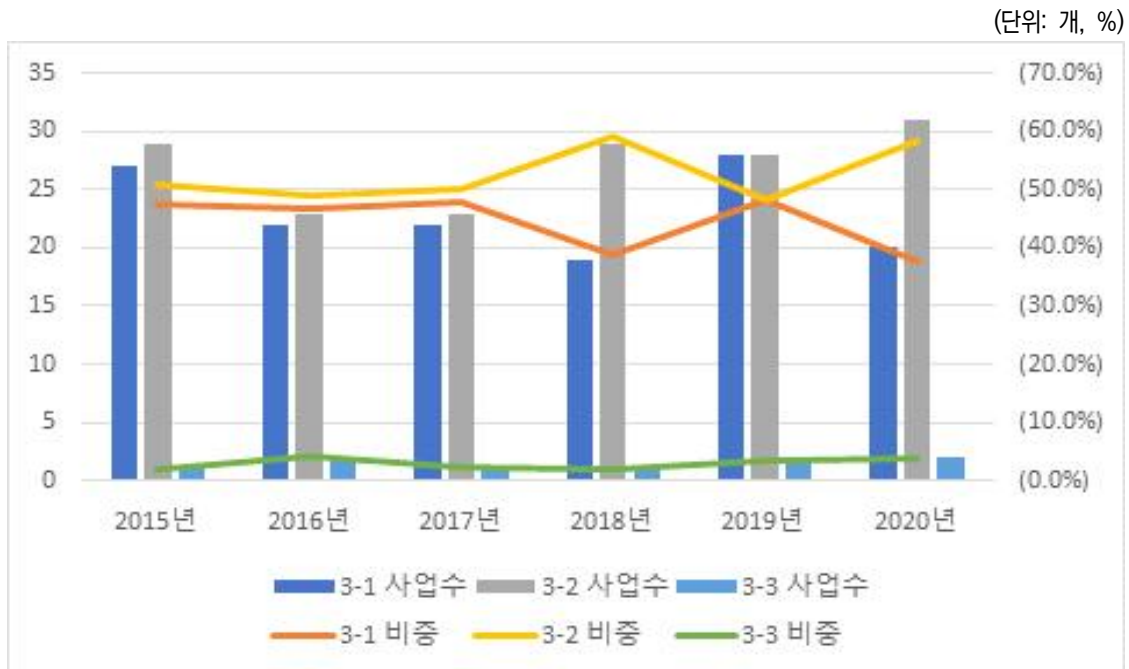


그림 V-9.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영역3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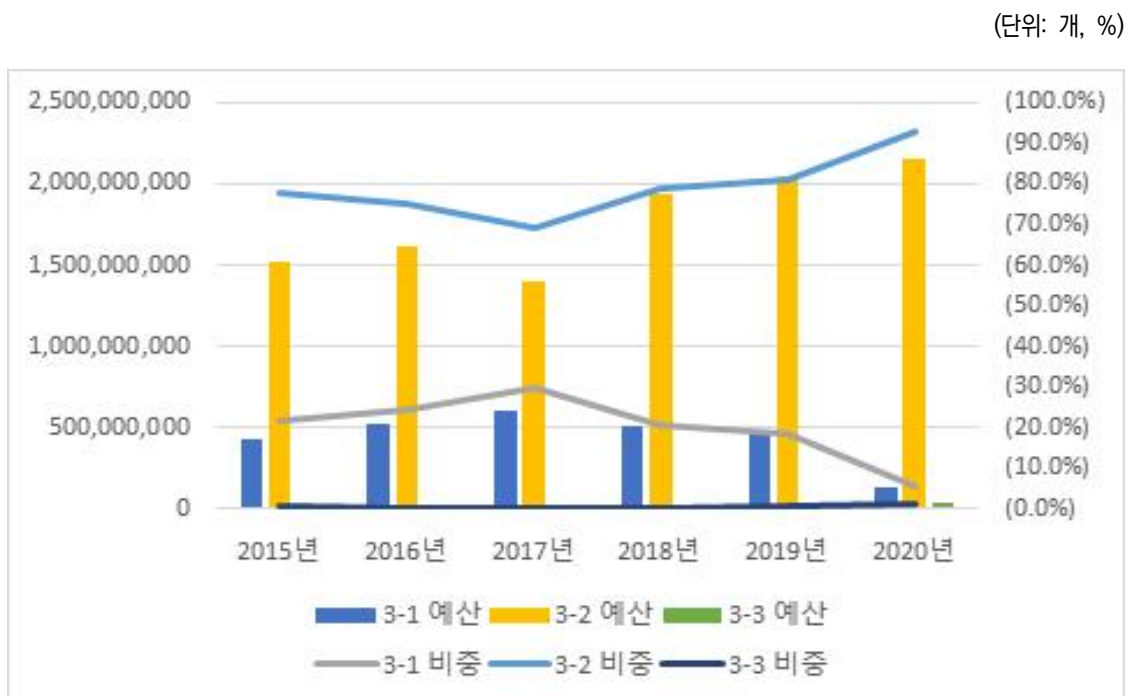


그림 V-10.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영역3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

(5)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영역4에 따른 성남시 사업 분석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마지막 영역은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혁신’으로 ‘청소년 정책 총괄·조정 강화(4-1)’, ‘지역 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4-2)’, ‘청소년지도자 역량 제고(4-3)’가 중점과제에 해당한다.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혁신’으로 ‘청소년 정책 총괄·조정 강화(4-1)’은 청소년정책의 실효성 제고, 통합형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청소년정책 위상 강화를 포함한다. 성남시는 ‘조사연구 사업’의 수행 및 ‘홍보활동’, ‘성남형교육모니터링’ 등을 통해 증거기반 정책분석(evidence-based policy evaluation)을 위한 청소년분석평가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청소년정책 추진실적 분석평가 및 피드백 강화 등을 도모하고 있다. ‘청소년 정책 총괄·조정 강화(4-1)’을 위한 성남시 사업 현황으로 사업 수는 2015년 32.3%에서 2019년 14%로 점차 감소하였으나 2020년 30.4%로 다시 증가하였다.

‘지역 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4-2)’는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지원 확대 및 운영 내실화, 지자체 청소년정책 추진 기반 강화, 청소년 사업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을 이어주는 플랫폼 마련을 포함한다. 성남시는 ‘지역 네트워크 운영’, ‘지역사회 참여프로젝트’, ‘지역 생태기관 연계’, ‘양짓말 지역 네트워크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4-2)’를 추진하고 있다. 관련 사업 현황으로는 6개년 전반적으로 사업 수나 예산 모두 2016년 이후 40% 안팎으로 유지하고 있다.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4-3)’는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강화, 청소년단체 활동의 특성화·전문화 지원 확대, 청소년단체 지도자들의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연수 확대,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등을 통한 청소년지도자 뿐만 아니라 관련 시설 종사자의 종합적인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도모하기 위한 성남시의 관련 사업으로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원, 교육훈련 사업, 재단 직원 워크숍, 강사간담회 등이 포함된다. 사업 추이로는 대략 35% 안팎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연도별 예산 편차가 있지만 최근 2020년에는 30.7%로 나타났다.

표 V-6.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영역4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

(단위: 개, %, 원)

분류	영역	세부 분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사업 수	4-1	사업 수	21	15	15	10	11	14
		비중	(32.3%)	(22.1%)	(25.9%)	(16.9%)	(16.2%)	(30.4%)
	4-2	사업 수	22	31	20	30	33	19
		비중	(33.8%)	(45.6%)	(34.5%)	(50.8%)	(48.5%)	(41.3%)
	4-3	사업 수	22	22	23	19	24	13
		비중	(33.8%)	(32.4%)	(39.7%)	(32.2%)	(35.3%)	(28.3%)
	영역4	사업 수	65	68	58	59	68	46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예산	4-1	예산	545,997,820	215,741,540	199,842,220	320,430,160	164,892,120	248,450,430
		비중	(34.8%)	(13.4%)	(23.6%)	(37.6%)	(16.7%)	(30.2%)
	4-2	예산	236,544,880	615,150,450	352,801,310	301,169,670	464,213,260	320,717,640
		비중	(15.1%)	(38.3%)	(41.6%)	(35.3%)	(47.0%)	(39.0%)
	4-3	예산	787,882,220	776,915,200	295,301,770	230,856,970	359,006,320	252,193,450
		비중	(50.2%)	(48.3%)	(34.8%)	(27.1%)	(36.3%)	(30.7%)
	영역4	예산	1,570,424,920	1,607,807,190	847,945,300	852,456,800	988,111,700	821,361,520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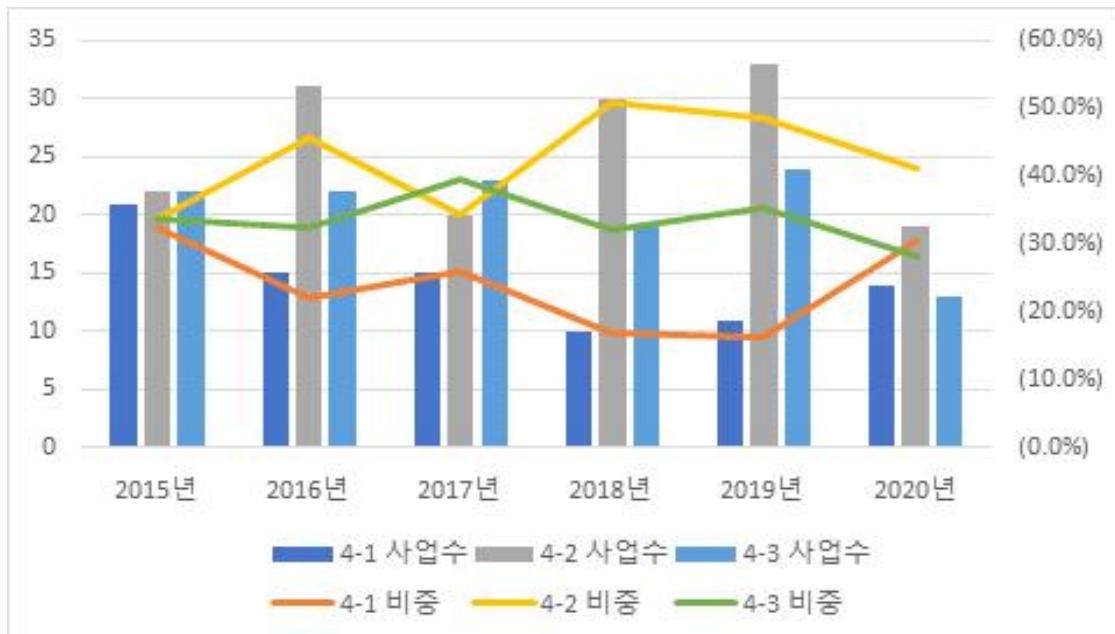


그림 V-11.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영역4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 수

(단위: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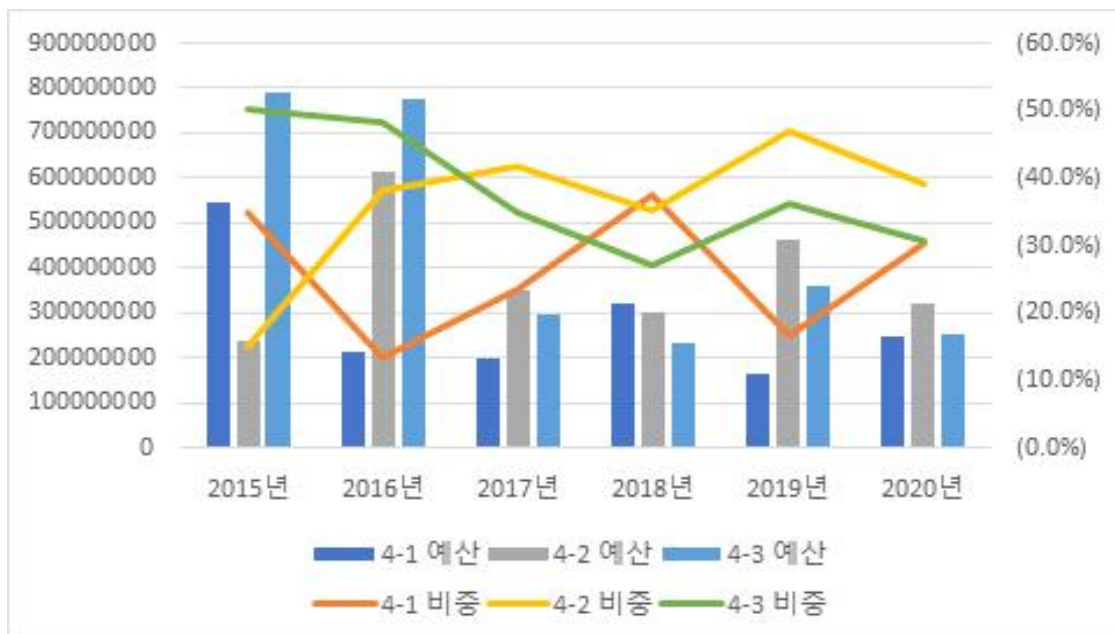


그림 V-12.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영역4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예산

3)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사업 분석

(1)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목표에 따른 성남시 사업 분석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제3차 중장기 발전계획(2019~2023)’을 통해 3대 전략목표(1. 건강하고 창의적인 시민 청소년, 2.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 플랫폼, 3. 청소년과 함께하는 재단)과 7대 전략과제(① 청소년 주도 시민 핵심역량 강화(1-1), ② 대상·현안별 맞춤 서비스 제공(1-2), ③ 적극적인 청소년 권리 보장(2-1), ④ 지역사회 청소년 플랫폼 기능 강화(2-2), ⑤ 청소년 지원 거버넌스 형성(2-3), ⑥ 청소년과 함께 하는 재단 경영(3-1), ⑦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3-2), 21개 세부 실행과제를 명시하고 있다. 본 분석에서는 먼저 3대 전략목표(1. 건강하고 창의적인 시민 청소년, 2.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 플랫폼, 3. 청소년과 함께하는 재단)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1대 전략목표로 ‘1. 건강하고 창의적인 시민 청소년’은 ‘청소년 주도 시민 핵심역량 강화(1-1)’, ‘대상·현안별 맞춤 서비스 제공(1-2)’을 포함한다. 1대 전략과제를 위한 성남시의 6개년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50% 안팎으로 상당히 3개의 전략목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사업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46.6%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30%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2대 전략목표는 ‘2.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 플랫폼’으로 ‘적극적인 청소년 권리 보장(2-1)’과 ‘지역사회 청소년 플랫폼 기능 강화(2-2)’, ‘청소년 지원 거버넌스 형성(2-3)’을 포함한다. 2대 전략과제를 위한 성남시 청소년 서비스 현황으로 대략 40%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수준으로는 2017년 이후 40% 넘어 ‘1. 건강하고 창의적인 시민 청소년’보다 예산 부문이 높게 유지되었다.

3대 전략목표는 ‘3. 청소년과 함께하는 재단’으로 ‘청소년과 함께하는 재단 경영(3-1)’과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3-2)’을 포함하고 있다. 3대 전략을 위한 성남시의 청소년 서비스 현황은 사업 수의 경우 연도별 편차는 있지만 7~8% 수준으로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예산의 경우 2015년 38.4%에서 살짝 감소하였으나 2020년 이후엔 다시 35.7%로 증가하였다.

표 V-7.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목표에 따른 성남시 사업 분석

(단위: 개, %, 원)

분류	전략	세부 분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사업 수	전략목표1	사업 수	165	185	196	223	223	134
		비중	(46.2%)	(50.1%)	(50.4%)	(55.9%)	(53.0%)	(47.0%)
	전략목표2	사업 수	157	156	164	150	167	132
		비중	(44.0%)	(42.3%)	(42.2%)	(37.6%)	(39.7%)	(46.3%)
	전략목표3	사업 수	35	28	29	26	31	19
		비중	(9.8%)	(7.6%)	(7.5%)	(6.5%)	(7.4%)	(6.7%)
	전체	사업 수	357	369	389	399	421	285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예산	전략목표1	예산	2,835,150,194	5,859,753,190	3,578,936,473	3,986,231,706	3,884,761,160	2,896,606,371
		비중	(26.7%)	(46.6%)	(30.1%)	(32.5%)	(31.1%)	(32.9%)
	전략목표2	예산	3,717,212,693	3,418,188,520	5,425,710,210	5,267,664,450	5,318,812,440	2,775,350,530
		비중	(34.9%)	(27.2%)	(45.6%)	(42.9%)	(42.6%)	(31.5%)
	전략목표3	예산	4,084,073,750	3,303,143,670	2,899,016,880	3,021,424,280	3,288,101,270	3,143,476,280
		비중	(38.4%)	(26.3%)	(24.4%)	(24.6%)	(26.3%)	(35.7%)
	전체	예산	10,636,436,637	12,581,085,380	11,903,663,563	12,275,320,436	12,491,674,870	8,815,433,181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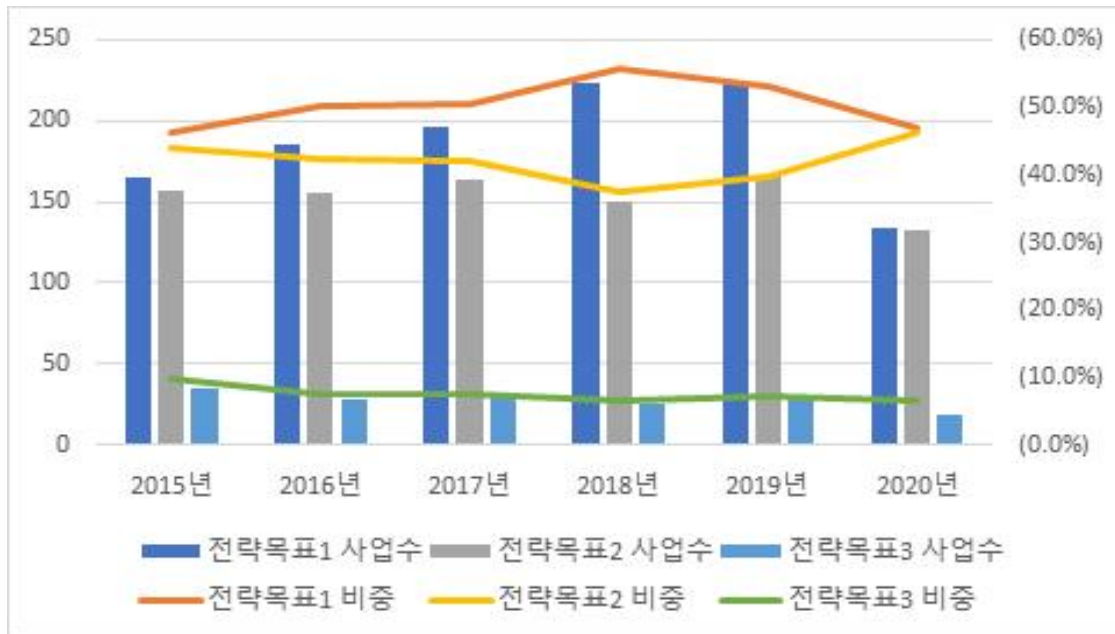


그림 V-13.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목표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 수

(단위: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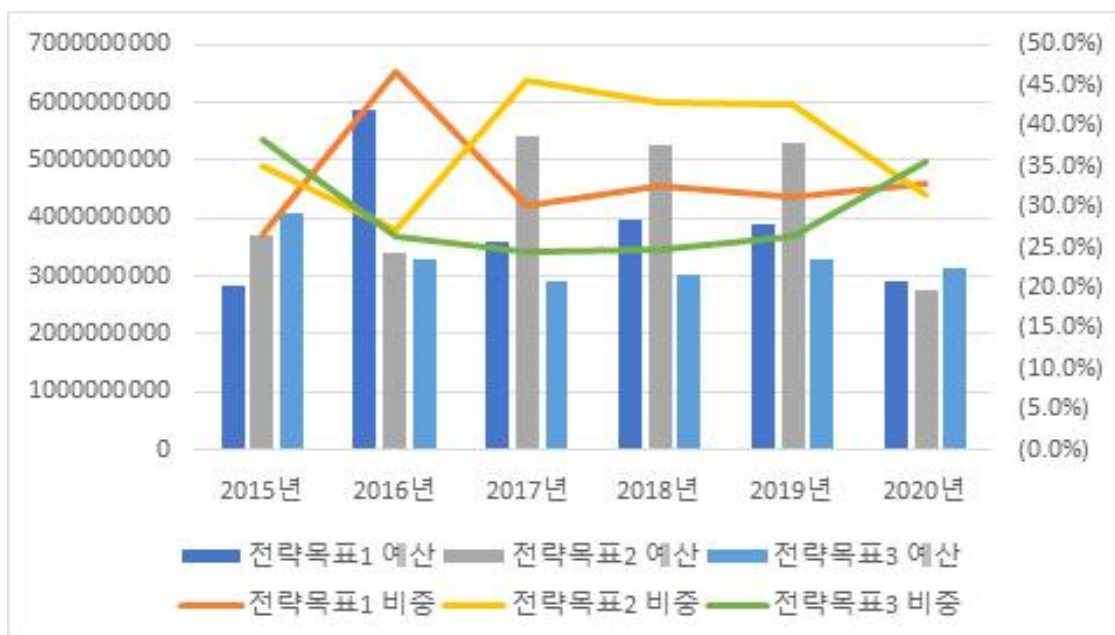


그림 V-14.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목표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예산

(2)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1-1)에 따른 성남시 사업 분석

다음은 7대 전략과제(① 청소년 주도 시민 핵심역량 강화(1-1), ② 대상·현안별 맞춤 서비스 제공(1-2), ③ 적극적인 청소년 권리 보장(2-1), ④ 지역사회 청소년 플랫폼 기능 강화(2-2), ⑤ 청소년 지원 거버넌스 형성(2-3), ⑥ 청소년과 함께하는 재단 경영(3-1), ⑦ 지속 가능 경영체계 구축(3-2))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의 ‘청소년 주도 시민 핵심역량 강화(1-1)’는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시민 핵심역량 강화(1-1-1)’와 ‘자발적 청소년 조직 구성·운영 지원체계 구축(1-1-2)’,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국제사업 전문화·다각화(1-1-3)’의 세부 실행과제를 포함한다.

성남시의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시민 핵심역량 강화(1-1-1)’를 위한 청소년 서비스 현황으로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 성남시 청소년 창의과학 축제와 꿈해공작소, 성남형 ICT 융합교육, 평화학교, 판교25통 꿈 네트워크 등이 포함된다. 사업 현황 수를 살펴보면 연도별 편차는 있으나 대략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산의 경우 2015년 21.1% 이후 2016년 52.6%로 상대적으로 지출이 커졌으며 이후 2019년(35.1%) 외에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두 번째 ‘자발적 청소년 조직 구성·운영 지원체계 구축(1-1-2)’ 관련 성남시 사업으로 자치기구 연합활동, 청소년 동아리 지원, 다양한 동아리 및 서포터즈 등을 포함한다. ‘자발적 청소년 조직 구성·운영 지원체계 구축(1-1-2)’의 사업현황은 6개년 동안 대략 55~60%로 관련 사업이 상당히 이뤄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예산으로는 2015년 52%로 가장 높았으나 이내 점차 감소하였지만 2020년 다시 49.1%로 증가하였다.

마지막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국제사업 전문화·다각화(1-1-3)’는 성남시 청소년 국제 교류 사업, 청소년 국제 교류 활동, 지구촌 성남 in(人), 국제 청소년 컨퍼런스 in 성남, 평화통일 교육 등을 포함한다.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국제사업 전문화·다각화(1-1-3)'의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5~20%를 유지하다 2020년 5.9%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예산 또한 기존에 20~25% 수준에서 2020년 0.8%로 급감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영향이 매우 컸음을 파악할 수 있다.

표 V-8.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1-1)에 따른 성남시 사업 분석

(단위: 개, %, 원)

분류	세부 실행과제	세부 분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사업 수	1-1-1	사업 수	14	21	22	24	27	12
		비중	(21.5%)	(25.0%)	(29.7%)	(27.9%)	(28.4%)	(22.6%)
	1-1-2	사업 수	41	46	41	47	53	38
		비중	(63.1%)	(54.8%)	(55.4%)	(54.7%)	(55.8%)	(71.7%)
	1-1-3	사업 수	10	17	11	15	15	3
		비중	(15.4%)	(20.2%)	(14.9%)	(17.4%)	(15.8%)	(5.7%)
	전략과제1-1	사업 수	65	84	74	86	95	53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예산	1-1-1	예산	166,156,620	731,212,760	539,442,660	532,599,940	270,411,870	144,390,580
		비중	(21.1%)	(52.6%)	(52.0%)	(51.3%)	(35.1%)	(50.1%)
	1-1-2	예산	410,532,249	406,782,510	227,177,760	314,776,660	286,833,840	141,722,070
		비중	(52.0%)	(29.2%)	(21.9%)	(30.3%)	(37.2%)	(49.1%)
	1-1-3	예산	212,097,036	253,336,550	270,314,550	191,734,580	212,891,930	2,326,610
		비중	(26.9%)	(18.2%)	(26.1%)	(18.5%)	(27.6%)	(0.8%)
	전략과제1-1	예산	788,785,905	1,391,331,820	1,036,934,970	1,039,111,180	770,137,640	288,439,260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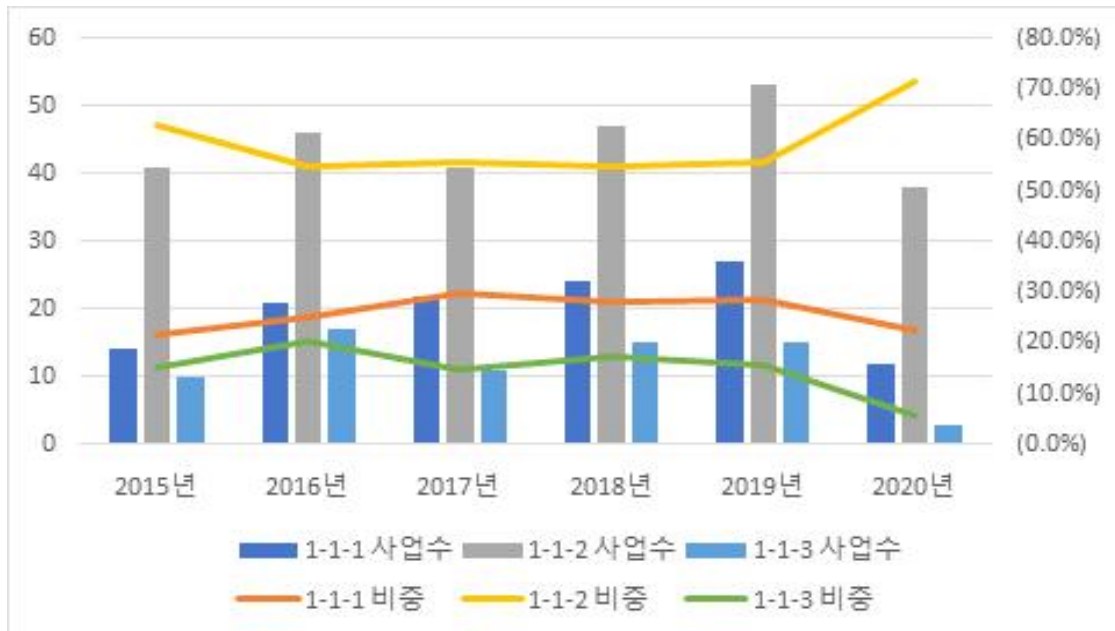


그림 V-15.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1-1)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 수

(단위: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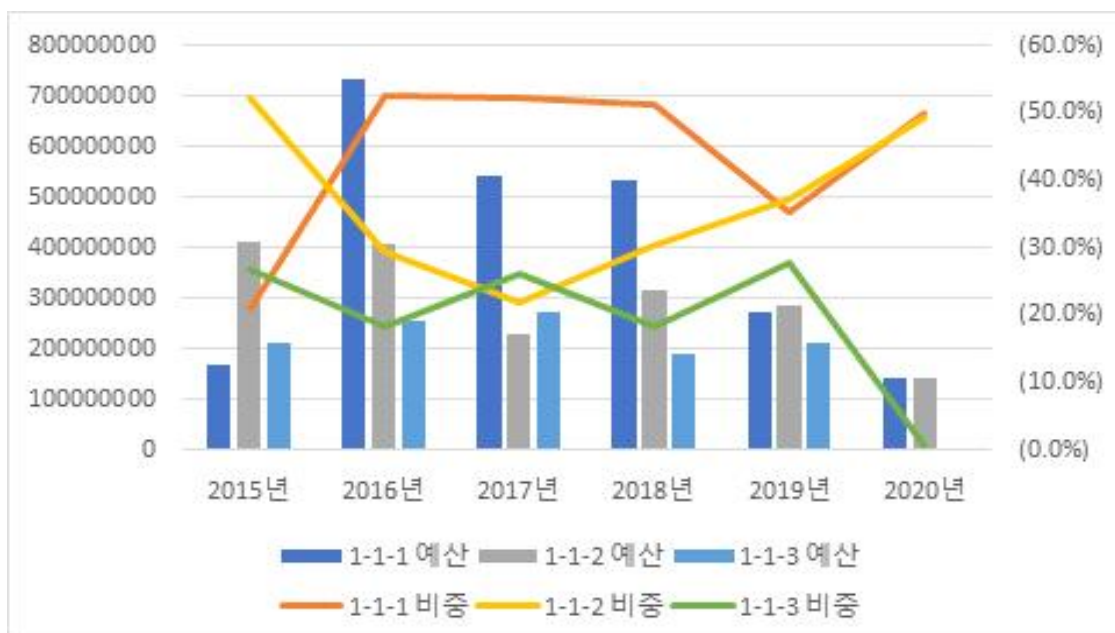


그림 V-16.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1-1)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예산

(3)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1-2)에 따른 성남시 사업 분석

‘대상·현안별 맞춤 서비스 제공(1-2)’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1-2-1)’, ‘후기청소년(청년) 역량 강화 지원(1-2-2)’, ‘유형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1-2-3)’의 세부 실행과제를 포함한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1-2-1)’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포함한다. 2015~2016년엔 사업 수 3%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2019년 8.6%로 다시 증가하여 2020년 12.7%로 확인된다. 예산 또한 2018년 6% 이후 2020년 27.6%로 증가하였다.

‘후기청소년(청년) 역량 강화 지원(1-2-2)’은 청바지 프로젝트 운영지원, 성남형자유학년제 『꿈 성장학년』, 꾸미담 진로프로그램, 꾸미담 진로프로그램 등 상당히 다양한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후기청소년(청년) 역량 강화 지원(1-2-2)’의 사업 현황은 사업 수로 볼 때 2015년 16.2%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36.7%로 확장되어왔다. 예산 또한 2015년(11.4%) 대비 2020년 19.2%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유형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1-2-3)’은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학교 밖 청소년 활성화 사업, 다문화가정 학부모 독서 지원, 심리 검사, 부모교육, 집단상담 뿐만 아니라 대상과 유형에 따른 몸맘튼튼, 생명이득작은농장학교, 성남형교육 학부모지원 사업, 공공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유형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1-2-3)’은 2015년 이후 사업 수와 예산 비중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비중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예산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2020년 53.2%로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V-9.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1-2)에 따른 성남시 사업 분석

(단위: 개, %, 원)

분류	세부 실행과제	세부 분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사업 수	1-2-1	사업 수	3	3	7	3	11	10
		비중	(3.0%)	(3.0%)	(5.7%)	(2.2%)	(8.6%)	(12.7%)
	1-2-2	사업 수	16	27	36	52	51	29
		비중	(16.2%)	(26.7%)	(29.5%)	(38.0%)	(39.8%)	(36.7%)
	1-2-3	사업 수	80	71	79	82	66	40
		비중	(80.8%)	(70.3%)	(64.8%)	(59.9%)	(51.6%)	(50.6%)
	전략과제1-2	사업 수	99	101	122	137	128	79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예산	1-2-1	예산	179,459,330	233,778,140	331,350,050	304,907,280	648,904,420	704,518,960
		비중	(8.8%)	(5.2%)	(13.0%)	(10.3%)	(20.8%)	(27.6%)
	1-2-2	예산	232,430,429	502,634,000	483,886,013	725,213,290	640,687,600	491,292,361
		비중	(11.4%)	(11.2%)	(19.0%)	(24.6%)	(20.6%)	(19.2%)
	1-2-3	예산	1,624,494,530	3,732,009,230	1,726,765,440	1,916,999,956	1,825,031,500	1,360,876,650
		비중	(79.8%)	(83.5%)	(67.9%)	(65.0%)	(58.6%)	(53.2%)
	전략과제1-2	예산	2,036,384,289	4,468,421,370	2,542,001,503	2,947,120,526	3,114,623,520	2,556,687,971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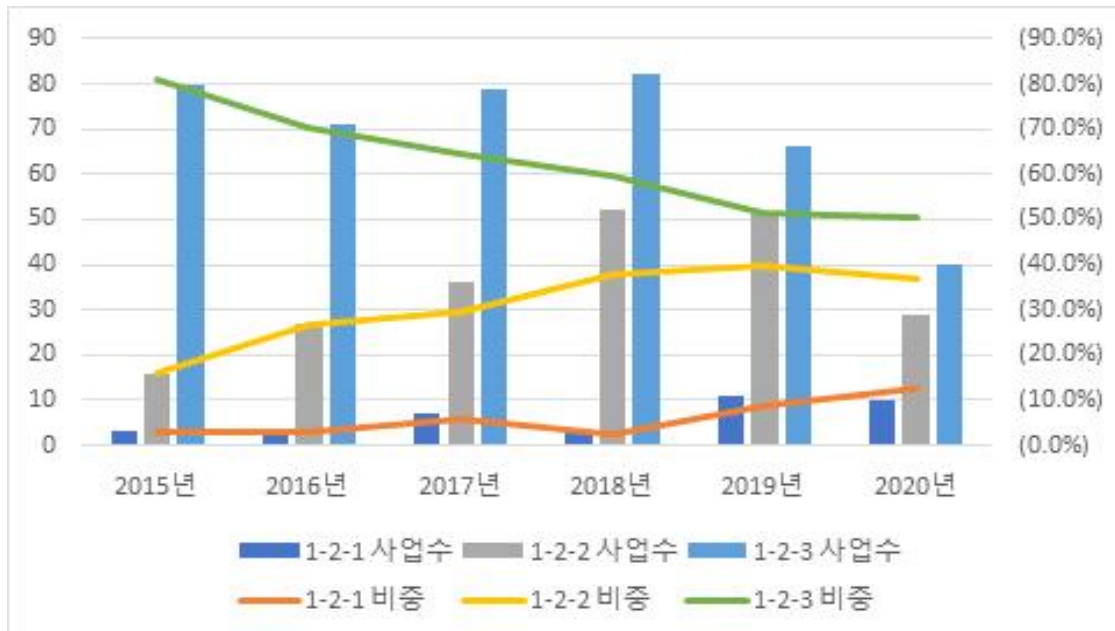


그림 V-17.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1-2)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 수

(단위: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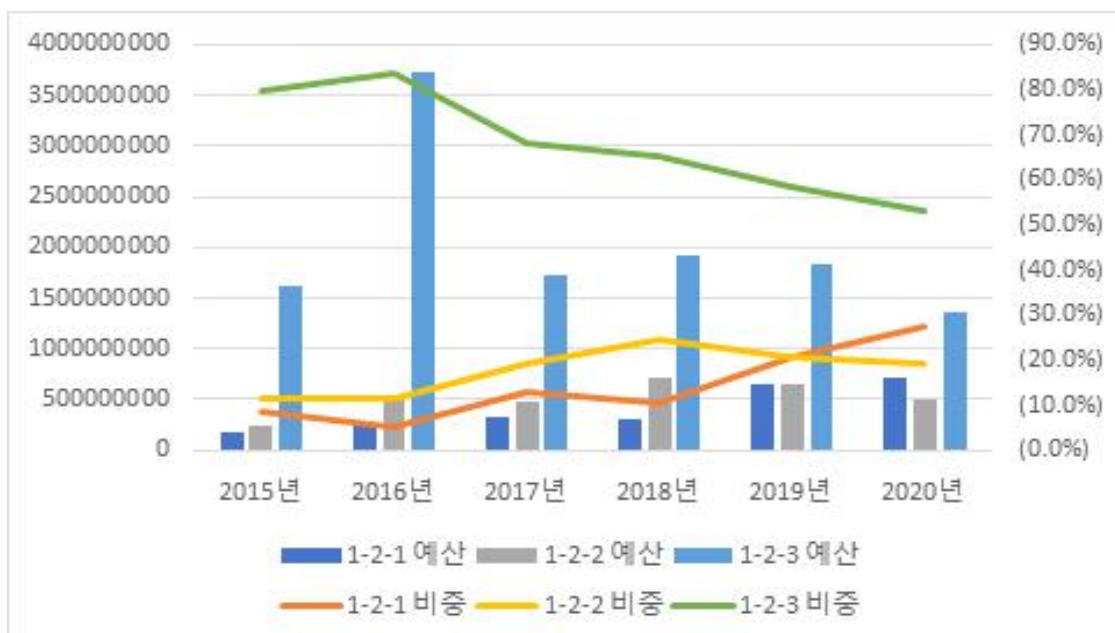


그림 V-18.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1-2)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예산

(4)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2-1)에 따른 성남시 사업 분석

‘적극적인 청소년 권리 보장(2-1)’은 ‘청소년 인권침해 대응체계 구축(2-1-1)’, ‘지역사회 청소년 영향력 강화(2-1-2)’, ‘생활 속 청소년 권리 증진(2-1-3)’의 세부 실행과제를 포함한다. ‘청소년 인권침해 대응체계 구축(2-1-1)’은 관련 사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차후 관련 사업을 증진 및 포괄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사회 청소년 영향력 강화(2-1-2)’는 ‘적극적인 청소년 권리 보장(2-1)’에서 사업 수와 예산 현황으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 성남시청소년의회, 농촌 봉사활동 등 참여 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수행되고 있다.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6개년 내내 거의 80% 수준으로 사업 수가 가장 많았으며, 사업예산의 경우 2019년(50%)을 제외하고 대략 80% 이상의 높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속 청소년 권리 증진(2-1-3)’은 청소년노동인권보호및증진사업, 의무실운영,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등을 포함한다. 한편, ‘생활 속 청소년 권리 증진(2-1-3)’의 사업 수의 경우 미세하지만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표 V-10.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2-1)에 따른 성남시 사업 분석

(단위: 개, %, 원)

분류	세부 실행과제	세부 분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사업 수	2-1-1	사업 수	-	-	-	-	-	-
		비중	-	-	-	-	-	-
	2-1-2	사업 수	18	15	23	25	25	21
		비중	(85.7%)	(88.2%)	(82.1%)	(78.1%)	(78.1%)	(77.8%)
	2-1-3	사업 수	3	2	5	7	7	6
		비중	(14.3%)	(11.8%)	(17.9%)	(21.9%)	(21.9%)	(22.2%)
	전략과제2-1	사업 수	21	17	28	32	32	27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예산	2-1-1	예산	-	-	-	-	-	-
		비중	-	-	-	-	-	-
	2-1-2	예산	94,405,990	173,031,880	93,411,230	388,070,170	85,304,480	143,015,080
		비중	(94.1%)	(98.3%)	(81.2%)	(81.9%)	(50.2%)	(80.3%)
	2-1-3	예산	5,937,770	2,978,650	21,674,850	85,742,050	84,753,220	35,073,590
		비중	(5.9%)	(1.7%)	(18.8%)	(18.1%)	(49.8%)	(19.7%)
	전략과제2-1	예산	100,343,760	176,010,530	115,086,080	473,812,220	170,057,700	178,088,670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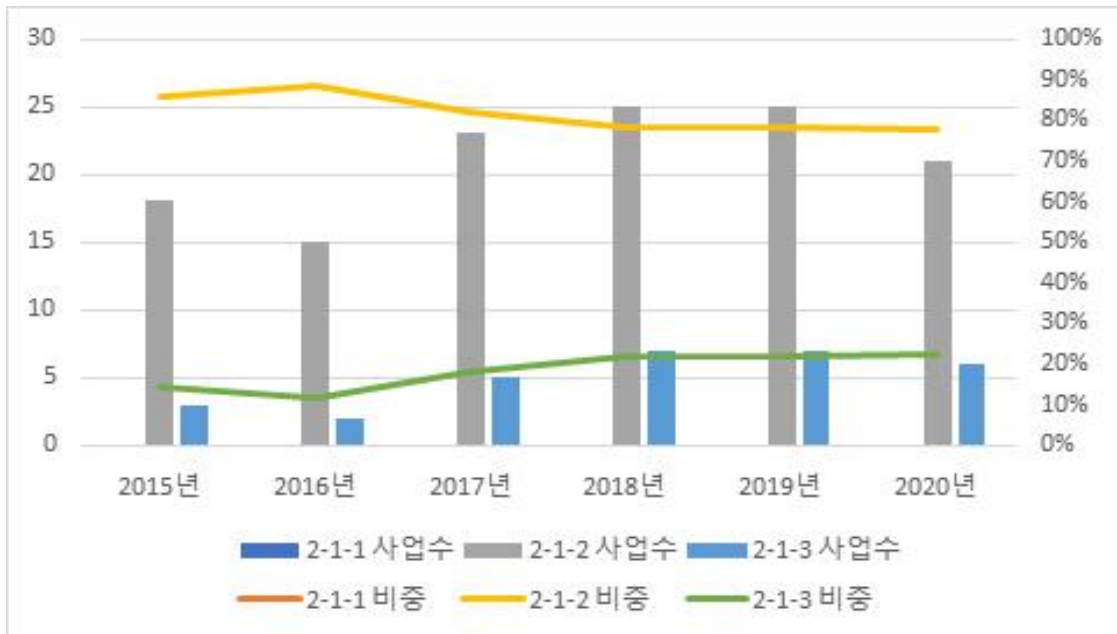


그림 V-19.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2-1)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 수

(단위: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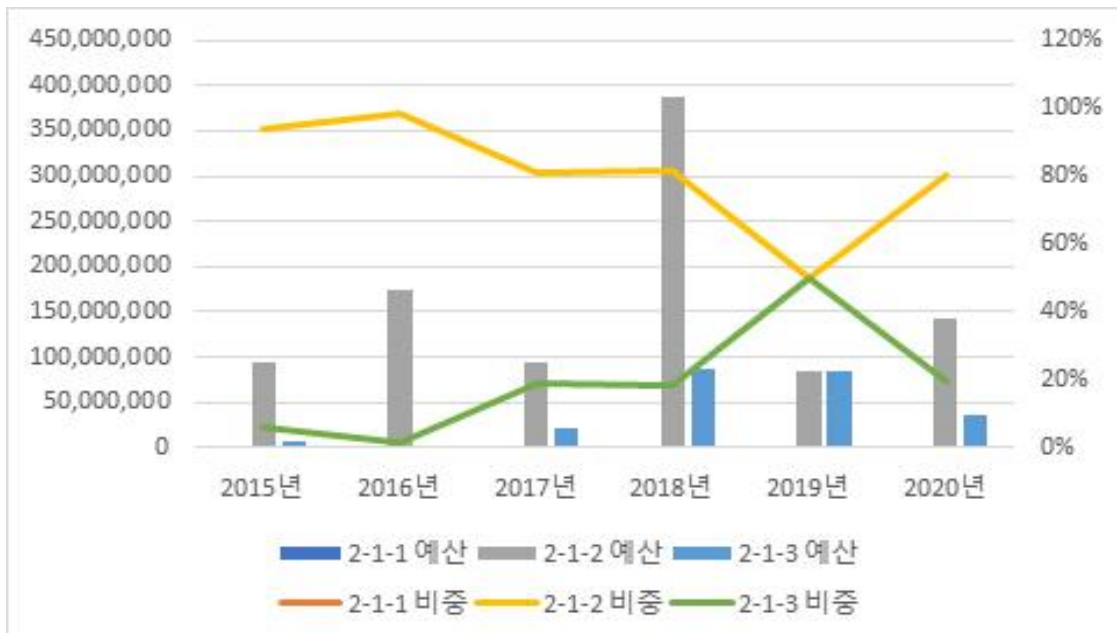


그림 V-20.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2-1)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예산

(5)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2-2)에 따른 성남시 사업 분석

‘지역사회 청소년 플랫폼 기능 강화(2-2)’는 세부 실행과제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확대(2-2-1)’와 ‘청소년 중심의 디지털 플랫폼 조성(2-2-2)’을 포함한다.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확대(2-2-1)’ 관련 성남시의 사업으로 청소년 문화놀이터, 생활스포츠강좌, 공연장 운영, 헬스강좌, 작은도서관 운영 등이 해당된다.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확대(2-2-1)’의 사업 현황으로는 연도별 대략 35~40개의 비슷한 수준의 사업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 예산의 경우 2018년과 2019년 가장 높았으나 2020년 감소하였다. 한편, ‘청소년 중심의 디지털 플랫폼 조성(2-2-2)’의 경우 2020년 온라인공동활용화상회의실 관련 사업만 포함되어 상대적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V-11.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2-2)에 따른 성남시 사업 분석

(단위: 개, %, 원)

분류	세부 실행과제	세부 분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사업 수	2-2-1	사업 수	43	37	42	35	34	40
		비중	(100%)	(100%)	(100%)	(100%)	(100%)	(98%)
	2-2-2	사업 수	-	-	-	-	-	1
		비중	-	-	-	-	-	(2.4%)
	전략과제2-2	사업 수	43	37	42	35	34	41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예산	2-2-1	사업 수	1,464,060,050	1,484,062,010	2,512,325,850	2,636,276,940	2,640,384,330	1,666,062,780
		비중	(100%)	(100%)	(100%)	(100%)	(100%)	(98.8%)
	2-2-2	사업 수	-	-	-	-	-	20,000,000
		비중	-	-	-	-	-	(1.2%)
	전략과제2-2	사업 수	1,464,060,050	1,484,062,010	2,512,325,850	2,636,276,940	2,640,384,330	1,686,062,780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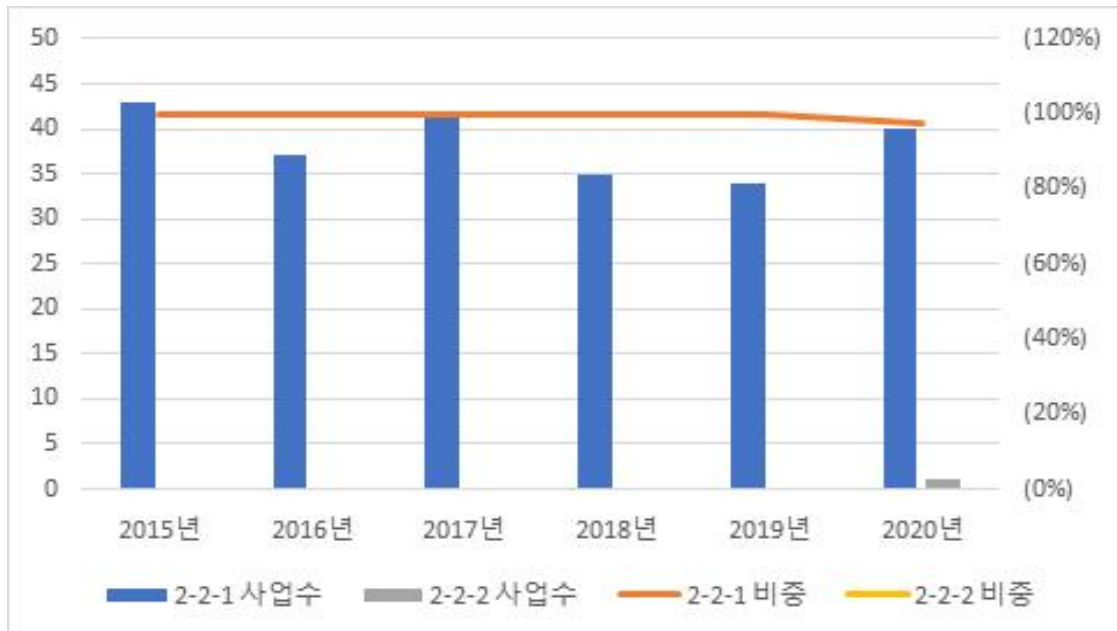


그림 V-21.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2-2)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 수

(단위: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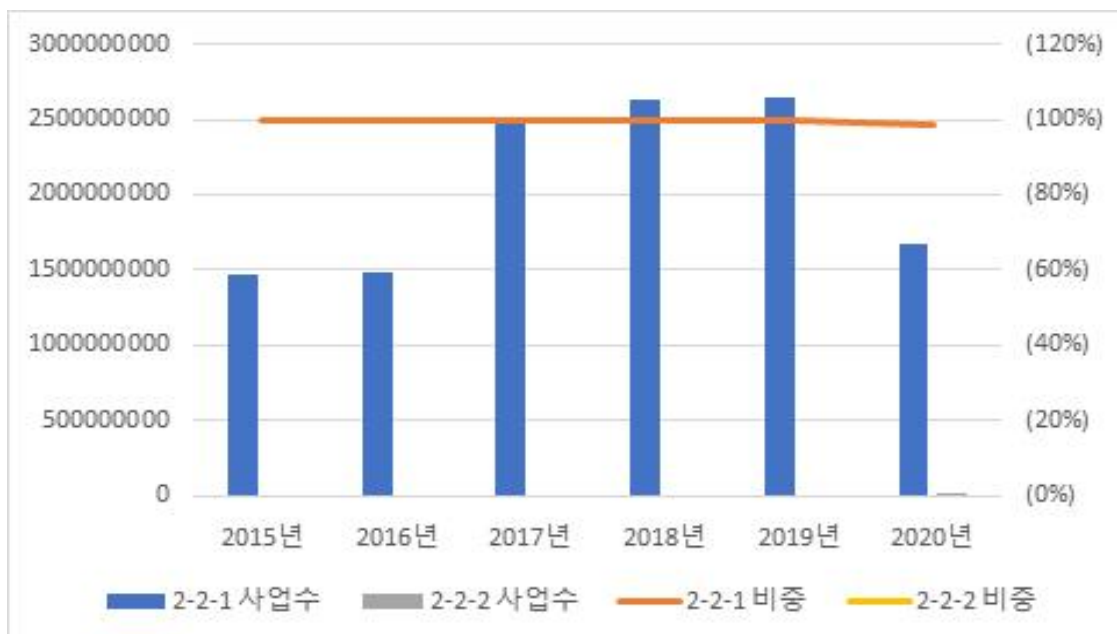


그림 V-22.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2-2)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예산

(6)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2-3)에 따른 성남시 사업 분석

‘청소년 지원 거버넌스 형성(2-3)’은 세부 실행과제로 ‘성남형 청소년 안전망 구축(2-3-1)’, ‘청소년 미래 학습지원 체계 내실화(2-3-2)’, ‘브랜드 가치 극대화를 통한 위상 제고(2-3-3)’, ‘지역사회 자생적 청소년 서비스 운영 지원 강화(2-3-4)’를 포함하고 있다. ‘성남형 청소년 안전망 구축(2-3-1)’은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및 지원사업,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해소 사업, 청소년통합 지원체계(CYS-Net) 운영, 학교폭력예방교육 『언어문화개선』 등을 포함한다. ‘성남형 청소년 안전망 구축(2-3-1)’의 경우 2018년(10.8%)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 2020년 15.6%로 나타났다. 예산 또한 연도별 편차가 있지만 2020년 30.7%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청소년 미래 학습지원 체계 내실화(2-3-2)’는 수련관이랑 학교랑, 수련관으로 등교하자, 찾아가는 학교마당, 성남형교육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 미래 학습지원 체계 내실화(2-3-2)’는 전략과제 ‘청소년 지원 거버넌스 형성(2-3)’ 가운데 사업 수가 높은 편에 속한다. 2015년을 제외하고 대략 45~50% 수준으로 나타났다. 예산 비중의 경우 2019년 75%의 높은 수준을 보이다 2020년 28.2%로 감소하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브랜드 가치 극대화를 통한 위상 제고(2-3-3)’는 홍보활동, 성남형교육사업 홍보활동, 대외 홍보물 운영, 운영 소식 및 프로그램 안내 등을 포함한다. ‘브랜드 가치 극대화를 통한 위상 제고(2-3-3)’는 사업 수와 예산에 있어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 ‘지역사회 자생적 청소년 서비스 운영 지원 강화(2-3-4)’은 함께크는마을, 마을과함께하는재능나눔, 널다리마을축제,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역네트워크 운영, 제22회 성남시 청소년예술제 등을 포함한다. 지역사회 자생적 청소년 서비스 운영 지원 강화(2-3-4)도 연도별 편차는 있지만 사업 현황으로 대략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예산의 경우 2020년 25%로 증가하였다.

표 V-12.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2-3)에 따른 성남시 사업 분석

(단위: 개, %, 원)

분류	세부 실행과제	세부 분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사업 수	2-3-1	사업 수	9	10	5	9	14	10
		비중	(9.7%)	(9.8%)	(5.3%)	(10.8%)	(13.9%)	(15.6%)
	2-3-2	사업 수	32	45	53	37	50	24
		비중	(34.4%)	(44.1%)	(56.4%)	(44.6%)	(49.5%)	(37.5%)
	2-3-3	사업 수	16	12	12	9	10	11
		비중	(17.2%)	(11.8%)	(12.8%)	(10.8%)	(9.9%)	(17.2%)
	2-3-4	사업 수	36	35	24	28	27	19
		비중	(38.7%)	(34.3%)	(25.5%)	(33.7%)	(26.7%)	(29.7%)
	전략과제 2-3	사업 수	93	102	94	83	101	64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예산	2-3-1	예산	351,228,196	448,308,250	395,037,070	542,033,550	230,376,510	279,546,260
		비중	(16.3%)	(25.5%)	(14.1%)	(25.1%)	(9.2%)	(30.7%)
	2-3-2	예산	1,280,741,142	815,547,920	1,729,215,020	1,100,931,130	1,891,315,790	256,598,140
		비중	(59.5%)	(46.4%)	(61.8%)	(51.0%)	(75.4%)	(28.2%)
	2-3-3	예산	213,902,500	169,141,880	314,580,660	242,210,160	146,392,120	147,704,990
		비중	(9.9%)	(9.6%)	(11.2%)	(11.2%)	(5.8%)	(16.2%)
	2-3-4	예산	306,937,045	325,117,930	359,465,530	272,400,450	240,285,990	227,349,690
		비중	(14.3%)	(18.5%)	(12.8%)	(12.6%)	(9.6%)	(25.0%)
	전략과제 2-3	예산	2,152,808,883	1,758,115,980	2,798,298,280	2,157,575,290	2,508,370,410	911,199,080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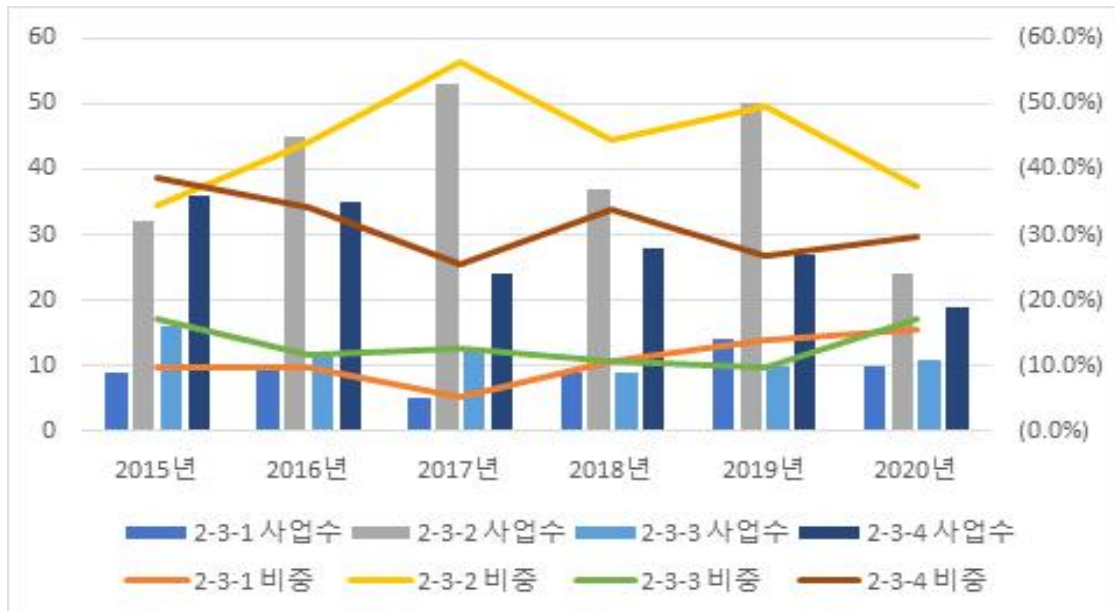


그림 V-23.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2-3)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 수

(단위: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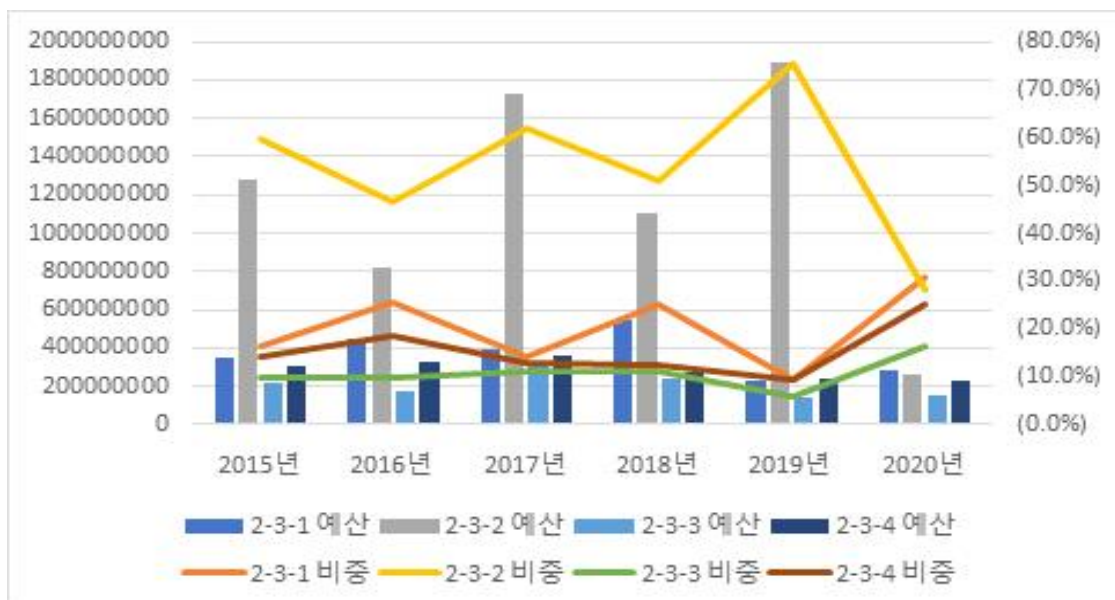


그림 V-24.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2-3)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예산

(7)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3-1)에 따른 성남시 사업 분석

‘청소년과 함께하는 재단 경영(3-1)’은 세부 실행과제로 ‘재단 운영에 청소년 참여 보장(3-1-1)’, ‘청소년 중심의 사업·업무체계 혁신(3-1-2)’, ‘민주적이고 청렴한 조직 내 협업구조 확립(3-1-3)’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본 분석에서는 ‘청소년과 함께하는 재단 경영(3-1)’ 전략과제와 관련하여서 ‘청소년 중심의 사업·업무체계 혁신(3-1-2)’과 관련된 사업만 취합되었다. 관련 사업으로 청소년지도사 배치 운영,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이 해당된다. 사업 현황의 경우 6개년 모두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지만 예산의 경우 2018년이 상대적으로 다른 연도에 비해 적었다.

표 V-13.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3-1)에 따른 성남시 사업 분석

(단위: 개, %, 원)

분류	세부 실행과제	세부 분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사업 수	3-1-1	사업 수	-	-	-	-	-	-
		비중	-	-	-	-	-	-
	3-1-2	사업 수	7	7	7	5	8	7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3-1-3	사업 수	-	-	-	-	-	-
		비중	-	-	-	-	-	-
	전략과제 3-1	사업 수	7	7	7	5	8	7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예산	3-1-1	예산	-	-	-	-	-	-
		비중	-	-	-	-	-	-
	3-1-2	예산	135,566,120	143,647,740	149,462,570	87,603,500	173,720,820	173,720,820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3-1-3	예산	-	-	-	-	-	-
		비중	-	-	-	-	-	-
	전략과제 3-1	예산	135,566,120	143,647,740	149,462,570	87,603,500	173,720,820	173,720,820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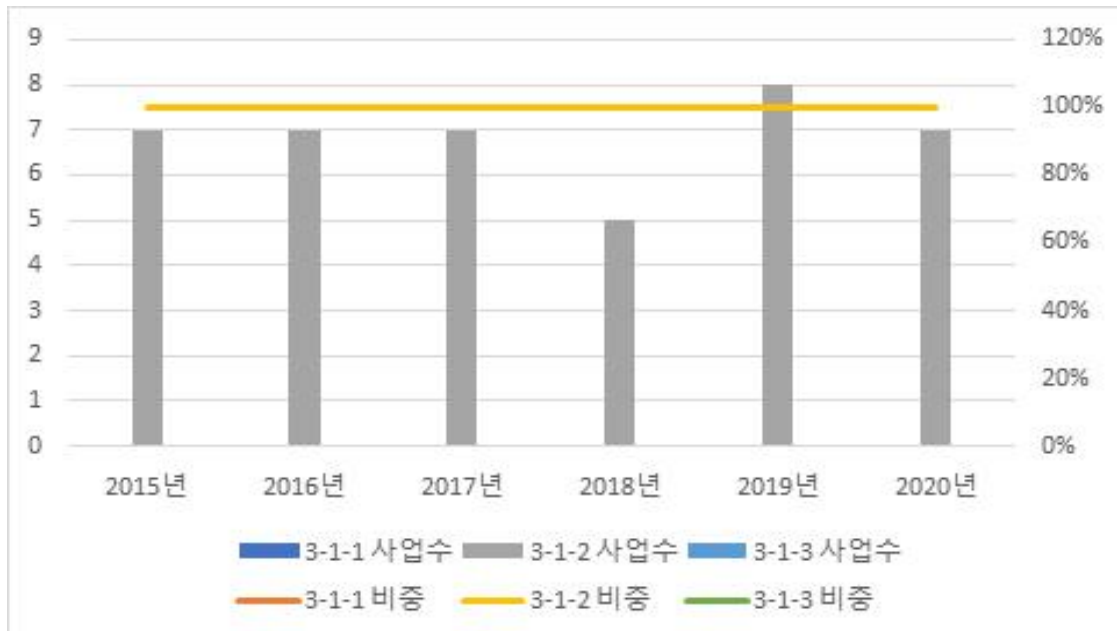


그림 V-25.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3-1)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 수

(단위: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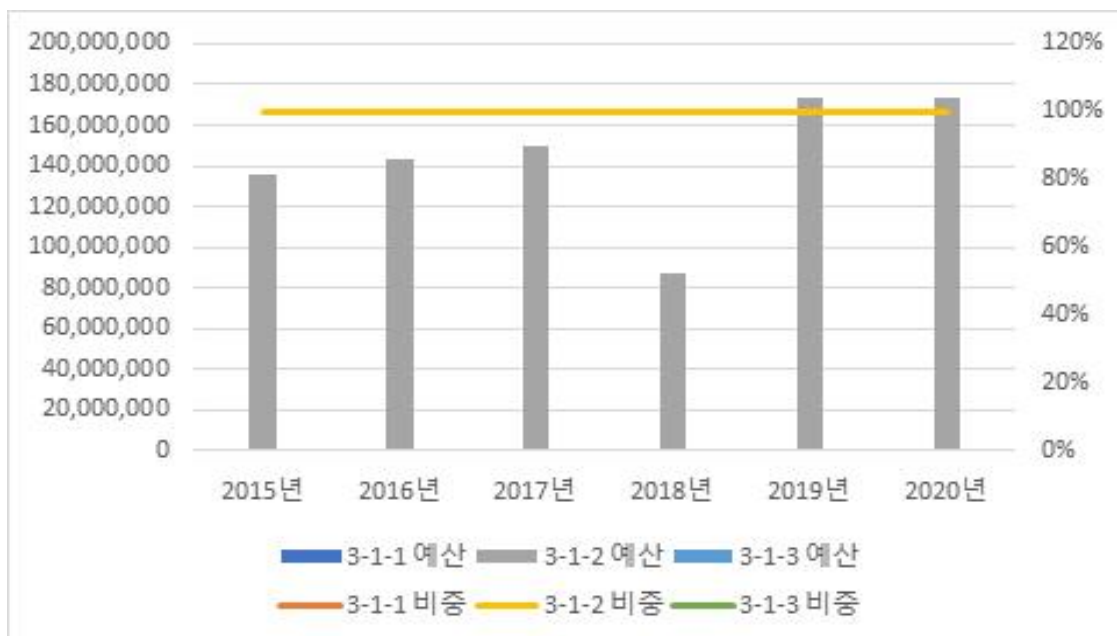


그림 V-26.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3-1)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예산

(8)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3-2)에 따른 성남시 사업 분석

마지막 전략과제 ‘지속 가능 경영체계 구축(3-2)’은 ‘중·장기적 관점의 업무체계 구축(3-2-1)’, ‘혁신적·성취 지향적 조직경영 모델 구축(3-2-2)’, ‘사회적 가치와 상생을 지향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3-2-3)’을 포함한다. 먼저 ‘중·장기적 관점의 업무체계 구축(3-2-1)’ 관련하여서 증거 기반 성남시 청소년 활동 실태조사와 강사간담회, 지도자간담회, 교사코칭, 사업위탁용역비 등이 해당된다. ‘중·장기적 관점의 업무체계 구축(3-2-1)’은 2020년 사업 수가 감소하였지만 예산과 함께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혁신적·성취 지향적 조직경영 모델 구축(3-2-2)’ 관련 사업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 ‘사회적 가치와 상생을 지향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3-2-3)’은 교육훈련사업, 재단직원워크숍이 포함되며, 사업 수와 예산에서 마찬가지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표 V-14.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3-2)에 따른 성남시 사업 분석

(단위: 개, %, 원)

분류	세부 실행과제	세부 분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사업 수	3-2-1	사업 수	27	19	20	19	21	13
		비중	(93.1%)	(90.5%)	(90.9%)	(90.5%)	(91.3%)	(92.9%)
	3-2-2	사업 수	-	-	-	-	-	-
		비중	-	-	-	-	-	-
	3-2-3	사업 수	2	2	2	2	2	1
		비중	(6.9%)	(9.5%)	(9.1%)	(9.5%)	(8.7%)	(7.1%)
	전략과제 3-2	사업 수	29	21	22	21	23	14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예산	3-2-1	예산	3,908,520,770	3,101,940,130	2,694,499,870	2,834,176,570	2,975,174,010	2,946,275,390
		비중	(98.7%)	(98.2%)	(98.0%)	(96.6%)	(95.5%)	(97.6%)
	3-2-2	예산	-	-	-	-	-	-
		비중	-	-	-	-	-	-
	3-2-3	예산	49,966,860	57,555,800	55,054,440	99,644,210	139,206,440	71,144,390
		비중	(1.3%)	(1.8%)	(2.0%)	(3.4%)	(4.5%)	(2.4%)
	전략과제 3-2	예산	3,958,487,630	3,159,495,930	2,749,554,310	2,933,820,780	3,114,380,450	3,017,419,780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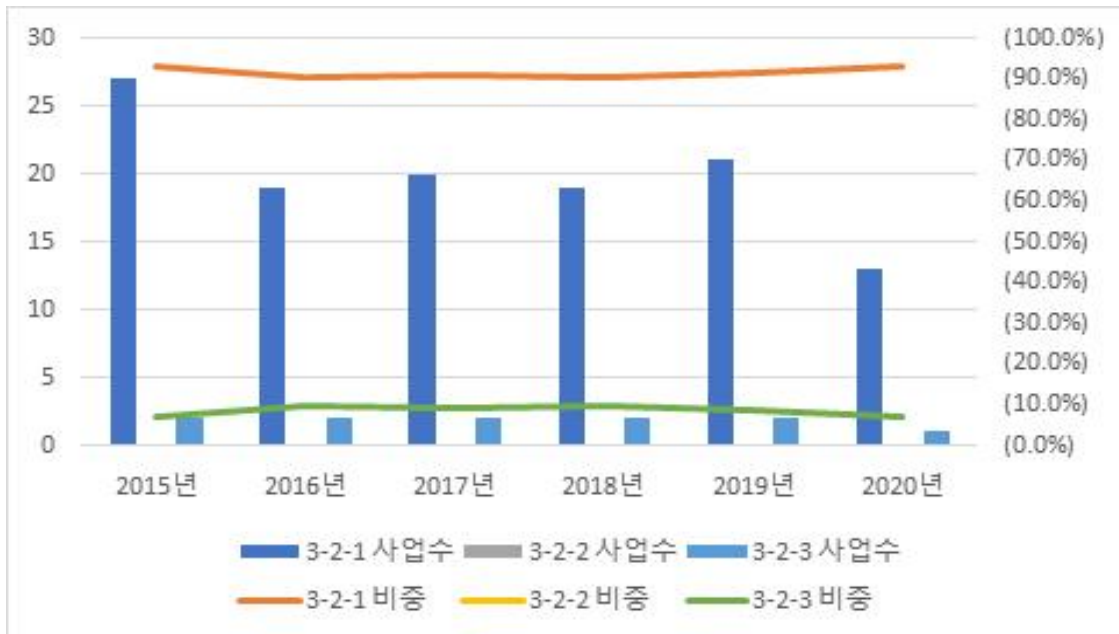


그림 V-27.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3-2)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 수

(단위: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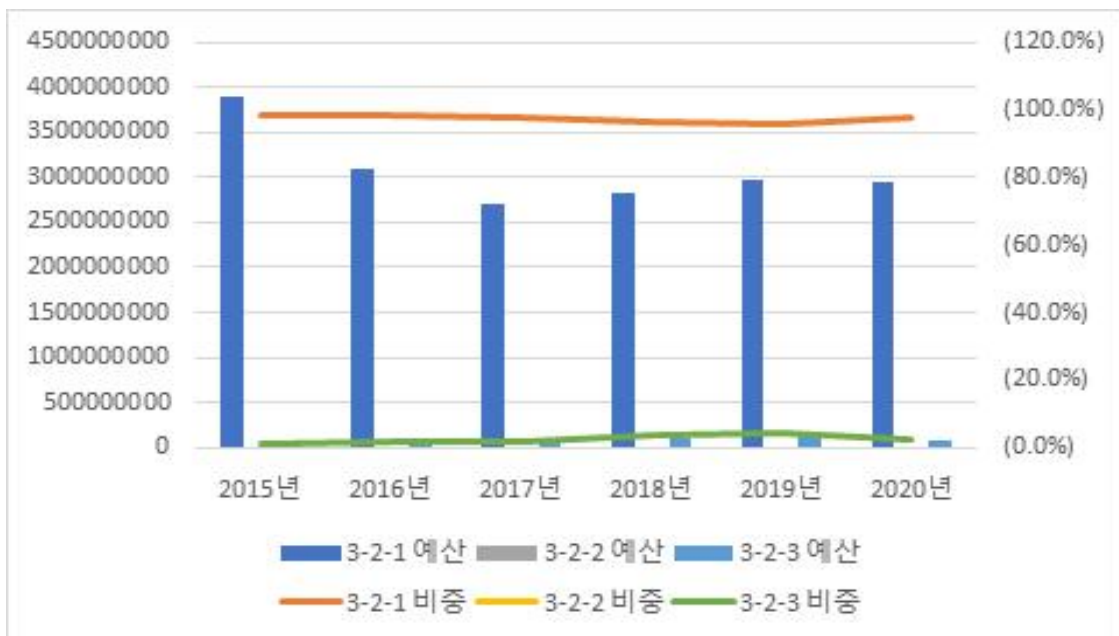


그림 V-28. 제3차 성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3-2)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예산

4) 정책 대상자

(1) 정책대상자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 수

다음은 정책대상자에 성남시 청소년 사업 수 및 예산을 살펴보았다. 청소년은 연령에 해당하는 그룹을 묶어 상세한 비교를 보고자 하였다. ‘9-24세’, ‘9-18세’, ‘13-24세’, ‘9-12세’, ‘13-18세’, ‘19-24세’로 6개 그룹으로 해당 연령 범주에 포함된 경우만 구별하여 분류하였다. 그 밖에 청소년과 시민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분류하였고, 청소년지도사 외에도, 강사간담회, 학교복지상담사 연구, 성남시 진로교사 협의체 운영 등의 사업의 경우 ‘청소년지도사’로 종합하여 구분하였다. 또한 시설위탁용역, 홍보활동, 조사연구사업, 교육훈련 사업, 조직문화활성화사업 등 청소년시설과 관련한 사업은 ‘청소년 시설’로 나눴다. 마지막으로 위의 정책대상자에 구별되어 섞이지 않고 여러 정책대상자가 혼합된 경우를 지역공동체로 구분하였다.

청소년 연령 별 구분으로 ‘9-24세’에 모두 해당하는 청소년 사업은 적은 편이지만 2020년 7.4%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반면, ‘9-18세’의 경우 연도별 대략 20% 수준으로 사업 수가 연령 구분 가운데 가장 많았다. ‘13-24세’ 연령에 포함되는 사업의 경우 최근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9-12세’의 경우 2020년을 제외하고 대략 6~8%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중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13-18세’ 청소년 관련 사업 수는 2018-2019년 각각 16.8%, 20.7%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후기 청소년으로 ‘19-24세’ 청소년 관련 사업 수의 경우 대략 3%의 적은 비중으로 나타났으나 2019년 이후 5~6%로 증가하였다.

청소년과 시민을 모두 포함하는 ‘모든 시민’에 해당하는 사업 수 현황의 경우 연도별 편차는 있으나 대략 15~18% 사이로 많은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청소년지도사 관련 사업 수의 경우 5~6% 수준으로 매우 비슷하게

나타났다. 청소년 시설과 관련한 사업 수의 경우도 연도별 차이는 있지만 대략 10% 내외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을 포함한 지역의 시민, 청소년 시설 등 여러 정책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공동체의 경우 2018년 12.8% 이후 점차 감소하였으나 적지 않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V-15. 정책대상자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 수

(단위: 개, %)

정책대상자	분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9-24세 청소년	사업 수	11	8	16	16	21	21
	비중	(3.1%)	(2.2%)	(4.1%)	(4.0%)	(5.0%)	(7.4%)
9-18세 청소년	사업 수	86	101	92	78	87	63
	비중	(24.1%)	(27.4%)	(23.7%)	(19.5%)	(20.7%)	(22.1%)
13~24세 청소년	사업 수	25	25	27	34	23	13
	비중	(7.0%)	(6.8%)	(6.9%)	(8.5%)	(5.5%)	(4.6%)
9-12세 청소년	사업 수	14	31	24	24	34	8
	비중	(3.9%)	(8.4%)	(6.2%)	(6.0%)	(8.1%)	(2.8%)
13-18세 청소년	사업 수	40	44	46	67	87	34
	비중	(11.2%)	(11.9%)	(11.8%)	(16.8%)	(20.7%)	(11.9%)
19-24세 청소년	사업 수	11	12	11	15	23	19
	비중	(3.1%)	(3.3%)	(2.8%)	(3.8%)	(5.5%)	(6.7%)
모든시민	사업 수	76	56	67	64	57	51
	비중	(21.3%)	(15.2%)	(17.2%)	(16.0%)	(13.5%)	(17.9%)
청소년 지도사	사업 수	21	21	20	21	23	16
	비중	(5.9%)	(5.7%)	(5.1%)	(5.3%)	(5.5%)	(5.6%)
청소년시설	사업 수	41	30	39	29	31	36
	비중	(11.5%)	(8.1%)	(10.0%)	(7.3%)	(7.4%)	(12.6%)
지역공동체	사업 수	32	41	47	51	35	24
	비중	(9.0%)	(11.1%)	(12.1%)	(12.8%)	(8.3%)	(8.4%)
전체	사업 수	357	369	389	399	421	285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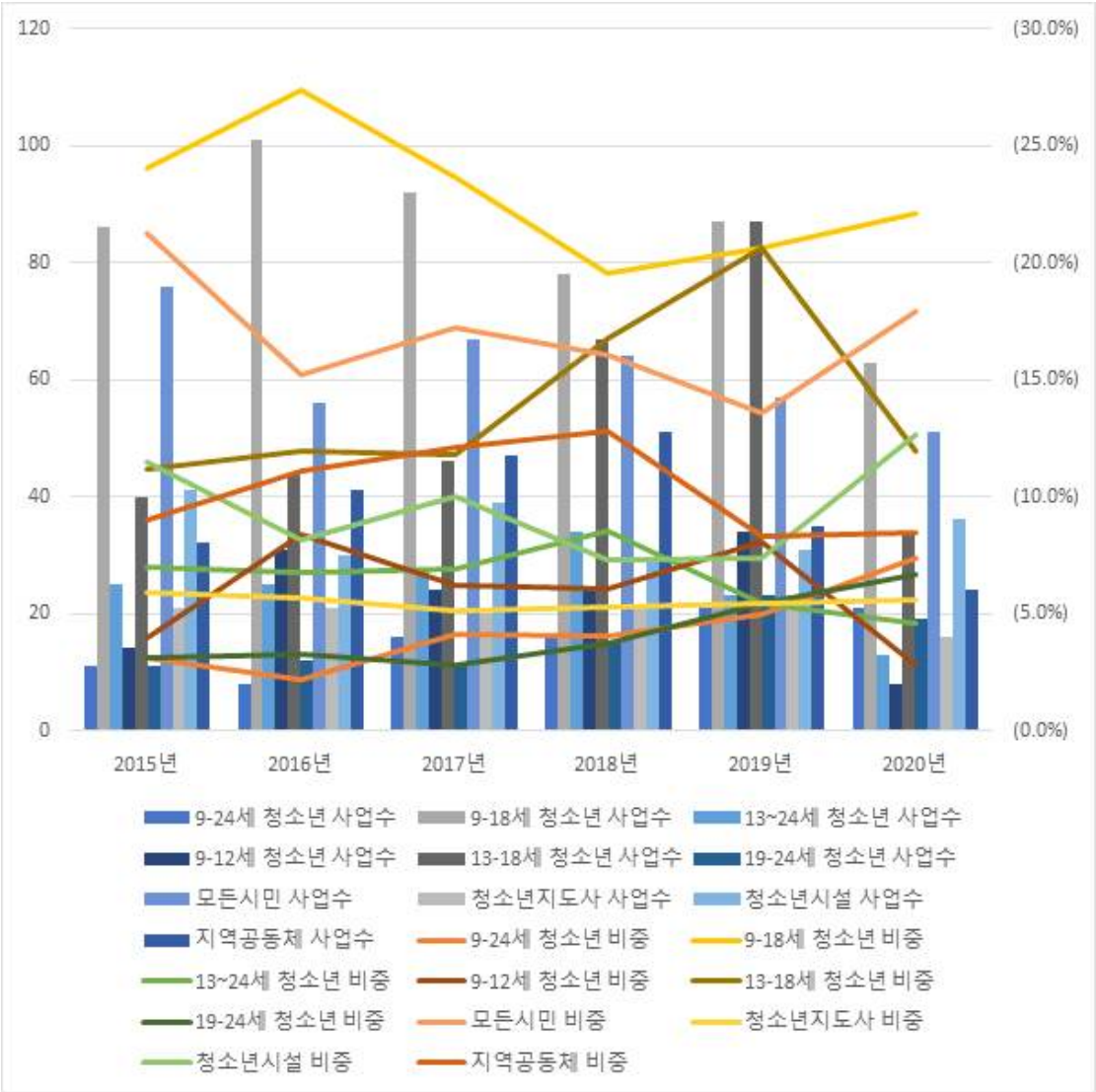


그림 V-29. 정책대상자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 수

(2) 정책대상자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예산

‘9-24세’, ‘9-18세’, ‘13-24세’, ‘9-12세’, ‘13-18세’, ‘19-24세’에 해당하는 청소년 사업 서비스의 예산 추이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연령 별 청소년 사업 서비스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연령은 ‘9-18세’로 약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기 청소년인 ‘13-18세’의 경우 2020년(7.5%)를 제외하고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한 것에 반해, 초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9-12세’의 경우 2017년(12.9%) 이후 예산 비중이 차츰 감소하였다. 후기청소년 시기인 ‘19-24세’는 해당 사업 예산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관련 사업 증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체 청소년 연령을 모두 포함하는 ‘9-24세’ 관련 사업의 경우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 비중이 매우 작았다.

반면, 시설위탁용역, 홍보활동, 조사연구사업, 교육훈련 사업, 조직문화활성화 사업 등 청소년시설과 관련한 사업의 경우 거의 25% 이상을 상회하며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청소년지도사에 관한 예산 비중은 2015년 이후 감소하였으나 2020년 2.5%로 약간 증가하였다. 앞서 사업 수 현황과 같이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예산 비중도 2016년 (13.8%)을 제외하고 대략 20%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서비스 사업이 지역사회 연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표 V-16. 정책대상자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예산

(단위: 원, %)

정책대상자	분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9-24세 청소년	예산	99,564,704	98,837,710	140,324,043	203,716,130	202,611,430	192,331,510
	비중	(0.9%)	(0.8%)	(1.2%)	(1.7%)	(1.6%)	(2.2%)
9-18세 청소년	예산	2,864,362,905	3,476,724,740	2,270,737,330	2,436,137,246	2,610,383,360	1,489,096,310
	비중	(26.9%)	(27.6%)	(19.1%)	(19.8%)	(20.9%)	(16.9%)
13~24세 청소년	예산	189,658,670	141,489,540	155,812,230	167,239,780	97,823,820	17,350,960
	비중	(1.8%)	(1.1%)	(1.3%)	(1.4%)	(0.8%)	(0.2%)
9-12세 청소년	예산	521,285,830	1,915,154,660	1,536,542,200	812,856,370	1,177,476,990	478,239,570
	비중	(4.9%)	(15.2%)	(12.9%)	(6.6%)	(9.4%)	(5.4%)
13-18세 청소년	예산	404,720,057	603,482,370	905,116,920	1,142,237,390	1,492,039,780	658,147,540
	비중	(3.8%)	(4.8%)	(7.6%)	(9.3%)	(11.9%)	(7.5%)
19-24세 청소년	예산	26,655,700	23,202,710	44,328,910	41,465,700	187,172,950	369,055,601
	비중	(0.3%)	(0.2%)	(0.4%)	(0.3%)	(1.5%)	(4.2%)
모든시민	예산	2,322,246,605	1,734,810,030	2,811,401,440	3,219,697,100	2,785,015,290	1,689,943,280
	비중	(21.8%)	(13.8%)	(23.6%)	(26.2%)	(22.3%)	(19.2%)
청소년지도사	예산	743,671,710	726,579,370	226,880,990	174,627,890	216,672,930	221,157,550
	비중	(7.0%)	(5.8%)	(1.9%)	(1.4%)	(1.7%)	(2.5%)
청소년시설	예산	3,069,111,776	2,920,232,560	3,055,326,420	3,238,879,240	3,274,059,600	3,270,485,510
	비중	(28.9%)	(23.2%)	(25.7%)	(26.4%)	(26.2%)	(37.1%)
지역공동체	예산	395,158,680	940,571,690	757,193,080	838,463,590	448,418,720	429,625,350
	비중	(3.7%)	(7.5%)	(6.4%)	(6.8%)	(3.6%)	(4.9%)
전체	예산	10,636,436,637	12,581,085,380	11,903,663,563	12,275,320,436	12,491,674,870	8,815,433,181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단위: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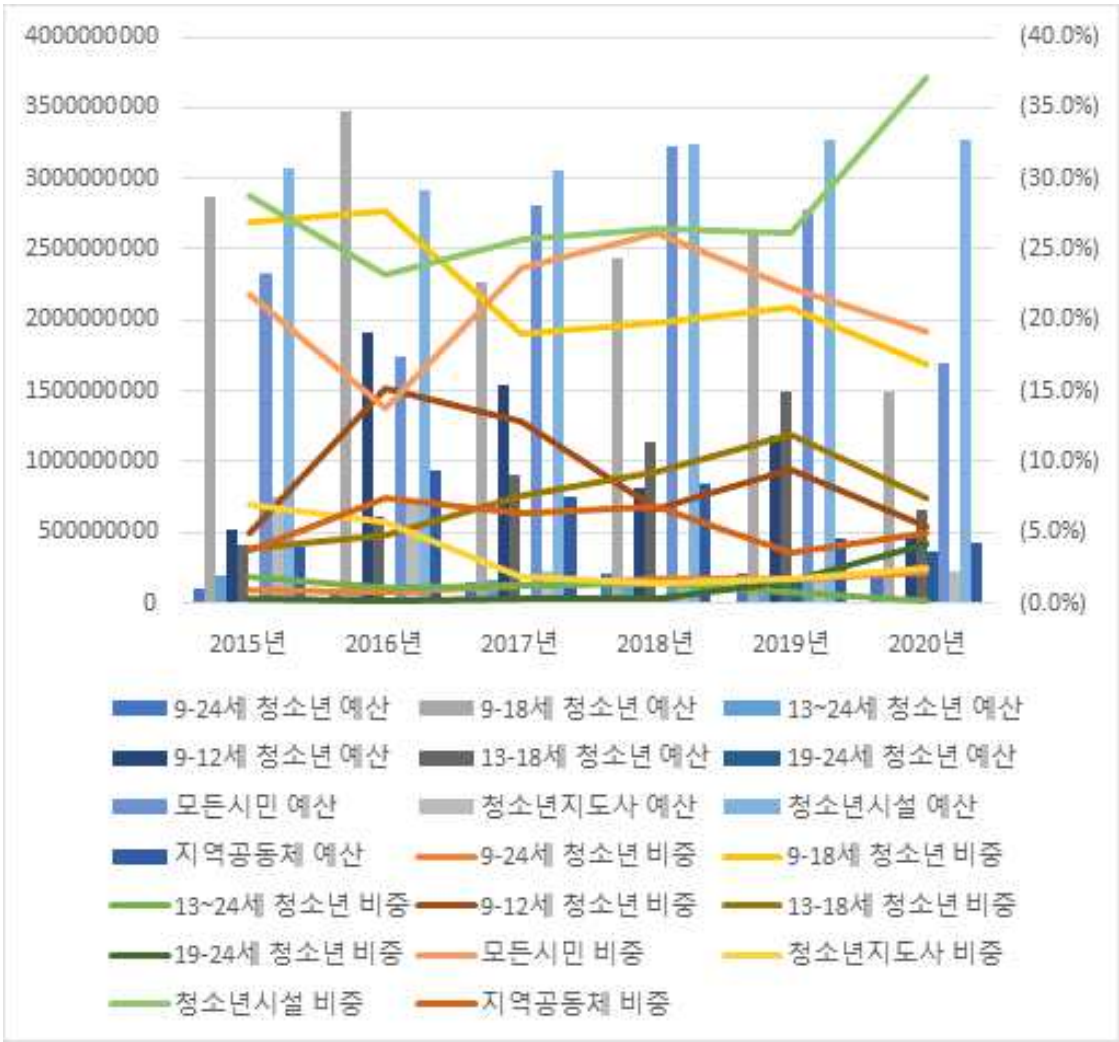


그림 V-30. 정책대상자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사업예산

5) 소결

앞서 여성가족부의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과 성남시청소년재단의 ‘제3차 중장기 발전계획(2019~2023)’, 그리고 정책대상자에 따른 6개년 사업 분류를 분석하였다. 먼저 여성가족부의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을 바탕으로 성남시의 청소년 서비스 비중의 경우 사업 수와 예산에서 ‘영역2: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른 영역의 경우 ‘영역1: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의 예산의 비중은 최근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의 12개 중점과제로 보면 ‘청소년체험활동 활성화(2-2)’가 사업 수와 예산에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사업 수에서는 최근 ‘청소년 주도 시민 핵심역량 강화(1-1)’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한편, ‘적극적인 청소년 권리 보장(2-1)’의 사업 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에서는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3-2)’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의 ‘제3차 중장기 발전계획(2019~2023)’에 따른 청소년서비스 현황으로 3대 전략 목표를 기준으로 사업 수의 경우 1대 전략목표로 ‘1. 건강하고 창의적인 시민 청소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대 전략목표는 ‘2.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 플랫폼’은 최근 증가하였다. 사업예산으로 보면 2016년 이후 2대 전략목표는 ‘2.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 플랫폼’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 1대 전략목표로 ‘1. 건강하고 창의적인 시민 청소년’, ‘3. 청소년과 함께하는 재단’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제3차 중장기 발전계획(2019~2023)’의 세부 실행과제 수준에서 ‘청소년 인권침해 대응체계 구축(2-1-1)’과 ‘청소년 중심의 디지털 플랫폼 조성(2-2-2)’에 관한 사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부문의 포괄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정책대상자에 따른 관련 사업 현황 분석으로 사업 수와 예산의 추이

를 확인하였다. 정책대상자 별 사업 수 현황과 예산에서 모두 '9-18세'에 해당하는 청소년 사업의 경우 대략 20%를 상회하며 가장 많았다. 또한 '13-18세' 청소년 관련 사업 비중도 2020년을 제외하고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24세'와 '9-24세'를 모두 포함하는 관련 청소년 사업 비중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3-24세' 청소년 비중도 감소하고 있어 후기청소년과 관련한 사업 및 중기 청소년과 후기청소년의 역량을 함께 확대할 수 있는 성남형 청소년 서비스 정책의 방향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사업 수 현황에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시민을 모두 포함하는 '모든 시민'과 지역의 여러 정책대상자들을 혼합하는 '지역공동체' 관련 사업 역시 각각 15%, 10% 정도를 청소년서비스 사업이 지역 공동체를 도모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모든 시민'의 경우 예산에서도 연도별 차이는 있지만 대략 2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꾸준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지도사와 관련한 사업 수는 대략 5% 수준으로 꾸준하지만 예산의 경우 비중이 크지 않아 청소년 서비스 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지도 종사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삶의 변화와 청소년서비스 수요분석

다음으로 본 연구는 2020년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수행한 ‘2020년 성남시 청소년 행복실태조사’의 원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삶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남시 청소년들의 인적 특성과 주관적 행복도 수준

(1) 전체 성남시 청소년들의 인적 특성과 주관적 행복도 수준

(1)-1 성별

본 조사 대상인 청소년의 표본 크기는 총 1,840명이며,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 925명(50.3%), 여자 915명(49.7%)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V-17. 조사 대상 전체 성별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성남시	925명 (50.3%)	915명 (49.7%)	1,840명 (100%)

(1)-2 연령

본 조사 대상인 1,840명의 연령은 평균 15.1세이며, 남자 925명과 여자 915명의 평균 연령은 15.1세로 남자와 여자의 평균 연령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8. 조사 대상 전체 평균 연령

(단위: 연령,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성남시	15.1세 (925명)	15.1세 (915명)	15.1세 (1,840명)

(1)-3 거주 지역

본 조사 대상의 거주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분당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824명(44.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원구 494명(26.8%), 수정구 375명(20.4%), 성남 외 147명(8%) 순으로 나타났다.

표 V-19. 조사 대상 전체 거주 지역

(단위: 명, %)

구분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남 외	전체
성남시	375명 (20.4%)	494명 (26.8%)	824명 (44.8%)	147명 (8%)	1,840명 (100%)

(1)-4 학교 성적

본 조사 대상의 작년 학교 성적 분포를 살펴보면, 보통 수준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82명(31.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좋다 569명(30.9%), 좋은 편 325명(17.7%), 안 좋은 편 227명(12.3%), 안 좋다 123명(6.7%)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80.2%가 자신의 학교 성적을 보통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V-20. 조사 대상 전체 학교 성적

(단위: 명, %)

구분	안 좋다	안 좋은 편	보통	좋은 편	좋다	결측	전체
성남시	123명 (6.7%)	227명 (12.3%)	582명 (31.6%)	325명 (17.7%)	569명 (30.9%)	14명 (0.8%)	1,840명 (100%)

(1)-5 경제적 형편

본 조사 대상의 가정 경제 사정 분포를 살펴보면, 보통 수준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802명(43.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잘 사는 편 473명(25.7%), 잘산다 437명(23.8%), 부족한 편 93명(5.1%), 부족함 35명(1.9%)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93%가 자신의 집의 경제적 형편을 보통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V-21. 조사 대상 전체 가정 경제 사정

(단위: 명, %)

구분	부족함	부족한 편	보통	잘 사는 편	잘 산다	전체
성남시	35명 (1.9%)	93명 (5.1%)	802명 (43.6%)	473명 (25.7%)	437명 (23.8%)	1,840명 (100%)

(1)-6 평일 방과 후 보호자 여부

본 조사 대상의 평일 방과 후 보호자 여부를 살펴보면, 평일(월~금) 방과 후에 어른들(보호자)이 거의 매일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304명(70.9%)으로 가장 많았고, 3~4일 정도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535명(29.1%)으로 나타났다.

표 V-22. 조사 대상 전체 평일 방과 후 보호자 여부

(단위: 명, %)

구분	거의 매일 있음	3-4일 정도 있음	1-2일 정도 있음	매일 없음	결측	전체
성남시	1,304명 (70.9%)	535명 (29.1%)	0명 (0%)	0명 (0%)	1명 (0.1%)	1,840명 (100%)

(1)-7 주관적 행복도

본 조사 대상의 주관적 행복도 분석 결과, 전체 평균은 3.73점(5점 만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행복도의 하위 영역별 평균 분석 결과, 경제/가정 환경 영역이 4.1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여가(4.14점), 관계(4.06점), 주관적 웰빙(4.02점), 참여/활동(3.94점) 영역이 상위 5위로 나타났다. 한편, 안전 영역이 3.4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미래 진로(3.50점), 외모(3.68점), 교육/학습(3.69점), 자아 개념(3.79점)이 하위 5위로 나타났다.

표 V-23. 조사 대상 전체 주관적 행복도

영역	문항	평균	순위
주관적 웰빙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할 때 지금 내 삶은 행복하다	4.01	4
	나의 미래 삶은 행복할 것 같다	4.03	
소계		4.02	
자아 개념	대체로 나는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는 편이다	3.84	7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3.73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87	
	다른 사람들과로부터 인정받는다고 생각한다	3.72	
소계		3.79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다	4.22	3
	친구관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3.78	
	부모님과의 관계나 가정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4.18	
소계		4.06	
건강	건강상태가 좋다	4.11	6
	전체적으로 스트레스(불안이나 우울감)가 심한 편이다*	3.58	
소계		3.85	
교육/학습	학교생활에 만족한다	4.02	8
	학업(숙제나 시험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3.12	
	자퇴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3.94	
소계		3.69	
안전	자연재해나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편이다	4.31	11
	미세먼지나 공해가 걱정된다*	2.42	
	전염병, 미세먼지 등 자연재해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	3.57	
소계		3.43	
참여/활동	가정, 학교, 사회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한 편이다	3.94	5
	소계	3.94	
여가	여가생활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4.14	2
	소계	4.14	
경제/가정환경	경제적인 여건에 대하여 만족한다	4.31	1
	경제적 여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4.03	
소계		4.17	

영역	문항	평균	순위
외모	몸무게 때문에(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	3.62	9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	3.74	
소계		3.68	
미래 진로	미래 진로가 불투명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 [*]	3.50	10
	소계	3.50	
합계		3.73	

* 역코딩 문항

(2) 학교 급별 인적 특성과 주관적 행복도 수준

(2)-1 성별

학교 급별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 청년까지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었다. 초등학교는 남자가 221명(51.3%), 여자가 210명(48.7%)으로 남자가 더 많았으며, 중학교도 남자가 414명(50.7%), 여자가 403명(49.3%)으로 남자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고등학교는 남자가 281명(49.1%), 여자가 291명(55%)으로 여자가 더 많았으며, 20세 이상 청년의 경우 여자가 11명(55%), 남자가 9명(45%)으로 여자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V-24. 학교 급별 성별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초등학교	221명 (51.3%)	210명 (48.7%)	431명 (100%)
중학교	414명 (50.7%)	403명 (49.3%)	817명 (100%)
고등학교	281명 (49.1%)	291명 (50.9%)	572명 (100%)
청년	9명 (45%)	11명 (55%)	20명 (100%)
전체	925명 (50.3%)	915명 (49.7%)	1,840명 (100%)

(2)-2 연령

학교 급별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전체 평균 연령이 12세로 나타났고, 중학교는 14.7세, 고등학교는 17.8세, 청년은 21.7세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급별 남자와 여자의 평균 연령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V-25. 학교 급별 평균 연령

(단위: 연령,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초등학교	12세 (221명)	12세 (210명)	12세 (431명)
중학교	14.8세 (414명)	14.6세 (403명) ¹	14.7세 (817명)
고등학교	17.8세 (281명)	17.8세 (291명)	17.8세 (572명)
청년	21.4세 (9명)	21.8세 (11명)	21.7세 (20명)
전체	15.1세 (925명)	15.1세 (915명)	15.1세 (1,840명)

(2)-3 거주 지역

학교 급별 거주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분당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40%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원구, 수정구, 성남 외 순이었으며, 청년의 경우 수정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8명(4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원구, 분당구, 성남 외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6. 학교 급별 거주 지역

(단위: 명, %)

구분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남 외	전체
초등학교	78명 (18.1%)	117명 (27.1%)	181명 (42%)	55명 (12.8%)	431명 (100%)
중학교	164명 (20.1%)	242명 (29.6%)	376명 (46%)	35명 (4.3%)	817명 (100%)
고등학교	125명 (21.9%)	128명 (22.4%)	264명 (46.2%)	55명 (9.6%)	572명 (100%)

구분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남 외	전체
청년	8명 (40%)	7명 (35%)	3명 (15%)	2명 (10%)	20명 (100%)
전체	375명 (20.4%)	494명 (26.8%)	824명 (44.8%)	147명 (8%)	1,840명 (100%)

(2)-4 학교 성적

학교 급별 작년 학교 성적 분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좋다고 응답한 사람이 245명(56.8%)으로 가장 많았고, 좋은 편 95명(22%), 보통 80명(18.6%), 안 좋은 편 6명(1.4%), 안 좋다 5명(1.2%)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보통으로 응답한 사람이 287명(35.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좋다 220명(26.9%), 좋은 편 146명(17.9%), 안 좋은 편 108명(13.2%), 안 좋다 54명(6.6%)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는 보통으로 응답한 사람이 205명(35.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안 좋은 편 110명(19.2%), 좋다 103명(18%), 좋은 편 83명(14.5%), 안 좋다 63명(11%) 순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작년 학교 성적을 보통 이상으로 인식하는 비중은 초등학교가 97.4%, 중학교 79.9%, 고등학교 68.3%로 초등학교가 가장 많고 고등학교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7. 학교 급별 학교 성적

(단위: 명, %)

구분	안 좋다	안 좋은 편	보통	좋은 편	좋다	결측	전체
초등 학교	5명 (1.2%)	6명 (1.4%)	80명 (18.6%)	95명 (22%)	245명 (56.8%)	0명 (0%)	431명 (100%)
중학교	54명 (6.6%)	108명 (13.2%)	287명 (35.1%)	146명 (17.9%)	220명 (26.9%)	2명 (0.2%)	817명 (100%)
고등 학교	63명 (11%)	110명 (19.2%)	205명 (35.8%)	83명 (14.5%)	103명 (18%)	8명 (1.4%)	572명 (100%)
청년	1명 (5%)	3명 (15%)	10명 (50%)	1명 (5%)	1명 (5%)	4명 (20%)	20명 (100%)
전체	123명 (6.7%)	227명 (12.3%)	582명 (31.6%)	325명 (17.7%)	569명 (30.9%)	14명 (0.8%)	1,840명 (100%)

(2)-5 경제적 형편

학교 급별 가정 경제 사정 분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 청년까지 보통 수준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부족함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가정 경제 사정을 보통 이상으로 인식하는 비중은 초등학교가 97.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중학교 94.4%, 고등학교 87.8%, 청년 85%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8. 학교 급별 가정 경제사정

(단위: 명, %)

구분	부족함	부족한 편	보통	잘 사는 편	잘산다	전체
초등 학교	2명 (5%)	7명 (1.6%)	154명 (35.7%)	120명 (27.8%)	148명 (34.3%)	431명 (100%)
중학교	13명 (1.6%)	33명 (4%)	365명 (44.7%)	240명 (29.4%)	166명 (20.3%)	817명 (100%)
고등 학교	20명 (3.5%)	50명 (8.7%)	270명 (47.2%)	111명 (19.4%)	121명 (21.2%)	572명 (100%)
청년	0명 (0%)	3명 (15%)	13명 (65%)	2명 (10%)	2명 (10%)	20명 (100%)
전체	35명 (1.9%)	93명 (5.1%)	802명 (43.6%)	473명 (25.7%)	437명 (23.8%)	1,840명 (100%)

(2)-6 평일 방과 후 보호자 여부

학교 급별 평일 방과 후 보호자 여부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평일(월~금) 방과 후에 어른들(보호자)이 거의 매일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약 70%를 상회하며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3~4일 정도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30% 이내로 나타났다.

표 V-29. 학교 급별 평일 방과 후 보호자 여부

(단위: 명, %)

구분	거의 매일 있음	3-4일 정도 있음	1-2일 정도 있음	매일 없음	결측	전체
초등 학교	309명 (71.7%)	122명 (28.3%)	0명 (0%)	0명 (0%)	0명 (0%)	431명 (100%)
중학교	571명 (69.9%)	245명 (30%)	0명 (0%)	0명 (0%)	1명 (0.1%)	817명 (100%)
고등 학교	403명 (71.3%)	164명 (28.7%)	0명 (0%)	0명 (0%)	0명 (0%)	572명 (100%)
청년	16명 (80%)	4명 (20%)	0명 (0%)	0명 (0%)	0명 (0%)	20명 (100%)
전체	1,304명 (70.9%)	535명 (29.1%)	0명 (0%)	0명 (0%)	1명 (0.1%)	1,840명 (100%)

(2)-7 주관적 행복도

학교 급별 주관적 행복도 분석 결과, 초등학생의 주관적 행복도 전체 평균이 4.0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중학생 3.8점, 고등학생 3.74점, 청년 3.21점 순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행복도의 하위 영역별 순위를 보면 초등학생에서 청년까지 경제/가정 환경 영역이 공통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초등학생의 경우 안전 영역이 가장 낮은 순위로 나타났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미래 진로 영역이, 청년은 건강 영역이 가장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2)-7-1 초등학생의 주관적 행복도

초등학생의 주관적 행복도 분석 결과, 전체 11개 하위 영역 중 7개 영역의 평균이 4점 이상이며 전체 평균은 4.06점(5점 만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행복도의 하위 영역별 평균 분석 결과, 경제/가정 환경 영역이 4.3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관계(4.32점), 주관적 웰빙(4.31점), 여가(4.3점), 건강(4.18점) 영역이 상위 5위로 나타났다. 한편, 안전 영역이 3.5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교육/학습(3.62점), 자아 개념(3.9점), 참여/활동(3.96점), 외모(4.04점)가 하위 5위로 나타났다.

표 V-30. 초등학교의 주관적 행복도

영역	문항	평균	순위
주관적 웰빙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할 때 지금 내 삶은 행복하다	4.31	3
	나의 미래 삶은 행복할 것 같다	4.30	
소계		4.31	
자아 개념	대체로 나는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는 편이다	4.09	9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3.82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92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다고 생각한다	3.76	
소계		3.90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다	4.39	2
	친구관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4.17	
	부모님과의 관계나 가정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4.40	
소계		4.32	
건강	건강상태가 좋다	4.41	5
	전체적으로 스트레스(불안이나 우울감)가 심한 편이다*	3.94	
소계		4.18	
교육/학습	학교생활에 만족한다	4.25	10
	학업(숙제나 시험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3.61	
	자퇴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3.00	
소계		3.62	
안전	자연재해나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편이다	4.45	11
	미세먼지나 공해가 걱정된다*	2.48	
	전염병, 미세먼지 등 자연재해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	3.79	
소계		3.57	
참여/활동	가정, 학교, 사회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한 편이다	3.96	8
	소계	3.96	
여가	여가생활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4.30	4
	소계	4.30	
경제/가정환경	경제적인 여건에 대하여 만족한다	4.44	1
	경제적 여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4.24	
소계		4.34	

영역	문항	평균	순위
외모	몸무게 때문에(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3.85	7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4.22	
소계		4.04	
미래 진로	미래 진로가 불투명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	4.17	6
	소계	4.17	
합계		4.06	

* 역코딩 문항

(2)-7-2. 중학생의 주관적 행복도

중학생의 주관적 행복도 분석 결과, 전체 평균은 3.8점(5점 만점)으로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행복도의 하위 영역별 평균 분석 결과, 경제/가정 환경 영역이 4.1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여가(4.12점), 관계(3.99점), 주관적 웰빙(3.95점), 참여/활동(3.93점) 영역이 상위 5위로 나타났다. 한편, 미래 진로가 3.4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안전(3.45점), 외모(3.58점), 교육/학습(3.72점), 자아 개념(3.73점)이 하위 5위로 나타났다.

표 V-31. 중학생의 주관적 행복도

영역	문항	평균	순위
주관적 웰빙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할 때 지금 내 삶은 행복하다	3.94	4
	나의 미래 삶은 행복할 것 같다	3.95	
소계		3.95	
자아 개념	대체로 나는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는 편이다	3.77	7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3.66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85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다고 생각한다	3.65	
소계		3.73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다	4.15	3
	친구관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3.67	

영역	문항	평균	순위
	부모님과 관계나 가정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	4.15	
	소계	3.99	
건강	건강상태가 좋다	4.05	6
	전체적으로 스트레스(불안이나 우울감)가 심한 편이다 [*]	3.50	
	소계	3.78	
교육/학습	학교생활에 만족한다	3.92	8
	학업(숙제나 시험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	3.01	
	자퇴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	4.22	
	소계	3.72	
안전	자연재해나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편이다	4.29	10
	미세먼지나 공해가 걱정된다 [*]	2.48	
	전염병, 미세먼지 등 자연재해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 [*]	3.58	
	소계	3.45	
참여/활동	가정, 학교, 사회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한 편이다	3.93	5
	소계	3.93	
여가	여가생활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4.12	2
	소계	4.12	
경제/ 가정환경	경제적인 여건에 대하여 만족한다	4.29	1
	경제적 여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	3.99	
	소계	4.14	
외모	몸무게 때문에(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	3.53	9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	3.63	
	소계	3.58	
미래 진로	미래 진로가 불투명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 [*]	3.41	11
	소계	3.41	
	합계	3.8	

^{*} 역코딩 문항

(2)-7-3. 고등학생의 주관적 행복도

고등학생의 주관적 행복도 분석 결과, 전체 평균은 3.74점(5점 만점)으로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행복도의 하위 영역별 평균 분석 결과, 경제/가정 환경 영역이 4.1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여가(4.09점), 관계(4.00점), 참여/활동(3.97점), 주관적 웰빙(3.95점) 영역이 상위 5위로 나타났다. 한편, 미래 진로가 3.1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안전(3.31점), 교육/학습(3.51점), 외모(3.58점), 건강(3.74점)이 하위 5위로 나타났다.

표 V-32. 고등학생의 주관적 행복도

영역	문항	평균	순위
주관적 웰빙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할 때 지금 내 삶은 행복하다	3.93	5
	나의 미래 삶은 행복할 것 같다	3.97	
소계		3.95	
자아 개념	대체로 나는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는 편이다	3.77	6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3.76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89	
	다른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는다고 생각한다	3.80	
소계		3.81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다	4.24	3
	친구관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3.67	
	부모님과의 관계나 가정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4.08	
소계		4.00	
건강	건강상태가 좋다	4.02	7
	전체적으로 스트레스(불안이나 우울감)가 심한 편이다*	3.45	
소계		3.74	
교육/학습	학교생활에 만족한다	4.00	9
	학업(숙제나 시험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2.90	
	자퇴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3.62	
소계		3.51	
안전	자연재해나 범죄 등으로 부터 안전한 편이다	4.25	10

영역	문항	평균	순위
	미세먼지나 공해가 걱정된다 [*]	2.27	
	전염병, 미세먼지 등 자연재해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 [*]	3.42	
	소계	3.31	
참여/활동	가정, 학교, 사회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한 편이다	3.97	4
	소계	3.97	
여가	여가생활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4.09	2
	소계	4.09	
경제/ 가정환경	경제적인 여건에 대하여 만족한다	4.27	1
	경제적 여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	3.94	
	소계	4.11	
외모	몸무게 때문에(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	3.61	8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	3.55	
	소계	3.58	
미래 진로	미래 진로가 불투명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 [*]	3.12	11
	소계	3.12	
합계		3.74	

* 역코딩 문항

(2)-7-4. 청년의 주관적 행복도

청년의 주관적 행복도 분석 결과, 전체 평균은 3.21점(5점 만점)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행복도의 하위 영역별 평균 분석 결과, 경제/가정 환경 영역이 3.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자아 개념(3.44점), 여가(3.35점), 관계(3.28점), 주관적 웰빙(3.25점) 영역이 상위 5위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이 2.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교육/학습(3.04점), 안전(3.1점), 외모(3.1점), 참여/활동(3.15점), 미래 진로(3.15점)가 하위 5위로 나타났다.

표 V-33. 청년의 주관적 행복도

영역	문항	평균	순위
주관적 웰빙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할 때 지금 내 삶은 행복하다	3.10	5
	나의 미래 삶은 행복할 것 같다	3.40	
	소계	3.25	
자아 개념	대체로 나는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는 편이다	3.65	2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3.45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40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다고 생각한다	3.25	
소계		3.44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다	3.20	4
	친구관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3.20	
	부모님과의 관계나 가정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3.45	
소계		3.28	
건강	건강상태가 좋다	2.85	11
	전체적으로 스트레스(불안이나 우울감)가 심한 편이다*	2.95	
소계		2.90	
교육/학습	학교생활에 만족한다	3.13	10
	학업(숙제나 시험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3.00	
	자퇴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3.00	
소계		3.04	
안전	자연재해나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편이다	3.60	8
	미세먼지나 공해가 걱정된다*	2.80	
	전염병, 미세먼지 등 자연재해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	2.90	
소계		3.10	
참여/활동	가정, 학교, 사회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한 편이다	3.15	6
	소계	3.15	
여가	여가생활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3.35	3
	소계	3.35	
경제/ 가정환경	경제적인 여건에 대하여 만족한다	3.70	1
	경제적 여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3.50	
	소계	3.60	

영역	문항	평균	순위
외모	몸무게 때문에(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2.75	8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3.45	
소계		3.10	
미래 진로	미래 진로가 불투명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	3.15	6
	소계	3.15	
합계		3.21	

* 역코딩 문항

(3) 4개 구별 청소년들의 인적 특성과 주관적 행복도 수준

(3)-1. 성별

4개 구별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성남 외를 제외한 3개구의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비교적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었다. 수정구는 남자가 196명(52.3%), 여자가 179명(47.7%)으로 남자가 더 많았으며, 중원구도 남자가 248명(50.2%), 여자가 246명(49.8%)으로 남자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분당구는 남자가 392명(47.6%), 여자가 432명(52.4%)으로 여자가 더 많았으며, 성남 외의 경우 남자가 89명(60.5%), 여자가 58명(39.5%)으로 남자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V-34. 4개 구별 성별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수정구	196명 (52.3%)	179명 (47.7%)	375명 (100%)
중원구	248명 (50.2%)	246명 (49.8%)	494명 (100%)
분당구	392명 (47.6%)	432명 (52.4%)	824명 (100%)
성남 외	89명 (60.5%)	58명 (39.5%)	147명 (100%)
전체	925명 (50.3%)	915명 (49.7%)	1,840명 (100%)

(3)-2. 연령

4개 구별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수정구의 평균 연령이 15.5세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원구 15.1세, 분당구 15세, 성남 외 14.9세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4개 구별 남자와 여자의 평균 연령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V-35. 4개 구별 평균 연령

(단위: 연령,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수정구	15.1세 (196명)	16세 (179명) ¹	15.5세 (375명)
중원구	15세 (248명)	15.2세 (246명)	15.1세 (494명)
분당구	15.3세 (392명)	14.7세 (432명)	15세 (824명)
성남 외	14.7세 (89명)	15.4세 (58명)	14.9세 (147명)
전체	15.1세 (925명)	15.1세 (915명)	15.1세 (1,840명)

(3)-3. 학교급

4개 구별 학교급 분포를 살펴보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의 경우 중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이 40% 이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고등학교, 초등학교, 청년 순으로 나타났다. 성남 외의 경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중학교, 청년 순으로 나타났다.

(3)-(4). 학교 성적

4개 구별 작년 학교 성적 분포를 살펴보면, 수정구, 중원구, 성남 외는 자신의 작년 학교 성적을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각각 134명(35.7%), 178명(36%), 51명(34.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안 좋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각각 24명(6.4%), 35명(7.1%), 16명(10.9%)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분당구는 자신의 작년 학교 성적을 좋다고 인식하는 청소년이 327명(39.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보통 219명(26.6%), 좋은 편 28명(19%), 안 좋은 편 86명(10.4%), 안 좋다 48명(5.8%) 순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작년 학교 성적을 보통 이상으로 인식하는 비중은 분당구가 83.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중원구 79.9%, 성남 외 78.2%, 수정구 74.4% 순으로 나타났다.

표 V-36. 4개 구별 학교 성적

(단위: 명, %)

구분	안 좋다	안 좋은 편	보통	좋은 편	좋다	결측	전체
수정구	24명 (6.4%)	66명 (17.6%)	134명 (35.7%)	64명 (17.1%)	81명 (21.6%)	6명 (1.6%)	375명 (100%)
중원구	35명 (7.1%)	59명 (11.9%)	178명 (36%)	92명 (18.6%)	125명 (25.3%)	5명 (1%)	494명 (100%)
분당구	48명 (5.8%)	86명 (10.4%)	219명 (26.6%)	141명 (17.1%)	327명 (39.7%)	3명 (0.4%)	824명 (100%)
성남 외	16명 (10.9%)	16명 (10.9%)	51명 (34.7%)	28명 (19%)	36명 (24.5%)	0명 (0%)	147명 (100%)
전체	123명 (6.7%)	227명 (12.3%)	582명 (31.6%)	325명 (17.7%)	569명 (30.9%)	14명 (0.8%)	1,840명 (100%)

3-(5). 경제적 형편

4개 구별 가정 경제 사정 분포를 살펴보면, 수정구, 중원구, 성남 외의 경우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각각 202명(53.9%), 254명(51.4%), 73명(49.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족함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각각 12명(3.2%), 13명(2.6%), 3명(2%)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한편 분당구는 잘 산다고 응답한 비중이 274명(3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통 273명(33.1%), 잘 사는 편 256명(31.1%), 부족한 편 14명(1.7%), 부족함 7명(0.8%)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 경제 사정을 보통 이상으로 인식하는 비중은 분당구가 9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성남 외 96.1%, 수정구 88.3%, 중원구 88.2% 순으로 나타났다.

표 V-37. 4개 구별 가정 경제사정

(단위: 명, %)

구분	부족함	부족한 편	보통	잘 사는 편	잘산다	전체
수정구	12명 (3.2%)	32명 (8.5%)	202명 (53.9%)	83명 (22.1%)	46명 (12.3%)	375명 (100%)
중원구	13명 (2.6%)	45명 (9.1%)	254명 (51.4%)	101명 (20.4%)	81명 (16.4%)	494명 (100%)
분당구	7명 (0.8%)	14명 (1.7%)	273명 (33.1%)	256명 (31.1%)	274명 (33.3%)	824명 (100%)
성남 외	3명 (2%)	2명 (1.4%)	73명 (49.7%)	33명 (22.4%)	36명 (24.5%)	147명 (100%)
전체	35명 (1.9%)	93명 (5.1%)	802명 (43.6%)	473명 (25.7%)	437명 (23.8%)	1,840명 (100%)

3-(6). 평일 방과 후 보호자 여부

4개 구별 평일 방과 후 보호자 여부를 살펴보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남 외 모두 평일(월~금) 방과 후에 어른들(보호자)이 거의 매일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65%를 상회하며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3~4일 정도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약 30% 정도로 나타났다.

표 V-38. 4개 구별 평일 방과 후 보호자 여부

(단위: 명, %)

구분	거의 매일 있음	3-4일 정도 있음	1-2일 정도 있음	매일 없음	결측	전체
수정구	246명 (65.6%)	129명 (34.4%)	0명 (0%)	0명 (0%)	0명 (0%)	375명 (100%)
중원구	327명 (66.2%)	167명 (33.8%)	0명 (0%)	0명 (0%)	1명 (0.1%)	494명 (100%)
분당구	620명 (75.2%)	203명 (24.6%)	0명 (0%)	0명 (0%)	1명 (0.1%)	824명 (100%)
성남 외	111명 (75.5%)	36명 (24.5%)	0명 (0%)	0명 (0%)	0명 (0%)	147명 (100%)
전체	1,304명 (70.9%)	535명 (29.1%)	0명 (0%)	0명 (0%)	1명 (0.1%)	1,840명 (100%)

3-(7). 주관적 행복도

4개 구별 주관적 행복도 분석 결과, 분당구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관적 행복도 전체 평균이 3.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성남 외 3.87점, 중원구 3.81점, 수정구 3.75점 순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행복도의 하위 영역별 순위를 보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의 경우 여가와 경제/가정 환경 영역의 순위가 높게 나타났고, 안전과 미래 진로 영역의 순위가 낮게 나타났으며, 성남 외의 경우 관계, 경제/가정환경 영역의 순위가 높게 나타났고, 안전과 외모 영역의 순위가 낮게 나타났다.

(3)-(7)-1. 수정구 주관적 행복도

수정구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관적 행복도 분석 결과, 전체 평균은 3.75점(5점 만점)으로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행복도의 하위 영역별 평균 분석 결과, 여가 영역이 4.0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경제/가정환경(4.00점), 주관적 웰빙(3.95점), 관계(3.95점), 참여/활동(3.82점) 영역이 상위 5위로 나타났다. 한편, 미래 진로 영역이 3.3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안전(3.46점), 외모(3.52점), 자아 개념(3.66점), 교육/학습(3.73점)이 하위 5위로 나타났다.

표 V-39. 수정구 주관적 행복도

영역	문항	평균	순위
주관적 웰빙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할 때 지금 내 삶은 행복하다	3.97	3
	나의 미래 삶은 행복할 것 같다	3.92	
소계		3.95	
자아 개념	대체로 나는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는 편이다	3.69	8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3.57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73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다고 생각한다	3.64	

영역	문항	평균	순위
소계		3.66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다	4.18	3
	친구관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3.66	
	부모님과의 관계나 가정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4.01	
소계		3.95	
건강	건강상태가 좋다	4.04	6
	전체적으로 스트레스(불안이나 우울감)가 심한 편이다*	3.50	
소계		3.77	
교육/학습	학교생활에 만족한다	3.98	7
	학업(숙제나 시험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3.14	
	자퇴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4.06	
소계		3.73	
안전	자연재해나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편이다	4.25	10
	미세먼지나 공해가 걱정된다*	2.54	
	전염병, 미세먼지 등 자연재해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	3.60	
소계		3.46	
참여/활동	가정, 학교, 사회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한 편이다	3.82	5
소계		3.82	
여가	여가생활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4.07	1
소계		4.07	
경제/ 가정환경	경제적인 여건에 대하여 만족한다	4.21	2
	경제적 여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3.79	
소계		4.00	
외모	몸무게 때문에(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3.49	9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3.55	
소계		3.52	
미래 진로	미래 진로가 불투명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	3.32	11
소계		3.32	
합계		3.75	

* 역코딩 문항

(3)-(7)-2. 중원구 주관적 행복도

중원구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관적 행복도 분석 결과, 전체 평균은 3.81점(5점 만점)으로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행복도의 하위 영역별 평균 분석 결과, 여가 영역이 4.0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경제/가정환경(4.08점), 주관적 웰빙(3.99점), 관계(3.99점), 건강(3.86점) 영역이 상위 5위로 나타났다. 한편, 안전 영역이 3.4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미래 진로(3.59점), 외모(3.64점), 자아 개념(3.69점), 교육/학습(3.72점)이 하위 5위로 나타났다.

표 V-40. 중원구 주관적 행복도

영역	문항	평균	순위
주관적 웰빙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할 때 지금 내 삶은 행복하다	3.97	3
	나의 미래 삶은 행복할 것 같다	4.00	
소계		3.99	
자아 개념	대체로 나는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는 편이다	3.78	8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3.60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76	
	다른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는다고 생각한다	3.60	
소계		3.69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다	4.09	3
	친구관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3.74	
	부모님과의 관계나 가정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4.15	
소계		3.99	
건강	건강상태가 좋다	4.07	5
	전체적으로 스트레스(불안이나 우울감)가 심한 편이다*	3.64	
소계		3.86	
교육/학습	학교생활에 만족한다	3.92	7
	학업(숙제나 시험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3.22	
	자퇴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4.03	
소계		3.72	

영역	문항	평균	순위
안전	자연재해나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편이다	4.21	11
	미세먼지나 공해가 걱정된다 [*]	2.51	
	전염병, 미세먼지 등 자연재해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 [*]	3.47	
소계		3.40	
참여/활동	가정, 학교, 사회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한 편이다	3.82	6
	소계	3.82	
여가	여가생활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4.09	1
	소계	4.09	
경제/ 가정환경	경제적인 여건에 대하여 만족한다	4.24	2
	경제적 여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	3.91	
	소계	4.08	
외모	몸무게 때문에(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	3.56	9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	3.71	
	소계	3.64	
미래 진로	미래 진로가 불투명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 [*]	3.59	10
	소계	3.59	
	합계	3.81	

* 역코딩 문항

(3)-(7)-3. 분당구 주관적 행복도

분당구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관적 행복도 분석 결과, 전체 평균은 3.9점(5점 만점)으로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행복도의 하위 영역별 평균 분석 결과, 경제/가정 환경 영역이 4.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여가(4.22점), 관계(4.14점), 참여/활동(4.08점), 주관적 웰빙(4.07점) 영역이 상위 5위로 나타났다. 한편, 안전 영역이 3.4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미래 진로(3.48점), 교육/학습(3.65점), 외모(3.78점), 건강(3.86점)이 하위 5위로 나타났다.

표 V-41. 분당구 주관적 행복도

영역	문항	평균	순위
주관적 웰빙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할 때 지금 내 삶은 행복하다	4.04	5
	나의 미래 삶은 행복할 것 같다	4.10	
	소계	4.07	
자아 개념	대체로 나는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는 편이다	3.95	6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3.87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02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다고 생각한다	3.86	
소계		3.93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다	4.32	3
	친구관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3.82	
	부모님과 관계나 가정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4.27	
소계		4.14	
건강	건강상태가 좋다	4.16	7
	전체적으로 스트레스(불안이나 우울감)가 심한 편이다*	3.56	
소계		3.86	
교육/학습	학교생활에 만족한다	4.10	9
	학업(숙제나 시험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2.99	
	자퇴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3.86	
소계		3.65	
안전	자연재해나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편이다	4.41	11
	미세먼지나 공해가 걱정된다*	2.30	
	전염병, 미세먼지 등 자연재해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	3.59	
소계		3.43	
참여/활동	가정, 학교, 사회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한 편이다	4.08	4
	소계	4.08	
여가	여가생활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4.22	2
	소계	4.22	
경제/ 가정환경	경제적인 여건에 대하여 만족한다	4.41	1
	경제적 여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4.19	
	소계	4.30	

영역	문항	평균	순위
외모	몸무게 때문에(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3.73	8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3.83	
소계		3.78	
미래 진로	미래 진로가 불투명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	3.48	10
	소계	3.48	
합계		3.9	

* 역코딩 문항

(3)-(7)-4. 성남 외 주관적 행복도

성남 외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관적 행복도 분석 결과, 전체 평균은 3.87점(5점 만점)으로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행복도의 하위 영역별 평균 분석 결과, 관계 영역이 4.1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경제/가정환경(4.15점), 여가(4.06점), 주관적 웰빙(4.05점), 건강(3.93점) 영역이 상위 5위로 나타났다. 한편, 안전 영역이 3.4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외모(3.67점), 교육/학습(3.69점), 미래 진로(3.74점), 자아 개념(3.75점)이 하위 5위로 나타났다.

표 V-42. 성남 외 주관적 행복도

영역	문항	평균	순위
주관적 웰빙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할 때 지금 내 삶은 행복하다	4.09	4
	나의 미래 삶은 행복할 것 같다	4.01	
소계		4.05	
자아 개념	대체로 나는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는 편이다	3.86	7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3.76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80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다고 생각한다	3.57	
소계		3.75	

영역	문항	평균	순위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다	4.23	1
	친구관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	4.05	
	부모님과의 관계나 가정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	4.21	
소계		4.16	
건강	건강상태가 좋다	4.17	5
	전체적으로 스트레스(불안이나 우울감)가 심한 편이다 [*]	3.68	
소계		3.93	
교육/학습	학교생활에 만족한다	3.99	9
	학업(숙제나 시험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	3.45	
	자퇴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	3.62	
소계		3.69	
안전	자연재해나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편이다	4.29	11
	미세먼지나 공해가 걱정된다 [*]	2.45	
	전염병, 미세먼지 등 자연재해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 [*]	3.71	
소계		3.48	
참여/활동	가정, 학교, 사회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한 편이다	3.90	6
소계		3.90	
여가	여가생활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4.06	3
소계		4.06	
경제/ 가정환경	경제적인 여건에 대하여 만족한다	4.25	2
	경제적 여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	4.05	
소계		4.15	
외모	몸무게 때문에(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	3.54	10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	3.80	
소계		3.67	
미래 진로	미래 진로가 불투명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 [*]	3.74	8
소계		3.74	
합계		3.87	

* 역코딩 문항

(4) 원도심과 신도심의 인적 특성과 주관적 행복도 수준

수정구와 중원구는 원도심으로, 분당구는 신도심으로 분류하여 원도심과 신도심의 인적 특성과 주관적 행복도 수준을 분석하였으며, 성남 외 지역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4)-1. 성별

원도심과 신도심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원도심과 신도심의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비교적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었다. 원도심은 남자가 444명(51.1%), 여자가 425명(48.9%)으로 남자가 더 많았으며, 신도심의 경우 남자가 392명(47.6%), 여자가 432명(52.4%)으로 여자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V-43. 원도심과 신도심의 성별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원도심	444명 (51.1%)	425명 (48.9%)	869명 (100%)
신도심	392명 (47.6%)	432명 (52.4%)	824명 (100%)
전체	836명 (49.4%)	857명 (50.6%)	1,693명 (100%)

(4)-2. 연령

원도심과 신도심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원도심의 평균 연령은 15.3세, 신도심의 평균 연령은 15세로 원도심의 평균 연령이 높게 나타났다. 원도심은 여자의 평균 연령(15.5세)이 남자의 평균 연령(15.1세)보다 높았으며, 신도심은 남자의 평균 연령(15.3세)이 여자의 평균 연령(14.7세)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44. 원도심과 신도심의 평균 연령

(단위: 연령,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원도심	15.1세 (444명)	15.5세 (425명) ¹	15.3세 (869명)
신도심	15.3세 (392명)	14.7세 (432명)	15.0세 (824명)
전체	15.2세 (836명)	15.1세 (857명)	15.1세 (1,693명)

(4)-3. 학교급

원도심과 신도심의 학교급 분포를 살펴보면, 원도심과 신도심 모두 중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이 45% 이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고등학교, 초등학교, 청년 순으로 나타났다.

표 V-45. 원도심과 신도심의 학교급

(단위: 명,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전체
원도심	195명 (22.4%)	406명 (46.7%)	253명 (29.1%)	15명 (1.7%)	869명 (100%)
신도심	181명 (22%)	376명 (45.6%)	264명 (32%)	3명 (0.4%)	824명 (100%)
전체	376명 (22.2%)	782명 (46.2%)	517명 (30.5%)	18명 (1.1%)	1,693명 (100%)

(4)-4. 학교 성적

4개 구별 작년 학교 성적 분포를 살펴보면, 원도심은 자신의 작년 학교 성적을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각각 312명(36.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좋다 206명(24%), 좋은 편 156명(18.2%), 안 좋은 편 125명(14.6%), 안 좋다 59명(6.9%) 순으로 나타났다. 신도심은 자신의 작년 학교 성적을 좋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각각 327명(39.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보통 219명(26.7%), 좋은 편 141명(17.2%), 안 좋은 편 86명(10.5%), 안 좋다 48명(5.8%) 순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작년 학교 성적을 보통 이상으로 인식하는 비중은 원도심이 78.6%, 신도심이 83.7%로 신도심이 원도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6. 원도심과 신도심의 학교 성적

(단위: 명, %)

구분	안 좋다	안 좋은 편	보통	좋은 편	좋다	결측	전체
원도심	59명 (6.8%)	125명 (14.4%)	312명 (35.9%)	156명 (18.0%)	206명 (23.7%)	11명 (1.3%)	869명 (100%)
신도심	48명 (5.8%)	86명 (10.4%)	219명 (26.6%)	141명 (17.1%)	327명 (39.7%)	3명 (0.4%)	824명 (100%)
전체	107명 (6.3%)	211명 (12.5%)	531명 (31.4%)	297명 (17.5%)	533명 (31.5%)	14명 (0.8%)	1,693명 (100%)

(4)-5. 경제적 형편

원도심과 신도심의 경제 사정 분포를 살펴보면, 원도심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456명(52.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잘 사는 편 184명(21.2%), 잘 산다 127명(14.6%), 부족한 편 77명(8.9%), 부족함 25명(2.9%) 순으로 나타났다. 신도심은 잘 산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274명(3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통 273명(33.1%), 잘 사는 편 256명(31.1%), 부족한 편 14명(1.7%), 부족함 7명(0.8%)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 경제 사정을 보통 이상으로 인식하는 비중은 원도심이 88.3%, 신도심이 92.8%로 신도심이 원도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7. 원도심과 신도심의 가정 경제사정

(단위: 명, %)

구분	부족함	부족한 편	보통	잘 사는 편	잘산다	전체
원도심	25명 (2.9%)	77명 (8.9%)	456명 (52.5%)	184명 (21.2%)	127명 (14.6%)	869명 (100%)
신도심	7명 (0.8%)	14명 (1.7%)	273명 (33.1%)	256명 (31.1%)	274명 (33.3%)	824명 (100%)
전체	32명 (1.9%)	91명 (5.4%)	729명 (43.1%)	440명 (26.0%)	401명 (23.7%)	1,693명 (100%)

(4)-6. 평일 방과 후 보호자 여부

4개 구별 평일 방과 후 보호자 여부를 살펴보면, 원도심과 신도심 모두 평일(월~금) 방과 후에 어른들(보호자)이 거의 매일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65%를 상회하며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3~4일 정도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원도심은 34.1%, 신도심은 24.6%로 나타났다.

표 V-48. 원도심과 신도심의 평일 방과 후 보호자 여부

(단위: 명, %)

구분	거의 매일 있음	3-4일 정도 있음	1-2일 정도 있음	매일 없음	결측	전체
원도심	573명 (65.9%)	296명 (34.1%)	0명 (0%)	0명 (0%)	0명 (0%)	869명 (100%)
신도심	620명 (75.2%)	203명 (24.6%)	0명 (0%)	0명 (0%)	1명 (0.1%)	824명 (100%)
전체	1,193명 (70.5%)	499명 (29.5%)	0명 (0%)	0명 (0%)	1명 (0.1%)	1,693명 (100%)

(4)-7. 주관적 행복도

원도심과 신도심의 주관적 행복도 분석 결과, 원도심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관적 행복도 전체 평균이 3.78점, 신도심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관적 행복도 전체 평균이 3.9점으로 신도심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관적 행복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행복도의 하위 영역별 순위를 보면 원도심과 신도심 모두 여가, 경제/가정환경

영역의 순위가 높게 나타났고, 안전과 미래 진로 영역의 순위가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4)-7-1. 원도심의 주관적 행복도

원도심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관적 행복도 분석 결과, 전체 평균은 3.78점(5점 만점)으로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행복도의 하위 영역별 평균 분석 결과, 여가 영역이 4.0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경제/가정환경(4.05점), 주관적 웰빙(3.97점), 관계(3.97점), 건강(3.82점), 참여/활동(3.82점) 영역이 상위 5위로 나타났다. 한편, 안전 영역이 3.4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미래 진로(3.48점), 외모(3.59점), 자아 개념(3.68점), 교육/학습(3.73점)이 하위 5위로 나타났다.

표 V-49. 원도심 주관적 행복도

영역	문항	평균	순위
주관적 웰빙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할 때 지금 내 삶은 행복하다	3.97	3
	나의 미래 삶은 행복할 것 같다	3.96	
소계		3.97	
자아 개념	대체로 나는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는 편이다	3.74	8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3.59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75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다고 생각한다	3.62	
소계		3.68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다	4.12	3
	친구관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3.71	
	부모님과의 관계나 가정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4.09	
소계		3.97	
건강	건강상태가 좋다	4.06	5
	전체적으로 스트레스(불안이나 우울감)가 심한 편이다*	3.58	
소계		3.82	

영역	문항	평균	순위
교육/학습	학교생활에 만족한다	3.95	7
	학업(숙제나 시험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	3.19	
	자퇴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	4.04	
소계		3.73	
안전	자연재해나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편이다	4.22	11
	미세먼지나 공해가 걱정된다 [*]	2.52	
	전염병, 미세먼지 등 자연재해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 [*]	3.53	
소계		3.42	
참여/활동	가정, 학교, 사회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한 편이다	3.82	5
소계		3.82	
여가	여가생활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4.08	1
소계		4.08	
경제/ 가정환경	경제적인 여건에 대하여 만족한다	4.23	2
	경제적 여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	3.86	
소계		4.05	
외모	몸무게 때문에(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	3.53	9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	3.64	
소계		3.59	
미래 진로	미래 진로가 불투명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 [*]	3.48	10
소계		3.48	
합계		3.78	

* 역코딩 문항

(4)-7-2. 신도심의 주관적 행복도

신도심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관적 행복도 분석 결과, 전체 평균은 3.9점(5점 만점)으로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행복도의 하위 영역별 평균 분석 결과, 경제/가정 환경 영역이 4.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여가(4.22점), 관계(4.14점), 참여/활동(4.08점), 주관적 웰빙(4.07점) 영역이 상위 5위로 나타났다. 한편, 안전 영역이 3.4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미래 진로(3.48점), 교육/학습(3.65점), 외모(3.78점), 건강(3.86점)이 하위 5위로 나타났다.

표 V-50. 신도심의 주관적 행복도

영역	문항	평균	순위
주관적 웰빙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할 때 지금 내 삶은 행복하다	4.04	5
	나의 미래 삶은 행복할 것 같다	4.10	
	소계	4.07	
자아 개념	대체로 나는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는 편이다	3.95	6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3.87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02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다고 생각한다	3.86	
소계		3.93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다	4.32	3
	친구관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3.82	
	부모님과의 관계나 가정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4.27	
소계		4.14	
건강	건강상태가 좋다	4.16	7
	전체적으로 스트레스(불안이나 우울감)가 심한 편이다*	3.56	
소계		3.86	
교육/학습	학교생활에 만족한다	4.10	9
	학업(숙제나 시험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2.99	
	자퇴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3.86	
소계		3.65	
안전	자연재해나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편이다	4.41	11
	미세먼지나 공해가 걱정된다*	2.30	
	전염병, 미세먼지 등 자연재해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	3.59	
소계		3.43	
참여/활동	가정, 학교, 사회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한 편이다	4.08	4
	소계	4.08	
여가	여가생활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4.22	2
	소계	4.22	
경제/ 가정환경	경제적인 여건에 대하여 만족한다	4.41	1
	경제적 여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4.19	
	소계	4.30	

영역	문항	평균	순위
외모	몸무게 때문에(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3.73	8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3.83	
소계		3.78	
미래 진로	미래 진로가 불투명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	3.48	10
	소계	3.48	
합계		3.90	

* 역코딩 문항

(5) 소결

성남시 청소년들의 인적 특성과 주관적 행복도 수준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전체의 주관적 행복도 평균은 3.73점(5점 만점)으로 보통 이상이었으나 학교 급별 차이가 두드러져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관적 행복도 전체 평균은 초등학교가 4.06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학교(3.8점), 고등학교(3.74점), 청년(3.21점) 순으로 나타나,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행복도는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주관적 행복도 하위 영역별 순위에서는 경제/가정 환경 영역, 여가 영역, 관계 영역이 상위 3위로 나타난 반면 안전 영역, 미래 진로 영역, 외모 영역이 하위 3위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는 안전 영역에 대한 순위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미래 진로 영역 그리고 청년은 건강 영역의 순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주관적 행복도의 향상을 위해서는 학교 급별 하위 순위로 나타난 영역들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코로나19 이후 성남시 청소년의 삶에 대한 변화

(1) 코로나19 이후 성남시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변화

(1)-1. 원격수업, 과제수행 중 문제 해결 도움 요청 대상

원격수업을 듣거나 과제를 수행하는 도중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주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지 조사 대상 전체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학교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응답이 446명(24.2%)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혼자 해결 437명(23.8%), 부모님 421명(22.9%)이 상위 3위로 나타났고, 해결 못하고 넘어감 81명(4.4%)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V-51. 조사 대상 전체 원격수업, 과제수행 중 문제 해결 도움 요청 대상

(단위: 명, %)

구분	학교 선생님	학원 공부방 선생님	부모님	형제 자매	혼자 해결	해결 못하고 넘어감	친구	기타	전체
성남시	446명 (24.2%)	91명 (4.9%)	421명 (22.9%)	88명 (4.8%)	437명 (23.8%)	81명 (4.4%)	254명 (13.8%)	22명 (1.2%)	1,840명 (100%)
전체	446명 (24.2%)	91명 (4.9%)	421명 (22.9%)	88명 (4.8%)	437명 (23.8%)	81명 (4.4%)	254명 (13.8%)	22명 (1.2%)	1,840명 (100%)

원격수업을 듣거나 과제를 수행하는 도중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주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지 학교 급별 응답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의 경우 부모님이 216명(50.1%)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혼자 해결 83명(19.3%), 학교 선생님 62명(14.4%)이 상위 3위로 나타났으며 친구가 9명(2.1%)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중학교는 학교 선생님이 각각 22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혼자 해결 187명(22.9%), 부모님 150명(18.4%)이 상위 3위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와 달리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응답도 139명(17%)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는 혼자 해결이 160명(2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교 선생님

156명(27.3%), 친구 108명(18.9%)이 상위 3위로 나타났으며, 형제/자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응답이 18명(3.1%)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V-52. 학교 급별 원격수업, 과제수행 중 문제 해결 도움 요청 대상

(단위: 명, %)

구분	학교 선생님	학원 공부방 선생님	부모님	형제 자매	혼자 해결	해결 못하고 넘어감	친구	기타	전체
초등 학교	62명 (14.4%)	17명 (3.9%)	216명 (50.1%)	26명 (6%)	83명 (19.3%)	11명 (2.6%)	9명 (2.1%)	7명 (1.6%)	431명 (100%)
중학교	222명 (27.2%)	35명 (4.3%)	150명 (18.4%)	43명 (5.3%)	187명 (22.9%)	33명 (4%)	139명 (17%)	8명 (1%)	817명 (100%)
고등 학교	156명 (27.3%)	38명 (6.6%)	52명 (9.1%)	18명 (3.1%)	160명 (28%)	35명 (6.1%)	108명 (18.9%)	5명 (9%)	572명 (100%)
청년	6명 (30%)	1명 (5%)	3명 (15%)	1명 (5%)	7명 (35%)	2명 (10%)	0명 (0%)	0명 (0%)	20명 (100%)
전체	446명 (24.2%)	91명 (4.9%)	421명 (22.9%)	88명 (4.8%)	437명 (23.8%)	81명 (4.4%)	256명 (13.9%)	20명 (1.1%)	1,840명 (100%)

원격수업을 듣거나 과제를 수행하는 도중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주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지 4개 구별 응답을 분석한 결과, 학교 선생님, 부모님, 혼자 해결한다는 응답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정구는 학교 선생님이 103명(27.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혼자 해결 75명(20%), 부모님 61명(16.3%)이 상위 3위로 나타났다. 중원구는 혼자 해결이 123명(24.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교 선생님 117명(23.7%), 부모님 102명(20.6%)이 상위 3위로 나타났다. 분당구는 혼자 해결이 211명(25.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모님 208명(25.2%), 학교 선생님 189명(22.9%)이 상위 3위로 나타났다. 성남 외는 부모님이 50명(3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교 선생님 37명(25.2%), 혼자 해결 28명(19%)이 상위 3위로 나타났다.

표 V-53. 4개 구별 원격수업, 과제수행 중 문제 해결 도움 요청 대상

(단위: 명, %)

구분	학교 선생님	학원 공부방 선생님	부모님	형제 자매	혼자 해결	해결 못하고 넘어감	친구	기타	전체
수정구	103명 (27.5%)	23명 (6.1%)	61명 (16.3%)	25명 (6.7%)	75명 (20%)	21명 (5.6%)	59명 (15.7%)	8명 (2.1%)	375명 (100%)
중원구	117명 (23.7%)	20명 (4%)	102명 (20.6%)	24명 (4.9%)	123명 (24.9%)	20명 (4%)	85명 (17.2%)	3명 (0.6%)	494명 (100%)
분당구	189명 (22.9%)	41명 (5%)	208명 (25.2%)	35명 (4.2%)	211명 (25.6%)	33명 (4%)	98명 (11.9%)	9명 (1.1%)	824명 (100%)
성남 외	37명 (25.2%)	7명 (4.8%)	50명 (34%)	4명 (2.7%)	28명 (19%)	7명 (4.8%)	14명 (9.5%)	0명 (0%)	147명 (100%)
전체	446명 (24.2%)	91명 (4.9%)	421명 (22.9%)	88명 (4.8%)	437명 (23.8%)	81명 (4.4%)	256명 (13.9%)	20명 (1.1%)	1,840명 (100%)

원격수업을 듣거나 과제를 수행하는 도중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주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지 원도심과 신도심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원도심의 경우 학교 선생님이 220명(25.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혼자 해결 198명(22.8%), 부모님 163명(18.8%)이 상위 3위로 나타났다. 신도심은 혼자 해결이 211명(25.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모님 208명(25.2%), 학교 선생님 189명(22.9%)이 상위 3위로 나타났다.

표 V-54. 원도심과 신도심의 원격수업, 과제수행 중 문제 해결 도움 요청 대상

(단위: 명, %)

구분	학교 선생님	학원 공부방 선생님	부모님	형제 자매	혼자 해결	해결 못하고 넘어감	친구	기타	전체
원도심	220명 (25.3%)	43명 (4.9%)	163명 (18.8%)	49명 (5.6%)	198명 (22.8%)	41명 (4.7%)	144명 (16.6%)	11명 (1.3%)	869명 (100%)
신도심	189명 (22.9%)	41명 (5%)	208명 (25.2%)	35명 (4.2%)	211명 (25.6%)	33명 (4%)	98명 (11.9%)	9명 (1.1%)	824명 (100%)
전체	409명 (24.2%)	84명 (5%)	371명 (21.9%)	84명 (5%)	409명 (24.2%)	74명 (4.4%)	242명 (14.3%)	20명 (1.2%)	1,693명 (100%)

(1)-2.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시간 증가

코로나19 이후, 학교 수업 외에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 수업, 학습지 과외 등 시간이 증가했는지에 대해 본 조사 대상 전체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이전과 비슷하다가 1,000명(54.3%)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늘었다 338명(18.4%), 하지 않음 303명(16.5%), 줄었다 183명(9.9%) 순으로 나타났다.

표 V-55. 조사 대상 전체 사교육 시간 증가

(단위: 명, %)

구분	늘었다	이전과 비슷하다	줄었다	하지 않음	결측	전체
성남시	338명 (18.4%)	1,000명 (54.3%)	183명 (9.9%)	303명 (16.5%)	16명 (0.9%)	1,840명 (100%)
전체	338명 (18.4%)	1,000명 (54.3%)	183명 (9.9%)	303명 (16.5%)	16명 (0.9%)	1,840명 (100%)

코로나19 이후, 학교 수업 외에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 수업, 학습지 과외 등 시간이 증가했는지에 대해 학교 급별 응답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이전과 비슷하다가 각각 240명(55.7%), 490명(60%), 267명(46.7%)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하지 않음이 54명(12.55%)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줄었다가 각각 55명(6.7%), 65명(11.4%)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V-56. 학교 급별 사교육 시간 증가

(단위: 명, %)

구분	늘었다	이전과 비슷하다	줄었다	하지 않음	결측	전체
초등학교	74명 (17.2%)	240명 (55.7%)	63명 (14.6%)	54명 (12.55%)	0명 (0%)	431명 (100%)
중학교	167명 (20.4%)	490명 (60%)	55명 (6.7%)	101명 (12.4%)	4명 (0.5%)	817명 (100%)

구분	늘었다	이전과 비슷하다	줄었다	하지 않음	결측	전체
고등학교	89명 (15.6%)	267명 (46.7%)	65명 (11.4%)	143명 (25%)	8명 (1.4%)	572명 (100%)
청년	8명 (40%)	3명 (15%)	0명 (0%)	5명 (25%)	4명 (20%)	20명 (100%)
전체	338명 (18.4%)	1,000명 (100%)	183명 (9.9%)	303명 (16.5%)	16명 (0.9%)	1,840명 (100%)

코로나19 이후, 학교 수업 외에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 수업, 학습지 과외 등 시간이 증가했는지에 대해 4개 구별 응답을 분석한 결과,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남 외 모두 이전과 비슷하다가 각각 187명(49.9%), 258명(52.2%), 498명(60.4%), 57명(38.8%)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분당구를 제외한 수정구, 중원구, 성남 외는 줄었다가 각각 41명(10.9%), 47명(9.5%), 16명(10.9%)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분당구는 하지 않음이 79명(9.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V-57. 4개 구별 사교육 시간 증가

(단위: 명, %)

구분	늘었다	이전과 비슷하다	줄었다	하지 않음	결측	전체
수정구	55명 (14.7%)	187명 (49.9%)	41명 (10.9%)	86명 (22.9%)	6명 (1.6%)	375명 (100%)
중원구	82명 (16.6%)	258명 (52.2%)	47명 (9.5%)	101명 (20.4%)	6명 (1.2%)	494명 (100%)
분당구	179명 (21.7%)	498명 (60.4%)	79명 (9.6%)	64명 (7.8%)	4명 (0.5%)	824명 (100%)
성남 외	22명 (15%)	57명 (38.8%)	16명 (10.9%)	52명 (35.4%)	0명 (0%)	147명 (100%)
전체	338명 (18.4%)	1,000명 (100%)	183명 (9.9%)	303명 (16.5%)	16명 (0.9%)	1,840명 (100%)

코로나19 이후, 학교 수업 외에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 수업, 학습지 과외 등 시간이 증가했는지에 대해 원도심과 신도심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원도심은 이전

과 비슷하다가 445명(51.2%)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줄었다가 88명(10.1%)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신도심은 이전과 비슷하다가 498명(60.4%)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하지 않음이 64명(7.8%)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V-58. 원도심과 신도심의 사교육 시간 증가

(단위: 명, %)

구분	늘었다	이전과 비슷하다	줄었다	하지 않음	결측	전체
원도심	137명 (15.8%)	445명 (51.2%)	88명 (10.1%)	187명 (21.5%)	12명 (1.4%)	869명 (100%)
신도심	179명 (21.7%)	498명 (60.4%)	79명 (9.6%)	64명 (7.8%)	4명 (0.5%)	824명 (100%)
전체	316명 (18.7%)	943명 (55.7%)	167명 (9.9%)	251명 (14.8%)	16명 (0.9%)	1,693명 (100%)

(1)-3. 코로나19 종료 후 학교 수업 방식

코로나19 상황이 끝난 이후 학교 가는 것에 대해 조사 대상자 전체 응답을 분석한 결과, 매일 등교가 614명(33.4%)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등교와 온라인 병행 550명(29.9%)이 다음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홈스쿨링 대안교육이 65명(3.5%)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V-59. 조사 대상 전체 코로나19 종료 후 학교 수업 방식

(단위: 명, %)

구분	매일 등교	등교와 온라인 병행	온라인으로 충분	홈스쿨링 대안교육	특별한 의견 없음	결측	전체
성남시	614명	550명	276명	65명	319명	16명	1,840명
	(33.4%)	(29.9%)	(15.0%)	(3.5%)	(17.3%)	(0.9%)	(100%)
전체	614명	550명	276명	65명	319명	16명	1,840명
	(33.4%)	(29.9%)	(15.0%)	(3.5%)	(17.3%)	(0.9%)	(100%)

코로나19 상황이 끝난 이후 학교 가는 것에 대해 학교 급별 응답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는 매일 등교가 188명(43.6%)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등교와 온라인 병행이 117명(27.1%)으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고, 홈스쿨링 대안교육이 9명(2.1%)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등교와 온라인 병행이 각각 251명(30.7%), 177명(30.9%)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매일 등교도 각각 247명(30.2%), 175명(30.6%)으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홈스쿨링 대안교육이 각각 16명(2%), 37명(6.5%)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V-60. 학교 급별 코로나19 종료 후 학교 수업 방식

(단위: 명, %)

구분	매일 등교	등교와 온라인 병행	온라인으로 충분	홈스쿨링 대안교육	특별한 의견 없음	결측	전체
초등 학교	188명	117명	47명	9명	70명	0명	431명
	(43.6%)	(27.1%)	(10.9%)	(2.1%)	(16.2%)	(0%)	(100%)
중학교	247명	251명	129명	16명	170명	4명	817명
	(30.2%)	(30.7%)	(15.8%)	(2.0%)	(20.8%)	(.5%)	(100%)
고등 학교	175명	177명	98명	37명	77명	8명	572명
	(30.6%)	(30.9%)	(17.1%)	(6.5%)	(13.5%)	(1.4%)	(100%)
청년	4명	5명	2명	3명	2명	4명	20명
	(20.0%)	(25.0%)	(10.0%)	(15.0%)	(10.0%)	(20.0%)	(100%)
전체	614명	550명	276명	65명	319명	16명	1,840명
	(33.4%)	(29.9%)	(15.0%)	(3.5%)	(17.3%)	(0.9%)	(100%)

코로나19 상황이 끝난 이후 학교 가는 것에 대해 4개 구별 응답을 분석한 결과,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남 외 모두 매일 등교가 각각 125명(33.3%), 156명(31.6%), 285명(34.6%), 48명(32.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등교와 온라인 병행이 많게 나타났다. 반면 홈스쿨링 대안교육이 각각 16명(4.3%), 8명(1.6%), 38명(4.6%), 3명(2%)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V-61. 4개 구별 코로나19 종료 후 학교 수업 방식

(단위: 명, %)

구분	매일 등교	등교와 온라인 병행	온라인으로 충분	홈스쿨링 대안교육	특별한 의견 없음	결측	전체
수정구	125명	120명	38명	16명	70명	6명	375명
	(33.3%)	(32.0%)	(10.1%)	(4.3%)	(18.7%)	(1.6%)	(100%)
중원구	156명	153명	71명	8명	100명	6명	494명
	(31.6%)	(31.0%)	(14.4%)	(1.6%)	(20.2%)	(1.2%)	(100%)
분당구	285명	232명	142명	38명	123명	4명	824명
	(34.6%)	(28.2%)	(17.2%)	(4.6%)	(14.9%)	(0.5%)	(100%)
성남 외	48명	45명	25명	3명	26명	0명	147명
	(32.7%)	(30.6%)	(17.0%)	(2.0%)	(17.7%)	(0%)	(100%)
전체	614명	550명	276명	65명	319명	16명	1,840명
	(33.4%)	(29.9%)	(15.0%)	(3.5%)	(17.3%)	(0.9%)	(100%)

코로나19 상황이 끝난 이후 학교 가는 것에 대해 원도심과 신도심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원도심과 신도심 모두 매일 등교가 각각 281명(32.3%), 285명(34.6%)으로 가장 많았으며, 홈스쿨링 대안교육이 각각 24명(2.8%), 38명(4.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원도심은 등교와 온라인 병행도 273명(31.4%)으로 매일 등교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62. 원도심과 신도심의 코로나19 종료 후 학교 수업 방식

(단위: 명, %)

구분	매일 등교	등교와 온라인 병행	온라인으로 충분	홈스쿨링 대안교육	특별한 의견 없음	결측	전체
원도심	281명 (32.3%)	273명 (31.4%)	109명 (12.5%)	24명 (2.8%)	170명 (19.6%)	12명 (1.4%)	869명 (100%)
신도심	285명 (34.6%)	232명 (28.2%)	142명 (17.2%)	38명 (4.6%)	123명 (14.9%)	4명 (0.5%)	824명 (100%)
전체	566명 (33.4%)	505명 (29.8%)	251명 (14.8%)	62명 (3.7%)	293명 (17.3%)	16명 (0.9%)	1,693명 (100%)

(1)-4. 코로나19 이후 놀이, 여가활동 장소

코로나19 확산 이후, 놀이 및 여가활동을 위해 어디로 가는지 조사 대상 전체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본인 집이 1,135명(61.7%)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고, 오락실 206명(11.2%), 쇼핑몰 113명(6.1%), PC방(5.1%), 체육시설 77명(4.2%)이 상위 5위로 나타났다.

표 V-63. 조사 대상 전체 코로나19 이후 놀이, 여가활동 장소

(명, %)

구분	전체
본인 집	1,135명
	(61.7%)
친구 집	33명
	(1.8%)
PC방	94명
	(5.1%)
노래방	2명
	(0.1%)
오락실	206명
	(11.2%)
영화관극장	42명
	(2.3%)
놀이터공원	23명
	(1.3%)
카페	5명
	(0.3%)
만화방만화카페	20명
	(1.1%)
쇼핑몰	113명
	(6.1%)
체육시설	77명
	(4.2%)
청소년수련관등	7명
	(0.4%)
결측	83명
	(4.5%)
전체	1,840명
	(100%)

코로나19 확산 이후, 놀이 및 여가활동을 위해 어디로 가는지 학교 급별 응답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모두 본인 집이 각각 249명(57.8%), 506명(61.9%), 370명(64.7%), 10명(50%)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본인 집 이외에 쇼핑몰 69명(16%), 오락실 40명(9.3%)이 많이 나타났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오락실(각각 12.6%, 10.5%)과 체육시설(각각 4.7%, 6.1%)이 많이 나타났다.

표 V-64. 학교 급별 코로나19 이후 놀이, 여가활동 장소

(단위: 명,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전체
본인 집	249명	506명	370명	10명	1,135명
	(57.8%)	(61.9%)	(64.7%)	(50%)	(61.7%)
친구 집	5명	19명	8명	1명	33명
	(1.2%)	(2.3%)	(1.4%)	(5%)	(1.8%)
PC방	18명	57명	19명	0명	94명
	(4.2%)	(7%)	(3.3%)	(0%)	(5.1%)
노래방	0명	2명	0명	0명	2명
	(0%)	(0.2%)	(0%)	(0%)	(0.1%)
오락실	40명	103명	60명	3명	206명
	(9.3%)	(12.6%)	(10.5%)	(15%)	(11.2%)
영화관극장	7명	16명	19명	0명	42명
	(1.6%)	(2%)	(3.3%)	(0%)	(2.3%)
놀이터공원	2명	7명	14명	0명	23명
	(0.5%)	(0.9%)	(2.4%)	(0%)	(1.3%)
카페	1명	1명	3명	0명	5명
	(0.2%)	(0.1%)	(0.5%)	(0%)	(0.3%)
만화방만화카페	2명	4명	14명	0명	20명
	(0.5%)	(0.5%)	(2.4%)	(0%)	(1.1%)
쇼핑몰	69명	33명	10명	1명	113명
	(16%)	(4%)	(1.7%)	(5%)	(6.1%)
체육시설	2명	38명	35명	2명	77명
	(0.5%)	(4.7%)	(6.1%)	(10%)	(4.2%)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전체
청소년수련관등	0명	3명	4명	0명	7명
	(0%)	(0.4%)	(0.7%)	(0%)	(0.4%)
결측	36명	28명	16명	3명	83명
	(8.4%)	(3.4%)	(2.8%)	(15%)	(4.5%)
전체	431명	817명	572명	20명	1,840명
	(100%)	(100%)	(100%)	(100%)	(100%)

코로나19 확산 이후, 놀이 및 여가활동을 위해 어디로 가는지 4개 구별 응답을 분석한 결과,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남 외 모두 본인 집이 각각 222명(59.2%), 307명(62.1%), 520명(63.1%), 86명(58.5%)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이외에 오락실(각각 10.7%, 12.3%, 10.2%, 14.3%), 쇼핑몰(각각 4.3%, 5.9%, 6.4%, 10.2%), PC방(각각 5.9%, 3.8%, 5.2%, 6.8%)의 응답 비중이 많게 나타났다.

표 V-65. 4개 구별 코로나19 이후 놀이, 여가활동 장소

(단위: 명, %)

구분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남 외	전체
본인 집	222명	307명	520명	86명	1,135명
	(59.2%)	(62.1%)	(63.1%)	(58.5%)	(61.7%)
친구 집	10명	7명	14명	2명	33명
	(2.7%)	(1.4%)	(1.7%)	(1.4%)	(1.8%)
PC방	22명	19명	43명	10명	94명
	(5.9%)	(3.8%)	(5.2%)	(6.8%)	(5.1%)
노래방	0명	2명	0명	0명	2명
	(0%)	(0.4%)	(0%)	(0%)	(0.1%)
오락실	40명	61명	84명	21명	206명
	(10.7%)	(12.3%)	(10.2%)	(14.3%)	(11.2%)
영화관극장	15명	11명	13명	3명	42명
	(4%)	(2.2%)	(1.6%)	(2%)	(2.3%)
놀이터공원	6명	6명	10명	1명	23명
	(1.6%)	(1.2%)	(1.2%)	(0.7%)	(1.3%)

구분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남 외	전체
카페	2명	0명	3명	0명	5명
	(0.5%)	(0%)	(0.4%)	(0%)	(0.3%)
만화방만화카페	5명	7명	8명	0명	20명
	(1.3%)	(1.4%)	(1%)	(0%)	(1.1%)
쇼핑몰	16명	29명	53명	15명	113명
	(4.3%)	(5.9%)	(6.4%)	(10.2%)	(6.1%)
체육시설	21명	17명	33명	6명	77명
	(5.6%)	(3.4%)	(4%)	(4.1%)	(4.2%)
청소년수련관 등	1명	3명	3명	0명	7명
	(0.3%)	(0.6%)	(0.4%)	(0%)	(0.4%)
결측	15명	25명	40명	3명	83명
	(4.0%)	(5.1%)	(4.9%)	(2%)	(4.5%)
전체	375명	494명	824	147명	1,840명
	(100%)	(100%)	(100%)	(100%)	(100%)

코로나19 확산 이후, 놀이 및 여가활동을 위해 어디로 가는지 원도심과 신도심 별 응답을 분석한 결과, 원도심과 신도심 모두 본인 집이 60% 이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오락실(각각 11.6%, 10.2%), 쇼핑몰(각각 5.2%, 6.4%), PC방(각각 4.7%, 5.2%)의 응답 비중이 많이 나타났다.

표 V-66. 원도심과 신도심별 코로나19 이후 놀이, 여가활동 장소

(단위: 명, %)

구분	원도심	신도심	전체
본인 집	529명	520명	1,049명
	(60.9%)	(63.1%)	(62%)
친구 집	17명	14명	31명
	(2%)	(1.7%)	(1.8%)
PC방	41명	43명	84명
	(4.7%)	(5.2%)	(5%)
노래방	2명	0명	2명
	(0.2%)	(0%)	(0.1%)

구분	원도심	신도심	전체
오락실	101명	84명	185명
	(11.6%)	(10.2%)	(10.9%)
영화관극장	26명	13명	39명
	(3%)	(1.6%)	(2.3%)
놀이터공원	12명	10명	22명
	(1.4%)	(1.2%)	(1.3%)
카페	2명	3명	5명
	(0.2%)	(0.4%)	(0.3%)
만화방만화카페	12명	8명	20명
	(1.4%)	(1%)	(1.2%)
쇼핑몰	45명	53명	98명
	(5.2%)	(6.4%)	(5.8%)
체육시설	38명	33명	71명
	(4.4%)	(4%)	(4.2%)
청소년수련관 등	4명	3명	7명
	(0.5%)	(0.4%)	(0.4%)
결측	40명	40명	80명
	(4.6%)	(4.9%)	(4.7%)
전체	869명	824명	1,693명
	(100%)	(100%)	(100%)

(2) 코로나19 이후 성남시 청소년들의 삶의 인식과 행복도

(2)-1. 코로나19 이후 수면시간 증가

코로나19 이후 하루 평균 잠자는 시간이 늘었는지에 대한 조사 대상 전체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늘었다(그렇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중이 691명(37.6%)으로 보통이다 467명(25.4%)과 늘지 않았다(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682명(37%)보다 많게 나타났으나, 늘었다와 늘지 않았다 간 차이는 0.6%로 크지 않았다.

표 V-67. 조사 대상 전체 코로나19 이후 수면시간 증가

(단위: 명,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성남시	398명	284명	467명	379명	312명	1,840명
	(21.6%)	(15.4%)	(25.4%)	(20.6%)	(17%)	(100%)
전체	398명	284명	467명	379명	312명	1,840명
	(21.6%)	(15.4%)	(25.4%)	(20.6%)	(17%)	(100%)

코로나19 이후 하루 평균 잠자는 시간이 늘었는지에 대한 4개 구별 응답을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와 청년은 늘었다(그렇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중(각각 47.4%, 45%)이 보통이다(각각 25.6%, 30%)와 늘지 않았다(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각각 29.4%, 25%)고 응답한 비중보다 많게 나타났다. 한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늘지 않았다(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각각 44.1%, 39%)이 보통이다(각각 27.6%, 25.6%)와 늘었다(그렇다, 매우 그렇다)(각각 28.3%, 35.4%)보다 많았다.

표 V-68. 학교 급별 코로나19 이후 수면시간 증가

(단위: 명,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초등 학교	103명	87명	119명	55명	67명	431명
	(23.9%)	(20.2%)	(27.6%)	(12.8%)	(15.5%)	(100%)
중학교	183명	136명	209명	169명	120명	817명
	(22.4%)	(16.6%)	(25.6%)	(20.7%)	(14.7%)	(100%)
고등 학교	107명	61명	133명	151명	120명	572명
	(18.7%)	(10.7%)	(23.3%)	(26.4%)	(21%)	(100%)
청년	5명	0명	6명	4명	5명	20명
	(25%)	(0%)	(30%)	(20%)	(25%)	(100%)
전체	398명	284명	467명	379명	312명	1,840명
	(21.6%)	(15.4%)	(25.4%)	(20.6%)	(17%)	(100%)

코로나19 이후 하루 평균 잠자는 시간이 늘었는지에 대한 4개 구별 응답을 분석한 결과, 분당구를 제외한 수정구, 중원구, 성남 외는 늘었다(그렇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중(각각 40%, 43.5%, 38%)이 보통이다(각각 29.6%, 24.7%, 36.1%)와 늘지 않았다(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각각 30.4%, 31.8%, 38%)고 응답한 비중보다 많게 나타났다. 한편 분당구는 늘지 않았다(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이 373명(45.3%)으로 늘었다(그렇다, 매우 그렇다) 270명(32.8%)과 보통이다 181명(22%)보다 많았다.

표 V-69. 4개 구별 코로나19 이후 수면시간 증가

(단위: 명,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수정구	55명	59명	111명	90명	60명	375명
	(14.7%)	(15.7%)	(29.6%)	(24%)	(16%)	(100%)
중원구	81명	76명	122명	121명	94명	494명
	(16.4%)	(15.4%)	(24.7%)	(24.5%)	(19%)	(100%)
분당구	239명	134명	181명	145명	125명	824명
	(29%)	(16.3%)	(22%)	(17.6%)	(15.2%)	(100%)
성남 외	23명	15명	53명	23명	33명	147명
	(15.6%)	(10.2%)	(36.1%)	(15.6%)	(22.4%)	(100%)
전체	398명	284명	467명	379명	312명	1,840명
	(21.6%)	(15.4%)	(25.4%)	(20.6%)	(17%)	(100%)

코로나19 이후 하루 평균 잠자는 시간이 늘었는지에 대한 원도심과 신도심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원도심은 늘었다(그렇다, 매우 그렇다) 365명(42%), 보통이다 233명(26.8%), 늘지 않았다(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271명(31.2%)으로 코로나19 이후 잠자는 시간이 늘었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신도심은 늘었다(그렇다, 매우 그렇다) 270명(32.8%), 보통이다 181명(22%), 늘지 않았다(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373명(45.3%)으로 코로나19 이후 잠자는 시간이 늘지 않았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났다.

표 V-70. 원도심, 신도심별 코로나19 이후 수면시간 증가

(단위: 명,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원도심	136명	135명	233명	211명	154명	869명
	(15.7%)	(15.5%)	(26.8%)	(24.3%)	(17.7%)	(100%)
신도심	239명	134명	181명	145명	125명	824명
	(29%)	(16.3%)	(22%)	(17.6%)	(15.2%)	(100%)
전체	375명	269명	414명	356명	279명	1,693명
	(22.2%)	(15.9%)	(24.5%)	(21.0%)	(16.5%)	(100%)

(2)-2. 코로나19 이후 정상적인 식사 감소 여부

코로나19 이후 평일 등교하지 않는 날 식사를 잘 하지 않는지 조사 대상 전체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잘하고 있다(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가 1,179명(64.1%)으로 보통이다 359명(64.1%)과 잘 하지 않고 있다 302명(16.4%)보다 많게 나타나, 코로나19 이후 평일 등교하지 않는 날 식사를 잘하고 있는 비중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V-71. 조사 대상 전체 코로나19 이후 정상적인 식사 감소

(단위: 명,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성남시	742명	437명	359명	181명	121명	1,840명
	(40.3%)	(23.8%)	(19.5%)	(9.8%)	(6.6%)	(100%)
전체	742명	437명	359명	181명	121명	1,840명
	(40.3%)	(23.8%)	(19.5%)	(9.8%)	(6.6%)	(100%)

코로나19 이후 평일 등교하지 않는 날 식사를 잘 하지 않는지 학교 급별 응답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잘하고 있다(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

지 않다)가 각각 343명(79.5%), 502명(61.4%), 327명(57.2%)으로 보통이다(각각 10.4%, 22.6%, 21.5%)와 잘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 매우 그렇다)(각각 10%, 15.9%, 21.3%)보다 많게 나타나, 코로나19 이후 평일 등교하지 않는 날 식사를 잘 하고 있는 비중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청년은 식사를 잘하고 있다와 잘 하지 않다는 비중이 각각 7명(35%)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V-72. 학교 급별 코로나19 이후 정상적인 식사 감소

(단위: 명,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초등 학교	242명	101명	45명	24명	19명	431명
	(56.1%)	(23.4%)	(10.4%)	(5.6%)	(4.4%)	(100%)
중학교	295명	207명	185명	76명	54명	817명
	(36.1%)	(25.3%)	(22.6%)	(9.3%)	(6.6%)	(100%)
고등 학교	200명	127명	123명	75명	47명	572명
	(35.0%)	(22.2%)	(21.5%)	(13.1%)	(8.2%)	(100%)
청년	5명	2명	6명	6명	1명	20명
	(25.0%)	(10.0%)	(30.0%)	(30.0%)	(5.0%)	(100%)
전체	742명	437명	359명	181명	121명	1,840명
	(40.3%)	(23.8%)	(19.5%)	(9.8%)	(6.6%)	(100%)

코로나19 이후 평일 등교하지 않는 날 식사를 잘 하지 않는지 4개 구별 응답을 분석한 결과,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남 외 모두 잘하고 있다(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가 각각 204명(54.4%), 319명(64.6%), 551명(66.9%), 105명(71.4%)으로 보통이다(각각 26.9%, 16.6%, 18%, 19%)와 잘하지 않고 있다(그렇다, 매우 그렇다)(각각 18.6%, 18.8%, 15.2%, 9.5%)보다 많게 나타나, 4개구 모두 코로나19 이후 평일 등교하지 않는 날 식사를 잘하고 있는 비중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V-73. 4개 구별 코로나19 이후 정상적인 식사 감소

(단위: 명,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수정구	119명	85명	101명	41명	29명	375명
	(31.7%)	(22.7%)	(26.9%)	(10.9%)	(7.7%)	(100%)
중원구	191명	128명	82명	55명	38명	494명
	(38.7%)	(25.9%)	(16.6%)	(11.1%)	(7.7%)	(100%)
분당구	366명	185명	148명	75명	50명	824명
	(44.4%)	(22.5%)	(18%)	(9.1%)	(6.1%)	(100%)
성남 외	66명	39명	28명	10명	4명	147명
	(44.9%)	(26.5%)	(19%)	(6.8%)	(2.7%)	(100%)
전체	742명	437명	359명	181명	121명	1,840명
	(40.3%)	(23.8%)	(19.5%)	(9.8%)	(5.6%)	(100%)

코로나19 이후 평일 등교하지 않는 날 식사를 잘 하지 않는지 원도심과 신도심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원도심과 신도심 모두 잘하고 있다(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가 각각 523명(60.2%), 551명(66.9%)으로 보통이다(각각 21.1%, 18%)와 잘하지 않고 있다(그렇다, 매우 그렇다)(각각 18.7%, 15.2%)보다 많게 나타나, 원도심과 신도심 모두 코로나19 이후 평일 등교하지 않는 날 식사를 잘하고 있는 비중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V-74. 원도심, 신도심별 코로나19 이후 정상적인 식사 감소

(단위: 명,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원도심	310명	213명	183명	96명	67명	869명
	(35.7%)	(24.5%)	(21.1%)	(11%)	(7.7%)	(100%)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신도심	366명	185명	148명	75명	50명	824명
	(44.4%)	(22.5%)	(18%)	(9.1%)	(6.1%)	(100%)
전체	676명	398명	331명	171명	117명	1,693명
	(39.9%)	(23.5%)	(19.6%)	(10.1%)	(6.9%)	(100%)

(2)-3. 코로나19 이후 신체활동 감소 여부

코로나19 이후 운동이나 산책을 하는 신체활동 시간이 줄어들었는지 조사 대상 전체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줄어들었다(그렇다, 매우 그렇다)가 933명(50.7%)으로 보통이다 377명(20.5%)과 줄어들지 않았다 530명(28.9%)보다 많이 나타났다.

표 V-75. 조사 대상 전체 코로나19 이후 신체활동 감소

(단위: 명,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성남시	323명	207명	377명	477명	456명	1,840명
	(17.6%)	(11.3%)	(20.5%)	(25.9%)	(24.8%)	(100%)
전체	323명	207명	377명	477명	456명	1,840명
	(17.6%)	(11.3%)	(20.5%)	(25.9%)	(24.8%)	(100%)

코로나19 이후 운동이나 산책을 하는 신체활동 시간이 줄어들었는지 학교 급별 응답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모두 줄어들었다(그렇다, 매우 그렇다)가 각각 205명(47.6%), 429명(52.5%), 290명(50.7%), 9명 (45%)으로 보통이다(각각 18.8%, 20.4%, 21.5%, 30%)와 줄어들지 않았다(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각각 33.6%, 27.1%, 27.8%, 25%)보다 많이 나타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모두 코로나19 이후 운동이나 산책을 하는 신체활동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V-76. 코로나19 이후 신체활동 감소

(단위: 명,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초등 학교	91명	54명	81명	106명	99명	431명
	(21.1%)	(12.5%)	(18.8%)	(24.6%)	(23%)	(100%)
중학교	124명	97명	167명	227명	202명	817명
	(15.2%)	(11.9%)	(20.4%)	(27.8%)	(24.7%)	(100%)
고등 학교	105명	54명	123명	138명	152명	572명
	(18.4%)	(9.4%)	(21.5%)	(24.1%)	(26.6%)	(100%)
청년	3명	2명	6명	6명	3명	20명
	(15%)	(10%)	(30%)	(30%)	(15%)	(100%)
전체	323명	207명	377명	477명	456명	1,840명
	(17.6%)	(11.3%)	(20.5%)	(25.9%)	(24.8%)	(100%)

코로나19 이후 운동이나 산책을 하는 신체활동 시간이 줄어들었는지 4개 구별 응답을 분석한 결과, 성남 외를 제외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는 줄어들었다(그렇다, 매우 그렇다)가 각각 195명(52%), 252명(51%), 432명(52.4%)으로 보통이다(각각 21.3%, 19.2%, 20%)와 줄어들지 않았다(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각각 26.7%, 29.8%, 27.5%)보다 많이 나타났다. 한편, 성남 외는 줄어들지 않았다(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가 56명(38.1%)으로 줄어들었다(그렇다, 매우 그렇다) 54명(36.7%)과 보통이다 37명(25.2%)보다 많이 나타났으나, 줄어들지 않았다고와 줄어들었다 간에 차이는 1.4%로 크지 않았다.

표 V-77. 4개 구별 코로나19 이후 신체활동 감소

(단위: 명,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수정구	51명	49명	80명	108명	87명	375명
	(13.6%)	(13.1%)	(21.3%)	(28.8%)	(23.2%)	(100%)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중원구	73명	74명	95명	119명	133명	494명
	(14.8%)	(15%)	(19.2%)	(24.1%)	(26.9%)	(100%)
분당구	161명	66명	165명	224명	208명	824명
	(19.5%)	(8%)	(20%)	(27.2%)	(25.2%)	(100%)
성남 외	38명	18명	37명	26명	28명	147명
	(25.9%)	(12.2%)	(25.2%)	(17.7%)	(19%)	(100%)
전체	323명	207명	377명	477명	456명	1,840명
	(17.6%)	(11.3%)	(20.5%)	(25.9%)	(24.8%)	(100%)

코로나19 이후 운동이나 산책을 하는 신체활동 시간이 줄어들었는지 원도심과 신도심별 응답을 분석한 결과, 원도심과 신도심 모두 줄어들었다(그렇다, 매우 그렇다)가 각각 447명(51.4%), 432명(52.4%)으로 보통이다(각각 20.1%, 20%)와 줄어들지 않았다(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각각 28.5%, 27.5%)보다 많이 나타나, 원도심과 신도심의 약 50%는 코로나19 이후 운동이나 산책을 하는 신체활동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하였다.

표 V-78. 원도심, 신도심별 코로나19 이후 신체활동 감소

(단위: 명,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원도심	124명	123명	175명	227명	220명	869명
	(14.30%)	(14.2%)	(20.1%)	(26.1%)	(25.3%)	(100%)
신도심	161명	66명	165명	224명	208명	824명
	(19.5%)	(8%)	(20%)	(27.2%)	(25.2%)	(100%)
전체	285명	189명	340명	451명	428명	1,693명
	(16.8%)	(11.2%)	(20.1%)	(26.6%)	(25.3%)	(100%)

2-(4). 코로나19 이후 전자기기 사용 시간 증가 여부

코로나19 이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 시간이 늘었는지 조사 대상 전체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늘었다(그렇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1,155명(62.8%)으로 보통이다(22.6%)와 늘지 않았다(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14.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79. 조사 대상 전체 코로나19 이후 전자기기 사용 시간 증가

(단위: 명,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성남시	153명	116명	416명	648명	507명	1,840명
	(8.3%)	(6.3%)	(22.6%)	(35.2%)	(27.6%)	(100%)
전체	153명	116명	416명	648명	507명	1,840명
	(8.3%)	(6.3%)	(22.6%)	(35.2%)	(27.6%)	(100%)

코로나19 이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 시간이 늘었는지 학교 급별 응답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모두 늘었다(그렇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235명(54.6%), 546명(66.8%), 364명(63.6%), 10명(50%)으로 보통이다(각각 20.4%, 22.4%, 24.3%, 30%)와 늘지 않았다(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각각 25%, 10.8%, 12.1%, 20%)보다 많게 나타났다. 특히, 늘었다고 응답한 비중은 중학교가 66.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63.6%, 초등학교 54.6%, 청년 50% 순으로 나타났다.

표 V-80. 학교 급별 코로나19 이후 전자기기 사용 시간 증가

(단위: 명,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초등 학교	67명	41명	88명	133명	102명	431명
	(15.5%)	(9.5%)	(20.4%)	(30.9%)	(23.7%)	(100%)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중학교	49명	39명	183명	308명	238명	817명
	(6%)	(4.8%)	(22.4%)	(37.7%)	(29.1%)	(100%)
고등 학교	36명	33명	139명	203명	161명	572명
	(6.3%)	(5.8%)	(24.3%)	(35.5%)	(28.1%)	(100%)
청년	1명	3명	6명	4명	6명	20명
	(5%)	(15%)	(30%)	(20%)	(30%)	(100%)
전체	153명	116명	416명	648명	507명	1,840명
	(8.3%)	(6.3%)	(22.6%)	(35.2%)	(27.6%)	(100%)

코로나19 이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 시간이 늘었는지 4개 구별 응답을 분석한 결과,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남 외 모두 늘었다(그렇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235명(62.7%), 330명(66.8%), 503명(61.1%), 87명(59.2%)으로 보통이다(각각 27.5%, 21.1%, 22.2%, 17.7%)와 늘지 않았다(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각각 9.8%, 12.2%, 16.8%, 23.2%)보다 많이 나타났다. 특히, 늘었다고 응답한 비중은 중원구가 66.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수정구(62.7%), 분당구(61.1%), 성남 외(59.2%) 순으로 나타났다.

표 V-81. 4개 구별 코로나19 이후 전자기기 사용 시간 증가

(단위: 명,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수정구	17명	20명	103명	135명	100명	375명
	(4.5%)	(5.3%)	(27.5%)	(36%)	(26.7%)	(100%)
중원구	32명	28명	104명	168명	162명	494명
	(6.5%)	(5.7%)	(21.1%)	(34%)	(32.8%)	(100%)
분당구	82명	56명	183명	288명	215명	824명
	(10%)	(6.8%)	(22.2%)	(35%)	(26.1%)	(100%)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성남 외	22명	12명	26명	57명	30명	147명
	(15%)	(8.2%)	(17.7%)	(38.8%)	(20.4%)	(100%)
전체	153명	116명	416명	648명	507명	1,840명
	(8.3%)	(6.3%)	(22.6%)	(35.2%)	(27.6%)	(100%)

코로나19 이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 시간이 늘었는지 원도심과 신도심별 응답을 분석한 결과, 원도심과 신도심 모두 늘었다(그렇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565명(65%), 503명(61.1%)으로 보통이다(각각 23.8%, 22.2%)와 늘지 않았다(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각각 11.1%, 16.8%)보다 많이 나타났으며, 늘었다고 응답한 비중은 원도심이 65%, 신도심이 61.1%로 원도심이 더 많았다.

표 V-82. 원도심과 신도심의 코로나19 이후 전자기기 사용 시간 증가

(단위: 명,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원도심	49명	48명	207명	303명	262명	869명
	(5.6%)	(5.5%)	(23.8%)	(34.9%)	(30.1%)	(100%)
신도심	82명	56명	183명	288명	215명	824명
	(10%)	(6.8%)	(22.2%)	(35%)	(26.1%)	(100%)
전체	131명	104명	390명	591명	477명	1,693명
	(7.7%)	(6.1%)	(23%)	(34.9%)	(28.2%)	(100%)

(2)-5. 코로나19 이후 하는 일 없이 있는 시간 증가 여부

코로나19 이후 아무 하는 일 없이 그냥 있는 시간이 늘어났는지 조사 대상전체 응답을 분석한 결과, 늘었다(그렇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819명(44.5%)으로 보통이다(23%)와 늘지 않았다(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13.8%)고 응답한 사람보다 많이 나타났다.

표 V-83. 조사 대상 전체 코로나19 이후 하는 일 없이 있는 시간 증가

(단위: 명,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성남시	345명	253명	423명	446명	373명	1,840명
	(18.8%)	(13.8%)	(23%)	(24.2%)	(20.3%)	(100%)
전체	345명	253명	423명	446명	373명	1,840명
	(18.8%)	(13.8%)	(23%)	(24.2%)	(20.3%)	(100%)

코로나19 이후 아무 하는 일 없이 그냥 있는 시간이 늘어났는지 학교 급별 전체 응답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모두 늘었다(그렇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176명(40.8%), 357명(43.7%), 279명(48.8%), 7명(35%)으로 보통이다(각각 22.3%, 23.3%, 23.4%, 15%)와 늘지 않았다(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각각 36.9%, 33.1%, 27.8%, 50%)고 응답한 사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늘었다고 응답한 비중은 고등학교가 4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학교 43.7%, 초등학교 40.8%, 청년 35% 순으로 나타났다.

표 V-84. 학교 급별 코로나19 이후 하는 일 없이 있는 시간 증가

(단위: 명,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초등 학교	101명	58명	96명	92명	84명	431명
	(23.4%)	(13.5%)	(22.3%)	(21.3%)	(19.5%)	(100%)
중학교	150명	120명	190명	195명	162명	817명
	(18.4%)	(14.7%)	(23.3%)	(23.9%)	(19.8%)	(100%)
고등 학교	87명	72명	134명	155명	124명	572명
	(15.2%)	(12.6%)	(23.4%)	(27.1%)	(21.7%)	(100%)
청년	7명	3명	3명	4명	3명	20명
	(35%)	(15%)	(15%)	(20%)	(15%)	(100%)
전체	345명	253명	423명	446명	373명	1,840명
	(18.8%)	(13.8%)	(23%)	(24.2%)	(20.3%)	(100%)

코로나19 이후 아무 하는 일 없이 그냥 있는 시간이 늘어났는지 4개 구별 응답을 분석한 결과,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남 외 모두 늘었다(그렇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178명(47.4%), 237명(48%), 330명(40%), 74명(50.4%)으로 보통이다(각각 22.9%, 26.1%, 21.7%, 19.7%)와 늘지 않았다(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각각 29.6%, 25.9%, 38.2%, 29.9%)고 응답한 사람보다 많게 나타났다. 늘었다고 응답한 비중은 성남 외가 5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원구 48%, 수정구 47.4%, 분당구 40% 순으로 나타났다.

표 V-85. 4개 구별 코로나19 이후 하는 일 없이 있는 시간 증가

(단위: 명,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수정구	62명	49명	86명	107명	71명	375명
	(16.5%)	(13.1%)	(22.9%)	(28.5%)	(18.9%)	(100%)
중원구	68명	60명	129명	123명	114명	494명
	(13.8%)	(12.1%)	(26.1%)	(24.9%)	(23.1%)	(100%)
분당구	187명	128명	179명	179명	151명	824명
	(22.7%)	(15.5%)	(21.7%)	(21.7%)	(18.3%)	(100%)
성남 외	28명	16명	29명	37명	37명	147명
	(19%)	(10.9%)	(19.7%)	(25.2%)	(25.2%)	(100%)
전체	345명	253명	423명	446명	373명	1,840명
	(18.8%)	(13.8%)	(23%)	(24.2%)	(20.3%)	(100%)

코로나19 이후 아무 하는 일 없이 그냥 있는 시간이 늘어났는지 원도심과 신도심별 응답을 분석한 결과, 원도심과 신도심 모두 늘었다(그렇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415명(47.8%), 330명(40%)으로 보통이다(각각 24.7%, 21.7%)와 늘지 않았다(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각각 12.5%, 15.5%)고 응답한 사람보다 많았으며, 늘었다고 응답한 비중은 원도심(47.8%)이 신도심(40%)보다 많았다.

표 V-86. 원도심, 신도심의 코로나19 이후 하는 일 없이 있는 시간 증가

(단위: 명,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원도심	130명	109명	215명	230명	185명	869명
	(15%)	(12.5%)	(24.7%)	(26.5%)	(21.3%)	(100%)
신도심	187명	128명	179명	179명	151명	824명
	(22.7%)	(15.5%)	(21.7%)	(21.7%)	(18.3%)	(100%)
전체	317명	237명	394명	409명	336명	1,693명
	(18.7%)	(14%)	(23.3%)	(24.2%)	(19.8%)	(100%)

(2)-6. 코로나19 이후 생활의 부정적 인식에 따른 주관적 행복도

코로나19 이후 생활 변화의 인식에 따른 주관적 행복도를 비교하기 위해, 코로나19 이후 생활 변화 문항(①하루 평균 잠자는 시간 증가, ②평일 등교하지 않는 날 규칙적인 식사 감소, ③신체활동 시간 감소, ④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 시간 증가, ⑤아무 하는 일 없이 그냥 있는 시간 증가)의 응답을 평균 내어 평균보다 높은 집단을 부정적 인식 집단, 평균보다 낮은 집단을 긍정적 인식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생활 변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의 주관적 행복도 평균을 분석한 결과, 부정적 인식 집단의 전체 평균은 3.66점(5점 만점), 긍정적 인식 집단의 전체 평균은 3.93점(5점 만점)으로 긍정적 인식 집단이 부정적 인식 집단보다 주관적 행복 전체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문항의 평균도 긍정적 인식 집단이 부정적 인식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87. 코로나19 생활 변화 인식에 따른 주관적 행복도

구분	부정적 인식 집단	긍정적 인식 집단	전체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할 때 지금 내 삶은 행복하다	3.91점	4.11점	4.01점
나의 미래 삶은 행복할 것 같다	3.90점	4.15점	4.03점
대체로 나는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는 편이다	3.71점	3.96점	3.84점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3.58점	3.86점	3.73점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77점	3.97점	3.87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다고 생각한다	3.57점	3.86점	3.72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다	4.13점	4.31점	4.22점
친구 관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3.58점	3.97점	3.78점
부모님과의 관계나 가정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4.02점	4.33점	4.18점
건강 상태가 좋다	3.99점	4.22점	4.11점
전체적으로 스트레스(불안이나 우울감)가 심한 편이다*	3.38점	3.76점	3.58점
학교생활에 만족한다	3.91점	4.12점	4.02점
학업(숙제나 시험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2.88점	3.34점	3.12점
자퇴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3.80점	4.08점	3.94점
자연재해나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편이다	4.24점	4.38점	4.31점
미세먼지나 공해가 걱정된다*	2.50점	2.34점	2.42점
전염병, 미세먼지 등 자연재해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	3.49점	3.64점	3.57점
가정, 학교, 사회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한 편이다	3.82점	4.06점	3.94점
여가생활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4.04점	4.24점	4.14점
경제적인 여건에 대하여 만족한다	4.23점	4.38점	4.31점
경제적 여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3.83점	4.21점	4.03점
몸무게 때문에(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3.43점	3.80점	3.62점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3.51점	3.96점	3.74점
미래 진로가 불투명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	3.23점	3.75점	3.50점
전체	3.66점	3.93점	3.80점

(3) 코로나19 이후 성남시 청소년의 비대면 청소년 활동 경험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활동의 경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9가지 영역 비대면 청소년 활동(①건강-보건 활동 ②과학 정보 활동 ③교류 활동 ④모험 개척 활동 ⑤문화-예술 활동 ⑥봉사 활동 ⑦직업 체험 활동 ⑧환경 보존 활동 ⑨자기(인성) 개발 활동)의 참여 경험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어 평균보다 높은 집단을 비대면 청소년 활동 경험 많음 집단, 평균보다 낮은 집단을 비대면 청소년 활동 경험 적음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3)-1. 조사 대상자 전체의 비대면 청소년 활동 경험

조사 대상자 전체의 비대면 청소년 활동 경험을 분석한 결과, 비대면 청소년 활동 경험이 적음이 1,427명(77.6%)으로 비대면 청소년 활동 경험 많음 (413명, 22.4%)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88. 조사 대상자 전체 비대면 청소년 활동 경험

구분	비대면 청소년 활동 경험 많음	비대면 청소년 활동 경험 적음	전체
성남시	413명 (22.4%)	1,427명 (77.6%)	1,840명 (100%)
전체	413명 (22.4%)	1,427명 (77.6%)	1,840명 (100%)

(3)-2. 학교 급별 비대면 청소년 활동 경험

학교 급별 비대면 청소년 활동 경험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모두 비대면 청소년 활동 경험 적음이 각각 308명(71.5%), 650명(79.6%), 458명(80.1%), 11명(55%)으로 비대면 청소년 활동 경험 많음보다 많게 나타났다. 비대면 청소년 활동 경험 적음 응답 비중이 가장 많은 집단은 고등학교 458명(80.1%)이고, 다음으로 중학교(650명, 79.6%), 초등학교(308명, 71.5%), 청년(11명, 55%) 순으로 나타났다.

표 V-89. 학교 급별 비대면 청소년 활동 경험

구분	비대면 청소년 활동 경험 많음	비대면 청소년 활동 경험 적음	전체
초등학교	123명 (28.5%)	308명 (71.5%)	431명 (100%)
중학교	167명 (20.4%)	650명 (79.6%)	817명 (100%)
고등학교	114명 (19.9%)	458명 (80.1%)	572명 (100%)
청년	9명 (45%)	11명 (55%)	20명 (100%)
전체	413명 (22.4%)	1,427명 (77.6%)	1,840명 (100%)

(3)-3. 4개 구별 비대면 청소년 활동 경험

4개 구별 비대면 청소년 활동 경험을 분석한 결과,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남 외 모두 비대면 청소년 활동 경험 적음이 각각 304명(81.1%), 398명(80.6%), 625명(75.8%), 100명(68%)으로 비대면 청소년 활동 경험 많음보다 많게 나타났다. 비대면 청소년 활동 경험 적음 응답 비중이 가장 많은 집단은 수정구 304명(81.1%)이고, 다음으로 중원구(398명, 80.6%), 분당구(625명, 75.8%), 성남 외(100명, 68%) 순으로 나타났다.

표 V-90. 4개 구별 비대면 청소년 활동 경험

구분	비대면 청소년 활동 경험 많음	비대면 청소년 활동 경험 적음	전체
수정구	71명 (18.9%)	304명 (81.1%)	375명 (100%)
중원구	96명 (19.4%)	398명 (80.6%)	494명 (100%)
분당구	199명 (24.2%)	625명 (75.8%)	824명 (100%)
성남 외	47명 (32%)	100명 (68%)	147명 (100%)
전체	413명 (22.4%)	1,427명 (77.6%)	1,840명 (100%)

(3)-4. 원도심과 신도심별 비대면 청소년 활동 경험

원도심과 신도심별 비대면 청소년 활동 경험을 분석한 결과, 원도심과 신도심 모두 비대면 청소년 활동 경험 적음이 각각 702명(80.8%), 625명(75.8%)으로 비대면 청소년 활동 경험 많음보다 3배 이상 많았고, 원도심이 신도심보다 비대면 청소년 활동 경험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91. 원도심, 신도심별 비대면 청소년 활동 경험

구분	비대면 청소년 활동 경험 많음	비대면 청소년 활동 경험 적음	전체
원도심	167명 (19.2%)	702명 (80.8%)	869명 (100%)
신도심	199명 (24.2%)	625명 (75.8%)	824명 (100%)
전체	366명 (21.6%)	1,327명 (78.4%)	1,693명 (100%)

(4) 코로나19 이후 성남시 청소년들의 온라인 활동 경험

(4)-1. 커뮤니케이션 소통

지난 일주일 동안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메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카카오톡 등 메신저)을 얼마나 했는지 조사 대상자 전체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보통 이상(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이 1,008명(54.8%)으로 보통(456명, 24.8%)과 보통 이하(안했다, 거의 안했다)(376명, 20.4%)보다 많게 나타났다.

표 V-92. 조사 대상 전체 커뮤니케이션 소통 활동

구분	거의 안했다	안했다	보통	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	전체
성남시	218명	158명	456명	524명	484명	1,840명
	(11.8%)	(8.6%)	(24.8%)	(28.5%)	(26.3%)	(100%)
전체	218명	158명	456명	524명	484명	1,840명
	(11.8%)	(8.6%)	(24.8%)	(28.5%)	(26.3%)	(100%)

지난 일주일 동안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메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카카오톡 등 메신저)을 얼마나 했는지 학교 급별 응답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은 보통 이상(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이 각각 484명(59.3%), 370명(64.7%), 9명(45%)로 보통이다(각각 24.1%, 23.6%, 35%)와 보통 이하(안했다, 거의 안했다)(각각 16.6%, 11.7%, 20%)보다 많게 나타났다. 한편 초등학교는 보통 이하(안했다, 거의 안했다)가 169명(39.2%)으로 보통이다(27.1%)와 보통 이상(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145명, 33.7%)보다 많게 나타났다. 보통 이상(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은 고등학교(64.7%)이고 다음으로 중학교(59.3%), 청년(45%), 초등학교(33.7%) 순으로 나타났다.

표 V-93. 학교 급별 커뮤니케이션 소통 활동

구분	거의 안했다	안했다	보통	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	전체
초등학교	121명	48명	117명	102명	43명	431명
	(28.1%)	(11.1%)	(27.1%)	(23.7%)	(10%)	(100%)
중학교	73명	63명	197명	262명	222명	817명
	(8.9%)	(7.7%)	(24.1%)	(32.1%)	(27.2%)	(100%)
고등학교	23명	44명	135명	158명	212명	572명
	(4%)	(7.7%)	(23.6%)	(27.6%)	(37.1%)	(100%)
청년	1명	3명	7명	2명	7명	20명
	(5%)	(15%)	(35%)	(10%)	(35%)	(100%)
전체	218명	158명	456명	524명	484명	1,840명
	(11.8%)	(8.6%)	(24.8%)	(28.5%)	(26.3%)	(100%)

지난 일주일 동안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메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카카오톡 등 메신저)을 얼마나 했는지 4개 구별 응답을 분석한 결과, 보통 이상(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이 각각 238명(63.5%), 282명(57.1%), 403명(48.9%), 85명(57.8%)으로 보통(각각 23.2%, 24.9%, 25.6%, 23.8%)과 보통 이하(안했다,

거의 안했다)(각각 6.9%, 7.7%, 9.2%, 12.2%)보다 많이 나타났다. 보통 이상(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 응답 비중이 가장 많은 집단은 수정구(63.5%)이고 다음으로 성남 외(57.8%), 중원구(57.1%), 분당구(48.9%) 순으로 나타났다.

표 V-94. 4개 구별 커뮤니케이션 소통 활동

구분	거의 안했다	안했다	보통	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	전체
수정구	24명	26명	87명	109명	129명	375명
	(6.4%)	(6.9%)	(23.2%)	(29.1%)	(34.4%)	(100%)
중원구	51명	38명	123명	150명	132명	494명
	(10.3%)	(7.7%)	(24.9%)	(30.4%)	(26.7%)	(100%)
분당구	134명	76명	211명	214명	189명	824명
	(16.3%)	(9.2%)	(25.6%)	(26%)	(22.9%)	(100%)
성남 외	9명	18명	35명	51명	34명	147명
	(6.1%)	(12.2%)	(23.8%)	(34.7%)	(23.1%)	(100%)
전체	218명	158명	456명	524명	484명	1,840명
	(11.8%)	(8.6%)	(24.8%)	(28.5%)	(26.3%)	(100%)

지난 일주일 동안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메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카카오톡 등 메신저)을 얼마나 했는지 원도심과 신도심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원도심과 신도심 모두 보통 이상(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이 각각 520명(59.8%), 403명(48.9%)으로 보통(각각 24.2%, 25.6%)과 보통 이하(안했다, 거의 안했다)(각각 16%, 25.5%)보다 많이 나타났다. 보통 이상(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 응답 비중은 원도심이 59.8%, 신도심이 48.9%로 원도심이 신도심보다 많이 나타났다.

표 V-95. 원도심과 신도심의 커뮤니케이션 소통 활동

구분	거의 안했다	안했다	보통	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	전체
원도심	75명	64명	210명	259명	261명	869명
	(8.6%)	(7.4%)	(24.2%)	(29.8%)	(30%)	(100%)
신도심	134명	76명	211명	214명	189명	824명
	(16.3%)	(9.2%)	(25.6%)	(26%)	(22.9%)	(100%)
전체	209명	140명	421명	473명	450명	1,693명
	(12.3%)	(8.3%)	(24.9%)	(27.9%)	(26.6%)	(100%)

(4)-2. 자료 및 정보 획득

지난 일주일 동안 자료 및 정보 획득(뉴스 검색, 상품 및 여행 정보 등)을 얼마나 했는지 조사 대상 전체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보통으로 응답한 비중이 575명(31.3%)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 이상(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으로 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815명(44.3%)으로 보통 575명(31.3%)과 보통 이하(안했다, 거의 안했다)로 했다고 응답한 비중 450명(24.5%)보다 많게 나타났다.

표 V-96. 조사 대상 전체 자료 및 정보 획득 활동

구분	거의 안했다	안했다	보통	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	전체
성남시	233명	217명	575명	525명	290명	1,840명
	(12.7%)	(11.8%)	(31.3%)	(28.5%)	(15.8%)	(100%)
전체	233명	217명	575명	525명	290명	1,840명
	(12.7%)	(11.8%)	(31.3%)	(28.5%)	(15.8%)	(100%)

지난 일주일 동안 자료 및 정보 획득(뉴스 검색, 상품 및 여행 정보 등)을 얼마나 했는지 학교 급별 응답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은 보통 이상(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으로 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각각 401명(49.1%), 303명(52.9%), 9명(45%)으로 보통(각각 30.7%, 32.5%, 30%)과 보통 이하(안했다, 거의 안했다)로 했다고 응답한 비중(각각 20.2%, 14.5%, 25%)

보다 많게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보통 이하(안했다, 거의 안했다)가 197명(45.7%)으로 보통(30.6%)과 보통 이상(23.7%)보다 많게 나타났다. 보통 이상(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으로 응답한 비중은 고등학교(52.9%)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학교(49.1%), 청년(45%), 초등학교(23.7%) 순으로 나타났다.

표 V-97. 학교 급별 자료 및 정보 획득 활동

구분	거의 안했다	안했다	보통	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	전체
초등학교	125명	72명	132명	75명	27명	431명
	(29%)	(16.7%)	(30.6%)	(17.4%)	(6.3%)	(100%)
중학교	75명	90명	251명	257명	144명	817명
	(9.2%)	(11%)	(30.7%)	(31.5%)	(17.6%)	(100%)
고등학교	32명	51명	186명	189명	114명	572명
	(5.6%)	(8.9%)	(32.5%)	(33%)	(19.9%)	(100%)
청년	1명	4명	6명	4명	5명	20명
	(5%)	(20%)	(30%)	(20%)	(25%)	(100%)
전체	233명	217명	575명	525명	290명	1,840명
	(12.7%)	(11.8%)	(31.3%)	(28.5%)	(15.8%)	(100%)

지난 일주일 동안 자료 및 정보 획득(뉴스 검색, 상품 및 여행 정보 등)을 얼마나 했는지 4개 구별 응답을 분석한 결과,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남 외 모두 보통 이상(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이 각각 171명(45.6%), 200명(40.5%), 375명(45.5%), 69명(46.9%)으로 보통(각각 33.6%, 34.4%, 28.4%, 30.6%)과 보통 이하(안했다, 거의 안했다)(각각 20.8%, 25.1%, 26.1%, 22.4%)보다 많게 나타났다. 보통 이상(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은 성남 외(46.9%)이고, 다음으로 수정구(45.6%), 분당구(45.5%), 중원구(40.5%) 순으로 나타났다.

표 V-98. 4개 구별 자료 및 정보 획득 활동

구분	거의 안했다	안했다	보통	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	전체
수정구	38명	40명	126명	106명	65명	375명
	(10.1%)	(10.7%)	(33.6%)	(28.3%)	(17.3%)	(100%)
중원구	71명	53명	170명	136명	64명	494명
	(14.4%)	(10.7%)	(34.4%)	(27.5%)	(13%)	(100%)
분당구	111명	104명	234명	233명	142명	824명
	(13.5%)	(12.6%)	(28.4%)	(28.3%)	(17.2%)	(100%)
성남 외	13명	20명	45명	50명	19명	147명
	(8.8%)	(13.6%)	(30.6%)	(34%)	(12.9%)	(100%)
전체	233명	217명	575명	525명	290명	1,840명
	(12.7%)	(11.8%)	(31.3%)	(28.5%)	(15.8%)	(100%)

지난 일주일 동안 자료 및 정보 획득(뉴스 검색, 상품 및 여행 정보 등)을 얼마나 했는지 원도심과 신도심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원도심과 신도심 모두 보통 이상(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으로 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각각 371명(42.6%), 375명(45.5%)으로 보통(각각 34.1%, 28.4%)과 보통 이하(안했다, 거의 안했다)로 했다고 응답한 비중(각각 23.2%, 26.1%) 보다 많게 나타났다. 보통 이상(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 응답 비중은 원도심이 42.6%, 신도심이 45.5%로 신도심이 원도심보다 많게 나타났다.

표 V-99. 원도심, 신도심별 정보 획득 활동

구분	거의 안했다	안했다	보통	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	전체
원도심	109명	93명	296명	242명	129명	869명
	(12.5%)	(10.7%)	(34.1%)	(27.8%)	(14.8%)	(100%)
신도심	111명	104명	234명	233명	142명	824명
	(13.5%)	(12.6%)	(28.4%)	(28.3%)	(17.2%)	(100%)
전체	220명	197명	530명	475명	271명	1,693명
	(13%)	(11.6%)	(31.3%)	(28.1%)	(16%)	(100%)

(4)-3. 여가활동

지난 일주일 동안 여가활동(음악 감상, 영화, TV 프로그램 시청, 게임 등)을 얼마나 했는지 조사 대상 전체 응답을 분석한 결과, 보통 이상(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이 1,409명(76.6%)으로 보통(324명, 17.6%)과 보통 이하(안했다, 거의 안했다)(107명, 5.8%)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표 V-100. 조사 대상 전체 여가 활동

구분	거의 안했다	안했다	보통	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	전체
성남시	53명	54명	324명	688명	721명	1,840명
	(2.9%)	(2.9%)	(17.6%)	(37.4%)	(39.2%)	(100%)
전체	53명	54명	324명	688명	721명	1,840명
	(2.9%)	(2.9%)	(17.6%)	(37.4%)	(39.2%)	(100%)

지난 일주일 동안 여가활동(음악 감상, 영화, TV 프로그램 시청, 게임 등)을 얼마나 했는지 학교 급별 응답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모두 보통 이상(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이 각각 304명(70.5%), 643명(78.7%), 451명(78.9%), 11명(55%)으로 보통(각각 20.2%, 16.5%, 16.6%, 35%)과 보통 이하(각각 9.2%, 4.8%, 4.6%, 10%)보다 많이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보통 이상(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의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있으며, 보통 이상(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은 고등학교 (78.9%)이고 다음으로 중학교(78.7%), 초등학교(70.5%), 청년(55%) 순으로 나타났다.

표 V-101. 학교 급별 여가 활동

구분	거의 안했다	안했다	보통	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	전체
초등 학교	23명	17명	87명	172명	132명	431명
	(5.3%)	(3.9%)	(20.2%)	(39.9%)	(30.6%)	(100%)
중학교	17명	22명	135명	319명	324명	817명
	(2.1%)	(2.7%)	(16.5%)	(39%)	(39.7%)	(100%)
고등 학교	13명	13명	95명	191명	260명	572명
	(2.3%)	(2.3%)	(16.6%)	(33.4%)	(45.5%)	(100%)
청년	0명	2명	7명	6명	5명	20명
	(0%)	(10%)	(35%)	(30%)	(25%)	(100%)
전체	53명	54명	324명	688명	721명	1,840명
	(2.9%)	(2.9%)	(17.6%)	(37.4%)	(39.2%)	(100%)

지난 일주일 동안 여가활동(음악 감상, 영화, TV 프로그램 시청, 게임 등)을 얼마나 했는지 4개 구별 응답을 분석한 결과,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남 외 모두 보통 이상(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이 각각 303명(80.8%), 401명(81.2%), 584명(70.9%), 121명(82.3%)으로 보통(각각 16.3%, 15.4%, 20.1%, 14.3%)과 보통 이하(안했다, 거의 안했다)(각각 2.9%, 3.4%, 9%, 3.4%)보다 압도적으로 많게 나타났다. 보통 이상(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은 성남 외(82.3%)이고 다음으로 중원구(81.2%), 수정구(80.8%), 분당구(70.9%) 순으로 나타났다.

표 V-102. 4개 구별 여가 활동

구분	거의 안했다	안했다	보통	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	전체
수정구	5명	6명	61명	141명	162명	375명
	(1.3%)	(1.6%)	(16.3%)	(37.6%)	(43.2%)	(100%)
중원구	10명	7명	76명	204명	197명	494명
	(2%)	(1.4%)	(15.4%)	(41.3%)	(39.9%)	(100%)

구분	거의 안했다	안했다	보통	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	전체
분당구	37명	37명	166명	298명	286명	824명
	(4.5%)	(4.5%)	(20.1%)	(36.2%)	(34.7%)	(100%)
성남 외	1명	4명	21명	45명	76명	147명
	(0.7%)	(2.7%)	(14.3%)	(30.6%)	(51.7%)	(100%)
전체	53명	54명	324명	688명	721명	1,840명
	(2.9%)	(2.9%)	(17.6%)	(37.4%)	(39.2%)	(100%)

지난 일주일 동안 여가활동(음악 감상, 영화, TV 프로그램 시청, 게임 등)을 얼마나 했는지 원도심과 신도심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원도심과 신도심 모두 보통 이상(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이 각각 704명(81%), 584명(70.9%), 으로 보통(각각 15.8%, 20.1%)과 보통 이하(안했다, 거의 안했다)(각각 3.2%, 9%)보다 압도적으로 많게 나타났다. 보통 이상(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 응답 비중은 원도심이 81%, 신도심이 70.9%로 원도심이 신도심보다 약 10% 정도 많게 나타났다.

표 V-103. 원도심, 신도심별 여가 활동

구분	거의 안했다	안했다	보통	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	전체
원도심	15명	13명	137명	345명	359명	869명
	(1.7%)	(1.5%)	(15.8%)	(39.7%)	(41.3%)	(100%)
신도심	37명	37명	166명	298명	286명	824명
	(4.5%)	(4.5%)	(20.1%)	(36.2%)	(34.7%)	(100%)
전체	52명	50명	303명	643명	645명	1,693명
	(3.1%)	(3%)	(17.9%)	(38%)	(38.1%)	(100%)

(4)-4. 교육·학습

지난 일주일 동안 교육·학습(동영상 강의, 교육 자료 검색 등)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조사 대상 전체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보통 이상(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이 917명(49.9%)으로 보통 582명(31.6%)과 보통 이하(안했다, 거의 안했다) 341명(18.6%)보다 많게 나타났다.

표 V-104. 조사 대상 전체 교육·학습 활동

구분	거의 안했다	안했다	보통	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	전체
성남시	132명	209명	582명	509명	408명	1,840명
	(7.2%)	(11.4%)	(31.6%)	(27.7%)	(22.2%)	(100%)
전체	132명	209명	582명	509명	408명	1,840명
	(7.2%)	(11.4%)	(31.6%)	(27.7%)	(22.2%)	(100%)

지난 일주일 동안 교육·학습(동영상 강의, 교육 자료 검색 등)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학교 급별 응답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모두 보통 이상(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이 각각 227명(52.7%), 405명(49.6%), 278명(48.6%), 7명(35%)으로 보통(각각 29.2%, 30.7%, 34.3%, 45%)과 보통 이하(안했다, 거의 안했다)(각각 18.1%, 19.7%, 17.1%, 20%)보다 많게 나타났다. 보통 이상(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은 초등학교(52.7%)이고, 다음으로 중학교(49.6%), 고등학교(48.6%), 청년(35%) 순으로 나타났다.

표 V-105. 학교 급별 교육·학습 활동

구분	거의 안했다	안했다	보통	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	전체
초등학교	32명	46명	126명	112명	115명	431명
	(7.4%)	(10.7%)	(29.2%)	(26%)	(26.7%)	(100%)
중학교	54명	107명	251명	228명	177명	817명
	(6.6%)	(13.1%)	(30.7%)	(27.9%)	(21.7%)	(100%)
고등학교	44명	54명	196명	166명	112명	572명
	(7.7%)	(9.4%)	(34.3%)	(29%)	(19.6%)	(100%)
청년	2명	2명	9명	3명	4명	20명
	(10%)	(10%)	(45%)	(15%)	(20%)	(100%)
전체	132명	209명	582명	509명	408명	1,840명
	(7.2%)	(11.4%)	(31.6%)	(27.7%)	(22.2%)	(100%)

지난 일주일 동안 교육·학습(동영상 강의, 교육 자료 검색 등)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4개 구별 응답을 분석한 결과,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남 외 모두 보통 이상(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이 각각 155명(41.3%), 236명(47.8%), 451명(54.7%), 75명(51%)으로 보통(각각 35.2%, 32.4%, 29.7%, 30.6%)과 보통 이하(안했다, 거의 안했다)(각각 23.5%, 19.8%, 15.6%, 18.3%)보다 많게 나타났다. 보통 이상(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은 분당구(54.7%)이고 다음으로 성남 외(51%), 중원구(47.8%), 수정구(41.3%) 순으로 나타났다.

표 V-106. 4개 구별 교육·학습 활동

구분	거의 안했다	안했다	보통	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	전체
수정구	28명	60명	132명	93명	62명	375명
	(7.5%)	(16%)	(35.2%)	(24.8%)	(16.5%)	(100%)
중원구	41명	57명	160명	133명	103명	494명
	(8.3%)	1(1.5%)	(32.4%)	(26.9%)	(20.9%)	(100%)
분당구	54명	74명	245명	224명	227명	824명
	(6.6%)	(9%)	(29.7%)	(27.2%)	(27.5%)	(100%)
성남 외	9명	18명	45명	59명	16명	147명
	(6.1%)	(12.2%)	(30.6%)	(40.1%)	(10.9%)	(100%)
전체	132명	209명	582명	509명	408명	1,840명
	(7.2%)	(11.4%)	(31.6%)	(27.7%)	(22.2%)	(100%)

지난 일주일 동안 교육·학습(동영상 강의, 교육 자료 검색 등)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4개 구별 응답을 분석한 결과, 원도심과 신도심 모두 보통 이상(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이 각각 391명(45%), 451명(54.7%)으로 보통(각각 33.6%, 29.7%)과 보통 이하(안했다, 거의 안했다)(각각 13.5%, 9%)보다 많게 나타났다. 보통 이상(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 응답 비중은 원도심이 45%, 신도심이 54.7%로 신도심이 원도심보다 약 10% 정도 많게 나타났다.

표 V-107. 원도심, 신도심별 교육·학습 활동

구분	거의 안했다	안했다	보통	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	전체
원도심	69명	117명	292명	226명	165명	869명
	(7.9%)	(13.5%)	(33.6%)	(26%)	(19%)	(100%)
신도심	54명	74명	245명	224명	227명	824명
	(6.6%)	(9%)	(29.7%)	(27.2%)	(27.5%)	(100%)
전체	123명	191명	537명	450명	392명	1,693명
	(7.3%)	(11.3%)	(31.7%)	(26.6%)	(23.2%)	(100%)

(4)-5. 크리에이터 활동(컨텐츠 생산)

지난 일주일 동안 크리에이터 활동(컨텐츠 생산, 블로그 운영, 유튜브 등 개인방송 진행 등)을 얼마나 했는지 조사 대상 전체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보통 이하(안했다, 거의 안했다)가 1,167명(63.4%)으로 보통(300명, 16.3%)과 보통 이하(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373명, 20.2%)보다 많게 나타났다.

표 V-108. 조사 대상 전체 크리에이터 활동

구분	거의 안했다	안했다	보통	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	전체
성남시	950명	217명	300명	201명	172명	1,840명
	(51.6%)	(11.8%)	(16.3%)	(10.9%)	(9.3%)	(100%)
전체	950명	217명	300명	201명	172명	1,840명
	(51.6%)	(11.8%)	(16.3%)	(10.9%)	(9.3%)	(100%)

지난 일주일 동안 크리에이터 활동(컨텐츠 생산, 블로그 운영, 유튜브 등 개인방송 진행 등)을 얼마나 했는지 학교 급별 응답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모두 보통 이하(안했다, 거의 안했다)가 각각 299명(69.4%), 515명(63.1%), 339명(59.3%), 14명(70%)으로 보통(각각 13.9%, 16.3%, 18%, 20%)과 보통 이상(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각각 16.7%, 20.7%, 22.7%, 10%)보다 많게 나타났다. 보통 이상(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응답 비중이 가장 많은

집단은 고등학교(22.7%)이고 다음으로 중학교(20.7%), 초등학교(16.7%), 청년(10%) 순으로 나타났다.

표 V-109. 학교 급별 크리에이터 활동

구분	거의 안했다	안했다	보통	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	전체
초등학교	259명	40명	60명	47명	25명	431명
	(60.1%)	(9.3%)	(13.9%)	(10.9%)	(5.8%)	(100%)
중학교	414명	101명	133명	93명	76명	817명
	(50.7%)	(12.4%)	(16.3%)	(11.4%)	(9.3%)	(100%)
고등학교	270명	69명	103명	60명	70명	572명
	(47.2%)	(12.1%)	(18%)	(10.5%)	(12.2%)	(100%)
청년	7명	7명	4명	1명	1명	20명
	(35%)	(35%)	(20%)	(5%)	(5%)	(100%)
전체	950명	217명	300명	201명	172명	1,840명
	(51.6%)	(11.8%)	(16.3%)	(10.9%)	(9.3%)	(100%)

지난 일주일 동안 크리에이터 활동(컨텐츠 생산, 블로그 운영, 유튜브 등 개인방송 진행 등)을 얼마나 했는지 4개 구별 응답을 분석한 결과,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남 외 모두 보통 이하(안했다, 거의 안했다)가 각각 224명(59.8%), 316명(63.9%), 541명(65.6%), 86명(58.5%)으로 보통(각각 17.9%, 13.8%, 17%, 17%)과 보통 이상(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각각 22.4%, 22.2%, 17.4%, 24.4%)보다 많게 나타났다. 보통 이상(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응답 비중이 가장 많은 집단은 성남 외(24.4%)이고 다음으로 수정구(22.2%), 중원구(22.2%), 분당구(17.4%) 순으로 나타났다.

표 V-110. 4개 구별 크리에이터 활동

구분	거의 안했다	안했다	보통	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	전체
수정구	175명	49명	67명	41명	43명	375명
	(46.7%)	(13.1%)	(17.9%)	(10.9%)	(11.5%)	(100%)
중원구	259명	57명	68명	59명	51명	494명
	(52.4%)	(11.5%)	(13.8%)	(11.9%)	(10.3%)	(100%)
분당구	447명	94명	140명	83명	60명	824명
	(54.2%)	(11.4%)	(17%)	(10.1%)	(7.3%)	(100%)
성남 외	69명	17명	25명	18명	18명	147명
	(46.9%)	(11.6%)	(17%)	(12.2%)	(12.2%)	(100%)
전체	950명	217명	300명	201명	172명	1,840명
	(51.6%)	(11.8%)	(16.3%)	(10.9%)	(9.3%)	(100%)

지난 일주일 동안 크리에이터 활동(컨텐츠 생산, 블로그 운영, 유튜브 등 개인방송 진행 등)을 얼마나 했는지 원도심과 신도심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원도심과 신도심 모두 보통 이하(안했다, 거의 안했다)가 각각 540명(62.1%), 541명(65.6%)으로 보통(각각 15.5%, 17%)과 보통 이상(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각각 22.3%, 17.4%)보다 많게 나타났다. 보통 이상(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 응답 비중은 원도심이 22.3%, 신도심이 17.4%로 원도심이 신도심보다 많게 나타났다.

표 V-111. 원도심, 신도심별 크리에이터 활동

구분	거의 안했다	안했다	보통	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	전체
원도심	434명	106명	135명	100명	94명	869명
	(49.9%)	(12.2%)	(15.5%)	(11.5%)	(10.8%)	(100%)
신도심	447명	94명	140명	83명	60명	824명
	(54.2%)	(11.4%)	(17%)	(10.1%)	(7.3%)	(100%)
전체	881명	200명	275명	183명	154명	1,693명
	(52%)	(11.8%)	(16.2%)	(10.8%)	(9.1%)	(100%)

(5) 소결

코로나19 이후 성남시 청소년의 삶에 대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원격수업, 과제 수행 중 문제 해결 도움 요청 대상으로 학교 선생님(24.2%), 혼자 해결(23.8%), 부모님(22.9%)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감(4.4%)이 가장 낮게 나타나 원격수업, 과제수행 중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어서 겪는 어려움은 크게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시간 증가와 관련해서는 조사 대상자의 54.3%가 이전과 비슷하다고 응답하였고, 코로나19 종료 후 학교 수업 방식에 대해서는 매일 등교(33.4%)와 등교와 온라인 병행(29.9%)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매일 등교가 등교와 온라인 병행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은 등교와 온라인 병행이 매일 등교보다 높게 나타나 코로나19 이후 학교 급별 학교 수업 방식 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수면시간 증가, 신체활동 감소, 전자기기 사용 시간 증가, 하는 일 없이 있는 시간 증가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중이 보통이다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보다 높아 코로나19 이후 자신의 삶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보다 주관적 행복도 전체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삶의 패턴과 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남형 청소년서비스의 미래 변화방향

1) 인구변화에 따른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방향

현재와 미래의 인구변화를 나타내는 핵심어는 ‘인구감소’이다. 인구감소는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 추세였고 이제는 이미 익숙한 현상이 되었다. 특히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가 그 어느 때보다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청소년 인구감소 역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성남시도 같은 상황이다.

성남시 청소년 인구변화 역시 인구감소의 특징을 보이는 점은 [표 V-1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성남시의 총인구는 지난 16년간(2004-2020년) 약 3.8%의 감소(37,102명)를 보이고 있다(성남시청소년재단, 2021). 청소년 인구 역시 감소하고 있으며, 성남시 총인구 대비 청소년 인구의 구성비도 2004년에 23.1%에서 2020년에는 16.6%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권역별로도 비슷하다. 청소년 인구의 경우 수정구와 중원구는 물론이고, 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분당구의 경우에도 2010년에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이후부터 최근까지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다.

표 V-112. 성남시 청소년 인구변화

구분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	2016년	2020년
성남시	총인구	977,166	953,960	980,190	979,534	974,580	940,064
	청소년 총인구(명)	225,738	211,594	208,047	196,011	180,238	155,776
	총인구대비청소년 인구 구성비(%)	23.1	22.2	21.2	20.0	18.5	16.6
수정구	청소년 인구수(명)	56,030	50,433	44,078	39,446	38,267	34,861
	청소년 총인구대비 구성비(%)	24.8	23.8	21.2	20.1	21.2	22.4
중원구	청소년 인구수(명)	64,326	60,139	52,446	48,248	40,570	31,445
	청소년 총인구대비 구성비(%)	28.5	27.2	25.2	24.6	22.5	20.2
분당구	청소년 인구수(명)	105,382	103,567	111,523	108,317	101,401	89,470
	청소년 총인구대비 구성비(%)	46.7	48.9	53.6	55.3	56.3	57.4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의 자료 재구성

하지만 전반적으로 인구감소가 주요 특징인 가운데 성남시 청소년 총인구 대비 권역별 청소년 인구의 구성비에는 차이가 있다. 수정구와 중원구는 20%대의 구성비를 보이면서 대체로 그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반면, 분당구는 2004년 46.7%에서 2020년에는 57.4%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다. 여기서 특징적인 점은 분당구의 사례이다. 분당구는 성남시 전체 청소년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특징과 함께, 비록 절대적인 수치로서 청소년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성남시 청소년 총인구 대비 청소년 인구의 구성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구변화의 특징은 미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성남시 청소년 인구 추계를 나타내는 [표 V-113]을 보면 이에 대해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성남시의 총 인구가 감소하면서 절대적 수치로서 청소년 인구의 수 역시 감소하고 있고 권역별로도 같은 추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2030년에는 다소의 증가가 예측

되지만 이후부터는 다시 계속 감소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남시 총인구 대비 청소년 인구의 구성비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권역별로 차이는 존재한다. 중원구는 구성비가 감소하는 반면 수정구와 분당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래 예측 역시 분당구가 전체 청소년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구성비 역시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미래에도 청소년 인구의 감소는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표 V-113. 성남시 청소년 인구 변화 추계

구분		2025년	2030년	2035년
성남시	총인구	912,240	914,452	908,420
	청소년 총인구(명)	130,521	113,435	100,380
	총인구대비청소년 인구 구성비(%)	14.3	12.4	11.0
수정구	인구수(명)	30,993	28,612	26,778
	총인구대비 구성비(%)	23.7	25.2	26.7
중원구	인구수(명)	22,773	17,003	12,865
	총인구대비 구성비(%)	17.4	15.0	12.8
분당구	인구수(명)	76,755	67,821	60,736
	총인구대비 구성비(%)	58.8	59.8	60.5

성남시청소년재단(2021)의 자료 재구성

이와 같이 성남시 청소년 인구감소는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며 미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은 필수적이다. 청소년 인구감소 현상 자체가 비단 성남시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대응도 함께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해야 하는 것은 성남시만의 특성이 고려된 대책 마련이다. 이는 곧 인구감소에 따른 미래 성남형 청소년서비스의 방향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구감소 시대의 청소년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감소하는 청소년 인구의 ‘숫자’에 초점을 두는데서 벗어나, 비록 감소는 했지만 현재 존재하고 있는 청소년의 지금 이 자리에서의 만족과 행복을 더 우선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더 질 높은 수준의 청소년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는 것이다. 인구감소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면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 인구 감소는 그대로 받아들여 오�히려 현재의 청소년이 더 만족할 수 있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미래 성남형 청소년서비스는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여전히 감소하는 청소년 인구 숫자의 양적인 폭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성남시가 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실천한다면 그것이 바로 미래 성남형 청소년서비스가 될 것이다.

둘째, 성남시의 권역별 청소년 인구 구성비를 고려할 때 권역별로 차별적이되 동시에 비경합적인 청소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각각의 청소년구성비는 서로 다르며 증감의 추세도 다르다. 분당구가 가장 큰 구성비를 차지하면서 계속 그 비율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서비스의 양적 수준이 분당구에 더 집중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동시에 권역별 서비스의 질 차이가 생겨 서로 경합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성남시 내 청소년 인구의 유동성을 고려한다면 경합을 야기하는 서비스는 무의미할 뿐 아니라 소모적인 자원 낭비가 된다. 따라서 서비스의 양적 수준이 높게 설계될 분당구는 수정구나 중원구와 함께 협력적 자원 활용도를 높여야 하고, 수정구와 중원구는 해당 지역에 기초한 청소년 관련 스몰데이터(small data) 기반의 밀착 서비스 제공 기회를 늘려야 한다. 이를 통해 물리적 여건을 고려한 차별적 서비스 제공과 함께 전략적(strategic)이고 총체적인 품질(total quality) 보장을 위한 비경합적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

2) 지역변화에 따른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방향

코로나19로 인한 기술 및 산업변화는 자연히 지역변화를 야기한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관련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기업이 밀집한 성남시는 인구와 소득수준이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청소년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인구가 늘면서 서비스 수요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동시에 소득이 늘면서 고품질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급 측면에서도 성남시의 청소년서비스는 향후 성장하는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혁신은 집적(集積)에서 발생한다.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혁신인재를 최대한 모아놓는 것이 중요하다. 대체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여러 사람과의 상호작용과 협업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혁신의 성격으로 인해 IT 혁신기업들이 밀집한 성남시에는 우수한 인력들이 더욱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이 혁신 인재를 유치하려 할 것이고, 혁신 인재들 입장에서든 자신과 협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장소를 선택할 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인적자본이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 우수한 인재가 있으면 그 인재 옆에 있는 사람도 덩달아 우수해지기 유리하다는 의미이다.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과 교류하다 보면 배우는 게 있다. 마찬가지로 우수한 인적자본이 어떤 지역에 유입된다보면 자연히 그 지역 주민의 인적자본도 향상되기 유리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성남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인재들이 지역 청소년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청소년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지역 IT 기업의 인력과 청소년들 사이의 멘토링 서비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기업 경영에서도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등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추세인 바, 지역 청소년들과의 교류 및 멘토링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기술변화에 따른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방향¹⁶⁾

코로나19 상황 이후 경제 및 사회 변화 양상은 매우 다양할 것이나, 기술적 측면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꼽을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업무 및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그간 진행되어 오던 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청소년은 노동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 연령대이다. 따라서 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청소년서비스에 시사하는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이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 빠르게 진행될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과거의 유사 사례를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 중반 소위 3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디지털 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컴퓨터, 인터넷, 자동화 기술 등이 급속히 발전한 시기이다. 이하에서는 디지털 혁명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서비스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디지털 혁명 또는 IT 기술의 발전이 초래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고숙련 노동자와 저숙련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기술진보는 변화하는 기술과 보완적인 성격의 지식과 역량을 가진 노동자에게는 유리하나, 대체적인 성격의 지식과 역량을 가진 노동자에게는 불리하다. 디지털 혁명 시대에는 컴퓨터·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해당 기술을 이용할 줄 아는 고숙련 노동자의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고, 그만큼 해당 노동자 집단에 대한 고용 기회와

16) 본 절에서 논의한 선행연구(Autor, Levy and Murnane, 2003; Deming, 2019; 황수경, 2007)에 대한 내용은 김경희 외(2019) 중 저자가 작성한 부분(70-82쪽)을 요약 및 일부 수정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임금 수준도 향상되었다. 반면, 생산·사무 자동화로 인해 대체되기 쉬운 단순·반복적 업무를 담당하던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 기회와 임금 수준은 악화되었다. 그 결과, 노동시장 전반의 임금 격차는 숙련 수준에 따라 확대되었다.

[그림 V-31]은 디지털 혁명에 따른 미국 노동시장의 변화 추이를 요약하여 보여준다. 이 그림을 작성한 Autor, Levy and Murnane(2003)은 1960년부터 2000년까지의 각 시점별로 미국 노동시장의 직업별 고용 통계와 직업사전에서 파악된 직업별 과업(task) 특성을 바탕으로 미국 노동시장의 시점별 과업 투입량을 계산하였다. 과업은 반복·육체적(routine manual), 반복·인지적(routine cognitive), 비반복·육체적(nonroutine manual), 비반복·분석적(nonroutine analytical), 비반복·상호적(nonroutine interactive)의 다섯 가지 그룹으로 정의하였다. 각 그룹의 구체적 정의와 예시는 [그림 V-31]의 주석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V-31]을 보면 1980년대를 기점으로 반복·육체적 과업과 반복·인지적 과업은 감소하였으나, 비반복·분석적 과업과 비반복·상호적 과업은 증가하였다. 즉, 1980년대를 기점으로 반복적 성격의 과업은 감소한 반면, 비반복적 성격의 과업은 증가한 것이다. 1980년대는 컴퓨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산·사무 자동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기이다. 반복적인 과업일수록 이러한 자동화 기술에 의해 대체되기 쉽다. 자연히 반복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저숙련 사무직, 저숙련 생산직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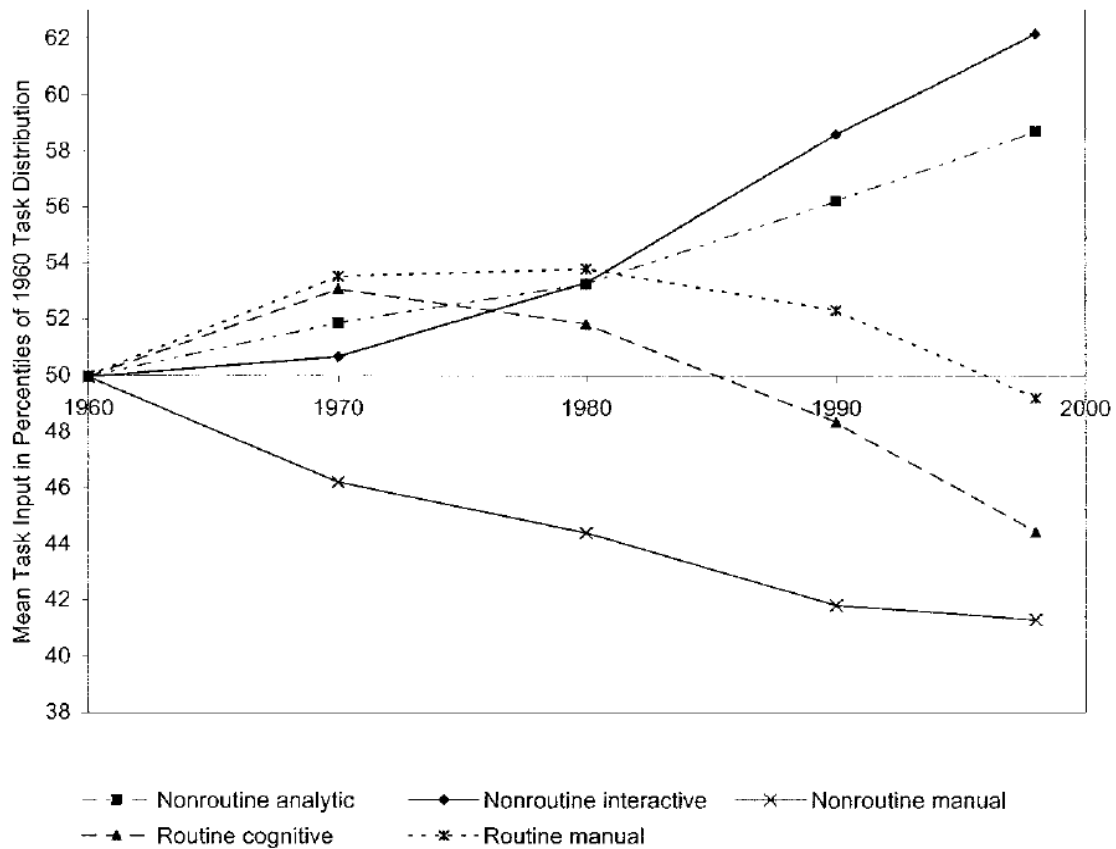


그림 V-31. 미국 노동시장의 과업 투입량 변화

출처: Autor, Levy, and Murnane(2003, p.1296)의 Figure 1

자료: 김경희 외(2019, p.73)의 [그림 II-5]를 재인용¹⁷⁾

- 17) [그림 V-31]은 직업군, 산업, 교육수준의 변화를 통제한 상태에서 기준연도(1960년) 대비 각 과업 그룹의 투입량 변화를 보여준다. Autor, Levy, and Murnane(2003, p.1323)의 Appendix I의 내용을 참고하여 각 과업 그룹의 정의와 예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비반복·육체적(nonroutine manual) 과업란, 눈-손-발의 조율이 필요한 과업을 의미하고, 소를 도축하여 분해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나뭇가지를 정리하는 등의 과업을 예로 들 수 있다. 반복·육체적(routine manual) 과업란, 손가락을 능숙하게 다뤄야 하는 과업을 의미하고, 조리법에 따라 재료를 혼합하거나, 제품을 포장하거나, 시계에 시침과 분침을 조립하는 등의 과업을 예로 들 수 있다. 반복·인지적(routine cognitive) 과업란, 한계, 오차범위, 표준 등을 설정하는 과업을 의미하고, 각종 서류 발급 기계를 다루거나, 항해 시 위도, 경도 등을 측정하거나, 유권자 명단을 관리하는 등의 과업을 예로 들 수 있다. 비반복·분석적(nonroutine analytic) 과업란, 주로 수리적 능력을 요구하는 과업을 의미하고, 이자율 등을 계산하거나, 유리의 평판도를 계산하거나, 공기역학 및 열역학 시스템을 분석하는 등의 과업을 예로 들 수 있다. 비반복·상호적(nonroutine interactive) 과업란 지시, 통제, 계획 등의 과업을 의미하고, 건물, 공장 등의 구조물을 계획 및 설계하거나, 회계 시스템을 관리하거나, 법정에 출석하여 기소 및 변호를 하거나, 선박에서 승무원들에게 명령을 하는 등의 과업을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그림 V-32]를 보면 1980년대 이후로 비반복·상호적 과업이 비반복·분석적 과업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비반복적 과업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능력을 요구하는 과업이 분석적 능력을 강조하는 과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졌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Deming(2017)의 후속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Deming(2017)은 1980년대 이후 미국 노동시장의 일자리를 사회적 능력을 많이 요구하는지 여부와 수리적 능력을 많이 요구하는지 여부에 따라 ① 고사회성-고수리력(high social, high math), ② 고사회성-저수리력(high social, low math), ③ 저사회성-고수리력(low social, high math), ④ 저사회성-저수리력(low social, low math)의 네 가지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 그룹의 고용 비중이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관찰하였다. [그림 V-32]는 그 결과를 요약하여 보여준다. 먼저, [그림 V-32]를 살펴보면, 높은 사회적 능력을 요구하는 직업일수록 고용이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고사회성-고수리력 그룹과 고사회성-저수리력 그룹에서는 고용비중이 증가한 반면, 저사회성-고수리력 그룹과 저사회성-저수리력 그룹에서는 고용비중이 감소한 것이다. 즉, 1980년대 이후 고용이 증가한 직군을 가르는 일차적인 기준은 사회적 능력이었고 수리력으로 대표되는 인지적 능력은 이차적인 기준이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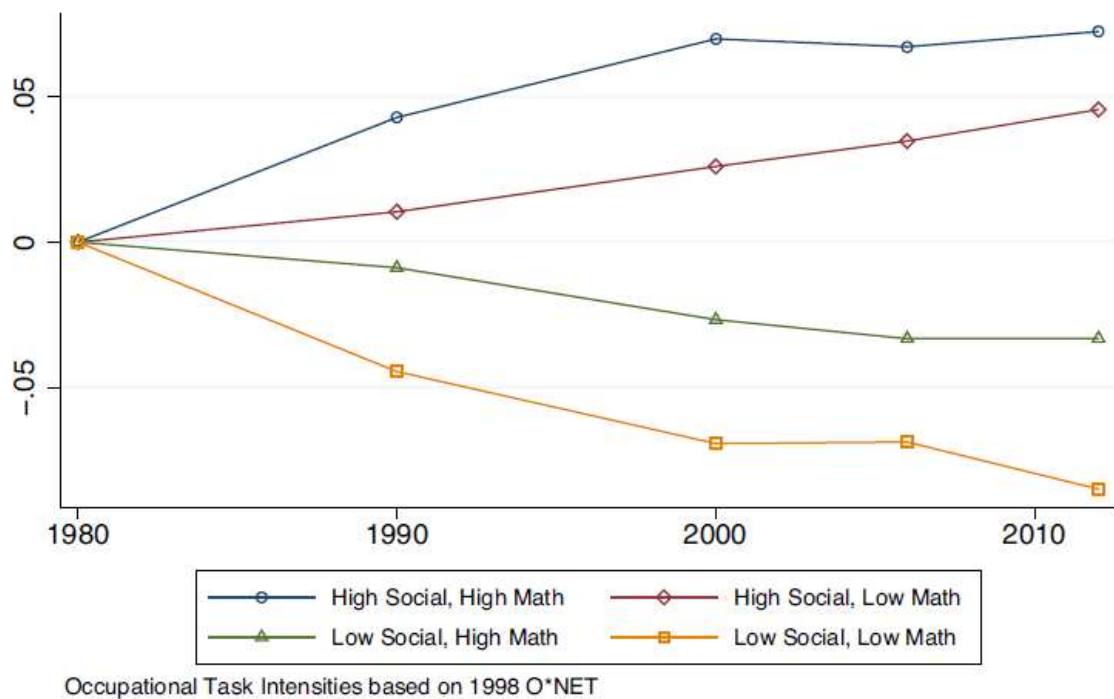


그림 V-32 미국 노동시장의 고용비중 변화

출처: Deming(2017, p.1626-27)의 Figure III, IV

자료: 김경희 외(2019, p.77)의 [그림 II-6]의 패널 A를 재인용

Deming(2017)에 따르면, 사회적 역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이유로 두 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역량은 육체적, 인지적 역량에 비해 기술로 대체되기 어렵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설득하는 능력은 자동화되기 어렵다. 똑같이 웃는 표정을 짓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공감의 표시가 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비꼬는 경우일 수도 있다. 이 차이를 구분하는 능력은 인류가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축적한 산물이고, 따라서 적어도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대체하기 어려운 성격이다.

둘째, 기술이 발전할수록 협업(collaboration) 능력이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단순·반복적인 업무들이 기술로 대체되면 될수록, 인간은 더 어렵고 복잡하며 창의성을 요구하는 문제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개 한 분야의

전문성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사회적 능력이 높은 인재를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는데 수월하고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어려운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데 유리하다. 사회적 능력이 창의성을 촉진하는 한 가지 요소이기도 한 셈이다.

한국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황수경(2007)은 1993-2005년 기간 중 한국 노동 시장에 투입된 육체적, 인지적, 감각적 숙련의 가격을 추정하였다. 육체적 숙련과 인지적 숙련은, 이름 그대로, 각각 운동능력과 인지능력을 의미한다. 감각적 숙련은 감각, 섬세함, 미세조정 등을 요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육체적 숙련의 비중이 높은 대표적 직업은 작물 재배 종사자, 소방 및 응급구조 종사자, 운송기계 정비종사자 등이다. 인지적 숙련의 비중이 높은 대표적 직업은 대학교수, 기업 고위 임원, 행정전문가 등이다. 감각적 숙련의 비중이 높은 대표적 직업은 초등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자동차 운전 종사자 등이다. 앞서 Deming(2017)이 논의한 사회적 능력은 주로 감각적 숙련과 인지적 숙련의 중간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V-33]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1993-2005년 기간 중 인지적 숙련의 가격은 대체로 상승한 반면, 육체적 숙련의 가격은 하락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00년대 이후 감각적 숙련의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은 우리나라에서 IT 혁명이 빠르게 진행되던 시기이다. 기술이 빠르게 진보하며 인지적 숙련의 가격이 육체적 숙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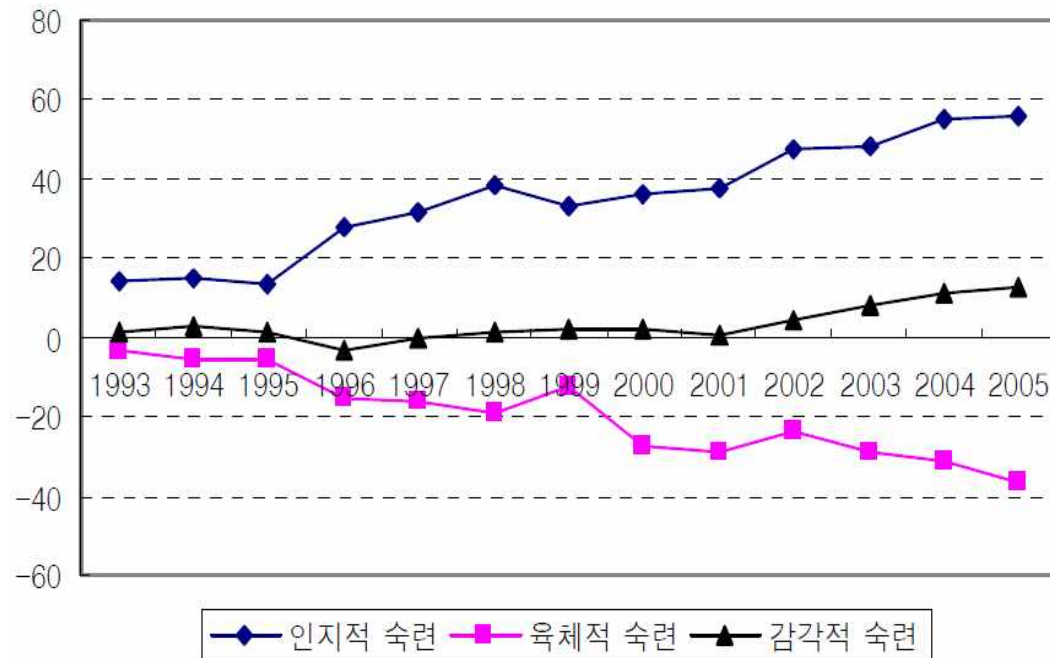


그림 V-33.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숙련 가격 변화

출처: 황수경(2007, p.78)의 [그림 3-10]¹⁸⁾

자료: 김경희 외(2019, p.81)의 [그림 II-8]을 재인용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20세기 중반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 하던 시기를 분석한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단순·반복적 업무에 대한 노동수요는 감소한 반면, 고차원적 인지능력이나 사회적인 역량을 요구하는 업무에 대한 노동 수요는 증가하였다. 기술로 대체되기 쉬운 역량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기술과

18) 황수경(2007, p.43-48)의 논의를 바탕으로 각 숙련의 정의와 예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지적 숙련은 포괄적 인지능력, 판단력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숙련을 의미하고, 인지적 숙련투입이 높은 상위 10개 직종은 생명과학 전문가, 건축 및 토목공학 전문가, 대학교수, 자연과학 전문가, 의료진료 전문가(간호제외), 기업 고위임원, 행정 전문가, 특수이익단체 고위임원, 종교 전문가, 전기·전자 및 기계공학 전문가이다. 육체적 숙련은 작업강도, 신체의 균형, 웅크림과 같은 운동능력 등을 의미하고, 육체적 숙련투입이 높은 상위 10개 직종은 복합 및 시설 작물 재배 종사자, 작물 및 동물 복합 생산자, 건물골조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소방 및 응급구조 종사자, 측량 전문가, 건물완성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자동 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 종사자, 광원/발파원/석재 절단 및 조각종사자, 운송기계 정비 종사자이다. 감각적 숙련은 감각, 섬세함, 미세운동 등을 요구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감각적 숙련투입이 높은 상위 10개 직종은 초등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의료전문가(간호제외), 자동차 운전 종사자,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건축 및 토목공학 기술 종사자, 특수학교 교사, 창작 및 공연예술가, 금속 및 관련재료 세공 종사자, 금속/목재 및기타 제품 종사자이다.

보완적인 역량에 대해 수요는 증가한 셈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이미 진행 중인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판단한다면, 디지털 기술과 보완적인 성격을 갖는 역량을 갖춘 인재가 노동시장에서 더 많은 고용 기회와 더 높은 임금을 누릴 것이다. 과거 경험으로 볼 때 디지털 기술을 응용하는데 필요한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과 디지털 기술로 대체되기 어려운 사회적 능력이 각광 받을 가능성이 크다.

청소년서비스는 정규교육을 보완하는 성격을 갖는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초·중등 정규교육은 사회적 능력보다는 인지적 능력에 초점을 맞춰왔다. 비록 최근 들어 학생의 사회적 능력을 강화하려는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 위주이다. 한국 학생들이 유달리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교육 현장에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지식 전달 위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서비스는 학생의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여 지식 전달 위주의 정규교육 및 사교육 환경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4) 산업변화에 따른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방향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은 산업 구조의 변화를 촉진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거래 위주의 IT 관련 산업이 확대될 것이고, 대면 거래 위주의 서비스업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 간 비중 변화와 동시에 산업 내 변화도 진행될 것이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의 경우 오프라인 거래는 감소하는 반면 온라인 거래는 증가할 것이다. 금융업의 경우 전통적인 대면 금융업은 위축되는 반면 온라인 기반의 핀테크 산업은 확대될 것이다.

개인의 인적자본은 학령기에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노동시장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경제학에서는 적어도 인적자본의 절반가량은 노동시장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정규교육을 마친 청년이 어떤 산업에 진출하여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그의 미래 노동시장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성장하는 산업에 진출하여 관련 경험을 쌓은 청년은 그만큼 자신의 경력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반대로, 쇠퇴하는 산업에서 노동시장 경험을 시작한 청년은 인적자본 축적이 둔화되고 결국 생애 노동시장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그만큼 불리할 것이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디지털 관련 산업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중요함을 시사한다. 2000년대 중반 이래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시도가 있었으나,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 지형의 변화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소개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성남시는 IT 관련 산업이 발달한 도시로서, 청소년들에게 관련 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심을 유도하기에 유리한 여건이다. IT 기업이 밀집한 지역 환경을 활용하여 지역 청소년들에게 IT 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는 청소년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유학년제 시행 등으로 학교 밖 체험 활동이 강조되는 추세인 바, 학교와 지역 IT 기업을 연계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5) 청소년 사회적 변화에 따른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방향

사회적 변화는 그 내용이나 범위에 따라 광범위하고 복잡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일반사회 측면의 변화를 전망한 연구와 특히 직업 능력 및 일자리 측면에서의 변화를 전망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2012년 제3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제러미 리프킨, 2012)을 통해 우리는 지금 디지털 혁명이라는 3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면서 미래 사회를 전망하였다. 역사적으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정보화 및 자동화 체계가 구축되었지만, 그 영향력은 일상생활에서부터 경제 및 사회 전반의 구조 자체를 뒤바꿔 놓았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혁신은 또 다른 산업혁명을 야기할 것으로 보았다(김진하, 2016: 46).

2016년 스위스의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클라우드 슈밥은 제4차 산업혁명을 주장하였다. ‘The Future of Jobs’ 보고서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이 이미 도래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일자리의 지형이 변화할 것으로 보았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에 해당하는 디지털 혁명에 기반하여 초연결성, 초지능화 등이 이루어지는 또 다른 혁명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고 보다 확장된 지능화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말한다. 세계경제포럼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주요 변화 동인으로 사회-경제학적 변화 동인과 기술적인 변화 동인을 들었다. 사회-경제학적 변화에는 업무환경의 변화와 유연성 증가, 신흥 시장에서의 중산층, 기후변화, 지정학적 불안감 증가 등을 들었다. 주된 기술 변화 동인으로서는 모바일 인터넷 및 클라우드 기술, 빅데이터, 에너지 기술, 사물인터넷, 공유경제 등이었다(WEF, 2016; 김진하, 2016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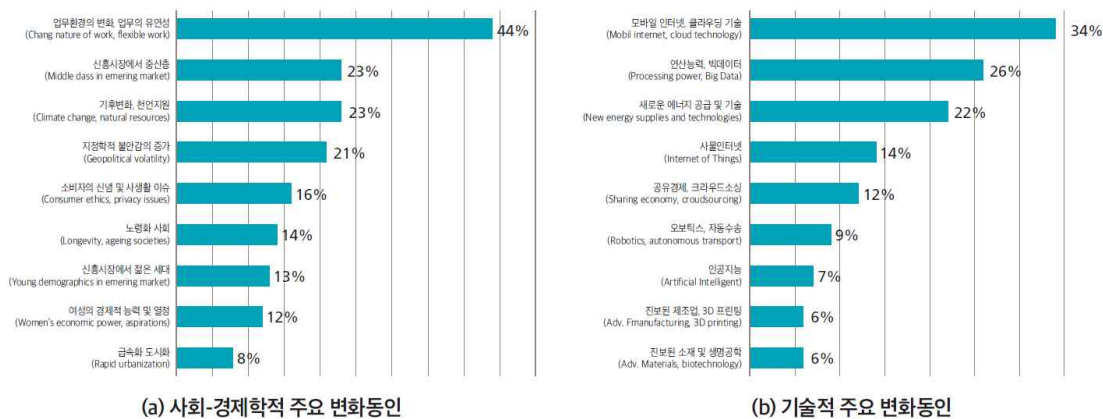


그림 V-34.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변화 동인

출처: WEF(2016), 김진하(2016: 48) 재인용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기술·산업 측면의 변화 뿐 아니라 직무역량의 변화를 수반한다. 세계경제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 직업인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복잡한 문제해결 능력(complex problem solving skills)과 인지능력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았다. 이 보고서에서 고용주들에게 향후 근로자들에게 요구되는 10대 역량을 조사한 결과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성, 대인관계, 협동, 감성지능, 판단 및 의사결정력, 서비스 지향성, 협상, 인지 유연성 등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WEF, 2016, 장현진 2017 재인용).

GE(2016)의 전망에 따르면 2018년까지 미국 제조업 전반에서 일자리의 63%가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교육 이수를 요구하고, 첨단 제조분야의 경우 15% 이상이 STEM 관련 석사학위 이상을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Boston Consulting Group, 2015)은 미래 사회의 고용 인력은 유연성과 학제간(융합적) 학습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직업 노하우를 정보통신기술과 접목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소프트스킬(soft skills)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았다(김진하, 2016 재인용).¹⁹⁾

우리나라의 미래창조과학부(2017) 미래준비위원회는 ‘10년 후 대한민국, 미래 일자리의 길을 찾다’ 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 도래로 인한 기술진보가 일 업무 환경과 직업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았다. 미래 일자리 환경의 변화 동향은 가치와 지식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평생 직장에서 평생 직업으로의 변화, 일자리 양극화와 데이터 기반 인적자원 관리 강화, 자가 고용과 창조 서비스업의 증가,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았다. 특히, 미래 직업 변화 트렌드는 직업의 세분화 및 전문화, 과학기술 기반의 새로운 직업 탐색, 융합형 직업의 증가 등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이 갖추

19) The Future of Jobs, WEF, 2016

The Workforce of The Future, General Electronics, 2016

Man and Machine in Industry 4.0, Boston Consulting Group, 2015

장현진(2017). 미래청소년학회....

어야 할 역량으로 문제인식 역량, 대안도출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의 3대 역량을 제시하고, 11대 세부 역량을 제시하였다(미래창조과학부, 2017; 문화체육관광부, 2017 재인용).²⁰⁾



그림 V-35. 미래 일자리에 필요한 3대 핵심역량

출처: 미래창조과학부(2017), 문화체육관광부(2017.02.03. 재인용).

황규희(2020)의 연구에서는 스킬 변화의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미국의 직업정보(O*NET)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2010년 854개 직업과 2019년 968개 직업을 비교하여 스킬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새롭게 추가된 직업이 많은 직종 분야는 의료직(스포츠 의학 의사, 미술 치료사 등), 정보 분석직(컴퓨터 네트워크 지원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설계자 등), 관리직(품질 관리 시스템 관리자, 양식 관리자 등), 기술직(연료 전지 엔지니어, 비파괴 검사 전문가 등) 등이었다(황규희, 2020: 193).

20) 미래창조과학부(2017). 미래전략보고서 - 10년 후 대한민국, 미래 일자리의 길을 찾다. 문화체육관광부(2017.02.03.).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URL: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28434>

직종분류	전체(개)	신규(개)	신규 비율	새롭게 제시된 직업정보
11. 관리직	56	26	46%	품질 관리 시스템 관리자(Quality Control Systems Managers), 양식 관리자(Aquacultural Managers) 등
13. 사업직	50	17	34%	물류 분석가(Logistics Analysts), 리스크 관리 전문가(Risk Management Specialists) 등
15. 정보 분석직	33	26	79%	컴퓨터 네트워크 지원 전문가(Computer and Information Research Scientists), 데이터베이스 설계자(Database Architects) 등
17. 기술직	70	22	31%	연료 전지 엔지니어(Fuel Cell Engineers), 비파괴 검사 전문가(Non-Destructive Testing Specialists) 등
19. 기초과학 사회과학 연구직	60	8	13%	바이오 정보 과학자(Bioinformatics Scientists) 등
21. 사회 서비스직	14	1	7%	지역사회 보건 종사자(Community Health Workers)
23. 법률직	8	1	13%	사법 서기(Judicial Law Clerks)
25. 교육 도서직	61	7	11%	적응형 체육 전문가(Adapted Physical Education Specialists) 등
27. 예체능 언론직	43	0	0%	
29. 의료직	86	32	37%	스포츠 의학 의사(Sports Medicine Physicians), 미술치료사(Art Therapists) 등
31. 보건 지원직	18	5	28%	내시경 기술자(Endoscopy Technicians) 등
33. 보안 서비스직	29	3	10%	정보 분석가(Intelligence Analysts) 등

그림 V-36. 미국 O*NET에서 2010-2019년 새롭게 등장한 직업(일부 직종 캡처)

주: O*NET 자료를 정리한 것 중 일부직종에 대하여 화면캡처한 것임.
출처: 황규희(2020: 193)

또한, 미국 직업정보에서 2010년 직업 790개와 2019년 신규 직업 178개 사이에 숙련 스킬 7가지 분야에 대하여 평균 숙련수준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초, 학습, 사회, 문제해결, 기능, 분석, 관리 스킬 7가지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평균 스킬 수준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롭게 등장하는 직업들의 경우 대체로 숙련 스킬 수준이 높은 분야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황규희, 2020: 195).

(단위: 평균 스킬 점수(점/7점))

스킬 지표 (세부 스킬 지표)	기존 직업 (790개)	신규 직업 (178개)
기초 스킬 (읽기, 쓰기, 수리, 과학)	2.92	3.37 ***
학습 스킬 (비판능력, 학습능력 등)	3.17	3.58 ***
사회 스킬 (협업, 협상, 지시 등)	2.83	3.21 ***
문제해결 스킬	3.07	3.50 ***
기능 스킬 (설치, 작동, 유지, 보수)	1.33	1.49 **
분석 스킬 (판단, 분석, 평가)	2.72	3.31 ***
관리 스킬 (재무, 자재, 인사)	2.05	2.48 ***

유의확률: <0.001 '***'; <0.01 '**'; <0.05 '*'

그림 V-37. 미국 직업정보에서 2010년과 2019년 직업의 평균 스킬 수준 변화

출처: 황규희(2020: 195)

이와 같이 제러미 러프킨의 3차 산업혁명 시대 등장과 발전, 세계경제포럼의 클라우드 슈밥이 말한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같은 미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변화로 인해 나타나게 될 사회, 경제, 정치, 환경 등의 변화 동인과 직업 및 일자리에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는 궁극적으로 미래 사회에 살아갈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미래 역량에 대한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살펴본 사회적인 변화, 직업 및 필요 역량의 변화를 바탕으로 성남형 청소년 서비스가 고려할 시사점을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의 시사점은 장현진(2017)이 제시한 4차 산업혁명 등의 사회 변화에 따른 청소년 진로에 관한 시사점을 참고하였다.

첫째, 급속한 기술, 사회,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하여 미래 청소년이 살아갈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가속될 것이므로 변화되는 사회에서의 진로적응력 및 진로탄력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미래의 사회는 새로운 직업과 사회의 변화로 인해서 평생

직업은 있으나 평생 직장은 없는 사회이므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 분야, 직장 등에 적응하면서 자주 부딪힐 수 있는 진로장벽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역량을 함양해야 한다. 이러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청소년 서비스 제공이 요구될 것이다.

둘째, 미래 사회에서 기존의 일자리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개척이나 신규 분야에 대한 도전이 필요하므로 창업가정신이나 이에 관련한 기초 핵심역량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창업체험, 창직활동 등과 같이 도전정신, 주도성, 문제해결 창의성 등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은 상당수 개발되어 있으나 이것이 청소년의 집단의 특성에 맞추어 운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단순히 활동 뿐 아니라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진로에 대한 꿈과 역량을 키워가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셋째, 미래 사회에는 새로운 기술 변화에 따라 필요한 디지털 리터러시와 함께 인간 고유의 역량으로서 공감, 감성, 사회성 등을 키워주는 것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에 있어서 디지털 혁명에 따른 역량 외에도 이를 사회에 적용하고 사람 간, 사물 간, 사람과 사물 간에 연결하는 것들도 중요해진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기본적인 함양의 토대 위에서 인간으로서의 고유성을 함께 담아갈 수 있는 소프트 스킬을 기를 필요가 있다.

6) 교육적 변화에 따른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방향

성남형 청소년서비스에 영향에서 고려해야 할 미래의 교육적 변화는 OECD 2030 교육 방향, 최근 제시한 대한민국 교육부의 미래교육 과제, 그리고 교육관련 국책연구기관들에서 발표한 미래교육에 대한 각종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주제들의 변화를 토대로 살펴볼 수 있다. 각 내용을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적 변화에 따른 미래 청소년 서비스의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OECD 교육 2030

먼저 최근 들어서 미래 교육의 방향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미래핵심역량과 교육의 실행 측면에서 교육 변화이다. OECD는 21세기 미래 핵심역량을 규정한 DeSeCo 사업의 후속으로 교육 2030 프로젝트를 출범하였지만, 새로운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future we want)’를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교육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과, 잠재력의 최대한 발현을 토대로, 개인과 사회의 웰빙에 기반한 공동의 미래사회를 구축한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즉, 교육의 역할이 핵심역량의 함양을 넘어서 새로운 미래 사회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윤종혁 외, 2016; 최수진 외, 2017; 이상은 외, 2018; 김은영 외, 2019; OECD, 2018; OECD, 2019b; OECD, 2021a).

특히, ‘OECD 교육 2030 학습 프레임워크(OECD Learning Framework 2030)’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말로는 학습 나침반(Learning Compass)로 표현하고 있다. 개인이 갖춰야 할 역량을 토대로 나와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탐색해 나간다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져 온 교과목 학습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 ‘2030년 개인과 사회의 웰빙(individual & societal Well-Being 2030)’을 위하여 개인이 지녀야 할 중요한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을 강조하고 있다. 변혁적 역량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긴장과 딜레마 상황을 조정하며,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과거 OECD DeSeCo 프로젝트에서 핵심역량(key competencies)라고 한 것들이 미래 교육 2030에서는 변혁적 역량으로 변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하여 ‘학생의 주도성/협력적-주도성(student agency/co-agency)’을 중요하게 설정하고 있다. 학습자들이 수동적인 것이 아

나라 능동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역량을 함양하여 나가는 주도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예측(anticipation) - 행동(action) - 성찰(reflection)의 역량개발 사이클을 교육에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윤종혁 외, 2016; 최수진 외, 2017; 이상은 외, 2018; 김은영 외, 2019; OECD, 2021a). 이러한 역량을 살펴보면 미래의 청소년들에게는 능동적이고, 주도적이며, 책임감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들이 중요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V-38. The OECD Learning Compass 2030

(2) 교육부의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안)

우리나라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와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하여 교육 현장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것으로 보고 미래교육으로의 도약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시급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안)’을 제안하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유·초·중등 교육 단계에서 국가 책무성 및 현장 자율성을 강화하고, 고등·평생교육 측면에서는 공유와 협력을 통한 혁신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반 구축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특히, 유·초·중등 단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1)분권, 자율, 다양성,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미래형 교육과정 마련’, 2)미래 수요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원양성 제도 혁신, 3)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형 학교 조성, 4) 학습격차 해소와 기초학력 책임 보장 측면에서 교육안전망을 강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반구축 과제로서 9)K-에듀 등 디지털 환경 조성 및 디지털 역량 제고와 같은 디지털 전환 교육 기반 마련, 10)국가교육위원회 협력 및 교육자치 내실화 등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교육부, 2020).

이와 같은 교육적인 정책 변화 방향은 학교와 같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의 교육과정이나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고 보인다. 아울러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마트 학교, 디지털 환경 등에서 학습하는 능동적 참여자로서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한 온라인 학습환경이나 교육 거버넌스를 조성하고 필요한 미래형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큰 방향은 어쩌면 OECD 교육 2030에서 제시하는 방향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미래의 방향성과 큰 맥락은 같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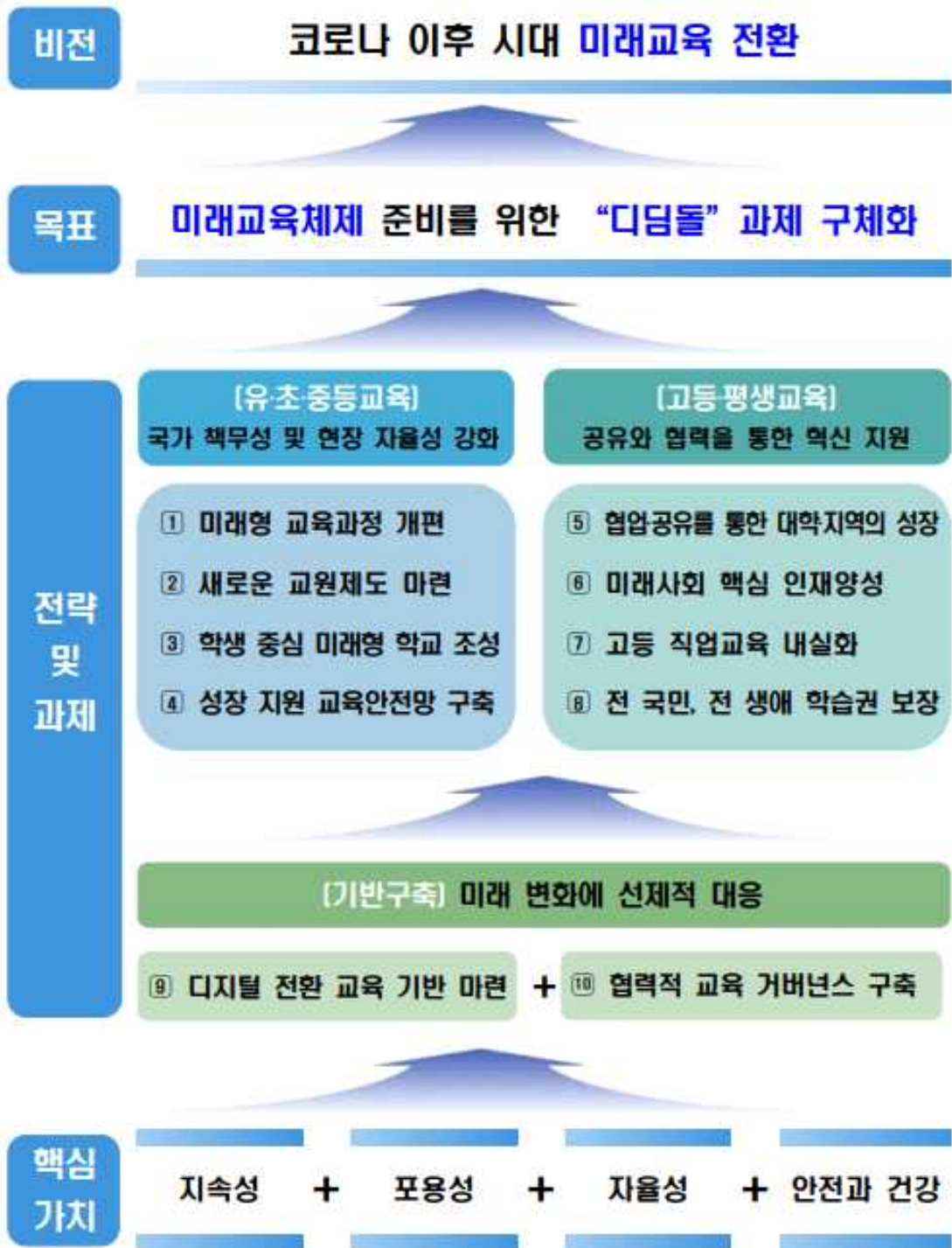


그림 V-39. 교육부의 미래교육 전환 정책 방향

출처: 교육부 (2020).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안).

(3) 미래교육에 대한 연구의 동향

이승호, 신철균(2018)은 우리나라 주요 국책교육연구기관 연구물을 대상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미래교육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보고서 가운데 1987년부터 2017년까지의 미래 교육과 관련한 주제의 연구물 126건을 분석하였다(이승호, 신철균, 2018: 4).

주요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미래교육 관련 보고서가 계속 증가되고 있었는데, 특히 키워드 빈도 분석을 보면 2007년 이전에는 미래전망,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키워드가 높은 빈도로 등장하였지만, 2008년 이후는 핵심역량과 교육과정이 높은 빈도로 출현하였다. 특히, 교육과정은 그 이전부터 중요한 키워드에 포함되어 왔지만, 핵심역량은 2008년 이후 출현하여 강조되는 것을 알 수 있다(이승호, 신철균, 2018: 8-9).



그림 V-40. 시기별 미래교육 연구보고서의 키워드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출처: 이승호, 신철균(2018: 8).

또한, 네트워크 중심성을 분석한 결과 시나리오, 학령인구감소, 인적자원 등의 키워드의 중심성이 높게 나왔으며, 이 외에도 미래학제, 미래비전, 인력수급, 학제 구조, 미래교육, 지식기반사회, 직업세계, 4차 산업혁명 등이 중심성이 높았다.

이러한 주제들은 서로 다른 연구 영역이나 주제들을 연결하는 역할로서 중요하게 작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승호, 신철균, 2018: 11). 이러한 중심성 높은 키워드들을 본 연구에서 새롭게 구분해 보면 교육변화의 배경에 관한 주제와 교육 변화의 대상에 대한 주제로 나뉘볼 수 있다. 먼저 배경과 관련한 주제로는 학령인구감소, 지식기반사회, 직업세계(변화), 4차 산업혁명 등이다. 교육적 변화의 대상과 관련한 키워드는 미래학제, 학제구조, 미래교육 등이다.

이와 같이 미래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보고서의 주제 변화를 토대로 미래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화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교육 변화의 배경으로서 학령인구감소, 사회 및 직업세계의 변화 반영 등이 중요한 요인들이다. 또한, 이러한 요인을 토대로 변화해야 할 교육적 모습은 전반적으로 핵심역량에 대한 강조, 여러 가지 교육적 제도의 변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4) 시사점

앞서 살펴본 OECD 교육 2030, 교육부의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안), 그리고 국책교육연구소들의 미래교육 전망 보고서들의 주제 변화 등을 토대로 성남시 청소년서비스와 관련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주도성과 변혁적 역량을 키우는 것에 대한 강조가 요구된다. OECD 교육 2030은 학생들의 주도성과 변혁적역량을 중요한 역량으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웰빙을 추구해 가도록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의 미래교육 방향의 기반은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책교육연구소들의 미래교육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이후로 핵심역량을 주요 키워드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을 보건데 청소년서비스의 경우에도 청소년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무엇을 또는 무슨 역량을 길러주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의 역량이나 인재상에 대한 모습은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대상이나

일반적인 학교교육의 대상 청소년이 서로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남시 청소년서비스에서 추구하는 역량의 경우에도 자립성, 주도성, 변혁적 역량 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소년서비스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위한 능동적 추구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성남시 청소년서비스는 단순히 지자체 수준의 일반적인 청소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서비스를 토대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펼쳐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보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즉 우리가 원하는 사회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는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 OECD 교육 2030의 방향을 보면, 과거와는 다르게 교육이 교육 자체로서의 기능을 넘어서 개인과 사회의 웰빙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기능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서비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청소년서비스의 제공 자체에 목적이나 비전이 있기보다는, 그러한 서비스 제공을 토대로 어떠한 결과(outcomes)와 개인 및 사회에의 긍정적인 변화에 기여하는 효과(effects)를 나타내는 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4.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종합 진단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종합 진단은 행정통계에 기초한 행정역량과 청소년정책 환경변화, 그리고 전달체계와 거버넌스의 주요 내용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행정통계에 기초한 행정역량은 인구, 경제, 재정, 사회 각 영역별 주요 지표의 증감 형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구의 경우 감소 추이(인구수, 출산율, 청소년 인구비율 감소)가 주요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는 경제활동인구·고용율·청년고용율 감소와 실업률·지역내총생산의 증가 특징을 보인다. 재정의 경우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모두 감소하고 있다. 사회 영역의 주요 항목들은(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예산, 보육시설, 의료기관종사자 의사 수, 요양기관, 문화기반시설)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V-41]은 이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그림 V-41. 성남시 청소년서비스의 주요 행정역량(행정통계 기초)

이러한 행정역량과 함께 청소년정책의 환경 변화에 대한 진단 역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검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발생은 정책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물론 인구와 기술 영역에서는 기존의 변화가 계속되는 경향을 보인다. 인구감소와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기술 변화 등이 그에 해당한다. 하지만 사회 영역에서는 기존에 불평등, 갈등문제, 삶의 질 강조 등의 모습이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심리적이고 정신적 건강 문제 증대, 경제활동 위축, 그리고 소득불평등 악화 등이 단적인 사례들이다. 교육영역에서도 코로나19는 수업방식과 시스템의 변화, 학력 저하 문제와 청소년 정책 대응 역량이 강조되는 형태로 영향을 미쳤다. [그림 V-42]는 주요 정책환경별 코로나19 이후의 영향을 간략히 나타내고 있다.



그림 V-42. 코로나19에 따른 청소년 정책환경 변화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전달체계와 거버넌스 역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현황 진단 대상이 된다. 우선 전달체계는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보호복지 시설, 교육시설·도서관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각 시설별로 세부 기관(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학교밖 배움터, 청소년 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 의해 구체적인 전달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서비스 거버넌스는 성남청소년균형동반 협의체, 성남시 청소년 행복회의, 지역사회 민관협의체 및 기타 의견 수렴 활동을 통해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전달체계와 거버넌스는 청소년서비스 수, 청소년 1인당 사업 수, 청소년 서비스 예산, 청소년 1인당 사업예산 집행과 관련되어 운영되고 있다. 각 운영 요소들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청소년서비스 수와 청소년서비스 예산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감소되기도 했다. [그림 V-43]은 성남시 청소년 서비스 전달체계와 거버넌스 전반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V-43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전달체계와 거버넌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성남형 청소년서비스는 이러한 행정역량, 청소년정책 환경변화, 그리고 전달체계와 거버넌스 현황 진단을 기초로 하여 방향성이 설정되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보다 구체적인 방향 제시를 위해 전략 도출 예비조사나 관련자 대상의 의견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어지는 장에서 추가 분석이 진행되지만, 그에 앞서 현황 중심의 이러한 종합 진단이 필수적이다. 특히 지역 특성 및 내재적 역량 기반의 전략적 방향 모색과 시의적절성에 의한 지속가능한 청소년서비스를 위해서는 더욱 그렇다.

○———— VI.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전략과 개선과제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분석

- 1.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전략도출을 위한 예비조사
- 2. 성남시 청소년전문가(재단소속) 의견분석
- 3. 성남시 지역 청소년전문가(재단 외) 의견 분석
- 4. 전국 청소년전문가 의견분석
- 5.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전략도출을 위한 성남 전문가 및 전국전문가 AHP, IPA분석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전략과 개선과제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분석

본 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전략과제와 개선전략을 알아본다. 연구방법은 청소년전문가 의견조사를 활용하였다. 먼저 성남시 청소년전문가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8인에게 전략수립의 예비조사를 하였다. 다음으로 전문가집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전국조사 103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전문가패널단 소속의 현장 및 사회과학 분야 학계 전문가이며 인식조사와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성남시 재단소속 전문가 105인도 인식조사와 개방형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외에 성남시 재단 소속 이외의 지역청소년전문가 20인을 대상으로 인식조사와 개방형 조사를 하였으며, 성남시 청소년응답자 33인은 개방형만 조사하였다. 전문가 조사의 명단은 성남시청소년재단과 협의하여 유의표집을 하였다.

1.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전략도출을 위한 예비조사

본 예비조사는 9월 중순부터 열흘간 포스트코로나 시대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전략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주요 의견으로는 공간과 사업의 개방성, 공간 공유, 멤버십 서비스, 정보접근성 강화로 진입장벽 해소가 필요하며 메타버스 플랫폼 등 온라인 플랫폼 활용모색, 청소년활동 역량계량지수 도입으로 성장맵 구

축, 청소년이 참여하는 성과관리 제도, 청소년 중심의 ESG경영 가치 창조, 청년이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청년 구성 전담부서 등 지속성을 가진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를 종합하면 재단과 재단 내 청소년시설 조직변화 등에 관련한 조직 관련 의견이다. 그리고 아동 관련 돌봄 강화, 관련 사업 예산 증액, 가족활동사업, 아동권리증진 등 아동 관련 사업, 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 자립준비청년 등 지역 연계한 청년 인큐베이팅 업무와 공간 지원 등 청년 관련 사업, 그리고 균형동반협의체 등 코로나 시기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사업 발굴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청소년시설의 신규 사업의 발굴을 의미하는 사업관련 전략으로 정리할 수 있다. 비대면 청소년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온택트 기반 구축 등 비대면 및 청소년 트렌드에 맞는 공간혁신은 공통적으로 기존의 사업이나 자원을 바탕으로 한 생산적인 변화, 비대면 청소년서비스 강화, 학습지원 사업 등의 혁신 관련 전략으로 종합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및 디지털기반 역량 및 자기관리 역량, 지역사회 청년안전망, 청년 사각지대 해소 협력, 민간과 협업, 민간 프로그램 지원예산확대 등으로 언급된 의견은 재단을 넘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효율화 전략,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등 경영 관련 전략으로 묶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리된 4가지 영역의 전략 아이디어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에 제시된 예비응답자 8인은 익명으로 표기하였으며 가, 나, 다 순으로 나타내었다.

1) 조직영역 전략

	성남형 과제 도출 위한 필요 아이디어
가	재단 직원 중심의 운영에서 다양한 지역의 시민, 기관에게 공간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조직 변화 필요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동류 사업별 업무표준 및 난이도 책정 필요
	참여청소년들의 이력관리 및 포트폴리오 지원기능 탑재
	메타버스 인 성남 정도의 가상공간을 제작, 청소년에게 지원
	업무별 난이도 구분을 통한 급수별 업무 배정 필요

	성남형 과제 도출 위한 필요 아이디어
다	수요자 중심은 6차 기본계획의 주요방향, 포스트코로나시대에 2022년까지 6차 기본계획의 주요정책방향이 아닌 새로운 키워드 필요
	재단의 총괄관리보단 성남형 청소년 성장데이터 구축 관리 미래핵심역량에 따른 성장 데이터 구축
	청년정책전담부서의 역할과 기능 명확화
라	공간공유, 멤버십 서비스, 정보접근성 강화로 수요자 개념을 수혜자에서 고객으로 변화
	조직성과평가, 소셜임팩트 평가
	성남청소년 균형성장동반협약체
	메타버스, 접근성 강화(진입장벽 해소)
	청년기본법, 후기청소년, 서비스 균형
마	시설별 특화된 청소년 중심의 ESG경영 선언 및 실천
	청소년이 참여하는 성과관리 제도, 관리에서 벗어나 직원의 역량계발이 되는 성과관리 시스템
	역량측정 및 데이터관리,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에 대한 고민과 방향설정
	청년으로 구성된 전담부서로 청년이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재단 내 청소년조직 우수활동자 우대 채용 제도와 재단 내 청년인턴 일자리 창출(활동비, 시간제 인건비 등 확보)
바	시설(수련관)의 생애주기별 서비스 지원 팀제 개편(예: 예비초등, 초등 사업1팀, 중고등 사업2팀, 청년 사업3팀 등)
	성과관리 내실화를 위한 유무형 인센티브 체계 수립으로 보상체계 강화
	성장맵 구축의 일환으로 청소년활동 역량계량지수 도입
	원격시스템 고도화의 일환으로 그룹웨어 원격시스템 도입
	청년정책실 기능 보강
사	수요자가 편리하게 접근하고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일원화된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
	수요자의 만족도나 변화, 역량 강화, 도움 정도 등 수요자 입장에서의 평가 반영 . 신규사업 계발 성과나 지역확산 파급효과 등의 측면도 평가함 필요
	성장데이터 구축과 아울러 수요자 중심으로 한 청소년이 재단에서 이용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총체적 데이터가 한 플랫폼에서 정리됨 필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활용방안 모색
	코로나와 위기의 시대에 보호복지 영역에 대한 과제가 메인으로 도출됨 필요하다고 생각됨

2) 사업영역 전략

	성남형 과제 도출 위한 필요 아이디어
가	온오프 사업 강화 및 강좌와 방과후사업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재단 내부, 지역연계한 청년 인큐베이팅 업무와 공간 지원
	산업진흥원,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연계를 통한 전문가풀 확보 및 공동프로그램 개발, 강사 양성 후 보급
	마음이 멘토다와 같은 공모사업 확대, 사업개발 및 진행도 공동으로 기획하여 예산 지원하는 사업 전개
	동아리, 자치기구 외에 지역 청소년 누구나 지역사회변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시 공간,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확대
다	청소년 사업 대상 분석 및 예산 확보
	지역의 산업시설과 연계한 청소년의 일경험 지원
	미래 대응 역량 관련 사업 발굴
라	청년 역량 강화, 시대사적 청년 이슈, 청년 마음건강, 지역기반의 연대, 청년권한 강화
	ICT분야 청년프리인턴십
마	가족활동사업, 안전한 놀이터, 다중지능향상, 그룹홈, 아동권리증진
	일자리 창출, 근로청소년 지원, 직업능력개발
	성남형 청년 취업박람회, 청년특구 지정으로 취업, 창업, 교육 지원, 기업과 매칭한 인턴 경험 후 청소년이 홍보하는 기업연계
	4차 산업 집중보다는 1차~5차 산업을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사업 발굴
	지역자원 데이터화
	청소년 연령대별(아동, 청소년, 청년) 사업 예산 적정배분
	다자녀 기준 확대(3인→2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우선 도입 등 출산장려 정책 방향에 맞는 돌봄 지원 유형 체계화, 학습기반 놀이 환경, 프로그램 조성 등 예비초등 대상까지 확대(7세~12세 고려)
바	청년교육활동가 양성, 예비취업자 역량 지원, 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초기창업 기반 지원
	지역기반 기업협력체계, 지역기반 워크넷 정보 공유(타 지원서비스 중복)
	가상현실 기반의 신체활동, 학습, 상담지원 체계 마련
	성남균형동반협의회, 부처별 지원서비스 공유를 통한 서비스 간격 해소
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성남형청소년서비스의 범위 개념을 초기, 중기, 후기청소년으로 구분하였는데 맥락적 연결과 분석을 고려해 이렇게 구분하고 추가적으로 청년사업을 하고 있기에 청년 연령까지의 고려로 전체 구조를 통일

	성남형 과제 도출 위한 필요 아이디어
	역량 강화, 기술훈련, 취업지원, 자립
	일자리 정보 플랫폼이 일원화되어 준비부터 취업이나 창업, 그후 사후연계까지 관리
	사업영역에서 도출할 과제의 구분을 정책, 재단 중장기, 시대변화대응, 수요자요구, 예산의 다섯가지 측면에서 크게 구분해 정리

3) 혁신영역 전략

	성남형 과제 도출 위한 필요 아이디어
가	동아리, 자치기구 외에 지역 청소년 누구나 지역사회변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시 공간,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확대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한 재단 지원 가능 영역의 수업을 학생별 맞춤형으로 지원
	청년지원센터
	1인~ 다인 이용이 가능한 공간 구획 및 온라인 시스템 구축, 청소년 및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조례 등 근거 확보
	평생교육, 생활체육등 강좌의 유효성 및 공간 효율성 재검토, 폐지와 공간별 특화 및 대안학교 운영 등 새로운 시설별 사업 차별화 추진
다	지속가능, ESG
	비대면 사업만이 아닌 온-오프 믹스, 새로운 대면사업 모델(소그룹, 1:1 등)
	사회성, 신체활동, 진로경험 등 비대면 수업확대로 발생된 공백과 격차 부분에 대한 서비스 제공
	청소년-청년의 생애 이행관점의 청소년사업과 청년사업의 연결
	단순 비대면 사업 강화만을 위한 공간혁신만이 아닌 미래사회, 청소년 욕구, 급변하는 사회에 맞춰 공간 혁신 필요
	청소년시설 역할 재정립 (미래사회 청소년 시설의 기능과 역할 정리, 재단의 시설이 지역 거점중심, 성남시 전역 통일된 역할)
라	온라인 청년센터, 성남청년 온라인패널
	온택트 기반구축(화상회의, 메타버스, 오픈챗 등)
	한국판 뉴딜
마	미래지향적
	e-Book 서비스, 온라인 진로멘토링, 메타버스, 블랜디드 러닝, 비대면 봉사활동, 비대면

	성남형 과제 도출 위한 필요 아이디어
	바우처, e-스포츠 등 사업 추진
	자기주도학습 역량 증진, 비대면 정신건강서비스 강화, 1:1 매칭 맞춤형 학습 및 체험지원
	청년포털, 청년문화허브
	비대면 및 청소년 트렌드에 맞는 공간변화
	대면과 비대면 사업 비교연구
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SSD), 가족과 함께 하는 지구환경 보호복지사업
	비대면 상황에서의 소그룹 대면활동 지원 강화
	디지털 정보처리 역량 지원, 자기주도학습 (예비초등 디지털 선용 및 역량 지원,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학습코칭)
	메타버스 기반의 온라인 학습 및 활동 플랫폼 조성
사	인식, 정체성
	온라인, 관계, 접촉
	비대면 수업 확대에 의한 격차의 요인도 있으나 코로나 상황의 다양한 변화에 따라 파생된 격차 전체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듦
	온라인상의 공간생성의 질적 개발도 필요
	비대면시대이나 대면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개별화전략, 질적성장전략, 소집단 강화 등의 전략 필요

4) 경영영역 전략

	성남형 과제 도출 위한 필요 아이디어
가	공유공간, 무상 대관, 수련시설 용도변경 등 규제 완화 및 진학시 교내 활동외 수련시설등의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포스트코로나를 넘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요구되는 청소년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재단차원에서 선정하고 및 직원별 운영 할 수 있는 수준의 역량교육 필요
	민간이 협업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마을이 멘토다와 같이 민간 프로그램 지원예산확대(4~5억 수준), 프로그램 개발시 전문가 지원 등 민간입장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확대를 통한 협업 강화, 민간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학교, 재단의 사업과 연결하여 공동 운영
	동아리, 자치기구 외에 지역 청소년 누구나 지역사회변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시 공간,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확대
	자원지도 및 자원은행 운영(각 기관의 공간, 장비, 전문가)

	성남형 과제 도출 위한 필요 아이디어
다	재단 직원만이 아닌 성남시 청소년지도자, 관계자 역량 강화 내용으로 세부전략 필요
	지역사회 자원(기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
라	변화 가속, 매개자로서의 역할 강조
	청년 개인/단체 참여 플랫폼, 혁신공유대학, 청년사각지대 해소 협력, 지역사회 청년안전망
마	온라인 및 디지털기반 역량, 자기관리 역량
	마을단위 촘촘한 협업
	고령화문제, 환경문제, 도시문제와 관련하여 민/관/학/기업이 협업하는 리빙랩 기반 구축 / 리빙랩 포럼
바	인식 개선을 위한 청소년친화 시설 명칭 변경(유스센터 등)
	활동별 전공분야 정립을 통한 지속적인 역량교육으로 스페셜리스트 양성
사	시대적 환경변화 등을 고려한다면 포스트코로나는 한시적 개념이라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개념으로 지도자의 역량 강화 정리 필요(코로나가 기점이 되어 그 이후 다양한 변화에 따른 대응을 감안해 포스트코로나로 명명)
	참여, 변화, 전략, 연대
	재단이 지역과 모든 사업을 어떻게 연계하는가의 활성화 전략이 필요

지금까지 본 예비조사 결과를 보면 포스트코로나 시대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전략의 영역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재단과 재단 내 청소년시설 조직변화 등을 의미하는 ‘(A)조직변화’, 청소년시설의 신규사업의 발굴 등을 뜻하는 ‘(B)사업변화’, 기존의 사업이나 자원을 바탕으로 한 생산적 변화, 비대면 청소년서비스 강화, 학습지원사업 등을 설명하는 ‘(C)혁신변화’, 그리고 재단을 넘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효율화 전략, 지역사회와 연계 강화 등을 의미하는 ‘(D)경영변화’이다. 그리고 예비조사 결과를 통해 그 세부 과제를 각 5개 내외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VI-1.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포스트코로나 시대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전략영역과 세부 전략과제

전략영역	세부 전략과제
(A)조직변화	A-1)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재단 조직변화
	A-2) 재단 내의 청소년사업의 성과관리 기능강화
	A-3) 성남형 청소년 성장 데이터 구축 및 재단의 총괄관리
	A-4) 비대면 청소년서비스 플랫폼 구축
	A-5) 청년정책 전담부서 기능강화
(B)사업변화	B-1) 아동(9~12세)관련 사업 예산증액
	B-2) 청년(19세 이상)관련 사업 예산증액
	B-3) 지역의 산업시설과 연계한 청년일자리 정보지원사업
	B-4) 신기술(4차산업, 인공지능)대응 관련 사업발굴
	B-5) 지역사회 청소년서비스 자원과의 연계사업 발굴
(C)혁신변화	C-1) 청소년 사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강화
	C-2) 비대면 청소년 사업확대
	C-3) 학교의 비대면 수업확대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
	C-4)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성남형 플랫폼 개발
	C-5) 비대면 사업강화에 따른 기존의 청소년공간 혁신
(D)경영변화	D-1) 청소년생태계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화 마련(조례 제개정)
	D-2) 포스트코로나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D-3) 청소년사업에 대만 민/재단 협업 강화
	D-4) 청년사업에 대한 민/재단 협업 강화
	D-5) 청소년과 청년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사업 확대

이와 같은 예비조사 결과는 앞서 살펴본 성남형 청소년서비스의 수요분석과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청소년서비스의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기본적인 방향성을 나타내는 프레임은 [그림 VI-1]과 같다. 성남시의 내부변화와 외부변화를 통해 조직변화, 사업변화, 혁신변화, 경영변화로 이어지는 구조이다.

여기서 성남시의 내부변화는 코로나19 이후 성남시 청소년 삶의 변화 지수와 성남시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도에 기초하여 진단 할 수 있고, 외부변화는 인구, 기술, 사회, 교육 분야별로 진단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예비조사에서 살펴본 네 가지 전략영역으로 연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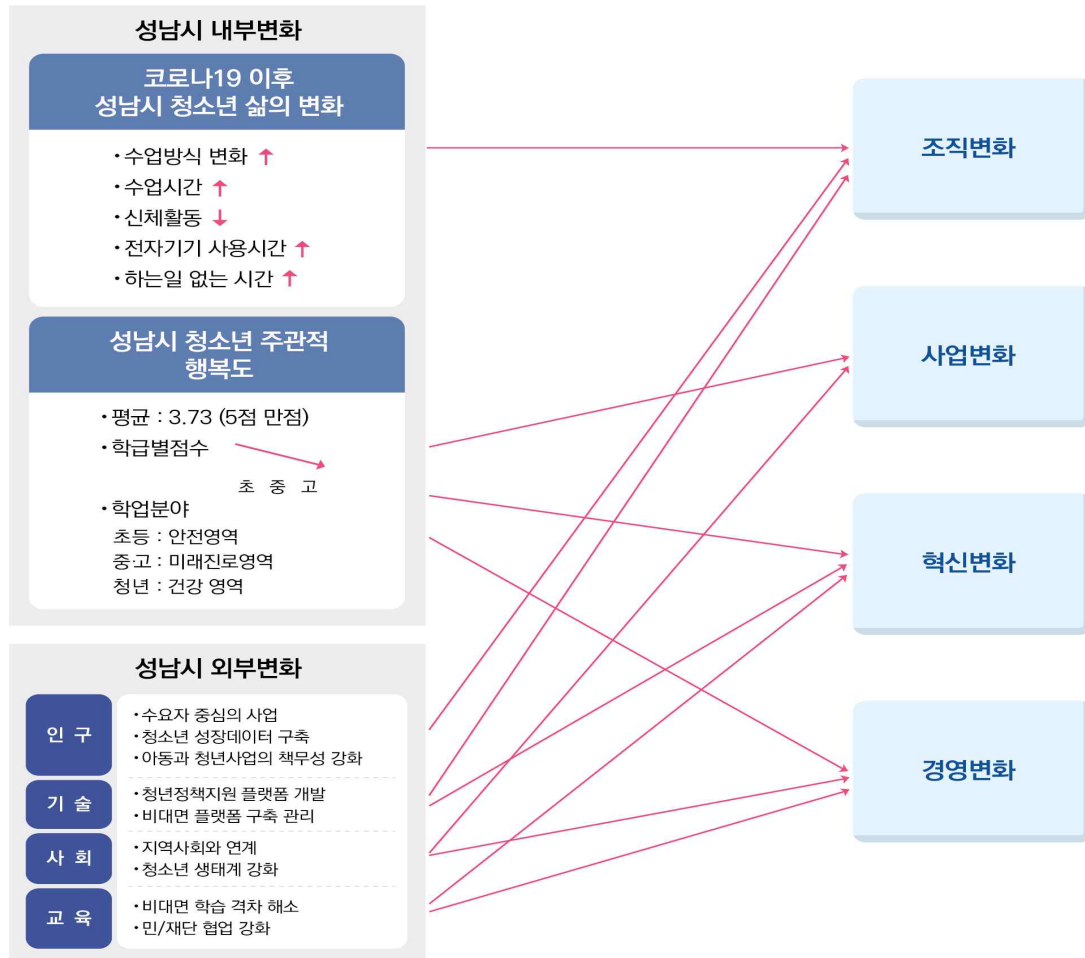


그림 VI-1. 성남형 청소년서비스의 기본 방향 프레임

이러한 기본 프레임은 앞서 살펴본 행정역량, 청소년정책 환경변화, 그리고 전달체계와 거버넌스 현황 진단과 함께 보다 구체적인 포스트코로나 이후의 청소년 서비스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조직변화(수요자 중심의 사업, 성과관리, 청소년성장데이터 관리, 비대면 플랫폼 구축, 청년정책 확대), 사업변화(아동과 청년사업으로 책무성 확대, 지역사회와 사업 연계, 신기술 대응), 혁신변화(비대면 학습격차 해소, 사회적 가치 강화, 비대면 사업 확대, 청년정책 지원), 경영변화(청소년생태계 강화 제도화, 지도사 역량 강화, 민/재단 협업 강화, 수요자 중심의 리빙랩 사업) 각각의 구체적인 전략 과제 및 사업도출이 그에 해당될 수 있다. 이들은

전환에 가까운 방향성들이다. [그림 VI-2]는 이에 대한 것으로 성남형 청소년서비스의 방향 전환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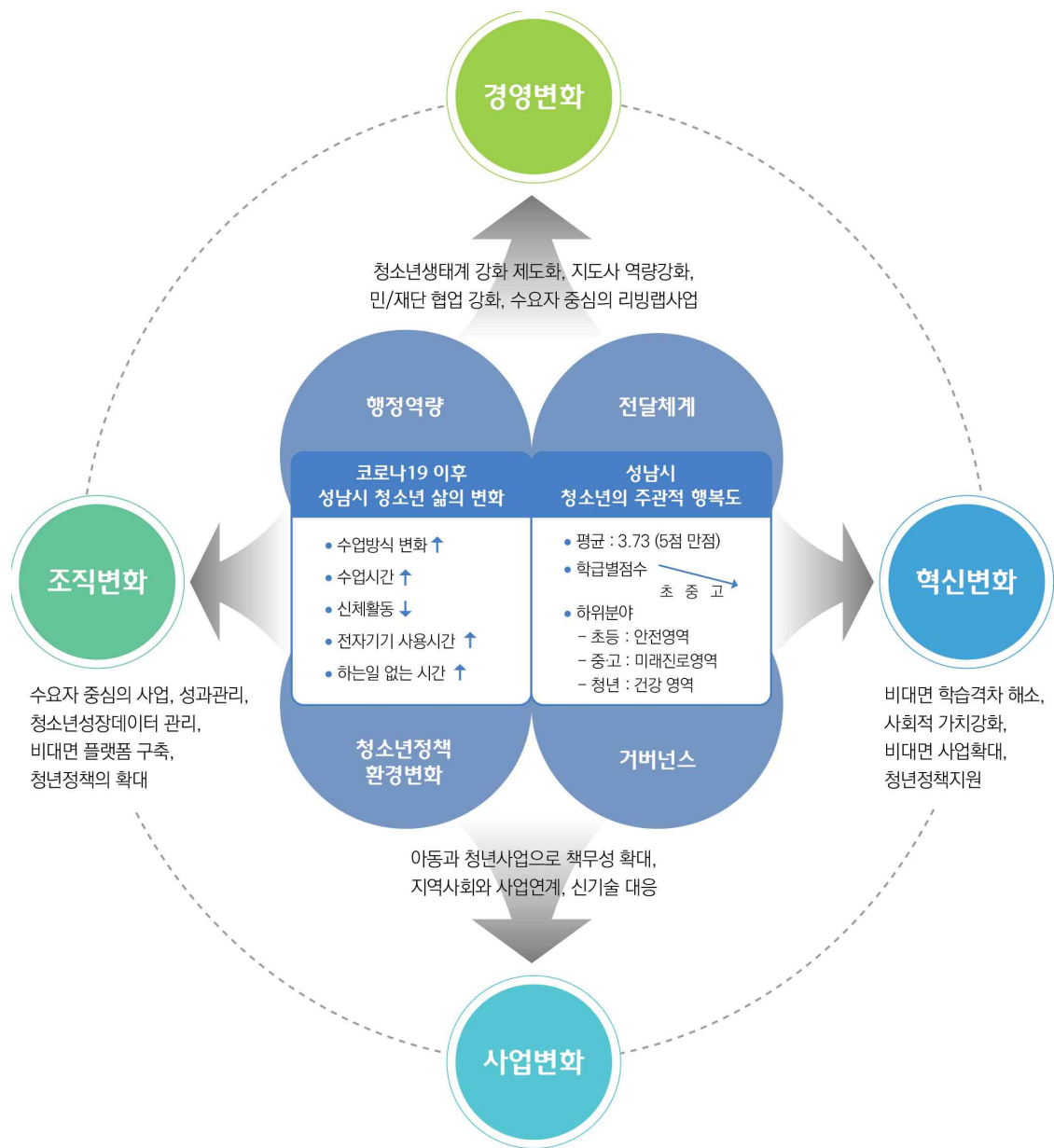


그림 VI-2. 성남형 청소년서비스의 방향 전환 프레임

2. 성남시 청소년전문가(재단소속) 의견분석

본 조사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성남형 청소년서비스의 향후 변화방향 및 전략을 찾고자 성남시 재단소속 청소년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초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전문가는 105명이다.

1) 인적 특성

(1) 성별

표 VI-2. 조사 대상의 성별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빈도	40명 (38.1%)	65명 (61.9%)	105명 (100%)

본 조사 대상인 성남시 재단소속 청소년전문가의 표본 크기는 총 105명이며, 남자 전문가는 40명(38.1%), 여자 전문가는 65명(61.9%)로 여자 전문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2) 연령

표 VI-3. 조사 대상의 연령

(단위: 명, %)

구분	빈도
20대	8명 (7.6%)
30대	42명 (40.0%)
40대	48명 (45.7%)
50대	7명 (6.7%)
전체	105명 (100%)

본 조사 대상인 성남시 재단소속 청소년전문가 105명의 연령을 살펴보면, 20대가 8명(7.6%), 30대가 42명(40.0%), 40대가 48명(45.7%), 50대가 7명(6.7%)로 3, 40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3) 학력

표 VI-4. 조사 대상의 학력

(단위: 명, %)

구분	빈도
고등학교 졸업	3명 (2.9%)
전문대학 졸업	13명 (12.4%)
대학교 졸업	56명 (53.3%)
석사 졸업(수료 포함)	31명 (29.5%)
박사 졸업(수료 포함)	2명 (1.9%)
전체	105명 (100%)

본 조사 대상인 성남시 재단소속 청소년전문가 105명의 학력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이 3명(2.9%), 전문대학 졸업이 13명(12.4%), 대학교 졸업이 56명(53.3%), 석사 졸업(수료 포함)이 31명(29.5%), 박사 졸업(수료 포함)이 2명(1.9%)로 대학교 졸업, 석사 졸업(수료 포함)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4) 기관 유형 및 소재지

표 VI-5. 조사 대상의 재직 기관 유형 및 소재지

(단위: 명, %)

구분		빈도
기관 유형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	104명 (99.0%)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	1명 (1.0%)
	전체	105명 (100%)
소재지	수정구	17명 (16.2%)
	중원구	38명 (36.2%)
	분당구	50명 (47.6%)
	전체	105명 (100%)

본 조사 대상인 성남시 재단소속 청소년전문가 105명의 재직 기관 유형 및 소재지를 살펴보면, 먼저 기관 유형은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이 104명(99.0%),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이 1명(1.0%)이며 소재지는 수정구 17명(16.2%), 중원구 38명(36.2%), 분당구 50명(47.6%)였다.

(5) 업무 경력

표 VI-6. 조사 대상의 업무 경력

(단위: 명, %)

구분	빈도
5년 미만	20명 (19.0%)
5년 이상 ~ 10년 미만	20명 (19.0%)
10년 이상 ~ 15년 미만	33명 (31.4%)
15년 이상 ~ 20년 미만	33명 (31.4%)
20년 이상	2명 (1.9%)
전체	105명 (100%)

본 조사 대상인 성남시 재단소속 청소년전문가 105명의 업무 경력을 살펴보면, 5년 미만이 20명(19.0%),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이 33명(31.4%), 10년 이상에서 15년 미만이 33명(31.4%), 15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이 17명(16.2%), 20년 이상이 2명(1.9%)으로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2) 청소년서비스 관련 기술통계

(1) 성남시 청소년전문가(재단소속)가 인식하는 성남시 청소년의 삶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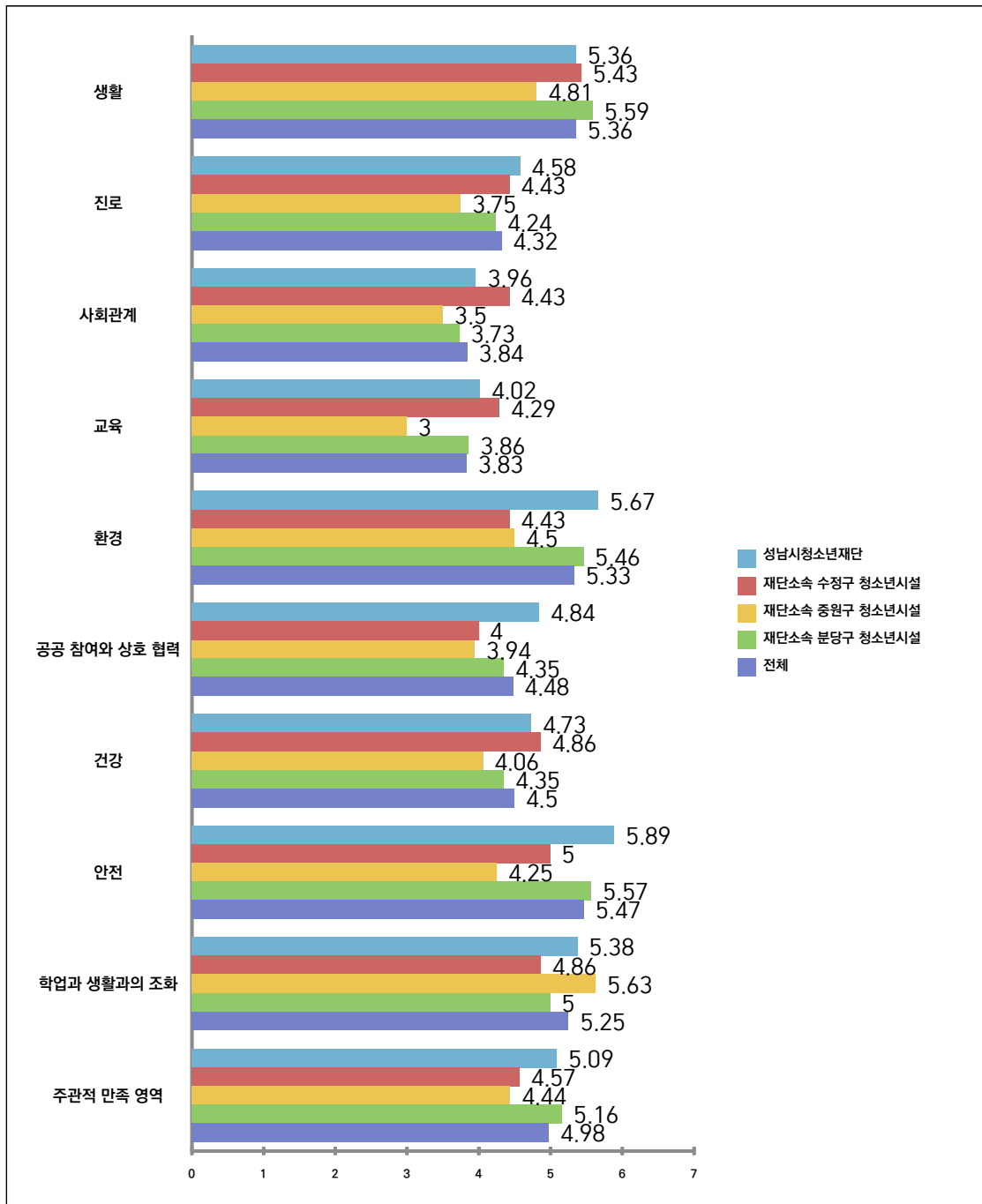


그림 VI-3. 성남시 청소년전문가(재단소속)가 인식하는 성남시 청소년의 삶과 질

성남시 재단소속 청소년전문가들이 코로나19 이전의 상황과 비교해서 생각하는 성남시 청소년들의 현재 삶의 질을 조사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생활, 진로, 사회관계, 교육, 환경, 공공참여와 상호협력, 건강, 안전, 학업과 생활과의 조화, 주관적 만족 영역의 10개 항목을 산출하였다. 평균점수가 5점 이하일 경우 악화, 5점일 경우 현상 유지, 5점 이상일 경우 양호해진 것을 나타낸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은 현재 삶의 질 항목 중 안전(5.89점), 환경(5.67점), 학업과 생활의 조화(5.38점), 생활(5.36점), 주관적 만족 영역(5.09점)의 5개 항목의 평균점수는 5점 이상으로 현재 삶의 질이 더욱 양호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소속 수정구 청소년시설은 현재 삶의 질 항목 중 생활(5.43점), 안전(5.00점)의 2개 항목의 평균점수는 5점 이상으로 현재 삶의 질이 더욱 양호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소속 중원구 청소년시설은 학업과 생활의 조화(5.63점)의 1개 항목의 평균점수는 5점 이상으로 현재 삶의 질이 더욱 양호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소속 분당구 청소년시설은 현재 삶의 질 항목 중 생활(5.59점), 안전(5.57점), 환경(5.46점), 주관적 만족 영역(5.16점), 학업과 생활의 조화(5.00점)의 5개 항목의 평균점수는 5점 이상으로 현재 삶의 질이 더욱 양호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 성남시 재단소속 청소년전문가가 인식하는 사회 변화요인의 중요도

표 VI-7. 성남시 청소년전문가(재단소속)가 인식하는 사회 변화요인의 중요도

(단위: 리커트 9점)

사회변화요인 전문가 소속		사례 수	인구변화	기술변화	사회변화	교육변화	경제변화	청소년 정책변화
전체		105명	7.39	7.46	7.49	7.63	7.16	7.17
세부 소속	본부	45명	7.18	7.33	7.31	7.42	6.87	7.07
	수정구	7명	7.71	6.86	7.00	7.57	7.14	6.14
	중원구	16명	6.94	7.56	7.56	7.94	7.44	7.44
	분당구	37명	7.78	7.68	7.76	7.76	7.41	7.38

[표 VI-7]은 성남시 재단소속 청소년전문가가 인식하는 사회 변화요인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의 평균이다. 먼저 성남시 재단소속 청소년전문가들의 사회요인별 전체 인식을 살펴보면, 교육변화가 7.63으로 미래사회의 청소년서비스 개선에 교육의 변화가 가장 효과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경제변화는 7.16으로 청소년서비스 개선을 위한 미래사회변화에 가장 중요도가 낮다고 평가하였다.

다음으로는 사회변화요인에 대한 재단소속 청소년전문가의 소속에 따른 차이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구변화의 중요도를 가장 높게 평가한 곳은 7.78로 분당구이며 가장 낮은 곳은 중원구로 6.94이다. 그리고 기술변화에 대한 청소년서비스에서의 중요도를 가장 높게 평가한 전문가는 분당구로 7.68이며, 수정구가 6.86으로 가장 낮았다. 사회변화의 중요도에 대하여서는 분당구(7.76)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수정구가 가장 낮았다(7.00). 그리고 교육변화의 중요도는 중원구가 7.94로 가장 높았으며 본부가 7.4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제변화의 청소년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중요도는 중원구가 7.44로 가장 높았으며 수정구가 7.14로 가장 낮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정책의 변화에 대한 중요도 평가도 중원구가 가장 높았으며(7.44) 수정구가 6.14로 가장 낮았다. 대체로 수정구에 소속된 성남시 재단소속 청소년전문가들이 사회변화요인에 대한 중요도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성남시 재단소속 청소년전문가가 인식하는 사회 변화요인의 적절한 대응 수준

표 VI-8. 성남시 청소년전문가(재단소속)가 인식하는 사회 변화요인의 적절한 대응 수준

(단위: 리커트 9점)

사회변화요인 전문가 소속	사례 수	인구변화	기술변화	사회변화	교육변화	경제변화	청소년 정책변화
전체	105명	5.44	6.09	6.11	6.24	5.33	6.17

사회변화요인 전문가 소속		사례 수	인구변화	기술변화	사회변화	교육변화	경제변화	청소년 정책변화
세부 소속	본부	45명	5.31	5.89	5.91	5.93	5.29	6.04
	수정구	7명	4.71	4.71	5.29	5.86	4.86	5.00
	중원구	16명	5.56	6.50	6.44	6.56	5.25	6.44
	분당구	37명	5.68	6.41	6.38	6.54	5.51	6.43

[표 VI-8]은 성남시 재단소속 청소년전문가가 인식하는 사회 변화요인의 적절한 대응 수준에 대한 인식의 평균이다. 먼저 성남시 재단소속 청소년전문가들의 사회 요인별 전체 인식을 살펴보면, 교육변화가 6.24로 미래사회의 청소년서비스 개선에 교육의 변화가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경제변화는 5.33으로 청소년서비스 개선을 위한 미래사회변화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사회변화요인에 대한 재단소속 청소년전문가의 소속에 따른 차이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구변화의 적절한 대응을 가장 높게 평가한 곳은 5.68로 분당구이며 가장 낮은 곳은 본부로 5.31이다. 그리고 기술변화에 대한 청소년서비스의 변화를 가장 높게 평가한 전문가는 중원구로 6.50이며, 수정구가 4.71로 가장 낮았다. 사회변화의 적절한 대응에 대하여서는 중원구(6.44)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수정구가 가장 낮았다(5.29). 그리고 교육변화의 대응성은 중원구가 6.56으로 가장 높았으며 수정구가 5.8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제변화의 적절한 대응은 분당구가 5.51로 가장 높았으며 수정구가 4.86으로 가장 낮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정책의 변화에 대한 적절성 평가도 중원구가 가장 높았으며 수정구가 5.00으로 가장 낮았다. 대체로 수정구에 소속된 성남시 재단소속 청소년전문가들이 사회변화요인에 대한 적절한 대응 수준을 낮게 평가하여 수정구 지역에 대한 사회 변화 대응 전략의 강화가 요구된다.

(4) 성남시 재단소속 청소년전문가가 인식하는 성남시 제3차 중장기계획 전략과제의 중요도

표 VI-9. 성남시 청소년전문가(재단소속)가 인식하는 성남시 제3차 중장기계획 전략과제의 중요도

(단위: 리커트 9점)

전략과제	전문가 소속	전체	세부소속			
			본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사례 수		105명	45명	7명	16명	37명
청소년 주도 시민 핵심역량 강화		7.20	7.07	6.86	7.13	7.16
대상/현안별 맞춤 서비스 제공		7.43	7.18	7.00	7.63	7.73
적극적인 청소년 권리 보장		7.30	7.07	7.29	7.56	7.49
지역사회 청소년 플랫폼 기능 강화		7.32	7.18	7.14	7.25	7.57
청소년 지원 거버넌스 형성		7.40	7.27	7.14	7.44	7.59
청소년과 함께하는 재단 경영		7.18	7.16	7.00	7.19	7.24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		7.20	7.00	6.86	7.44	7.41

[표 VI-9]는 성남시 재단소속 청소년전문가가 인식하는 성남시 제3차 중장기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서비스 대응 전략 과제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의 평균이다. 먼저 성남시 재단소속 청소년전문가들의 전략과제별 전체 인식을 살펴보면, 대상과 현안별 맞춤 서비스 제공 전략이 7.43으로 미래사회의 청소년서비스 대응 전략으로서 대상과 현안별로 맞춤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략의 실행이 가장 효과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청소년과 함께하는 재단 경영은 7.18로 청소년서비스 대응 전략으로서 가장 중요도가 낮다고 평가하였다.

다음으로는 대응 전략에 대한 재단소속 청소년전문가의 소속에 따른 차이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서비스 대응 전략으로서 청소년 주도 시민 핵심역량 강화의 중요도를 가장 높게 평가한 곳은 7.16으로 분당구이며 가장 낮은 곳은 수정구로 6.86이다. 그리고 대상과 현안별 맞춤 서비스 제공에 대한 중요도를 가장 높게

평가한 전문가 소속은 분당구로 7.73이며, 수정구가 7.00으로 가장 낮았다. 적극적인 청소년 권리 보장의 중요도에 대하여서는 중원구(7.56)가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본부가 가장 낮았다(7.07). 그리고 지역사회 청소년 플랫폼 기능 강화의 중요도는 분당구가 7.57로 가장 높았으며 수정구가 7.1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 지원 거버넌스 형성의 중요도는 분당구가 7.59로 가장 높았으며 수정구가 7.14로 가장 낮았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재단 경영을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한 전문가 소속은 분당구(7.24)였으며 수정구(7.00)는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에 대한 중요도 평가는 중원구가 가장 높았으며(7.44) 수정구가 6.86으로 가장 낮았다. 대체로 수정구에 소속된 성남시 재단소속 청소년전문가들이 청소년서비스 대응 전략으로서 전략과제들에 대한 중요도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 성남시 재단소속 청소년전문가가 인식하는 성남시 제3차 중장기계획 전략과제의 대응 수준

표 VI-10. 성남시 청소년전문가(재단소속)가 인식하는 성남시 제3차 중장기계획 전략과제의 대응 수준

(단위: 리커트 9점)

전략과제	전문가 소속	전체	세부소속			
			본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사례 수		105명	45명	7명	16명	37명
청소년 주도 시민 핵심역량 강화		6.35	6.16	6.43	6.44	6.54
대상/현안별 맞춤 서비스 제공		6.50	6.29	6.29	6.88	6.62
적극적인 청소년 권리 보장		6.49	6.44	6.43	6.63	6.49
지역사회 청소년 플랫폼 기능 강화		6.50	6.29	6.29	6.75	6.68
청소년 지원 거버넌스 형성		6.30	6.13	6.43	6.31	6.49
청소년과 함께하는 재단 경영		6.28	6.24	6.29	6.38	6.27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		6.55	6.56	6.57	6.81	6.43

[표 VI-10]은 성남시 지역전문가가 인식하는 포스트코로나 등 미래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과제의 적절한 대응 수준에 대한 인식의 평균이다. 먼저 성남시 지역전문가들의 전략과제별 전체 인식을 살펴보면,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 전략이 6.55로 미래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서 가장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청소년과 함께하는 재단 경영은 6.28로 청소년서비스 대응 전략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대응 전략에 대한 지역전문가의 소속에 따른 차이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서비스 대응 전략으로서 청소년 주도 시민 핵심역량 강화의 대응 수준을 가장 높게 평가한 곳은 6.54로 분당구이며 가장 낮은 곳은 본부로 6.16이다. 그리고 대안과 현안별 맞춤 서비스 제공의 대응 수준의 적절성을 높게 평가한 전문가는 중원구로 6.88이며, 수정구와 본부가 6.29로 가장 낮았다. 적극적인 청소년 권리 보장 전략의 적절한 대응에 대하여서는 중원구(6.63)가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수정구가 가장 낮았다(6.43). 그리고 지역사회 청소년 플랫폼 기능 강화의 대응성은 중원구가 6.75로 가장 높았으며 본부와 수정구가 6.2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 지원 거버넌스 형성 전략의 적절한 대응은 분당구가 6.49로 가장 높았으며 본부가 6.13으로 가장 낮았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재단 경영에 대한 적절성 평가는 중원구가 가장 높았으며(6.38) 본부가 6.24로 가장 낮았다. 대체로 본부에 소속된 성남시 지역전문가들이 포스트코로나 등 미래 변화에 대한 전략과제들의 적절한 대응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수련관의 중요도

표 VI-11.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수련관의 중요도

(단위: 리커트 9점)

관련 내용	전문가 소속	전체	세부소속			
			본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사례 수		105명	45명	7명	16명	37명
인력 규모		7.14	6.96	7.14	7.88	7.05
인력의 전문성		7.81	7.73	7.43	8.13	7.84
프로그램의 규모		6.75	6.71	7.14	6.75	6.73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		7.70	7.80	7.57	7.94	7.51
예산의 규모		7.46	7.47	6.86	8.00	7.32
예산 편성 시 시설의 특성 반영		7.57	7.69	6.86	7.94	7.41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		7.31	7.29	7.14	7.50	7.30

[표 VI-11]은 성남시 지역전문가가 인식하는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일선 시설인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중요도의 평균이다. 먼저 성남시 지역전문가들의 청소년수련관 관련 내용에 대한 중요도의 전체 인식을 살펴보면, 인력의 전문성이 7.81로 청소년수련관 관련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프로그램의 규모는 6.75로 중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청소년수련관에 관한 내용의 중요도에 대한 지역전문가의 소속에 따른 차이이다. 구체적으로 인력 규모의 중요도는 중원구가 7.88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본부는 6.96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분당구는 7.84로 인력의 전문성에서 가장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수정구로 7.43이다. 그리고 프로그램 규모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한 전문가는 수정구로 7.14이며, 본부가 6.71로 가장 낮았다. 수요자중심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하여서는 중원구(7.94)가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분당구가 가장 낮았다(7.51). 예산 규모의 중요도

는 중원구가 8.00으로 가장 높게, 수정구가 6.86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예산 편성 시 시설의 특성 반영은 중원구(7.94)가 가장 높게, 수정구(6.86)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도 중원구가 7.50으로 그 중요도를 가장 높게, 수정구가 7.14로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수정구의 지역전문가가 청소년수련관의 내용에 대한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문화의 집의 중요도

표 VI-12.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문화의 집의 중요도

(단위: 리커트 9점)

관련 내용	전문가 소속	전체	세부소속			
			본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사례 수		105명	45명	7명	16명	37명
인력 규모		6.98	6.67	7.71	7.69	6.92
인력의 전문성		7.48	7.24	7.43	7.69	7.68
프로그램의 규모		6.63	6.56	6.43	7.31	6.46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		7.67	7.60	7.29	8.19	7.59
예산의 규모		7.03	6.93	6.29	7.75	6.97
예산 편성 시 시설의 특성 반영		7.43	7.47	6.71	8.06	7.24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		7.23	7.18	7.14	7.75	7.08

[표 VI-12]는 성남시 지역전문가가 인식하는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일선 시설인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한 중요도의 평균이다. 먼저 성남시 지역전문가들의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 내용에 대한 중요도의 전체 인식을 살펴보면, 인력의 전문성이 7.48로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프로그램의 규모는 6.63으로 중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청소년문화의 집에 관한 내용의 중요도에 대한 지역전문가의 소속

에 따른 차이이다. 구체적으로 인력 규모의 중요도는 수정구가 7.71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본부는 6.67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중원구는 7.69로 인력의 전문성에서 가장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본부로 7.24이다. 그리고 프로그램 규모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한 전문가는 중원구로 7.31이며, 수정구가 6.43으로 가장 낮았다. 수요자중심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하여서는 중원구(8.19)가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수정구가 가장 낮았다(7.29). 예산 규모의 중요도는 중원구가 7.75로 가장 높게, 수정구가 6.29로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예산편성 시 시설의 특성 반영은 중원구(8.06)가 가장 높게, 수정구(6.71)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도 중원구가 7.75로 그 중요도를 가장 높게, 분당구가 7.08로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수련관과 마찬가지로 수정구의 지역전문가가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 내용에 대한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보호복지시설의 중요도

표 VI-13.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보호복지시설의 중요도

(단위: 리커트 9점)

관련 내용	전문가 소속	전체	세부소속			
			본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사례 수		105명	45명	7명	16명	37명
인력 규모		7.28	7.07	7.43	7.81	7.27
인력의 전문성		7.74	7.58	7.57	7.88	7.92
프로그램의 규모		6.71	6.53	7.29	7.13	6.65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		7.65	7.64	7.29	7.94	7.59
예산의 규모		7.31	7.04	7.43	7.75	7.43
예산 편성 시 시설의 특성 반영		7.43	7.24	7.43	7.94	7.43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		7.50	7.40	7.71	7.63	7.54

[표 VI-13]은 성남시 지역전문가가 인식하는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일선 시설인 청소년보호복지시설에 대한 중요도의 평균이다. 먼저 성남시 지역전문가들의 청소년보호복지시설 관련 내용에 대한 중요도의 전체 인식을 살펴보면, 인력의 전문성이 7.48로 청소년보호복지시설 관련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프로그램의 규모는 6.63으로 중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청소년보호복지시설에 관한 내용의 중요도에 대한 지역전문가의 소속에 따른 차이이다. 구체적으로 인력 규모의 중요도는 중원구가 7.81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본부는 7.07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분당구는 7.92로 인력의 전문성에서 가장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수정구로 7.57이다. 그리고 프로그램 규모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한 전문가는 수정구로 7.29이며, 본부가 6.53으로 가장 낮았다. 수요자중심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하여서는 중원구(7.94)가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수정구가 가장 낮았다(7.29). 예산 규모의 중요도는 중원구가 7.75로 가장 높게, 본부가 7.04로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예산 편성 시 시설의 특성 반영은 중원구(7.94)가 가장 높게, 본부(7.24)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도 수정구가 7.71로 그 중요도를 가장 높게, 본부가 7.40로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본부의 지역전문가가 청소년보호복지시설 관련 내용에 대한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수련관의 성과

표 VI-14.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수련관의 성과

(단위: 리커트 9점)

관련 내용	전문가 소속	전체	세부소속			
			본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사례 수		105명	45명	7명	16명	37명
인력 규모		6.20	5.96	6.86	6.06	6.43
인력의 전문성		6.66	6.76	7.14	6.13	6.68
프로그램의 규모		6.90	7.07	7.00	6.63	6.78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		6.76	6.89	7.29	6.13	6.78
예산의 규모		6.90	6.84	7.43	6.69	6.95
예산 편성 시 시설의 특성 반영		6.66	6.84	7.29	6.31	6.46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		6.20	5.98	6.71	6.38	6.30

[표 VI-14]는 성남시 지역전문가가 인식하는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일선 시설인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내용의 성과 정도의 평균이다. 먼저 성남시 지역전문가들의 청소년수련관의 내용별 성과 정도의 전체 인식을 살펴보면, 프로그램과 예산의 규모가 6.90으로 청소년수련관 관련 내용 중 가장 성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인력 규모와 법령, 규정의 제도적 지원은 6.20으로 성과 정도를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청소년수련관에 관한 성과 정도에 대한 지역전문가의 소속에 따른 차이이다. 구체적으로 인력 규모의 성과 정도는 수정구가 6.86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본부는 5.96으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수정구는 7.14로 인력의 전문성에서 가장 성과 정도를 크게 인식하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중원구로 6.13이다. 그리고 프로그램 규모의 성과 정도를 높게 평가한 전문가는 본부로 7.07이며, 중원구가 6.13으로 가장 낮았다. 수요자중심 프로그램의 성과 정도에 대하여서는

수정구(7.29)가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중원구가 가장 낮았다(6.13). 예산 규모의 성과 정도는 수정구가 7.43으로 가장 높게, 중원구가 6.69로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예산편성 시 시설의 특성 반영은 수정구(7.29)가 가장 높게, 중원구(6.31)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성과 정도를 평가하였다.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도 수정구가 6.71로 그 성과 정도를 가장 높게, 분당구가 6.30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중원구의 지역전문가가 청소년수련관 관련 내용에 대한 성과 정도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문화의 집의 성과

표 VI-15.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문화의 집의 성과

(단위: 리커트 9점)

관련 내용	전문가 소속	전체	세부소속			
			본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사례 수		105명	45명	7명	16명	37명
인력 규모		6.04	5.76	6.43	6.06	6.30
인력의 전문성		6.48	6.51	6.71	6.13	6.54
프로그램의 규모		6.63	6.73	7.00	6.38	6.54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		6.82	6.78	7.14	6.94	6.76
예산의 규모		6.74	6.76	7.43	6.88	6.54
예산 편성 시 시설의 특성 반영		6.59	6.58	7.29	6.31	6.59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		6.30	6.13	6.71	6.38	6.38

[표 VI-15]는 성남시 지역전문가가 인식하는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일선 시설인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한 내용의 성과 정도의 평균이다. 먼저 성남시 지역전문가들의 청소년문화의 집의 내용별 성과 정도의 전체 인식을 살펴보면,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이 6.82로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 내용 중 가장 성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인력 규모는 6.04로 중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청소년문화의 집에 관한 성과 정도에 대한 지역전문가의 소속에 따른 차이이다. 구체적으로 인력 규모의 성과 정도는 수정구가 6.43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본부는 5.76으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수정구는 6.71로 인력의 전문성에서 가장 성과 정도를 크게 인식하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중원구로 6.13이다. 그리고 프로그램 규모의 성과 정도를 높게 평가한 전문가는 수정구로 7.00이며, 중원구가 6.38로 가장 낮았다. 수요자중심 프로그램의 성과 정도에 대하여서는 수정구(7.29)가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중원구가 가장 낮았다(6.13). 예산 규모의 성과 정도는 수정구가 7.14로 가장 높게, 분당구가 6.76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예산편성 시 시설의 특성 반영은 수정구(7.29)가 가장 높게, 중원구(6.31)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성과 정도를 평가하였다.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도 수정구가 6.71로 그 성과 정도를 가장 높게, 본부가 6.13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중원구의 지역전문가가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 내용에 대한 성과 정도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보호복지시설의 성과

표 VI-16.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보호복지시설의 성과

(단위: 리커트 9점)

관련 내용	전문가 소속	전체	세부소속			
			본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사례 수		105명	45명	7명	16명	37명
인력 규모		6.08	5.76	6.57	6.31	6.27
인력의 전문성		6.53	6.49	7.00	6.63	6.46
프로그램의 규모		6.56	6.67	7.00	6.50	6.38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		6.78	6.76	7.29	6.81	6.70
예산의 규모		6.57	6.64	6.86	6.69	6.38

관련 내용 \ 전문가 소속	전체	세부소속			
		본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예산 편성 시 시설의 특성 반영	6.51	6.51	6.86	6.44	6.49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	6.38	6.24	6.86	6.50	6.41

[표 VI-16]은 성남시 지역전문가가 인식하는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일선 시설인 청소년보호복지시설에 대한 내용의 성과 정도의 평균이다. 먼저 성남시 지역전문가들의 청소년보호복지시설의 내용별 성과 정도의 전체 인식을 살펴보면,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이 6.78로 청소년보호복지시설 관련 내용 중 가장 성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인력 규모는 6.08로 중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청소년보호복지시설에 관한 성과 정도에 대한 지역전문가의 소속에 따른 차이이다. 구체적으로 인력 규모의 성과 정도는 수정구가 6.57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본부는 5.76으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수정구는 7.00로 인력의 전문성에서 가장 성과 정도를 크게 인식하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분당구로 6.46이다. 그리고 프로그램 규모의 성과 정도를 높게 평가한 전문가는 수정구로 7.00이며, 분당구가 6.38으로 가장 낮았다. 수요자중심 프로그램의 성과 정도에 대하여서는 수정구(7.29)가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분당구가 가장 낮았다(6.70). 예산 규모의 성과 정도는 수정구가 6.86로 가장 높게, 분당구가 6.38로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예산편성 시 시설의 특성 반영은 수정구(6.86)가 가장 높게, 중원구(6.44)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성과 정도를 평가하였다.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도 수정구가 6.86로 그 성과 정도를 가장 높게, 본부가 6.24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본부의 지역전문가가 청소년보호복지시설 관련 내용에 대한 성과 정도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중요도

표 VI-17. 청소년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중요도

(단위: 리커트 9점)

관련 내용	전문가 소속	전체	세부소속			
			본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사례 수		105명	45명	7명	16명	37명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규모		7.12	6.96	6.86	7.75	7.11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의 다양성		7.29	7.29	6.86	7.75	7.16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의 적극성		7.11	6.84	7.14	7.63	7.22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 결과의 정책수용성		7.19	7.11	6.86	7.44	7.24
새로운 지역사회 네트워크 발굴 노력도		7.26	7.27	6.86	7.63	7.16
지역 연계 협업 사업 종류의 다양성		7.24	7.29	6.57	7.63	7.14
지역 연계 협업 사업 종류의 활성화 정도		7.35	7.33	6.86	7.69	7.32
지역 연계 협업 사업의 발굴 노력도		7.17	7.20	6.86	7.44	7.08

[표 VI-17]은 성남시 지역전문가가 인식하는 청소년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중요도의 평균이다. 먼저 성남시 지역전문가들의 청소년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내용별 중요도의 전체 인식을 살펴보면, 지역 연계 협업사업 종류의 활성화 정도는 7.35로 지역사회 거버넌스 관련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의 적극성은 7.11로 중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청소년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중요도에 대한 지역전문가의 소속에 따른 차이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규모는 중원구가 7.75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수정구는 6.86으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중원구는 7.75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의 다양성에서 가장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수정구로 6.86이다. 그리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의 적극성을 높게 평가한 전문가는 중원구로 7.63이며, 본부가 6.84로 가장 낮았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 결과의 정책수용성에 대하여서는 중원구(7.44)가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수정구가 가장 낮았다(6.86). 새로운 지역사회 네트워크 발굴 노력도는 중원구가 7.63으로 가장 높게, 수정구가 6.86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지역 연계 협업 사업 종류의 다양성은 중원구(7.63)가 가장 높게, 수정구(6.57)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지역 연계 협업 사업 종류의 활성화 정도도 중원구가 7.69로 그 중요도를 가장 높게, 수정구가 6.86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연계 협업 사업의 발굴 노력도도 중원구가 7.44로 그 중요도를 가장 높게, 수정구가 6.86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수정구의 지역전문가가 청소년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성과

표 VI-18. 청소년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성과 정도

(단위: 리커트 9점)

관련 내용	전문가 소속	전체	세부소속			
			본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사례 수		105명	45명	7명	16명	37명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규모		6.60	6.36	6.86	7.19	6.59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의 다양성		6.50	6.36	6.71	7.00	6.43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의 적극성		6.54	6.58	6.57	7.00	6.30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 결과의 정책수용성		6.32	6.36	6.57	6.50	6.16
새로운 지역사회 네트워크 발굴 노력도		6.39	6.24	6.43	6.81	6.38
지역 연계 협업 사업 종류의 다양성		6.47	6.40	7.00	6.69	6.35
지역 연계 협업 사업 종류의 활성화 정도		6.49	6.47	6.57	6.81	6.35
지역 연계 협업 사업의 발굴 노력도		6.50	6.44	6.86	6.88	6.32

[표 VI-18]은 성남시 지역전문가가 인식하는 청소년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성과 정도의 평균이다. 먼저 성남시 지역전문가들의 청소년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내용별 성과 정도의 전체 인식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규모는 6.60으로 지역사회 거버넌스 관련 내용 중 가장 성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 결과의 정책수용성은 6.32로 성과 정도를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청소년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성과 정도에 대한 지역전문가의 소속에 따른 차이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규모는 중원구가 7.19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본부는 6.36으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중원구는 7.00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의 다양성에서 가장 성과 정도를 크게 인식하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본부로 6.36이다. 그리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의 적극성을 높게 평가한 전문가는 중원구로 7.00이며, 분당구가 6.30으로 가장 낮았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 결과의 정책수용성에 대하여서는 수정구(6.57)가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분당구가 가장 낮았다(6.16). 새로운 지역사회 네트워크 발굴 노력도는 중원구가 6.81로 가장 높게, 본부가 6.24로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지역연계 협업 사업 종류의 다양성은 수정구(7.00)가 가장 높게, 분당구(6.35)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성과 정도를 평가하였다. 지역연계 협업 사업 종류의 활성화 정도도 중원구가 6.81로 그 성과 정도를 가장 높게, 분당구가 6.35로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연계 협업 사업의 발굴 노력도도 중원구가 6.88로 그 성과 정도를 가장 높게, 분당구가 6.32로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중원구의 지역전문가가 청소년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성과 정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성남시 지역 청소년전문가(재단 외) 의견분석

본 조사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성남형 청소년서비스의 향후 변화방향 및 전략을 찾고자 성남시 지역의 재단 외 청소년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초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전문가는 20명이다.

1) 인적 특성

(1) 성별

표 VI-19. 조사 대상의 성별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빈도	6명 (30.0%)	14명 (70.0%)	20명 (100%)

본 조사 대상인 성남시 재단 외 청소년전문가의 표본 크기는 총 20명이며, 남자 전문가는 6명(30.0%), 여자 전문가는 14명(70.0%)으로 여자 전문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2) 연령

표 VI-20. 조사 대상의 연령

(단위: 명, %)

구분	빈도
20대	1명 (5.0%)
30대	5명 (25.0%)
40대	9명 (45.0%)
50대	5명 (25.0%)
전체	20명 (100%)

본 조사 대상인 성남시 재단 외 청소년전문가 20명의 연령을 살펴보면, 20대가 1명(5.0%), 30대가 5명(25.0%), 40대가 9명(45.0%), 50대가 5명(25.0%)으로 4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3) 학력

표 VI-21. 조사 대상의 학력

(단위: 명, %)

구분	빈도
전문대학 졸업	3명 (15.0%)
대학교 졸업	13명 (65.0%)
석사 졸업(수료 포함)	3명 (15.0%)
박사 졸업(수료 포함)	1명 (5.0%)
전체	20명 (100%)

본 조사 대상인 성남시 재단 외 청소년전문가 20명의 학력을 살펴보면, 전문대학 졸업이 3명(15.0%), 대학교 졸업이 13명(65.0%), 석사 졸업(수료 포함)이 3명(15.0%), 박사 졸업(수료 포함)이 1명(5.0%)으로 대학교 졸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4) 기관 유형 및 소재지

표 VI-22. 조사 대상의 재직 기관 유형 및 소재지

(단위: 명, %)

구분		빈도
기관 유형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	11명 (55.0%)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	3명 (15.0%)
	기타	6명 (30.0%)
	전체	20명 (100%)
소재지	수정구	8명 (40.0%)
	중원구	8명 (40.0%)
	분당구	4명 (20.0%)
	전체	20명 (100%)

본 조사 대상인 성남시 재단 외 청소년전문가 20명의 재직 기관 유형 및 소재지를 살펴보면, 먼저 기관 유형은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이 11명(55.0%),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이 3명(15.0%)이며 기타가 6명(30.0%)이다. 소재지는 수정구 8명(40.0%), 중원구 8명(40.0%), 분당구 4명(20.0%)이었다.

(5) 소속 기관

표 VI-23. 조사 대상의 소속 기관

(단위: 명, %)

구분	빈도
재단소속 이외 수정구 청소년시설	1명 (5.0%)
재단소속 이외 중원구 청소년시설	1명 (5.0%)
재단소속 이외 분당구 청소년시설	2명 (10.0%)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6명 (30.0%)
기타	10명 (50.0%)
전체	20명 (100%)

본 조사 대상인 성남시 재단 외 청소년전문가 20명의 소속 기관을 살펴보면, 재단소속 수정구 청소년시설이 1명(5.0%), 재단소속 중원구 청소년시설이 1명(5.0%), 재단소속 분당구 청소년시설이 2명(10.0%), 지역사회 청소년시설이 6명(30.0%), 기타가 10명(50.0%)으로 기타 소속 기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6) 업무 경력

표 VI-24. 조사 대상의 업무 경력

(단위: 명, %)

구분	빈도
5년 미만	3명 (15.0%)
5년 이상 ~ 10년 미만	8명 (40.0%)
10년 이상 ~ 15년 미만	7명 (35.0%)
20년 이상	2명 (10.0%)
전체	105명 (100%)

본 조사 대상인 성남시 재단 외 청소년전문가 20명의 업무 경력을 살펴보면, 5년 미만이 3명(15.0%),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이 8명(40.0%), 10년 이상에서 15년 미만이 7명(35.0%), 20년 이상이 2명(10.0%)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2) 청소년서비스 관련 기술통계

(1) 성남시 청소년전문가(재단 외)가 인식하는 성남시 청소년의 삶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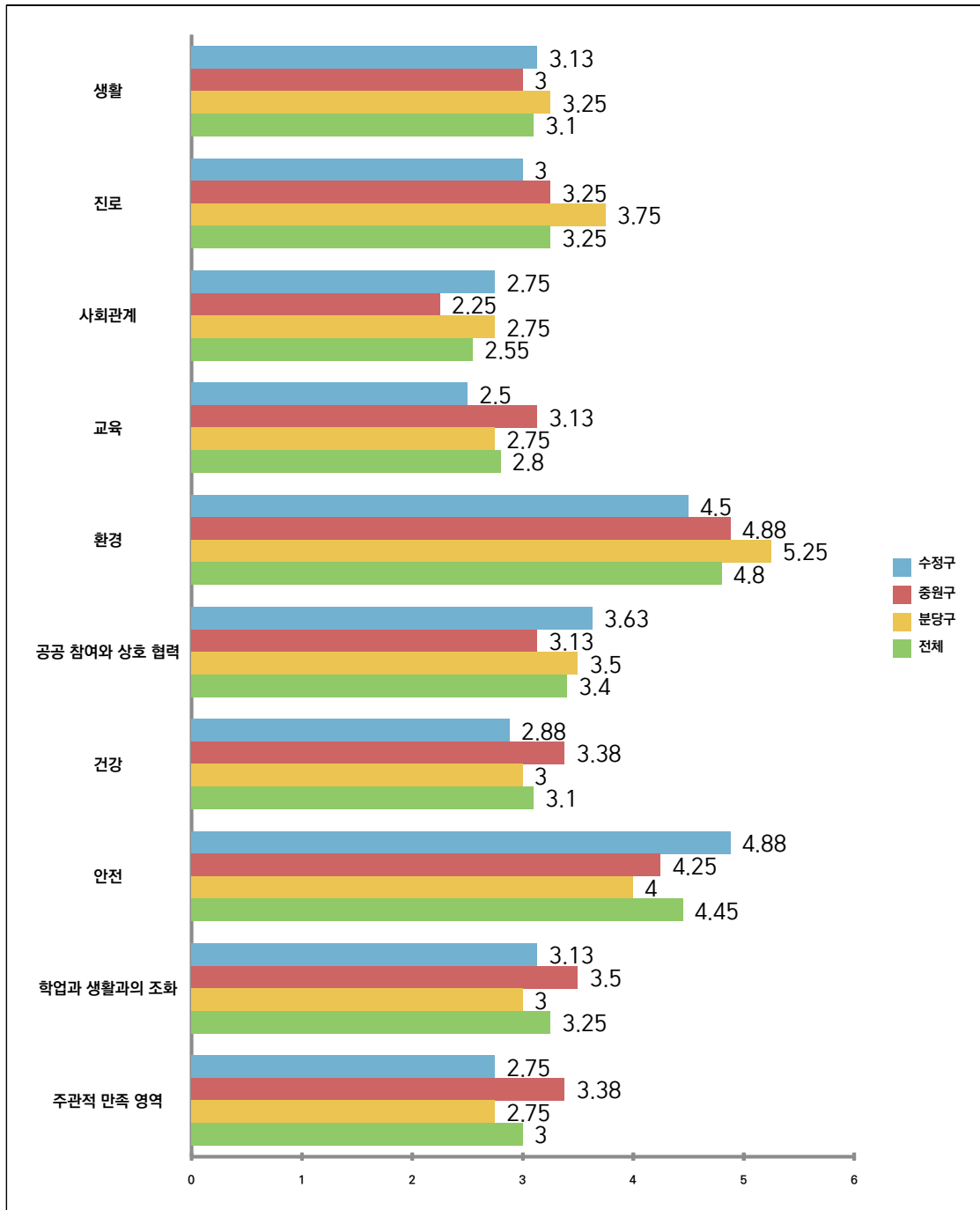


그림 VI-4. 성남시 청소년전문가(재단 외)가 인식하는 성남시 청소년의 삶과 질

성남시 지역 재단 외 청소년전문가들이 코로나19 이전의 상황과 비교해서 생각하는 성남시 청소년들의 현재 삶의 질을 조사하였다. 분당구가 환경(5.25점)의 1개 항목에서 현재 삶의 질이 더욱 양호해진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현재 삶의 질이 양호해지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성남시 청소년전문가(재단 외)가 인식하는 사회 변화요인의 중요도

표 VI-25. 성남시 청소년전문가(재단 외)가 인식하는 사회 변화요인의 중요도

(단위: 리커트 9점)

사회변화요인 전문가 소속		사례 수	인구변화	기술변화	사회변화	교육변화	경제변화	청소년 정책변화
전체		20명	7.30	7.55	7.80	7.85	7.45	7.50
세부 소속	수정구	8명	7.88	7.75	8.00	8.50	7.63	8.13
	중원구	8명	7.38	7.75	8.13	7.75	7.75	7.50
	분당구	4명	6.00	6.75	6.75	6.75	6.50	6.25

[표 VI-25]는 성남시 청소년전문가(재단 외)가 인식하는 사회 변화요인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의 평균이다. 먼저 사회요인별 전체 인식을 살펴보면, 교육변화가 7.85로 미래사회의 청소년서비스 개선에 교육의 변화가 가장 효과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인구변화는 7.30으로 청소년서비스 개선을 위한 미래사회변화에 가장 중요도가 낮다고 평가하였다.

다음으로는 사회변화요인에 대한 재단 외 청소년전문가의 소재지에 따른 차이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구변화의 중요도를 가장 높게 평가한 곳은 7.88로 수정구이며 가장 낮은 곳은 분당구로 6.00이다. 그리고 기술변화에 대한 청소년서비스에서의 중요도를 가장 높게 평가한 전문가는 수정구와 분당구로 7.75이며, 분당구가 6.75로 비교적 낮았다. 사회변화의 중요도에 대하여서는 중원구(8.13)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분당구가 가장 낮았다(6.75). 그리고

교육 변화의 중요도는 수정구가 8.50으로 가장 높았으며 분당구가 6.7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제변화의 청소년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중요도는 중원구가 7.75로 가장 높았으며 분당구가 6.50으로 가장 낮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정책의 변화에 대한 중요도 평가도 수정구가 가장 높았으며(8.13) 분당구가 6.25로 가장 낮았다. 대체로 분당구의 재단 외 지역 청소년전문가들이 사회변화요인에 대한 중요도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성남시 청소년전문가(재단 외)가 인식하는 사회 변화요인의 적절한 대응 수준

표 VI-26. 성남시 청소년전문가(재단 외)가 인식하는 사회 변화요인의 적절한 대응 수준

(단위: 리커트 9점)

사회변화요인 전문가 소속		사례 수	인구변화	기술변화	사회변화	교육변화	경제변화	청소년 정책변화
전체		20명	4.80	4.90	4.85	4.45	4.30	4.50
세부 소속	수정구	8명	5.50	5.63	5.38	4.75	4.88	5.13
	중원구	8명	4.13	4.38	4.25	4.00	3.63	3.88
	분당구	4명	4.75	4.50	5.00	4.75	4.50	4.50

[표 VI-26]은 성남시 재단 외 지역 청소년전문가가 인식하는 사회 변화요인의 적절한 대응 수준에 대한 인식의 평균이다. 먼저 사회요인별 전체 인식을 살펴보면, 기술변화가 4.90으로 미래사회의 청소년서비스 개선에 기술의 변화가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경제변화는 4.30으로 청소년서비스 개선을 위한 미래사회변화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사회변화요인에 대한 재단 외 지역 청소년전문가의 소재지에 따른 차이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구변화의 적절한 대응을 가장 높게 평가한 곳은 5.50으로 수정구이며 가장 낮은 곳은 중원로 4.13이다. 그리고

기술변화에 대한 청소년서비스의 변화를 가장 높게 평가한 전문가는 수정구로 5.63이며, 중원구가 4.38로 가장 낮았다. 사회변화의 적절한 대응에 대하여서는 수정구(5.38)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중원구가 가장 낮았다(4.25). 그리고 교육 변화의 대응성은 수정구, 분당구가 4.75로 가장 높았으며 중원구가 4.0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제변화의 적절한 대응은 수정구가 4.88로 가장 높았으며 중원구가 3.63으로 가장 낮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정책의 변화에 대한 적절성 평가도 수정구가 가장 높았으며(5.13) 중원구가 3.88로 가장 낮았다. 대체로 중원구 재단 외 지역 청소년전문가들이 사회변화요인에 대한 적절한 대응 수준을 낮게 평가하여 중원구에 대한 사회변화 대응 전략의 강화가 요구된다.

(4) 성남시 청소년전문가(재단 외)가 인식하는 성남시 제3차 중장기계획 전략과제의 중요도

표 VI-27. 성남시 청소년전문가(재단 외)가 인식하는 성남시 제3차 중장기계획 전략과제의 중요도

(단위: 리커트 9점)

전략과제	전문가 소속	전체	세부소속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사례 수		20명	8명	8명	4명
청소년 주도 시민 핵심역량 강화		7.40	7.13	8.13	6.50
대상/현안별 맞춤 서비스 제공		7.70	7.88	8.13	6.50
적극적인 청소년 권리 보장		7.60	7.38	8.25	6.75
지역사회 청소년 플랫폼 기능 강화		7.70	7.63	8.38	6.50
청소년 지원 거버넌스 형성		7.70	7.75	8.38	6.25
청소년과 함께하는 재단 경영		7.25	7.25	7.63	6.50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		7.50	7.50	8.00	6.50

[표 VI-27]은 성남시 지역 재단 외 청소년전문가가 인식하는 성남시 제3차 중장기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서비스 대응 전략과제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의

평균이다. 먼저 전략과제별 전체 인식을 살펴보면, 대상과 현안별 맞춤 서비스 제공 전략이 7.70으로 미래사회의 청소년서비스 대응 전략으로서 대상과 현안별로 맞춤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략의 실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청소년과 함께하는 재단 경영은 7.25로 청소년서비스 대응 전략으로서 가장 중요도가 낮다고 평가하였다.

다음으로는 대응 전략에 대한 재단 외 청소년전문가의 소재지에 따른 차이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주도 시민 핵심역량 강화의 중요도를 가장 높게 평가한 곳은 8.13으로 중원구이며 가장 낮은 곳은 분당구로 6.50이다. 그리고 대상과 현안별 맞춤 서비스 제공에 대한 중요도를 가장 높게 평가한 전문가도 중원구로 8.13이며, 분당구가 6.50으로 가장 낮았다. 적극적인 청소년 권리 보장의 중요도에 대하여도 중원구(8.25)가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분당구가 가장 낮았다(6.75). 그리고 지역사회 청소년 플랫폼 기능 강화의 중요도도 중원구가 8.38로 가장 높았으며 분당구가 6.5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 지원 거버넌스 형성의 중요도도 중원구 8.38로 가장 높았으며 분당구가 6.25로 가장 낮았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재단 경영을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한 전문가 소재지는 중원구(8.00)였으며 분당구(6.50)는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에 대한 중요도 평가도 중원구가 가장 높았으며(8.00) 분당구가 6.50으로 가장 낮았다. 대체로 중원구에 소속된 성남시 재단소속 청소년전문가들이 청소년 서비스 대응 전략으로서 전략과제들에 대한 중요도 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 성남시 청소년전문가(재단 외)가 인식하는 성남시 제3차 중장기계획 전략과제의 대응 수준

표 VI-28. 성남시 청소년전문가(재단 외)가 인식하는 성남시 제3차 중장기계획 전략과제의 대응 수준

(단위: 리커트 9점)

전략과제	전문가 소속	전체	세부소속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사례 수		20명	8명	8명	4명
청소년 주도 시민 핵심역량 강화		5.30	5.75	5.00	5.00
대상/현안별 맞춤 서비스 제공		5.50	6.00	5.13	5.25
적극적인 청소년 권리 보장		5.65	5.88	5.50	5.50
지역사회 청소년 플랫폼 기능 강화		5.35	5.63	5.13	5.25
청소년 지원 거버넌스 형성		5.25	5.63	5.00	5.00
청소년과 함께하는 재단 경영		5.50	6.25	4.88	5.25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		5.50	6.25	5.13	4.75

[표 VI-28]은 성남시 지역 재단 외 청소년전문가가 인식하는 포스트코로나 등 미래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과제의 적절한 대응 수준에 대한 인식의 평균이다. 먼저 전략과제별 전체 인식을 살펴보면, 적극적인 청소년 권리 보장이 5.65로 미래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서 가장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청소년 지원 거버넌스 형성은 5.25로 청소년서비스 대응 전략으로서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대응 전략에 대한 전문가의 소재지에 따른 차이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서비스 대응 전략으로서 청소년 주도 시민 핵심역량 강화의 대응 수준을 가장 높게 평가한 곳은 5.75로 수정구이며 중원구, 분당구는 5.00으로 낮았다. 대안과 현안별 맞춤 서비스 제공의 대응 수준의 적절성을 높게 평가한 전문가는 수정구로 6.00이며, 중원구가 5.13으로 가장 낮았다. 적극적인 청소년 권리 보장의 대응 수준에 대하여서는 수정구(5.88)가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중원구와

분당구는 비교적 낮았다(5.00). 지역사회 청소년 플랫폼 기능 강화의 대응성도 수정구가 5.63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원구와 분당구가 5.00로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 지원 거버넌스 형성 전략의 대응 수준은 분당구가 6.49로 가장 높았으며 본부가 6.13으로 가장 낮았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재단 경영에 대한 대응성 평가도 수정구가 가장 높았으며(6.25) 중원구가 4.88로 가장 낮았다. 대체로 수정구 소재 재단 외 청소년전문가들이 포스트코로나 등 미래 변화에 대한 전략과제들의 적절한 대응 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수련관의 중요도

표 VI-29.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수련관의 중요도

(단위: 리커트 9점)

관련 내용	전문가 소속	전체	세부소속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사례 수		20명	8명	8명	4명
인력 규모		6.95	7.25	7.13	6.00
인력의 전문성		7.65	8.25	7.38	7.00
프로그램의 규모		6.90	6.75	7.00	7.00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		7.80	7.88	7.63	8.00
예산의 규모		7.30	7.25	7.00	8.00
예산 편성 시 시설의 특성 반영		7.75	8.00	7.63	7.50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		7.60	7.63	7.63	7.50

[표 VI-29]는 성남시 지역 재단 외 청소년전문가가 인식하는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일선 시설인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중요도의 평균이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관련 내용에 대한 중요도의 전체 인식을 살펴보면,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이 7.80으로 청소년수련관 관련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프로그램의 규모는 6.90으로 중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청소년수련관에 관한 내용의 중요도에 대한 지역 재단 외 청소년전문가의 소재지에 따른 차이이다. 구체적으로 인력 규모의 중요도는 수정구가 7.25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분당구는 6.00으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수정구는 8.25로 인력의 전문성에서 가장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분당구로 7.00이다. 그리고 프로그램 규모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한 전문가는 중원구와 분당구로 7.00이며, 수정구가 6.75로 가장 낮았다. 수요자중심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하여서는 분당구(8.00)가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중원구가 가장 낮았다(7.63). 예산 규모의 중요도는 분당구가 8.00으로 가장 높게, 중원구가 7.00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예산편성 시 시설의 특성 반영은 수정구(8.00)가 가장 높게, 분당구(7.50)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도 수정, 중원구가 7.63으로 그 중요도를 가장 높게, 분당구가 7.50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대체로 중원구의 전문가가 청소년수련관의 내용에 대한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문화의 집의 중요도

표 VI-30.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문화의 집의 중요도

(단위: 리커트 9점)

관련 내용 \ 전문가 소속	전체	세부소속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사례 수	20명	8명	8명	4명
인력 규모	6.75	6.38	6.88	7.25
인력의 전문성	7.60	7.75	7.38	7.75
프로그램의 규모	7.00	6.63	7.00	7.75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	7.50	7.50	7.38	7.75
예산의 규모	7.10	6.88	6.88	8.00
예산 편성 시 시설의 특성 반영	7.50	7.50	7.25	8.00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	7.45	7.50	7.00	8.25

[표 VI-30]은 성남시 지역 재단 외 청소년전문가가 인식하는 청소년서비스 추진 체계 중 일선 시설인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한 중요도의 평균이다. 먼저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 내용에 대한 중요도의 전체 인식을 살펴보면, 인력의 전문성이 7.60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인력 규모는 6.75로 중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청소년문화의 집에 관한 내용의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의 소재지에 따른 차이이다. 구체적으로 인력 규모의 중요도는 분당구가 7.25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수정구는 6.38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수정, 분당구는 7.75로 인력의 전문성에서 가장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중원로 7.38이다. 그리고 프로그램 규모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한 전문가는 분당구로 7.75이며, 수정구가 6.63으로 가장 낮았다. 수요자중심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하여서는 분당구(7.75)가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수정구가 가장 낮았다(6.63). 예산 규모의 중요도는 분당구가 8.00으로 가장 높게, 수정구, 중원구가 6.88로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예산편성 시 시설의 특성 반영은 분당구(8.00)가 가장 높게, 중원구(7.25)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도 분당구가 8.25로 그 중요도를 가장 높게, 중원구가 7.00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분당구의 전문가가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 내용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보호복지시설의 중요도

표 VI-31.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보호복지시설의 중요도

(단위: 리커트 9점)

관련 내용	전문가 소속	전체	세부소속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사례 수		20명	8명	8명	4명
인력 규모		7.45	8.00	6.88	7.50
인력의 전문성		7.95	8.50	7.50	7.75
프로그램의 규모		7.30	7.38	6.88	8.00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		7.75	7.88	7.50	8.00
예산의 규모		7.55	8.25	6.63	8.00
예산 편성 시 시설의 특성 반영		7.70	8.00	7.25	8.00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		7.75	8.38	7.00	8.00

[표 VI-31]은 성남시 지역 재단 외 청소년전문가가 인식하는 청소년서비스 추진 체계 중 일선 시설인 청소년보호복지시설에 대한 중요도의 평균이다. 먼저 청소년 보호복지시설 관련 내용에 대한 중요도의 전체 인식을 살펴보면, 인력의 전문성이 7.95로 청소년보호복지시설 관련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반면에 프로그램의 규모는 7.30으로 중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청소년보호복지시설에 관한 내용의 중요도에 대한 재단 외 전문가의 소재지에 따른 차이이다. 구체적으로 인력 규모의 중요도는 수정구가 8.00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중원구는 6.88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수정구는 8.50으로 인력의 전문성에서 가장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중원구로 7.50이다. 프로그램 규모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한 전문가는 분당구로 8.00이며, 중원구가 6.88로 가장 낮았다. 수요자중심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하여서도 분당구(8.00)가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중원구가 가장 낮았다(7.50). 예산 규모

의 중요도는 수정구가 8.25로 가장 높게, 중원구가 6.63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예산편성 시 시설의 특성 반영은 수정, 분당구(8.00)가 가장 높게, 중원구(7.25)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도 수정구가 8.38로 그 중요도를 가장 높게, 중원구가 7.00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중원구의 전문가가 청소년보호복지시설 관련 내용에 대한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수련관의 성과

표 VI-32.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수련관의 성과

(단위: 리커트 9점)

관련 내용	전문가 소속	전체	세부소속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사례 수		20명	8명	8명	4명
인력 규모		6.15	6.63	6.00	5.50
인력의 전문성		6.55	7.00	5.88	7.00
프로그램의 규모		6.20	6.88	5.38	6.50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		6.40	6.75	6.00	6.50
예산의 규모		6.20	6.75	5.50	6.50
예산 편성 시 시설의 특성 반영		6.00	6.75	5.38	5.75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		6.45	7.13	5.88	6.25

[표 VI-32]는 성남시 지역 재단 외 청소년전문가가 인식하는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일선 시설인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내용의 성과 정도의 평균이다. 먼저 청소년수련관의 내용별 성과 정도의 전체 인식을 살펴보면, 인력의 전문성이 6.55로 청소년수련관 관련 내용 중 가장 성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반면 예산편성 시 시설의 특성 반영은 6.00으로 성과 정도를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청소년수련관에 관한 성과 정도에 대한 지역전문가의 소속에 따른 차이이다. 구체적으로 인력 규모의 성과 정도는 수정구가 6.63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분당구는 5.50으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수정, 분당구는 7.00으로 인력의 전문성에서 가장 성과 정도를 크게 인식하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중원구로 5.88이다. 그리고 프로그램 규모의 성과 정도를 높게 평가한 전문가는 수정구로 6.88이며, 중원구가 5.38로 가장 낮았다. 수요자중심 프로그램의 성과 정도에 대하여서는 수정구(6.75)가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중원구가 가장 낮았다(6.00). 예산 규모의 성과 정도는 수정구가 6.75로 가장 높게, 중원구가 5.50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예산편성 시 시설의 특성 반영은 수정구(6.75)가 가장 높게, 중원구(5.38)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성과 정도를 평가하였다.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도 수정구가 7.13으로 그 성과 정도를 가장 높게, 중원구가 5.88로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중원구의 전문가가 청소년수련관 관련 내용에 대한 성과 정도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문화의 집의 성과

표 VI-33.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문화의 집의 성과

(단위: 리커트 9점)

관련 내용 \ 전문가 소속	전체	세부소속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사례 수	20명	8명	8명	4명
인력 규모	5.85	5.88	5.75	6.00
인력의 전문성	5.95	6.00	5.63	6.50
프로그램의 규모	5.75	5.88	5.38	6.25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	5.75	5.38	5.88	6.25
예산의 규모	5.50	5.50	5.50	5.50
예산 편성 시 시설의 특성 반영	5.60	5.50	5.50	6.00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	5.70	5.50	5.50	6.50

[표 VI-33]은 성남시 지역 재단 외 청소년전문가가 인식하는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일선 시설인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한 내용의 성과 정도의 평균이다. 먼저 청소년문화의 집의 내용별 성과 정도의 전체 인식을 살펴보면, 인력의 전문성이 5.95로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 내용 중 가장 성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예산의 규모는 5.50으로 중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청소년문화의 집에 관한 성과 정도에 대한 전문가의 소재지에 따른 차이이다. 구체적으로 인력 규모의 성과 정도는 분당구가 6.00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중원구는 5.75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분당구는 6.50으로 인력의 전문성에서 가장 성과 정도를 크게 인식하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중원구로 5.63이다. 프로그램 규모의 성과 정도를 높게 평가한 전문가는 분당구로 6.25이며, 중원구가 5.38로 가장 낮았다. 수요자중심 프로그램의 성과 정도에 대하여서는 분당구(6.25)가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수정구가 가장 낮았다(5.38). 예산 규모의 성과 정도는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모두 5.50으로 평가하였다. 예산편성 시 시설의 특성 반영은 분당구(6.00)가 가장 높게, 수정구, 중원구(5.50)가 낮은 수준으로 성과 정도를 평가하였다.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도 분당구가 6.50으로 그 성과 정도를 가장 높게, 수정구, 중원구가 5.50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분당구의 전문가가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 내용에 대한 성과 정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보호복지시설의 성과

표 VI-34.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보호복지시설의 성과

(단위: 리커트 9점)

관련 내용	전문가 소속	전체	세부소속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사례 수		20명	8명	8명	4명
인력 규모		5.30	5.50	4.88	5.75
인력의 전문성		6.05	6.13	5.75	6.50
프로그램의 규모		5.55	6.00	4.75	6.25

관련 내용	전문가 소속	전체	세부소속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		5.80	6.13	5.25	6.25
예산의 규모		5.20	5.63	4.88	5.00
예산 편성 시 시설의 특성 반영		5.25	6.00	4.75	4.75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		4.95	5.63	4.25	5.00

[표 VI-34]는 성남시 지역 재단 외 청소년전문가가 인식하는 청소년서비스 추진 체계 중 일선 시설인 청소년보호복지시설에 대한 내용의 성과 정도의 평균이다. 먼저 청소년보호복지시설의 내용별 성과 정도의 전체 인식을 살펴보면, 인력의 전문성이 6.05로 청소년보호복지시설 관련 내용 중 가장 성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은 4.95로 중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청소년보호복지시설에 관한 성과 정도에 대한 전문가의 소재지에 따른 차이이다. 구체적으로 인력 규모의 성과 정도는 분당구가 5.75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중원구는 4.88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분당구는 6.50으로 인력의 전문성에서 가장 성과 정도를 크게 인식하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중원구로 5.75이다. 그리고 프로그램 규모의 성과 정도를 높게 평가한 전문가는 분당구로 6.25이며, 중원구가 4.75로 가장 낮았다. 수요자중심 프로그램의 성과 정도에 대하여서는 수정구(5.63)가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중원구가 가장 낮았다(5.25). 예산 규모의 성과 정도는 수정구가 5.63으로 가장 높게, 중원구가 4.88로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예산편성 시 시설의 특성 반영은 수정구(6.00)가 가장 높게, 중원구와 분당구(4.75)는 낮은 수준으로 성과 정도를 평가하였다.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도 수정구가 5.63으로 그 성과 정도를 가장 높게, 중원구가 4.25로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중원구의 전문가가 청소년보호복지시설 관련 내용에 대한 성과 정도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중요도

표 VI-35. 청소년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중요도

(단위: 리커트 9점)

관련 내용	전문가 소속	전체	세부소속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사례 수		20명	8명	8명	4명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규모		7.20	7.25	6.88	7.75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의 다양성		7.60	8.00	7.13	7.75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의 적극성		7.70	8.13	7.50	7.25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 결과의 정책수용성		7.80	8.00	7.63	7.75
새로운 지역사회 네트워크 발굴 노력도		7.70	7.63	7.88	7.50
지역 연계 협업 사업 종류의 다양성		7.60	7.50	7.63	7.75
지역 연계 협업 사업 종류의 활성화 정도		7.45	7.63	7.38	7.25
지역 연계 협업 사업의 발굴 노력도		7.55	7.75	7.25	7.75

[표 VI-35]는 성남시 지역 재단 외 청소년전문가가 인식하는 청소년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중요도의 평균이다. 먼저 청소년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내용별 중요도의 전체 인식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 결과의 정책수용성은 7.80으로 지역사회 거버넌스 관련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규모는 7.20으로 중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청소년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의 소재지에 따른 차이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규모는 분당구가 7.75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중원구는 6.88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수정구는 8.00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의 다양성에서 가장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중원구로 7.13이다. 그리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의 적극성을 높게 평가한 전문가는 수정구로 8.13이며, 분당구가 7.25로 가장 낮았다. 지역

사회 네트워크 활동 결과의 정책수용성에 대하여서도 수정구(8.00)가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중원구가 가장 낮았다(7.63). 새로운 지역사회 네트워크 발굴 노력도는 분당구가 6.75로 가장 높게, 중원구가 5.13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지역 연계 협업 사업 종류의 다양성은 수정구(6.38)가 가장 높게, 중원구(6.13)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지역 연계 협업 사업의 활성화 정도도 수정구가 6.25로 그 중요도를 가장 높게, 중원구와 분당구가 5.75로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연계 협업 사업의 발굴 노력도도 수정구와 분당구가 6.50으로 그 중요도를 가장 높게, 중원구가 5.63으로 비교적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수정구의 지역전문가가 청소년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성과 정도

표 VI-36. 청소년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성과 정도

(단위: 리커트 9점)

관련 내용	전문가 소속	전체	세부소속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사례 수		20명	8명	8명	4명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규모		6.20	6.88	5.75	5.75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의 다양성		6.20	6.75	5.88	5.75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의 적극성		6.25	6.88	5.63	6.25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 결과의 정책수용성		5.85	6.13	5.38	6.25
새로운 지역사회 네트워크 발굴 노력도		5.90	6.25	5.13	6.75
지역 연계 협업 사업 종류의 다양성		6.25	6.38	6.13	6.25
지역 연계 협업 사업 종류의 활성화 정도		5.95	6.25	5.75	5.75
지역 연계 협업 사업의 발굴 노력도		6.15	6.50	5.63	6.50

[표 VI-36]은 성남시 지역 재단 외 청소년전문가가 인식하는 청소년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성과 정도의 평균이다. 먼저 청소년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내용별 성과 정도의 전체 인식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네트워크활동의 적극성과 지역연계 협업 사업 종류의 다양성이 6.25로 가장 성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 결과의 정책수용성은 5.85로 성과 정도를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청소년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성과 정도에 대한 전문가의 소재지에 따른 차이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규모는 수정구가 6.88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중원구, 분당구는 동일하게 낮게 평가하였다(5.75). 또한 수정구는 6.75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의 다양성에서 가장 성과 정도를 크게 인식하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분당구로 5.75이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의 적극성을 높게 평가한 전문가는 수정구로 6.88이며, 중원구가 5.63으로 가장 낮았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 결과의 정책수용성에 대하여서는 분당구(6.25)가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중원구가 가장 낮았다(5.38). 새로운 지역사회 네트워크 발굴 노력도는 분당구가 6.25로 가장 높게, 중원구가 5.38로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지역 연계 협업 사업 종류의 다양성은 수정구(6.38)가 가장 높게, 중원구(6.13)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성과 정도를 평가하였다. 지역 연계 협업 사업의 활성화 정도도 수정구가 6.25로 그 성과 정도를 가장 높게, 중원구와 분당구가 5.75로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연계 협업 사업의 발굴 노력도도 수정구와 분당구가 6.50으로 그 성과 정도를 가장 높게, 중원구가 5.63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중원구의 지역전문가가 청소년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성과 정도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전국 청소년전문가 의견분석

본 조사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성남형 청소년서비스의 향후 변화방향 및 전략을 찾고자 전국 청소년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초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전문가는 103명이다.

1) 인적 특성

(1) 성별

표 VI-37. 조사 대상의 성별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빈도	60명 (58.3%)	43명 (41.7%)	103명 (100%)

본 조사 대상인 전국 청소년전문가의 표본 크기는 총 103명이며, 남자 전문가는 60명(58.3%), 여자 전문가는 43명(41.7%)로 남자 전문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2) 연령

표 VI-38. 조사 대상의 연령

(단위: 명, %)

구분	빈도
30대	12명 (11.7%)
40대	48명 (46.6%)
50대	34명 (33.0%)
60대 이상	9명 (8.7%)
전체	103명 (100%)

본 조사 대상인 전국 청소년전문가 103명의 연령을 살펴보면, 30대가 12명 (11.7%), 40대가 48명(46.6%), 50대가 34명(33.0%), 60대 이상이 9명(8.7%)으로 4, 50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3) 학력

표 VI-39. 조사 대상의 학력

(단위: 명, %)

구분	빈도
대학교 졸업	4명 (3.9%)
석사 졸업(수료 포함)	6명 (5.8%)
박사 졸업(수료 포함)	93명 (90.3%)
전체	103명 (100%)

본 조사 대상인 전국 청소년전문가 103명의 학력을 살펴보면, 대학교 졸업이 4명 (3.9%), 석사 졸업(수료 포함)이 6명 (5.8%), 박사 졸업(수료 포함)이 93명 (90.3%)로 박사 졸업(수료 포함)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4) 기관 유형

표 VI-40. 조사 대상의 재직 기관 유형

(단위: 명, %)

구분	빈도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	13명 (12.6%)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	2명 (1.9%)
연구원 및 학계	88명 (85.4%)
전체	103명 (100%)

본 조사 대상인 전국 청소년전문가 103명의 재직 기관 유형을 살펴보면, 청소년 활동 관련 기관/시설이 13명(12.6%),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이 2명 (1.9%)이며 연구원 및 학계 88명(85.4%)이었다.

(5) 기관 지역

표 VI-41. 조사 대상의 재직 기관 지역

(단위: 명, %)

구분	빈도
서울특별시	38명(36.9%)
부산광역시	6명(5.8%)
대구광역시	1명(1.0%)
인천광역시	2명(1.9%)
광주광역시	5명(4.9%)
대전광역시	3명(2.9%)
세종특별자치시	10명(9.7%)
경기도	13명(12.6%)
강원도	2명(1.9%)
충청북도	12명(11.7%)
충청남도	8명(7.8%)
전라북도	1명(1.0%)
경상북도	2명(1.9%)
전체	103명 (100%)

본 조사 대상인 전국 청소년전문가 103명의 기관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는 38명(36.9%), 부산광역시 6명(5.8%), 대구광역시 1명(1.0%), 인천광역시 2명(1.9%), 광주광역시 5명(4.9%), 대전광역시 3명(2.9%), 세종특별자치시 10명(9.7%), 경기도 13명(12.6%), 강원도 2명(1.9%), 충청북도 12명(11.7%), 충청남도 8명(7.8%), 전라북도 1명(1.0%), 경상북도 2명(1.9%)이었다.

(6) 업무 경력

표 VI-42. 조사 대상의 업무 경력

(단위: 명, %)

구분	빈도
5년 미만	20명 (19.0%)
5년 이상 ~ 10년 미만	20명 (19.0%)
10년 이상 ~ 15년 미만	33명 (31.4%)
15년 이상 ~ 20년 미만	33명 (31.4%)
20년 이상	2명 (1.9%)
전체	105명 (100%)

본 조사 대상인 전국 청소년전문가 103명의 업무 경력을 살펴보면, 5년 미만이 20명(19.0%),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이 33명(31.4%), 10년 이상에서 15년 미만이 33명(31.4%), 15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이 17명(16.2%), 20년 이상이 2명(1.9%)으로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2) 청소년서비스 관련 기술통계

(1) 전국 청소년전문가가 인식하는 전국 청소년의 삶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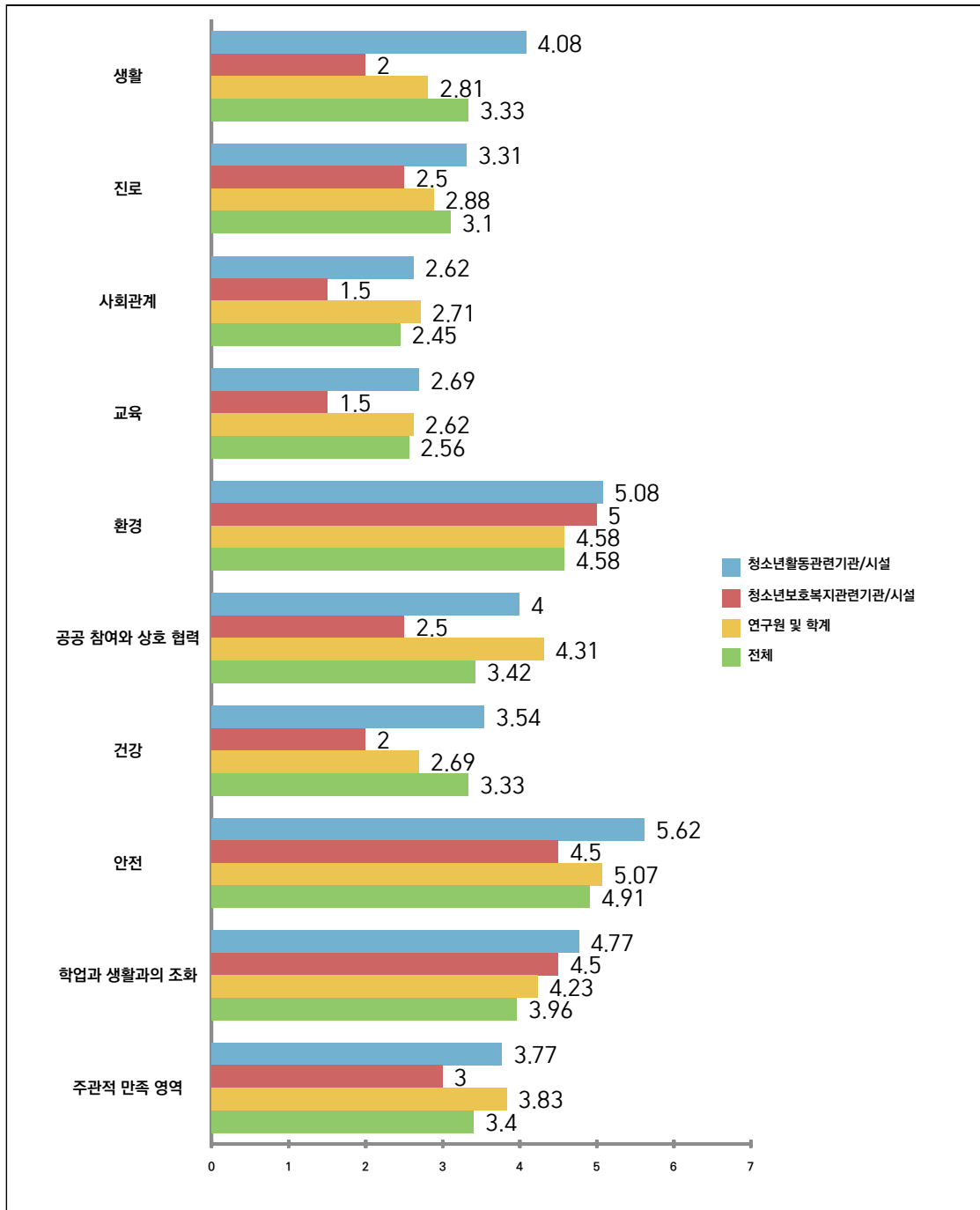


그림 VI-5. 전국 청소년전문가가 인식하는 전국 청소년의 삶의 질

전국 청소년전문가들이 코로나19 이전의 상황과 비교해서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현재 삶의 질을 조사하였다.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은 현재 삶의 질 항목 중 환경(5.08점), 안전(5.62)의 2개 항목의 현재 삶의 질이 더욱 양호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은 현재 삶의 질 항목 중 환경(5.00점)의 1개 항목의 현재 삶의 질이 더욱 양호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및 학계는 안전(5.07)의 1개 항목의 현재 삶의 질이 더욱 양호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 전국 청소년전문가가 인식하는 사회 변화요인의 중요도

표 VI-43. 전국 청소년전문가가 인식하는 사회 변화요인의 중요도

(단위: 리커트 9점)

사회변화요인 전문가 소속	사례 수	인구 변화	기술 변화	사회 변화	교육 변화	경제 변화	청소년 정책 변화
전체	103명	7.68	7.34	7.55	7.58	7.39	6.80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	13명	8.08	6.69	7.00	7.23	6.77	6.85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	2명	8.00	8.00	8.50	7.00	7.00	6.00
연구원 및 학계	88명	7.80	7.70	7.32	7.50	7.25	6.42

[표 VI-43]은 전국 청소년전문가가 인식하는 사회 변화요인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의 평균이다. 먼저 전국 청소년전문가들의 사회요인별 전체 인식을 살펴보면, 인구변화가 7.68로 미래사회의 청소년서비스 개선에 인구의 변화가 가장 효과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청소년정책 변화는 6.80으로 청소년서비스 개선을 위한 미래사회변화에 가장 중요도가 낮다고 평가하였다.

다음으로는 사회변화요인에 대한 전국 청소년전문가의 소속에 따른 차이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구변화의 중요도를 가장 높게 평가한 곳은 8.08로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이며 가장 낮은 곳은 연구원 및 학계로

7.80이다. 그리고 기술변화에 대한 청소년서비스에서의 중요도를 가장 높게 평가한 전문가는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로 8.00이며,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이 6.69로 가장 낮았다. 사회변화의 중요도에 대하여서는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8.50)이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이 가장 낮았다(7.00). 그리고 교육변화의 중요도는 연구원 및 학계가 7.50으로 가장 높았으며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이 7.0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제변화의 청소년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중요도는 연구원 및 학계가 7.25로 가장 높았으며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이 6.77로 가장 낮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정책의 변화에 대한 중요도 평가도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이 가장 높았으며(6.85)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이 6.00으로 가장 낮았다. 대체로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에 소속된 전국 청소년전문가들이 사회변화요인에 대한 중요도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전국 청소년전문가가 인식하는 사회 변화요인의 적절한 대응 수준

표 VI-44. 전국 청소년전문가가 인식하는 사회 변화요인의 적절한 대응 수준

(단위: 리커트 9점)

사회변화요인 전문가 소속	사례 수	인구 변화	기술 변화	사회 변화	교육 변화	경제 변화	청소년 정책 변화
전체	103명	3.59	4.28	4.17	4.36	3.74	4.15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	13명	3.15	4.69	5.62	4.77	3.77	4.62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	2명	2.50	1.50	3.00	4.00	2.50	1.50
연구원 및 학계	88명	3.19	4.31	3.99	4.80	3.39	4.07

[표 VI-44]는 전국 청소년전문가가 인식하는 사회 변화요인의 적절한 대응 수준에 대한 인식의 평균이다. 먼저 전국 청소년전문가들의 사회요인별 전체 인식을

살펴보면, 교육변화가 4.36으로 미래사회의 청소년서비스 개선에 교육의 변화가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인구변화는 3.59로 청소년서비스 개선을 위한 미래사회변화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사회변화요인에 대한 전국 청소년전문가의 소속에 따른 차이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구변화의 적절한 대응을 가장 높게 평가한 곳은 3.19로 연구원 및 학계이며 가장 낮은 곳은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로 2.50이다. 그리고 기술변화에 대한 청소년서비스의 변화를 가장 높게 평가한 전문가는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로 4.69이며,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이 1.50으로 가장 낮았다. 사회변화의 적절한 대응에 대하여서는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5.62)이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이 3.0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변화의 대응성은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이 4.77로 가장 높았으며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이 가장 낮았다(4.00). 다음으로 경제변화의 적절한 대응은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이 3.77로 가장 높았으며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이 2.50으로 가장 낮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정책의 변화에 대한 적절성 평가도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이 가장 높았으며(4.62)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이 1.50으로 가장 낮았다. 대체로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에 소속된 전국 청소년전문가들이 사회변화요인에 대한 적절한 대응 수준을 낮게 평가하여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에 대한 사회변화 대응 전략의 강화가 요구된다.

(4) 전국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수련관의 중요도

표 VI-45. 전국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수련관의 중요도

(단위: 리커트 9점)

구분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	연구원 및 학계	전체
사례 수	13명	2명	88명	103명
인력 규모	7.08	6.00	6.19	6.45
인력의 전문성	8.46	8.00	8.04	7.86
프로그램의 규모	5.85	7.50	6.60	6.74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	8.38	7.50	7.74	7.87
예산의 규모	7.54	7.00	7.16	7.34
예산 편성 시 시설의 특성 반영	8.15	7.00	7.00	7.41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	8.00	8.00	7.16	7.41

[표 VI-45]는 전국 청소년전문가가 인식하는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일선 시설인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중요도의 평균이다. 먼저 전국 청소년전문가들의 청소년수련관 관련 내용에 대한 중요도의 전체 인식을 살펴보면,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이 7.87로 청소년수련관 관련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인력 규모는 6.45로 중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청소년수련관에 관한 내용의 중요도에 대한 전국 청소년전문가의 소속에 따른 차이이다. 구체적으로 인력 규모의 중요도는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이 7.08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 기타는 6.00으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은 8.46로 인력의 전문성에서 가장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로 8.00이다. 그리고 프로그램 규모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한 전문가는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로 7.50이며,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이

5.85로 가장 낮았다. 수요자중심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하여서는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8.38)가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이 가장 낮았다(7.50). 예산 규모의 중요도는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이 7.54으로 가장 높게,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이 7.00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예산편성 시 시설의 특성 반영은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8.15)가 가장 높게,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 연구원 및 학계(7.00)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도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이 8.00로 그 중요도를 가장 높게, 연구원 및 학계가 7.1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체로 연구원 및 학계 소속의 전국 청소년전문가가 청소년수련관의 내용에 대한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수련관의 중요도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5) 전국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문화의 집의 중요도

표 VI-46. 전국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문화의 집의 중요도

(단위: 리커트 9점)

구분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	연구원 및 학계	전체
사례 수	13명	2명	88명	103명
인력 규모	6.77	6.50	6.09	6.5
인력의 전문성	7.69	7.00	7.78	7.57
프로그램의 규모	5.54	7.00	6.84	6.54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	7.92	7.00	7.76	7.58
예산의 규모	6.85	6.00	6.89	7.04
예산 편성 시 시설의 특성 반영	7.92	7.00	7.02	7.16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	7.77	7.00	6.49	7.06

[표 VI-46]은 전국 청소년전문가가 인식하는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일선 시설인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한 중요도의 평균이다. 먼저 전국 청소년전문가들의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 내용에 대한 중요도의 전체 인식을 살펴보면, 인력의 전문성이 7.57로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인력의 규모는 6.52로 중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청소년문화의 집에 관한 내용의 중요도에 대한 전국 청소년전문가의 소속에 따른 차이이다. 구체적으로 인력 규모의 중요도는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이 6.77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연구원 및 학계는 6.09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반면 연구원 및 학계는 7.78로 인력의 전문성에서 가장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로 7.00이다. 그리고 프로그램 규모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한 전문가는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로 7.00이며,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이 5.54으로 가장 낮았다. 수요자중심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하여서는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7.92)이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이 가장 낮았다(7.00). 예산 규모의 중요도는 연구원 및 학계가 6.89로 가장 높게,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이 6.00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예산편성 시 시설의 특성 반영은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7.92)이 가장 높게,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7.00)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도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이 7.77로 그 중요도를 가장 높게, 연구원 및 학계가 6.49로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 소속 전국 청소년전문가가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 내용에 대한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전국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보호복지시설의 중요도

표 VI-47. 전국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보호복지시설의 중요도

(단위: 리커트 9점)

구분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	연구원 및 학계	전체
사례 수	13명	2명	88명	103명
인력 규모	7.54	9.00	7.25	7.25
인력의 전문성	8.46	9.00	8.05	7.90
프로그램의 규모	5.31	8.50	6.45	6.70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	7.62	9.00	7.07	7.50
예산의 규모	7.23	8.50	7.40	7.46
예산 편성 시 시설의 특성 반영	8.15	9.00	7.14	7.42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	8.08	9.00	7.18	7.47

[표 VI-47]은 전국 청소년전문가가 인식하는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일선 시설인 청소년보호복지시설에 대한 중요도의 평균이다. 먼저 전국 청소년전문가들의 청소년보호복지시설 관련 내용에 대한 중요도의 전체 인식을 살펴보면, 청소년문화의 집과 마찬가지로 인력의 전문성이 7.90로 청소년보호복지시설 관련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프로그램의 규모는 6.70으로 중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청소년보호복지시설에 관한 내용의 중요도에 대한 전국 청소년전문가의 소속에 따른 차이이다. 구체적으로 인력 규모의 중요도는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이 9.00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연구원 및 학계는 7.25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은 9.00으로 인력의 전문성에서 가장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연구원 및 학계로 8.05이다. 그리고 프로그램 규모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한 전문가는 또한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로 8.50이며,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이 5.31로 가장 낮았다.

수요자중심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하여서는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9.00)이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연구원 및 학계가 가장 낮았다(7.07). 예산 규모의 중요도 또한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이 8.50로 가장 높게, 청소년 활동 관련 기관/시설이 7.23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예산편성 시 시설의 특성 반영은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9.00)이 가장 높게, 연구원 및 학계(7.14)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도 청소년 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이 9.00으로 그 중요도를 가장 높게, 연구원 및 학계가 7.18로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의 전국 청소년전문가가 청소년보호복지시설 관련 내용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전국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수련관의 성과

표 VI-48. 전국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수련관의 성과

(단위: 리커트 9점)

구분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	연구원 및 학계	전체
사례 수	13명	2명	88명	103명
인력 규모	5.38	3.50	5.38	5.39
인력의 전문성	5.62	3.00	5.59	5.75
프로그램의 규모	6.15	5.00	5.99	5.72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	6.00	4.50	5.40	5.50
예산의 규모	5.46	4.00	5.58	5.20
예산 편성 시 시설의 특성 반영	5.62	5.50	5.25	5.23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	5.62	4.00	4.91	5.45

[표 VI-48]은 전국 청소년전문가가 인식하는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일선 시설인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내용의 성과 정도의 평균이다. 먼저 전국 청소년전문

가들의 청소년수련관의 내용별 성과 정도의 전체 인식을 살펴보면, 인력의 전문성이 5.75로 청소년수련관 관련 내용 중 가장 성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예산의 규모는 5.20으로 성과 정도를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청소년수련관에 관한 성과 정도에 대한 전국 전문가의 소속에 따른 차이이다. 구체적으로 인력 규모의 성과 정도는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 연구원 및 학계가 5.38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은 3.50으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은 5.62로 인력의 전문성에서 가장 성과 정도를 크게 인식하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로 3.00이다. 그리고 프로그램 규모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한 전문가는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로 6.15이며,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이 5.00으로 가장 낮았다. 수요자중심 프로그램의 성과 정도에 대하여서는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6.00)이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이 가장 낮았다(4.50). 예산 규모의 성과 정도는 연구원 및 학계가 5.58으로 가장 높게,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이 4.00로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예산 편성 시 시설의 특성 반영은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5.62)이 가장 높게, 연구원 및 학계(5.25)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성과 정도를 평가하였다.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도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이 5.62로 그 성과 정도를 가장 높게,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이 4.00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의 전국 청소년전문가가 청소년수련관 관련 내용에 대한 성과 정도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과 시설의 내용 성과를 높이기 위한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8) 전국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문화의 집의 성과

표 VI-49. 전국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문화의 집의 성과

(단위: 리커트 9점)

구분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	연구원 및 학계	전체
사례 수	13명	2명	88명	103명
인력 규모	5.08	4.50	5.53	5.35
인력의 전문성	5.62	5.00	5.49	5.62
프로그램의 규모	5.69	5.00	5.04	5.42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	6.23	4.00	5.34	5.43
예산의 규모	5.08	4.50	5.23	5.12
예산 편성 시 시설의 특성 반영	5.85	5.50	5.19	5.17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	5.54	5.50	5.12	5.27

[표 VI-49]는 전국 청소년전문가가 인식하는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일선 시설인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한 내용의 성과 정도의 평균이다. 먼저 전국 청소년전문가들의 청소년문화의 집의 내용별 성과 정도의 전체 인식을 살펴보면, 인력의 전문성이 5.62로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 내용 중 가장 성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예산의 규모는 5.12로 성과 정도를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청소년문화의 집에 관한 성과 정도에 대한 전국 청소년전문가의 소속에 따른 차이이다. 구체적으로 인력 규모의 성과 정도는 연구원 및 학계가 5.53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은 4.50으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은 5.62로 인력의 전문성에서 가장 성과 정도를 크게 인식하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로 5.00이다. 그리고 프로그램 규모의 성과 정도를 높게 평가한 전문가는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로 5.69이며,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가 5.00

으로 가장 낮았다. 수요자중심 프로그램의 성과 정도에 대하여서는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6.23)가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이 가장 낮았다(4.00). 예산 규모의 성과 정도는 연구원 및 학계가 5.23로 가장 높게,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 4.50로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예산편성 시 시설의 특성 반영은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5.85)가 가장 높게, 연구원 및 학계(5.19)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성과 정도를 평가하였다.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도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이 5.54로 그 성과 정도를 가장 높게, 연구원 및 학계가 5.12로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수련관 관련 내용의 성과 정도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의 전국 청소년 전문가가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 내용에 대한 성과 정도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전국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보호복지시설의 성과

표 VI-50. 전국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청소년보호복지시설의 성과

(단위: 리커트 9점)

구분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	연구원 및 학계	전체
사례 수	13명	2명	88명	103명
인력 규모	4.62	2.50	4.86	4.94
인력의 전문성	5.31	4.50	4.91	5.41
프로그램의 규모	5.00	4.00	4.74	5.08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	5.15	8.50	4.71	5.14
예산의 규모	4.92	2.00	4.42	4.78
예산 편성 시 시설의 특성 반영	4.77	2.00	4.75	4.77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	5.31	3.00	4.69	5.02

[표 VI-50]은 전국 청소년전문가가 인식하는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일선 시설인 청소년보호복지시설에 대한 내용의 성과 정도의 평균이다. 먼저 전국 청소년전문가들의 청소년보호복지시설의 내용별 성과 정도의 전체 인식을 살펴보면, 인력의 전문성이 5.41로 청소년보호복지시설 관련 내용 중 가장 성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예산 편성 시 시설의 특성 반영은 4.77로 성과 정도를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청소년보호복지시설에 관한 성과 정도에 대한 전국 청소년전문가의 소속에 따른 차이이다. 구체적으로 인력 규모의 성과 정도는 연구원 및 학계가 4.86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은 2.50으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은 5.31로 인력의 전문성에서 가장 성과 정도를 크게 인식하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로 4.50이다. 그리고 프로그램 규모의 성과 정도를 높게 평가한 전문가는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로 5.00이며,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이 4.00으로 가장 낮았다. 수요자중심 프로그램의 성과 정도에 대하여서는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8.50)이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연구원 및 학계가 가장 낮았다(4.71). 예산 규모의 성과 정도는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이 4.92로 가장 높게,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이 2.00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예산편성 시 시설의 특성 반영은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4.77)이 가장 높게,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2.00)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성과 정도를 평가하였다.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도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이 5.31로 그 성과 정도를 가장 높게,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이 3.00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의 전국 청소년전문가가 청소년보호복지시설 관련 내용에 대한 성과 정도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전국 청소년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중요도

표 VI-51. 전국 청소년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중요도

(단위: 리커트 9점)

구분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 /시설	청소년보호 복지 관련 기관/시설	연구원 및 학계	전체
사례 수	13명	2명	88명	103명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규모	7.31	8.00	6.73	7.14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의 다양성	7.23	8.50	6.83	7.31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의 적극성	7.54	8.50	6.16	7.30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 결과의 정책수용성	7.69	7.50	7.13	7.31
새로운 지역사회 네트워크 발굴 노력도	7.15	8.00	6.93	7.18
지역 연계 협업 사업 종류의 다양성	7.31	8.50	6.29	6.96
지역 연계 협업 사업 종류의 활성화 정도	7.92	7.50	6.45	7.27
지역 연계 협업 사업의 발굴 노력도	7.62	8.50	6.05	7.14

[표 VI-51]은 전국 청소년전문가가 인식하는 전국 청소년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중요도의 평균이다. 먼저 전국 청소년전문가들의 청소년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내용별 중요도의 전체 인식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 결과의 정책수용성은 7.31로 지역사회 거버넌스 관련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지역 연계 협업 사업 종류의 다양성은 6.96로 중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청소년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중요도에 대한 전국 청소년전문가의 소속에 따른 차이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규모는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이 8.00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연구원 및 학계는 6.73으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은 8.50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의 다양성에서 가장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연구원 및 학계로 6.83이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의 적극성을 높게 평가한 전문가는 또한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로 8.50이며, 연구원 및 학계가 6.16으로 가장 낮았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 결과의 정책수용성에 대하여서는 청소년 활동 관련 기관/시설(7.69)가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연구원 및 학계가 가장 낮았다(7.13). 새로운 지역사회 네트워크 발굴 노력도는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이 8.00로 가장 높게, 연구원 및 학계가 6.93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지역 연계 협업 사업 종류의 다양성은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8.50)가 가장 높게, 연구원 및 학계(6.29)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지역 연계 협업 사업 종류의 활성화 정도도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 7.92로 그 중요도를 가장 높게, 연구원 및 학계(6.45)는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연계 협업 사업의 발굴 노력도도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이 8.50로 그 중요도를 가장 높게, 연구원 및 학계가 6.05로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의 전국 청소년전문가가 청소년 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전국 청소년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성과 정도

표 VI-52. 전국 청소년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성과 정도

(단위: 리커트 9점)

구분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 /시설	청소년보호 복지 관련 기관/시설	연구원 및 학계	전체
사례 수	13명	2명	88명	103명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규모	5.92	3.50	5.02	5.39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의 다양성	5.23	3.50	4.40	5.07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의 적극성	5.15	2.50	5.18	5.01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 결과의 정책수용성	4.54	3.50	4.36	4.65

구분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 /시설	청소년보호 복지 관련 기관/시설	연구원 및 학계	전체
새로운 지역사회 네트워크 발굴 노력도	5.31	3.00	4.61	4.88
지역 연계 협업 사업 종류의 다양성	5.08	2.00	4.68	4.69
지역 연계 협업 사업 종류의 활성화 정도	5.38	3.00	5.08	4.87
지역 연계 협업 사업의 발굴 노력도	5.23	3.00	4.54	4.77

[표 VI-52]는 전국 청소년전문가가 인식하는 청소년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성과 정도의 평균이다. 먼저 전국 청소년전문가들의 청소년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내용별 성과 정도의 전체 인식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규모는 5.39로 지역사회 거버넌스 관련 내용 중 가장 성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 결과의 정책수용성은 4.65로 성과 정도를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청소년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성과 정도에 대한 전국 청소년전문가의 소속에 따른 차이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규모는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이 5.92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은 3.50으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또한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은 5.23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의 다양성에서 가장 성과 정도를 크게 인식하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로 3.50이다. 그리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의 적극성을 높게 평가한 전문가는 연구원 및 학계로 5.18이며,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이 2.50으로 가장 낮았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 결과의 정책수용성에 대하여서는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4.54)이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이 가장 낮았다(3.50). 새로운 지역사회 네트워크 발굴 노력도는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이 5.31로 가장 높게,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이 3.00로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지역 연계 협업 사업 종류의 다양성은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5.08)가 가장 높게, 청소년

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2.00)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성과 정도를 평가하였다. 지역 연계 협업 사업 종류의 활성화 정도도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이 5.38로 성과 정도를 가장 높게,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이 3.00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연계 협업 사업의 발굴 노력도도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시설이 5.23으로 성과 정도를 가장 높게,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이 3.00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청소년보호복지 관련 기관/시설의 전국 청소년전문가가 청소년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성과 정도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전략도출을 위한 성남전문가 및 전국전문가 AHP, IPA분석

1) AHP 분석

(1) 개요

본 조사에서는 청소년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분석을 실시하여 성남형 청소년 서비스 전략 도출을 위한 주요 사항별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청소년 전문가는 크게 5곳에 근무하는 전문가로 구분되어 있다. 본부(성남시청소년재단의 근무), 수정구 청소년시설(성남시청소년재단 소속이지만 수정구 청소년시설의 근무), 중원구 청소년시설(성남시청소년재단 소속이지만 중원구 청소년시설의 근무), 분당구 청소년시설(성남시청소년재단 소속이지만 분당구 청소년시설의 근무), 재단 외 청소년전문가(재단의 소속이 아닌 지역 사법법인 개인 청소년전문가)가 각각 그에 해당한다. 청소년 전문가들은 각 주요 사항에 대해 정성적 지식에 기초하여 상대적인 중요도를 판단하였다. 중요도 판단 결과는 가중치로 계산된다.

분석된 주요 사항에 해당하는 항목은 크게 3개이다. ① 청소년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정책대상자에 대한 중요도, ②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추진체계의 중요성, ③ 성남시 청소년서비스의 개선 방향에 대한 중요도가 그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표 VI-53]과 같다.

표 VI-53. AHP 주요 설문 항목

항목	세부 과제
청소년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정책대상자	청년 청소년 아동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추진체계	지역사회 청소년 거버넌스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시설

항목	세부 과제
	교육청 성남시청
성남시 청소년서비스의 개선 방향	경영변화 혁신변화 사업변화 조직변화

(2) 청소년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정책대상자에 대한 중요도

청소년 전문가들이 청소년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정책대상자에 대한 중요도를 판단한 결과에 따르면, 그 가중치는 ‘청년’, ‘청소년’, ‘아동’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가중치로 계산된 청년은 42.2%이고, 청소년은 31.8% , 아동은 26%이다. 따라서 청소년 전문가들이 청소년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정책대상자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은 청년이며, 이는 가장 낮은 아동보다 16.2%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그림 VI-6>은 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청소년 전문가별로 중요성에 대한 가중치 차이를 보면, 대체로 청년이 가장 높은 중요도 보인다는 점에서는 전체적인 중요도 양상과도 비슷하지만 다소의 차이는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분당구 청소년시설 청소년전문가들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이는 정책대상자로 청소년을 들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을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중요도를 지닌 정책대상자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사례(수정구 청소년 시설, 재단 외 청소년전문가)도 존재한다. 하지만 전반적인 가중치 순위인 청년, 청소년, 아동 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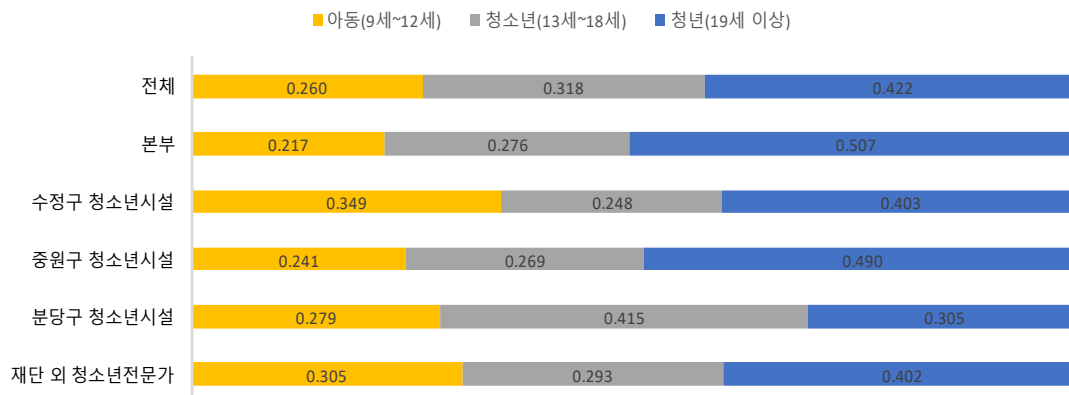


그림 VI-6. 청소년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정책대상자 중요도 분석 결과

(3)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추진체계의 중요성

청소년 전문가들이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추진체계의 중요성을 판단한 결과에 따르면, 그 가중치는 ‘지역사회 청소년 거버넌스’,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시설’, ‘교육청’, ‘성남시청’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가중치로 계산된 지역사회 청소년 거버넌스는 32.9%이고,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시설은 29.6%, 교육청은 18.9%, 성남시청은 18.6%이다. 따라서 청소년 전문가들이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추진체계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역사회 청소년 거버넌스이며, 이는 가장 낮은 성남시청보다 14.3%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그림 VI-7>은 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청소년 전문가별로 중요성에 대한 가중치 차이를 보면, 대체로 지역사회 청소년 거버넌스가 가장 높은 중요도 보인다는 점에서는 전체적인 중요도 양상과도 비슷하지만 다소의 차이는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분당구 청소년시설 청소년전문가들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이는 추진체제로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시설을 들고 있다. 이와 함께 성남시청을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중요도를 지닌 추진체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사례(수정구 청소년 시설, 재단 외 청소년전문가)

도 존재한다. 하지만 전반적인 가중치 순위인 지역사회 청소년 거버넌스, 성남시 청소년재단과 시설, 교육청, 성남시청 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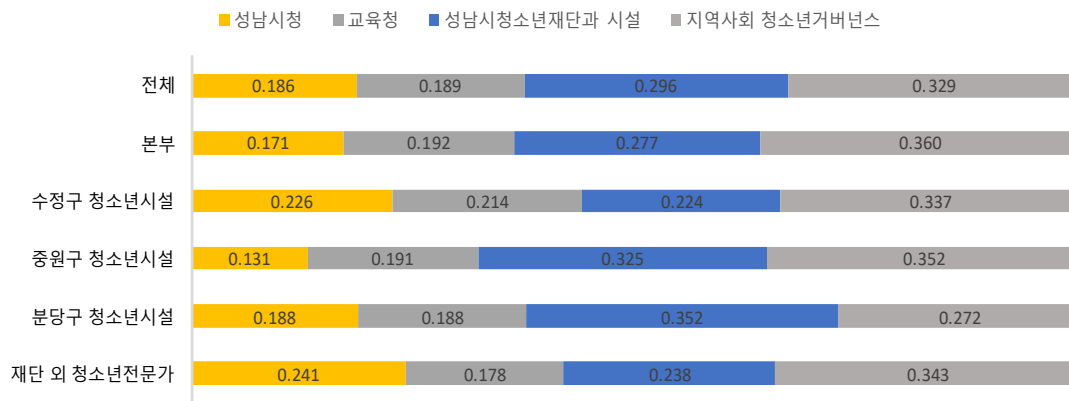


그림 VI-7. 미래사회 변화 대응 추진체계의 중요성 분석 결과

(4) 성남시 청소년서비스의 개선 방향에 대한 중요도

청소년 전문가들이 성남시 청소년서비스의 개선 방향에 대한 중요도를 판단한 결과에 따르면, 그 가중치는 ‘경영변화’, ‘혁신변화’, ‘사업변화’, ‘조직변화’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가중치로 계산된 경영변화는 34.2%이고, 혁신변화는 26%, 사업변화는 20.2%, 조직변화는 19.6%이다. 따라서 청소년 전문가들이 성남시 청소년서비스의 개선 방향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영변화이며, 이는 가장 낮은 조직변화보다 14.6%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그림 VI-8>은 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청소년 전문가별로 중요성에 대한 가중치 차이를 보면, 모두 경영변화를 가장 높은 중요도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중요도 양상과도 비슷하다. 다만 다소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예컨대 조직변화를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중요도를 지닌 개선 방향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사례(수정구 청소년 시설, 중원구 청소년 시설, 재단 외 청소년전문가)가 그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역시 전반적인 가중치 순위인 경영변화, 혁신변화, 사업변화, 조직변화 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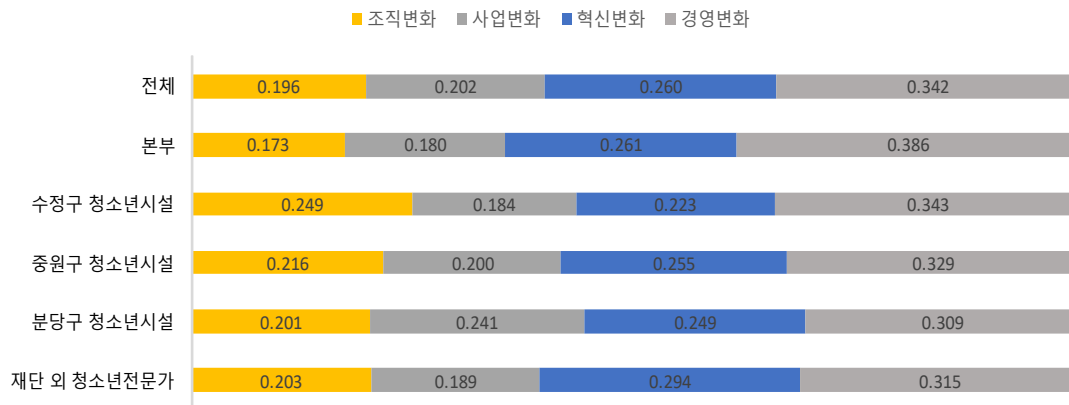


그림 VI-8. 성남시 청소년서비스의 개선 방향 중요도 분석 결과

2) IPA 분석

(1) 개요

본 조사에서는 중요도-성과 분석(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을 활용하여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전략과 개선과제의 중요도와 그 성과(실행 정도)를 파악하였다. IPA는 설문 응답에 따른 중요도와 실행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구분된 영역에 초점을 두고 분석 및 해석된다. 여기에는 크게 네 가지 영역이 존재하는데, <그림 VI-9>와 같이 유지강화(Ⅱ사분면), 중점 개선(Ⅱ사분면), 점진 개선(Ⅲ사분면), 지속 유지(Ⅳ사분면) 영역이 그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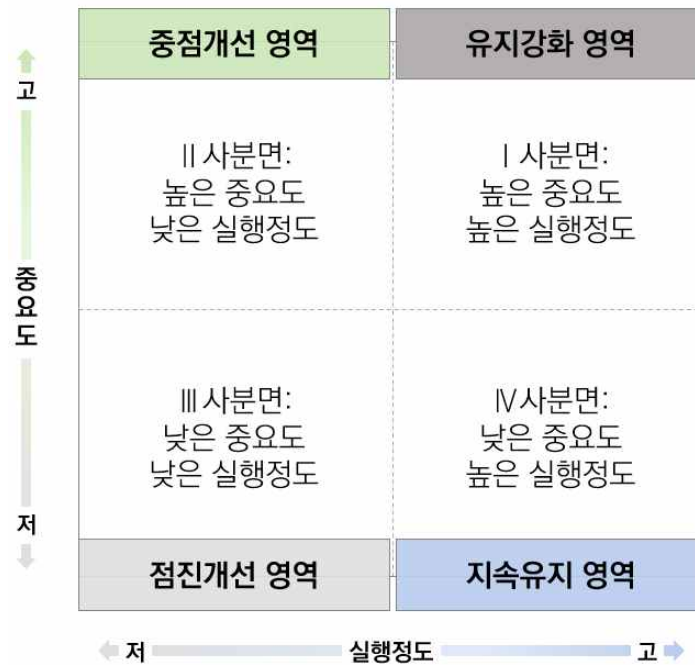


그림 VI-9. IPA 매트릭스

유지강화 영역인 I 사분면에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면서 동시에 그 성과도 충분히 보이고 있는 전략 및 과제가 포함된다. 그래서 중요도와 성과가 모두 높은 상태를 계속 유지 및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영역에 해당한다. 중점 개선 영역인 II 사분면은 중요도는 높으나 그 성과가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는 위치이다. 높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낮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영역에 해당한다. 점진 개선 영역인 III 사분면은 중요도와 성과가 모두 낮은 상태를 나타내는 위치이다. 그래서 이 위치는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분류된다. IV 사분면은 중요도는 낮은 반면, 성과는 높은 위치이다. 중요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높기 때문에 지속 유지되어야 할 영역에 해당한다.

이러한 IPA 분석을 위해 본 조사에서도 성남시 청소년전문가(재단소속) 105명, 성남시 지역 청소년전문가(재단 외 소속) 20명, 전국 청소년전문가 103명을 대상으로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전략과 개선과제에 대한 중요도와 성과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였고 그에 기초하여 IPA 분석을 진행하였다. 세부적인 주요 설문 내용은 사회변화 대응, 성남시 제3차 중장기 발전계획,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지역사회 거버넌스에 대한 중요도와 성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 항목과 과제는 [표 VI-54]와 같다.

표 VI-54. IPA 주요 설문 항목

항목	세부 과제
사회변화 대응	인구변화 기술변화 사회변화 교육변화 경제변화 청소년 정책 변화
성남시청소년재단 제3차 중장기 발전계획	대상 현안별 맞춤 서비스 제공 적극적인 청소년 권리 보장 지역사회 청소년 플랫폼 기능 강화 청소년 지원 거버넌스 형성 청소년 주도 시민 핵심 역량 강화 청소년 거버넌스 형성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인력의 전문성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 예산의 규모 예산편성 시 시설의 특성 반영 인력 규모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 프로그램의 규모
지역사회 거버넌스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의 다양성 지역 연계 협업 사업의 활성화 정도 새로운 지역사회 네트워크 발굴 노력도 지역 연계 협업 사업 종류의 다양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 결과의 정책수용성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규모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의 적극성 지역 연계 협업 사업의 발굴 노력도

(2) 성남시 청소년전문가(재단소속) 대상 IPA 분석 결과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전략과 개선과제의 중요도-성과에 대한 설문 중 사회변화 대응에 대해 9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요도의 평균은 7.38이고 성과의 평균은 5.90이다. 이 두 값에 따라 네 개의 영역 구분이 이루어졌고, 각 영역별로 해당 과제가 포함되었다. <그림 VI-10>은 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각 영역별 해당 과제를 보면, 우선 유지강화 영역에는 총 3개의 대응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기술변화’, ‘사회변화’, ‘교육변화’가 그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대응 과제들은 중요성이 높으면서 동시에 성과도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계속 유지강화 될 필요가 있다.

중점 개선 영역에는 총 1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인구변화’가 그에 해당한다. 이 대응 과제는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낮은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향후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대상이다. 전략적 관점에서도 이 과제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전략과 개선과제 도출과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과제이다.

점진 개선 영역에는 총 1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경제변화’가 그에 해당한다. 중요도도 낮고 성과도 낮은 경우로서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 과제이다.

지속 유지 영역에도 총 1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 정책 변화’가 그에 해당한다. 이 과제는 중요도는 낮으나 성과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류되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림 VI-10. 사회변화 대응에 대한 IPA 결과(성남시)

다음으로 성남시 제3차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9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요도의 평균은 7.29이고 성과의 평균은 6.42이다. 이 두 값에 따라 네 개의 영역 구분이 이루어졌고, 각 영역별로 해당 과제가 포함되었다. <그림 VI-11>은 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각 영역별 해당 과제를 보면, 유지강화 영역에는 총 3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대상 현안별 맞춤 서비스 제공’, ‘적극적인 청소년 권리 보장’, ‘지역사회 청소년 플랫폼 기능 강화’가 그에 해당된다. 성남시 제3차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이에 대한 과제들은 중요성이 높으면서 동시에 성과도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 유지강화 될 필요가 있다.

중점 개선 영역에는 총 1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 지원 거버넌스 형성’가 그에 해당한다. 이 과제는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낮은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전략적 관점에서도 이 과제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전략과 개선과제 도출과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과제이다.

점진 개선 영역에는 총 2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 주도 시민 핵심 역량 강화’, ‘청소년 거버넌스 형성’이 그에 해당한다. 중요도도 낮고 성과도 낮은 경우로서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 과제이다.

지속 유지 영역에는 총 1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가 그에 해당한다. 이 과제는 중요도는 낮으나 성과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류되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림 VI-11. 성남시 제3차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IPA 결과(성남시)

그리고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에 대한 중요도-성과 분석도 실시하였다. 여기에는 다시 수련관, 문화의 집, 보호복지시설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우선 수련관을 대상으로 하여 9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요도의 평균은 7.39이고 성과의 평균은 6.61이다. 이 두 값에 따라 네 개의 영역 구분이 이루어졌고, 각 영역별로 해당 과제가 포함되었다. <그림 VI-12>는 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영역별 해당 과제를 보면, 유지강화 영역에는 총 4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인력의 전문성’,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 ‘예산의 규모’, ‘예산편성 시 시설의 특성 반영’이 그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과제들은 중요성이 높으면서

동시에 성과도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계속 유지강화 될 필요가 있다.

점진 개선 영역에는 총 2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인력 규모’,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이 그에 해당한다. 중요도도 낮고 성과도 낮은 경우로서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 과제이다.

지속 유지 영역에는 총 1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프로그램의 규모’가 그에 해당한다. 이 과제는 중요도는 낮으나 성과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류되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한편, 중점 개선 영역에 해당하는 과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I-12.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에 대한 IPA 결과: 수련관(성남시)

다음으로 문화의 집을 대상으로 9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요도의 평균은 7.21이고 성과의 평균은 6.51이다. 역시 이 두 값에 따라 네 개의 영역 구분이 이루어졌고, 각 영역별로 해당 과제가 포함되었다. <그림 VI-13>은 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영역별 해당 과제를 보면, 유지강화 영역에는 총 2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 ‘예산편성 시 시설의 특성반영’이 그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과제들은 중요성이 높으면서 동시에 성과도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계속 유지강화 될 필요가 있다.

중점 개선 영역에도 총 2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인력의 전문성’,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이 그에 해당한다. 이 과제는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낮은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점진 개선 영역에는 총 1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인력 규모’가 그에 해당한다. 중요도도 낮고 성과도 낮은 경우로서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 과제이다.

지속 유지 영역에는 총 2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프로그램의 규모’와 ‘예산의 규모’가 그에 해당한다. 이 과제는 중요도는 낮으나 성과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류되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림 VI-13.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에 대한 IPA 결과: 문화의 집(성남시)

보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9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요도의 평균은 7.39이고 성과의 평균은 6.61이다. 역시 이 두 값에 따라 네 개의 영역 구분이

이루어졌고, 각 영역별로 해당 과제가 포함되었다. <그림 VI-14>는 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영역별 해당 과제를 보면, 유지강화 영역에는 총 3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인력의 전문성’,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 ‘예산편성 시 시설의 특성반영’이 그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과제들은 중요성이 높으면서 동시에 성과도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계속 유지강화 될 필요가 있다.

중점 개선 영역에는 총 1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이 그에 해당한다. 이 과제는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낮은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점진 개선 영역에도 총 1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인력 규모’가 그에 해당한다. 중요도도 낮고 성과도 낮은 경우로서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 과제이다.

지속 유지 영역에는 총 2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프로그램의 규모’와 ‘예산의 규모’가 그에 해당한다. 이 과제는 중요도는 낮으나 성과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류되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림 VI-14.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에 대한 IPA 결과: 보호복지(성남시)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거버넌스에 대해 9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요도의 평균은 7.22이고 성과의 평균은 6.48이다. 이 두 값에 따라 네 개의 영역구분이 이루어졌고, 각 영역별로 해당 과제가 포함되었다. <그림 VI-15>는 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영역별 해당 과제를 보면, 유지강화 영역에는 총 2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의 다양성’, ‘지역 연계 협업 사업의 활성화 정도’가 그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과제들은 중요성이 높으면서 동시에 성과도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계속 유지강화 될 필요가 있다.

중점 개선 영역에도 총 2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새로운 지역사회 네트워크 발굴 노력도’, ‘지역 연계 협업 사업 종류의 다양성’이 그에 해당한다. 이 과제는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낮은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점진 개선 영역에는 총 1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 결과의 정책수용성’이 그에 해당한다. 중요도도 낮고 성과도 낮은 경우로서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 과제이다.

지속 유지 영역에는 총 3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규모’,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의 적극성’, ‘지역 연계 협업 사업의 발굴 노력도’가 그에 해당한다. 이 과제들은 중요도는 낮으나 성과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류되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림 VI-15 지역사회 거버넌스에 대한 IPA 결과(성남시)

(3) 성남시 지역 청소년전문가(재단 외) 대상 IPA 분석 결과

성남시 지역 청소년전문가를 대상으로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전략과 개선과제의 중요도-성과에 대한 설문도 진행하였다. 우선 사회변화 대응에 대해 9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요도의 평균은 7.58이고 성과의 평균은 4.63이다. 이 두 값에 따라 네 개의 영역 구분이 이루어졌고, 각 영역별로 해당 과제가 포함되었다. <그림 VI-16>은 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각 영역별 해당 과제를 보면, 우선 유지강화 영역에는 총 1개의 대응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사회변화’가 그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대응 과제는 중요성이 높으면서 동시에 성과도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계속 유지강화 될 필요가 있다.

중점 개선 영역에도 총 1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교육변화’가 그에 해당한다. 이 대응 과제는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낮은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향후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대상이다. 특히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전략과 개선과제 도출과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과제이다.

점진 개선 영역에는 총 2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경제변화’, ‘청소년정책 변화’가 그에 해당한다. 중요도도 낮고 성과도 낮은 경우로서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 과제이다.

지속 유지 영역에도 총 2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인구변화’, ‘기술변화’가 그에 해당한다. 이 과제는 중요도는 낮으나 성과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류되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림 VI-16. 사회변화 대응에 대한 IPA 결과(지역)

다음으로 성남시 제3차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9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요도의 평균은 7.55이고 성과의 평균은 5.44이다. 이 두 값에 따라 네 개의 영역 구분이 이루어졌고, 각 영역별로 해당 과제가 포함되었다. <그림 VI-17>은 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각 영역별 해당 과제를 보면, 유지강화 영역에는 총 2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대상 현안별 맞춤 서비스 제공’, ‘적극적인 청소년 권리 보장’이 그에 해당된다. 성남시 제3차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이에 대한 과제들은 중요성이 높으면서

동시에 성과도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 유지강화 될 필요가 있다.

중점 개선 영역에는 총 2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지역사회 청소년 플랫폼 기능 강화’, ‘청소년 지원 거버넌스 형성’이 그에 해당한다. 이 과제는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낮은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점진 개선 영역에는 총 1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 주도 시민 핵심 역량 강화’가 그에 해당한다. 중요도도 낮고 성과도 낮은 경우로서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 과제이다.

지속 유지 영역에는 총 2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재단 경영’,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이 그에 해당한다. 이 과제는 중요도는 낮으나 성과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류되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림 VI-17. 성남시 제3차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IPA 결과(지역)

그리고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에 대한 중요도-성과 분석도 실시하였다. 성남시 청소년전문가 대상의 조사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수련관, 문화의 집, 보호복지시

설로 나누어서 조사되었다. 우선 수련관을 대상으로 하여 9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요도의 평균은 7.42이고 성과의 평균은 6.28이다. 이 두 값에 따라 네 개의 영역 구분이 이루어졌고, 각 영역별로 해당 과제가 포함되었다. <그림 VI-18>은 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영역별 해당 과제를 보면, 유지강화 영역에는 총 3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인력의 전문성’,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이 그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과제들은 중요성이 높으면서 동시에 성과도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계속 유지강화 될 필요가 있다.

중점 개선 영역에는 총 1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예산편성 시 시설의 특성 반영’이 그에 해당한다. 이 과제는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낮은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점진 개선 영역에는 총 3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인력 규모’, ‘프로그램의 규모’, ‘예산의 규모’가 그에 해당한다. 중요도도 낮고 성과도 낮은 경우로서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 과제이다. 한편, 지속 유지 영역에 해당하는 과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I-18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에 대한 IPA 결과: 수련관(지역)

다음으로 문화의 집을 대상으로 9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요도의 평균은 7.27이고 성과의 평균은 5.73이다. 역시 이 두 값에 따라 네 개의 영역 구분이 이루어졌고, 각 영역별로 해당 과제가 포함되었다. <그림 VI-19>는 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영역별 해당 과제를 보면, 유지강화 영역에는 총 2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인력의 전문성’,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이 그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과제들은 중요성이 높으면서 동시에 성과도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계속 유지강화 될 필요가 있다.

중점 개선 영역에도 총 2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예산편성 시 시설의 특성 반영’,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이 그에 해당한다. 이 과제는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낮은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점진 개선 영역에는 총 1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예산의 규모’가 그에 해당한다. 중요도도 낮고 성과도 낮은 경우로서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 과제이다.

지속 유지 영역에는 총 2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프로그램의 규모’와 ‘인력 규모’가 그에 해당한다. 이 과제는 중요도는 낮으나 성과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류되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림 VI-19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에 대한 IPA 결과: 문화의 집(지역)

보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9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요도의 평균은 7.64이고 성과의 평균은 5.44이다. 역시 이 두 값에 따라 네 개의 영역 구분이 이루어졌고, 각 영역별로 해당 과제가 포함되었다. <그림 VI-20>은 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영역별 해당 과제를 보면, 유지강화 영역에는 총 2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인력의 전문성’,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이 그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과제들은 중요성이 높으면서 동시에 성과도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계속 유지강화 될 필요가 있다.

중점 개선 영역에는 총 2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예산편성 시 시설의 특성 반영’,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이 그에 해당한다. 이 과제들은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낮은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점진 개선 영역에도 총 2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인력 규모’, ‘예산의 규모’가 그에 해당한다. 중요도도 낮고 성과도 낮은 경우로서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 과제들이다.

지속 유지 영역에는 총 1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프로그램의 규모’가 그에 해당한다. 이 과제는 중요도는 낮으나 성과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류되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림 VI-20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에 대한 IPA 결과: 보호복지(지역)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거버넌스에 대해 9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요도의 평균은 7.58이고 성과의 평균은 6.09이다. 이 두 값에 따라 네 개의 영역 구분이 이루어졌고, 각 영역별로 해당 과제가 포함되었다. <그림 VI-21>은 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영역별 해당 과제를 보면, 유지강화 영역에는 총 3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의 다양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의 적극성’, ‘지역 연계 협업 사업의 활성화 정도’가 그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과제들은 중요성이 높으면서 동시에 성과도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계속 유지강화 될 필요가 있다.

중점 개선 영역에도 총 2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 결과의 정책수용성’, ‘새로운 지역사회 네트워크 발굴 노력도’가 그에 해당한다.

이 과제들은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낮은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점진 개선 영역에는 총 1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지역 연계 협업 사업의 활성화 정도’가 그에 해당한다. 중요도도 낮고 성과도 낮은 경우로서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 과제이다.

지속 유지 영역에는 총 2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규모’, ‘지역 연계 협업 사업의 발굴 노력도’가 그에 해당한다. 이 과제들은 중요도는 낮으나 성과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류되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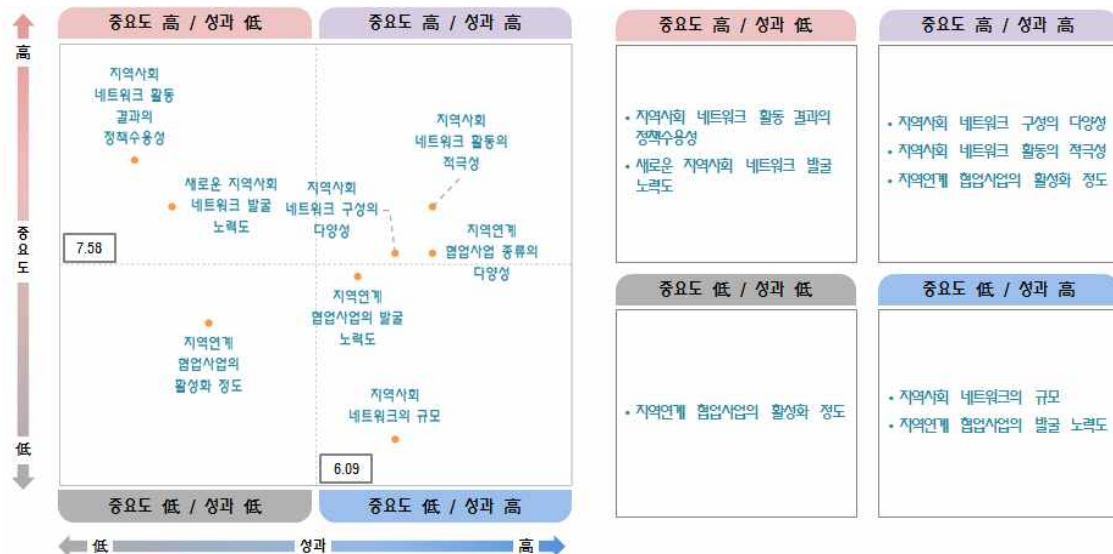


그림 VI-21 지역사회 거버넌스에 대한 IPA 결과(지역)

(4) 전국 청소년전문가 IPA 분석 결과

중요도-성과에 대한 설문은 전국 범위의 청소년전문가를 대상으로도 진행하였다. 우선 사회변화 대응에 대해 9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요도의 평균은 7.30이고 성과의 평균은 4.01이다. 이 두 값에 따라 네 개의 영역 구분이 이루어졌고, 각 영역별로 해당 과제가 포함되었다. <그림 VI-22>는 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각 영역별 해당 과제를 보면, 우선 유지강화 영역에는 총 2개의 대응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사회변화’와 ‘교육변화’가 그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대응 과제들은 중요성이 높으면서 동시에 성과도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계속 유지강화 될 필요가 있다.

중점 개선 영역에는 총 1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인구변화’가 그에 해당한다. 이 대응 과제는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낮은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향후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대상이다.

점진 개선 영역에는 총 2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기술변화’와 ‘경제변화’가 그에 해당한다. 중요도도 낮고 성과도 낮은 경우로서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 과제이다.

지속 유지 영역에도 총 1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 정책 변화’가 그에 해당한다. 이 과제는 중요도는 낮으나 성과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류되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림 VI-22 사회변화 대응에 대한 IPA 결과(전국)

다음으로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에 대한 중요도-성과 분석도 실시하였다. 먼저 수련관을 대상으로 하여 9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요도의 평균은 7.30이고 성과의 평균은 5.46이다. 이 두 값에 따라 네 개의 영역 구분이 이루어졌고, 각 영역별로 해당 과제가 포함되었다. <그림 VI-23>은 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영역별 해당 과제를 보면, 유지강화 영역에는 총 2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인력의 전문성’,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이 그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과제들은 중요성이 높으면서 동시에 성과도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계속 유지강화 될 필요가 있다.

중점 개선 영역에는 총 3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예산의 규모’, ‘예산편성 시 시설의 특성반영’,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이 그에 해당한다. 이 과제들은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낮은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향후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대상이다.

점진 개선 영역에는 총 1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인력 규모’가 그에 해당한다. 중요도도 낮고 성과도 낮은 경우로서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 과제이다.

지속 유지 영역에는 총 1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프로그램의 규모’가 그에 해당한다. 이 과제는 중요도는 낮으나 성과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류되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림 VI-23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에 대한 IPA 결과: 수련관(전국)

다음으로 문화의 집을 대상으로 9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요도의 평균은 7.07이고 성과의 평균은 5.34이다. 역시 이 두 값에 따라 네 개의 영역 구분이 이루어졌고, 각 영역별로 해당 과제가 포함되었다. <그림 VI-24>는 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영역별 해당 과제를 보면, 유지강화 영역에는 총 2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인력의 전문성’,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이 그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과제들은 중요성이 높으면서 동시에 성과도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계속 유지강화 될 필요가 있다.

중점 개선 영역에도 총 1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예산편성 시 시설의 특성 반영’이 그에 해당한다. 이 과제는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낮은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점진 개선 영역에는 총 2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예산의 규모’와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이 그에 해당한다. 중요도도 낮고 성과도 낮은 경우로서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 과제이다.

지속 유지 영역에는 총 2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인력 규모’, ‘프로그램의 규모’가 그에 해당한다. 이 과제는 중요도는 낮으나 성과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류되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림 VI-24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에 대한 IPA 결과: 문화의 집(전국)

보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9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요도의 평균은 7.38이고 성과의 평균은 5.02이다. 역시 이 두 값에 따라 네 개의 영역 구분이 이루어졌고, 각 영역별로 해당 과제가 포함되었다. <그림 VI-25>는 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영역별 해당 과제를 보면, 유지강화 영역에는 총 3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인력의 전문성’,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이 그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과제들은 중요성이 높으면서 동시에 성과도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계속 유지강화 될 필요가 있다.

중점 개선 영역에는 총 2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예산의 규모’, ‘예산편성 시 시설의 특성반영’이 그에 해당한다. 이 과제들은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낮은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점진 개선 영역에도 총 1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인력 규모’가 그에 해당한다. 중요도도 낮고 성과도 낮은 경우로서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 과제이다.

지속 유지 영역에는 총 1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프로그램의 규모’가 그에 해당한다. 이 과제는 중요도는 낮으나 성과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류되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림 VI-25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에 대한 IPA 결과: 보호복지(전국)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거버넌스에 대해 9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요도의 평균은 7.22이고 성과의 평균은 6.48이다. 이 두 값에 따라 네 개의 영역 구분이 이루어졌고, 각 영역별로 해당 과제가 포함되었다. <그림 VI-26>은 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영역별 해당 과제를 보면, 유지강화 영역에는 총 2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의 다양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의

적극성'이 그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과제들은 중요성이 높으면서 동시에 성과도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계속 유지강화 될 필요가 있다.

중점 개선 영역에도 총 2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 결과의 정책수용성'과 '지역 연계 협업 사업의 활성화 정도'가 그에 해당한다. 이 과제들은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낮은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대상들이다.

점진 개선 영역에는 총 3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새로운 지역사회 네트워크 발굴 노력도', '지역 연계 협업 사업 종류의 다양성', '지역 연계 협업 사업의 발굴 노력도'가 그에 해당한다. 중요도도 낮고 성과도 낮은 경우로서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 과제들이다.

지속 유지 영역에는 총 1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규모'가 그에 해당한다. 이 과제는 중요도는 낮으나 성과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류되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림 IV-26 지역사회 거버넌스에 대한 IPA 결과(전국)

(5) 지역(구)별 시사점

1) 수정구

재단 소속의 청소년전문가 대상의 IPA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구변화’는 중점개선 영역에 해당하는 과제이다. 이는 주로 인구감소 경향에 대응하는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말해주지만, 동시에 수정구와 같이 다소의 인구증가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과 결국 이 지역 역시 향후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는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실제로 재단 외 지역 청소년전문가 대상의 IPA 결과에서 중점개선 영역으로 제시된 ‘예산편성 시 시설의 특성반영’과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은 지역별 추진체계 구축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전략의 중요성이 고려될 수 있음을 점을 보여준다. 비록 단기간의 추세라고 해도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과 법제도 등의 뒷받침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2) 중원구

중원구는 청소년 인구 감소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재단 소속의 청소년전문가들이 IPA 결과에서 중점개선 영역 과제로 제시한 ‘인구변화’를 인구감소 폭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성남시 제3차 중장기 발전계획에서는 ‘청소년 지원 거버넌스 형성’, 그리고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의 경우에는 ‘인력의 전문성’과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 또 지역사회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지역사회 네트워크 발굴 노력도’와 ‘지역 연계 협업 사업 종류의 다양성’ 등의 개선을 인구감소 폭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재단 외 지역 청소년전문가들이 지역사회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 결과의 정책수용성’과 ‘새로운 지역사회 네트워크 발굴 노력도’ 등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3) 분당구

분당구는 다른 구와 비교할 때 청소년인구 비율이 높고 그 감소 폭도 적은 편이다. 따라서 재단 소속의 청소년전문가 대상의 IPA 결과에서 중점개선 영역으로 제시된 과제들도 여기에 부합하는 형태로 개선되어야 한다.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청소년인구 수와 낮은 감소 폭을 고려하고, 지역별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구성에서도 ‘인력의 전문성’과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도 그에 부합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거버넌스에서 중점개선 과제로 제시된 ‘새로운 지역사회 네트워크 발굴 노력도’와 ‘지역 연계 협업 사업 종류의 다양성’도 마찬가지다. 재단 외 지역청소년 전문가들이 성남시 제3차 중장기 발전계획 중 ‘지역사회 청소년 플랫폼 기능 강화’와 ‘청소년 지원 거버넌스 형성’을 중점개선 영역으로 강조하고 있는 점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청소년인구에 따라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는 분당구의 높은 자살률과 관련해서 볼 때 사회안전망 구축과도 연계되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 **Ⅶ.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운영 모델과 핵심사업을 통한 개선전략 제언**

- 1.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세부전략에 대한
전문가 의견 심층분석
- 2.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20대 세부전략에
대한 IPA분석
- 3. 미래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략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운영 모델과 핵심사업을 통한 개선전략 제언

1.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세부전략에 대한 전문가 의견 심층분석

1)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세부전략에 대한 청소년 의견 심층 분석

코로나 사태 이후의 성남시 청소년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시내 청소년 33명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성남시 5개 수련관과 2개 청소년문화의집의 청소년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들 중 총 33명이 조사에 응답하였으며 응답자 분포는 다음의 [표 VII-1]과 같다. 응답자 총 33명 중 남성 11명, 여성 22명이 응답하였으며, 중학생 13명, 고등학생 15명 자퇴 및 기타가 5명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비율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VII-1.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청소년 의견 응답자 분포

(단위: 명)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자퇴	[기타]	총합계
서현청소년수련관	-	1	1	-	2
남	-	-	-	-	-
여	-	1	1	-	2
야탑청소년수련관	2	2	-	1	5
남			-	1	1
여	2	2	-	-	4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	4	-	1	5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자퇴	[기타]	총합계
남	-	2	-	-	2
여	-	2	-	1	3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2	4	-	1	7
남	1	2	-	-	3
여	1	2	-	1	4
정자청소년수련관	5	1	-	1	7
남	2	1	-	-	3
여	3	-	-	1	4
중원청소년수련관	2	3	-		5
남	1	-	-	-	1
여	1	3	-	-	4
판교청소년수련관	2	-	-	-	2
남	1	-	-	-	1
여	1	-	-	-	1
총합계	13	15	1	4	33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청소년 삶 전반에서 달라진 긍정적인 영향은 가정, 학교생활, 기타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 가정생활에서의 긍정적 변화는 주로 가족과 대면할 시간이 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더 나아가서 가정의 화목함이 증진되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VII-2. 코로나 이후 가정생활의 긍정적 변화

(단위: 명, %)

구분	응답자수	비율
가정의 화목함	5	15.2%
가족 간 대면 횟수 증가	23	69.7%
기타	2	6.1%
모름 또는 없음	3	9.1%
총계	33	100.0%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가족 간 대면 기회 확대는 식사시간, 대화시간 등이 증가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가정의 화목함 증진과 관련해서는 학생의 원격수업, 부모님의 재택근무로 인해 함께하는 시간이 늘면서 대화의 빈도가 높아짐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정이 화목해진 것을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과는 상관 없는 답변으로 개인환경이 변화하였다는 기타 응답과 크게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 이후 학교생활의 긍정적 변화는 원격수업을 통해 교통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고 편리하다는 응답과, 원격수업으로 인해 복습을 할 수 있어 학업의 효율성이 제고되었다는 응답이 있었다. 또는 오히려 부정적인 경향이 있다는 의견이나 개인 위생적 측면에서의 변화가 기타로 나타나고 있으며 모르거나 없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소수의견이지만 모둠활동, 학교 출석 등이 보다 더 즐겁게 느껴진다는 의견도 약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3. 코로나 이후 학교 생활의 긍정적 변화

(단위: 명, %)

구분	응답자수	비율
원격수업의 편의성	7	21.2%
학업능력 증진	7	21.2%
학교생활의 즐거움 체감	3	9.1%
기타	7	21.2%
모름 또는 없음	9	27.3%
총계	33	100.0%

기타 긍정적인 변화로는 개인의 위생이나 보건 부문에 보다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시간적 여유 확보와 개인 시간의 자율적 활용이 가능해져 자기계발이나 취미활동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는 의견이 약 21.2%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온라인 모임이 활성화, 이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감소한 것 등이 제시되었다.

표 Ⅶ-4. 코로나 이후 학교 생활의 긍정적 변화

(단위: 명, %)

구분	응답자수	비율
보건 및 위생의식 강화	10	30.3%
시간의 자율적 활용	7	21.2%
가족과의 시간 증진	2	6.1%
기타	7	21.2%
모름 또는 없음	7	21.2%
총계	33	100.0%

한편, 코로나 이후의 가정, 학교, 기타 부문에서의 부정적인 변화를 살펴본 결과, 가정생활의 부정적 변화는 기타나 무응답 유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가족여행, 취미활동 공유 등의 여가시간이 감소하거나, 가족 간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다툼이나,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업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체감하는 학생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5. 코로나 이후 가정 생활의 부정적 변화

(단위: 명, %)

구분	응답자수	비율
가족간 불화 및 스트레스	3	9.1%
재정여건 악화	1	3.0%
가족의 여가시간 감소	5	15.2%
학업능력 저하	1	3.0%
기타	13	39.4%
모름 또는 없음	10	30.3%
총계	33	100.0%

학교생활과 관련해서는 학업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는 학생들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의 대면수업에 비해 비대면수업이 집중도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 수업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

다. 한편, 응답자 중 약 30.3%가 학교에 나가지 못함으로써 친구들과 만남이 적어지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6. 코로나 이후 학교 생활의 부정적 변화

(단위: 명, %)

구분	응답자수	비율
학업생활의 어려움	19	57.6%
친교활동의 저하	10	30.3%
기타	2	6.0%
모름 또는 없음	2	6.1%
총계	33	100.0%

코로나 이후 부정적 변화에 대한 기타의견으로는 거리두기로 인한 야외활동 제한으로 스트레스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36.4%로 가장 높았으며, 마스크로 인한 불편함, 친구들과의 만남 저하,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불편함 등이 각 4명씩 응답하였다. 또한 기타 의견으로는 “게을러진다”, “기분이 다운된다” 등 감정적인 측면이나 생활습관에서의 부정적인 변화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7. 코로나 이후 기타 생활의 부정적 변화

(단위: 명, %)

구분	응답자수	비율
마스크 등으로 불편함	4	12.1%
야외활동, 여가활동 저하	12	36.4%
친교활동 저하	4	12.1%
온라인 수업의 불편함	4	12.1%
기타	7	21.2%
모름 또는 없음	2	6.1%
총계	33	100.0%

한편,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할 경우 필요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은 대면으로 소규모 활동 프로그램을 온라인 프로그램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방역 수칙에 따라 인원 제한을 둔 청소년 학업 공간, 취미활동 공간 등 분리형 공간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 또한 24.2%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재정 및 복지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응답과 운동이나 체력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소수 존재했다. 기타 응답으로는 자가격리 상담시설이나 코로나 확진 시 대처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응답이 나타났다.

표 Ⅶ-8.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단위: 명, %)

구분	응답자수	비율
재정지원	2	6.1%
운동 및 체력지원	3	9.1%
소규모 활동 프로그램(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프로그램 확대	9	27.3%
방역수칙에 준한 공간 지원	8	24.2%
기타	4	12.1%
모름 또는 없음	7	21.2%
총계	33	100.0%

한편,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할 경우 필요한 청소년 보호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은 심리상담 등 개인의 우울감과 무기력함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심리상담프로그램이 48.5%로 상당 수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수의견으로는 재정 및 보조금 지원, 자기계발,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업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학습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존재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진로상담 프로그램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대면, 비대면 방식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식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 Ⅶ-9.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청소년 보호복지 프로그램

(단위: 명, %)

구분	응답자수	비율
심리상담 등 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16	48.5%
학업 지원 프로그램	2	6.1%
재정 및 복지지원	3	9.1%
자기계발 프로그램	2	6.1%
기타	2	6.1%
모름 또는 없음	8	24.2%
총계	33	100.0%

종합하면, 청소년들은 가정 및 학교생활에 있어서 긍정적, 부정적 경험을 모두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증가하여 가정의 화목함이 증진된 반면, 가족구성원간 갈등, 불화를 동시에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생활에 있어서는 학습의 편의성, 학습 시간 확보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있으나, 온라인 학습 시 집중도 저하 등의 부정적 변화 또한 나타나고 있다. 즉, 비대면 수업확대로 인한 학습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에서 거리두기로 인한 여가활동, 취미활동 등이 제한받고 있다는 점이 부정적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의 해결방안으로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은 오프라인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운영에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비대면 청소년서비스 플랫폼의 구축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포스트코로나시대에 청소년들의 학습, 여가, 취미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 보호복지프로그램은 개인의 우울감, 정서적 안정감 등을 제고할 수 있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확대와 관련하여 정책적 고려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 필요해 보인다.

2)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세부전략에 대한 전문가 의견(성남시) 심층분석

포스트코로나와 같은 환경적 변화를 겪고 있는 청소년시설에서 추진하여야 할 신규사업은 아동, 청소년, 청년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아동을 대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는 4차산업(VR, 메타버스)에 대한 체험공간을 운영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교우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을 고려해 신체활동과 학습을 연계한 활동이나 야외활동이 다수 제시되었다. 이 외에도 돌봄사업, 미디어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이 제시되었다.

청소년은 주로 진로와 관련된 응답이 다수 차지하고 있는데 진로상담과 체험프로그램 운영,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기술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비대면 활동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 외에도 청소년들의 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 서비스 강화(고민 및 진로상담, 학업 스트레스 관리, 자아존중감 증진), 자기주도학습 코칭 등이 제시되었으며, 지역사회와 공동체 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봉사, 환경보호활동 등을 발굴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소수 존재했다.

향후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추진이 필요한 청년 대상 사업은 주로 취·창업 지원 사업이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청년들이 공동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프로젝트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젝트 등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며, 자립 촉진 지원사업 등이 제시되었다. 이 외에도 진로, 심리 상담서비스와 생애설계서비스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성남시 전문가의 응답 중 주목할만한 점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측면을 다소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필요한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주제는 기후변화, 환경보호 활동 등이며, 아동이나 청년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확대, SDGs에 대한 개념을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Ⅶ-10. 성남시 전문가 심층분석 주요 분석결과(신규사업 발굴)

아동	청소년	청년
4차산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간 운영) 돌봄사업 사회성 및 인성 증진 사업 신체 및 야외활동	진로체험 및 설계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프로그램 비대면 활동 사업 및 플랫폼 구축 상담 서비스 자기주도 학습 코칭 프로그램 지역사회 및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취창업역량 강화 및 지원 - 인턴십 - 창업 지원 및 멘토링 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 자립 역량 강화사업 생애 설계 상담 서비스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시설의 조직, 혁신, 경영 측면에서의 변화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우선 청소년 시설의 조직 측면에서의 변화에 대해서 성남시 전문가들은 주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조직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대면 사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 하에 선제적으로 수요파악을 통해 신규 사업을 개발하고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주로 제시되었다. 한편, 소수의 응답자들은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성과관리시스템의 체계화, 조직문화의 유연화,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등과 같은 인적자원관리 등을 제안하였다.

혁신변화의 측면에서는 시설의 공간 재구조화와 관련된 의견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시설 내 공간의 전산화를 통해 이용시간을 설정하여 공간 이용자들의 접근 제고성 및 편의성을 높이고, 개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청소년 활동 및 학습 공간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주로 존재하고 있다. 특히, 공간에 있어서는 온라인 활동이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되며, 온라인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플랫폼 구축 등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경영변화에 있어서는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여 연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플랫폼을 구축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주로 제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남 지역 내 IT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온라인 프로그램, 특화사업의 운영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복서비스를 최소화하며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의 플랫폼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였다. 한편, 시설별 경쟁을 추구하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특화된 사업을 주력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타났다.

표 Ⅶ-11. 성남시 전문가 심층분석 주요 분석결과

조직변화	혁신변화	경영변화
조직구조개편 수요변화 예측에 따른 사업 개편 비대면사업 다변화 및 질적 제고 성과관리 체계화 인적자원관리	시설(공간)의 전산화 및 개방 활동 공간 및 학습공간의 인프라 확대 온라인활동체계 구축 예산 확보 플랫폼 구축 공간 마련	지역 내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 연계 강화 시설 특성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 플랫폼 구축

한편, 재단 외 청소년 전문가에게 대상별 신규 사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유사한 응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경우 직업체험을 통해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고, 코로나로 인해 대면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4차산업과 관련한 교육(AI)에 대한 의견도 나타났다.

청소년 대상의 사업은 진로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직업유형검사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진로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타났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청년 대상 사업의 경우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제시되었으며, 실질적으로 개인의 사회독립과 자립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자기 주도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심리 및 정서안정 지원 사업 등이 제시되었다.

표 Ⅷ-12. 재단 외 전문가 심층분석 주요 분석결과(신규사업 발굴)

아동	청소년	청년
직업 체험 프로그램 사회성 및 인성 증진 사업 4차산업 교육 프로그램	진로체험 및 설계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 프로그램 지역사회 및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취창업역량 강화 및 지원 자립역량 강화 사업 심리 및 정서안정 지원

한편, 청소년시설의 조직, 혁신, 경영 측면에서 이루어야 할 변화에 대한 응답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조직변화와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사업 수요를 선제적으로 기획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어 성남시 전문가와 유사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도자 역량 강화와 더불어 인적 자원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 관련 단체와 종사자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구축하고, 재단-시설 간 협력 체계 구축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혁신변화와 관련해서는 방과 후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설 내 공간 확대와 더불어 온라인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급자 중심의 사업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서비스 수요조사를 위한 전담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민관협력체계 구축과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 내 공간을 확대하는 방안 외에도 지역

내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한편, 정신적 질환을 겪는 청소년을 위한 치료형 쉼터와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또한 복지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경영변화와 관련해서는 동영상에 익숙한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멀티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거나, 청소년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시설과 재단의 협조체계 강화,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표 Ⅶ-13. 재단 외 전문가 심층분석 주요 분석결과

조직변화	혁신변화	경영변화
수요자 의견 수렴에 따른 사업 기획 지도자 역량 강화 및 인적자원 관리 관련 단체 및 종사자 네트워크 형성 재단과 시설간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시설 내 공간 확대 방과후 활동 온라인 교육 인프라 구축 청소년 서비스 수요조사 전담 조직 설치 민관협력체계구축 지역 내 유희공간 활용 (공간나눔) 치료형쉼터(조현병, 양극성 장애 등) 및 청소년 일자리 창출	멀티미디어 플랫폼 구축 및 활용 통합 플랫폼 구축 시설 특성화(시범사업) 시설-재단의 협조 강화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 강화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다함께돌봄센터)

3)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세부전략에 대한 전문가 의견(전국) 심층분석

미래사회에 필요한 청소년시설의 신규 사업은 아동, 청소년, 청년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아동대상의 사업은 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교육활동, 돌봄사업 확대, 사회성 및 인성증진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응답이 가장 많게 나타났고, 간헐적으로 상담서비스와 야외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타났다.

청소년대상 사업의 경우 미래사회 진로체험과 설계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4차 산업환경 관련 프로그램과 더불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시민교육

이나 참여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응답이 있었다. 또한 비대면으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도 소수 응답하였다.

청년대상의 경우 직업을 보다 생생히 체험하거나, 사회생활을 경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교육활동이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가치 관심을 제고하거나,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발굴 등에 대한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과 부모로부터의 자립지원사업 등에 대한 의견이 나타났다.

표 VII-14. 전국 전문가 심층분석 주요 분석결과(신규사업 발굴)

아동	청소년	청년
돌봄활동 4차 산업혁명 관련 프로그램 - 미래직업세계 지원, 디지털리터러시 증진, 코딩 교육 등 사회성 및 인성 증진 사업 상담 서비스 심리지원 및 진로 신체 및 야외활동	진로체험 및 설계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프로그램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 지역사회문제해결(도시재생), 민주시민교육, 정치 참여 등 온라인 활동 프로그램	직업활동 및 사회 체험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프로그램 사회적 가치 관심 제고 - 지역사회 내 문제 해결 프로젝트 수행 자립 역량 강화사업 공간지원

한편, 혁신변화에 대해서는 비대면 프로그램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이를 위한 플랫폼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운영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전략 수립과 더불어 지도자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이 제시되었다. 이 외에도 원격돌봄지원센터, 긴급돌봄, 종일학교 등을 운영하고, 취약계층이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거나 시설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경영활동 측면에서 필요한 변화는 청소년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조직 및 인력 구조를 개편이

수반될 필요성과 통합 관리센터를 구축하여 시설 간 중복 기능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수 보이고 있다. 또한, 경영평가 및 환류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과 사업 또는 기관 간의 시스템 연계, DB구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예산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회 및 공동체에 기반한 프로그램 운영(인턴십),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사회와의 실질적인 연대 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지역연계 프로그램이 발굴될 필요가 있다는 응답들도 다수 존재했다.

한편,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들은 시에서 제공하는 청소년서비스의 사회적 가치 실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의 공간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특화시설을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최근의 환경변화에 따른 디지털 격차, 온라인 범죄 및 비행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온라인 프로그램의 확대와 더불어 전담인력의 확보 및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역 내 학교 및 대학 등의 기관과 협력함으로써 청소년 진로교육의 내실을 강화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청소년지도자의 행정업무 경감을 통해 활동의 효과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 우수사례에 대한 공유를 활성화하여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표 VII-15. 전국 전문가 심층분석 주요 분석결과

혁신변화	경영변화
비대면 프로그램 확대 및 플랫폼 구축 비대면 프로그램의 질 제고 - 지도자 역량 강화 돌봄 서비스 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 내 공간 마련	수요자 중심의 조직 및 인력구조 개편 성과관리 강화 DB구축 관련 예산확대 지역연계 강화를 통한 프로그램 기획 취약계층 지원 법제도 정비

4) 전문가 의견 심층분석결과 종합

본 연구에서는 전국, 성남시, 재단 외 전문가와 같은 세 가지 그룹으로 구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하였다.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미래사회에 도래할 환경변화를 고려한 결과로서 성남시 조직변화, 사업변화, 혁신변화, 경영변화 등의 4개 전략 및 20대 세부전략에 이를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전문가 심층분석결과와 성남시 20대 세부전략 간 연계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 VII-16]과 같다.

전반적으로 전국그룹의 경우 대부분의 전략에 해당하는 의견들이 상세하게 답변되었으며, 성남시 전문가, 재단 외 전문가 순으로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그룹의 응답자가 타 그룹에 비해 수가 많은 것도 있으나 보다 거시적인 관점을 갖고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응답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성남시 전문가들의 의견은 지역의 상황을 보다 상세하게 알고 있다는 점에서 제시되는 의견이 보다 구체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략별로 살펴보면 조직변화와 관련해서는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조직이 변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국, 성남, 재단 외 전문가 모두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로 청소년들이 바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참여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의견수렴 또는 수요조사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직 구조상의 변화도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통합 관리를 위한 센터 및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존재했다.

사업의 성과관리와 관련해서는 사업평가나 경영평가를 통한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성과관리시스템의 체계화 등이 제시되었다. 청소년 서비스와 관련된 DB구축은 전국그룹에서 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사업별 또는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과 더불어 재단 외 전문가 그룹은 청소년서비스에 대한 개별적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수요자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한편, 코로나 이후 온라인 교육, 활동 등이 증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전망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세 그룹에서 모두 제시되었다. 전국 전문가그룹에서는 원격돌봄지원센터나 온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등으로 구체화한 실행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성남시 전문가와 재단 외 전문가는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개괄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변화의 세부전략을 살펴보면, 아동, 청년 등에 대한 예산 증액과 관련된 의견은 대상별로 구체화하여 제시되지는 않았다. 다만, 전국그룹에서는 특정 대상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확대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성남시 전문가들 또한 온라인 활동을 위한 예산이 증대될 필요성을 제기할 뿐 아동 또는 청년으로 대상을 명확히 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의 산업시설과 연계한 청년일자리 정보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 내 자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성남시 전문가들의 의견만이 등장하였는데, 판교 IT기업과의 연계프로그램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시된 의견은 정보지원사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역 내 산업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성격이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신기술 대응 관련 사업발굴과 관련해서는 전국 및 성남시 전문가 그룹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할 것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고, 향후 변동될 직업에 대한 소개, 체험 등의 프로그램 또한 성남시 전문가 그룹에서 제시하였다.

지역사회 청소년서비스 자원과의 연계사업발굴과 관련해서는 재단 외 전문가 그룹은 지역 내 다양한 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전국그룹은 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학교교육과의 연계)과 은퇴전문가 활용, 지역사회 연계 인턴십을 학교 진학 전(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입학 전)에 도입하여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혁신변화와 관련해서는 청소년 사업의 사회적 가치 강화에 의견이 다수 제시된 측면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확대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발굴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한편,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는 선제적으로 사업을 발굴할 필요성과 더불어 양적 측면 외 질적 제고를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전국 전문가와 성남시 전문가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사한 측면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인해 대두된 학습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 내 인프라를 구축하고, 온라인교육의 학습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나타났다.

또한, 비대면 사업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청소년시설의 공간을 리모델링하거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전문가 그룹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유휴공간이나 기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산화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이 외에도 방과 후 활동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방역 지침에 준수할 수 있는 소규모 활동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규모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시설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의견들도 존재했다.

경영변화와 관련해서 법·제도적 정비에 전국 전문가 그룹에서만 의견을 제시하

였다. 전반적으로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에 대한 의견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범죄나 비행 예방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디지털 디바이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 등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한 의견들이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자의 역량 강화의 필요성은 모든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전략과 전문가 의견 간 연계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역량 강화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서비스와 관련된 역량 강화, 동기유발을 위한 인적자원관리 등이 제시되었다.

민/재단 협업 강화와 관련해서는 청소년사업에 초점을 맞춘 의견들이 제시되었는데 추진체계의 네트워크 강화,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유관기관별 네트워크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서술된 의견에는 민간과의 협업보다는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참여하는 관계자 간 네트워크 강화로 표현된 의견들이 주로 제시되어 민/재단 협업 강화를 정확하게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 내 기업 또는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자는 의견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기도 하였으며,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 재단 등이 참여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전반적으로 민간과 재단 간 협업을 강화를 내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문제해결과 관련해서는 전국 및 성남 전문가 그룹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성남 전문가 그룹은 주로 지역사회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환경, SDG's 교육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종합하면, 성남시 20대 세부전략과 전문가 의견은 주로 연계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몇몇 전략은 연계성이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년정책 전담부서 설치 및 기능강화,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지역형 플랫폼 개발, 청년사업에 대한 민/재단 협업 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이는 청년 사업에 대한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Ⅶ-16. 성남시 20대 세부전략과 심층분석 결과 연계

전략		전국	성남	재단 외 전문가
조직 변화	A-1)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조직의 변화	프로그램의 차별화 강화 및 전문가 채용 프로그램 질 제고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구조 개편 통합 관리센터 구축	인구구성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기획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수요 대응이 가능한 조직 구조 개편	수요자 의견 수렴에 따른 사업 기획 청소년 서비스 수요조사 전담 조직 설치
	A-2) 지역 청소년사업의 성과 관리 기능강화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평가 시행 실행과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성과관리 강화	성과관리시스템 체계화	-
	A-3) 지역형 청소년 성장 데이터 구축 및 총괄관리	기관 간 연계시스템 구축 사업별 DB구축	-	청소년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A-4) 비대면 청소년서비스 플랫폼 구축	원격돌봄지원센터 운영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온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비대면 활동 사업발굴 및 플랫폼 구축	멀티미디어 플랫폼 구축
	A-5) 시 혹은 재단에 청년정책 전담부서 설치 및 기능강화	-	-	-

전략		전국	성남	재단 외 전문가
사업 변화	B-1) 아동(9~12세)관련 사업 예산증액	예산 확대 필요 (아동, 청소년, 청년)	(온라인 활동을 위한 예산 증액)	-
	B-2) 청년(19세 이상)관련 사업 예산증액	예산 확대 필요 (아동, 청소년, 청년)	(온라인 활동을 위한 예산 증액)	-
	B-3) 지역의 산업시설과 연계한 청년일자리 정보지원사업	-	판교 IT 기업과의 연계	-
	B-4) 신기술(4차산업, 인공지능) 대응 관련 사업발굴	4차 산업혁명(AI, 코딩) 관련 교 육프로그램	4차산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간 운영) 진로체험 및 설계	-
	B-5) 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 자원과의 연계사업 발굴	지역사회 은퇴 전문가 활용 지역 내 대학 또는 학교 연계 지역사회 연계 인턴십	-	지역 내 유휴공간 활용 (공간나눔)

전략		전국	성남	재단 외 전문가
혁신 변화	C-1) 청소년 사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강화	돌봄사업 확대 취약계층 지원 확대 위기청소년 지원강화(쉼터확대) 지역의 유관기관들과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저소득층 지원의 사각 지대 해소	돌봄사업 확대 지역사회 및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치료형쉼터 (조현병, 양극성 장애 등) 청소년 일자리 창출
	C-2) 비대면 청소년 사업확대	비대면 활동 사업 개발 비대면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	비대면 사업의 선제적 개발 및 공유 비대면 활동 사업의 질적 개선	-
	C-3) 학교의 비대면 수업확대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	비대면 학습 환경구축 비대면 학습 방법 및 콘텐츠 개발 (플립러닝과 PBL 학습 효과 제고)	비대면 학습 환경구축	-
	C-4)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지역형 플랫폼 개발	-	-	-
	C-5) 비대면 사업강화에 따른 기존의 청소년공간 혁신	비대면 학습 인프라 확대 (공간 지원) 청소년 자율활동 공간화 소규모 특화시설 운영	청소년활동공간 및 학습공간 인프라 확대 시설(공간)의 전산화 및 개방	시설 내 온라인 교육 인프라 구축 공간 공유활성화 방과 후 활동공간 확대

전략		전국	성남	재단 외 전문가
경영 변화	D-1) 청소년생태계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화 마련 (조례 제개정)	디지털 디바이드 축소 온라인 범죄, 비행 예방 법제도 강화	-	-
	D-2) 포스트코로나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담당자(교수) 및 교육지도자 훈련 강화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전담인력 확보 및 역량 강화	비대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확보 및 역량 강화	지도자 역량 강화 및 인적자원관리
	D-3) 청소년사업에 대한 민/재단 협업 강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간 네트워크 강화 민간의 진로교육 참여 활성화 지역별, 권역별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유대 강화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연대 강화 성남시 소재 기업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특성화	관련 단체 및 종사자 네트워크 구 축 및 강화 재단과 시설간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D-4) 청년사업에 대한 민/재단 협업 강화	-	-	-
	D-5) 지역사회문제를 해결 하는 리빙랩 사업확대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확대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확대 지역사회 내 문제 해결 프로젝트 수행	-

2.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20대 세부전략에 대한 IPA분석

본 조사에서는 성남시 청소년전문가(재단소속), 성남시 지역 청소년전문가(재단 외 소속), 전국 청소년전문가를 대상으로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20대 세부전략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고, 그에 기초한 IPA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는 곧 미래의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대응 전략에 대한 중요도-성과 분석에 해당한다.

우선, 성남시 청소년전문(재단소속) 대상으로여 9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요도의 평균은 7.12이고 성과의 평균은 6.21이다. 이 두 값에 따라 네 개의 영역 구분이 이루어졌고, 각 영역별로 해당 과제가 포함되었다. <그림 VII-1>은 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영역별 해당 과제를 보면, 유지강화 영역에는 총 6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A1 수요자 중심의 재단 조직변화’, ‘A2 청소년사업의 성과 관리 기능 강화’, ‘A4 비대면 청소년서비스 플랫폼 구축’, ‘B5 지역사회 청소년서비스 자원과의 연계 사업 발굴’, ‘C1 청소년사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강화’, ‘D3 청소년사업에 대한 민/재단 협업 강화’가 그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과제들은 중요성이 높으면서 동시에 성과도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계속 유지강화 될 필요가 있다.

중점 개선 영역에는 총 5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C3 비대면수업확대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 ‘C5 비대면 사업강화에 따른 기존의 청소년공간 혁신’, ‘D1 청소년생태계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화 마련’, ‘D2 포스트코로나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D5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 사업 확대’가 그에 해당한다. 이 과제는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낮은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점진 개선 영역에는 총 5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A3 청소년 성장 데이터 구축’, ‘A5 청년정책 전담부서 설치’, ‘B1 아동관련 사업 예산 증액’, ‘B3 지역의

산업시설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확대’, ‘D4 청년사업에 대한 민/재단 협업 강화’가 그에 해당한다. 중요도도 낮고 성과도 낮은 경우로서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 과제이다.

지속 유지 영역에는 총 4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B2 청년 관련 사업 예산 증액’, ‘B4 신기술대응 관련 사업발굴’, ‘C2 비대면 청소년 사업확대’, ‘C4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성남형 플랫폼 개발’이 그에 해당한다. 이 과제들은 중요도는 낮으나 성과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류되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림 VII-1. 성남시 청소년전문가(재단소속) 대상 IPA 결과

다음으로 성남시 지역 청소년전문가(재단 외 소속)를 대상으로 9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요도의 평균은 7.55이고 성과의 평균은 6.11이다. 역시 이 두 값에 따라 네 개의 영역 구분이 이루어졌고, 각 영역별로 해당 과제가 포함되었다. <그림 VII-2>는 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영역별 해당 과제를 보면, 유지강화 영역에는 총 6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A2 청소년사업의 성과 관리 기능 강화’, ‘A4 비대면 청소년서비스

플랫폼 구축’, ‘C1 청소년사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강화’, ‘C3 비대면수업확대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 ‘D2 포스트코로나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D4 청년사업에 대한 민/재단 협업 강화’가 그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과제들은 중요성이 높으면서 동시에 성과도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계속 유지강화될 필요가 있다.

중점 개선 영역에도 총 5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A1 수요자 중심의 재단 조직변화’, ‘B5 지역사회 청소년 자원과의 연계사업 발굴’, ‘C5 비대면 사업강화에 따른 기존의 청소년공간 혁신’, ‘D1 청소년생태계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화 마련’, ‘D3 청소년사업에 대한 민/재단 협업 강화’가 그에 해당한다. 이 과제들은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낮은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점진 개선 영역에는 총 5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B1 아동관련 사업 예산 증액’, ‘B2 청년 관련 사업 예산 증액’, ‘B3 지역의 산업시설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확대’, ‘B4 신기술대응 관련 사업발굴’, ‘D5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사업 확대’가 그에 해당한다. 중요도도 낮고 성과도 낮은 경우로서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 과제들이다.

지속 유지 영역에는 총 4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A3 청소년 성장 데이터 구축’, ‘A5 청년정책 전담부서 설치’, ‘C2 비대면 청소년 사업확대’, ‘C4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성남형 플랫폼 개발’이 그에 해당한다. 이 과제들은 중요도는 낮으나 성과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류되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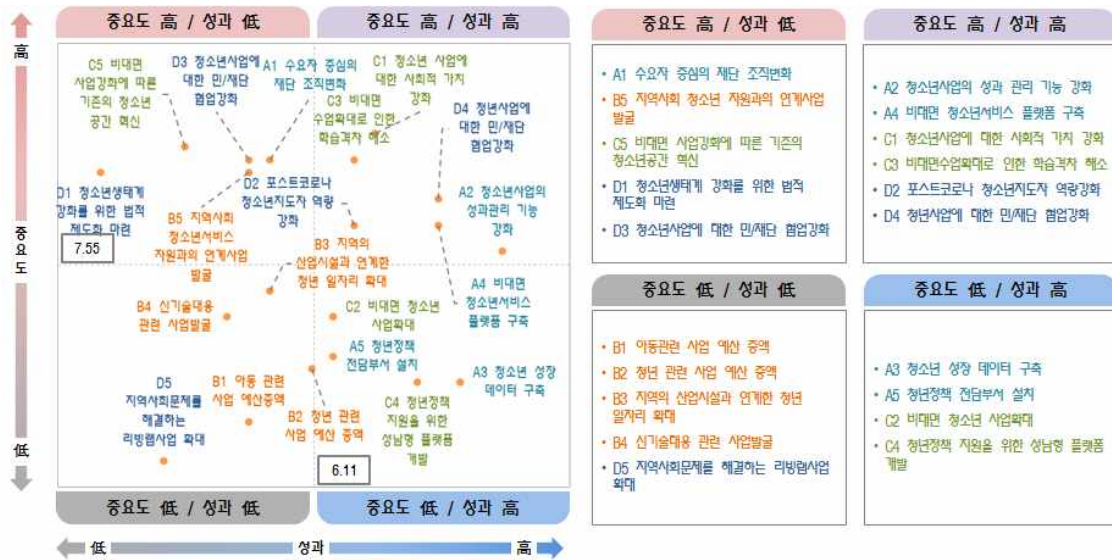


그림 VII-2. 성남시 지역 청소년전문가(재단 외 소속) IPA 결과

전국 청소년전문가를 대상으로 9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요도의 평균은 7.19이고 성과의 평균은 4.82이다. 역시 이 두 값에 따라 네 개의 영역 구분이 이루어졌고, 각 영역별로 해당 과제가 포함되었다. <그림 VII-3>은 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영역별 해당 과제를 보면, 유지강화 영역에는 총 6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A1 수요자 중심의 재단 조직변화’, ‘A4 비대면 청소년서비스 플랫폼 구축’, ‘A5 청년정책 전담부서 설치’, ‘B2 청년 관련 사업 예산 증액’, ‘B5 지역사회 청소년서비스 자원과의 연계사업 발굴’, ‘C1 청소년사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강화’가 그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과제들은 중요성이 높으면서 동시에 성과도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계속 유지강화 될 필요가 있다.

중점 개선 영역에는 총 4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A3 청소년 성장 데이터 구축’, ‘C3 비대면수업확대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 ‘D1 청소년생태계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화 마련’, ‘D2 포스트코로나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가 그에 해당

한다. 이 과제들은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낮은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점진 개선 영역에도 총 6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B1 아동관련 사업 예산 증액’, ‘C4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성남형 플랫폼 개발’, ‘C5 비대면사업강화에 따른 기존의 청소년 공간 혁신’, ‘D3 청소년사업에 대한 민/재단 협업 강화’, ‘D4 청년사업에 대한 민/재단 협업 강화’, ‘D5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사업 확대’가 그에 해당한다. 중요도도 낮고 성과도 낮은 경우로서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 과제들이다.

지속 유지 영역에는 총 4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A2 청소년사업의 성과관리 기능 강화’, ‘B3 지역산업시설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확대’, ‘B4 신기술대응 관련 사업발굴’, ‘C2 비대면 청소년 사업확대’가 그에 해당한다. 이 과제들은 중요도는 낮으나 성과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류되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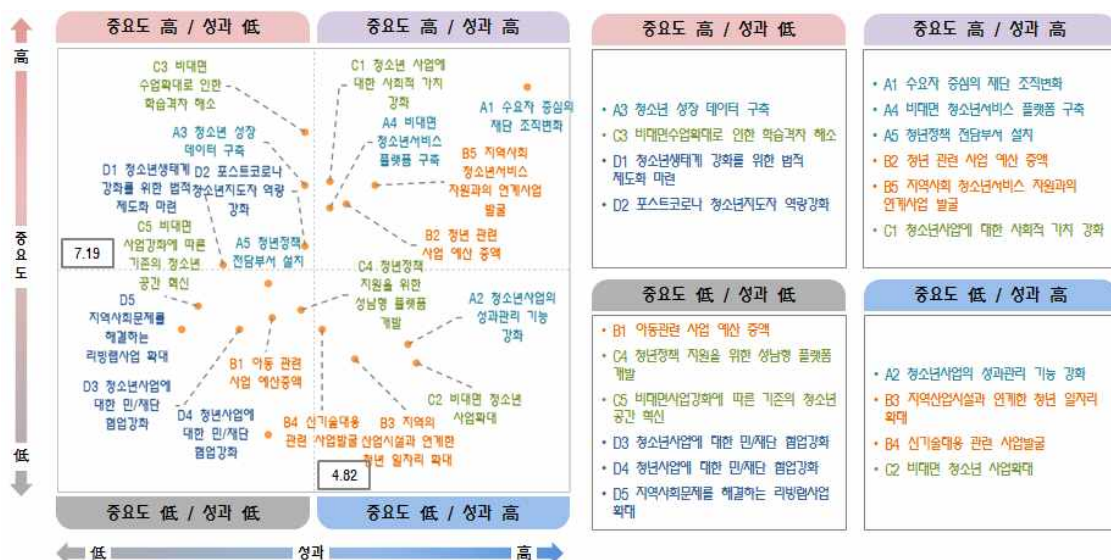


그림 VII-3. 전국 청소년전문가 대상 IPA 결과

이와 같이 세 분야의 청소년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중점 개선 영역에 해당하는 과제는 ‘D1 청소년생태계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화 마련’이다. 이는 해당과제가 시급히 실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둘 이상의 전문가들에서 공통적으로 중점 개선 영역에 해당하는 과제로 나타난 것은 ‘C3 비대면수업확대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 ‘C5 비대면 사업강화에 따른 기존의 청소년공간 혁신’, ‘D2 포스트코로나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이다. 이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과제이다. 물론 이 이외의 과제들도 기본적으로 IPA 각 영역에서 의미하는 바에 부합되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3. 미래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략

1) 운영모델을 통한 개선 전략

미래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략은 운영모델 구축에서 시작된다. 운영모델은 사업추진 및 성과 도출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전략 모색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림 VII-4>는 미래 성남형 청소년서비스의 운영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청소년서비스의 축이 되어 주요 주체들과 생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운영모델의 핵심이다. 주요 주체로는 성남시, 교육기관, 지역사회 기반의 기업 및 사업, 지역사회 거버넌스가 해당되는데, 이들은 각각의 역할과 기능에 기초하여 미래 청소년서비스의 개선 전략에 연계되어 있다. 성남시는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행정역량 측면과 연계되어 있고, 교육기관은 청소년 성장 데이터 구축과 비대면 플랫폼 구축을 통해 협력 관계를 형성한다. 지역사회 기반 기업과 사업은 청년정책 협업을 통해 연계되며, 지역사회 거버넌스는 성과관리 측면에서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운영모델은 성남시청소년재단을 중심으로 관련 주체별 역할 및 기능, 그리고 그들과의 연계를 통해 유용한 전략 도출을 이끌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사업을 통해 전략 실행을 구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미래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운영 모델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청소년서비스 방향을 위한 전환적이고 총체적인 모델이자 사업 실행을 위한 기반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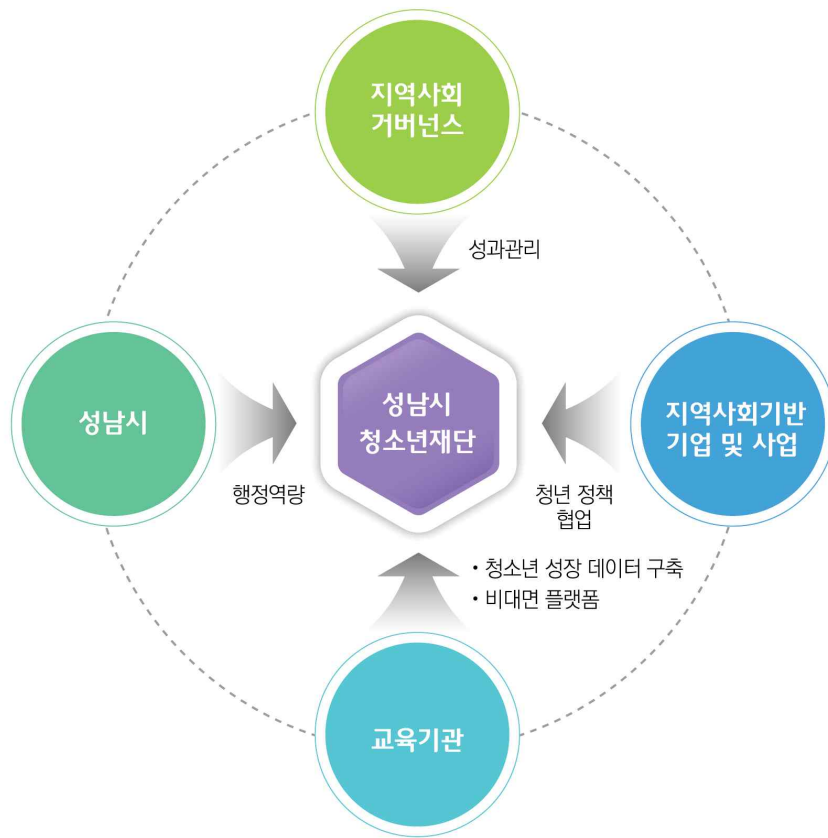


그림 VII-4. 미래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운영모델

2) 핵심사업을 통한 개선 전략

(1) 모델

미래 성남형 청소년서비스 운영모델은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게 한다. 그 중에서도 핵심 사업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수동적 대응이 아닌 적극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략적 대응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가치지향적 시대 진단을 통해 도출된 핵심 사업은 단순히 코로나19로 인한 전략 대응 차원을 넘어 불확실성이 높은 현대사회와 미래사회를 선제적으로 대응 및 적응하는데 유익한 길잡이가 된다. <그림 VII-5>는 핵심 사업을 통한 개선전략 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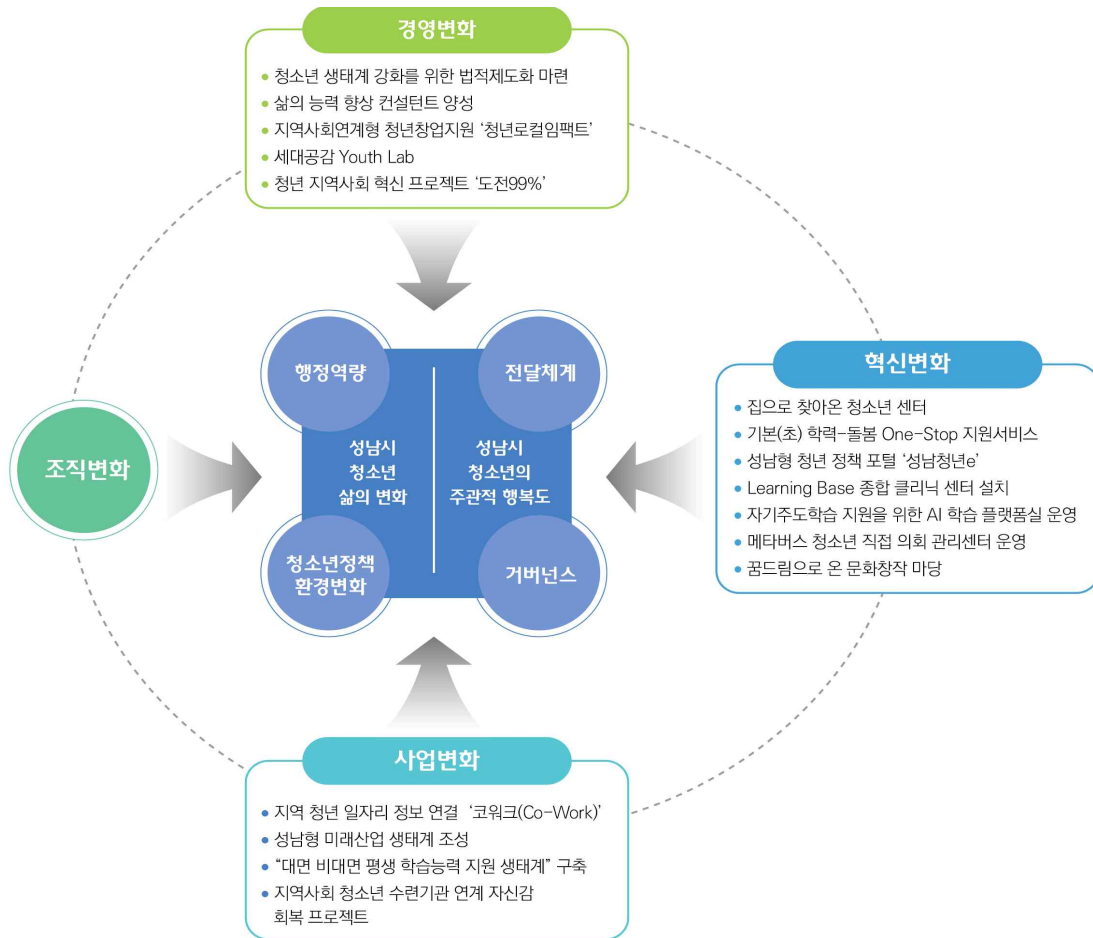


그림 VII-5. 핵심 사업을 통한 개선 전략 모델

이 모델에 따르면, 특히 사업변화, 혁신변화, 경영변화 각각의 핵심 사업(총 16개 사업)은 청소년서비스 제공에서 주요 영역 및 분야의 질적 제고에 영향을 미친다. 핵심사업의 수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질적 비중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비록 조직변화에서는 핵심사업이 도출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직변화와 관련된 일반사업의 중요성이 낮다는 의미는 아니다. 핵심사업은 우선적으로 추진될 사업을 선별한 것으로, 그 외 사업들도 모두 중요성의 강도가 결코 낮지 않다. 따라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남형 청소년서비스는 각 변화 대상 영역별 일반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되 전략적으로 핵심사업에 상대적인 역점을 두는 형태로 실천력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2) 핵심사업

핵심사업은 크게 세 분야에서 도출. 우선, 사업변화에 해당하는 핵심사업은 총 4개이다. 구체적으로 (B) 사업변화 영역의 전략과제 B-3. 지역의 산업시설과 연계한 청년일자리 정보지원사업 '지역 청년 일자리 정보 연결 '코워크(Co-Work)'과 '성남형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 (B) 사업변화 영역의 전략과제 B-5. 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 자원과의 연계사업 발굴 '대면 비대면 평생 학습 능력 지원 생태계' 구축과 지역사회 청소년 수련기관 연계 자신감 회복프로젝트가 제안될 수 있다.

다음으로 (C) 혁신변화 영역의 핵심사업은 7개 사업이다. 전략과제 C-2. 비대면 청소년 사업 확대 '집으로 찾아온 청소년센터', 전략과제 C-3. 학교의 비대면 수업확대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초) 학력-돌봄 One-Stop 지원서비스'와 'Learning Base종합 클리닉 센터 설치', 전략과제 C-4.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성남형 플랫폼 개발의 '성남형 청년 정책 포털 '성남청년e'', 전략과제 C-5. 비대면 사업강화에 따른 기존의 청소년 공간 혁신인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위한 AI 학습 플랫폼실 운영'과 '메타버스 청소년 직접 의회 관리센터 운영' 그리고 '꿈드림으로 온 문화창작 마당'이 제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D) 경영변화 영역의 핵심사업은 5개이다. 구체적으로 전략과제 D-1. 청소년생태계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화 마련을 위한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과 전략과제 D-2. 포스트코로나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에 해당하는 '삶의 능력 향상 컨설턴트 양성', 전략과제 D-4. 청년사업에 대한 민/재단 협업 강화인 '지역 사회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청년 로컬 임팩트'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략과제 D-5. 청소년과 청년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사업 확대인 '세대 공감 Youth Lab'과 '청년 지역사회 혁신 프로젝트 '도전99%'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각각은 전략과제와 연계되며 그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목적, 사업내용,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 청년 일자리 정보 연결 ‘코워크(Co-Work)’	
--	--------------------------------	--

○ 영역 : (B) 사업변화

○ 전략과제 : B-3. 지역의 산업시설과 연계한 청년일자리 정보지원사업

□ 사업목적

- 구직 중인 청년들에게 성남 지역의 다양한 산업시설 및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 지역에 특화된 새로운 청년 일자리 발굴 및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 사업내용

- 지역의 산업시설 전반에 관한 정보를 한 눈에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산업지도 제작
- 산업지도를 클릭해가면서 현재 구직중인 기업의 사업 정보 및 일자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플랫폼 제작
- 청년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기업 및 일자리에 대한 피드백 정보를 취합하여 기업들에게 제공

□ 기대효과

- 청년일자리 미스매치를 획기적으로 단축
- 청년의 취업률 제고
- 중소기업의 구직난 해소
-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산업집적효과 기대
- 일자리 창출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성남형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	
--	-----------------	--

○ 영역 : (B) 사업변화

○ 전략과제 : B-3. 지역의 산업시설과 연계한 청년일자리 정보지원사업

□ 사업목적

- 분당·판교 등에 입주한 IT 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성장 산업 생태계 조성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 사업내용

- 지역에 소재한 대형 IT 기업들과 협업하여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낼 수 있도록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들에게 고급 수준의 전문화된 코딩 교육 실시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AI 머신러닝, 블록체인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데이터 마케팅 총 5개 분야로 세분화한 코딩 교육을 제공하여 청년이 자신의 취업 계획에 맞는 코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도 보장
- 교육을 마친 청년들이 전문화된 코딩 능력을 갖춘 인재 채용을 원하는 IT 기업에 채용될 수 있도록 취업 알선 서비스 제공
- 성남에서 새로운 IT 기업들이 창업하거나 이주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정책 마련
- 바이오테크, AI, 저탄소에너지, ESG 경영 등 특정 산업 분야 또는 기술 혁신 사업을 주도하는 기업에 우선권 부여

□ 기대효과

- 대한민국의 4차 산업을 주도할 신성장 생태계 조성
- IT 전문가 양성
- IT 신규 일자리 창출
- IT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 구조 조성
- 일자리 창출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대면 비대면 평생 학습 능력 지원 생태계” 구축	
--	------------------------------------	--

○ 영역 : (B) 사업변화

○ 전략과제 : B-5. 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 자원과의 연계사업 발굴

□ 사업목적

- 대면 학습을 전제로 한 평생학습 체제 재편
- 인지적 학습과 정서적 사회적 능력 및 심리적 지원을 위한 생태계 구축
- 지역사회 전체가 배움의 장으로 기능하도록 재편

□ 사업내용

- 마을 단위의 소규모 마을 학교 활성화
- 학교, 가정, 지역사회, 기업체, 지자체, 각종 심리적 정서적 지원 기관 등의 교육 네트워크 체계 구축
- 심리적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발굴 확산
- 지역사회 주민들의 학습상황 및 비대면 대응, 정서적 변화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종단연구

□ 기대효과

- 비대면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학습능력 향상 및 학습망 구축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방안 마련 토대 구축

	지역사회 청소년 수련기관 연계 자신감 회복프로젝트	
--	------------------------------------	--

○ 영역 : (B) 사업변화

○ 전략과제 : B-5. 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 자원과의 연계사업 발굴

□ 사업목적

- 정서안정, 심리·상담,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문화체험 등 천편일률적인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을 탈피해 수련기관(지역사회)에서 신체적 활동과 또래 집단 소통 등을 통해 자아 및 자존감의 회복 도모
- 수련기관의 각종 육체적, 심상적, 언어적 활동프로그램 경험을 통해 낮아진 자존감을 높이고 무기력한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경험 제공
- 또래 청소년들과 야외 및 실내 활동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유대감 회복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

□ 사업내용

- 지역사회 수련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협업 가능영역 탐색 및 협업을 위한 위탁사업 계약 체결 혹은 업무협약 체결
- 청소년을 위한 수련활동 영역 및 세부 내용 선정(활동 내용, 기간, 수용 인원, 시설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 활동프로그램별 특화된 수련기관을 선정하여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지원 전략 수립
- 청소년 스스로 활동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감과 일상생활의 활력을 향상
- 청소년지도사의 질 관리를 위한 수시 점검 및 재교육 방안 마련

- 부모, 조부모, 형제 등 가족과 함께하는 수련 캠프 등을 기획하여 실시하여 청소년의 가정생활 안정 유도

□ 기대효과

- 각종 수련 활동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청소년의 신체 및 심신 안정과 자존감 고양
-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수련활동을 통해 삶의 의욕 및 자신감 강화
- 지역사회 수련기관 이용을 통해 고용 및 지역 경기 활성화

그리고 혁신변화에 해당하는 핵심사업은 총 4개이다. 혁신변화에 해당하는 핵심과제는 총 7개 이다. 여기에는 집으로 찾아온 청소년 센터, 기본(초) 학력-돌봄 One-Stop 지원서비스, 성남형 청년 정책 포털 ‘성남청년e’, Learning Base 종합 클리닉 센터 설치,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위한 AI 학습 플랫폼실 운영, 메타버스 청소년 직접 의회 관리센터 운영, 꿈드림으로 온 문화창작 마당이 그에 해당한다. 이 역시 각각은 전략과제와 연계되며 그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목적, 사업내용,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집으로 찾아온 청소년센터	
--	---------------	--

- 영역: (C) 혁신변화
- 전략과제 : C-2. 비대면 청소년 사업 확대

□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들의 가정 내 생활이 늘고 있음.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독서, 운동,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한 책, 운동기구, 악기 등의 문화 활동 도구 등을 가정으로 직접 배달해 주는 서비스
- 센터 방문 없이 지역 내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신적, 신체적 건강 및 진로 개척에 도움을 제공
-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들의 복합적인 문화 활동 욕구 해소

□ 사업내용

- 센터 활동 내용 중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가능 종류 조사
-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종류(도서, 운동기구, 악기 등의 문화 활동 기구)에 대한 물품 구매 혹은 위탁용역 업체 계약
-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운송 수단 마련(혹은 위탁업체 계약)
-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을 위한 누리집(홈페이지) 마련(혹은 개편)

□ 기대효과

- 코로나19 상황으로 고립감이 심한 청소년에게 다양한 활동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삶의 활력소 제공
- 기다리는 서비스 중심의 청소년센터 운영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전환함으로써 적극 행정 구현

	기본(초) 학력-돌봄 One-Stop 지원서비스	
--	----------------------------	--

○ 영역: (C) 혁신변화

○ 전략과제 : C-3. 학교의 비대면 수업확대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

□ 사업목적

- 학교의 비대면 수업 확대로 가정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 맞벌이 부모 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학습 시간 감소 및 관심 저하로 인한 학력 저하 문제가 심각함.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돌봄 및 학습 지원 봉사인력 지원 방안
- 학교 출석 수업일수 축소에 따른 저소득, 맞벌이 가구 등의 자녀에게 돌봄과 학습도움 제공
- 지역사회 자원봉사 인력(대학생, 학부모, 교사, 학원강사 등)을 활용함으로써 지역 내 공동체 의식 함양 강화

□ 사업내용

- 지역사회전문가 등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 조사·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 내 학교의 협조 요청
- 저소득, 맞벌이 가구 등의 자녀에 대한 돌봄 및 학습 연계 지원서비스 체계 마련(장소, 시간, 인력 등)
- 지원서비스를 위한 자원봉사인력 선발 및 사전 교육 실시
-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교재 제작 혹은 구입방안 마련
- 사업 참여 학생 대상 모니터링 실시 및 환류

□ 기대효과

- 저소득 가구, 맞벌이 부모 등의 자녀에 대한 학습과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복지 및 사회 통합 기능 강화
- 학교 등교일수 축소에 따른 학습 및 돌봄 공백 학생에게 효과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

	Learning Base종합 클리닉 센터 설치	
--	---------------------------	--

- 영역: (C) 혁신변화
- 전략과제 : C-3. 학교의 비대면 수업확대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

□ 사업목적

-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확대로 인하여 비대면 수업과정에서 체득하기 어려운 청소년기 학습의 기초형성

□ 사업내용

- 기초학습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센터 설치
- 1:1 방문 기초학습 컨설팅 실시
- 정서적 지원, 심리 상담을 포함한 기초학습 능력 향상 방안 마련

□ 기대효과

- 학력 격차 해소에 기여
- 3R중심에서 벗어나 인지, 정서, 사회, 심리적 요인을 고려한 학습에 대한 새로운 개념 확산에 기여
- 교육 도시 성남 홍보

	성남형 청년 정책 포털 ‘성남청년e’	
--	----------------------	--

○ 영역: (C) 혁신변화

○ 전략과제 : C-4.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성남형 플랫폼 개발

□ 사업목적

- 성남시의 청년 모두를 위한 청년지원정책 강화
- 청년정책의 당사자인 청년들의 선호와 욕구를 파악하여 청년지원정책에 반영

□ 사업내용

- 청년들이 성남시의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 플랫폼을 개발하여 청년들에게 제공
- 성남시가 수행하는 모든 청년지원책의 내용과 수혜대상 및 혜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수혜청년들이 후기를 작성할 수 있는 별도의 온라인 커뮤니티 개발
- 전국 단위 청년지원정책의 내용 및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탭을 웹사이트 내 마련하여 청년의 정책 접근성 향상
- 개별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 효과적인 청년정책 개발에 활용

□ 기대효과

- 청년지원정책 홍보 강화
- 청년들의 청년정책 참여율 제고
- 지역 청년들의 연대감 강화
- 신규 청년 유입효과 기대
- 수혜대상 맞춤형 청년정책 개발에 활용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위한 AI 학습 플랫폼실 운영	
--	------------------------------------	--

○ 영역: (C) 혁신변화

○ 전략과제 : C-5. 비대면 사업강화에 따른 기존의 청소년 공간 혁신

□ 사업목적

-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이후 네트워크를 이용한 비대면 자기주도 학습 플랫폼이 급속도로 발달·확산되고 있음. 이들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플랫폼)을 기존 청소년 활동 공간에 구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학습을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비대면 활동 강화에 따른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의 자기주도 학습 공간 제공으로 기존 청소년 활동 공간의 활용도를 높임
- 사회적으로 발전된 AI학습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학습 서비스 지원

□ 사업내용

- AI튜터를 활용할 수 있는 자율학습 공간플랫폼으로 리모델링하여 노트북이나 태블릿 등의 장비를 갖춘 오픈형 카페와 같은 학습 공간 구축
- AI 학습 플랫폼을 운영하는 교육업체와 위탁용역 계약하고 필요시 업무협약 체결
- 자기주도적 학습 공간 운영 및 학습 지원 보조인력 확충
- AI 학습 플랫폼 유지·보수 방안 수립
- AI 학습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대학 내지는 학점 은행 강좌 수강 지원하는 공간활용으로 확장

- 지역 내 청소년이 AI 학습 플랫폼을 이용하는 지식소비자에서 지식을 전달자나 창조자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제공
 - 지역 내 청소년 학습 플랫폼 공간 연결을 통해 온라인 토론 한마당을 운영
 - 공동 주제에 대해 탐구하고 발표하는 온라인 활동을 통한 청소년 사회 참여 한마당

□ 기대효과

- 온라인 자기주도 학습 공간 지원으로 대면활동 축소로 낮아진 청소년 공간의 활용도 제고
- 청소년 이용자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 향상으로 학습 결손이나 격차 예방
- AI 학습 플랫폼 공간 활용으로 지역 내 청소년의 4차 산업사회 적응 역량 향상

	메타버스 청소년 직접 의회 관리센터 운영	
--	------------------------	--

○ 영역: (C) 혁신변화

○ 전략과제 : C-5. 비대면 사업강화에 따른 기존의 청소년 공간 혁신

☐ 사업목적

-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의사결정 참여기회를 확대

☐ 사업내용

- 메타버스 청소년 직접 의회 운영
- 대면의 한계로 지적되어 왔던 참여율 저조와 참여인원 제한을 뛰어넘는 직접 민주제 실현의 장으로 활용
- 특히, 실제선거를 앞둔 청소년 모의투표를 직접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기대효과

- 대면 비대면을 막론하고 청소년의 정치 참여 기회 부여
- 청소년의 직접민주주의 경험으로 우리나라 간접민주주의의 문제를 직시하고 그것을 보완할 방안 구상 기회를 가질 수 있음

	꿈드림으로 온 문화창작 마당	
--	-----------------	--

○ 영역: (C) 혁신변화

○ 전략과제 : C-5. 비대면 사업강화에 따른 기존의 청소년 공간 혁신

□ 사업목적

- 온라인 네트워크의 발달로 유튜버 등의 다양한 문화 크리에이티브(창조자)로서 청소년들의 활동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자신들의 활동 공간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위해 전용 문화 창작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문화 창조 능력 및 사회참여를 높임
-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구상하고 실현할 수 있는 다목적 문화 창조 공간 제공
- 청소년들을 문화소비자에서 문화창조자(크리에이티브)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사업내용

- 청소년들이 유튜버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개인 방송 혹은 녹화 장비 등을 설치한 공간 마련
- 청소년들의 각종 문화 창작물을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 공간 마련
- 청소년들의 유튜버 활동을 위한 사전 교육 실시하며 그 내용은 윤리·도덕, 장비 사용, 창작물 제작 방법, 네트워크 이해 등임
- 청소년들의 문화 창작물을 발표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누리집 등) 마련
- 청소년들의 창작물을 발표하는 온라인 내지는 지역 축제의 한마당 열기

□ 기대효과

- 청소년들의 개인 문화 창작 공간 지원으로 대면활동 축소로 낮아진 청소년 공간의 활용도 제고
- 지역 내 청소년들의 문화 창작 능력 향상 및 진로 개척 역량 강화

마지막으로 경영변화에 해당하는 핵심사업은 총 5개이다. 여기에는 청소년 생태계 강화를 위한 법제도화 마련, 삶의 능력 향상 컨설턴트 양성, 지역사회연계형 청년창업지원 ‘청년로컬임팩트’, 세대공감 Yoth Lab, 청년 지역사회 혁신 프로젝트 ‘도전99%’가 해당한다. 이 역시 각각은 전략과제와 연계되며 그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목적, 사업내용,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	
--	-----------------------------	--

○ 영역: (D) 경영변화

○ 전략과제 : D-1. 청소년생태계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화 마련

□ 사업목적

-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청소년의 권리의식의 향상으로 청소년의 정책 수요는 복잡적이고 다양화되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기 위하여는 지역 특성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개별 영역에서의 이루어지는 청소년서비스가 조례를 근거로 지자체 및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

- 청소년서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성남시의 책무를 규정(제1조), 청소년서비스와 청소년서비스 생태계 구축의 정의를 규정(제3조), 청소년서비스의 주요 범위를 규정(제4조)
- 청소년서비스와 그 생태계 구축 등과 관련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제5조), 청소년서비스와 그 생태계 구축과 관련한 청소년의 참여보장(제7조), 청소년서비스 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제8조 및 제9조)
- 청소년서비스 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청소년서비스 생태계 구축협의체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12조), 청소년서비스 생태계 구축협의체의 기능과 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13조 및 제14조)

□ 기대효과

-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올바른 성장과 육성을 위한 청소년 서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성남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도화의 기틀을 마련

성남시 조례 제 호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올바른 성장과 육성을 위한 청소년서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성남시의 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이 조례는 청소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소년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의 개선과 삶의 질 향상
3. 청소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4. 청소년의 자질향상을 위한 평등한 기회 제공

제3조(정의)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서비스”란 청소년활동, 청소년참여, 청소년보호, 청소년복지, 청소년상담, 청소년 관련 사업 등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육성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정책을 말한다.
3. “청소년서비스 생태계 구축”이란 청소년서비스의 지역 사회에서의 실현을 위한 성남시, 성남시청소년재단 및 그 유관 기관과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을 통한 협력과 조정 등을 위한 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청소년서비스의 주요 범위) 청소년서비스의 주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등의 연계를 통한 능력개발 지원
2.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3. 청소년 창업지원
4. 청소년의 복지향상
5. 청소년 주거지원
6. 청소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7. 청소년 경제적 자립 및 안정적 금융생활
8.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9. 청소년의 지역 사회 참여
10. 그 밖에 청소년육성과 청소년보호에 관련된 사항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서비스와 그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소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청소년서비스와 그 생태계 구축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소년서비스와 그 생태계 구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소년서비스와 그 생태계 구축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의 참여보장) ① 청소년은 성남시의 청소년서비스와 그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입안·시행·평가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장은 청소년 참여의 활성화 및 청소년서비스의 발굴, 청소년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해 청소년 참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서비스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청소년서비스와 그 생태계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서비스와 그 생태계 구축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청소년서비스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3.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4. 청소년서비스와 그 생태계 구축에 관한 기능의 조정
6. 청소년서비스와 그 생태계 구축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7.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에는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가 출연한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국책연구기관 등을 분석·평가에 관한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및 제4항에 따른 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청소년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소년서비스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설치) ① 시장은 청소년서비스 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청소년서비스 생태계 구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청소년서비스 생태계 구축 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서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소년서비스 생태계 구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민간인을 각각 1인 선출 한다.

③ 위원은 공무원,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성남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청소년 정책전문가 및 관계 기관 임직원 등 중에서 청소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청소년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청소년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협의체 회의 등에 출석할 수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 협의체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협의체의 직무를 이용하여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경우
5. 협의체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의견 청취 등) 협의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청소년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규정)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삶의 능력 향상 컨설턴트 양성”	
--	---------------------------	--

- 영역: (D) 경영변화
- 전략과제 : D-2. 포스트코로나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 사업목적

- 청소년들에게 대면시대, 비대면 시대를 막론하고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량 강화

☐ 사업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변화와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를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연수 운영
- 위 연수에 수료자에게 “삶의 능력 향상 컨설턴트” 자격 부여
- 청소년대상 프로그램에 위 컨설턴트 활동 기회 확대 및 청소년 방문 컨설팅 실시

☐ 기대효과

- 새로운 청소년지도자 상 형성에 기여

	지역 사회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청년 로컬 임팩트’	
--	---------------------------------------	--

○ 영역: (D) 경영변화

○ 전략과제 : D-4. 청년사업에 대한 민/재단 협업 강화

□ 사업목적

- 청년사업의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청년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신규 사업 개발
- 지역의 다양한 민간단체와 협업하여 사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청년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사업내용

- 민간 부문과 협업하여 청년들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 추진
- 청년들이 창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제품개발 및 판매까지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여 창업 전반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 개발
- 사회적경제 기업, 중소기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청년 창업 프로젝트 추진
- 청년들이 지역 축제 등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업하여 적극 지원

□ 기대효과

- 청년사업 규모 확대
- 청년창업 활성화
- 창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청년정책에 대한 지역 주민 이해 도모
- 지역공동체 의식 강화

	“세대 공감 Youth Lab”	
--	-------------------	--

○ 영역: (D) 경영변화

○ 전략과제 : D-5. 청소년과 청년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사업 확대

□ 사업목적

-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세대간의 대화와 대응 방안 마련

□ 사업내용

- 청소년 보호자와 함께 하는 “참여 아카데미” 운영
- 생태시대, 다문화시대에 성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결할 과제를 “시민사회참여형”으로 마련하고 해결을 위해 실천하는 경험 함께 하기
 - ☞ 시민사회참여형 : 문제인식 → 시민사회의 문제해결 노력 현황 파악→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방안 모색 → 제시 및 지속적 모니터링 → 축적된 경험으로 바탕으로 계층적 거버넌스를 전제로 한 참여에서 협력적 거버넌스형 참여가 가능한 행정의 혁신 유도

□ 기대효과

- 세대간의 상호 이해 증진
- 청소년 주도의 참여형 문제해결

	청년 지역사회 혁신 프로젝트 ‘도전99%’	
--	--------------------------------	--

○ 영역: (D) 경영변화

○ 전략과제 : D-5. 청소년과 청년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사업 확대

□ 사업목적

- 청년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문제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지역주민으로서 주인의식 강화
- 기성세대가 새로운 세대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이의 실행과정을 지켜봄으로써 세대 간 상호 존중 및 이해 증진

□ 사업내용

- 공모 방식을 통해 청년 시선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하는 지역사회문제 및 해결 방안 제시
- 우수한 공모작을 선정하여 제안자들이 직접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 성남시 대학교와 연계하여 정규 학기 수업으로 개설 추진
- 리빙랩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향후 사업의 확대 가능성 검토

□ 기대효과

- 청년들의 지역주민의식 강화
- 지역문제 및 해결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 확산
- 지역문제 해결방안 발굴
- 세대 간 갈등 완화 및 이해 증진
- 성남시의 지역정책 개발에 활용

4. 본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남시청소년재단의 전략과 방향을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먼저, 성남시의 행정구역별로 청소년에 대한 정책대상 수요조사를 직접하지 못한 점이다. 재단의 사정으로 조사는 못하였지만 앞으로 성남시재단의 중장기 계획 연구가 수행될 경우 이와 같은 부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정책대상에 대한 인지와 자료 없이는 정책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어려우며 단지 거시적인 방향만 제언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앞으로 양극화와 청소년의 맞춤형 서비스가 중요해진 만큼 보호복지 및 상담에 대한 내용이 향후 중장기 계획에 중점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정책대상자의 조사가 불가하다보니 전문가 심층면접을 소수에서 다수로 확장하고 이를 서면으로 진행 점이다. 본 연구에 제시된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향후 중장기계획의 수립은 소수의 전문가를 통한 심층면접조사 방법론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두용, 민성환, 박성근. (2021). 코로나 팬데믹이 한국경제와 산업에 미친 영향: 중간평가. KIET 산업경제. 7-20.
- 강진호, 손성민, 한승태 (2020).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활용한 대학 신입생들의 비대면 강의 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4(7), 397-408.
- 강현주, 이효섭, 김정원, & 조대연. (2021). 4 차 산업혁명 시대 청소년을 위한 미래 직업탐색 및 직업체험 선호도 조사. 중등교육연구, 69(1), 61-92.
- 경기연구원. (2020).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 고필재, 김용진, 권일남. (2020).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청소년활동 방향과 과제 탐색. 한국청소년활동연구, 6(4), 21-41.
- 교육부 보도자료. (2015).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 발표. (2015.11.25.).
- 교육부 보도자료. (2017).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 (2017. 11.27).
- 김경희, 김완수, 최인봉, 김미경, 김희경, 조성민, 김광규, 박준홍, 박종효, 김성식, 김지영, 류성창, 박운수 (2019), 『새로운 학력 지표 구성 및 측정 방안 연구』, 연구보고 CRE 2019-5,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낙년 (2018).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의 추이와 국제비교. 사회과학연구, 25(2), 175-196.
- 김동규, 정윤, 이견직. (2021).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효과 분석.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22(1), 35-57.

- 김민주(2017). 정부는 어떤 곳인가: 행정학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 김봉선, 이은진 (2021).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들의 간접외상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학, 73(2), 83-105.
- 김영은, 김혜진, 장혜승, 한효정, 최원석, 김종윤, 최재은 (2019). OECD 교육 2030과 한국 교육.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김용환. (2021). 한국 사회의 불평등 관련 연구 동향 분석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2), 263-287.
- 김용훈 (2021)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의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방안, 한국지방자치연구, 23:1, 139-157
- 김중진외(2016). 직업세계 변화(생성, 소멸). 한국고용정보원.
- 김지연, 이경상, 노법래 (2019). 정보기술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297
- 김지원, 박차늬, 구교준, & 이희철. (2021). 한국의 행복 불평등 분석. 행정논총, 59(1), 115-141.
- 김진하(2016).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 모색. KISTEP Inl, 15호. URL: https://www.kistep.re.kr/board.es?mid=a10203010000&bid=0032&list_no=19518&act=view
- 김창환. 2015. 1990년대 이후 광역권별 지역이동의 계층적 특징 . 《한국인구학》, 제38권 제1호.
- 김한준(2017) 4차 산업혁명이 직업세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현안대응세미나(2017. 5. 31) 자료집, 3-25.
- 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 이주연. (2011).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집단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51-89
- 문성호, 박지원, 한지연, 정한별 (2021).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청소년활동 정책의 혁신전략 및 중점과제. 청소년학연구, 28(5), 327-356.

- 문혜진 (2013). 외환위기 전후 청년 코호트의 노동경력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65(1), 201-226
- 문화체육관광부(2017).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2017.02.03.). URL: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28434>
- 문효근 (2021). ‘위드 코로나 시대’ 변화와 공존의 길목에 선 주민자치. 월간 주민자치, 119, 22-25.
- 미래창조과학부(2017). 미래전략보고서 - 10년 후 대한민국, 미래 일자리의 길을 찾다.
- 박건우, & 이정읍. (2019). 한국의 여성혐오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7(1), 70-99.
- 박균열, & 엄준용. (2018). 고교학점제 도입의 쟁점과 과제 탐색. 교육학연구, 56, 1-29.
- 박준, & 정동재. (2018). 사회갈등지수와 갈등비용 추정. 기본연구과제, 2018, 3448-3765.
- 서울교육정책연구소. (2021). 코로나19 전후, 중학교 학업성취 등급 분포를 통해 살펴본 학교 내 학력격차 실태 분석. (2021-1 현안분석 보고서). 서울교육정책연구소.
- 성남시청소년재단(2018). 제3차 중장기 발전계획(2019-2023).
- 성남시청소년재단(2020).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 지원 모델 시범사업「성남청소년 균형동반협의체」운영 결과보고, 성남시청소년재단.
- 성남시청소년재단(2021). 성남시 청소년정책을 위한 기초조사 보고, 〈SN.UTH 위킹페이터〉, 성남시청소년재단.
- 성남시청소년의회(2021). 제5대 성남시청소년의회 의정활동 보고서, 성남시청소년의회.
- 손영준, 허만섭 (2020). 코로나19 확산 후 소셜미디어 이용과 무력감·외로움 체감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21(11), 1957-1971.

- 신수정. (2021).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 노동정책-이탈리아의 고용안정 대책. 사회법연구, 43, 1-37.
- 신영미, 권순범. (2021). 코로나19로 인한 빈곤가정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변화와 행복감의 관계. 아동과 권리, 25(2), 227-245.
- 신완선, 광채기, 오영민, & 이성훈. (2017). 저 출산·고령화·저성장 시대의 공공기관 역할과 대응과제. 공기업논총, 18, 11-24.
- 오동주, 황홍섭. (2020). COVID-19가 교육에 미친 인식, 행동, 가치 및 태도의 변화 양상. 사회과교육, 59(3), 223-250.
- 윤종혁, 김은영, 최수진, 김정자, 황규호 (2016). OECD ‘교육 2030: 미래 교육과 역량’을 위한 현황분석과 향후과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상은, 김은영, 김소아, 유예림, 최수진, 소경희, 신연재 (2018). OECD 교육 2030 참여 연구: 역량의 교육정책적 적용 과제 탐색.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이선영(2017).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심리학. 한국교육학연구 (구 안암교육학연구), 23(1), 231-260.
- 이승준, 김지원, & 구교준. (2021). GDP 를 넘어: 국민후생의 측정지표로서 25 개 대안 GDP 비교·분석. 조사연구, 22(2), 33-69.
- 이은배, 강지혜, & 이지연. (2019). 학교혁신의 주요 영역 및 중점과제별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차이 분석. 한국교육공학회 학술대회발표자료집, 2019(1), 256-262.
- 이은환 (2020). 코로나19 세대, 정신건강 안녕한가!. 이슈&진단, 1-25
- 이정읍. (2021). 코로나19시대 싱가포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동향. 국제사회보장리뷰. 16(25). 41-53.
- 이창민. (2020). 코로나19의 충격과 일본경제. 일어일문학연구, 115(0), 43-65.
- 임규민, 송명종, 김상봉. (2021). 코로나19에 의한 국내 경제 파급효과. 신용카드 리뷰, 15(2), 16-39.
- 장현진. (2017). 직업세계 변화와 청소년의 진로 준비. 미래청소년학회 발표자료.

- 장현진. (2017). 직업세계 변화와 청소년의 진로 준비. 미래청소년학회 발표자료.
- 전대욱. (2017).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발전의 영향과 향후 대책: 일본 로컬 아베노믹스와 지방창생전략의 시사점. 지방행정연구, 31(1), 63-84.
- 전영욱, 손규태, 이미나, 이지은, 정은정, 조유담 & 최선미. (2021).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지도자의 경험과 요구되는 역량. 한국청소년활동연구, 7(1), 1-27.
- 제러미 리프킨(2012). 3차 산업혁명 - 수평적 권력은 에너지, 경제, 그리고 세계를 어떻게 바꾸는가. (안진환 역). 민음사.
- 지상훈 (2020). COVID-19로 인한 서울시 생활인구의 변화. 노동리뷰, 81-84.
- 최수진, 이재덕, 김은영, 김혜진, 백남진, 김정민 (2017). OECD 교육 2030 참여 연구: 역량개념틀 타당성 분석 및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체제 탐색.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최슬기 (2015). 한국사회의 인구변화와 사회문제. 경제와사회, 106, 14-40.
- 최용환, & 김강배. (2017). 고교다양화정책이 학교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중차이분석: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7(1), 55-79.
- 최용환, 성유리, 박윤수, & 김보경. (2020).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37.
- 최효선, 김은희. (2021). 대학의 대면수업과 비대면 원격수업에 대한 교수자 인식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7(1), 53-78.
-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2020). 청년실업률, 10년간 OECD 4.4%p감소, 한국은 0.9%p 증가. (2020.09.09.).
- 한국청소년연구원(2020).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 지원 모델 시범사업 운영기관 공모계획, 한국청소년연구원.
- 허정원, 장주영 (2020) 코로나19 확산시기 서울시 외국인 밀집지역의 지역특성과 생활인구 변화 , 공간과 사회, 73, 99-137.

- 황규희(2020). 포스트코로나와 스마트 제조에서의 스킬 변화. in 나영선·한상근
편저, 팬데믹 위기에 대응하는 직업교육훈련, pp. 190-224.
- 황수경(2007), 『한국의 숙련구조 변화와 핵심기능인력의 탐색』, 정책연구
2007-02, 한국노동연구원.
- 황은희 외. (2019). 교육 혁신 사례 분석을 통한미래교육 실천 과제. 한국교육개발
원 연구보고 RR 2019-05.
- Ansell, C., & Gash, A. (2008).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8(4): 543-571.
- Autor, David H., Frank Levy, and Richard J. Murnane. "The skill content
of recent technological change: An empirical explor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8.4 (2003): 1279-1333.
- Arntz, M., T. Gregory and U. Zierahn (2016), "The Risk ofAutomation
for Jobs in OECD Countries: A ComparativeAnalysi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Papers, No. 189, OECD
Publishing, Paris.
- Deming, David. "The growing importance of social skill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2.4 (2017): 1593-640.
- Ding, S., & Kalashnyk, L. (2020). Resocialization and Readaptation as
a Social Need of Post-Corona Period. Postmodern Openings, 11(1),
pp. 12-19.
- Emerson, K., Nabatchi, T., & Balogh, S. (2012). "An Integrative
Framework for Collaborative Governan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 Theory. 22(1): 1-29.
- Fineman, M. A.(2008). The Vulnerable Subject: Anchoring Equality in
the Human Condition, Yale Journal of Law and Feminism, 20(1): 1-24.

- Frey, C. B., & Osborne, M. A. (2017).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114, 254-280.
- Furceri, D., Loungani, P., Ostry, J. D., & Cilluffo, G. (2021). Will COVID-19 Have Long-Lasting Effects on Inequality? Evidence from Past Pandemics.
- Kittay, Eva Feder(1999). *Love's Labor*, New York: Routledge.
- Lesthaeghe, R. (2014).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A concise overview of its development.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1(51), 18112-18115.
- Mahfoodh, H., & AlAtawi, H. (2020, December). Sustaining Higher Education through eLearning in Post Covid-19. In 2020 Six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arning (econf) (pp. 361-365). IEEE.
- OECD (2015),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18).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2030*.
- OECD (2019a). 『OECD 지역 전망 2019: 도시와 농촌을 위한 메가트렌드의 활용』.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 OECD (2019b).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OECD learning compass 2030 – a series of concept notes*.
- OECD (2021a).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Retrieved from URL:
<https://www.oecd.org/education/2030-project/teaching-and-learning/learning/> (2021. 8. 9. 인출)
- WEF(2016). *The Future of Jobs - Employments, Skills and Workforce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사이트

교육부. (2020.03.25.). <https://blog.naver.com/moeblog/221872483193>

법률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성남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성남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성남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부록

설문1. 청소년전문가 설문지(성남시)

청소년전문가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청소년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서, 1989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청소년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연구 및 과학적 분석을 통해 국가 청소년정책 수립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수탁과제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수요분석과 대응전략 수립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성남시의 청소년서비스가 어떻게 변화하고 미래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이에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의 소중한 의견은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지의 응답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여러분 개인의 응답 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21년 9월

연구책임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용환 박사

(044-415-2253, cyh77@nypi.re.kr)

조사수행기관 : (주)GRI리서치

응답자 기본 정보

※ 다음은 응답자에 대한 기본 사항을 묻는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을 골라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문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선문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선문3 귀하의 최종 학력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고등학교 졸업 ② 전문대학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석사 졸업(수료 포함) ⑤ 박사 졸업(수료 포함) ⑥ 기타()

선문4 귀하께서 소속된 기관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청소년활동관련 기관·시설
② 청소년보호복지관련 기관·시설
③ 기타 ()

선문5 귀하께서 종사하는 기관의 행정구역은 어디입니까?

- ① 수정구 ② 중원구 ③ 분당구

선문6 귀하께서 종사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 | | |
|------------------|------------------|
| ① 성남시청소년재단 | ② 재단소속 수정구 청소년시설 |
| ③ 재단소속 중원구 청소년시설 | ④ 재단소속 분당구 청소년시설 |
| ⑤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 ⑥ 기타 () |

선문7 귀하의 업무 경력을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① 5년 미만 | ② 5년 이상 ~ 10년 미만 |
| ③ 10년 이상 ~ 15년 미만 | ④ 15년 이상 ~ 20년 미만 |
| ⑤ 20년 이상 | |

문1. 다음은 성남시 ○○○구 청소년들의 삶의 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비하여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번	구분	매우 악화	◀	다 소 악 화	◀	비 슷 함	▶	약 간 양 호	▶	매우 양 호
		①	←-----			⑤	-----→			⑨
1)	생활 자기 관리, 가족 관계, 주거 생활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진로 희망 진로에 대한 지식, 진로 계획, 진로 준비 과정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사회 관계 대인 관계, 친구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교육 교육 성과, 교육 지원, 학교 만족도, 교육받을 권리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환경 거주 지역의 위생 및 청결도, 유해 환경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	공공 참여와 상호 협력 정치 참여, 청소년으로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 사회 신뢰, 지역 사회 소속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7)	건강 개인의 신체 건강, 충분한 수면, 식사의 규칙성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	안전 안전한 등하교 및 귀갓길, 생활 환경의 안전, 학교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성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9)	학업과 생활과의 조화 충분한 여가 활동, 낮은 학업 스트레스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0)	주관적 만족 영역 자신감, 정서적 안정, 삶의 만족도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2. 다음은 우리사회의 변화요인입니다. 다음의 문제들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은 미래의 성남시 ○○○구 청소년서비스 개선을 위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 인구변화 (청소년인구 감소, 인구절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기술변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의 급격한 변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사회변화 (코로나블루, SNS활용증가, 혐오, 양극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교육변화 (비대면수업에 따른 학력/학습격차, 진로체험의 다각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경제변화 (저성장, 실업증가, 소득불평등, 생산성증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 청소년정책 변화 (청소년지도사 역량강화, 비대면사업활성화, 메타버스 방식 도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3. 다음은 우리사회의 변화요인입니다. 다음의 문제들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은 미래의 성남시 ○○○구 청소년서비스 개선을 위해 얼마나 적절하게 대응(성과적 측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미흡함		← 보통 →					매우 우수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 인구변화 (청소년인구 감소, 인구절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기술변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의 급격한 변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사회변화 (코로나블루, SNS활용증가, 혐오, 양극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교육변화 (비대면수업에 따른 학력/학습격차, 진로체험의 다각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경제변화 (저성장, 실업증가, 소득불평등, 생산성증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 청소년정책 변화 (청소년지도사 역량강화, 비대면사업활성화, 메타버스 방식 도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4. 다음은 성남시의 제3차 중장기 발전계획(2019-2023)입니다. 미래의 성남시 ○○○구 청소년서비스 대응전략으로서 각 전략과제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략목표	전략과제	전혀 중요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 건강하고 창의적인 시민 청소년	1-1. 청소년주도 시민 핵심역량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2. 대상·현안별 맞춤 서비스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 플랫폼	2-1. 적극적인 청소년 권리 보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2. 지역사회 청소년 플랫폼기능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3. 청소년 지원 거버넌스 형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청소년과 함께하는 재단	3-1. 청소년과 함께하는 재단 경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2.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5. 다음은 성남시의 제3차 중장기 발전계획(2019-2023)입니다. 각 전략과제가 성남시 ○○○구 청소년서비스의 대응전략으로서 포스트코로나 등 미래 변화에 얼마나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략목표	전략과제	매우 미흡함			←	보통	→	매우 우수함		
1. 건강하고 창의적인 시민 청소년	1-1. 청소년주도 시민 핵심역량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2. 대상·현안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 플랫폼	2-1. 적극적인 청소년 권리 보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2. 지역사회 청소년 플랫폼기능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3. 청소년 지원 거버넌스 형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청소년과 함께하는 재단	3-1. 청소년과 함께하는 재단 경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2.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6. 다음은 성남시 ○○○구가 포스트코로나와 미래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보다 청소년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정책대상자의 중요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비교대상의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하여 해당 점수척도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A) 아동(9세~12세)
 (B) 청소년(13세~18세)
 (C) 청년(19세 이상)

평가항목 (A)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동 등 하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B)
(A) 아동 (9세~12세)	㉠	㉡	㉢	㉣	㉤	㉥	㉦	㉧	㉨	㉩	㉪	㉫	㉬	㉭	㉮	㉯	(B) 청소년 (13세~18세)
(A) 아동 (9세~12세)	㉠	㉡	㉢	㉣	㉤	㉥	㉦	㉧		㉩	㉪	㉫	㉬	㉭	㉮	㉯	(C) 청년 (19세 이상)
(B) 청소년 (13세~18세)	㉠	㉡	㉢	㉣	㉤	㉥	㉦	㉧		㉩	㉪	㉫	㉬	㉭	㉮	㉯	(C) 청년 (19세 이상)

문7. 다음은 성남시 ○○○구가 포스트코로나와 미래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진체계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비교대상의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하여 해당 점수척도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A) 성남시청
 (B) 교육청
 (C)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시설
 (D) 지역사회 청소년거버넌스

평가항목 (A)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동 등 하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B)		
(A) 성남시청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B) 교육청	
(A) 성남시청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 성남시청소년재 단과 시설
(A) 성남시청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 지역사회 청소년거버넌스
(B) 교육청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 성남시청소년재 단과 시설
(B) 교육청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 지역사회 청소년거버넌스
(C) 성남시청소년 재단과 시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 지역사회 청소년거버넌스

문8. 포스트코로나를 포함한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성남시청소년서비스의 개선방향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대상의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하여 해당 점수척도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 (A) 조직변화: 재단의 조직구조나 기능의 변화, 재단 내 청소년시설 조직변화 등
 (B) 사업변화: 청소년시설의 신규사업의 발굴 등
 (C) 혁신변화: 기존의 사업이나 자원을 바탕으로한 생산적 변화, 비대면 청소년서비스 강화, 학습지원사업 등
 (D) 경영변화: 지역사회와 연계강화를 위한 경영 전략, 재단을 넘어 지역사회 자원을 함께 활용하는 효율화 전략 등

평가항목 (A)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동 등 하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B)
(A) 조직변화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B) 사업변화
(A) 조직변화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C) 혁신변화
(A) 조직변화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D) 경영변화
(B) 사업변화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C) 혁신변화
(B) 사업변화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D) 경영변화
(C) 혁신변화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D) 경영변화

문9. 포스트코로나를 포함한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변화(재단과 청소년시설의 조직변화)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세요.

문10. 포스트코로나를 포함한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시설의 새로운 신규사업의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제안하여 주세요.

문10-1. 사업대상 : 아동(9세~12세)

(가칭 사업명 :)

(사업의 간략한 내용:)

문10-2. 사업대상 : 청소년(13세~18세)

(가칭 사업명 :)

(사업의 간략한 내용:)

문10-3. 사업대상 : 청년(19세 이상)

(가칭 사업명 :)

(사업의 간략한 내용:)

문11. 포스트코로나를 포함한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변화(신규 공간 설치, 공간 재구조화, 학습지원사업 등)의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제안하여 주세요.

()

문12. 포스트코로나를 포함한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변화(시설별 유형화를 통한 효율화 전략, 지역사회와 연계 강화 등)의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세요.

()

문13. 다음은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일선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크해주시고, 성남시에서는 얼마나 잘 수행되고 있는지(성과 정도) 체크해주세요.

구 분		중요도									성남시에서 수행하는 정도(성과)								
		전혀 중요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중요함				매우 미흡	← 보통 →					매우 우수	
청소년 수련관	1) 인력규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인력의 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프로그램의 규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예산의 규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 예산편성시 시설의 특성반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7)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청소년 문화의집	1) 인력규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인력의 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프로그램의 규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예산의 규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 예산편성시 시설의 특성반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7)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청소년 보호복지 시설	1) 인력규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인력의 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프로그램의 규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예산의 규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 예산편성시 시설의 특성반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7)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14. 다음은 청소년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거버넌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크해주시고, 동시에 성남시에서는 얼마나 잘 수행되고 있는 지(성과 정도) 체크해주세요.

구 분	중요도									성남시에서 수행하는 정도(성과)								
	전혀 중요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중요함	매우 미흡			← 보통 →					매우 우수
1)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규모(범위 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의 다양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의 적극성(정례화된 회의 개최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 결과의 정책수용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새로운 지역사회 네트워크 발굴 노력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 지역연계 협업 사업 종류의 다양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7) 지역연계 협업사업의 활성화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 지역연계 협업사업의 발굴 노력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차)

문15. 다음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개선관련 전략과제입니다.
미래의 성남시 ○○○구의 청소년서비스 대응전략으로서 각 전략과제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략과제	전혀 중요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중요함	
A-1)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재단 조직변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A-2) 재단 내의 청소년사업의 성과관리 기능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A-3) 성남형 청소년 성장 데이터 구축 및 재단의 총괄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A-4) 비대면 청소년서비스 플랫폼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A-5) 청년정책 전담부서 기능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B-1) 아동(9~12세)관련 사업 예산증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B-2) 청년(19세 이상)관련 사업 예산증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B-3) 지역의 산업시설과 연계한 청년일자리 정보지원사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B-4) 신기술(4차산업, 인공지능)대응 관련 사업발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B-5) 지역사회 청소년서비스 자원과의 연계사업 발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1) 청소년 사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2) 비대면 청소년 사업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3) 학교의 비대면 수업확대로 인한 다양한 격차 해소(기존 학습을 포함한 돌봄, 상담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4)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성남형 플랫폼 개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5) 비대면 사업강화에 따른 기존의 청소년공간 혁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1) 청소년생태계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화 마련(조례 제개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2) 포스트코로나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3) 청소년사업에 대만 민/재단 협업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4) 청년사업에 대한 민/재단 협업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5) 청소년과 청년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사업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16. 다음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개선관련 전략과제입니다.
미래의 성남시 ○○○구의 청소년서비스 대응전략으로서 각 전략과제가 얼마나 잘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략과제	매우 미흡함			←	보통	→		매우 우수함	
A-1)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재단 조직변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A-2) 재단 내의 청소년사업의 성과관리 기능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A-3) 성남형 청소년 성장 데이터 구축 및 재단의 총괄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A-4) 비대면 청소년서비스 플랫폼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A-5) 청년정책 전담부서 기능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B-1) 아동(9~12세)관련 사업 예산증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B-2) 청년(19세 이상)관련 사업 예산증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B-3) 지역의 산업시설과 연계한 청년일자리 정보지원사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B-4) 신기술(4차산업, 인공지능)대응 관련 사업발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B-5) 지역사회 청소년서비스 자원과의 연계사업 발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1) 청소년 사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2) 비대면 청소년 사업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3) 학교의 비대면 수업확대로 인한 다양한 격차 해소(기존 학습을 포함한 돌봄, 상담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4)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성남형 플랫폼 개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5) 비대면 사업강화에 따른 기존의 청소년공간 혁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1) 청소년생태계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화 마련(조례 제개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2) 포스트코로나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3) 청소년사업에 대만 민/재단 협업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4) 청년사업에 대한 민/재단 협업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5) 청소년과 청년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사업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설문2. 청소년전문가 설문지(전국)

청소년전문가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청소년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서, 1989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청소년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연구 및 과학적 분석을 통해 국가 청소년정책 수립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수탁과제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수요분석과 대응전략 수립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성남시의 청소년서비스가 어떻게 변화하고 미래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이에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의 고귀한 의견은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지의 응답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여러분 개인의 응답 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21년 9월

연구책임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용환 박사

(044-415-2253, cyh77@nypi.re.kr)

조사수행기관 : (주)GRI리서치

응답자 기본 정보

※ 다음은 응답자에 대한 기본 사항을 묻는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을 골라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문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선문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선문3 귀하의 최종 학력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고등학교 졸업 ② 전문대학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석사 졸업(수료 포함) ⑤ 박사 졸업(수료 포함) ⑥ 기타()

선문4 귀하께서 소속된 기관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청소년활동관련 기관·시설
② 청소년보호복지관련 기관·시설
③ 기타 ()

선문5

귀하께서 종사하는 기관의 광역시는 행정구역은 어디입니까?

- | | | |
|---------|-----------|---------|
| ① 서울특별시 | ② 부산광역시 | ③ 대구광역시 |
| ④ 인천광역시 | ⑤ 광주광역시 | ⑥ 대전광역시 |
| ⑦ 울산광역시 | ⑧ 세종특별자치시 | ⑨ 경기도 |
| ⑩ 강원도 | ⑪ 충청북도 | ⑫ 충청남도 |
| ⑬ 전라북도 | ⑭ 전라남도 | ⑮ 경상북도 |
| ⑯ 경상남도 | ⑰ 제주특별자치도 | |

선문6

귀하께서 종사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 | | |
|------------------|------------------|
| ① 성남시청소년재단 | ② 재단소속 수정구 청소년시설 |
| ③ 재단소속 중원구 청소년시설 | ④ 재단소속 분당구 청소년시설 |
| ⑤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 ⑥ 기타 () |

선문7

귀하의 업무 경력을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① 5년 미만 | ② 5년 이상 ~ 10년 미만 |
| ③ 10년 이상 ~ 15년 미만 | ④ 15년 이상 ~ 20년 미만 |
| ⑤ 20년 이상 | |

문1. 다음은 청소년들의 삶의 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비하여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번	구분	매우 악화	◀	다 소 악 화	◀	비 슷 함	▶	약 간 양 호	▶	매우 양 호
		①	←-----	⑤	-----→	⑨				
1)	생활 자기 관리, 가족 관계, 주거 생활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진로 희망 진로에 대한 지식, 진로 계획, 진로 준비 과정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사회 관계 대인 관계, 친구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교육 교육 성과, 교육 지원, 학교 만족도, 교육받을 권리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환경 거주 지역의 위생 및 청결도, 유해 환경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	공공 참여와 상호 협력 정치 참여, 청소년으로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 사회 신뢰, 지역 사회 소속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7)	건강 개인의 신체 건강, 충분한 수면, 식사의 규칙성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	안전 안전한 등하교 및 귀갓길, 생활 환경의 안전, 학교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성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9)	학업과 생활과의 조화 충분한 여가 활동, 낮은 학업 스트레스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0)	주관적 만족 영역 자신감, 정서적 안정, 삶의 만족도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2. 다음은 우리사회의 변화요인입니다. 다음의 문제들은 미래의 청소년서비스 개선을 위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중요함	
1) 인구변화 (청소년인구 감소, 인구절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기술변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의 급격한 변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사회변화 (코로나블루, SNS활용증가, 혐오, 양극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교육변화 (비대면수업에 따른 학력/학습격차, 진로체험의 다각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경제변화 (저성장, 실업증가, 소득불평등, 생산성증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 청소년정책 변화 (청소년지도사 역량강화, 비대면사업활성화, 메타버스 방식 도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3. 다음은 우리사회의 변화요인입니다. 다음의 문제들과 관련하여 청소년서비스는 얼마나 적절하게 대응(성과적 측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미흡함			←	보통	→		매우 우수함	
1) 인구변화 (청소년인구 감소, 인구절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기술변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의 급격한 변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사회변화 (코로나블루, SNS활용증가, 혐오, 양극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교육변화 (비대면수업에 따른 학력/학습격차, 진로체험의 다각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경제변화 (저성장, 실업증가, 소득불평등, 생산성증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 청소년정책 변화 (청소년지도사 역량강화, 비대면사업활성화, 메타버스 방식 도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4. 포스트코로나를 포함한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시설의 새로운 신규사업의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제안하여 주세요.

문4-1. 사업대상 : 아동(9세~12세)

(가칭 사업명 :)

(사업의 간략한 내용:)

문4-2. 사업대상 : 청소년(13세~18세)

(가칭 사업명 :)

(사업의 간략한 내용:)

문4-3. 사업대상 : 청년(19세 이상)

(가칭 사업명 :)

(사업의 간략한 내용:)

문5. 포스트코로나를 포함한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변화(비대면 청소년서비스 강화, 비대면 수업의 증가에 따른 청소년의 학습환경 개선)의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제안하여 주세요.

()

문6. 포스트코로나를 포함한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변화(시설별 유형화를 통한 효율화 전략, 지역사회와 연계 강화 등)의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세요.

()

문7. 다음은 우리사회의 청소년서비스 추진체계 중 일선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크해주시고, 얼마나 잘 수행되고 있는지(성과 정도) 체크해주세요.

구 분		중요도									수행하는 정도(성과)								
		전혀 중요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중요함	매우 미흡	← 보통 →						매우 우수		
청소년 수련관	1) 인력규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인력의 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프로그램의 규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예산의 규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 예산편성시 시설의 특성반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7)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청소년 문화의 집	1) 인력규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인력의 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프로그램의 규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예산의 규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 예산편성시 시설의 특성반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7)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청소년 보호복 지시설	1) 인력규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인력의 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프로그램의 규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예산의 규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 예산편성시 시설의 특성반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7) 법령과 규정의 제도적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8. 다음은 우리사회의 청소년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거버넌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크해주시고, 동시에 얼마나 잘 수행되고 있는지(성과 정도) 체크해주세요.

구 분	중요도									수행하는 정도(성과)								
	전혀 중요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중요함		매우 미흡			← 보통 →				매우 우수	
1)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규모(범위 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의 다양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의 적극성(정례화된 회의 개최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 결과의 정책수용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새로운 지역사회 네트워크 발굴 노력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 지역연계 협업 사업 종류의 다양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7) 지역연계 협업사업의 활성화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 지역연계 협업사업의 발굴 노력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9. 다음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청소년서비스 개선관련 전략과제입니다. 미래의 청소년서비스 대응전략으로서 각 전략과제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략과제	전혀 중요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중요함	
A-1)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조직의 변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A-2) 지역 청소년사업의 성과관리 기능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A-3) 지역형 청소년 성장 데이터 구축 및 총괄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A-4) 비대면 청소년서비스 플랫폼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A-5) 시 혹은 재단에 청년정책 전담부서 설치 및 기능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B-1) 아동(9~12세)관련 사업 예산증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B-2) 청년(19세 이상)관련 사업 예산증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B-3) 지역의 산업시설과 연계한 청년일자리 정보지원사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B-4) 신기술(4차산업, 인공지능)대응 관련 사업발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B-5) 지역사회 청소년서비스 자원과의 연계사업 발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1) 청소년 사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2) 비대면 청소년 사업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3) 학교의 비대면 수업확대로 인한 다양한 격차 해소(기존 학습을 포함한 돌봄, 상담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4)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지역형 플랫폼 개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5) 비대면 사업강화에 따른 기존의 청소년공간 혁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1) 청소년생태계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화 마련(조례 제개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2) 포스트코로나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3) 청소년사업에 대만 민/재단 협업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4) 청년사업에 대한 민/재단 협업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5) 청소년과 청년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사업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10. 다음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청소년서비스 개선관련 전략과제입니다. 미래의 청소년서비스 대응전략으로서 각 전략과제가 얼마나 잘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략과제	매우 미흡함			←	보통	→		매우 우수함	
A-1)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조직의 변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A-2) 지역 청소년사업의 성과관리 기능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A-3) 지역형 청소년 성장 데이터 구축 및 총괄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A-4) 비대면 청소년서비스 플랫폼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A-5) 시 혹은 재단에 청년정책 전담부서 설치 및 기능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B-1) 아동(9~12세)관련 사업 예산증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B-2) 청년(19세 이상)관련 사업 예산증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B-3) 지역의 산업시설과 연계한 청년일자리 정보지원사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B-4) 신기술(4차산업, 인공지능)대응 관련 사업발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B-5) 지역사회 청소년서비스 자원과의 연계사업 발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1) 청소년 사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2) 비대면 청소년 사업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3) 학교의 비대면 수업확대로 인한 다양한 격차 해소(기존 학습을 포함한 돌봄, 상담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4)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지역형 플랫폼 개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5) 비대면 사업강화에 따른 기존의 청소년공간 혁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1) 청소년생태계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화 마련(조례 제개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2) 포스트코로나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3) 청소년사업에 대만 민/재단 협업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4) 청년사업에 대한 민/재단 협업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5) 청소년과 청년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사업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11. 다음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청소년서비스 변화를 위한 기타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설문3. 성남시청소년 개방형 서면 면접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수요분석과 대응전략 수립 연구

이름 ()

문1 **응답 청소년의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문2 응답 청소년이 거주하는 행정구역은 어디입니까?

- ① 수정구 ② 중원구 ③ 분당구 ④ 기타()

문3 응답 청소년이 재학하는 학교급은 어떻게 됩니까?

-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③ 기타()

문4 응답 청소년은 몇 학년입니까?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기타()

Q1. 코로나 19이후에 응답 청소년의 삶에 긍정적 변화는 무엇인가요?

- ① 가정생활에서의 긍정적 변화

$$\left(\begin{array}{c} \text{ } \end{array} \right)$$

- ## ② 학교생활에서의 긍정적 변화

$$\left(\begin{array}{c} \text{ } \end{array} \right)$$

③ 기타 긍정적 변화

()

Q2. 코로나 19이후에 응답 청소년의 삶에 부정적 변화는 무엇인가요?

① 가정생활에서의 부정적 변화

()

② 학교생활에서의 부정적 변화

()

③ 기타 부정적 변화

()

Q3. 현재 코로나 19가 바로 종식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포스트코로나 혹은 위드코로나의 개념으로 코로나 19는 아직 우리의 삶과 같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이 포스트코로나 혹은 위드코로나가 지속이 된다면 다음의 청소년 분야에 새롭게 필요한 것(청소년공간, 청소년시설 프로그램 등)이 무엇이 있을까요?

포스트코로나: 포스트(post, 이후)와 코로나-19의 합성어. 감염증 극복 이후에 다가올 상황/시기를 아울러 이름

위드코로나: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19를 예방하며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시기 또는 정책

① 청소년활동 분야의 새롭게 필요한 것(청소년공간, 청소년시설 프로그램 등)들을 적어주세요

()

② 청소년보호복지 분야의 새롭게 필요한 것(청소년상담서비스, 청소년정서지원 프로그램, 청소년복지지원 등)들을 적어주세요

()

설문4. 성남형 전략과제 도출을 위한 예비조사

[illegible]